

中央語文學會

第24次 全國學術大會

日 時：2010年 8月 20日（金曜日）10:30~17:30

場 所：남서울대학교 보건의료학관 16606

（보건의료학관 6층 시청각실 1~3호）

共同主催：中央語文學會 ・ 남서울대학교

中央語文學會

- 式 順 -

■ 회원 등록 (10:30 ~ 11:00)

■ 제1부 주제발표 - 분과별 진행 (11:00 ~ 12:00)

■ 중 식 (12:00 ~ 13:00)

■ 제2부 주제발표 - 분과별 진행 (13:00 ~ 16:30)

■ 제3부 종합토론 (16:30 ~ 17:00)

■ 폐회식 (17:00 ~)

※ 장소 : 남서울대학교 보건의료학관 6층 시청각실 1호 (고전문학 분야)
 시청각실 2호(현대문학 분야)
 시청각실 3호(국어학 분야)

- 중앙어문학회 제24차 정기학술발표회 분과별 세부일정 -

<현대문학 분야>

기획주제: 한국문학과 디아스포라-이주, 탈경계, 그리고 공간정치학

사회: (오전) 오혜진(남서울대)

사회: (오후) 한승우(중앙대)

시간	발표주제	발표자	토론자
11:00 ~11:30	신소설에 나타난 이민 모티프의 형상화 방식과 의미 고찰	최진옥 (서울대)	노연숙 (서울대)
11:30 ~12:00	이회성의 소설을 통해 본 20세기 코리안 디아스포라 루트	정은경 (원광대)	박죽심 (남서울대)
12:00 ~13:00	중 식		
13:00 ~13:30	趙基天論 -창작방법의 이념 지향을 중심으로-	김낙현 (중앙대)	홍원경 (강원대)
13:30 ~14:00	영농낙토론의 한 사례: 만주국의 조선인 농업 기술자들과 민족 표상의 작동 방식	김주현 (인제대)	손종엽 (선문대)
14:00 ~14:15	휴 식		
14:15 ~14:45	한운사 방송극과 디아스포라 - TV영화 <레만호에 지다>를 중심으로	윤석진 (충남대)	박명진 (중앙대)
14:45 ~15:15	오장환 시에 나타난 디아스포라 의식	오세인 (고려대)	염 철 (경북대)
15:15 ~15:30	휴 식		
15:30 ~16:00	경계인의 정체성 연구-재일조선인 김시중의 시세계	오창은 (단국대)	류찬열 (중앙대)
16:00 ~16:30	이름 없는 자들이 벗어낸 삶의 모습, 다시 쓰기 -구효서, 『랩소디 인 베를린』을 중심으로	진설아 (중앙대)	김효석 (남서울대)
16:30 ~17:00	종합 토론		

<고전문학 분야>

사회: 이명현(중앙대)

시간	발표주제	발표자	토론자
11:00 ~11:30	墨竹 題畫詩를 통해 본 風·雨의 象徵性 考察 -風竹·雨竹을 중심으로	곽지영 (중앙대)	임두정 (강원대)
11:30 ~12:00	近代 歴史小説의 스토리텔링 樣相 研究 -구활자본 「南怡將軍實記」를 중심으로-	유권석 (남서울대)	함복희 (강원대)
12:00 ~13:00	중 식		
13:00 ~13:30	<화양노정기> 고찰	이효숙 (강원대)	정경훈 (충남대)
13:30 ~14:00	춘향전 재고: '신분'과 '자아실현'의 문제를 중심으로	전이정 (서울시립대)	강우규 (한국어문 교육연구회)
14:00 ~14:15	휴 식		
14:15 ~14:45	소파 오효원의 시에 나타난 주체적 여성의식 -소파여사시집 상편을 중심으로-	임보연 (경희대)	정영문 (송실대)
14:45 ~15:15	梅窓의 한시에 나타난 청각적 이미지 연구	김선현 (숙명여대)	김재룡 (원광대)
15:15 ~15:30	휴 식		
15:30 ~16:00	김정희 한시에 대한 고찰	정숙인 (남서울대)	최흥렬 (중앙대)
15:00 ~16:30	<倡善感義錄>의 出生譚과 超越界의 敘事的 機能	김용기 (중앙대)	허원기 (건국대)
16:30 ~17:00	종합 토론		

<국어학 분야>

사회: 최홍열(강원대)

시간	발표주제	발표자	토론자
11:00 ~11:30	후행모음의 피치를 고려한 한국어 평음/경음/격음의 인지실험	정윤자 (단국대)	박선옥 (가톨릭대)
11:30 ~12:00	근대 계몽기 교육학과 어문 교육	허재영 (단국대)	오충연 (숭실대)
12:00 ~13:00	중 식		
13:00 ~13:30	단어의 다중의미 관계 유형 연구	이민우 (경희대)	정성미 (강원대)
13:30 ~14:00	外國人 학습자를 위한 韓國語 학습용 基礎漢字의 選定 - 初・中級 漢字語를 中心으로 -	홍자영 (강원대)	유해준 (중앙대)
14:00 ~14:15	휴 식		
14:15 ~14:45	嬰幼兒 音聲의 發聲制約 - 1~18개월을 중심으로 -	배재연 (한림대)	조재형 (중앙대)
14:45 ~15:15	재현성과 영주어 언어	엄홍준 (중앙대)	이영재 (고려대)
15:15 ~15:30	휴 식		
15:30 ~16:00	한국어 보조용언 구문의 통합관계	이정훈 (서강대)	임창국 (중앙대)
16:00 ~16:30	이동 통제 이론과 한국어	김용하 (안동대)	심보경 (한림대)
16:30 ~17:00	종합 토론		

發 表 文

<현대문학>

1. 신소설에 나타난 이민 모티프의 형상화 방식과 의미 고찰 최진옥(서울대학교)	1
2. 이회성의 소설을 통해 본 20세기 코리안 디아스포라 루트 정은경(원광대학교)	13
3. 趙基天論 -창작방법의 이념 지향을 중심으로- 김낙현(중앙대학교)	15
4. 영농낙토론의 한 사례: 만주국의 조선인 농업 기술자들과 민족 표상의 작동 방식 김주현(인제대학교)	33
5. 한운사 방송극과 디아스포라 - TV영화 <레만호에 지다>를 중심으로 윤석진(충남대학교)	43
6. 오장환 시에 나타난 디아스포라 의식 오세인(고려대학교)	53
7. 경계인의 정체성 연구-재일조선인 김시종의 시세계 오창은(단국대학교)	75
8. 이름 없는 자들이 벗어낸 삶의 모습, 다시 쓰기 -구효서, 『랩소디 인 베를린』을 중심으로 진설아(중앙대학교)	85

〈고전문학〉

1. 墨竹 題畫詩를 통해 본 風·雨의 象徵性 考察 -風竹·雨竹을 중심으로 곽지영(중앙대학교)	99
2. 近代 歴史小説의 스토리텔링 樣相 研究 -구할자본 「南怡將軍實記」를 중심으로- 유권석(남서울대학교)	107
3. <화양노정기> 고찰 이효숙(강원대학교)	121
4. 춘향전 재고: '신분'과 '자아실현'의 문제를 중심으로 전이정(서울시립대학교)	135
5. 소파 오효원의 시에 나타난 주체적 여성의식 -소파여사시집 상편을 중심으로- 임보연(경희대학교)	137
6. 梅窓의 한시에 나타난 청각적 이미지 연구 김선현(숙명여자대학교)	149
7. 김정희 한시에 대한 고찰 정숙인(남서울대학교)	161
8. <倡善感義錄>의 出生譚과 超越界의 敘事的 機能 김용기(중앙대학교)	169

〈국어학〉

1. 후행모음의 피치를 고려한 한국어 평음/경음/격음의 인지실험 정윤자(단국대학교)	187
2. 근대 계몽기 교육학과 어문 교육 허재영(단국대학교)	197
3. 단어의 다중의미 관계 유형 연구 이민우(경희대학교)	211
4. 外國人 학습자를 위한 韓國語 학습용 基礎漢字의 選定 - 初 . 中級 漢字語를 中心으로 - 홍자영(강원대학교)	229
5. 嬰幼兒 音聲의 發聲制約 - 1~18개월을 중심으로 - 배재연(한림대학교)	231
6. 재현성과 영주어 언어 엄홍준(중앙대학교)	239
7. 한국어 보조용언 구문의 통합관계 이정훈(서강대학교)	247
8. 이동 통제 이론과 한국어 김용하(안동대학교)	251

<현대문학>

기획주제: 한국문학과 디아스포라-이주, 탈경계, 그리고 공간정치학

신소설에 나타난 이민 모티프의 형상화 방식과 의미 고찰

최진옥(서울대학교)

<목 차>

1. 서론
2. 이민의 양상과 지리적 상상력
 - 2.1. 하와이·멕시코 이민과 문명개화의 접근성
 - 2.2. 러시아·간도 이민과 새로운 공동체 공간의 모색
3. 여성 인물의 이민 좌절과 문명 인식의 관계
4. 결론

1. 서론

임화가 신소설의 특징을 전대의 가정소설의 요소를 답습한 것으로 규정¹⁾한 이래, 많은 신소설 연구가들에게 신소설은 처첩·고부 갈등의 서사를 중심으로 한 가정소설로 평가되어 왔다. 신소설은 주로 여성 인물들이 가정 내의 갈등으로 인해 집 밖을 떠났다가 다시 집 안으로 귀환하는 구조를 취한다. 그런데 신소설에 등장하는 집(가정) 밖의 세계는 조선이라는 국가적 경계 안의 한 공간으로 국한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경계를 넘어서 외국이라는 외부 공간으로 확장되기도 한다. 이인직의 「혈의 루」(1906)에서부터 일본, 미국, 영국 등 조선의 지리적 경계를 넘은 외국 공간은 신소설에서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여성 주인공에게 외국이 주로 유학의 장소로 묘사된다면, 남자 주인공에게 외국은 개화 인사들의 유학의 장소로는 물론 유람과 여행의 장소로도 묘사된다. 이 경우 일본, 미국, 영국 등은 서양의 신문명을 습득할 수 있는 '신교육의 장소'가 된다. 그런데 유학을 통해 문명의 직접적 수혜를 받지 않는 경우라도 남성 주인공이 외국 여행을 통해서 가정의 기회를 갖는다는 점에서 외국은 조선인이 문명인이 되기 위한 통과외례적인 공간이 된다. 하지만 이들이 배우는 '신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은 작품 안에서 서술되지 않은 뿐더러, 외국 유학에서 돌아온 인물들은 실제 조선의 개혁 과정에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작가들은 작품 안에서 조선인 외국 유학생들의 귀국 이후의 개혁적 모습을 그려 내지 않고(또는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남녀의 결혼문제라는 가정 내의 문제로 서사의 방향을 전환시키고 있다. 그만큼 신소설 작가들에게 외국, 외국 유학이란 피상적인 관념의 대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²⁾

한편, 1900년대 후반부터, 신소설에서 외국은 신문명을 수혜받기 위한 유학의 공간이 아닌, 이민(이주)의 공간으로 새롭게 묘사된다. 이는 1903~5년에 있었던 하와이 노동 이민과 1905년의 멕시코

1) 임화, 「개설 신문학사」, 「신문학사」, 임규찬·한진일 편, 한길사, 1993, 164~165면.

2) 정혜영은 「혈의 루」를 비롯한 다수의 신소설에서 발견되는 유학을 관념으로서의 공부, 혹은 실체를 지니지 못한 것으로 설명하면서, 신소설의 인물들의 맹목적인 유학을 '문명개화'를 향한 '광적'인 열정으로 표현하고 있다. (정혜영, 「신소설과 외국유학의 문제-이인직의 <혈의 루>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20, 한국현대소설학회, 2003, 193~213면)

코 이민이라는 역사적 현실과 관련된다. 유정수의 「송희금(松嶺琴)」(1908)에 나타난 하와이 이민 모티프를 시작으로 이해조의 「원앙도(鵲鵲圖)」(1908), 「보란병(牧丹屏)」(1909), 「원하가인(月下佳人)」(1911)에서도 하와이 이민, 멕시코 이민 모티프는 소설의 중심 서사와 긴밀하게 또는 자유롭게 연결되면서 등장한다. 또한 하와이, 멕시코 이민과 함께 이 시기 신소설에는 러시아 연해주 이민과 간도 이민이 다뤄지고 있다. 러시아 연해주(해삼위, 추풍) 이민을 다룬 이해조의 「소학령(巢鶴嶺)」(1912), 간도 이민을 다룬 빙허자의 「소금강(小金剛)」(1910)이 이에 해당한다.

기존의 신소설들이 ‘문명국의 기호’로서 미국, 일본이라는 공간을 관습적으로 소설 안으로 끌어들이었다면, 포와(하와이), 목서가(멕시코), 러시아(해삼위, 추풍), 간도(서간도) 등으로의 공간의 확대는 소재 상의 참신함과 함께 신소설 작가들이 민족의 현실 문제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기존의 논의에서도 바로 이 점, 즉 1900년대의 노동 이민이라는 역사적 현실을 신소설 작가들이 소설의 소재로 도입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노동 이민’이라는 소재가 주는 참신성에만 의미를 부여했다. 최원식은 「송희금」, 「원하가인」, 「소학령」이 각각 하와이, 멕시코, 러시아로의 노동이민을 소재로 했다는 소재의 특이성에 주목하여, 작품의 서사와 관련한 노동 이민의 역사적 상황에 대해서만 서술하고 있다³⁾. 표언복 역시 미국으로의 이주 양상에 초점을 맞추어⁴⁾ 1900년대 신소설에서 다룬 미국 내 유이민의 문제에 주목하고 있지만, 이 논의 역시 본격적인 텍스트 분석을 하는 대신, 작품의 내용과 당대 사회적 상황을 연결시켜 설명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다.⁵⁾

하지만 이는 기존 연구자들이 지닌 논의의 한계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 이민의 문제를 소극적·피상적으로 다룬 신소설의 한계를 지적한 표언복의 논의⁶⁾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차적으로 신소설 텍스트들은 이민의 생활상을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다. 즉, 신소설 작가들은 1900년대 노동 이민자의 현실, 즉 이산으로 인한 민족 간의 갈등, 제외 거주 한국인들의 내적 갈등, 정체성에 대한 고민의 양상까지는 천착하지 못하였다. 이런 점에서 볼 때, 1900년대의 이민의 현실을 다룬 신소설들이 본격적인 ‘디아스포라(diaspora)’의 문학이 되지 못한다는 평가는 일면 타당한 분석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시의 신소설 작가들이 노동 이민의 현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취득하기에는 시간적, 공간적 제한이 있었음을 고려할 때, 위에서 언급한 한계들을 꼭 작가 개인의 문제로 돌릴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오히려 이들 신소설 작가들이 이민이라는 소재를 다루면서 새로운 공간 속에 어떠한 지리적 상상력을 투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는 또한 문명개화, 유학의 공간으로서 외국을 묘사하던 기존의 방식과의 비교를 통해 그 의미가 온당하게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민 모티프를 다룬 작품들의 서사를 보면, 이민 이후의 서사보다는 이민의 과정(여정)이 중요하게 다뤄진다. 이는 다시 말해 이민의 서사가 조선이라는 공간적 경계를 넘어서 새로운 세계 속에 편입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그 공간적 경계를 넘어선다는 것은 단순히 국가적 경계를 넘어선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하와이·멕시코 이민의 경우에서 보듯이 근대라는 추상적 경계를 넘어서는 작업과 연결될 수도 있고, 러시아·간도 이민에서 보듯이 뿌리

3) 최원식, 「신소설과 노동이민」, 『한국근대소설사론』, 창작사, 1986, 262~285면.

4) 표언복은 이민의 종류를 노동 이민에만 국한하지 않고 유학을 목적으로 한 유민도 이에 포함시킴으로써 좀 더 폭넓은 차원에서 미국으로의 이주 양상을 고찰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유학을 목적으로 한 미국 이주를 다룬 작품인 「혈의 루」, 「은세계」 등도 분석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표언복, 「미국유이민의 발생과 신소설」, 『어문연구』 제 30집, 충남대학교 문리과대학 어문연구회, 1998)

5) 위의 글, 381~396면.

6) 표언복은 유이민의 문제가 작품마다 극히 제한적이고 소극적으로만 다루어짐으로써 작품의 중심내용이 되지 못한 점, 그로 인해 그 내용 또한 대단히 피상적이고 안일하게 처리되어 있는 점을 유이민 소재를 다룬 신소설의 한계로 지적하고 있다. (위의 글, 392면)

뿔뿔한 자들이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작업과 연결될 수도 있다. 또한 이민을 소재로 한 신소설에서 작가들이 중심 서사로 다루고 있는 것은 이성 인물들의 이민(이주)의 과정이다. 이민 소재 신소설에서 가장(家長)인 남성 인물들은 이미 홀로 이민 지역의 안으로 편입된 상태다. 따라서 이민과 관련되어 공간적 경계를 넘어서는 것은 이성 인물들의 몫이 된다. 그렇다면 왜 하필 신소설 작가들은 이성의 경계 넘기에 주목하고 있을까? 이성의 경계 넘기의 양상과 그 의미를 밝히는 작업은 신소설에서 다뤄지는 이민의 의미를 추적하는 또 하나의 시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외 이민을 소재로 한 신소설들을 살펴볼 것인데, 그 대상 작품은 다음과 같다. 하와이·멕시코 노동 이민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각각 육정수의 「송퇴금」(박문서관, 1908)과 이해조의 「원하가인」(『매일신보』, 1911. 1. 18~4. 5/ 보급서관, 1911)을, 러시아 이민을 다룬 작품으로 이해조의 「소학령」(『매일신보』, 1912. 5. 2~7. 6/ 신구서림, 1913)과 간도 이민을 다룬 작품으로 憑虛子의 「소금강」(『대한민보』, 1910. 1. 5~3. 6)을 논의의 주요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그리고 소설 내에서 이민이라는 소재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이민의 모티프를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조의 「원앙도」(『제국신문』, 1908. 2. 13~4. 24/ 중앙서관, 1909)와 「보란병」(『제국신문』, 1909. 2. 13~?/ 박문서관, 1911)도 논의 대상에 포함시킬 논의할 것이다.

2. 이민의 양상과 지리적 상상력

2.1. 하와이·멕시코 이민과 문명개화의 접근성

하와이 노동 이민의 실체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다룬 작품으로 평가되는⁷⁾ 육정수의 「송퇴금」은 상권반 출간된 미완의 소설이다. 러일전쟁을 배경으로 하여 몰락한 관료인 김주사(김경식) 가족의 하와이 이민의 과정과 이충국의 상업 활동이라는 두 개의 서사가 교차·중첩되어 있다.

「송퇴금」에서 하와이 이민 모티프는 하와이로 먼저 이주한 김주사를 만나기 위한 나머지 가족의 이주의 서사로 드러나고 있다. 갑오경장, 동학혁명, 청일전쟁, 러일전쟁의 일련의 정치적 풍파 속에서 서울에서 평양, 다시 원산으로 쫓겨 와야 했던 김주사는 결국 하와이 이민전에 홀로 몸을 싣게 된다.⁸⁾ 1년 뒤, 김주사는 조선에 있는 가족들에게 하와이로 이주하라는 편지를 보낸다. 이때 김주사가 편지 속에서 묘사하고 있는 하와이는 열심히 일하면 미국으로의 편입이 가능한 기회와 땅, 즉 문명국 미국을 가기 위한 중간 단계로 설정되어 있다.

이 곳에 리도하여 몸은 무고하고 허는바는 주경 야독을 본 바들 짜름이요 이곳은 미국령디인디 룡장의 리가 풍족함으로 로동싱할 허는자에게 일디 취집쳐라 범벅이 었지 본국에 잇슴곳트리요 마는 근근히지나면 족

7) 「송퇴금」에 대한 논의로는 최원식, 앞의 글; 최원식, 「제국주의와 토착자본-「송퇴금」소고」, 『한국근대소설사론』, 창작사, 1986; 윤명구, 「육정수 연구」, 『인하대 논문집』 제 14집, 1988; 김종철(金鉉澈), 「한말 민족현실과 신소설-「송퇴금」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제 5집, 아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4; 양진오, 「신소설이 재현하는 20세기 초반의 한반도 현실-「송퇴금」에 나타난 러일전쟁의 문제를 중심으로-」, 『아시아문화』 제21호,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04; 양진오, 「육정수의 「송퇴금」 연구-근대적 주체의 모색과 좌절의 의미를 중심으로-」, 『어문론총』 제 42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05. 6 등을 참조.

8) 김종철은 육정수가 개화파의 가정에서 태어났으나 정치적 격변 속에 부친이 망명하고 가족이 이산하는 경험을 소년기에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송퇴금」에서 갑오경장 때 관직에 나갔던 김주사의 가족이 어떤 사건으로 평양으로 내려가고 뒤이어 전쟁 등으로 거듭 고난을 당하는 내용의 원체험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하고 있다. (김종철, 위의 글, 67면)

히 한집을 슈제홀지라 싱할호는 방편은 계아 외가에 자서히 말습호였스나 봄되기를 슈제홀지라 싱할호는 방편은 계아 남미를 다리고 이곳으로 오시면 일가에 단취를 가히 일을 것이요 또한 이 후로 한봉이 장성흙을 기다려 미국으로 향하야 공부를 가라쳐 오날 날 나의 뜻을 이어 국가에 한 지목이 되어 동포에게 돕는힘이 있게호면 조홀듯호오 진스집에도 말습 호얏거니와 오날새 갓치오면 튼튼홀듯 사람이 세상에 나매 고초우환을 순슈흙이 가히니 본향을 썩남으로 기의마시웁고 평양으로 낙향흙과 원산으로 썩남과 또한 다시 이 곳으로 옴이 무슨 다름이 잇스리요 오죽 도로 원근 썩이라 또한 나무입히 가을을 당호미 뿌리로 향호는것과 갓치 이 곳으로 오더리도 종당은 조국으로 도라갈터이니 부디 쥬저말고 결정호시오 …(후략)… 팔월 초일일 이곳 김경식 상장 미국영디 하와이골로아 한인통장유⁹⁾ (강조- 인용자)

“미국 영지”로서의 하와이라는 김주사의 인식에는 ‘노동이민’으로서의 하와이로의 이주라는 인식이 약화되어 있다. 오히려 김주사는 하와이 이주가 아들 한봉이가 국가와 동포를 위한 근대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일본에서 근대적 교육을 수혜받은 김주사는 근대적 지식인의 입장에서 하와이를 문명국(미국)에 도달하기 위한 경유지로 인식한다. 두 차례의 전쟁(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결과로 조선 내 일본인의 이종양육이 등장하는 상황적 변화를 감지한 김주사는 조선을 더 이상 고향이 아닌 “남의 전디”로 생각한다. 이는 김주사가 조선 내의 거주지의 이동(평양으로의 낙향과 원산으로의 이주)을 조선 밖 하와이로의 이민과 동일하게 여기는 심리적 거리 감각과 연결된다. 김주사가 하와이에 부여하는 문명국의 경유지로서의 이미지는 작가 육정수의 지리적 상상력과 연관되는데, 이는 계육이 지니는 문명에 대한 열망, 하와이 이주에 대한 열망으로 나타난다. 부친인 김주사로부터 어학과 음악 등을 배운 계육의 하와이에 대한 인식은 김주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와이로의 이주를 걱정하는 모친에게 계육은 “지금타국을 이웃집단이듯 호는디 엇디탄 말습이요 이간 고성이 된다호는 한봉이 합일을 생각호면 고성이 무엇이오니지 학문도 안이가라치 이 시간구석에 두면 나는 새를 결박호기지요.”라고 하며, 김주사와 동일한 지리 감각, 근대 교육에 대한 인식 등을 보여준다. 이처럼 「송퇴금」에서는 노동 이민의 현상으로서의 하와이보다는 문명국 미국에의 접근 가능성이 수월한 지역으로 하와이가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¹⁰⁾

이는 비슷한 시기¹¹⁾에 하와이로의 이민을 그리고 있는 이해조의 「원앙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원앙도」에서는 하와이 이주가 서사를 진행시키는 관련 모티프(bound motif)의 역할을 하

9) 육정수, 「송퇴금」, 「신소설·변안(역)소설 2」, 아세아문화사, 1978, 337면.

10) 김주사와 계육이 하와이 이민에 대해 가진 이상적 태도와는 대조적으로 근암 이종국의 서사에서는 근암과 우초, 군수와와의 대화를 통해 하와이 이민의 사기성, 불법성이 폭로되고 있다. 근암의 입을 통해 작가는 제국주의 열강의 이권과 관련된 하와이 노동이민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를 묵인한 정부 관료들을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하와이 이민의 성격을 바라보는 이러한 시각은 하와이 이민에 대한 후대의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하와이 이민의 성격에 대해서는 하와이 이민 역시 멕시코 이민과 마찬가지로 노예 이민의 성격이 짙었다는 견해와 다른 한편으로는 멕시코 이민의 선례로서 하와이 이민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상반되는 견해가 존재한다.), 육정수가 작품 안에서 하와이 이민에 대한 이러한 상반된 인식을 보여주는 의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 근암을 통해 보여주는 하와이 이민의 부당성이 군수와와의 대화를 통해서만 드러나고 있을 뿐, 김주사 가족의 서사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하와이 이민에 대한 근암의 비판적 인식을 하권에서는 사건 전개와 주요한 요소로 다루려는 작가의 계획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하권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상권만을 보았을 때, 근암의 비판적 인식이 전체 서사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못하다. 양진오도 근암의 서사에 나타난 하와이 이민의 불법성을 주목하면서도 이러한 인식이 작품 안에서 심층적으로 천착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양진오(2004), 앞의 글, 104면)

11) 「원앙도」의 서지사항에 관해서는 최원식 교수가 ‘바로 잡은 이해조 작품 서지’(『한국계몽주의문학사론』(소명출판, 2003) 2부 4장)에서 밝힌 서지사항을 따르도록 하겠다. 그에 따르면 「원앙도」는 「제국신문」에 1908년 2월 13일부터 4월 24일까지 연재되었고, 1909년 중앙서관에서 발행되었다. 이후 1911년 12월 30일에 보급서관과 동양서원에서도 발간되었다.

는 것은 아니지만, 소설의 마지막에서 주인공들의 행보와 관계된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원앙도」의 전반부가 발불과 금쥐의 지혜 겨루기 과정을 흥미롭게 서사화하고 있다면, 후반부에서는 정치적 이유로 인한 금쥐 집안의 몰락과 그로 야기된 발불과 금쥐의 혼사 장애가 중심 서사를 이루고 있다. 특히 우이곡질 끝에 발불과 금쥐는 혼인하고 발불은 금쥐, 금쥐의 부친 조감사와 함께 포와(하와이)로 이주한다. 그리고 그들의 이주 목적은 서양 학문의 습득을 통해 국가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제시된다. 다소 갑작스러운 결말이기는 하지만, ‘하와이 이주=해외 유학’의 공식이 등장하고 있는 점은 「총퇴금」에 나타난 하와이에 대한 인식과 유사하다. 이처럼 이 시기 하와이는 미국의 영지라는 인식 때문인지, 근대 문명을 습득할 수 있는 공간으로 묘사되고 있다.

하와이를 문명, 근대적 지식과 연결시키고 있는 신소설 작가들의 지리적 감각은 멕시코 이민을 다룬 소설과의 차이를 통해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하와이 노동이민과 달리, 신소설 작품들에서 목서가(멕시코)로의 노동 이민은 참혹한 실상 자체가 강조되고 있다. 멕시코로의 이민의 실태를 본격적으로 그린 소설은 「원하가인」이다. 물론 「원하가인」 이전에 「보란병」에서 멕시코 이민은 자유 모티프(free motif)로 등장한다. 유학을 위해 타국으로 떠난 아들 수복을 걱정하는 장씨 부인을 축이 제물을 빼앗으려는 조카 수득은 수복의 종적을 거짓으로 꾸며 장씨 부인에게 편지를 한다. 이때 수득은 수복이 목서가에 팔려가 배를 맞으며 노동을 하는데, 그 생사존몰을 알 수 없으므로 이비를 마련해 주면 자신이 종적을 탐지해보겠다는 거짓말을 한다. 그런데 수복의 목서가 고생담을 수근이 세 귀로 들은 듯이 이야기했다는 것은 당시 목서가 이민에 관한 기사가 대중에게도 익숙한 것이었음을 암시한다.

멕시코와의 외교적인 교류조차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반 민중에게 ‘墨西哥’라는 이름조차 생소했던 당시 조선의 상황에서 멕시코로의 노동 이민은 성공적인 하와이 이민과 관계되었다. 이민자들을 모으기 위해 일본 이민회사는 하와이 이민을 사칭하며 멕시코 이민자들을 모집하기도 했다. 또한 멕시코를 전혀 알지 못했지만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과 닮았다고 판단한 조선인들은 하와이 이민 사례를 고려하여 노동 계약을 맺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¹²⁾ 한편, 1905년을 전후하여 황성신문, 제국신문, 경향신문, 대한매일신보 등에서 멕시코 문제가 기사화되었는데, 「황성신문」의 「목국이주민 참상」이라는 제하에 실린 기사는 멕시코 계약 노동에 의한 노예 노동자의 참상을 보인 주었다.¹³⁾ 그리고 멕시코 이민의 참상이 샌프란시스코의 중국계 신문 「문흥보」에 보도되면서 국내 여론의 관심도 고조되었고, 1905년 8월 상동청년회 주최로 가 단체 연합 정보대회가 열렸다.¹⁴⁾ 이후 제민동포 신문인 공립신보에도 멕시코 이민의 참상이 계속해서 보도되었는데, 이러한 공식 매체를 통해 멕시코 이민의 불법성은 조선사회 내에서도 공론화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멕시코 이민은 경제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었지만, 당시의 공식적인 매체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노예와 다를 바 없는 노동 이민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원하가인」은 당시의 공식 매체를 통해 알려진 이민회사의 개발 광고의 허위상에서부터 멕시코 현지지의 참상에 이르기까지 멕시코 이민의 실상을 보이줌으로써 현실성을 획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멕시코 노동이민 이면에 존재하는 제국 일장의 이해관계에 대한 작가의 인식은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 멕시코 노동 이민의 참상은 당시에 공식매체를 통해서 이해조도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해조는 이를 개화, 문명의 관점에서 멕시코를 야만

12) 이종득, 「멕시코 한인 이민자들의 성격과 정체성 변화」, 『서어서문연구』 제 28집, 한국서어서문학회, 2003, 700면.

13) 김귀옥, 「1905년 멕시코이민 한인노동자 연구-하와이이민과 비교하면서-」, 『재외한인연구』 제 5집, 재외한인학회, 1995, 165, 185면.

14) 최원식, 「신소설과 노동이민」, 앞의 글, 279면.

국에 위치시키고, 근대 문명국으로서의 미국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원하가인」에서는 나타난 몇 가지 서사적 장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 멕시코 노동 이민의 주인 공으로 몰락양반인 심진사를 설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갑오동학란으로부터 비롯된 양반층의 몰락은 갑오경장 직후 근대식 학교 제도가 정비되면서 글방 선생이라는 심진사의 최소한의 생계자리마저 박탈해 간다. 심진사의 멕시코 노동이민 행에는 갑오(1894)년 조선 사회의 정치적·사회적 변화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것은 실제로 멕시코 이민 모집은 1904년의 일로서, 소설 속 심진사의 멕시코 이민과 역사적 멕시코 이민 사이에는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적 격차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원하가인」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에서는 이러한 시간적 불일치를 지적하고 있지만, “일종의 시대착오(anachronism)”¹⁵⁾로 언급할 뿐이다. 1904년은 역사적으로 러일전쟁이 발발한 해이다. 러일전쟁과 해외 노동이민이 일대일의 관련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지만, 러일전쟁이 국제 관계에 미친 영향은 상당했으며 이는 조선의 노동이민 상황에도 영향을 미쳤다. 1905년 러일전쟁에서의 일본의 승리는 조선인의 하와이 이민의 금지를 비롯한 공식적인 해외 이민금지의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¹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조가 심진사의 멕시코 이민을 1894년의 상황과 연결시킨 것은 개인의 몰락을 문명개화의 관점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작가의 관점이 강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조의 문명개화에 대한 열망은 멕시코 농장에서의 정운조의 죽음을 통해 멕시코 노동 이민의 야만성을 부각시키고 상대적으로 미국이라는 문명국으로의 진입이라는 개화의 환상을 극대화한다. 청국인 왕대춘에 의해 멕시코 농장에서 탈출해 위싱턴으로 이동한 심진사는 한 예수교 목사의 집에서 하루 두 차례 유리창 닦기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실업학교에도 입학하여 근대적 지식을 습득한다. 이는 멕시코에서의 야만적 노동과 상반되는 것으로, 여기에는 돈도 벌면서 공부도 할 수 있다는 문명국에 대한 환상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하와이, 멕시코 이민이라는 당대의 시의성 있는 소재를 차용하면서도 진소설 작가들이 노동 이민의 역사적 의미를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한 것은 이와 같은 진소설 작가들의 문명개화에의 맹목적 열정과 연결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문명에 대한 그들의 맹목적 열정은 당시의 노동 이민 이면에 있었던 제국주의적 논리를 간파하지 못한 채, 문명과 야만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미국(문명)-하와이(문명 또는 반문명/문명의 경유지)-멕시코(야만)라는 공간지리 속에 투영하고 있는 것이다. <원하가인>에서부터 비롯된 「미국=문명」이라는 도식은 이민을 소재로 한 진소설에서도 변형·확대되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2.2. 러시아·간도 이민과 새로운 공동체 공간의 모색

태평양 너머의 하와이·멕시코 노동 이민이 1900년대 초반 일시적으로 이루어졌던 조선인 이민의 한 형태였다면 러시아·간도 이민은 이즈 말기부터 시작된, 경제적 궁핍으로 인한 농민의 자발적 이주였다. 하와이·멕시코 이민 소재 소설 속에서 이들 이민들이 「미국」과의 연관 속에서 문명개화의 척도라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면, 러시아·간도 이민을 다룬 이해조의 「소학령」과 병희자의 「소금강」은 이민을 형상화하는 방식에 있어서 하와이·멕시코 이민 소재 작품들과 다소 차이를 드러낸다.

이해조의 「소학령」은 이해조의 작품 중에서 상대적으로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한 작품이

15) 권보드래, 「진소설의 성(性)·계급·국가」, 『여성문학연구』 20, 한국여성문학학회, 2008, 30면.

16) 이영민, 「미국 자본주의의 지구적 확산과 초기 하와이 이민: 제국주의 시대 국제인구이동의 원인과 배경 재해석」, 『문화역사지리』 제14권 제3호,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02. 12, 64면.

다. 하지만 당시의 신소설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았던 러시아 연해주로의 이민이라는 소재를 다루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소설이다. 이 소설 역시 「총퇴금」처럼 러시아 이민자의 이민 이후의 삶과 정체성을 서사화하기보다는 강한영 가족의 이산과 고난을 통한 제결합의 과정을 주요 서사로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이정의 과정이 자세하게 서술됨으로써 러시아 해삼위, 추풍이라는 공간이 다소 현실적으로 다가온다. 또한 이정의 과정에서 소박하게나마 공간의 이동에 따른 정체성의 문제가 묘사되고 있으며, 다른 민족과의 갈등을 통한 민족 정체성의 추구가 아닌 조선 동포간의 갈등을 서사의 주요 사건으로 삼고 있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추풍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개척한 가장 강한영을 찾아가는 강서방 백 홍씨 부인, 아들 동이, 강위영(강한영의 동생)은 조선이라는 국경을 넘어 해삼위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국가 간의 경계를 인식하기 시작한다. 한 번도 집 밖 고국을 떠나본 적이 없는 홍씨 부인은 고향을 떠나기 전 막연하게나마 고국을 떠나 타국에서 정착하게 되면, 어린 아들 동이가 “고국 일을 전혀히 알지 못하고 아라사 사람이 되고 말” 것을 염려한다. 국가의 경제 너저서기와 민족 정체성을 연결시키는 홍씨 부인의 인식은 추상적이거나 이민자가 겪을 수 있는 현실적인 고민이다. 그리고 해삼위를 들어서는 순간, 러시아 화폐를 사용하거나 몸표(외국인의 신분을 보장하는 증서)를 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타국으로서의 해삼위에 대한 인식은 보다 명확해진다. 하지만 해삼위라는 공간은 단지 타국이라는 인식을 너저서 삶의 근거지를 잃은 동포의 새로운 근거지로서 인식된다. 이는 해삼위 조선인 민단의 구성과 민단에 대한 인식과 관련된다.

「지금 민정의 말씀에 대하여 우리 일반 동포들이 누가 감히 가치 않다 하오리까? 사한부터도 아무쪼록 처신을 정당히 하고 무리한 욕심을 내지 말아, 민정의 말씀과 같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보호하고자 합니더만, 한 가지 위험한 일은 도저히 방이할 수 없읍니다. 무엇이 그러하냐 하면, 이곳은 친화 각국 사람이 모여 사는 지방이라, 각각 연이가 다르고 풍속이 같지 못하여 배양 의사가 소동치 못하는 까닭에 의외 중들이 종종 일어나는데, 그러한 중들은 상당한 매력을 좇아 뽕재되기가 이뉘지 아니하되, 제일 방이키 극난한 것은 흥평자의 청인의 야만행위를시다....(후략)…」¹⁷⁾

「...〔진략〕... 지금 이십세기에 저 대만생민의 부락들도 모국의 문명을 받아 날로 진화되이 상당한 범위에서 능히 생명·재산을 보전하기든, 하물며 우리가 그 문명을 못 받고 동포의 생명·재산을 전탈(侵奪)하면 이제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소? ...〔후략〕...」¹⁸⁾

하와이, 멕시코 이민이 신소설 작가들에게 정착의 공간보다는 돈을 벌기 위한 일시적 이주의 공간이나 문명과의 연관 속에서 그려졌다면 러시아 이민은 조선 동포들의 새로운 삶의 공간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것은 러시아 연해주가 러시아인, 청인, 조선인, 일본인 등 다양한 인종이 공존하는 “혼종적이고 이질적인 공간”¹⁹⁾으로서, 고국을 떠난 조선인이 새로운 삶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의 공간이다. 물론 이러한 다양한 인종에 대한 묘사에는 작가의 문명의 서열 방식이 작동하고 있다. 이해조는 흥평자의 청인과 조선인 방인칠 형제의 야만적 행위를 비판하며, 홍씨 부인과 강위영을 돕는 조력자로 대학에서 지리학을 전공한 일본인을 등장시키고 있다. 물론 조력자를 일본인으로 상정하고 강한영의 부인을 ‘동포로서 구제’한다는 인식은 한일합방 후의 조선의 현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식민지인이 피식민지인을 구원한다는 제국주의

17) 이해조, 「소학령」, 『한국신소설전집』 3, 을유문화사, 1968, 328면.

18) 같은 곳.

19) 배정상, 「이해조의 「소학령(巢鶴嶺)」 연구 -재외(在外) 공간을 중심으로-」, 『사이』 제 5호,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08, 100면.

적 인식(정치적 인식)보다는 근대적 학문으로서의 자리를 연구한 자의 문명론적 인식에서 파라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시각에서 보았을 때, 흥평자 청인의 야만적 행위보다는 같은 조선인 동포의 생명과 재산을 침탈하는 행위를 더 부정적으로 파라보는 작가의 태도에 더 유의한 필요가 있다. 실제로 서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흥평 부인을 성적으로 취하려고 하는 방인철 형제의 반윤리적 반행과 이에 대한 징벌이다. 연해주라는 혼종적인 공간을 이해하는 민족 간의 갈등이라는 요소 대신 단지 금전(돈)을 쫓는 개인적 욕망이라는 요소로 파악하고 있다.²⁰⁾ 즉, 이해조가 러시아 연해주를 조선 동포의 새로운 삶의 공간으로 주목하면서도 이에 민족적 관계를 투영하지 않은 것은 이주 공간으로서의 러시아를 국가, 민족 간의 정치적 공간보다는 자본과 결부된 새로운 삶을 모색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소학령」의 발정치적, 발민족적 관점은 빙허자의 「소금강」에 나타난 정치적 관점과 대조적이다. 「소금강」은 해외 이민 모티프를 다루고 있는 이타의 신소설들과는 다르게 정치적 망명의 성격을 띤 이민을 소재로 하여 정치적 색채를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²¹⁾ 「소금강」은 임오군란의 실패 후, 부패한 정권에 맞서 인민을 구출하기 위해 만들어진 소금강 활민당의 모험을 서사화하고 있다. 전반부에는 구흥서, 안규원, 정달민의 활약상과 이들이 러포깁의 활민당에 들어가는 과정, 조선 안에서 활민당의 정치적 행동의 난절과 간도로의 이주 계획 수립 등이 그려진다. 안규원과 정달민의 북간도·해삼위보의 정치적 도피를 민족과 사상을 버리고 금전의 노예가 되는 것으로 비판하던 구흥서도 국경 안에서의 정치 활동이 봉쇄되자 국경 밖에서의 새로운 실천 가능성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후반부에는 활민당 당원들이 가족을 이끌고 서간도로 이주한 후, 왕대인이 이끄는 상마적 괴수의 침략을 막아내 서간도에서 개척지를 건설하고 정착하는 과정이 서술되고 있다. 그런데 활민당의 이민의 장소로 북간도가 아닌 서간도를 설정한 때에는 청국과 조선과의 역사적 배경 및 민족적 갈등 및 정체성의 문제가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간도의 영토 소유권의 문제와 그를 둘러싼 간도 이주민들의 입적 문제 등이 비판적으로 묘사되고 있다.²²⁾ 「소학령」

20) 실제로 「소학령」에서는 민족이라는 말이 등장(민족이라는 말이 쓰여야 할 자리에 인종이라는 말이 쓰임)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배경상은 이 작품에 나타난 '동포'라는 말에 주목한다. 그는 근대 계몽기에 등장하는 '동포'의 의미에 대한 기존 연구사를 참고(권용기, 「『독립신문』에 나타난 '동포'의 검토」, 『한국사상사학』 12집, 1999; 권보드래, 「동포(同僑)의 역사적 경험과 정치성」, 『근대계몽기 지식개념의 수용과 그 변용』, 소명출판, 2004; 권보드래, 「동포와 역사적 감각」, 『근대계몽기 지식의 발견과 사유 지평의 확대』, 소명출판, 2006)하여 「소학령」 속의 '동포'의 의미를 추출해 내고 있다. 그는 「소학령」에서 '고국'과 '타국'에 대한 정치적 관계가 부재하는 것에 주목하면서, 「소학령」의 동포는 민족주의자들이 요청했던 민족적 정체성과는 거리가 먼, 단지 국가적 영토 경계를 넘어 존재하던 조선인 집단을 대표하는 성격을 지닌 용어라고 해석하고 있다. (위의 글, 99~102면 참조)

21) 「소금강」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색채는 작가의 성향과 관련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소금강」의 작가인 빙허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다. 다만, 김복순은 당시 신문기자들이 자신이 종사하는 신문에 익명 또는 필명으로 소설을 발표한 예가 흔하다는 점으로 미루어 대한 협회 및 대한민보에 관계했던 작가인 이해조·육정수·이종린·안국선·신채호 중 한 명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하고 있다. 그리고 소설에서 보여지는 역사인식, 민족 지향적 성격 등으로 미루어 보아 신채호일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다. (김복순, 「신소설 <소금강>과 항일의병운동」, 『연세어문학』 20집,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7, 8~12면) 차미라 역시 김복순의 의견을 수용하여 빙허자가 신채호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김복순이 제기한 이유 외에 소설이 국문으로 쓰인 점, 「소금강」의 연재 중단 시기가 단재의 중국 망명 시기가 유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작자가 신채호일 가능성에 대해 추측하고 있다. (차미라, 「신소설 <소금강>의 민족주의적 성격」, 『새얼어문논집』 17집, 새얼어문학회, 2005, 54~55면)

22) 이 내용은 연재 31~32회(『대한민보』, 1910. 2.16~17)에 자세히 서술되고 있다. 활민당의 이민의 장소로 북간도가 아닌 서간도를 설정한 때에는 북간도가 외세의 침략이 빈번해 실력을 기를 여유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로 제시되고 있다. 서간도는 본래 조선의 영토였으나 선조가 이 땅을 소홀히 여겨 청국의 영지가 되었는데, 영토가 넓은 청국이 간도를 등한히 하자 조선의 농민이 이를 개척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

처럼 청인과의 간증을 다루면서도 이를 개인의 자본, 노동의 문제로만 치환하지 않고 국가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민족 정체성의 문제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구홍서의 부인인 오씨 부인을 두고 청인 바작난과의 간증을 삼입하는 것도 이러한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다. 간도 이민이라는 새로운 민족적 공간의 모색이 「소금강」에서는 국가, 민족의 문제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묘사됨으로써 이민(이주)의 문제를 국가적 정치 관계 속에서 풀어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주의 문제를 다루면서도 정치적인 부분을 되도록 소거하고자 했던 「소학령」의 이해주의 인식과 구별된다.

3. 여성 인물의 이민 좌절과 문명 인식과의 관계

해외 이민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일련의 작품들은 각각의 세계는 상이하다고 한지라도 서사구성에 있어서는 공통점을 드러낸다. 그것은 가족의 이산과 재회라는 서사의 큰 틀 속에서 이주한 가정으로 인해 나머지 가족들, 특히 여성 인물들이 시련을 겪는다는 점이다. 「송회금」에서는 부친을 따라 하와이로 이주하려는 딸 계옥의 시련, 「원하가인」에서는 심진사의 아내 장씨 부인의 고난, 「소학령」에서는 강한영의 아내 홍씨 부인의 고난의 서사가 작품 속에 등장하는 여러 사건들을 이끌어 가는 핵심 서사로 작용한다.²³⁾ 그런데 이들 여성 인물들의 이주는 실패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시도되지 않고 있다. 세 작품 모두 가정의 역할을 맡은 남성 인물들이 먼저 외국으로 이주한 상태인데, 「원하가인」의 장씨 부인은 남편 심진사의 소식을 모른 채 조선 내에서 성적 위협에 시달리며, 「소학령」의 홍씨 부인은 추풍으로 가는 여정에서 방인철 형제의 성적 위협에 처하게 된다. 각각 조선 안과 밖에서의 수난이라는 공간적 차이를 보이지만, 이 두 여성인물은 내적으로 가정 안에 머무르는 자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원하가인」의 장씨 부인은 심진사가 벼 시코 이민을 떠날 때도 대문 밖으로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는(“그남편뒤를팔대문턱까지노오다가그맛근마로큰길이라디나가지는못호고156), 육체적·정신적으로 철저히 가정 안에 갇힌 인물이다. 남편인 강한영을 만나기 위한 여정에 오른다는 점에서 「소학령」의 홍씨 부인은 육체적으로는 집 밖을 벗어났지만, 처음 오른 여로에서 파깁 세상에 대한 무지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집 안에 갇혀 있는 인물로 볼 수 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외부 세계, 곧 근대적 문명과 단절된 이들 여성 인물들은 육체적 위협(성적 위협)이라는 난제를 거치 다시 가정으로 복귀하게 된다.

하지만 이와 달리 「송회금」의 계옥은 하와이 이민을 가기 위한 안질 검사 단계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아 하와이 이민이 지연된다. 계옥의 안질 검사 불합격은 표면적으로는 계옥의 하와이 이주를 좌절케 하는 육체적 위협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를 단순히 육체적인 질병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평상에 발도 드러보지 못 하던 안질”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계옥의 눈병은 갑작스러운 것이며, 진단 상의 병의 심각성(“씨뉘어원”)과는 다르게 계옥의 눈병 치료과정에서는 병의 심각성이 그다지 부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계옥의 질병인 트라코마²⁴⁾는 육체적 질병인 아닌

리고 간도의 조선인을 보호하고 통치하는 관리자가 없었기 때문에, 자국사상이 부재한 간도 이주민들이 당장의 이익을 위해 청국에 입적을 했던 점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23) 본고에서 다루는 대상 작품 중에서 여성의 이주가 성공한 예는 「소금강」뿐이다. 「소금강」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인 오씨 부인은 구홍서의 부인이 되는 인물인데, 외부적(주로 성적) 위협에 처하는 보통의 신소설의 여성 인물들과 다르게 오히려 위험한 상황에 처한 남성 인물들을 지혜를 동원하여 구출해 준다는 점에서 예외적인 인물에 해당한다. 물론 상마적의 우두머리가 오씨 부인을 성적으로 취하려고 하는 사건이 등장하나, 오씨 부인이 직접적인 성적 위협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신소설들과 구별된다.

24) 1903년 1월 12일 호놀룰루 외항에 입항한 하와이 한인이민단 중 일부는 신체검사에서 트라코마(trachoma) 눈병으로 불합격 판정을 받아 하와이 상륙이 거부된다.(홍윤정, 「하와이 한인이민과 이민단의 구성(1903~1905)」, 『역사학논총』 5, 동선사학회, 2004, 70면) 소설의 본문에서도 계옥이 받은 안질검

근대의 문명국과 야만국을 가르는 은유적 기호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1927년 동아일보에는 트라코마의 위험성을 강조한 기사가 실리는데, 그 기사는 문명국에서는 이미 전멸한 트라코마가 아직도 야만국에서는 대유행을 하고 있으므로, 아직도 트라코마가 유행하고 있는 조선은 야만국의 하나로 편입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²⁵⁾ 이 기사에서 보듯이 트라코마는 문명/야만을 구분하는 은유적 기호로서, 트라코마 진난은 계옥의 근대 문명사회로의 진입을 차단함을 의미한다. 계옥은 부친으로부터 어학과 음악에 대한 지식을 배우면서 근대적 지식과 교육의 중요성을 체감했을 뿐만 아니라 하와이 이민을 떠나기 전까지 문명개화에 대한 지속적인 열정을 보인 인물이다. 이러한 계옥이가 서구근대사회로부터 거절을 당한 것은 어떤 이유일까? 이영아는 계옥의 김의 불합격 낙인이 역설적으로 계옥이 일본이라는 근대 사회로 진입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했다고 하였다.²⁶⁾ 하지만 일본에 혼자 남겨진 계옥이 외조부의 죽음으로 인해 급전직 원조가 끊긴 상황에서 학업에 제대로 정진하지 못하며, 한봉기와 혼인 문제 역시 다시 불거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해석은 다소 무리가 있다. 그렇다면 계옥의 안질은 근대 사회로의 진입이 근본적으로 차단된 경우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는 그 동안 신소설에서 계옥 또래의 여성 인물들이 외국 유학을 통해 문명의 세례를 받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경우 계옥과 기존 여성인물들과의 차이점은 「혈의 누」의 옥련과 같은 인물들이 유학을 통해 근대 지식을 습득한 반면, 계옥은 이민을 통해 근대 사회로 진입하고자 했다는 데에 있다. 이는 근대 사회로의 편입에 있어서 유학과 이민 사이의 거리를 보여주는 것으로, 문명개화의 중요성을 인식한 신소설 작가들도 가정 안에서의 여성의 익한(혼인 문제)을 간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²⁷⁾ 오히려 신소설 작가들에게 여성의 근대적 지식은 다시 혼인 문제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신소설 작가들의 문명개화에 대한 열정의 추상성을 확인하게 해 준다. 이민 모티프를 다룬 소설들은 이를 보다 명확하게 보여주는 소설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본고는 이민 모티프를 다루고 있는 신소설을 대상으로 하여 ‘이민’ 모티프의 형상화 방식과 그 의미에 대해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하와이, 멕시코, 러시아, 간도 이민을 다룬 「송퇴금」, 「원하가인」, 「소학령」, 「소금강」을 중심으로 하여 신소설 속 이민 모티프의 의미를 새로운 이민 공간 속에 투영된 작가의 지리적 상상력의 측면과 여성 인물의 이민 서사(과정)의 측면

사 과정에서 ‘트라코마’라는 용어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이는 ‘트라코마’ 질병 검사라고 보아야 한다. 이에 대해 이영아는 ‘황열병’ 증세에 대한 검사라고 추정하고 있다. 검역전염병으로서 황열병은 다른 검역대상 전염병과 달리 황달과 비슷한 증세를 보이기 때문에 ‘안질검사’를 통해 일차적 검역을 행했으리라는 것이다.(이영아, 「신소설에 나타난 육체 인식과 형상화 방식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5, 85면) 하지만 「송퇴금」에 등장하는 신체검사는 ‘트라코마’ 눈병을 검사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한데, ‘트라코마’에 관한 1927년 동아일보 기사에서는 미국 입국을 위한 눈 검사로 트라코마 검사가 행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拿巴倫을 征服한 眼疾 “트라코마” - 잘못하면 장님되어 恐怖할 傳染病」, 「동아일보」, 1927. 8. 18)

25) 「拿巴倫을 征服한 眼疾 “트라코마” - 잘못하면 장님되어 恐怖할 傳染病」, 위의 글.

26) 이영아, 앞의 글, 86면.

27) 「혈의 누」의 경우에도, 옥련이 미국에서 근대적 지식을 습득한 이후의 서사는 옥련과 구완서의 혼인에 관한 서사이며, 「혈의 누」의 하편에 해당하는 「모란봉」도 귀국 후의 옥련의 혼사가 주요 서사로 다뤄진다. 「송퇴금」에서 계옥의 외조부가 계옥의 하와이 이주를 반대한 것은 하와이로 이주하면 계옥의 혼사가 어렵다는 점 때문이었다. 물론 안질로 인한 계옥의 하와이 이주의 지연은 이충국의 서사와 관련지어 볼 때, 계옥과 이충국의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한 서사적 장치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상권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계옥의 안질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하와이 이주의 좌절은 여성 인물의 이주와 근대사회로의 편입의 관계에 대한 인식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에서 살펴보았다.

하와이, 멕시코 이민을 다룬 「송회금」, 「원하가인」에서 신소설 작가들이 노동 이민의 역사적 의미를 깊이 있게 다루지 못한 것은 그들의 문명개화에의 맹목적 열정과 연결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문명에 대한 그들의 맹목적 열정은 노동 이민 이민에 존재했던 제국주의적 논리를 간과하지 못한 채, 문명과 야만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를 미국-하와이-멕시코라는 공간지리 속에 투영하는 인식의 한계를 낳았다. 한편 러시아, 간도 이민을 다룬 「소학령」, 「소금강」에서 러시아 연해주와 간도는 조선 동포들의 새로운 삶의 공간으로 묘사되고 있다. 하지만 「소학령」의 경우 이해조가 러시아 연해주를 민족 간의 정치적 공간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는 반면, 「소금강」의 작가인 빙허자는 이민의 문제를 국가적 정치 관계 속에서 풀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두 작품은 구별된다.

한편 이민 모티프를 다룬 소설들에서도 이성 인물의 이주 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 소설들 속 이성 인물들은 이민을 시도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민에 실패한다는 특징을 드러낸다. 특히 「송회금」에서 계옥의 하와이 이민이 안길 김사의 불합격으로 좌절된다는 점은 흥미롭다. 이때 계옥의 안길은 이성 인물의 근대 사회로의 진입을 차단하는 은유적 기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이성의 근대문명을 향한 열정이 다시 혼인 문제로 귀결되는 양상을 통해 신소설 작가들의 문명개화에 대한 열정의 추상성을 확인시켜 준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憑虛子, 「소금강」, 『대한민보』, 1910. 1. 5~3. 6.
유정수, 「송회금」, 『신소설·면안(역)소설』 2, 아세아문화사, 1978.
이해조, 「소학령」, 『한국신소설전집』 3, 을유문화사, 1968.
_____, 「보관령」, 『신소설·면안(역)소설』 4, 아세아문화사, 1978.
_____, 「원앙도」, 『신소설·면안(역)소설』 5, 아세아문화사, 1978.
_____, 「원하가인」, 『신소설·면안(역)소설』 6, 아세아문화사, 1978.

2. 단행본

- 김석봉, 「신소설의 대중성 연구」, 역락, 2005.
이홍구, 「한국이민사」, 중앙일보·동양방송, 1979.
임화, 「신문학사」, 임규찬·한진일 편, 한길사, 1993.
최원식, 「한국제몽주의문학사론」, 소명출판, 2003.

3. 논문

- 권보드래, 「신소설의 성(性)·계급·국가」, 『어성문학연구』 20, 한국어성문학학회, 2008.
권영민, 「대한민보의 애국계몽소설」, 『개화기문학의 재인식』, 지학사, 1987.
김귀옥, 「1905년 멕시코이민 한인노동자 연구-하와이이민과 비교하면서-」, 『제외한인연구』 제 5집, 제외한인학회, 1995.
김복순, 「신소설 <소금강>과 항일의병운동」, 『연세어문학』 20집,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7.

- 김종철(金鍾澈), 「한말 민족현실과 신소설-『송회금』을 중심으로-」, 『어문논총』 제 5집, 아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4.
- 배정상, 「이해조의 『소학령(巢鶴嶺)』 연구 -제외(在外) 공간을 중심으로-」, 『사이』 제 5호,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08.
- 양진오, 「신소설이 재현하는 20세기 초반의 한반도 현실-『송회금』에 나타난 러일전쟁의 문제를 중심으로-」, 『아시아문화』 제21호,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04.
- _____, 「유정수의 『송회금』 연구-근대적 주체의 모색과 좌절의 의미를 중심으로-」, 『어문논총』 제 42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05. 6.
- 윤명구, 「유정수 연구」, 『인하대 논문집』 제 14집, 1988.
- 이영민, 「미국 자본주의의 지구적 확산과 초기 하와이 이민: 제국주의 시대 국제인구이동의 원인과 배경 재해석」, 『문화역사지리』 제14권 제3호,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2002. 12.
- 이영아, 「신소설에 나타난 유체 인식과 영상화 방식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5.
- 이종득, 「멕시코 한인 이민자들의 성격과 정체성 변화」, 『서어서문연구』 제 28집, 한국서어서문학회, 2003.
- 이희정, 「『매일신보』에 연재된 이해조 신소설의 근대성 연구」, 『현대소설연구』 22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04.
- 정이윤, 「근대계몽기 민족담론의 경계와 그 균열」, 『한국근대문학연구』 제 4집 2호, 2003.
- 정혜영, 「신소설과 외국유학의 문제-이인직의 <현의 루>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20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03.
- 차미라, 「신소설 <소금강>의 민족주의적 성격」, 『새얼어문논집』 17집, 새얼어문학회, 2005.
- 최수일, 「『소학령』 연구 -통속상의 서사내적 원리-」, 『반교어문연구』 10집, 반교어문학회, 1999.
- 최원식, 「신소설과 노동이민」, 『한국근대소설사론』, 창작사, 1986.
- _____, 「제국주의와 토착자본-『송회금』 소고」, 『한국근대소설사론』, 창작사, 1986.
- 표언복, 「미국유이민의 발생과 신소설」, 『어문연구』 제 30집, 충남대학교 문리과대학 어문연구회, 1998.
- 홍윤정, 「하와이 한인이민과 이민단의 구성(1903~1905)」, 『역사학논총』 5, 동선사학회, 2004.

이회성의 소설을 통해 본 20세기 코리안 디아스포라 루트

정은경(원광대학교)

趙基天論

-창작방법의 이념 지향을 중심으로-

金洛炫(中央大學校)

<목 차>

1. 서론
2. 在蘇 고려인 시인으로서의 특수성
3. 창작방법의 이념 지향
 - 1) 민주개혁 실시와 고상한 사실주의
 - 2) 국제주의와 애국주의 사상
4. 맺음말

1. 서론

『白頭山』과 『회파람』의 시인 趙基天. 그는 북한의 '혁명시인'이라 일컬어진다. 趙基天(1913. 11. 6~1951. 7. 31)은 在蘇 고려인으로서 한반도에 돌아와 초기 북한문학을 이끈 향토자작 역할을 하였다. 조기천은 조국으로 귀환한 이후 6년 동안 문학 활동을 했으며, 그의 시 작품들은 해방 직후 북한문학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구실을 했다.

조기천은 乙密谷에서 부른 노래 (1946. 4)를 창작하여 韓・蘇親善 사상의 모범을 제시했으며, 또 시개혁을 주제로 하여 북한 최초의 서정서사시 『땅의 노래』 (1946. 6)를 북한문학에 선보이 북한문학에서 '서정서사시'라는 장르를 유행시켰고 최초의 노동서사시 『생의 노래』 (1950. 6)를 창작하기도 하였다. 특히 그의 대표작 장편서사시 『白頭山』(1947. 2)은 소련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번역되어 소개되었으며, 지금까지도 북한문학사에서는 민족 최초의 걸작으로 찬사를 아끼지 않고 있다.¹⁾

항일문학의 전범을 보여준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 작품은 초기 북한문학의 성격과 특징을 선도하는 결정적인 구실을 하였다. 그의 시 『회파람』(1947. 9)은 북한 대중가요로 남한에서도 잘 알려져 있다. 일찍이 김정일의 지시에 따라 북한에서는 조기천을 소재로 영화를 제작²⁾하기도 하였다.

- 1) 북한 문학사에서 『白頭山』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서사시 《백두산》은 해방 후의 첫 서사시이지만 그 사상적 내용에 있어서나 예술적 형상에 있어서 현대서사시 의 풍격을 완전히 갖춘 새시대 서사시 문학의 빛나는 모범이다.”(류만, 『현대조선시 문학연구(해방후편)』(사회과학출판사, 1988), 200쪽) 또 『白頭山』은 “불멸의 혁명 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와 함께 해방후 수령형상문학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놓은 의의 있는 작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오정애·리용서, 『조선문학사(해방후편)』 10』(사회과학출판사, 1994), 65쪽).
- 2) 『(조선예술영화) 시인 조기천』, 평양: 조선예술영화촬영소, 1988.(북한문학 자료연구센터 소장) 이 영화에서는 조기천이 소련 중앙아시아에서 북한에 들어와 문학적 활동을 했던 내용을 다루고 있다. 특히 장편서사시 『白頭山』의 창작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제작 된 영화이다. 『白頭山』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김일성의 항일 무장 투쟁 동료였으며 부수상을 지낸 김책의 중재로 김일성을 직접 만나게 되고 김일성으로부터 항일 무장 투쟁의 회고담을 듣게 된다. 그리고 조기천은 직접 백두산을 답사하여 서사시 『白頭山』을 완성하게 된다. 그 밖의 조기천의 여러 시 작품들이 창작된 배경을 영화로 다루고 있다. 조기천과 김책 역에는 각각 배우 김원과

조기천의 시 문학은 북한문학 형성기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그의 작품은 창작방법론에 있어서 하나의 표본이 되었다. 이와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조기천 시 문학에 대한 실증적이고 전반적인 논의는 없었으며, 그동안 그에 대한 기본적인 전기적 사실조차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논의는 진행되어왔다.

조기천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하나같이 『白頭山』에만 치중하였다. 더구나 그의 대표작 『白頭山』은 북한에서 1947년 초간본이 간행된 이후 수차례 출판되었으며 북한 내의 사정과 북한의 대외관계의 상황에 따라 시집의 판본 내용이 여러 번 수정되고 삭제되었다. 따라서 처음 간행되었던 시집과 그 이후에 출판된 시집은 시기별로 여러 곳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며 해석상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해석상의 문제는 「白頭山」 창작의 의도를 파악하고자 할 때 전혀 다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문제점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 연구자들은 이에 대한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1989년 남한 실천문학사에서 간행된 「白頭山」 시집을 바탕으로 혹은 1987년 북한에서 출판된 「白頭山」 시집을 중심으로 『白頭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따라서 당연히 「白頭山」에 대한 해석은 전혀 엉뚱한 결론을 파생시킬 수밖에 없었다.

필자는 조사에 의하면 현재까지 『白頭山』의 초간본이나 그 초간본을 번인한 『白頭山』(1947) 시집은 아직 남한에 없었다. 그리고 조기천의 작품들을 총괄하여 발간했던 그의 시집 『우리의 길』(1948)이나 『조기천 선집』(1952, 1955) 역시 그동안 남한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필자는 「白頭山」 초간본의 번인본과 그 밖의 시집을 입수할 수 있었으며,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소련에서 발표한 4편의 작품과 북한에서 발표한 1편의 작품을 새롭게 발굴하여 조기천 시 전체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³⁾

조기천은 그의 문학적 생애에 비해 비교적 많은 작품과 평론 등을 남겼다. 그는 서정시 28편과 서정서사시 5편, 장편서사시 2편 등 총 35편의 시 작품을 남겼으며, 소련에서 시에 대한 짧은 평론을 5편 발표하였다.⁴⁾

본고에서는 조기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나 그의 시 세계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초기 북한문학을 이끌었던 그의 시가 어떤 배경에서 창작되었으며, 그 이념의 지향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는 기회로 삼고자한다. 실상 조기천 시 창작방법의 이념 지향은 초기 북한문학의 창작방법론이기도 하다.

2. 在蘇 고려인 시인으로서 특수성

조기천은 기존에 알려진 바와는 달리 咸鏡北道 會寧 아닌 1913년 11월 6일 소련 연해주 스파스크온에서 출생하였다. 그리고 그는 在蘇 고려인 문학의 선구자이며 개척자인 趙明熙의 일정한 영향 하에서 문학수업을 받았으며, 소련이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제창할 때 직접 사회주의 건설을 목격하고 체험했던 시인이었다. 그의 문학관은 사회주의 이념과 민족의식에 뿌리를 둔 것이었다.⁵⁾ 이러한 그의 문학적 자산은 해방 직후 보는 것이 소련을 모델로 북한이 국가를 건설할 때 조기천은 그의 문학적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는 원천적인 계기로 작용하게 되었다.

현재까지 서지적으로 확인된 사항에 의하면 해방 이전 소련에서 조기천은 1930년 18세 때 조선사범대학 제학 중 「파리꽃무나」라는 시를 《先鋒》에 처음으로 발표하였다. 그 이후 「공작대원에게

리 중우이다.

3) 참고, 「趙基天 詩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10.

4) 위의 논문, 210~212쪽 참조.

5) 참고, 앞의 논문, 22~27쪽 참조.

(1931. 9. 22), 「야외연습」(1932. 1. 6), 「새해」(1942. 1. 1) 등의 시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그는 《레닌기치》신문 편집국장으로 제직하면서 독자들이 투고한 시에 대해서 詩評을 하며 지도하는 역할을 하였다.

해방 직후 조기천은 1945년 8월 29일 소련진주군 제25군의 7부(군정치국)와 함께 평양에 들어왔다. 조기천은 在蘇 고려인 문인 선동혁, 립하, 김세일 등과 함께 소련파 1진으로 입북하였다.⁶⁾ 당시 소련군 제25군 정치사령관(소장)으로서 초기 북한의 정치적 현안을 직접 관장하고 통제하며 실무를 담당했던 레베데프에 의하면 소련은 대일전투에 대비해서 통역과 언론을 담당할 在蘇 고려인들을 장교로 양성했었다. 소련군은 연해주 군관구에 동방의 정세 분석 등을 담당하는 7호 정치국을 설치하고 조선어, 중국어, 일본어를 구사할 줄 아는 이들을 장교로 양성했는데, 조기천은 이들 중 한 명이었다.⁷⁾

조기천은 1945년 1월에 소련군 제25군 7호 정치국 소속으로 입대하여 8개월 정도 소련군에 근무하면서 해방 직후 소련군 장교(대위)⁸⁾로서 북한에 들어오게 된다. 그러나 조기천은 북한문학에서 주장⁹⁾한 것처럼 대일전투에 참가하지 않았다. 그는 대일본 전투가 완전히 끝난 후인 1945년 8월 29일에 소련군 제25군과 함께 평양으로 바로 入北하였다.¹⁰⁾

1945년 해방 직후 소련은 북한을 조기에 소비에트화시키고 그들의 체제와 문화를 傳授하기 위하여 재소 고려인들을 북한에 파견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소련이 가장 먼저 고려했던 사항은 이데올로기 면에서 흠이 없고 노어와 조선어에 모두 능통하면서 언론활동을 했던 경향이 있는 자들이어야 했다. 이런 점에서 조기천은 제격이었다. 그는 소련시절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의 《레닌기치》에서 문화부장을 역임하면서 문필활동을 했던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또 이미 조기천은 소련에서 사회주의 이념을 체득한 상태였고 노어와 조선어에 능통한 자였다. 따라서 조기천은 소련파 한인 중 제1진으로 북한에 파견된 것이다.

북한에 파견된 조기천은 당시 소련의 군정기관지이면서 영향력이 매우 컸던 《朝鮮新聞》의 편집과 발행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창작활동을 하였다. 초기 북한문단의 시인들은 한반도에서 문학 활동을 했던 기성시인들과 신진시인들로 크게 양분될 수 있다. 기성시인들은 다시 제북 시인들과 원북 시인들로 구별되며, 신진시인들은 북한출신 시인들과 원북 시인들로 분류된다.¹¹⁾

6)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秘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상)』, 중앙일보사, 1992, 178~179쪽. 이때 함께 입북한 강미하일 소좌, 오기찬 대위 등은 소련군 장교신분이었다. 특히 강미하일 소좌는 ‘통역정치시기’ 북한 지도자들을 연결시키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였다.

7)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秘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하)』, 중앙일보사, 1992, 60쪽.

8) 鄭尙進(93세, 북한에서 사용한 이름은 鄭律)의 증언. 정상진은 1918년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 新韓村에서 출생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에 북한 해방 전투에 소련군으로 참여했고, 북한정권의 수립과정에서 소련파 지식인으로 깊숙이 참여했다. 그는 초기 북한문학의 창작방법과 성격을 규정짓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癡香’ 사건의 시집 『癡香』(1946)의 발행인을 맡기도 하였다. 북한정권에서 문예총 부위원장 김일성 종합대학 외국문학 부장을 거쳐 문화선전성 제1부장을 지내는 등 요직에 있다가 1956년 중파투쟁의 여파에 휘말려 숙청된 뒤 1957년 소련으로 귀환하였다. 이후 《레닌기치》 신문기자, 고려인 문학평론가로서 평생을 살아왔다. 이 논문에서 정상진의 증언은 필자가 최종적으로 확인했던 2010년 1월 3일과 4일, 5일, 7일 등 4번에 걸친 인터뷰 내용을 대표적으로 한 것임을 밝힌다.

조기천이 소련군 장교로 입북한 사실은 정상진의 증언 이외에도 이종석의 『조선로동당 연구』(역사비평사, 1995, 164쪽)에서도 확인된다. 이종석은 조기천의 구체적인 계급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入北 당시 소련군 장교였음을 밝히고 있다. 조기천 이외에 소련군 장교로 북한에 들어온 소련파 한인들로는 오기찬(인민군여단장 출신), 강미하일, 최철환(내각사무국장, 1960년경 숙청), 박알렉세이(은행장, 숙청 안됨), 최아나토리(인민군 조직시 후방총국 부국장, 전상자병원장), 최종학(인민군 총정치국장, 1958년 숙청) 등이 있었다.

9) 북한 시인 리정구는 조기천이 “쑬베트 군대와 함께 <만주>에서 일제 관동군을 쳐부수는 전투에 참가하였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리정구, 『시인 조기천론』, 문예총출판사, 1953, 6쪽.

10) 정상진의 증언. 대일본 전투에 참가한 유일한 재소 고려인으로서는 정상진이었다. 그는 1945년 8월 9일부터 20일까지 소련군 태평양함대 해병대 일원으로서 청진, 나진 항전투에 참가하였다. 정상진, 『아무르 만에서 부르는 백조의 노래-북한과 소련의 문학예술인들 회상기』, 지식산업사, 2005, 16~34쪽 참조.

그런데 조기천은 기성 시인군이나 신진 시인군에 귀속되지 않는 특수한 경우로 취급된다. 이미 확인했듯이 조기천은 일제강점기 국내에서 활동한 시인이 아니었다. 그는 소련의 연해주에서 출생했고 연해주나 중앙아시아에서 시를 창작하고 발표했던 시인이었다. 그러므로 조기천은 별도로 在蘇 고려인 시인으로 분류하여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여겨진다. 왜냐하면 在蘇 고려인 시문학은 한반도에서 활동했던 시인들의 작품과는 그 성격이 매우 상이하다. 북한문단에서 시인으로서 조기천은 바로 이 점에서 특수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3. 창작방법의 이념 지향

1) 민주개혁 실시와 고상한 사실주의

해방 직후 북한은 새 나라 만들기 차원에서 '건국 사상 총동원 운동'을 벌치게 된다. 1946년 2월 8일에 개최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2월 9일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가 결성되자 북한사회에서 토지개혁을 포함한 민주개혁을 실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11개조 당면 과제를 채택하였다.¹²⁾

민주개혁은 1946년 3월 5일 토지개혁을 필두로 6월에 노동법령, 7월에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 8월에 중요한 산업을 국유화시키는 국유화에 대한 법령이 발표됨으로써 시행되었다. 그 밖에 교육개혁 조치가 발행되어 실시되었다. 민주개혁은 1946년 11월 3일에 선거를 실시함으로써 일차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조기천의 서정서사시 「땅의 노래」(1946. 6)와 서정시 「보통에서」(1947. 8) 등은 토지개혁을 주제로 한 대표적인 작품이다. 그 외 김우철의 「농촌위원회의 밤」(1946), 안용만의 「파종의 노래」(1946), 김광십의 「감자현물세」(1947), 박남수의 「할아버지 그림」(1948) 등 다량의 작품들이 생산되었다. 그리고 소설에서도 토지개혁을 주제로 한 대표적인 작품 이기영의 「개벽」(1946)이나 「땅」(1948~1949) 등이 창작되었다.

1

내가 밭갈이한다

「바라……바라……뚫자……」

이 가난뱅이 경전이 세밭을 간다

젊은때도 小作의 땅에 창이파지고

지친나날이 가난에 얽매어

남의땅 한모퉁에서 가쁘려서도

세밭이란 붓쓰고 죽이질 팔자라던

이영성씨가 경전이

오늘은 세밭을 간다

(중략)

「땅의 노래」 부분¹³⁾

11) 김경숙, 『북한현대시사』, 태학사, 2004, 43~50쪽 참조. 이 책에서 김경숙은 시인군을 분류할 때 소련계 고려인 시인들을 별도로 구분하여 설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초기 북한 시단은 조기천, 전동혁 등 소련계 고려인들이 분명히 존재했으며, 이들의 영향은 대단히 컸다. 또한 조기천을 신진 시인군에 포함시켜 북한 출신 시인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이는 오류이다. 그의 전기적 사실에 비춰볼 때 조기천은 북한이 아닌 소련 태생이며, 해방 이전 그는 소련에서 이미 시인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했기 때문이다. 이는 해방 이전 소련에서 활동했던 고려인 문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12) 이종석, 「북한사회주의정권의 성립과정」, 《역사비평》, 1988, 가을, 26쪽.

13) 조기천, 앞의 시집, 65~72쪽.

위의 시는 북한문학에서 토지개혁을 주제로 한 최초의 시 작품으로서 시 창작의 전형으로 평가되었으며, '서정서사시'라는 독특한 장르를 선보인 최초의 작품이었다. 땅의 노래 (1946. 6)는 서정적인 내용에 서사적인 형식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형상화한 시로서 조기천 시의 하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땅의 노래 는 토지개혁으로 인해 과거 소작농이었던 농민이 직접 토지를 소유하여 농사를 짓는 감격과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시이다. 이 토지개혁은 "농민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심장을 뒤흔들어 놓은 웅장적인 사건"¹⁴⁾으로 인식되었다.

조기천의 「그네」(1947. 6)는 교육개혁의 실지를 배경으로 창작된 시이다.

벼드나무 휘날리진
오월의 푸른 강변에서
이마흔 처녀들이 그네를 뛰오
(중략)

불이진 뽕 옷을 날리며
처녀는 그무엇 보련듯이
하늘가에 높이 날아 오르오
날아올라선 그무엇 찾는듯이
구름 서편을 뒀다 보오
서산뒀이 구름 서편엔
태극기 날리는 평양성이 있다오
평양성엔 김일성 대하
그대학에선 그리운 이 글 배운다오
한뼘 머슴사리 하리라던
이마흔 총각이라오

「그네」 부분¹⁵⁾

위의 시는 과거 일제강점기에 대다수의 민농이나 노동자 출신이 진학하기 힘들었던 고등육기관인 대학에서 글을 배우는 현실을 노래하고 있다. 머슴살이를 하려고 생각했던 민농출신인 '마을 총각'이 김일성대학에서 글을 배우는 현실을 제시함으로써 민주개혁 실시에 따라 새롭게 달라진 사회적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1946년 11월 3일 '북조선예술총동맹'은 확대 상무위원회를 열고 전국 각지의 주요 공장과 농어촌에 작가들을 파견할 것을 결의하게 된다. 이는 이른바 '전국사상총동원운동'의 일환으로 나타난 현상으로서, 작가들을 현지에 파견하여 현실에 대한 투철한 인식과 실천을 바탕으로 창작에 임해야 한다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구현이라 볼 수 있다.

북한문학은 현실에서 제제를 취하고 그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서적 측면이 제거되고 생경한 현실을 그대로 민면하게 노래시킨다. 북한문학은 정치적 결단에 따라 전개된 현실을 그대로 제현하게 되고 그 현실을 대중들에게 전달하고 지도하는 교양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정치적 현실을 추수하는 북한문학의 특수성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문학이 가진 인식적 기능보다는 교양적 기능을 우선시하게 되고 그렇지 못한 작품들을 낮은 문학적 잔재 혹은 퇴폐적인 것으로 간주하기 시작하였다.¹⁶⁾ 이런 흐름에서 발생한 것이

14) 류만, 『현대조선시문학연구(해방후편)』, 사회과학출판사, 1988, 139쪽.

15) 조기천, 앞의 시집, 35~37쪽.

북한에서의 최초의 문화사건인 ‘응향(凝香)’¹⁷⁾ 사건이었다.

‘응향사건’은 『白頭山』 문쟁과 더불어 고상한 사실주의 표현을 예고하는 징검돌을 지낸다. 시집 『凝香』은 북한에서 발간된 최초의 시집이었으며 구상, 노향근, 박경수, 정률 등의 작품이 실려 있었다. 金日滿의 주도로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은 이 시집에 대해 1947년 1월에 「시집 『응향』에 관한 결정서」를 중앙상임위원회의 이름으로 발표하였다.¹⁸⁾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은 시집 『凝香』에 대해서 ‘현실과 무관치며 현실과 싸우려는 투쟁정신과 현실을 바꾼 길로 추진시키려는 건설정신이 없다’¹⁹⁾라고 비판을 가했다. 또 韓曉는 『응향』에 대해 “시집 『응향』은 우리 인민들을 북조선에 있어서의 제반 민주건설로부터 이탈시킬 목적 밑에 다만 우울과 침체의 정신과 염세관의 독소를 뿌리는 시편들을 중심으로 편집되었다”²⁰⁾고 맹렬히 공격을 가하였다. 韓曉는 당시 비판의 대상이 되었던 구상의 시 「밤」과 「길」 등의 시에 대해서 각각 “망두석의 소리처럼 쓰디쓴 고독만을 느끼는 것”²¹⁾, “인민들의 의지와 이상의 무장을 해제시키며 인민들의 주의를 생활의 현실적 문제로부터 딴 데로 돌리게 할 목적 밑에 서구라파의 퇴폐문학의 형식이 채택되어 있다”²²⁾라고 비판을 가하였다.

이거시 韓曉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와 상관없는 소재를 가지고 현실과 유리된 감정의 과잉 표현이다. 이런 경향은 ‘퇴폐문학’의 형식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조는 安倉光에 의해서도 드러나게 된다.

북조선 노동당 중앙 위원회 상무 위원회 제29차 회의(1947. 3. 28)는 결정 가운데서 이러한 것들은 결국 ‘조선 문학 및 예술과 대립되는 일본 제국주의 노예 사상 잔재의 산물’임을 지적하면서 건전한 사상 투쟁은 전개할 것을 호소하였다. 문예총 산하의 문학가들은 당의 호소에 발을 맞추어 시집 『응향』 등에 대한 결정적 타격을 주었을 뿐만이 아니라 (중략) 위대한 민주주의적 현실과 아무런 인연이 없는 사상적 무내용과 정치적 무관심의 문학들을 규탄 공격하면서 조국과 인민에 복무하는 건전한 문학의 고상한 길을 촉진하였다.²³⁾

위의 인용문에서 安倉光이 지적하고 있는 점은 시집 『응향』은 제반 민주건설에 대척되며 무사상성과 탈정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본 제국주의 노예 사상의 잔재’라고 강변한다. 결국 ‘조국과 인민에 복무하는 건전한 문학의 고상한 길’을 강조한 것이다. 결국 북한문학이 나아갈 길은 정치적 현실을 반영하고 당성과 인민성을 수반한 고상한 문학의 길이었다.

16) 김재용, 『북한문학의 역사적 이해』, 문학과지성사, 1994, 97쪽.

17) 1946년 말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원산지부에서 펴낸 시집 『응향』은 퇴폐적이고 반동적인 것으로 규정되어 발매금지 조치되었으며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은 검열원을 파견하여 편집과 발행의 경위를 조사하였고 작품의 내용과 작가의 자기비판 내용을 검토하였다.

18) ‘응향’에 관한 결정서는 북조선예술총동맹의 독자적 행동이기보다는 소련의 영향을 받아 행해진 것이었다. 잡지 《별》과 《레닌그라드》에 관한 소련의 결정서는 1946년 8월 14일 레닌그라드 작가대회 석상에서 당중앙위원 주다노프가 행한 연설 「문학운동에 대한 소련당의 새로운 비판」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주다노프에 의해서 행해진 이 결정서는 잡지 《별》과 《레닌그라드》에 대해 무사상적이고 무원칙적이며 퇴폐적인 부르주아 문화에 빠졌다고 여겨 이를 뿌리 뽑기 위해 감행한 조치였다. 김윤식, 『해방공간의 문학사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89, 45쪽 참조.

19) 「시집 『응향』에 관한 결정서-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상임위원회의 결정서」, 《문학》, 제3호, 1947. 4, 71~73쪽.

20) 韓曉, 「새로운 시문학의 발전」, 《문학의 전진》, 1950. 7. 이선영·김재용·김병민 편, 『현대문학비평자료집 2』, 태학사, 1993, 78쪽에서 재인용. 앞으로 자료집으로 표기함.

21) 위의 글, 같은 책, 79~80쪽에서 재인용.

22) 같은 책, 80쪽에서 재인용.

23) 安倉光, 『조선문학사』, 한국문화사(영인본), 1999, 371쪽.

한편, 『白頭山』 작품을 놓고 趙基天과 安含光이 벌인 이른바 ‘백두산 논쟁’은 고상한 사실주의를 강조시키는 계기로 작용한다. 다음의 글은 논쟁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알려준다.

突然 趙基天은 後 長篇敘事詩 『白頭山』을 썼다. 아마 우리 文學史에 있어서는 最初의 本格的인 敘事詩일 것이다. (중략) 이 모든點은 들림없이 우리 文壇에 있어서 하나의 收穫이었다.

그러나 이런 많은 點이 그 卓越인 坐聯에 있어서의 敘事詩를 標本으로 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敘事詩가 없었던 우리들보다 直線的으로 最短距離를 걷기는 하였으나, 그 詩의인 魅力이 없는 뻣뻣한 리듬과 內容을 說明하는 익지, 특히 敎文과 닮았던 詩行 속話의 詩的 燃焼의 不足 등을 말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그들의 首領인 金昌滿의 뻣치산 生活은 英雄化한 나머지 그 美點이 나오지 않았다는 點은 이 作品을 完수한 하나의 失敗作으로 하였다.

이런 缺點들이 共産主義 評論家로 自處하는 安含光에게도 보였는지 그는 이 作品을 極力 褒揚한 끝에 몇가지 不滿과 短點은 그의 評文에 添附하였다. 이것이 發端이 되어 趙基天 對 安含光의 싸움이 벌어졌다. 安含光이로는 꼭 意外였으리라. 많은 優點을 列擧했는데도 不拘하고, 몇가지 短點을 들었다 해서 作者로 꾸며 抗議가 들어 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략)

이 두 사람의 싸움을 仲裁한 것은 金昌滿이다. 그는 安含光의 글은 옳지 않으며, 坐聯서 온 詩人에게 對하여 그 무슨 暴言이나는 것이 結論을 맺은 글이다. 이것으로 그 段落은 지었으나 安含光의 地位는 여지 없이 추락되었다.²⁴⁾

원남 문인 朴南秀(玄秀)가 쓴 위의 글은 주관적 견해가 반영되어있겠지만, 그 당시 북한문학의 성격과 특징을 감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미를 지닌다. 朴南秀가 『白頭山』의 결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점은 ‘익지 매력’이 없는 뻣뻣한 리듬과 내용을 설명하는 익지, 김일성의 영웅화 시도로 인한 ‘전형화’의 실패라는 것이다.

安含光과 趙基天의 논쟁에 金昌滿이 개입하여 사건은 결국 安含光의 패배로 끝난다. 金昌滿은 『白頭山』을 “북조선 문단의 새로운 수확의 하나”라며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金銀長이 하나의 偶然한 存在가 아니고 우리民族의 五千年傳統이 넣은 歷史的存在이며 朝鮮人民의 反日鬥爭가운데서 생겨난 指導者로서 그의 鬥爭史가 單只 어떠한 密林속의 뻣치산이 아니고 世界歷史의 波動속에 움직이는 世界 弱小民族解放運動의 燦爛한 典型의 하나이었다는 것이 이 作品에서는 옳게 形象되었다. (중략)

以上과 같은 民族의 氣概와 解放鬥爭史의 現實은 藝術化함에있어서 作者는 高度의 革命的 浪漫의 手法을 썼다. 作者는 現實속에서도 가장 尖銳하고도 內容이 豊富한 現實인 朝鮮民族海外使를 描寫함에 있어서 白頭山에게 말을 시키고 호랑이로 상징하고 民間의 民衆을 끌이으며 눈보라에게 웨치고 鴨綠江波濤에 호소하면서도 그것 이 (중략) 恣은 無節制하게 主觀的 激情을 露出하였다는가하는 感을 주지않고 오히려 그것이 있기 때문에 讀者에게 「肉近」하여 가슴에 共鳴되는 現實感을 줄수있었다고 본다. 自由 自在하고 奔放한 浪漫的 筆致뒤에는 그 激情을 抑制調節하는 現實에對한 洞察과 信念이 있었었던것이라고 본다. 革命的 浪漫은 이따까지나 現實과 結付되는 것이며 現實속에 뿌리박고 開花하는 것이어야한다. 다시말하면 革命的 浪漫은 寫實主義의 要素인 것이다.²⁵⁾

위의 글에서 金昌滿은 『白頭山』에서 형상화된 ‘김대장(김일성)은 ‘우연한 존재’가 아닌 ‘우리 민족의 오천년 전통이 낳은 역사적 존재’이며 ‘반일투쟁’에서 생겨난 ‘지도자’라고 역설한다. 『白頭山』에서 그려진 김대장의 투쟁사는 단순한 항일투쟁을 넘어 ‘세계약소민족해방운동의 찬란한 전형’이라고 주장한다.

24) 玄秀, 『赤治六年의 北韓文壇』, 國民思想指導員, 1952, 55~57쪽.

25) 金昌滿, 「北朝鮮文壇의 새로운 收穫」, 『모든 것은 조국건설에』, 로동당출판사, 1947, 194~195쪽, 201~202쪽.

이와 같은 金昌滿의 논리 속에는 『白頭山』이 그런 현실의 반영이 내재하고 있다. 그가 언급하고 있는 대로 『白頭山』은 ‘현실 속에서 가장 적예하고 풍부한 조선민족의 해방사’를 다루었기 때문이다.

金昌滿은 『白頭山』이 “고도의 혁명적 낭만의 수법”에 기초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 근거로 『白頭山』에서 작가는 ‘백두산에게 말을 시키고 호랑이로 상징하고 민간의 전설을 끌어오고 눈보라나 압록강 파도에 호소하면서도 그것이 무절제하게 주관적 감정을 노출하였다는 감’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독자에게 「유박」하이 가슴에 공명’이 되는 현실감을 주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자유자재하고 분방한 낭만의 필치’에는 감정을 억제하고 조절하는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이 있었다고 진단한다. ‘사실주의 요소인 혁명적 낭만은 현실과 결부되는 것’이며 ‘현실 속에 뿌리박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金昌滿이 지적하고 있는 ‘혁명적 낭만의 수법’에는 반드시 현실과 결부된 것이며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현실과 관련된 사실을 낭만적 수법으로 그려낸다는 점에서 사실주의와 연관된다는 것이다. 결국 『白頭山』은 혁명적 낭만의 수법으로 항일혁명의 투쟁사를 형상화한 것이며, 현실적인 사실에 기초해서 항일혁명을 위해 헌신한 고상한 인물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고상한 사실주의와 성격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백두산 논쟁’은 북한문단에서 고상한 사실주의를 더욱 더 견고하게 뒷받침하는 계기로 작용하게 된다.

1947년 3월 28일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는 제29차 상무위원회를 열어 문학예술분야에 관한 새로운 대책을 결정하는 자리에서 북조선에 있어서의 「민주주의 민족문화 건설에 관하여」라는 결정서를 채택하게 된다. 이 결정서에서 나온 것이 고상한 사실주의의 문제다. 여기서 ‘고상한 사실주의’란 말이 처음 쓰이게 되며 그 핵심은 영웅적 투쟁을 그려 대중들을 긍정적으로 교양하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고상한 사실주의는 1947년 3월에 공식화된 것이다.

1947년에 발표했던 韓曉의 다음과 같은 글은 고상한 사실주의의 성격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金日成委員長은 今年勝頭 朝鮮人民에게 告하는 말씀가운데 「文學者 藝術家는 北朝鮮의 現實을 正確히 反映하는 作品을 創造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중략) 問題는 오로지 北朝鮮의 民主建設을 正確히 反映했느냐! 못했느냐! 하는데있다. (중략)

오늘 北朝鮮文學者들에게있어 無條件으로 要求되는 것은 높은 思想으로써 自己를 武裝시키는 일이다. 文學者들이 高尚한 思想으로서 武裝되어있이는 文學의 領域에 侵襲하고 있는 反動派의 破壞的인 陰謀(그것은 日本帝國主義로부터 물리 가질 것이다)를 물리칠수없으며 또한 勤勞大衆의 뒤떨어진意識은 民主主義的으로 改造할 수 없다. 우리는 먼저 文學藝術이 數世紀에 걸쳐서 貪慾者 壓制者로 因하여 萎靡하게 더워져지고 이지러워진 人間意識을 改造하는 民主主義的教育的 武器라는 것을 理解하여야한다. (중략)

여기서 高尚한 思想과 더불어 高度의 寫實主義的創作方法의 體得이 作家의 當面課題로 나서게된다.²⁶⁾

위의 글에서 韓曉는 김일성의 신년 벽두 연설을 인용하면서 문학가들이 ‘북조선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는 창작태도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주지하듯이 1947년 초에는 북한이 이른바 민주개혁 실시의 일환 차원에서 새 나라 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시기였다. 문학은 이런 현실을 반영해야하며 그것은 작가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었다.

韓曉는 작가들이 ‘고상한 사상으로 무장’하여 대중들의 뒤 떨어진 의식을 개조해야함을 주장하고 있다. 韓曉의 지적대로 문학은 ‘인간의식을 개조’하는 하나의 ‘무기’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작가는 새로운 시대에 펼쳐지고 있는 현실을 정확하게 포착하여 고도의 사실주의적 창작방법으로 작품을 창작해

26) 韓曉, 「高尚한 리알리즘의 體得」, 《조선문학》(창간호), 1947, 279~283쪽.

야하는 당면과제에 직면한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실에 기초한 작가의 높은 사상성이 요구된다고 韓曉는 주장하고 있다.

집약적으로 말해서 고상한 사실주의란 벌어지고 있는 새로운 현실의 반영이며, 넓은 현실과 사상에 젖은 인간의식을 개조하는 것으로서 새 나라 건설에 결실하게 요구되는 고상한 인간형을 사실주의적 수법으로 그려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인간형을 필요로 하게 된다.

오늘날 새로운 조선문학에 있어 요구되는 새로운 긍정적 전행은 국가와 인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민주주의 조국건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는 모든 넓은 구습과 취세상에서 벗어난 높은 민족적 자신과 민족적 자각을 가진 고상한 목표를 향하여 만나는 극복할 줄 아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높은 창의와 재능을 발휘하는 고국치 않고 베타직이 아닌, 다른 사람을 이끌고 용감하게 나아가는 그야말로 김일성 장군께서 말씀하신 생기발랄한 민족적 품성을 가진 그러한 조선사람의 형상을 말하는 것이다.²⁷⁾

위의 글은 앞에서 언급한 韓曉의 글과 같은 백락의 성격으로서, 새 시대 새 역사 창조의 인물형으로서 '국가와 인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조국건설에 헌신'하는 인물형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물형은 韓曉가 지적했던 것처럼 '의식이 개조된 인간형'이다. '의식이 개조된 인간형'은 필연적으로 '넓은 것'과 '구습'을 타파하고 조국과 민족을 위해 '고상한 목표'를 가진 '생기발랄한 민족적 품성'을 가진 인물이다. 따라서 고상한 사실주의에서 강조한 인물형은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가지고 긍정적 자세와 태도로 현실의 고난을 극복하는 새로운 인간형이라 할 수 있다.

고상한 사실주의는 전반적인 '민주개혁' 실시와 이에 따른 새 국가 건설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산출된 창작방법론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시대, 새 국가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타입의 창작방법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 점은 북한문학이 정치적 현실을 추수하는 현상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 입각해서 보면 『白頭山』은 金昌滿의 지직대로 혁명적 낭만주의 수법 혹은 고상한 사실주의에 기초해서 창작된 것이다. 金昌滿이 언급한 혁명적 낭만주의 수법이란 다른 아닌 민족해방을 위해서 투쟁했던 고상한 인물들을 사실주의적 수법으로 그려낸 것을 가리킨다. 『白頭山』에서 항일 혁명의 전사로 형상화된 '김대장'을 비롯한 '칠호', '꽃분' 등은 현실의 萬難을 극복하고 미래에 대한 밝은 전망을 가지면서 민족의 해방투쟁에 헌신한 밝고 긍정적인 새로운 인물형이므로 『白頭山』은 고상한 사실주의로 형상화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1947년 초에 있었던 '백두산 논쟁'은 고상한 사실주의를 강화하는 촉진제로 작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白頭山』이 지닌 중요한 의의는 『白頭山』을 계기로 1947년 이후 고상한 사실주의가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된다는 점이다. 고상한 사실주의는 1947년 이후 북한문학에서 창작방법론의 전행이 되었고 이는 모든 문학가들이 따라야 할 하나의 모델로 제시되었다.

따라서 고상한 사실주의는 초기 북한문학의 성격과 특성 및 창작방법론을 확고하게 한 것이었으며, 그 후 사회주의 리얼리즘으로 정착되어 오늘날까지 북한의 유일한 창작 방법으로 되고 있다. 그 결과 북한 시는 시인 개인의 내면과 자의식의 표출이 아닌 새 국가 건설 과정에서 결실히 필요했던 조국과 인민에의 복무와 "공적인 자세와 감정"²⁸⁾이 된다.

27) 安漠, 「민족문학과 민족예술 건설의 고상한 수준을 위하여」, 《문화전선》, 1947. 8. 이선영·김재용·김병민 편, 앞의 자료집 1, 242~243쪽. 앞으로 자료집으로 표기함.

28) 오성호, 「북한 시의 형성과 전개」, 목원대학교 국어교육과 역음, 『북한 문학의 이해』, 국학자료원, 2002, 99쪽 참조.

3) 국제주의와 애국주의 사상

1948년을 전후하여 북한문학에 출현한 국제주의와 애국주의 사상은 북한문학의 또 다른 특징을 잘 보여준다. 실상 국제주의 사상과 애국주의 사상은 성격상 엄격히 구분되지 않는 동체 현상에 위치한다. 1948년을 기점으로 자본주의 국가를 대표하는 미국과 사회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소련은 극도의 긴장과 대립구조를 형성하며 냉전체제로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남·북 역시 예각을 세우며 냉각된다. 1948년 8월에 남한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게 되고 북한에서는 9월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공식적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북한은 1948년 9월 정부수립이 있고 난 후 본격적으로 냉전체제에 적합한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대중들에게 교양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른바 국제주의와 애국주의 사상이다.²⁹⁾ 남한의 여수 4·3 항쟁을 소재로 하여 창작된 조기천의 서정서사시 「항쟁의 러수」(1949)와 제주 민중의 항쟁을 소재로 한 강승환의 「한나산」(1948) 등은 바로 이런 정세적 분위기를 반영한 작품들이다.

국제주의와 애국주의 사상은 소련의 직접적인 영향 하에서 출현된 것이다.

8·15해방은 공화국 북반부에 있어서 근로대중의 문화 성장을 방해하는 모든 바탕을 쇠탕하여 버렸고 전체 인민의 무한한 창조력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지반을 조성하여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화 앞에는 통일되고 부강한 조국을 창건하는 조선 인민들의 고상한 감정과 노력, 고상한 사상과 투지, 우리 조국의 위대한 민영을 위하여 싸우는 전체 인민들의 애국주의적 또 영웅적 투쟁의 대마가 광범히 취급되고 있는 것이다. (중략)

그러하여 새 조선문화의 내용의 특징으로는 전체 조선 인민들의 건설과 투쟁을 적극적으로 추진시키며 새로운 인민들의 인간 성장의 면모가 고상한 사실주의적 방법으로 묘사되고 있는 그것이다. (중략)

그러하여 조선문화의 특징의 또 하나는 사회주의 조국인 소련을 선두로 하는 세 인민민주주의 국가와 전 세계 근로자 인민과의 굳은 단결과 친선과 화복을 표시하는 국제주의 사상을 그 기본으로 하는 문화인 것이다. 그러므로 조선문화는 가장 진정된 인민의 문화으로 전 인류적인 문화의 공통 보급에 들어갈 수 있는 문화으로 되는 것이다.³⁰⁾

韓植은 8·15 해방 이후 새 조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고상한 사상과 감정’에 근거한 ‘고상한 사실주의 출현과 더불어 북한문학에서 새롭게 일어났던 또 하나의 경향과 특징으로 국제주의 사상을 꼽고 있다.

윗글에 의하면 국제주의 사상은 사회주의 조국인 소련을 원두로 하여, 모든 사회주의 국가의 인민들과의 굳은 단결 및 친선을 기본으로 한 것이다. 그러므로 국제주의 사상은 무엇보다도 사회주의 국가와의 연대를 중시한 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韓·蘇親善사상은 더욱 강화되며, 문학에서도 이를 반영한 시 작품들이 다량으로 창작되었다.

조기천 시 역시 많은 작품에서 韓·蘇親善을 드러내고 있는데, 鄭律이 언급한 것처럼 “이 詩人の 創作에서 어느것이 韓蘇 親善作品이며 어느것이 아닌가를 얻어내기 대단히 어려운 것”³¹⁾ 정도로 곳곳에서 표출되었다.

29) 김재용, 『북한문학의 역사적 이해』, 문학과지성사, 1994, 107~108쪽 참조.

30) 韓植, 「조선문학에 나타난 국제주의 사상」, 《문학의 전진》, 1950. 8. 앞의 자료집 1, 503~505쪽에서 재인용.

31) 鄭律, 「詩人和 現實-趙基天氏의 創作을 評함」, 《문학예술》, 제2권 제7호, 1949, 33쪽.

세1장

1

냉랭한 나의 감방이다/나는 뉘럭 일어나 앉는다 (중략)
나의 붉은 언덕우에/내서러운 고향이 있었고
그곳엔 외아들을 잃은/우리 어머니 개천전만
이제는 고향도 없어지고/어머니도 가셨으리!.....
(중략)

조국의 운명이/내 신세보다 다르다면
예로부터 아흔해 동쪽에서 떴건만/내나라의 아흔해는
北에서 北에서 솟으리
(중략)

세2장

1

폭발하는 소리/(중략)/ 이는 감방에선지
「쏘련군이다! 쏘련군이다!」/아우성친다
문을 깨뜨린다/화작끈 탕탕 문혀친다 (중략)

다시 정신 차렸을세/천 뵈이는것
넓은 이마 하늘빛 눈동자/기쁨에 젖는 그눈동자
그는 쏘메트장교/감옥 문앞에서 보던.....

그는 진진에 흐스른 수봉은/내입술에 조심히 디리땀다
모금 모금 소생의 뉘줄기...../나는 눈뉘을 금할수 없구나.....
나는 그양 울어야한다/오 기복한 구원지역!

2

이때부터 그의 이름도 알았다/안드레이 이와노프
스볼렌시나 농가에 태어난 그이/이씨 이땅에서
그날 아침 감옥 문앞에서/그와 만나리라 내 믿었으리!
(중략)

五年 세월이 복수의 피로 다올라/인민들은 멸망에서 건지며
西으로 엘바강까지/돌아서니 신음에 빠진 東方
그대는 八...五를 가지왔다/세력사의 어머니 八...五!

「우리의 길」 부분³²⁾

인물과 사건을 갖추고 있는 일종의 '이야기 시'(서정서사시)인 위의 시는 전체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의 길」은 조기천의 시 중에서 백·蘇親萍사상을 가장 잘 반영한 작품이다.

시적화자 '나'(성춘이)는 사회주의 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일제강점기 시대 5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서 보내야했다. 그러는 과정에서 '나'의 동료는 고통스런 일제의 고문에 견디다 못해 정신병을 앓게 되고 '나'는 고통과 절망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소련군의 도움으로 해방이 되어 감옥에서 탈출한다는

32) 조기천, 앞의 시집, 118~123쪽.

서사적 구조를 띠고 있다.

조국의 운명이 북한에 저했을 때 화자인‘나’는“北”에서 태양이 떠오르듯이“北”으로부터 조국해방이 올 것을 예감한다. 마침내“북”으로 상징되는 소련군에 의해서 해방은 찾아오게 되며 한 보금의 물에 목발라 있는‘나’에게 소련군 장교‘안드레이 이와노브’는‘소생의 물’을‘나’에게 건넨다.

이 시는 소련을 민족구원의 해방군으로 형상화한 수준에서 더 나아가 소련과 조선의親善은 “조선의 앞날”을 결정한다는 미래 전망의 수준으로까지 치달는다.

세4장

2

그이다/ 들림없이 그이다

「안드레이!」나는 부르짖는다

「안드레이! 안드레이!」

그의 두손 잡으니/그도 나를 아는구나

「성훈이! 성훈이!」

세5장

1

악수에 악수

「잘있으라 성훈이

싸우라 성훈이

조선은 위하여

인민을 위하여!」

(중략)

3

그때면 그때면/우리 인민도

안드레이 너의 인민과/한집에서 만나리라

한집에서/이것은

조선의 앞날이다!/이것은

세계의 앞날이다!

「우리의 길」 부분³³⁾

인용한 부분은 이 시의 결론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대 북한 시인의 진술처럼“조선과의 형제적 친선 속에서만 자기 나라의 번영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높은 신념”³⁴⁾을 단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시는 朝・蘇親善사상을 전형적으로 보여준 경우라 할 수 있다.

초기 북한문단에서 국제주의는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서, 소련에 기초하는 국제주의가 보는 현실을 판단하는 중요한 가치 기준으로 자리를 잡았음을 의미한다. 국제주의 사상은 소련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이며 소련이 구심점으로 작용하고 있었던 것이다.³⁵⁾ 그 결과 북한은 소련을 절

33) 조기천, 앞의 시집, 164~174쪽.

34) 이정구, 「시인 조기천의 문학적 활동과 애국주의 사상」, 《문학예술》, 1952, 11, 129쪽.

35) 韓植은 ‘국제주의 사상을 반영한 조선 문학 작품’의 전형을 예로 들었는데, 여기에는 해방 이전 조명희의 『낙동강』과 이용악의 시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를 들고 있다. 이 작품들이 국제주의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근거로 한식은 「낙동강」에서 주인공 ‘박성운’이 무산계급의 혁명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후 다시 혁명을 꿈꾸며 구소련으로 갔었던 일, 그리고 박성운이 병사하자 그의 애인 ‘로사’가 혁명을 위하여 구소련으로 갔었던 일을 들고 있다. 이용악의 시에 대해서는 ‘우라지오’(구소련)에 대한 동경의 의식을 표출

대시하고 소련의 것을 추수하는 현상이 노출되었다.

다음의 글은 국제주의 사상에 관하여 당시 북한문학 내부에서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잘 보이고 있다.

진정한 국제주의에 대치되는 것은 더 말할 것 없이 현재 미영제국주의자와 그 중북이 떠돌아다니고 있는 세계주의인 바 이것의 이면은 곧 부르조아 민족주의인 것이다. …… 부르조아지의 세계관과 및 그 정책은 민족주의와 배타주의에 입각하고 있다. …… 부르조아 세계주의는 이와같은 사상으로서는 독점자본의 진출 밑에서 세계인민들을 예속과 약제에 억눌러두려고 하는 것이다. (중략)

그와 반대로 진정한 국제주의는 노동계급의 이데올로기인 바 그는 민족적 인종적 억압의 이데올로기인 부르조아 민족주의와 세계주의와는 전혀 적대되는 것이다. 진정한 프롤레타리아적 국제주의는 국내외 만민억압자들을 반대하여 자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치열한 애국적 사상과 밀접히 연결되고 있으며 자기 조국의 역사와 문화와 예술이 갖고 있는 진보적이고 인민적인 성격과 전통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밀접히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그 예를 우리는 소비에트 애국주의에서 들 수 있는 것이나……36)

국제주의는 세계주의 및 민족주의와 대치되는 개념이다. 韓植은 ‘세계주의 이면에는 미·영제국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부르조아 민족주의이며, 이 민족주의는 세계 제패를 꿈꾸는 배타주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국제주의는 ‘노동계급의 이데올로기이며,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치열한 애국적 사상과 긴밀히 연결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 예를 소련의 애국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주의는 애국주의 사상과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한다. 이런 점에서 韓植은 “인민대중의 진정한 애국주의는 프롤레타리아적 국제주의와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긴밀히 연결되는 것이며 자기민족의 해방투쟁에서 치열한 애국정신을 발휘한 애국투사는 바로 국제주의의 실천자”³⁷⁾라고 주장하였다. 국제주의는 애국주의와 동가를 이루며 그것은 반제국주의에 대한 투쟁으로 표출된다. 그리하여 북한은 대중을 국제주의 사상으로 교양시키기에 이른다.

소련과의 연대를 강조한 국제주의 사상은 북한문학에서 인민들을 교양시키는 강력한 무기로 등장하게 된다. 그 결과 북한문학은 소련을 서술할 때 단순히 소련에 대한 “감상적, 감정적 과정으로만 서술한 것이 아닌 韓·蘇간의 역사적 의의, 소련 군대 및 소련 인민의 고상한 사회제도, 그들의 선진적 사상과 생활에 대한 본질적 면모를 그려야”³⁸⁾했다.

국제주의 사상 구현으로 북한문학에서 나타난 또 다른 특징은 일명 구국투쟁의 방법으로서 빨치산 활동을 그리게 되었고, 미제국주의에 대한 적개심을 강하게 표출하는 작품을 생산하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조기현은 서정서사시 「항쟁의 러쉬」(1949. 2)와 장편서사시 『생의 노래』(1950. 6)를 창작하였다.

밤은 깊어 가도

1

조국의 자유를 위해 싸우려는

수만의 심장들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주의 사상을 담고 있는 작품으로 평가하고 있다. 韓植, 앞의 글, 자료집 1, 508쪽 참조.

36) 같은 책, 505~506쪽에서 재인용.

37) 韓植, 앞의 글, 자료집 1, 507쪽에서 재인용.

38) -----, 위의 글, 자료집 1, 520쪽에서 재인용.

팔라에 붙쳐맨 애국 도배를
 모조리 무시리는 애국의 익찬 고동
 리수의 밤은 무시무시 깎이갸도
 가두는 항구의 햇불을 품고
 만석의 신호 기다린다

2

(중략)

(부두 노동자들이 잠복 속에
 드럭 앞으로 나가서
 총을 반하들고
 대렬에 들어서는데)
 『왜 나는 싸울 수 없단 말이오?
 이제 경기장 싸움에서
 내 아들이 죽었쇼
 부두의 뚝관 우에서
 내 뼈말이 되었은망정
 오늘은 그 개놈들을!
 대개도 총을 주시오!』
 (보인도 총 빼고
 대렬에 들어선다
 130년 집 지낸 이께에
 총 한자루 무기우냐!)

「항쟁의 리수」부분³⁹⁾

위의 시는 남북한 좌우익 대립의 상징으로 각인되는 ‘이순사건’(1948년 10월 19일)이라 불리는 ‘이순항쟁’을 제제로 취한 시이다. 극적 형식이 돋보인 이 시는 항쟁에 있어서 남니노소 한 것 없이 모두 항쟁에 동참하여 남한의 구국 투쟁을 선도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것은 곧 “팔라에 붙쳐맨 애국 도배들”인 미국과 남한의 이승만 정권에 대한 지향과 전투욕으로 표현되었다.

구국의 투쟁은 곧 애국주의로 연결되며, 애국주의는 한 개인뿐만 아니라 평범한 전체 대중들의 자발적인 구국투쟁을 형상화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항쟁의 리수」는 부두 노동자들, 평범한 노인, 어린 학생들과 어인들이 직접 총검을 들고 남한을 지배하려는 미 제국주의에 맞서 투쟁하는 애국주의 사상을 담고 있는 것이며, “대중적 영웅주의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할 수 있다.⁴⁰⁾

초기 북한문학의 주된 경향으로 자리 잡았던 애국주의 역시 국제주의와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다. 애국주의는 부르주아 이익을 대변하는 이데올로기라고 비판받는 민족주의에 대응하여 국제주의와 함께 주장된 것이다. 애국주의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조국 보위에 바친 노력이나 생산량 증가에 바친 노력을 묘사한 작품들 또는 민주개혁의 의의를 밝혔거나 토지개혁에 의한 농민의 향상된 생활을 그린 작품들도 모두 애국주의 사상을 담고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애국주의는 “사회주의 소년 및 평화애호 인민과의 국제적 연계 속에 그 담보의 열쇠가 있는 것이며 조선 인민의 진정한 애국주의는 그 자체에 있어서 국제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고 남고 반동적인 민족주의와는 정반성”⁴¹⁾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북한문학에서 표현되는 애국주의사상은 민족의

39) 조기천, 『조기천선집』,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5, 208~209쪽.

40) 이정구, 「시인 조기천의 문학적 활동과 애국주의 사상」, 《문학예술》, 1952, 11, 121 쪽 참조.

영웅인 김일성 장군의 형상, 애국선열의 형상, 남반부 빨치산 투쟁 등을 다루게 된다. 결과적으로 북한문학은 해방 직후 애국주의 사상을 일관되게 표출하였던 것이다.

이승만 도당이 미제에 민족을 팔며 일제와 야합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연한 일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조선 인민이 자기의 최대의 원수인 이승만 도당과 겨루고 싸우고 있다는 것은 바로 미제의 침략을 반대하여 싸우는 것을 의미한다. ……조선인민의 애국주의는 이와 같은 국제적 연결성을 견지하면서 근로인민의 당인 노동당을 핵심으로 전국의 각계각층의 애국주의적 인민의 정당과 사회단체들로 연합된 조국전선 가운데 자기의 무진장한 단결력을 과시하고 있으며 온갖 사업과 투쟁으로 표시되는 인민의 생활 가운데 살아 있으며 조국 보위의 호소와 남반부 인민의 빨치산 투쟁 가운데 힘차게 약동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민의 애국주의는 당의 선두적 기치 밑에서 자기의 심적을 더욱 명백하게 한다. 왜 그런가하면 애국주의는 당의 사상이며 당은 조선 인민을 행복한 사회의 건설에로 발전시킬 수 있는 맑스 레닌주의의 혁명적 이론으로 무장하였으며 조국을 사랑하기에 누구보다도 선봉적이며 용감한 애국자들의 핵심적 부대로서 조직된 까닭이다. 조선 인민의 애국주의는 이러한 애국주의이다.⁴¹⁾

윗글에서 알 수 있듯이 애국주의는 '이승만 도당'에 대한 투쟁을 의미하며 그 투쟁은 '미제의 침략'에 대한 투쟁과 연관된다. 애국주의는 '국제적 연결성을 견지'한 것으로서 당의 핵심 사상이었으며, '조선 인민을 행복한 사회 건설'로 전인하는 사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애국주의는 당시 북한문학의 중요한 창작의 원천으로 부각되었다. 그 표현양상은 남한에서 벌렸던 반미구국투쟁의 형상화와 한국전쟁 중 싸웠던 용사들의 애국적 형상으로 나타난다. 특히 한국전쟁 중에 창작된 일종의 '전쟁시'는 애국주의 사상을 잘 표현한 시이다. 조기천의 「불타는 거리」(1950. 8), 「조선의 어머니」(1950. 9), 「주검을 왼쪽에」(1951. 1), 「조선은 싸운다」(1951. 2), 「나의 고지」(1951. 7), 미완성 유고작 「비행기 사냥꾼」(1951. 8) 등의 시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창작된 시라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소련을 근간으로 한 국제주의와 애국주의 사상은 조기천 시의 중요한 원천이 되었다. 국제주의와 애국주의 사상 출현은 朝鮮・蘇聯의 사상을 강화시켰으며, 그 결과 북한 시는 더욱 경직되었다. 북한문학의 특성상 불가피한 현상이었으며 조기천의 시 역시 북한의 정치적 상황과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창작되었다. 이런 점에서 조기천의 시뿐만 아니라 북한 시의 한계점은 정치현실을 곧바로 재현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4. 맺음말

소련 연해주 스푸스크 촌에서 출생한 趙基天은 在蘇 코리안으로서 1945년 광복 직후 한반도에 들어와서 6년 동안 왕성한 창작활동을 하다가 39세로 散華한 시인이었다. 일찍이 조국을 떠나 디아스포라(diaspora)적인 삶을 영위하다가 入北한 조기천은 소련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초기 북한문학을 이끈 향토자적 역할을 하였다.

조기천 시 창작은 이른바 '민주개혁'실시로 나타난 사회현상을 배경으로 한 것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고상한 사실주의가 출현하였다. 고상한 사실주의는 현실에 기초하여 현실의 민란을 극복하고 미래에 대한 밝은 전망을 지닌 긍정적인 인물형을 그린 창작수법이 있다. '용항사건'은 고상한 사실주의 출현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야기된 사건이었으며, 『白頭山』은 고상한 사실주의를 강화시키는 계기로 작동하였다. 1947년 이후 고상한 사실주의는 북한문학의 유일한 창작방법론이 되고 모든 문학가들이 따라야 할 하나의 표본으로 확립된 것이다.

41) 엄호석, 「조선문학과 애국주의 사상」, 《문학의 전진》, 1950. 8. 앞의 자료집 1, 475~477쪽 참조.

42) 엄호석, 앞의 글, 앞의 자료집 1, 478~479쪽.

1948년을 전후하여 미·소 냉전체제의 형상으로 남북이 극도로 긴장된 상황에서 국제주의와 애국주의 사상이 혼연하게 되었다. 국제주의는 사회주의 조국인 소련을 중심으로 단결과 친선을 강조한 사상이었다. 애국주의는 국제주의와 특별한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반미, 반제 사상을 근간으로 한 구국투쟁을 구현한 사상이었다. 애국주의 사상은 한국전쟁 중에 창작된 시인 '전정시'에서 두드러지게 표출되었다.

조기천은 연해주와 중앙아시아를 유랑하며 모국어(한글)로 창작활동을 지속적으로 하였다. 조기천의 문학은 해외 한인문학의 한 모델로서 진지하게 조명되어야 마땅한 일이다. 해외 한인문학은 국제화 시대에 민족문학의 중요한 실체로 임존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조기천은 남북 분단시대를 거쳐 국제화와 통일의 시대에 민족문학의 길을 모색하는데 필수적인 하나의 접근점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조기천, 『우리의 길』, 조선인민출판사, 1948.

_____, 『조기천선집』,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55.

북한문학자료연구센터, (조선예술영화) 시인 조기천, 평양: 조선예술영화촬영소, 1988.

2. 단행본

김경숙, 『북한현대시사』, 태학사, 2004.

김윤식, 『해방공간의 문학사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89.

김제용, 『북한문학의 역사적 이해』, 문학과지성사, 1994.

류반, 『현대조선시 문학연구(해방후편)』, 사회과학출판사, 1988.

리정구, 『시인 조기천론』, 문예총출판사, 1953.

朴南秀(玄秀), 『赤治六年の北韓文壇』, 國民思想指導員, 1952.

安含光, 『조선문학사』, 한국문화사(영인본), 1999.

오정애·리용서, 『조선문학사(해방후편) 10』, 사회과학출판사, 1994.

이선영·김제용·김병민 편, 『현대문학비평자료집 2』, 태학사, 1993.

이종석, 『조선노동당 연구』, 역사비평사, 1995.

정상진, 『아무르 반에서 부르는 백조의 노래-북한과 소련의 문학예술인들 회상기』, 지식산업사, 2005.

중앙일보 특별취재반, 『秘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상, 하)』, 중앙일보사, 1992.

3. 논문

김낙현, 「趙基天 詩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金昌滿, 『北朝鮮文壇의 새로운 收穫』, 『모는 것은 조국건설에』, 노동당출판사, 1947.

리정구, 「시인 조기천의 문학적 활동과 애국주의 사상」, 《문학예술》, 1952.

安溟, 「민족문학과 민족예술 건설의 고상한 수준을 위하여」, 《문화전선》, 1947, 8. 이선영·김제용·김병민 편, 『현대문학비평자료집 1』, 태학사, 1993.

- 임호석, 「조선문학과 애국주의 사상」, 《문학의 전진》, 1950. 8. 이선영·김제용·김병민 편, 『현대문학비평자료집 1』, 태학사, 1993.
- 오성호, 「북한 시의 형성과 전개」, 목원대학교 국어교육과 위임, 『북한 문학의 이해』, 국학자료원, 2002.
- 이종석, 「북한사회주의정권의 성립과정」, 《역사비평》, 1988, 가을.
- 鄭律, 「詩人과 現實-趙基天氏의 創作을 評한」, 《문학예술》, 제2권 제7호, 1949.
- 韓植, 「조선문학에 나타난 국제주의 사상」, 《문학의 전진》, 1950. 8. 1. 이선영·김제용·김병민 편, 『현대문학비평자료집 1』, 태학사, 1993.
- 韓曉, 「새로운 시문학의 발전」, 《문학의 전진》, 1950. 7. 이선영·김제용·김병민 편, 『현대문학비평자료집 2』, 태학사, 1993.
- _____, 「高尚한 리알리즘의 体得」, 《조선문학》(창간호), 1947.

영농낙토론의 한 사례: 만주국의 조선인 농업 기술자들과 민족 표상의 작동 방식

김주현(인제대학교)

<목 차>

1. 들어가며
2. 문명의 지표 수전: 은폐된 계급 갈등
3. 협화의 지표 복측: 탈색되는 민족 분제
4. 나오며

1. 들어가며

한국 문학사에서 만주의 문제시는 만주국 성립 후 만주를 대하는 작가들의 태도가 달라진 것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오랫동안 황무지였던 만주가 기회의 땅으로 빠르게 탈바꿈하면서 만주는 대동아경영권, 동아협동체론이 실현되는 공간처럼 주목받게 된다. 1800년대 후반 원경이 시작되고서도 오랫동안 논의의 대상이었던 조선의 이주민들이 개척의 터를 농은 선구자로 사회적 존경을 받게 되는 것은 조금 더 지나 전시체제가 본격화되면서이나 이른바 만주 드림은 만주사변 후 만주 개척에 따른 일제의 대규모 이주정책에 힘입어 구체적인 언어로 육화되어 조선 농민에게는 자작농의 꿈을, 자본가들에게는 대규모 농장경영에 대한 욕망을 자극하게 된다.¹⁾ '거름도 필요 없는 비옥한 검은 흙'이 살도 없이 펼쳐진 잠제직 영농낙토에 대한 환상은 원경 농사시기 때부터 소문의 형태로 유통되었다. 실제로 일부 원경 농민들은 씨앗만큼씩 자란 조, 수수, 콩 등과 씨앗만 뿌려놓 감자를 수확하며 강 너머에 실재하는 고도 생산성의 유토피아를 확인하기도 하였다. 원경 한 국경선과 백두산 정계비로 대표되는 영토 논쟁은 국경 접경 지역 농민들의 이러한 욕망에 정당성을 확보해주며 더욱 만주를 조선 농민들의 잠제직 농토로 여기도록 만들었다. 안수길의 「북간도」에는 초창기 이주민의 이러한 정황이 잘 나타나 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만주국이라는 훗날의 정치 난위체를 떠나 문제를 처음에서부터 들여다보면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 검은 흙에 잠곡과 구황작물 등을 심는 일부 조선 농민들이 보인다. 옷차림을 제외하면 청인들과 별 다르지 않은 모습.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되기 전의 풍경이다. 그러나 이주가 본격화되면서 서서히 만주는 조선 민족의 개척사가 펼쳐진 (민족)수난과 반선일이라는 친일의 땅으로 통합된다. 이 점에서 국가 또는 민족은 제반 조선 문학을 평가하는 중요한 항목이 된다. 문학 작품과 온갖 기행, 대담 등으로 구체화된 이 개척담을 접한 후, 만

1) 공진항, 『이상향을 찾아서』, 灌菴공진항희수기념문집간행원회, 1970

한편 중일전쟁 후 일본인들에게 만주는 '관광 낙토'의 땅이기도 했다. 만철이 앞장선 만주관광은 전쟁 성지 관광 후 제국의 변화가를 즐기며 하얼빈에서 서양인 정복의 은유를 경험하는 등 일본 제국의 문명이 이식된 매혹적인 공간으로 일본인들의 구미를 당겼다. 까오유엔(高媛), 낙토를 달리는 관광버스-1930년대 '만주' 도시와 제국의 드라마투르기, 요시미 순야 외, 연구공간 수수+너머 '일본근대와 젠더 세미나팀 역, 『확장하는 모더니티』, 소명출판, 2007 참고.

선일이의 허구성을 폭로하기는 쉽지만 정치, 경제적 이유 때문에 불가피하게 디아스포라를 이론 제반 조선인들을 향한 민족주의적 동질의식을 포기하기는 어렵다. 물론 근대 탈식민주의 연구가 시작되면서 파시즘의 내, 외부로 동시에 성찰하는 작업들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파시즘의 위력이 최고로 달했던 시기에 친일의 경계를 심세하게 구분해내는 작업이 없었다면 극단적으로 이는 협력과 저항의 차이를 역사적으로 무화시키는 불공정한 결론에 이를 있다. 이러한 정당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사유해 볼 수는 없을까. 애컨대 초창기 이주민의 개별적 서사들은 어떻게 디아스포라 민족 집단의 서사로 통합되었으며, 다시 그 상위체인 만주국의 서사를 만들게 되는가.

이 글은 조선, 중국, 일본이라는 국가 단위나, 또 민족 단위도 아닌 다른 방식으로 만주 개척의 의미를 재고해보기 위해 농업기술이성(農業技術理性)에 주목한다. 즉 농사를 자연이 주는 선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근대적 기술 이성이 개입하는 이해해 체계적 관리와 경영으로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근대적 영농 시스템이 곳곳에서 정착되어갔던 땅으로 만주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소농과 자작농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오래된 관행적 농법을 깨고 대규모 농장 중심으로 관과 민이 협력하여 새로운 영농기술을 적극 도입해 상호 경쟁적인 전문적 농업 기술을 요구하게 된다. 실제로 만주국이 내세운 영농낙도론이 일본이 전사체제에 돌입한 후 안정적인 군량미를 제 공하기 위한 정책이기도 했던 것은 식민지 조선의 식량 사정이 갈수록 악화되어 새로운 식량 공급지를 마련해야했던 사정과 대단히 밀접하다. 그 결과 1930년대 일제의 만주 이주 정책은 강제성을 띠면서 조선과 일본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거름도 필요 없는 비옥한 검은 흙에 대한 환상이 제국주의 일본 당국에 의해 보증되면서 만주 드림을 현실화하려는 농민들의 집단 식민이 이루어진다.

물론 조선 농민과 일본 농민은 저우부터 달랐다. 그러나 원주민 입장에서 본다면 이들은 종종 같은 일본인으로서는, 밭농사 중심의 농토와 농법을 같이했고 농지를 대규모로 점령해가는 위협적인 존재였다. 애컨대 이주 초기 원주민과 조선인이 충돌한 때는 항상 수전이 가운데 있었는데, 수전 문제는 쌀을 주식으로 하는 조선인과 일본인을 동일 집단으로 간주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애초에 문제는 국적이 아니라 농법의 차이가 불러 온 위화감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1930년대 후반 수전을 목표로 들어오는 조선 농민들이 큰 무락을 형성하면서 흩어져 잘 보이지 않던 소농들의 황무지 개척이 일제를 등에 업은 이주 집단의 초민족적인 집합으로 다가오게 된다. 다시 말해 협력한 수는 없지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방임 대상이었던 조선 농민들이 이제 '적대' 대상이 되고, 역으로 제반 조선인들은 이에 대응하여 수전이 조선인을 위한 기술만이 아니라 중국인들에게도 유리한 진보한 농업 기술임을 선전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리하여 초창기 이주민들의 개척담을 다루는 문학 작품이 생산되고, 조선과 일본의 문인들은 낙토를 다 니온 소감을 '대동아 공영'이 구현된 것으로 발표했다.²⁾ 이 때 이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은 만주 개척의 산 증거가 바로 수전이었다. 수전의 시각적 효과는 물론이고, 조선과 일본 공동의 이해 관계를 만족시키는 벼농사는 미개지 만주에서 내선일체론이 구현되고 있다는 착란을 조장하게 된다. 이는 수전을 매개로 조선·일본·중국이라는 내림항이 만들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1930년대 후반 만주국이 배경인 조선 문인들이 수전을 매개로 만주 개척 민족 수난사를 그린 까닭도 마찬가지로 수전이 조선인다움의 선명한 지표였기 때문이다. 하나 뒤에서 살펴겠지만 수전

2) 대표적으로 만보산사건을 소재로 한 이토 에이노스케(伊藤米之介)의 「만보산」(1931), 장혁주의 「개척」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밖에 관점은 다르지만 이태준의 「농군」도 수전에 얽힌 조선 이주민들의 개척담을 그리 있다. 또 민족문학연구소에서 펴낸 『일제 말기 문인들의 만주체험』(2007)에는 여러 문인들의 만주 방문기가 묶여 있다.

은 사실 제국주의 자본의 침식력이 대단히 높은 농업 기술이었다. 수전이 동반한 문제 중에는 매체가 조장한 민족 문제 외에도 은밀하게 가려진 계급 문제가 있었다. 이 논문은 일제 말기 안수건의 작품을 중심으로, 조선인 이주민이 보급한 수전의 문제성을 작품 속에 형상화된 조선인 디아스포라 집단의 민화상을 따라가면서, 그것에 가려진 자본과 민족 문제를 짚어보코자 한다.

2. 문명의 지표 수전과 은폐된 계급 갈등

만주 지역의 벼농사는 조선 후기 국경지역 조선인들이 혼강을 따라 북으로 올라가 통화일대에 서 벼농사 시작에 성공한 후 남만지역으로 점차 확대되어 간 1875년 무렵을 개시 시점으로 잡는다³⁾ 그러나 이와 관련해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사건은 1931년 만보산 사건이다. 이주 초창기 조선인 디아스포라 집단의 고난을 상징하는 대명사가 된 만보산 사건은 이태준의 「농민」, 장혁주의 「개척」의 배경이 되었고, 안수건의 「벼」에서도 그림자를 엿볼 수 있다. 널리 알려진 대로, 중국동북지역 건림성 장춘현 만보산 인근의 이주 조선농민이 수전에 필요한 수로를 파다가 토착 중국인과 충돌을 일으켜 자국민 보호를 구실로 출동한 청, 일 관헌의 무력 충돌에 이르렀으나 큰 인명피해 없이 끝난 것이 사건의 개요이다. 큰 문제없이 마무리되었던 사건은 이후 고의적으로 왜곡되고 과장된 언론 보도를 타면서 조선 거주 중국인들이 대규모로 살해당하는 비극을 초래하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선인을 이용해 편법으로 수전을 개척하려한 중국인 학영택이 눈에 띈다. 박영석에 따르면 그는 개인적으로 일본과 결탁해 長春稻田公司를 세운 다음 蕭翰林 등 중국인들과 10년 계약을 체결했으나 다시 수전을 위해 조선인 9인과 이중계약을 체결하면서 수로가 지나가는 중국인들의 땅이 피해를 입게 되자 조선인 보호를 자처한 일본영사관과 중국인들의 탄원을 받은 장춘의 공공기관이 공동조사 끝에 상이한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⁴⁾ 사건이 확대되면서 원인 제공자 학영택은 뒷전으로 물러나고 경작지와 농법을 대개로 벌어진 조선인과 중국인의 민족 문제로 사건이 호도된 것이다.

그러나 중국 측 결론이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공사의 법적 문제와 수전 때문에 피해를 입은 중국인의 농지에 대한 우려였는데 반해, 수로 공사에 계약상 큰 하자는 없고, 장차 수전으로 농지가 각이 상승할 것이므로 토착 중국인에게도 이롭다는 일본 측 주장은 의지가 농후하다. 어쨌든 계약의 하자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고, 벼농사를 짓지 않는다면 수로가 지나가는 주변 농지가 입은 피해 또한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땅값이 오를 것이라는 주장은 원주민의 삶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오랫동안 그곳을 지키며 공동체를 형성해온 원주민의 터전을 상업적 개발 공간으로 바꾸려는 자본가의 시각을 그대로 드러낸다. 요컨대 그들은 무주공산 만주에서 통용된 힘의 논리와, 식민지 조선은 넘어 만주까지 점령중인 자본의 논리를 깔고, 표면적으로 조선인 보호를 내세워 조선인과 중국인들의 충돌을 유도하는 식으로 동북지역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키운 셈이다.

이 때 조선과 일본이 하필이면 쌀을 주식으로 하는 민족이라는 사실은 '우연'이었지만, 당시 역사적 상황에서 이 우연은 이 시기 동북 지역의 민족 갈등을 초래한 문화적 원인을 넘어, 시간이 흐를수록 영농낙토 만주국에 세워진 조선인 디아스포라 집단의 삶의 방식과 생활에 대한 전망을 민화시키는 정치성을 띠게 된다. 내력 언급한대로 수전은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수전은 잠곡 위주로 살아온 동북 지역 중국인에 대해 새로운 농업 기술의 우위를 입증한 문명의 상징이자 제국주의 일본의 만주 수탈의 전병이었던 관동군이 요구했던 식량, 또 미국 투기를 일으켰

3) 김영, 『근대 만주 벼농사 발달과 이주 조선인』, 국학자료원, 2004, 34쪽.

4) 박영석, 『만보산사건연구』, 아세아문화사, 1978 참고.

턴 1930년대 자본주의적 근대성의 추성에 적극 부합했던 문제적 기술이었다. 그런데 수전이 만주 개척에 헌신했던 조선인의 개척담으로 흡수되면서 이러한 문제성이 가려진다.⁵⁾

만주에서 수전 개간은 힘의 역학에 좌우되었다. 19세기 후반에 일본을 경계하기 위해 간도 지역 이민정책을 실시하면서 조선인의 귀화를 장려했지만 중국북방지역은 전통적 부녀농업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만선철도가 놓이고 1918~19년 조선남부지역에 흉년이 들면서 수전에 능한 조선인들이 대거 만주로 진출하게 된다.⁶⁾ 이 시기 조선인들은 살 방도를 찾아 만주로 가서 생존의 절박한 요구에서, 물이 가까운 황무지에 자신에게 익숙한 농업을 시도하여 자연스러운 초창기 디아스포라 집단을 형성했던 것이다. 이 때까지만 해도 수전은 원주민들과 마찰을 빚는 기술은 아니었다. 중국인들의 인가에서 먼 곳에 황무지를 개간하는 식이었고, 조선후기부터 이미 수전 중심이었던 조선 농민의 일반적인 농업 기술을 북쪽 오지에서 시험해보는 시행착오의 시기였다. 더욱이 만주처럼 기후조건이 만척스러운 곳에서 조선 농민들 대부분이 벼농사에만 종사한 것은 수제, 한제가 들었을 때 생계를 위협받을 정도로 위험한 모험이기도 했다.⁷⁾ 요컨대 수전 개간은 조선인의 농업기술이 분명했지만, 또 반대로 현재의 기후 조건을 맞지 않는 도박이기도 했던 것이다.

이 조선 농민의 일반적인 기술이 특수하고 문명화된 기술로 바뀌는 것은 조선사회에 만주 이민 바람이 불어닥치면서 만주드림=벼=부의 축적으로 인식되는 1930년대 이후부터이다.⁸⁾ 만보산 사건에서 수전의 가치를 알아챈 학영택은 수전의 의미가 변화하는 30년대 분위기를 중국인 지주의 입장에서 선구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다. 그가 법적 하자를 무릅쓰고 조선인에게 수전 개간권을 준 것은 상업적 타산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1940년 발표된 안수간의 <벼>는 이주 초기 조선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던 학영택 같은 중국인 지주 방치원을 등장시켜 수전의 의미를 상업적 가치가 있는 농업 기술로 분명하게 정리하고 있다.

방치원은 일행을 끝까지 환영하였다. 그는 山東태생이었으며 젊어서 조선에 건너가 인천근방에서 작은 포복전을 경영한일이있었다. 대개로 조선안에서 자수성가한 사람으로서 조선말도 의사를 소동할정도는 되었기니와 그자신이 신세진 조선사람의게 대하여 기분리해롭지 가지었다.

수전개간을 그리게 후한조건으로 승낙한것도 그가 조선있을때 일췌밖에 맡드려관계도 있기니와 그것이 만주에서도 한신보다 이윤이 훨씬 만다는 것을 안가담이다. 그보다도 그는얼마전부터 이용가치가 충분히 있으면서 그대로 뽕개쳐있는 수십만평의 황무지를 수전으로 개간할생각을가졌으나 이곳 원주민은 그런기술이없이 그가조선있을때 친하든 사람에게 그런뜻을 편지하였다.⁹⁾

5) 문인들이 수전에서 무엇을 보았는지 앞으로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허나 분명한 것은 일제에 적극 호응했던 문인들은 물론이고 비교적 비타협적이었던 카프 맹원들에게도 수전은 황무지 개척에 성공한 진보적 농업 기술이자 조선 민족 문화의 우수성을 뜻하는 표식이었다. 1939년 이기영이 만주를 다녀온 뒤 쓴 짧은 소감 문은 고구려에 대한 상상과 그곳에 펼쳐진 수전에 대한 민족적 감탄으로 가득하다.

만주는 지광인희(地廣人稀)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황지를 개척하지 않아도 살 수 있었을 것이며, 또한 벼 농사를 질 줄 모르나, 그런대는 버려둘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만주가 개발되지 못한 원인은 그밖에도 없지 않을 것이나, 그것은 지역이 광대함에 비하여 문화가 발달되지 못하였고, 자고고 번복무상한 국가의 흥망이 인민의 생활을 근저로부터 파괴시킨 까닭으로 말하자면 왕화불급의 호지를 만들어버린 감이 없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또한 만주의 수전 개발은 원시적 자연을 변개하는 위대한 창조성을 띠고 있다. 같은 농촌이면서도 그것이 다른 데서는 볼 수 없는 만주농촌의 특별한 성격으로 되어 있다. 즉 황폐한 평원을 수전으로 개척하는 것은 본래의 건조한 밭농사만 짓던 만주로 하여금, 수전수림과 제방천택(堤防川澤)이 구유한 포실한 농촌을 건설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다만 경제적 부원을 개발함에 그칠 뿐 아니라 실로 전원의 풍광을 일변하는 자연미를 가져오게도 한다. 민족문학연구소, 앞의 책, 95쪽.

6) 김영, 앞의 책, 34-39쪽.

7) 위의 책, 41쪽.

8) 한석정, 『만주국 건국의 재해석』, 동아대학교출판부, 2007, 181쪽.

방치원이 수전에 호의적인 까닭은 조선에서 상인으로 자수성가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조선 사람에 신세를 졌다거나 깊은 이해가 있다는 설정은 개연성을 높이는 사소한 장치일 뿐, 본질은 그가 반주의 농민이 아니라는 점이다. 황무지를 수전으로 바꿨을 때 이윤을 충분히 계산할 수 있는 상인 출신 지주라는 점에서 방치원은, 반보산 사건에서도 드러났듯, 중국인의 입장에서 진보한 농업기술인 수전의 가치를 실화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는 공평하지 않다. 분명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방치원과 같은 지주에게 이롭겠지만 당장 수전 때문에 피해를 입은 중국인 소농들의 입장은 다르기 때문이다. 반보산 사건에서도 그랬지만 핵심은 수로 옆의 밭을 못쓰게 된 중국인 농민들의 ‘구체적’인 불만과 항의였다. 그런데 이에 대한 답은 (중국인들이 보기엔) 검증되지 않은 예측과 계산을 일방적으로 믿으라는 것이니, 이는 개인의 실박한 요구를 지주의 상업적 기획으로 덮는 불공정한 저사였다. 실제로 방치원은 개간한 황무지를 3년간 무상대여하고 그 안에 조선에서 불려온 수전기술자들의 생계를 책임지겠다는 후의를 베풀지만 황무지를 팔지는 않는다. 방치원에게 수전을 제안한 홍덕호 역시 “삼년동안에 잘하면 미천한 쥔 안드리고 수전원모아가지고 나갈수있을것이다 기뻐하며” 이를 승낙한다. 수전의 환금성에 대한 양국 사람들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물론 방치원의 계획은 일부만 청 정부의 이주 정책과도 맞물려 있다. 이주 초창기에 “인구가 희박하고 개간지역이 엄청나게 많은 만주에서 더욱 수전의 개간은 지원의 발군로서 국력의증강을 의미하는 것”(273쪽)이기도 했다는 설명은 청 당국의 이주 정책이 확인해주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중국 농민들의 입장은 어떤가? 「며」에서 중국 농민들을 그리는 서술자의 시각은 민족주의적 시각에서 대단히 편향적이다.

그러나 원주민인 이곳 농민들은 박아지름 보통이에베어달고 기지때같이 불리오는 백성들에게 적지않은 식개심을 느끼고 그들을 모멸하였다.

그것은 원주민으로말미암아 그들의 기경지가 침해당할까 서이함이었다.

그들은 그들이 이미개간한땅 그것을 지킴으로써 만족히역였고 달리 개척한다거나 황무지같은것을 이용할생각은 하지않았다. 수전은 모르는 그들에게 우리도하던생각이겠기니와 그들은 숨지며 낮은곳은 한전에 식당타아니하여 그대로 쟁개치고 볼보지않았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사람들이고 이용할수없는것인줄만익었다. 그러므로 이주민들은 때를지이들이와서 결국은 그들이이미 갈아놓은 땅에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안될것이고 그렇게되면 그들의 생활은 근거로부터 위험을 당한다는 것이었다.

방치원의 호의와는 정반대인 원주민들의 이러한 냉정한 태도는 일행이 이곳에처음도착되든때부터 느낄수있었다.(273쪽)

인용문에서 원주민들의 특징은 무지와 안일로 요약된다. 현재에 만족하고 무지해서 황무지 개척을 기경지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인데, 생각해보면 충분히 그럴 법한 태도이다. 더욱이 조선 농민들에게 준 가장 큰집을 내놓으라는 것은 조선인들 편에 선 지주의 횡포나 다름없다. 결국 집을 내어준 이들은 지주 방치원에 대한 불만을 야밤에 조선인들을 습격하는 것으로 표출하고, 이에 방치원은 다시 이들을 설득하면서 이주 조선인들을 “순수하고 죄없는 백성”, “그집을 위하히 복을 가져오는” 지친 “나그네”로 표현한다. 이러한 연설은 다양한 사연과 개성을 안고 있는 이주 조선인 농민들을 박해 받는 동질 집단으로 호명한다.⁹⁾ 상대적으로 원주민은 이토록 온순한 자들

9) 안수길, 「며」, 연변대학교조선문학연구소, 『안수길』, 보고서, 2005, 272쪽.

10) 만주 개척이 일제에 의해 국책으로 적극 장려될 때도 현실은 다르다. 1942년 10월 『조광』에 발표된 만주 개척민 부락장에서 개최된 좌담회 참석자 가운데 金澤의 발언 참고.

금택: 만주로 올때엔 여기 와서 농사지어 국토를 개척할 뜻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개척민 측에 많이 섞여 있거든요. 열이면 두셋은 그런 사람이 끼어 있기 때문에 달아날 수밖에 없습니까. 조선서

을 박해하는 무지한 자들이다. 이러한 표현은 의도된 것이지만, 거둬 말하거니와 이는 반보산 사건에서 일본측의 논리가 그랬듯이, 원주민 개인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다.

하나 여기서 핵심은 텍스트의 의도와 달리, 한전밖에 모르는 무지한 원주민: 문명화된 수전 기술 보유자 조선인의 나팔이 아니라, 수전의 경제성을 구실로 자국 농민에게 일방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지주의 태도이다. 민족 이전에 계급 문제가 우선인 것이다. 물론 이 배후에는 1930년대 반주에 눈을 뜬 식민 자본의 위력이 민족을 초월하는 기제로 작동하고 있지만 「내」가 이 문제를 너무도 간단하게 조선인에게 우호적인 지주 방치원을 세워, 한, 중 농민의 갈등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은 이후 다시 조선인에게 적대적인 청국 관료의 농간에 놀아나 한, 중 농민의 전면전이 벌어지고 일본인 나카모도가 해결을 위해 동문서주한다는 설정만큼이나 한, 중 농민의 개별적 역사를 동일한 목적 아래 단결한 민족, 국가 단위의 거대 서사로만 통합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실제로 반보산 사건의 당사자였던 조선 농민과 중국인 농민이 유혈 충돌 없이 반보산 사건이 일제에 의해 민족 문제로 호도된 것처럼, 민족 수난의 서사 속에서 수전은 오직 반주 땅을 황금빛으로 물들인 꿈의 기술이며 기술 전수자 조선 농민의 삶과 지위는 수전 성공 이후를 근거로 각성되어 있지만, 「내」와 「농민」이 굳이 반주국 성립 이전을 배경으로 밝히고 있는 것은 텍스트가 말하지 못하는 것, 다시 말해 1940년대 영농 낙도 반주국의 군소 농장의 실태와 무관할 수 없다고 하겠다.

3. 협화의 지표 복측과 탈색되는 민족 문제

반주 개척의 화려한 성공담과 달리, 수전 기술 공급지 조선의 농촌 사정은 오래 전부터 참혹했다. 강경애, 조명희의 20년대 소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주민들의 참혹한 가난은 말한 것도 없거니와 식량사정이 나빠지는 30년대 후반에 들면서 조선 농업은 더욱 심각한 위기에 처한다. 제국주의와 동양의 봉건제가 나쁜 방식으로 결합한 조선의 ‘동양농업’은 ‘동양적 무지’에 빠진 ‘아세아적 농민’을 양산하게¹¹⁾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농업 생산의 근대화를 이를 근대적 영농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시체제가 확립된 후 내선일체론에 편승하여 빠르게 전파된다. 40년대 일제가 주도한 농업체편성론을 몇 줄기로 요약하면 반주 分村계획과 노동력 이동 등을 통해 직접 경영규모를 창설하자는 自作農創定論, 경지개간과 농업기술 발달론, 소작관계의 조정 등을 통한 농업근대화론이 있지만 조선에서 대부분의 논의들은 ‘농민도’의 확립과 같은 추상적인 이념을 강조하는 데 불과했다.¹²⁾ 물질 토대가 취약한 데다 이미 가지 사정이 복합적으로 얽혀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농민도’가 실현되는 공간이 40년대 반주국이다. 「목축기」(1942)는 수의 면허를 가진 교원 찬호가 농촌으로 돌아가 목장을 운영하면서 겪는 에피소드를 기록한 작품인데, 「북향보」의 선작으로도 읽힌다. 이 작품이 흥미로운 것은 목장의 양돈 전문가 중국인 로우송을 그리는 방식에 있다. 찬호가 “축산과(畜産科)의 학업을 전문으로 연찬한” 엔리트 청년이라면 로우송은 “칠나서 부터 사오십년간 도야지반을 기르다” 생리가 ‘도야지화’하고 만 늙은 중국인이다.

농사 안하던 사람이 여기와 농사 지을리 만무지요. 민족문학연구소, 일제말기 문인들의 만주체험, 역락, 2007, 53-54쪽.

11) 인정식, 「조선농민과 문학적 표현」, 『삼천리』, 1939.7 참조. 마르크스주의자로서 농촌 문제에 골몰했고 전향 후에도 동양농업론을 내세워 농촌의 과학적 근대화, 계획경제론에 입각한 농업재편성론을 주장한 인정식의 농업 문제 인식에 대해서는 장용경, 「일제 식민지기 인정식의 전향론-내선일체론을 통한 식민적 관계의 형성과 농업재편성론」, 한국사론 참조

12) 장용경, 위의 논문, 271쪽.

도야지화한것은 몸뿐이 아넛앗하였다.

신경이 그랬고 감정이 또한 그랬다. 도야지말을 알아듣는듯했고, 도야지도 그의 말을 잘 들었다. 아무리 야생의새레종이라해도 그의손아귀에 들면 밧일봇가 그가착히는 대로 되었다. 넓은초원에 방목할때에도 썩소리한마디로서 당장 그 버릇을 고치게하였다. 엄했으나 또 인자도했다. 병난놈 있으면 파쁜한 자기방에 안이다 재우며 간수하는것을 비롯하식 더욱이 먹이에 대하이는 이머니의애정이었다.(...)그런으로 도야지도 그를 따르는듯했다. 그러나 세상일에는 이두운 그였다. 건국8주년인오늘에도 그는 역시 옛날세상인것만 여겼다. 도무지 그런 것을알려들지않았다. 그의 경력부녀가 보호하였다.¹³⁾

세상일에 무관심하고 돼지밖에 모르는 외관수는 찬호를 비롯한 조선인 인부들에게 연민을 자아낸다. 「내」에서 팽팽하게 맞서던 민족 대립이 이제 양적으로도 주객이 전도된 채로 공존의 가능성이 타진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언급해야 할 것은 로우승 역시 내의 토착민들처럼 자연상태에 가까운 인물이라는 점이다. 사실 그는 문명의 냄새가 칠지하게 제거된 인물이다. 도야지로 화한 로우승의 성격은 조선인들을 괴롭힌 악명 높은 미적이나 한사코 수전을 방해했던 토착민들 대신, 세상 이치에 어둡지만 온순하고, 목축에는 특별한 소질이 있는 중국인상을 만들어낸다. 실제로 찬호는 조선에서 태어난 돼지를 보고 로우승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그에게 무슨 적선이나 베프는것같은 호뜻함”을 느낀다. 그러나 그는 농장에 침입해 돼지를 죽이고 자신의 귀를 물어뜯은 호탕이를 죽이겠다며 찬호의 반류에도 기여이 눈이 오는 날 산속으로 떠남으로써 농장에서도 비정상적으로 예외적인 존재가 된다. 「목축기」는 로우승의 기이한 출정과 함께 어정쩡하게 끝난다.

「북향보」(1944)는 이 공존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확신하고 있는 작품이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북향보」는 「목축기」의 이상부락을 확장하여 북향도장이라는 공동체 농장 속에 일제말기 반주국의 국가경영 이념을 펼쳐 놓고 있다. 북향농장은 앞서 살핀 공진항의 조선인 농장이나 문인들의 단칸 시찰지가 된 반포산 부락보다 훨씬 규모가 큰 농장이다.¹⁴⁾ 무엇보다도 「북향보」에서는 적대적 중국인이나 일본인이 등장하지 않는다. 「내」에서 중국 농민이 차지했던 악역은 「내부의 적」에게 돌아가는데, 농민도에 입각한 “아름다운 농민도장” 건설 의욕을 잇속 때문에 좌절시키는 조선인 농장 주주들-퇴임 교원들과 장사꾼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를 대표하는 인물이 농장의 최대 주주인 박병익이다. 텍스트는 무려 10회 차에 걸쳐 그의 한탕주의 인생을 기술한다. 병익은 젊어서 방랑벽에 이끌려 간도를 찾았다가 학도의 은혜로 목숨을 건진 자이다. 그는 우연히 금광을 발견해 졸부가 되나 사업이 곤경에 처하자 ××은행 ○○현상지점지배인과 짜고 농장을 담보로 개발중인 탄광을 일본 제벌에 팔아넘기려 한다. 이렇듯 요행을 마라고 반주에 들어와 오히려 동포들에게 해를 끼치는 천민 자본가들은 “도혼(稻魂)”이 없는 자들이다. 북향보는 「모내기(IV)」장에서 학도의 입을 빌어 이런 도혼이 반주에 심은 조선 사람들의 덕이라고 선제한 후, 반주국 건국이 “저음으로 돋은 덕의씨”이라고 한 후 동족 비판에 나선다.

그런데 여기에 한가지 동탄되는 일이 있네. 그것은 다른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찌릿한 동포였잖지. 그러나 양복선인이라고 누가 말한것을 들은일이 있지만 그 명사야 무이든 건국후에야 경의선 한성선 직통열

13) 「목축기」, 70쪽.

14) 이에 대해서는 찬구의 입을 빌어 정확도의 농민도장 건설 동기를 밝힌 다음 대사를 참조.

찬구는 북향목장을 설치할때 친히 쓴 취지문(趣旨文)을 그때 문득 생각하고 부연하게 말하였다.

“건국전을 선구시대라한다면 그때에는 이곳에 살림터를 마련하려고 부조들이 피와 땀을 흘린 시대라고 할수있을 것이고 오늘날은 그피로어든 터전에다가 우리의뼈를 묻고 그리고 우리의아들과손자와 그리고 증손자 고손자들을 위하여 영원히 아늑하고 아름다운 고향을 이룩하지안하면 안될 시대라고 생각하시어 그 아늑하고 아름다운 고향을 만드시자는것이 선생의 뜻인줄압니다.” 「북향보」, 333쪽.

차를 타고 들어온 농민이꽃들일세. 그들은 건국전야에 이땅에 농포가 살고있는지 쟁이제끼가 있는지 관심 가지줄 까닭이 있겠는가만 건국이 된후 니도 나도 무력친지의 이 마닥에서 농민려 떠나는것과 쑥가튼 생각으로 우 불리들어온것이니 그들이 예서하는 행동이란 조선사람의 제면을 열려하는 지각잇은것이엇을 수가 잇겟나. 한다는 노릇이 봄의리요, 기짓말이요. 사기횡령이요, 부정업이요, 또 땅지안은 자본심에다가 쏠테임는 권리주장이요, 심한데 이르러는 만인을 경멸하는 언동이요, 헛스나 조선사람이 신용이 일게나 만개에서 두터울 리가 잇겟나.(…) 더욱이 논란되는 것은 이런분자들이 이곳에 몸을 곳이 었다던가 제게 이류지 못하면 만주를 실컷 욱하고 돌아가던가 재명 북지(北支)나 남지에 가면 그만이지만 하늘이 무니 진대도 갈곳이 었은 농민의 얼굴에 한번 불허노는 흙은 좀계로 벗이길 김이 인다는점일세...¹⁵⁾ 그러나 조선 농민은 이곳에 척의 씨를 심었고 심고잇은 사람들일세. 농민도는 또한 음덕(陰德)의 씨를 어떻게 뿌리자는 정신이기도 하네. 양보(陽報)가 잇습 날을 회신하면서……

요컨대 학도의 말은 도혼을 심은 조선인→만주국 건국→도혼이 없는 동족 비판으로 정리된다. 이 때 눈에 띄는 것은 수선=척의 씨앗=만주국 건국이라는 시국영합적인 발언이 아니다. 북향농장이 일제와 만주국의 협조로 만들어졌음을 텍스트가 확인해주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접어두면 농민도가 새로운 음덕의 씨로 슬그머니 확장되고 있는 데 주목할 수 있다. 여기서 농민도는 수선 기술을 뛰어넘는 영농낙포를 상징하고 있다. 주지하듯 표면상 주권국가였던 만주국은 아시아주의, 반서양주의, 아시아문명론(왕도정신), 서양제국주의에 대한 반발을 건국이념으로 하는¹⁶⁾ 다민족 농업 국가였다. 만주국 기자였던 안수진이 당국의 시책을 좇아 농민도란 용어를 주의 깊게 선택하면서 신경을 쓴 것은 오히려 거기에서 민족주의적 색채를 탈색시키는 작업이었다. 선제 일본인이든 만인¹⁷⁾이든 만주국 신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협화의 기술이었던 것이다. 북향농장의 제원 마련책이 수선 못지않게 중요한 양봉과 양돈, 약초재배로 맞춰져 있는 것도 이러한 연유이다. 농업에 상업 기술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나 유축농업을 기초하는 영농 방법을 전수하여 모범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도장설립 안은 새로운 농업기술로 지목된 목축의 중요성을 재확인해준다. 이에 대해서는 이 무렵 개척지에서 일했던 현지좌담회를 참고해도 좋겠다.

청금(靑鈴): 영농법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원래로 건조지대(乾燥地帶)와 혼대(混帶)는 농사짓는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올해는 좀 특별하지만 만주서는 이렇게 가꾸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가꾸는데 대하여 저항력을 만들이 내어야 합니다. 개척민들의 기기에 대한 인식이 들렸습니다. 만주 사람들은 씨를 뿌리고 나선 만드시 진안(鎭眠)을 합니다. 그 뒤에 이장(梨丈)으로 덮습니다. 그리고 또 분즈를 골룹니다. 그렇게만 하면 한달 가뭄이도 문제없습니다. 만주 사람들이 밭배된 두고 성헌해온 그 방법을 개척민들도 좀더 인식해야 할 줄 압니다. 농업에 대한 연구심 식은 것이 개척민의 결점입니다. 안도현에 한해서 본다면 여기는 고산지대니까 기후가 불순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농방법을 좀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작년, 재작년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방법으로는 갈 이면 것입니다. 그러니까 곡식보다도 우리는 목축을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리분 먹일게 얼마고들 하지요? 소나 돼지 먹일 것을 심읍시다. 그래서 좀더 목축에 힘을 쓰면 그쨏짓 밭쑤 갖기 이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나 강냉이 심이가치고는 밭 갖기이럽습니다. 목축은 주로 해야 합니다.¹⁸⁾

발언자는 만주 입식에 앞장섰던 만선척식주식회사(만척)의 대사하문(代) 환장소장으로 당시 일

15) 「북향보」, 525-526쪽.

16) 한석정, 앞의 책, 158-159쪽.

17) 만인은 민족과 국민(시민)의 경계를 넘나는 모호한 개념이었지만 최소한 인민으로 제시된 개념이었고 민족의 성격을 다분히 포함하고 있었다고 한다.

18) 「개척민 부락장 현지 좌담회」, 민족문학연구소, 앞의 책, 57쪽.

제의 농업정책을 현지에서 시도하던 인물이다. 그의 발언이 문제적인 것은 이태껏 개척의 대명사이자 부의 상징으로 간주된 수전대신 토착민의 전통적 농업 기술과 목축에 눈을 돌리자는 태도이다. 사실 대부분의 개척지는 수전이 많았으므로¹⁹⁾ 이 발언이 기후마저 온화하게 변화시키는 “위대한 창조성”을 포기하자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명히 만주의 기후조건에 맞는 영농방법을 생각해야한다는 주장은 수전 반농의 태도에서 토착민의 생활방식을 긍정하는 쪽으로 농업 방향이 선회하고 있었던 정황을 보여준다. 이는 전시체제가 계속되면서 쌀이 관동군의 식량으로 반드시 필요했던 만큼이나 상업 자본의 대표적인 투기 작물이 된 닛에 조선은 말한 것도 없고 만주에서도 자작농보다는 소작농이 압도적이었던 농촌 현실을 개선할 방법으로 힘과 품이 덜드는 목축에 주목한 것이라 하겠다. 이는 일제말기 만주국의 농업 정책과도 일치한다.

하나 보다 중요한 것은 목축에 의해 가능해지는 오죽협화의 이상이다. 이는 북향 농장 운영에 관여하는 인물군에서 명확하게 드러난다. 구체적으로 모내기장에서 어울리는 만주인 반성기는 유창한 조선말로 모내기 노래를 배우고, 이에 화답하듯 강서방은 만주 노래를 배우기로 한다. 이밖에 친구의 유력한 지원자는 옛날 현공서 동료였던 일본인 사도미이다. 사도미의 계획은 선계 농민에게 “목축의사상을함양시키고적극적으로 지도하여 현재의자력에반맞기는농업을 유축농업으로개발”하는 것이다. 그는 이것이 정부 방침임을 밝힌 후 친구의 협조를 구한다.

<북향보>에서 조선인의 특질로 지적된 안일, 나태, 도박 등에 관한 내용 보충
만주국에 대한 일본 문학 관련 자료 보충

4. 나오며

19) 「개척지의 과제」, 『매일신보』1942.6.24~27, 위의 책, 65쪽.

한운사의 방송극과 디아스포라

- TV영화 <레만호에 지나>를 중심으로 -

윤석진(충남대학교)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디아스포라 드라마'로서 한운사의 방송극
3. '분단'과 '순교'의 디아스포라, <레만호에 지나>
4. '이산'과 '유랑'의 디아스포라, <레만호에 지나>
5. 나가는 말

1. 들어가는 말

전쟁의 상흔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전쟁을 소재로 한 영화나 드라마는 오락물의 차원을 뛰어넘어 영상기록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특히 1950년 6월 25일 발발 이후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한반도를 피로 물들였던 한국전쟁처럼 '동족상잔의 비극'인 경우는 더욱 그렇다. 현유와 인륜을 지내던 한국전쟁은 비록 휴전이 되었지만, 여전히 현재진행중인 전쟁이다. 이처럼 전쟁이 벌어지는 전선(戰線)은 물론 전쟁을 피해 내려간 후방의 피난지에서의 고통스런 기억들이 현재진행형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전쟁은 결코 오락물로서의 구경거리가 될 수 없었다. 오히려 전쟁의 폐허 위에서 생존을 모색해야 했던 시기에 영화나 방송극¹⁾은 전후 사회의 혼란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한 도구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았다.

전쟁에 대한 기억들은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의 숫자만큼 다양하다. 과장된 무용담이거나 한 뼛 한 사연으로 기억될 수 있는 다양한 기억들은 때로 하나 혹은 소수의 '거대담론'으로 인위적으로 통합되기도 한다. 기억의 맥락을 재구성하기 위한 이데올로기 투쟁이 전개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특정한 기억들의 맥락(들)이 선택적으로 강조되기도 하고 반대로 모순되거나 내림되는 기억의 맥락(들)은 은폐 내지 억압된다.²⁾ '반공(反共)'을 '국시(國是)'로 한 제3공화국 체제에서 한국전쟁을 소재로 한 일련의 반공드라마들은 이렇게 대중의 일상 속으로 침입되었다.

제3공화국 시절, 반공드라마는 '수사극'의 형식을 빌린 '간첩잡기'에 초점을 맞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1965년부터 1975년까지 10여 년에 걸쳐 방영되었던 KBS의 <실화극장>은 '북괴'의 반행과 잔혹상 그리고 우상 체제 폭로를 주요 내용으로 "숨겨주는 인정보다 자수하여 광명 찾자"와 같

1) '텔레비전 드라마'가 본격적으로 방영되기 시작한 1970년대 이전에는 '라디오 드라마'가 일반적이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텔레비전'과 '라디오' 그리고 '영화'를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포괄적 의미에서 '방송극'이란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이 경우 '방송극'은 '라디오 드라마'와 '텔레비전 드라마'를 모두 지칭한다.

2) 강인철, 「전쟁의 기억, 기억의 전쟁」, 『창작과 비평』108호, 2000. 6, 343~344쪽.

은 간접신고를 계몽하는 대표적인 반공드라마였다. MBC는 1973년 1월 <자유무대>로 시작한 반공드라마를 같은 해 10월 <113수사본부>로 확대한 뒤 '한국환 정보물'을 자임하면서 1983년 10월까지 방영하였다. TBC 역시 1975년 10월 <추적>이라는 제목의 반공드라마를 통해 대공(對共)형사들의 활약상을 담아냈다.³⁾ 이처럼 제3공화국 시절의 반공드라마들은 대부분 한국전쟁의 실상보다 남과 북의 대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간첩사건'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목적극'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간첩 사건 수사에서 한국전쟁의 실상으로 반공드라마의 양상이 변하기 시작한 것은 1975년 6월 '영웅 이야기'로 첫 회를 선보인 <전우>였다. 스튜디오 촬영이 일반적이었던 당시 100% 야외 촬영으로 제작된 <전우>는 '전쟁드라마'의 전형을 창조한 것으로 평가⁴⁾받기도 했지만, 여전히 '반공드라마'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전쟁의 참상과 비극을 다룬 대부분의 방송극이 '반공드라마'의 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한국전쟁을 소재로 한 방송극으로 남한의 정보 당국과 종종 마찰을 일으켰던 방송극작가 한운사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북한에 대한 호의적 시선으로 문단과 이산의 고통을 다룬 일련의 방송극 때문에 남한의 정보 당국과 마찰을 일으킨 적도 있지만, 한국전쟁을 소재로 한 한운사의 방송극은 대부분 '반공드라마'의 틀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한운사의 방송극을 이타의 '반공드라마'와 같은 범주에서 논의할 수는 없다. 일제강점기 태평양전쟁은 물론 한국전쟁을 주로 다룬 한운사의 방송극은 '반전(反戰)' 지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문단과 이산의 현실은 한운사의 방송극에 내재되어 있는 디아스포라 경향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운사의 방송극 가운데 문단과 이산의 고통을 다룬 한국전쟁 소재 드라마를 간략하게 개괄한 뒤, 최초의 TV영화로 평가받는 1979년 6·25특집극 <레만호에 지다>⁵⁾에 나타난 디아스포라를 분석하고자 한다.

2. '디아스포라 드라마'로서 한운사의 방송극

한국전쟁 이후 대중문화에 대한 최종심급은 '반공' 이데올로기였다. 신성화된 '반공'은 선택사항 중의 하나가 아니라 최고의 덕목이었다. 반국가적인 행동을 묘사하여 대중을 선동하는 것 혹은 사회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국민총화를 지해한 우려가 있는 내용은 모두 '반동'의 이름으로 매장 당했다. 반면에 '반공·승공·멸공'은 대중문화의 핵심적인 모티프가 되었다.⁶⁾ 그러나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과 구호에 그친 반공정신을 강화한다."는 제3공화국의 지침이 내려지기 전만 해도 '통일'은 '반공'과 다른 차원에서 한국전쟁을 기억하는 방식이었다.

형제간에 총을 겨누어야 했던 '동족상잔의 비극'에서 비롯한 상처를 치유하고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과 북의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했다. 주지하다시피, 한국전쟁은 국군 22만 명, 북한군 60만이 명, 미군 14만 명, 유엔군 1만 6천이 명, 중공군 100만이 명을 비롯하여 남한 50만과 북한 300만의 민간인 사상자를 내고, 1천만 명에 가까운 이산가족을 만들어낸 비극이었다.⁷⁾ 이 가운데 1천만 명에 가까운 이산가족은 38선에 가로 막혀 남과 북으로 갈라진 채

3) 오명환, 『텔레비전드라마 사회학』, 나남출판, 1994, 159~161쪽 참조.

4) 오명환, 『텔레비전드라마 예술론』, 나남출판, 1994, 139쪽.

5) 6.25특집극 <레만호에 지다>(한운사 극본, 임학송 연출)는 총 3부작이지만, 1979년 6월 23일과 24일 이틀에 걸쳐 90분 씩 2회로 나뉘어 방영된 우리나라 최초의 TV영화이자, 최초의 해외 로케이션 방송극이기도 하다. 이영하, 정애리, 김진해, 이종만, 이신재, 나옥녀, 강민호, 반효정 등이 출연했다. 최초의 TV영화로 기록되고 있는 특집극 <레만호에 지다>는 1968년에 TBC에서 정인섭 연출의 라디오드라마로 방송된 바 있다.

6) 이성욱, 「한국전쟁과 대중문화」, 『문화과학』23호, 2000. 9, 223~224쪽.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만 했다. 고향과 가족을 잃어버린 이산의 고통이 휴전 이후 분단 현실을 상징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⁸⁾하면서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과제가 되었다.

남과 북의 대치 상황에서, 그리고 '반공'이 국사인 정치 현실에서 남과 북의 동질성을 주장하면서 통일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특히 정부의 통제와 규제 하에 놓인 방송 매체에서 '반공' 이데올로기가 아닌 '통일'의 관점에서 한국전쟁의 참상을 전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을 감내해야만 하는 모험이었다. 라디오 방송이 본격화되었던 1950년대 후반부터 텔레비전 방송이 본격화되었던 1970년대까지 '반공드라마'의 틀에서 벗어나 한국전쟁의 참상을 다룬 드라마들을 찾기 어려운 것은 이러한 정치 현실 때문이었다.⁹⁾

그러나 제3공화국이 출범하기 전에 방영되었던 한국전쟁 소재 드라마들 가운데 교조적인 '반공'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난 경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1957년 한국전쟁 참전 용사의 실화를 바탕으로 창작된 CBS 라디오드라마 <이 생명 다 하도록>이 대표적이다. '전쟁', '피난', '제전'으로 구성된 한운사 극본의 <이 생명 다 하도록>은 오후 7시 30분 방영에 이어 다음 날 오전 7시 30분에 재방송된 세미다큐멘터리 수법의 한국전쟁 기록물¹⁰⁾로서 '반공' 이데올로기가 아닌 전쟁의 상흔을 치유하고 삶의 의지를 북돋는 '인체당독 형식'의 '반전드라마'였다.¹¹⁾

<이 생명 다 하도록>으로 방송극작 활동을 시작한 한운사(1923~2009)는 일제 강점기와 한국전쟁, 전후 한국사회의 실상 등을 소재로 한 작품들을 통해 한국 방송극의 초창기를 개척했던 극작가이다. 당시 저참한 전쟁을 겪고 의지한 것 없는 대중을 위로하기 위해 방송극에 뛰어든 지식인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한운사는 발표하는 작품마다 청취자와 시청자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1960~1970년대 한국 방송극의 형성기를 이끌었다.¹²⁾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은 물론 4·19와 5·16을 겪으면서 방송극 창작에 열중했던 한운사는 주로 사회성 강한 작품을 멜로드라마적인 기법으로 형상화함으로써 대중성을 확보했다. 특히 그는 “우리가 겪은 전쟁을 소화할 하고 넘어가자니, 그 시대의 청년들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 시대 어른들이 무슨 이 망발을 했느냐, 또 그 어려운 환경을 어떻게 극복하고들 넘어갔느냐. 이런 얘기들은 하나의 그 시대의 보고로서, 마땅히 남겨둬야 된다.”¹³⁾는 생각으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방송극을 통해 전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당대 대중에게 전달했다.

“언젠가는 남과 북이 만나게 될 터인데 그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우리는 어떤 입장에서 무

7) 동아시아 평화인권 한국위원회, 『동아시아와 근대의 폭력2』, 삼인, 2001, 272쪽.

8) 1954년 12월 신설되어 1958년 폐지될 때까지 높은 청취율을 자랑했던 서울중앙방송국 제1방송(HLKA)의 <인생역마차>는 청취자의 사연을 라디오드라마로 각색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주로 한국전쟁으로 촉발된 상황에서부터 전후의 급변하는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겪는 문제적 상황을 맥락화하고 있다. 주로 가족구조의 해체와 가족 구성원이 겪을 수밖에 없는 새로운 갈등 양상을 보여주었는데, 전쟁으로 헤어진 정혼자나 남편이 죽었다는 소문을 믿고 새로운 가정을 꾸렸던 여성들, 그리고 결혼에 직면하거나 결혼한 후에야 배우자가 북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남녀의 사연들이 대표적이다(최미진, 「1950년대 라디오 프로그램 <인생역마차>의 성격과 매체 전이 양상」, 『한국문학이론과 비평』제41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8. 12, 375쪽 참조).

9) 6.25전쟁을 배경으로 한 여인의 삶을 통해 애국심과 반공정신을 고취한 첫 번째 국책영화 <증언>(김강운 원작, 임권택 감독)이 1973년 영화법 개정으로 설립된 영화진흥공사에 의해 제작된 경우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10) 한운사, 『구름의 역사』, 민음사, 2006, 117쪽.

11) <이 생명 다 하도록>은 1960년 신상옥 감독에 의해 영화로 제작되어 당시 많은 관객의 호응을 받기도 했다(윤석진, 『한국 멜로드라마의 근대적 상상력』, 푸른사상, 2004, 102쪽 참조).

12) 윤석진, 「극작가 한운사의 방송극 연구」, 『한국극예술연구』24집, 한국극예술학회, 2006. 10, 145~148쪽 참조.

13) 이영미 채록, 「생애사1-사회성 있는 드라마 창작의 쾌감」, 『구술로 만나는 한국예술사-한운사』(<http://oralhistory.knaa.or.kr/oral/archive/ARTIST>), 국립예술자료원.

을 맡을 해야 되나. 일찌감치 연습을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극작 활동을 하던 한운사는 1966년 MBC에서 방송했던 라디오 드라마 <하얀 까마귀>를 쓸 때 ‘통일 연습 시리즈’라는 말을 처음 생각했다.¹⁴⁾ 한운사가 한국전쟁으로 비롯한 분단 현실을 극복하고 통일을 지향하기 위한 목적으로 창작한 ‘통일 연습 시리즈’는 모두 14편에 이른다.¹⁵⁾

한운사 스스로 1966년에 처음 생각했다고 밝힌 ‘통일 연습 시리즈’는 한국전쟁의 후유증과 분단 현실에서 비롯한 사회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작가적 고민의 결과물이다. ‘통일 연습 시리즈’ 가운데에서 ‘분단’과 ‘이산’의 비극을 형상화한 디아스포라 방송극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작품은 3편이다. 한운사의 대표작이기도 한 <남과 북>은 한국전쟁 당시의 최전선을 배경으로 아내를 찾아 남하한 북한군 소좌와 현재 남편인 국군 내위의 갈등과 비애가 형상화된 작품이다. <하얀 까마귀>는 한국전쟁 당시 피난지 부산에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친구 부인을 도와 주다가 부부의 인연을 맺었는데,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 북으로 갔던 친구가 남으로 탈출하여 벌어지는 안타까운 이산의 비극을 담은 작품이다. <레만호에 지다>는 한국전쟁 당시 헤어진 부부가 남한 외교관과 북한 공작원이 되어 스위스 제네바에서 재회하여 이데올로기를 초월한 사랑을 확인하지만, 국가보다 사랑을 더 소중하게 여긴 아내의 죽음이라는 비극을 다룬 작품이다.

한국전쟁 중에 벌어진 일을 형상화 한 <남과 북>, 1960년대 중반을 배경으로 남과 북으로 갈라진 연인과 부부의 비극을 형상화 한 <하얀 까마귀>와 <레만호에 지다>를 통해 한운사는 한국전쟁과 분단의 고통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며, 분단의 고통을 극복하고 이산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통일을 이루어야 함을 강조하였다.¹⁶⁾ 이처럼 한운사는 한국전쟁의 참상을 ‘반공’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히지 않고 ‘반전(反戰)드라마’의 틀에서 전파로 기록하고자 노력한 ‘방송문학’의 선구자였다. ‘반공’이 국시였던 “1960년대 초 터부시되는 남북문제를 감히 건드리고 또 건드리 당국을 긴장”시켰던 한운사는 방송극을 통해 분단과 이산의 고통을 천착했다. 특히 대부분의 ‘통일 연습 시리즈’는 주로 한국전쟁과 분단에서 비롯한 이산의 고통을 형상화한 방송극으로 ‘디아스포라 드라마’로서의 면모가 분명한 작품들이다. 본고에서는 이 가운데 ‘분단(分斷)’과 ‘순교(殉敎)’ 그리고 ‘이산(離散)’과 ‘유랑(流浪)’의 의미가 두드러진 <레만호에 지다>를 대상으로 한운사 방송극에 나타난 디아스포라를 분석하고자 한다.¹⁷⁾

3. ‘분단’과 ‘순교’의 디아스포라, <레만호에 지다>

14) 한운사, 앞의 책, 269쪽.

15) 6.25전쟁을 소재로 한 한운사의 방송극은 <이 생명 다 하도록>(CBS-R, 1957), <어느 하늘 아래서>(KBS-R, 1959), <아낌없이 주련다>(KBS-R, 1962), <빨간 마후라>((MBC-R, 1962), <산하여 미안하다>(DBS-R, 1963), <남과 북>(KBS-R, 1964), <머나먼 아메리카>(MBC-R, 1965), <하얀 까마귀>(MBC-R, 1966), <임진강>(MBC-R, 1971), <흐르는 별>(KBS-T, 1972), <나루터 3대>(KBS-T, 1977), <파도여 말하라>(TBC-T, 1978), <임진강에도 봄은 오는가>(MBC-R, 1979), <레만호에 지다>(KBS-T, 1979) 등이 있다 (정현경, 「한운사의 방송극 연구」, 충남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2, 42~43쪽 참조). 이 작품들 가운데 라디오 드라마 일부는 제목을 바꿔 텔레비전 드라마와 영화로 다시 제작되기도 했으나, 본고에서는 혼란을 막기 위해 처음 발표된 형태의 작품만 언급하였다.

16) ‘통일연습시리즈’로서 <남과 북>, <하얀 까마귀>, <레만호에 지다>에 대한 한운사의 입장은 <레만호에 지다>의 ‘작의(作意)’에도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다. 한운사는 <레만호에 지다>의 ‘작의’에서 “1960년대 초부터 나는 내가 겪은 일제 시대 말엽의 수난사에 이어, 우리 한반도의 분절된 비극을 끈질기게 묻고 늘어지는 작품을 계속 했다. <이 생명 다 하도록>은 공산주의자들의 주먹구구식 통일 방안의 시행착오를 지적했으며, <빨간 마후라>, <아낌없이 주련다>, <어느 하늘 아래서>에서는 그 시행착오의 영향을 골똘히 받아야만 했던 선남선녀들의 수난 역정을 그렸다. 다음 단계에 취급된 것들은 <남과 북>, <하얀 까마귀>, <레만호에 지다> 등으로, 일컬어 ‘통일 연습’이라는 명제 아래 집필된 것들이었다.”라고 밝힌 바 있다(한운사 육필 원고 참고).

17) ‘분단’과 ‘순교’, ‘이산’과 ‘유랑’으로 구획한 <레만호에 지다>의 디아스포라는 좀 더 구체적인 논거 제시가 필요한 부분인데, 추후에 보론하도록 하겠다.

방송극 가운데 ‘특집극’은 “분규적인 민족 공동체를 다시 상상해 내면서 문화적 의미에 다가가는 데 적합한 도구”¹⁸⁾로서 텔레비전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드라마 양식이다. 3·1절, 6·25전쟁, 8·15광복절 등 민족의 고난과 시련은 물론, 추석과 설날 등 명절을 기념하는 특집극들의 대부분이 민족 공동체 정신을 강조하는 내용을 형상화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레만호에 지다> 역시 1979년 6·25특집극으로 방영된 우리나라 최초의 3부작 TV영화로, 한국전쟁으로 이산가족이 된 신혼부부가 남한 외교관과 북한 공작원 신분으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다시 만나 이데올로기의 틀에서 벗어나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지만, 북에 두고 온 자식 때문에 사랑을 선택하고도 북한으로 돌아가려던 여자가 끝내 처참하게 죽게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록 표면적으로 ‘반공’을 표방한 것은 아니지만, 남한 체제의 우월성을 근거로 통일을 지향함¹⁹⁾으로써 결과적으로 반공드라마의 틀에 갇힌 특집극이라 할 수 있다.²⁰⁾

스위스 한국대표부에서 참사관으로 근무하는 ‘이제원’이 자신을 찾아온 북한 공작원 출신의 초로의 낯선 남자 ‘장근일’을 만나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의 <레만호에 지다>는 ‘분단’과 ‘이산’의 상처를 현재화시킨 이야기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주 스위스 한국대표부 서기관으로 발령받은 이제원은 본격적으로 외교관 업무에 착수하기 전, 온갖 국제기구가 모여 있는 도시의 대학답게 동유럽과 유명한 제네바대학을 둘러보다 한국전쟁 중에 헤어진 아내 ‘하마리’를 발견하고 놀란다. 동유럽에서 서유럽으로 탈출한 유학생들을 잡기 위해 제네바로 파견 나와 있던 북한 공작원 하마리 역시 남편 이제원을 보고 놀라지만 함께 있는 동료를 의식해서 모른 척하고 자리를 떠난다. 한국전쟁 당시에 헤어진 신혼부부가 남한의 외교관과 북한의 공작원이 되어 중립국인 스위스 제네바에서 재회한다는 극적 설정²¹⁾을 통해 <레만호에 지다>의 디아스포라를 확인할 수 있다.

이제원은 아버지가 반동약질변호사로 몰려 인민군에게 납치된 후 한국이 당하고 있는 가혹한 시련에 대해 강력한 반항심을 가지게 되었고, 두 조각으로 갈라진 이 나라를 원상복귀 시키기 위해 외교관이 된 인물이다. 반면 하마리는 타고난 미모와 뛰어난 영어 실력에 남한 출신이면서도 당성까지 충중하여 조선인민공화국이 소중히 여기는 공작원이지만 다소 모호한 태도 때문에 함께 파견 나온 공작원의 의심은 받고 있는 인물이다. 비록 각자가 맡은 임무 때문이라 하더라도, 첨예한 대립과 갈등이 상존하는 남한과 북한이 아닌 제3국에 체류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원과 하마리의 디아스포라적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사랑하는 아내를 지척에 두고도 만날 수 없어 답답해하던 이제원은 상관의 지시를 무시하고 하마리를 찾아가고, 동료 공작원에게 감시받는 저자의 하마리는 이제원의 신분이 위험해질까 두려워 조심스럽게 행동한다. 그러는 사이에 이제원과 하마리가 부부 사이였다는 것을 알게 된 한국대사관의 참사관은 이제원에게 북한 공작원들이 제네바에 와 있는 목적을 밝혀보라고 지시하는 한편 북한 공작원들에게 포섭당하지 않도록 감시하고, 북한 공작원은 하마리를 이용해 이제원을 포섭하기 위한 공작을 꾸민다. 그 결과 두 사람은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짧은 여행길에 오르게 된다.

18) 팀 에덴서, 박성일 역, 『대중문화와 일상, 그리고 민족 정체성』, 이후, 2008, 342쪽.

19) 남한 체제의 우월성은 <레만호에 지다>의 ‘작의’에서도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다. “군사혁명 후의 새로운 한국은 근대화를 내세우고 국민 전체가 한 덩어리가 되어 뛰어 갈 것을 요구했지만, 북의 군사력이나 산업 발전에 비하여 다분히 낙후된 불안감을 안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북에 대하여 결연히 우월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인민의 존재 형태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의 존중이, 우리 한국에서는 가능하나, 북에서는 불가능하다는, 동란을 통한 순수 실천의 귀중한 결론 때문이었다.”(한운사 육필 원고 참고).

20) <레만호에 지다>가 방영되었던 1979년 이전의 남북 관계 동향을 보완해야만 6·25특집극으로서의 사회문화적 의미가 보다 분명해질 것이다. 이는 추후에 보완해야 할 문제이다.

21) <레만호에 지다>의 이러한 극적 설정은 <남과 북>(1964년), <하얀 까마귀>(1966)와 유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부분은 추후 보론이 필요하다.

남과 북의 서로 다른 목적과 상관없이 두 사람만의 시간을 갖게 된 이제원과 하마리는 이국의 풍경을 마음껏 반깁하면서 한국전쟁 때문에 누리지 못한 신혼의 단꿈에 빠져든다. 서로의 감정을 확인한 이제원은 하마리에 세 서울로 가자고 설득하고, 하마리는 사진을 꺼내 보여주면 평양에 있는 자식 때문에 돌아가야 한다며 이제원의 제의를 거절한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 하마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떠나야 하는 비극을 원망하며 한 부모 형제라며 손을 잡아준 날을 기다리며 떠난다는 편지를 남기고 홀로 숙소를 빠져나온다.

동유럽에서 도망치온 반질자들을 잡지 못한 대신 남한 외교관인 이제원을 포섭해서 남북시키려 했던 계획이 좌절된 것을 아쉬워하던 장근일은 평양으로 돌아오라는 지령을 받는다. 하마리를 포기할 수 없는 이제원은 북한 공작원들이 묶고 있는 호텔로 찾아가 장근일을 만나 담판을 짓는다. 그리고 서유럽으로 탈출한 북한 유학생들의 명단을 원하는 장근일에게 이제원은 하마리를 망명시킬 계획으로 가짜 서류를 넘겨주기로 한다. 이제원과 하마리를 두고 남한과 북한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 끝에 모두 한 자리에 모여 내립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남한 참사관은 두 사람의 자유의사를 존중하자고 제안한다.

이제원은 장근일에게 하마리를 보내달라고 부탁하고, 하마리는 마음과 달리 사랑은 순결하고 모든 걸 희생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실망했다며 표면적으로 이제원을 공격한다. 사랑하면서도 애써 그것을 부정하는 두 사람을 안타까워하던 남한 참사관은 비록 남북으로 갈라져 있지만 한 핏줄을 나눈 동포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제원과 하마리의 결혼식을 마련해줘서 사랑의 순수함과 한 민족의 위대함을 세계 반방에 알려주자고 북측 단장 장근일에게 제안한다. 하지만 하마리는 북한 체제의 위협성을 폭로하고 망명한 것을 권유하는 이제원에게 평양에 있는 아이가 바로 이제원의 자식이기 때문에 자신은 평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돌아선다. 하마리의 말에 놀란 이제원은 자신이 결국 하마리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격이 되었다고 자책하며 괴로워한다.

동료 공작원들에게 잡혀가다시피 끌려간 하마리는 장근일에게 귀한 청춘을 모두 마치면서 최선을 다 했지만, 한 시간도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았다고 따진다. 장근일은 하마리에 세 포도주를 권하며 조국에 대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으면 하라고 권한다. 포도주를 손에 든 하마리는 남북통일을 빌미로 24시간 긴장을 강요하는 북한 체제를 비판하면서 비록 이틀 동안이지만 최고의 행복을 맛보게 해준 이제원에게 자신의 루즈를 전해주고, 자신의 시체를 레반호에 뿌려달라는 마지막 말을 남기고 총살당한다. 남과 북의 이태올리기 대신 사랑을 선택한 하마리가 포도주잔을 떨어뜨리며 처참하게 죽는 장면은 마치 순교자의 최후를 상징하는 듯하다.

하마리가 분단의 비극에서 비롯한 순교자로서 디아스포라의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것은 이미 이제원과의 결혼식에서 예고되고 있었다. 하마리는 학도병으로 참전했다가 부상을 당해 서울 근교 자신의 집에 피신해 있던 아버지 친구의 아들 이제원과 결혼식을 올린다. 하마리의 아버지는 전쟁이 격화되면서 자신의 집에 피신해 있던 이제원 때문에 위험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두 사람의 사랑을 확인한 뒤 결혼식을 준비한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자 장로인 하마리 아버지는 결혼 예배에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가없는 무지한 시대를 용서하시옵소서! 형이 아우를, 아우가 형을, 자식이 어머니를, 어머니가 자식을 쏘아 죽이는 지옥 같은 싸움터에서 착하고 어린 양들은 간 데를 잃고 어서 한 마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이 지금 연약하게 자란 젊은 남자가 서로에 의지하여 이 삭막한 난세를 건디고자 하옵니다. 제 딸 바리와 제 가장 소중한 친구의 자식 제원과 짝을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결혼을 허락 하시옵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히 멀치 않는 증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이라고 기도를 올린다. 하마리 아버지의 기도문에서 간 데를 잃고 방황하는 디아스포라로서 하마리의 운명을 유추할 수 있다.²²⁾ 남북 분단에서 비롯한 이산의 고통을 견디며 살던 하마리가 ‘국가’ 대신

‘사랑’을 선택하는 순간, 아버지의 바람과 달리 비극적 죽음을 맞는 것에서 분난의 희생양이자 통일을 위한 순교자로서 하마리의 운명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이산’과 ‘유랑’의 디아스포라, <레만호에 지나>

한국전쟁 당시 이산가족이 되었다가 15년의 세월이 흐른 1960년대 중반, 제3국에서 남한 외교관과 북한 공작원으로 제회한 신혼부부의 비극적인 이야기는 분난과 이산의 고통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임을 잘 보여준다. 특히 남과 북이 내치하는 한반도를 벗어나 제3국을 주요 공간으로 설정함으로써 민족 분산으로서의 디아스포라를 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원과 하마리의 짧은 여행을 통해 낯선 땅을 떠도는 이방인으로서 디아스포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었다. 또한 이제원에게 하마리의 비극적인 죽음을 알려주는 북한 공작원 장근일이 평양으로 돌아가지 않고 ‘구라파의 떠돌이’로 살고 있는 상황은 ‘사랑’과 ‘자유’가 통하지 않는 북한 체제에 대한 남한의 우원적 시선이 반영된 것이다. 하지만 이제원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장근일이 남한으로 망명하지 않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상황을 남한 체제의 우원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할 수만은 없다. 남과 북, 어디로도 갈 수 없는 장근일의 저지는 레만호에 자신의 뼈를 묻은 하마리와 마찬가지로 이산과 유랑으로서의 디아스포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레만호에 지나>의 기본 서사가 남한 외교관 이제원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이것은 남한 체제의 우원성을 강조하기 위한 극적 설정일 뿐이다. 이제원은 “남을 수 없어, 이기? 모는 것은 내가 책임질세. 미국 대사관두 있구. 원하는 대로 망명국은 선택할 수 있다. 남을 수 없어? 모는 우리의 배경을 지버리자. 지반치 아주 안 되는 지 멀리루……, 그리구 니와 나 우리 들반이 얘기하자. 하늘두 땅두 처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올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금두 마찬가지야. 인간과 인간끼리의 관계는 아무두 말릴 수 없는 거야, 마리. 10이 년 동안이나 마리의 피부에 덮지 썩어진 때 묵은 껍질을 미련 없이 벗겨버려.”라고 하마리를 설득하면서 적극적으로 망명을 권유한다. 그러나 하마리는 그러한 시도를 하지 않는다. “구라파에 와서 핵심 당원다운 공로를 세우고 가는 세 일마나 보람 있는 일임내까? 서방으로 도망쳐 나온 배반자를 한 명도 못 찾아낸 이 마당에 우리들의 체면을 세울 일은 마로 이거 아닙니까!”라는 동료 공작원 방현옥의 권유와 단장 장근일의 강요에 의해 이제원과 하마리의 여행에 나서지만, 하마리는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 없었다.

서로 다른 생각으로 떠난 여행은 이산의 고통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으며, 이제원과 하마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이국적인 풍경들은 이방인으로서의 이미지는 물론, 갈 곳을 찾지 못해 헤매는 유랑의 이미지를 강화시켜준다. 결코 갈을 갈 수 없는 ‘이산’과 ‘유랑’의 디아스포라는 아래와 같이 엇갈리는 칠길 이미지를 통해 시각적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장면 1>은 이제원과 하마리가 평행선을 달리는 칠길을 각기 걸어가는 모습이고, <장면 2>는 두 대의 열차가 엇갈리며 교행하는 풍경을 담은 장면이다. 이러한 시각적 이미지는 이제원과 하마리의 저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22) ‘하마리’의 아버지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이자 장로이며, ‘마리’라는 이름에서 “유대인의 유랑”이라는 ‘디아스포라’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이를 추후 충분한 논거를 통해 보론해야 하는 문제이다.



<장면 1>



<장면 2>

이제원과 하마리는 레반호 위에 떠 있는 듯이 보이는 몽트뢰의 시용성, 알프스 산맥의 계곡, 제네바·프리부르·베른·발르브에서 오는 파리행 철도의 교차점인 로잔의 구릉지, 라우터브루넨 계곡에 솟아 있는 융프라우 산정 등을 여행하는 1박 2일 동안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지만 그 어느 곳에도 이들이 행복하게 머물 곳이 없다는 이산의 현실은 ‘여행의 즐거움’ 대신 ‘유랑의 서글픔’을 하마리에게 각인시키면서 디아스포라의 비극을 상기시킨다. 하마리를 망명시켜야 한다는 목적 의식이 분명한 이제원이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여유롭게 감상하는 것과 달리, 평양에 있는 자식 걱정 때문에 산맥의 아름다운 풍광을 마음껏 즐기지 못하는 하마리는 “어떻게 행동할지, 무엇을 봐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들어야 할지에 관한 상식화된 생각을 뒤흔들고 현실적 규범을 유지하기 위한 답답적이고 규율적인 질서”²³⁾에서 벗어난 디아스포라이기 때문이다.

하마리가 ‘이산’에서 비롯한 ‘유랑’의 디아스포라인 것과 달리, 북한 체제의 신봉자였던 장근일은 이제원과 하마리 사건을 겪은 뒤 본격적인 유랑의 길을 떠난 디아스포라이다. 물론 장근일은 누구보다 충실한 당성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제네마에 함께 파견 나와 있던 부하 공작원들에게 “사랑을 방해하는 건 죄”라며 이제원과 하마리의 입장을 옹호할 정도로 낭만적인 성향의 인물이다. 또한 그는 보헤미안의 기질이 강한 인물이기도 하다. 이제원의 신상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하마리와 함께 제네마의 밤거리를 산책하며 일제 강점기에 “일본이 싫어 이곳에 와 공부하던 시절”을 회상하는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장근일에게는 디아스포라의 삶이 이미 내재되어 있었다.

‘국가’와 ‘사랑’ 중에 ‘사랑’을 선택한 하마리가 총살당한 뒤 평양으로 돌아가지 않은 장근일은 15여 년의 세월을 ‘구라파의 떠돌이’로 유랑의 삶을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이다. 그는 이제원에게서 선물 받은 ‘루즈’를 돌려주라는 하마리의 유언을 뒤늦게 실천하기 위해 참사관이 되어 있는 이제원을 찾아와 용서를 구한다. 하마리가 총살당했다는 소식과 평양에 남아 있는 아들의 생사를 알 수 없다는 소식을 동시에 접하고 분노하는 이제원에게 장근일은 북한 체제를 비판하면서 15년 동안 가슴에 묻어 있던 체증이 시원하게 뚫리는 기분이라며 흥분해 한다. 그리고 남한 행을 권유하는 이제원에게 남쪽을 직접 보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지만, 인간은 스스로를 매질할 줄 아는 동물이라며 잘못된 오랫동안 고통을 겪은 후에 용서가 되는 것이니, 북쪽이 알아들을 때까지 동포애를 발휘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돌아올 필요가 있을 때가 올 것이라고 또 다시 유랑의 길을 떠난다. 이처럼 남과 북 가운데 어느 한 쪽도 선택할 수 없는 장근일은 <레반호에 지다>의 디아스포라를 마지막까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다.

5. 나가는 말

23) 팀 에덴서, 앞의 책, 213쪽.

이상에서 살펴본것듯이, ‘스위스 제네바’라는 제3국이자 중립국인 공간의 상징성과 1박 2일이라는 짧은 여정의 이국적인 풍경, 그리고 남과 북 어디로도 돌아가지 못한 하마리와 장근일의 유랑에서 <레반호에 지다>의 디아스포라를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 <레반호에 지다>는 ‘분단’과 ‘순교’, ‘이산’과 ‘유랑’의 이미지로 디아스포라를 형상화한 ‘디아스포라 드라마’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제원의 시점에서 보면 ‘반공드라마’의 면모가 분명해지지만, 하마리와 장근일의 시점에서 보면 분단과 순교 그리고 이산과 유랑의 의미가 두드러진 ‘디아스포라 드라마’로 평가할 만한 지점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나 ‘디아스포라 드라마’에 대한 논거 제시와 1차 자료의 분석 결과를 몇반집한 만한 2차 자료 제시가 충분하지 않아 <레반호에 지다>에 나타난 디아스포라를 제대로 구명하지 못한 한계가 남아 있다. 추후 좀 더 많은 논거를 통해 보완해야 한운사의 방송극에 내세되어 있는 디아스포라를 보다 분명하게 구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해탄은 알고 있다>처럼, 일제 강점기 태평양 전쟁을 소재로 한 방송극을 포함하여 논의해야만 ‘디아스포라 드라마’로서 한운사 방송극의 면모가 제대로 드러날 것이다. 이는 추후의 과제로 남겨 둔다.

(추후 보론)

오장환 시에 나타난 디아스포라 의식

오세인* (고려대학교)

<목 차>

1. 서론
2. 식민지적 디아스포라와 공간의 문제
3. 무국적 공간으로서의 '항구'
4. 결론

1. 서론

이 논문은 오장환 시에 나타난 항구의 무국적성과 유랑 의식을 식민지라는 특수한 상황이 초래한 '디아스포라 의식(diaspora consciousness)'으로 보고자 한다. 식민지의 특수성은 국외로의 물리적 공간 이동 없이도 '모국'을 상실했다는 역사적 사실과 식민지 지배자들의 억압과 차별로 인해 식민지인들에게 디아스포라 의식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디아스포라 개념의 기원은 어원적으로는 고대 그리스, 그리고 오늘날 보편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의미로는 유대인을 추방한 로마제국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¹⁾ 그러나 서구에서 디아스포라 연구가 활성화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브루베이커(Brubaker)에 따르면 디아스포라 연구는 1980년대 말에 시작되어 1990년대에 본격화되었으며 2000년대에 이르러서는 'diaspora explosion'으로 불릴 만큼 논문의 편수가 급증했다고 한다.²⁾ 초기 연구자인 사프란(Safran)³⁾은 디아스포라를 국외로 추방된 소수 민족 공동체의 특징으로 규정한다. 그는 디아스포라의 속성을 6개로 분류하여 제시하지만⁴⁾ 이상적 디아스포라 형태인 유대인의 디아스포라와 확실하게 일치하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고 밝힌다. 분명한 것은 사프란이 타국에 의해 점령당한 모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국외 추방'이라는 물리적 공간 이동을 디아스포라의 핵심으로 본다는 것이다.

클리포드(Clifford)⁵⁾는 사프란이 '상징적 모국'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모국 지향과 함께 지속적인 이동, 고난, 적응 또는 저항 등 거주지에서의 삶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여행과 망명을 각각 일시적, 개인적인 것으로 보고 장기간의 집단적 현상인 디아스포라와 구별한다.

* 고려대학교 BK21 한국어문학교육연구단.

1) Cohen, Robin(1997), *Global Diasporas: An Introduction*, Seattle, WA: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p.9.

2) Brubaker, Rogers(2005), The 'diaspora' diaspora, *Ethnic and Racial Studies* 28-1, p.1.

3) Safran, Williams(1991), Diasporas in Modern Societies: Myths of Homeland and Return, *Diaspora* 1-1, 1991, pp.83~85.

4) ① 특정한 기원적 중심에서 주변 지역이나 외국으로 분산 ② 모국에 대한 집단적 기억, 비전, 신화의 유지 ③ 거주국에 의해 완전히 수용되지 않을 것이므로 소외되고 단절된 느낌 ④ 조상들의 고향을 자신들의 진정한 고향이자 후손들이 돌아가야 할 곳으로 생각 ⑤ 기원적 모국의 유지, 회복, 안전, 그리고 번영에 기여해야 한다는 생각 ⑥ 모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이 관계에 의해 인종 공동체 의식과 연대 형성.

5) Clifford, James(1994), Diasporas, *Cultural Anthropology* 9-3, American Anthropological Association, pp.306~308.

클리포드는 디아스포라 의식이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구성될 수 있는데 차별과 배제의 경험은 디아스포라 의식을 부정적인 것으로 만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차별과 배제는 거주하는 지역의 사회에 적응함으로써 생존하는 기술을 발달시키므로 그는 디아스포라 의식이 상실과 희망 사이의 긴장에 놓여 있다고 본다.

코헨(Cohen)⁶⁾은 사프란과 마찬가지로 디아스포라를 태어난 곳을 떠나 거주하는 공동체로 본다. 그는 사프란의 디아스포라 개념 규정을 수정하여 9가지로 제시한다. 사프란과 다른 점은 일자리나 무역을 위해, 식민지적 야망의 추구를 위해 고국을 떠나는 것, 집단적 승인을 받은 귀국 운동의 전개, 특수성, 공통의 역사, 공동 운명에 대한 믿음에 기초해 오래 지속된 강한 인종 집단 의식, 다른 나라에 거주하는 같은 종족 구성원들과의 공감과 연대감, 다원성에 대한 관용으로 거주국에서 독특하고 창조적이며 풍요로운 삶을 살 가능성을 디아스포라 개념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다.

안티아스(Anthias)⁷⁾는 디아스포라 개념이 인종화된 사회 관계에 대한 관심을 대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즉, 디아스포라 연구는 인종 초월적인 관계에서 눈을 돌려 문화적 통합은 물론 인종, 계급, 성(gender)에 구현된 복종과 배제의 관점에서 연구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브루베이커(Brubaker)⁸⁾는 디아스포라 개념이 확산되면서 유태인 모델이 약화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개념의 확산은 모든 인종 그룹을 디아스포라로 보게 만듦으로써 모두가 디아스포라이고 그 누구도 분명히 그렇지 않는 문제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한다. 그는 기존의 디아스포라 개념을 살펴본 후 분산(Dispersion), 모국 지향(Homeland Orientation), 경계 유지(Boundary Maintenance)를 디아스포라의 핵심으로 제시한다. 이산과 모국 지향은 모국으로부터 강제로 쫓겨났다는 점에서 물리적 공간 이동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경계 유지는 새로운 거주지의 사람들과 경계를 짓고 차별성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정체성의 문제에 닿아 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디아스포라’는 ‘공간’과 ‘정체성’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이는 한국 문학 연구자들의 디아스포라 개념 논의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⁹⁾ 물론 한국 문학 연구에서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작품을 살피는 논문은 많지 않다. 이는 디아스포라 연구가 서구는 물론 한국에서도 비교적 최근에 활성화되었다는 데 기인한다. 또한 대부분 해외 논자들의 개념 규정을 정리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 한국적 디아스포라의 개념을 규정하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¹⁰⁾ 물론 디아스포라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을 뿐 이와 관련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이산, 유랑(의식), 유이민(유민), 탈향, 실향, 북방 의식(정서) 등에 대한 연구는 넓은 의미에서 디아스포라 연구와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윤영천은 ‘유랑민’을 “정치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제 고향을 떠나 정치없이 떠돌아 다니며 살아가는 ‘유민(流民)’”¹¹⁾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일제의 (토지) 수탈로 인해 고향을 떠나 유랑하거나 도시의 하층민으로 전락한 농민을 ‘국내 유랑민’으로, 토지와 일자리를 찾아 만주나 시베리아, 일본 등지로 떠난 사람들을 ‘국외 유이민’으로 규정한다. 윤영천은 일제 강점기의 유랑이 가난으로 인한 국내 유랑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은 “조선침탈이 본격화되면서 한층 확대·심화된 극심한 ‘경제적 곤핍’”과 “‘합방’을 계기로 현저해진 ‘정치적 탄압’ 등의 이유로 대규모의 국외 유이민이 발

6) Cohen, Robin(1997), Ibid., p.26.

7) Anthias, Floya(1998), Evaluating ‘Diaspora’: Beyond Ethnicity?, *Sociology* 32-3, p.577.

8) Brubaker, Rogers(2005), Ibid, pp.1~13.

9) 지금까지 한국 시와 관련하여 디아스포라 연구는 대부분 백석, 이용악, 윤동주 등 식민지 시기 시인들의 작품과 재일(在日) 한인(자이니치) 작가나 재미 동포 및 재중 동포(조선족)의 작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취업, 결혼 등 다양한 이유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들, 특히 노동자들의 삶을 그린 작품을 다루고 있다. 이는 한국의 디아스포라 연구가 국외로의 물리적 공간 이동과 정체성을 핵심으로 하는 서구의 디아스포라 개념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준다.

10)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다룬 책으로는 윤인진(2004)의 『코리안 디아스포라』(고려대학교 출판부)가 유일하다.

11) 윤영천(1987), 『한국의 유민 시』, 민음사, p.10.

생” 12)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유이민 시’를 국내 유랑민이나 국외 유이민의 삶을 직간접적인 체험을 통해 드러내거나 관찰자의 입장에서 시의 소재로 사용한 경우 등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규정한다.¹³⁾

김승희¹⁴⁾는 한국 현대 문학에 나타난 이산을 1차(식민지 시기)와 2차(해방과 6·25 전쟁 전후)로 나누고 ‘탈향’과 ‘실향’이 주요한 문학의 주제가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그는 1차 이산을 두만강 건너 만주와 북간도 지역 유민과 현해탄을 건너 유학을 떠나는 청년 유민과 돈을 벌기 위해 도일하는 가난한 유민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1차 이산의 경계인 “‘두만강’과 ‘현해탄’은 각각의 역사적, 지형학적 성격에 따라서 서로 다른 함의를 가지고 형상화되”는데 생존을 위한 이산이라는 공통점과 함께 “두만강 너머의 이산은 민족의식을 지키고자 하는 이유”가 “현해탄 너머의 이산은 근대성과 제국의 문화에 대한 열망이라는 청년의식”¹⁵⁾이 더 강하게 드러난다고 본다.

손미영은 자크 아탈리의 개념을 변용하여 한국인의 유랑 의식의 유형을 ‘인프라 노마드-추방자의 고뇌’, ‘유흥적 노마드-나그네의 체관(諦觀)’ 그리고 ‘내적 노마드-떠돌이의 무상’으로 나누어 살핀다. 인프라 노마드는 “소외되고 추방되고 억압된 하층민들로 구성”되며 “빼앗긴 정착지를 회복시키려는 열망과 함께 박탈감과 억압감을”¹⁶⁾ 지닌다는 점에서 디아스포라 개념과 유사하다.

김도희는 윤영천의 논의를 계승하여 “일제의 조선 침탈이 본격화되면서 한층 확대·심화된 ‘경제적 궁핍’과 합방을 계기로 현저해진 ‘정치적 탄압’의 이유로 대규모로 발생하게 된 유랑민을 한국적 디아스포라로 설정”¹⁷⁾한다. 한국적 디아스포라에 농토를 빼앗긴 농민과 도시 빈민층이 국내를 유랑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현상을 포함시킴으로써 디아스포라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박수연은 “디아스포라적 정체성이란 외적 강제에 의해 쫓겨난 자들의 현재적 조건이 형성하는 자기 확인의 심리 기제”¹⁸⁾와 관련된 것으로 규정한다. 그는 디아스포라를 “정착과 이주의 착종”에 대한 언급이며 “민족적 디아스포라는 제국주의의 침략에 의해 삶의 터전을 상실한 집단이 처해 있는 타율적 비극을”¹⁹⁾ 의미한다고 본다. 박수연은 ‘민족적 디아스포라’를 서구의 탈식민주의적 관점이 초래할 수 있는 담론적 폭력에 대한 비판으로 제기한다. 즉 레이 초우나 사카이 나오키 등의 탈식민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윤동주와 백석의 시를 민족주의적이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보편 담론이 초래한 일종의 폭력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과정에서 식민주의 체제 하에서 디아스포라를 경험하고 그것을 민족적 공동체의 정서로 돌파하려는 시인들의 의도를 제대로 해명할 수 없을 것”²⁰⁾이라고 말한다.

김춘식은 디아스포라는 “‘떠나온 장소’에 대한 기억과 새롭게 이주한 ‘장소’에 대한 의미부여 사이의 충돌을 전제로” 하며 “정체성의 근거지인 ‘모국’ 혹은 ‘새로운 이주국’ 사이에서 ‘이방인’처럼 존재하는 소수자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말하는’ 문제에 닿아 있다”²¹⁾고 본다.

윤인진은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한민족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모국을 떠나 세계 여러 지역으로

12) 윤영천(1987), 위의 책, p.10.

13) 윤영천(1987), 위의 책, p.12.

14) 김승희(2003),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이산(離散, diaspora): 두만강, 현해탄, 38선을 넘어선 유민(遺民, 流民, 隔民)의식」, 『비교한국학』 11-1, 국제비교한국학회, pp.1~2.

15) 김승희(2003), 위의 글, p.13.

16) 손미영(2007), 「한민족의 유랑의식 고찰」, 『한민족문화연구』 22, 한민족문화학회, p.230.

17) 김도희(2007), 「식민지 자본과 시의 디아스포라적 양상 연구」, 한국시학회 제20차 전국학술대회, p.19.

18) 박수연(2007), 「식민지적 디아스포라와 그것의 극복-박세영의 월북 이전 시에 대해」, 『한국언어문학』 61, 한국언어문학회, p.214.

19) 박수연(2008), 「디아스포라와 민족적 정체성」, 『비교한국학』 16-1, 국제비교한국학회, pp.254~255.

20) 박수연(2008), 위의 글, p.274.

21) 김춘식(2009), 「소수집단 문학의 정체성-기억, 이산, 장소」, 『비평문학』 34, 한국비평문학회, p.113.

이주하여 살아가는 한민족 분산”으로 정의하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적응, 동화, 정체성, 공동체 등의 제 현상을”²²⁾ 살피고 있다. 그는 한민족 분산의 역사를 1) 1860년대~1910년, 2) 1910년~1945년, 3) 1945년~1962년(이민 정책 수립), 4) 1962년(정착 목적의 이민)~현재로 구분한다.

이처럼 국내외의 디아스포라 개념 연구는 ‘공간’과 ‘정체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디아스포라 의식은 모국에서 추방된 혹은 모국을 떠난 사람들의 집단이 새로운 거주국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궁극적인 귀국을 꿈꾸는 데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디아스포라 논의에서 식민지 국가의 특수성은 크게 고려되고 있지 못하다. 식민지 지배자들의 차별과 억압에 의해 삶의 터전을 상실한다는 것이 반드시 국외로의 추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브루베이커²³⁾는 넓은 의미에서 국외뿐만 아니라 국경 내부에서의 분산을 디아스포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식민지화된 ‘모국’은 식민지 모국에 속한 지역으로 변질되며 이에 따라 그 공간에 거주하는 식민지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모색을 하게 된다. 따라서 전쟁을 향해 치달았던 1930년대 중후반 식민지화된 ‘모국’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모국’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이해했으며 자신의 정체성을 어떤 식으로 모색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기존의 디아스포라 연구에서 배제되어 왔던 식민지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며 디아스포라 개념의 폭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디아스포라의 보편적 특징이 식민지적 디아스포라 의식이라는 특수성과 만나는 접점을 가능케 함으로써 논의를 풍부하게 할 수 있다고 본다.

2. 식민지적 디아스포라와 공간의 문제

사프란이 국외로 추방된 소수 민족 공동체를 기본 전체로 삼고 소련이 점령했던 폴란드와 다른 소련의 위성국가 국민들을 디아스포라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래 ‘모국’을 떠나지 않은 식민지인들은 디아스포라 논의에서 제외되어 왔다. 사프란은 이들을 디아스포라가 아닌 ‘억압 받은 민족’으로 규정하고 디아스포라와 구분한다. 그러나 억압은 국권 상실과 식민지화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나라를 빼앗겼다는 의식, 식민지 지배자들의 억압과 차별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소외, 그리고 공식적인 도시 명칭의 변경(한성→경성부)과 시가지 개발 및 확장 등은 식민지인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거주하는 곳을 식민지 모국에 속한 도시로 인식하게 한다. 이러한 인식은 식민지화 이전을 ‘상징적 모국’으로 상징하게 하며 이의 회복을 꿈꾸게 한다.

모국에 거주하지만 식민지가 되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독립에의 희망이 멀어질 때 고국은 기원으로서의 ‘상징적 모국’일 뿐 실제로는 식민지 모국(일본)의 영토에 속하는 공간이다. 이때 물리적으로 모국을 상실한 식민지인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영토를 ‘모국의 영토’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식민지 모국의 영토’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영토의 소유권을 빼앗긴 ‘상징적 모국’에 거주하며 모국의 영토를 궁극적으로 회복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점에서 디아스포라적이다. 따라서 모국으로부터 강제로 쫓겨난 자들의 디아스포라적 삶과 마찬가지로 식민지에서 살아가는 주체들의 삶에서 식민지화된 공간과 그곳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탐구하는 것을 디아스포라의 한 양상으로 볼 수 있다. 차이점은 서구에서 논의되는 디아스포라와 달리 식민지적 디아스포라는 공간의 이동 없이 디아스포라 의식을 갖게 된다는 데에 있다. 또한 상징적 모국을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식할 때 식민지인으로서의 주체는 자신을 기원 또는 고향을 상실하고 끝없이 유랑하는 무국적의 존재로 규정한다. 이 논문은 식민지화된 모국에서의 지속적인 차별과 억압으로 인해 주체가 스스로를 끊임없이 떠돌아다니는 존재로 규정하는 오장환의 시를 식민지적 디아스포라 의식을 표출로 보고자 한다.

22) 윤인진(2004), 앞의 책, p.8.

23) Brubaker, Rogers(2005), Ibid., pp.1~13.

식민지 시기에는 식민지 지배자들의 차별과 경제적 수탈과 정치적 억압²⁴⁾을 피해 국경을 넘는 공간적 이동의 디아스포라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다 다른 한편으로 비록 물리적 공간 이동 없이 ‘모국’에 거주하지만 국권을 상실한 식민지인들은 식민지 지배자들의 철저한 억압과 민족 차별로 인해 ‘국내’와 ‘국외’ 거주자의 차이점을 구별할 수 없게 된다.²⁵⁾ 즉 그들은 정신의 차원에서 디아스포라 의식을 갖게 된다. 백석과 이용악 등이 전자에 속한다면 김소월과 이상화 등은 후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혜원은 “김소월 시에서 ‘길’은 장소상실로 인한 유랑의식과 고립감을 함축하는 대표적인 공간”²⁶⁾이라고 본다. 김소월의 장소상실은 “외부로부터 가해진 폭력에 의한 것이며 삶의 기반이 와해되는 근본적인 결핍의 체험”인데 김소월은 이를 “거듭되는 절망과 방황의 정서”²⁷⁾로 드러냈다는 것이다.

산으로 올라갈까
 들로 갈까
 오라는곳이업서 나는 못 가요.

말마소 내집도
 定州郭山
 車가고 배가는곳이라오.

여보소 공중에
 저기러기
 공중엔 길잇섯서 잘가는가?

여보소 공중에
 저기러기
 열十字북판에 내가 섰소.

갈내갈내 갈닌길
 길이라도
 내게 바이갈길은 하나업소.
 - 「길」 부분

‘나’는 어제든 오늘도 나그네 신세이다. 그러나 문제는 ‘나그네’라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라는곳이업서’ 떠돌아다니는 데 있다. 그 이유는 집과 고향이 없거나 내가 집과 고향에 돌아가고

24) 손정목(1996), 『일제강점기 도시사회상 연구』, 일지사. 손정목(1996), 『일제강점기 도시화과정 연구』, 일지사. 김백영(2009), 『지배와 공간』, 문학과지성사.

25) 이혜원(2006)은 진정한 장소감이 “정체감의 원천”을 이루는데 이를 상실하면 “치명적인 정체성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 그는 김소월이 “집과 고향의 상실을 상징적으로 재현함으로써” “식민 통치의 과도한 폭력성을 환기”시켰다고 본다(이혜원, 「김소월과 장소의 시학」, 『상허학보』 17, 상허학회, p.95). 따라서 고향과 집으로 상징되는 모국의 상실과 이로 인한 유랑 의식을 디아스포라의 양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6) 이혜원(2006), 위의 글, p.92.

27) 이혜원(2006), 위의 글, p.92.

싶지 않아서가 아니다. 집이 있는 ‘정주확산’은 차로도 배로도 갈 수 있는 곳이다. 그런데도 내가 나 그네로 유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나’는 어디에서든지 환영을 받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결국 하늘을 날아 어딘가를 향해 가는 기러기와 달리 지상의 나는 ‘열십자복판에’ 서서 갈피를 잡지 못한다. 그것은 내가 지향점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길은 사방으로 뻗어 있지만 나를 오라고 하는 길은, 내가 가고 싶은 길은 없다. 김은자는 김소월 시에 나타난 ‘길과 집의 부재’가 김소월의 생애와 더불어 ‘유랑 의식’을 드러낸다고 본다. “동서남북의 여러 방향으로 뻗어있는 수많은 길 또는 고향을 두고 그가 어느 길로도 가지 못할 때 그가 놓인 길은 물리적 차원을 넘어서서 존재론적 시대적 의미를 띄고, 그 고향은 개인의 고향이 아닌 시대적 정신사적 의미 속에 놓이게 되는 가능성이 열린다” 28)는 것이다.

유랑의 시대사적 원인은 「바라건대는 우리에게우리의보섭대일쌍이 잇섯더면」에서 보다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집일흔 내몸이어,
바라건대는 우리에게 우리의보섭대일쌍이 잇섯드면!
이처럼 써도르랴, 아침에점을손에
새라새롭은歎息을 어드면서.

(……)

그러나 엇지면 황송한이心情을! 날로 나날이 내압페는
자춧가느른길이 니어가라. 나는 나아가리라
한거름, 쏘한거름. 보이는山비탈엔
온새벽 동무들, 저저 혼자……山耕을김매이는.

- 「바라건대는 우리에게우리의보섭대일쌍이 잇섯더면」 부분

‘집일흔 몸’이란 나라를 빼앗긴 식민지인의 정체성을 의미한다. ‘우리’가 아침저녁으로 탄식을 하며 떠도는 것은 ‘보섭대일쌍’이 없기 때문이다. 김소월은 이 시에서 유랑의 기원이 식민지화와 토지의 수탈에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의 화자는 절망과 좌절이 아닌 극복의 의지를 보여준다. 마지막 연에서 화자는 자신의 앞에 ‘가느른길’이 이어지기를 바라는데 ‘가느른길’은 힘겨운 길을 의미한다. 비록 유랑의 길이 험난하지만 ‘나는 나아가리라’며 다짐한다. 「길」의 화자가 외적인 힘에 의해 유랑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를 수동적으로 드러냈다면 「바라건대는 우리에게우리의보섭대일쌍이 잇섯더면」의 화자는 비록 집을 잃고 유랑하는 처지이지만 그 유랑에 적극성과 능동성을 부여함으로써 극복의 의지를 드러낸다. 이러한 화자의 의지는 땅을 빼앗기고 유랑하던 사람들이 산비탈에 농토를 일구어 김을 매는 모습으로 표현된다.

땅을 빼앗기고 유랑하는 민족의 모습은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에서도 나타난다.

28) 김은자(1988), 『현대시의 공간과 구조』, 문학과비평사, p.29. 최하림(1982)은 김소월의 개인사와 시의 관련성을 지적하며 “주권상실이라는 전체면의 부분현실로 나타나는 이와 같은 이동현상은, 오늘은 이곳에 있지만 내일은 저곳으로 가야 하는 떠돌이 근성을 그리게 되고, 사회와의 유기적 관계를 잃음으로써 소외감, 열등감 등에 잠겨들게 한다.”고 본다(최하림, 「식민지시대 시인의 초상」, 『한국현대문학대계 6-김소월』, 지식산업사, p.266). 김인환(1993)은 “집과 일터가 모두 없어졌기 때문”에 갈 곳을 모르는 것이며 이는 “식민지는 일할 곳도 없고 쉴 곳도 없는 감옥”임을 보여준다고 언급한다(김인환, 「연극과 시」, 『상상력과 원근법』, 문학과지성사, p.49).

지금은 남의 땅 —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논길을 따라 꿈 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

(……)

강가에 나온 아이와 같이
잠도 모르고 끝도 없이 닫는 내 혼아
무엇을 찾느냐 어디로 가느냐 우스웁다 답을 하려무나.

나는 온몸에 꽃내를 띠고
푸른 웃음 푸른 설움이 어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 아마도 봄 신령이 지켰나 보다.

그러나 지금은 —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
—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부분

이상화는 1연에서 ‘지금은 남의 땅’과 ‘빼앗긴 들’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나라를 빼앗겼음을 강조한다. ‘봄은 오는가?’라는 질문은 자연 현상으로서의 ‘봄’은 찾아오지만 나라를 빼앗겼으므로 정신의 측면에서 ‘봄’은 결코 ‘봄’일 수 없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지금은 남의 땅’이므로 아름다운 들길을 따라 걷는 나는 ‘꿈 속을 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땅을 빼앗겼다는 인식으로 인해 서러운 정조가 주를 이루지만 산과 들은 봄의 기운이 완연하므로 아름답다. 따라서 아름다운 봄 풍경은 현실이 아닌 꿈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4-7연은 화자가 들길을 걸으며 마주치는 아름다운 봄 풍경을 그리고 있다. 봄을 맞이한 들의 풍경에 매료된 화자는 8연에서 호미를 들고 김을 매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그러나 9연에서는 4-7연의 꿈 같은 풍경에 빠져 있는 화자 스스로를 ‘강가에 나온 아이’로 비유한다. ‘남의 땅’이자 ‘빼앗긴 들’의 봄 풍경에 매료되는 것은 아이처럼 ‘잠’, 즉 영문도 모르고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화자는 들길을 걷는 스스로에게 무엇을 찾아 어디로 가는지 묻는다. 이 물음은 답을 구하기 위한 물음이 아니라 목적이 없는 방황임을 강조하기 위한 질문이다.

10연은 들길을 걷는 화자의 행위가 ‘꽃내’로 상징되는 치기어린 행위임을 보여준다. 또한 이런 행위는 ‘봄 신령’ 때문이기도 하다. 계절로서의 봄은 추운 겨울을 지나 찾아오는 것이므로 상징적으로는 식민지배(겨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시기를 의미한다. 하지만 자연의 순환처럼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나의 바람은 ‘꽃내’에 지나지 않는다. ‘푸른 웃음 푸른 설움이 어우러진 사이’는 봄을 맞이한 푸르른 들의 따스함과 나라를 빼앗겼으므로 아름다운 풍경은 남의 것이라는 자각의 대비를 의미한다. 이러한 의식과 현실의 충돌과 불균형은 나로 하여금 ‘다리를 절며’ 견게 만든다. ‘봄 신령’으로 인해 품었던 희망적 인식은 마지막 연에서 다시 1연의 비극적 인식으로 돌아간다. ‘남의 땅’ ‘빼앗긴 들’에 봄은 왔지만 화자는 봄을 맞이한 들의 풍경을 마음껏 향유할 수 없다. 남의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극적 인식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라는 우려로 귀결된다.

「病的 季節」 역시 유랑하는 민족의 현실을 가을이라는 계절과 관련시켜 그리고 있다. 가을은 “애담

은 목숨이 나누여질까 울시절”, “구슬픈마음이 앓다못해 날떨시절”이다. 가을이 애달프고 구슬픈 이유는 마지막 연에서 잘 드러난다. “하늘을 보아라 야원구름이 떠돌아다니네. / 따우를 보아라 젊은조선이 떠돌아다니네.” 땅과 하늘의 공간을 떠돌아다니는 조선과 구름은 식민지 시기 조선인들의 정체성의 핵심이 ‘유랑’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김소월과 이상화는 나라를 빼앗긴 민족의 현실을 지향점을 상실하고 유랑하는 주체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국외가 아닌 국내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유랑 의식은 북방을 떠돌아다니는 자들의 삶을 묘사하는 백석, 이용악 등과 다르다.²⁹⁾ 두 시인의 작품은 북방 공간을 배경으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백석은 “누대에 걸친 집단적 삶의 모습을 원형적으로” 그려냈고 이용악은 “고향이라는 실제 공간에서 시적 자아의 개인적 삶의 모습을 현실적으로”³⁰⁾ 드러냈다. 백석은 상징적 모국의 회복을 넘어 민족의 원형적이고 시원적인 공간으로 나아갔다. 백석은 북방 마을을 “이상공간으로 상정하고 이를 회복하고자 부단히 시도” 했지만 “이미 훼손되었고 식민지 현실은 이것의 복원 또한 끝내 허락하지 않음으로써 시적 자아는 갈등하고 방황”³¹⁾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이용악은 북쪽을 떠돌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당대 민족의 현실과 삶에 주목했다.³²⁾ 이용악의 북방 시편은 “침통한 서정을 바탕에 두고 북방에서의 개인적 체험이나 이웃과 민족의 고통스러운 삶의 敍事를 생생히 되살려”³³⁾ 냈다.

이처럼 김소월과 이상화가 식민지가 된 ‘모국’에서 식민지 지배자들의 차별과 억압으로 인해 지향점을 상실한 주체들의 유랑 의식을 드러냈다면 백석과 이용악은 ‘모국’을 떠나 북방을 유랑할 수밖에 없었던 민족의 디아스포라적 삶을 비극적으로 그려냈다. 반면 오장환은 전쟁을 향해 치달았던 1930년대 중후반 국내에 거주하지만 일제의 경제적 수탈과 차별로 인해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민족의 삶을 그리고 있다. 억압과 소외는 주체가 스스로를 끝없이 유랑하는 존재로 규정하게 만든다. 오장환은 국적성이 제거된 항구를 배경으로 유랑하는 선원들의 삶을 묘사함으로써 식민지화된 ‘모국’에서 지향점을 상실하고 떠돌아야 했던 식민지인들의 디아스포라적 정체성을 드러냈다.

3. 무국적 공간으로서의 ‘항구’

항구는 출발지이지 도착지로 기능하는 중간지대, 즉 육지(국내)와 바다(국외)가 만나는 접점이다. 근대 초기 많은 사람들이 근대 문명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항구를 통해 일본 등지로 떠났으며 새로운 문물과 지식이 항구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었다. 따라서 바다와 항구는 민족의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희망의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식민지가 됨으로써 모국을 상실하는 순간 항구는 목적과 지향점을 상실한 채 끝없는 출발과 도착이 반복되는 ‘무국적의 공간’으로 변질된다. 즉, 바다를 거쳐 국

29) 물론 이들이 국내의 유랑에만 주목한 것은 아니다. 이상화의 시 「가장悲痛한祈慾」의 부제는 ‘間島移民을보고’이다. 이 시는 식민지 시기 농사를 지을 땅을 빼앗기고 간도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던 민족의 현실을 그리고 있다. 즉, 물리적 공간 이동으로서의 디아스포라를 보여주고 있다.

30) 강연호(2006), 「이용악백석 시의 귀향 모티프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1,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p.392.

31) 박효환(2008), 『한국 근대시의 북방의식』, 서경시학, p.132.

32) 「도망하는 밤」, 「晩秋」, 「北쪽」, 「풀버섯소리 가득차 있었다」, 「天籟의 江아」, 「길손의 봄」, 「제비 같은 少女야」, 「아아 돌다리 위로 가자」, 「두만강아 너 우리의 강아」, 「고향아 꽃은 피지 못했다」, 「낡은 집」, 「전라도 가시내」 등에서 북방을 유랑하는 민족의 비극적 현실을 그리고 있다. 그런데 「전라도 가시내」를 제외한 다른 시들은 이용악이 일본 동경 유학 시절에 창작한 것으로 보인다. 북방 시편이 창작될 때 공간적으로는 일본에 머물고 있었으며 시의 배경 또한 한반도의 북쪽 지역이라는 점에서 북방 시편은 디아스포라 문학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최동호(1991)는 이용악 시의 서정성이 “북방적 정서”, 즉 “한반도 최북단의 두만강 변경지대의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시적 정서를 표현해 주었다”고 본다(최동호, 「북의 시인 이용악론」, 『평정의 시학을 위하여』, 민음사, p.24).

33) 박효환(2008), 앞의 책, p.237.

외의 영역으로 출발하는 지점인 항구는 모국의 상실로 인해 국외에서 국외로 출발하는 장소로 전락하는 것이다. 따라서 항구를 비롯한 국내(육지) 거주자는 스스로를 상징적, 의식적 국외자로 인식하게 된다.

오장환 시에 나타난 항구는 특정한 지역을 지칭하지 않는 무국적의 공간이며 끝없는 유량과 타락을 유발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디아스포라적이다. 오장환 시에서 항구의 공간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살피기 위해 바다와 항구를 다른 다른 시인들의 작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최남선에게 바다는 “수평선 너머에 있는 근대 과학문명을 실어다 주는 항로로서의 바다이며, 보다 넓은 세계로 뚫린 지리학적 관문으로서의 바다”³⁴⁾였다. 계몽의 기획 아래 근대 문명의 학습을 추구했던 최남선에게 바다 너머가 지향의 대상이었듯 임화의 “후기 시세계에서의 바다(현해탄)는 ‘서구의 새로운 지식과 진보적 이념습득을 가능하게 해 주는 세계, 다시 말하여 꿈꾸는 사상을 배우러가는 길’의 이미지”³⁵⁾로 나타난다. 따라서 임화에게 “바다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만나야 하는 신지식의 공급로였다.”³⁶⁾ 임화 시에도 항구와 부두가 등장하지만 바다 이미지의 배경으로서만 기능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최남선이나 임화에게 바다가 지향해야 할 근대 문명이나 사상이었다면 정지용에게 바다는 “새롭게 자신의 인식 지평을 확대하지 않을 수 없는 계기”였으며 “그의 유년 체험과 성인 체험을 매개하는 청년기 체험으로서 새로운 세계를 각인시키고, 어린이를 어른으로 만드는 결정적 계기”³⁷⁾였다. 정지용이 바다를 특정한 공간으로 인식했다기보다는 “같은 풍경을 한없이 응시하며 사물 자체(바다)의 무한히 다양한 가능성을 체험하는 데 열중해”³⁸⁾ 있었던 것이다. 바다와 관련된 시를 많이 쓴 김기림에게 바다는 상반된 이미지로 묘사된다. 한편으로 바다는 “희망에 들뜬 여행의 출발지”이며, “여행의 도정”이며, “여행의 목적지”³⁹⁾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으로 “바다 이미지는 소비문화가 유포하는 ‘계산된 몽환극’에 의해 촉발된 것이었으며 동시에 ‘도시’의 풍경에 대한 은유적 소묘이기도 했고, 탈출이 불가능한 막막한 근대적 일상의 변형이기도 했다.”⁴⁰⁾

이처럼 다른 시인들이 항구보다는 바다에 더 큰 의미를 부여했다면 백석, 이용악 오장환의 시에는 항구의 모습이 보다 더 분명하게 묘사된다. 백석 시에 드러난 항구는 「통영」, 「삼천포」 등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 구체적인 장소이다. 그러나 여행 중에 느끼는 정서를 표현하기 위한 배경이라는 점, 그리고 항구라기보다 포구나 어촌에 가깝다는 점에서 오장환의 항구와 다르다.

이용악은 제목에 ‘항구’가 들어간 시를 네 편 발표한다.⁴¹⁾ 백석의 경우처럼 지명이 분명하게 드러나긴 하지만 ‘항구’의 풍경과 그 풍경이 만들어내는 정서는 오장환과 가장 가까운 편이다. 「港口」는 어린 시절 항구 ‘나진’에서 노동을 하던 시절을 묘사하고 있다. 항구의 속성보다는 회상에 치중하고 있지만 시에 묘사된 부두 인부들의 모습은 오장환이 그려낸 선부의 모습과 유사하다.

머언 海路를 이겨낸 汽船이
港口와의 因緣을 死守하려는 검은 汽船이
뒤를 이어 入港했었고

34) 오세영(1994), 「한국문학에 나타난 <바다>」, 조규익·최영호 엮음, 『해양문학을 찾아서』, 김문당, p.376.

35) 강현국(1994), 「<바다 이미지>를 통해 본 한국시의 상상력 연구」, 조규익·최영호 엮음, 위의 책, p.268.

36) 손미영(2006), 「현대시에 나타난 ‘바다이미지’ 고찰」, 『우리문학연구』 20, 우리문화회, p.235.

37) 최동호(2001), 「난삽한 지용시와 바다 시편의 해석」, 김신정 엮음, 『정지용의 문학 세계 연구』, 깊은샘, pp.243~246.

38) 김신정(1998), 「정지용 시 연구-‘감각’의 의미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논문, p.77.

39) 강현국(1994), 앞의 글, p.278.

40) 강심호(2002), 「김기림 시와 수필에 나타난 ‘바다’ 이미지 고찰」, 『한국근대문학연구』 3-2, 한국근대문학회, p.160.

41) 「항구」, 「항구에서」, 「다시 항구에 와서」,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

上陸하는 얼굴들은
 바늘 끝으로 속 찔렸자
 솟아나올 한 방울 붉은 피도 없을 것 같은
 얼굴 얼굴 희어멀건 얼굴뿐

埠頭の 인부꾼들은
 흙을 씹고 자라난 듯 꺼머틱틱했고
 시금트레한 눈초리는
 푸른 하늘을 쳐다본 적이 없는 것 같았다
 그 가운데서 나는 너무나 어린
 어린 노동자였고——

— 「港口」 부분

‘머언 항로’를 견디고 도착한 승객들의 얼굴은 부두의 인부들과 달리 아주 희다. 너무나 흰 얼굴이라서 바늘로 찔러도 나올 피가 없을 것처럼 보인다. 흰 얼굴은 항해 내내 배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항구에 도착한다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아무런 희망이나 기쁨이 되지 못한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그들의 항해를 떠난 목적이나 이유가 무엇인지 드러나 있지 않지만 시에 묘사된 그들의 얼굴빛으로 보아 부정적인 것으로 짐작된다. 검은 피부와 ‘푸른 하늘을 쳐다본 적이 없는 것’ 같은 눈초리는 희망을 상실한 채 묵묵히 고된 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두 노동자들의 삶을 보여준다. 그 무리에 어린 나도 끼어 있었기에 지금 되돌아보는 항구의 풍경은 부정적으로 그려진다. 어린 내가 부두에서 일했던 것은 ‘날마다 바다의 꿈을 꾸었’고 이를 ‘믿고저 했었’기 때문이다. 바다가 데려다 줄 낯설지만 원대한 세계를 향한 꿈은 내가 부두를 향하게 했었지만 부두에서 어린 노동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애초에 품었던 꿈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헛된 것들임을 깨닫게 했을 것이다. ‘여러 해 지난 오늘’ 항구 ‘나진’에서의 삶을 돌이켜보는 내게 떠오르는 것은 핏기 없는 얼굴의 승객들과 검은 얼굴, 시금트레한 눈초리의 노동자들 사이에 섞여 고된 노동을 하는 어린 나의 모습이다. 하지만 이용악은 「다시 항구에 와서」에서 ‘차라리 누구의 아들도 아닌 나는 어찌하야 / 검은 흙이 자꾸만 씹고 싶습니까’라고 물음으로써 고통스러웠지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던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이용악에게 항구는 어린 시절 ‘희망과 같은 그러한 것이 가슴에 싹트’ (「항구에서」)게 했던 공간이자 꿈에 부풀어 찾아갔지만 고된 노동으로 인해 좌절해야 했던 공간이다. ‘가도 오도 못할 우리지오’ (「우라지오 가까운 항구에서」)와 같은 공간인 항구는 그림에도 불구하고 고된 시절을 함께 겪은 사람들이 살았던 장소이기에 그리움의 공간이기도 하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당대 시인들이 묘사한 바다와 항구는 근대 문명이나 사상이 유입되는 통로이거나 시인이 여행 중에 혹은 과거를 회상하며 느끼는 정서를 드러내기 위한 배경의 역할을 했다. 그리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지만 추억이 깃든 공간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그러나 오장환 시에 묘사된 항구⁴²⁾는 특정한 지역을 지칭하지 않으며, 과거-현재-미래로 이어지는 삶의 여정과도 관련이 없는 공간이다. 오장환의 항구는 유랑하는 선원들의 순간적인 삶만이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무국적의 공간이자 과거, 그리고 미래와 단절되어 있기에 선원들을 순간적인 쾌락에 빠지게 만드는 타락의 공간으로 묘사된다.

42) ‘항구’가 중요한 공간으로 기능하는 오장환의 시에는 「鄉愁」(『조선일보』, 1936. 10. 13), 「海港圖」(『시인부락』, 1936. 12), 「海獸」(시집 『성벽』, 1937. 07), 「나포리의 浮浪者」(『비관』, 1939. 01), 「旅程」(『문장』, 1941. 04) 등이 있다.

「鄉愁」는 항구에 사는 ‘나’와 고향에 있는 ‘어메’ 사이의 단절된 관계와 그리움을 그린다. 고향이 어머니가 살고 내가 태어난 특정한 장소를 지칭한다면 항구는 “일자소식이 없”고 “행방도 모르는” 내가 떠도는 공간일 뿐 특정한 장소를 의미하지 않는다. “只今の 내가 있는 곳은 廣東人이 살고 다니는 충충한 密航船”은 고향을 떠나 유랑하는 나의 현재의 삶을 보여준다. “술과 싸움과 賭博”은 뿌리 잃은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다. 그러나 나의 타락은 스스로의 선택이 아닌 “깊은 傷處”에 기인하는 것이다. 어떤 상처인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깊다는 것으로 화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고향을 떠나 유랑하는 지금의 삶을 초래한 상처로 추측할 수 있다. 상처란 대개 나의 잘못이나 실수가 아니라 외부 환경이나 타인이 나에게 가한 정신적, 물질적 충격으로 인해 발생한다. 따라서 항구를 전전하는 나의 유랑과 타락을 초래한 상처는 고향 상실, 즉 식민지화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유랑하는 나의 삶은 고향(모국)이라는 지향점을 상실한 식민지인의 삶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海港圖」에서처럼 항구는 출발지와 도착지가 아닌, 지향점을 상실한 채 ‘출발’과 ‘도착’이 무한히 반복되는 ‘무국적의 공간’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廢船처럼 기울어진 古物商屋에서는 늙은 船員이 追憶을 賣買하였다. 우중중—한 街路樹와 목이 굵은 唐犬이 있는 충충한 海港의 거리는 지저분한 크레옹의 그림처럼, 끝이 무뎠고 시꺼먼 바다에는 여러 바다를 거처온 貨物船이 碇泊하였다.

갑싼 반지요. 골통같이 굵드란 파잎. 바다바람을 쏘여 얼굴이 검푸러진 늙은 船員은 곳—잘 뱀을 놀린다. 한참 싸울 때에는 저 파잎으로도 武器를 삼아왔다. 그러게 帽子를 쓰지 않는 港市의 青年은 늙은 船員을 요지경처럼 싸고 돌른다.

나폴리(Naples)와 아덴(ADEN)과 싱가포르(Singapore). 늙은 船員은 航海表와 같은 記憶을 더듬어본다. 海港의 가지가지 白色, 靑色 작은 信號와, 領事館, 租界의 各가지 旗人발을. 그리고 제 나라 말보다는 남의 나라 말에 能通하는 稅關의 젊은 官吏를. 바람에 날리는 흰 旗人발처럼, Naples, ADEN, Singapore. 그 港口, 그 바—의 계집은 이름조차 잊어버렸다.

亡命한 貴族에 어울려 豐盛한 賭博. 킁킁한 골목 뒤에선 눈人자위가 시푸른 淸人이 괴침을 흠칫거리면 길밖으로 달리어간다. 紅燈女의 嬌笑, 간드러지기야. 生命水! 生命水! 果然 너는 阿片을 갖었다. 港市의 青年들은 煙氣를 한숨처럼 품으며 억세인 손을 들어 隋脩를 스스로히 술처럼 마신다.

榮養이 生鮮가시처럼 달갑지 않는 海港의 밤이다. 늙은이야! 너도 水夫이냐? 나도 船員이다. 자—한잔, 한잔, 배에 있으면 陸地가 그림고, 물에서 바다가 그림다. 몹시도 킁킁하고 질척어리는 海港의 밤이다. 밤이다. 漸漸 깊은 숲 속에 올빼미의 눈처럼 光彩가 生하여 온다.

— 「海港圖」(시인부락, 1936. 12) 전문

「해향도」의 늙은 선원과 젊은 선원인 ‘나’는 선원으로서의 ‘나’의 삶이 결국 늙은 선원의 삶으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동일한 인물이다. 1연에서는 항구의 풍경을 묘사한다. 폐선, 고물상옥, 우중중한

가로수, 충충한 해향의 거리, 지저분한 크레용의 그림, 무디고 시꺼먼 바다 등 항구의 모습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가득하다. 항구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늙어서 고물상에 자신의 추억이 깃든 물건을 팔 수 밖에 없는 늙은 선원의 삶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2-3연은 늙은 선원의 현재와 과거를 그리고 있다. 젊은 시절 항구를 떠돌며 살았던 늙은 선원의 무용담을 듣기 위해 젊은 청년들이 몰려든다. 세계의 무역항인 ‘나폴리, 아덴, 썩가폴’을 떠돌았던 늙은 선원의 삶과 추억은 항해표와 같이 한 번 쓰고 나면 버려지는 것들이다. 잠시 정박한 항구에서 바에 둘러 술을 마시지만 계집의 이름은 기억할 수도 없다. 일시적인 선원의 삶이 늙은 선원에게 남겨준 것은 항구의 신호로 사용되는 깃발과 영사관과 조계의 깃발, 그리고 세관의 젊은 관리들에 대한 추억이다. 그러나 추억은 그의 삶에 어떠한 의미도 부여할 수 없는 단절된 관계의 연속일 뿐이다. 젊은 선원인 ‘나’의 삶 또한 이렇게 귀결될 것이라는 점에서 항구는 유랑의 삶이 반복되는 공간으로 전략한다.

4-5연은 도박과 술을 즐기는 타락한 선원의 삶을 그린다. “항시의 청년들”이 “隋隋⁴³⁾을 스스로 술처럼” 마시는 것은 자신들의 삶이 중국에는 항구 곳곳에서 목격한 늙은 선원의 삶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賣淫婦」에서도 “港口, 港口, 들리며 술과 계집을 찾아 다니는 시스거른 얼굴”을 한 선원을 “淪落된 보헤미안”⁴⁴⁾으로 그린다. “榮養이 生鮮가시처럼 달갑지 않”은 것 역시 항구를 떠도는 선원의 삶으로는 부(富)를 얻을 수 없으며 고향의 부모를 잘 모실 수 없다는 자각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원들은 “배에 있으면 陸地가 그림고, 물에서 바다가 그림다”고 말한다. 배를 타고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는 선원들의 삶이 육지(항구)에 대한 그리움을 필연적으로 수반하지만 그들이 도달하는 육지는 “몹시도 킁킁하고 질척어리는 海港의 밤” 풍경을 보여줄 뿐이다. 선원들에게 항구는 그것이 어느 나라의 항구이든지 동일한 부정적 공간으로 인식되는 것이다. 따라서 항구는 특정한 국가나 지역의 성격을 상실한 무국적의 공간이 된다. 또한 무국적의 공간으로의 끝없는 유랑이 초래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귀결은 무기력과 타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구의 밤 풍경 속에서 “光彩가 生하여” 온다는 표현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삶에 온몸으로 부딪쳐 살아가는 선원들의 비극적 인식을 보여준다.

선원들의 삶은 항구를 따라 끊임없이 이동하는 삶이다. 그들에게는 배 위에서의 삶과 항구에서의 삶만이 존재한다. 반복되는 도착과 출발로 인해 선원들에게 항구는 일시적인 머무는 공간이 되지만 거의 모든 항구에서의 삶이 동일한 성격을 갖게 됨으로 인해 항구는 그들에게 영구한 거주지가 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항구의 일시적이고 영구한 성격은 항구를 특정한 국가나 지역이 아닌 무국적의 공간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과거, 그리고 미래와 단절된 채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삶만이 존재하는 무국적 공간인 항구는 선원들로 하여금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만든다. 술과 도박, 그리고 성적인 탐닉은 유랑하는 삶이 초래한 것이며 그 외의 다른 선택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海獸」(시집 『성벽』, 1937. 07)는 선원들의 타락이 외적 환경에 의해 강요된 것이나 마찬가지임을 보여준다. 「해수」는 ‘항구야/항구여’라는 외침을 중심으로 크게 1-8연, 9-13연, 14-18연, 19-23연, 24-27연의 5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5부분은 같은 내용의 변주로 볼 수 있을 만큼 유사한데 항구에서 술과 마약 등 환락에 빠져 있는 ‘나’와 ‘계집’이 항상 등장한다.

港口야

43) 김학동(2003)은 隋隋를 墮落(타락)의 오기로 본다(김학동 편, 『오장환 전집』, 국학자료원, 2003, p.20).

44) “윤락된 보헤미안”은 화자 자신인 오장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항수」에서도 자신을 “윤락된 자식”으로 표현한다.

게집아

너는 悲哀를 貿易하도다.

첫 연은 항구를 따라 떠돌아다니며 환락을 즐기는 선원의 삶이 중국에는 ‘비에’로 끝남을 이야기한다. 선원으로서의 삶은 자신의 청춘을 ‘비에’와 맞바꾼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인식이다. 3연에서 항구에 상륙한 ‘나’는 “거리의 골목 벽돌담에 오줌을 깔겨보”는 것으로 타락의 세계로 들어섬을 보여준다. 4-7연은 술과 마약에 취해 유곽의 여자와 환락을 즐기는 선원의 모습을 그린다. 거센 바다를 건디며 항해해 온 강인한 젊은 선원들을 “야윈 청년들은 淡水魚 처럼 / 힘없이 힘없이 狂亂된 ZAZZ에 헤엄쳐 가고”라고 묘사하는 것은 항구에 도착한 순간 술과 매음 외에 선원들에게 할 일이 없어지기 때문이다.⁴⁵⁾ 항구라는 공간은 환락을 제공할 뿐 선원들에게 진정한 휴식의 시간을 주지 못하는 공간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선원들이 처음부터 타락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어릴 때에는” “제법 자라나는 良心을 지니었었다”는 것은 선원으로서의 삶이 주로 펼쳐지는 항구라는 공간이 선원을 타락시켰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선원은 항구를 통해 “비에를 무역”했다는 1연의 진술에 타당성이 부여된다.

두 번째 부분의 시작인 9연에서는 ‘비에’를 넘어 ‘분노’가 표현된다.

港口여!

눈물이어!

나는 終是 悲哀와 憤怒 속을 航海했도다.

느낌표를 사용함과 더불어 눈물이 강조된다. 눈물은 비애의 눈물일 뿐만 아니라 분노로 인한 눈물이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분노를 일으킨 원인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다만 술에 취해 “자조와 절망의 구덩이”에 빠졌을 때 ‘나’가 생각한 것은 “병든 記憶”이다. 기억의 구체적 내용을 드러내지 않은 채 병들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황혼」에서 고향의 아름다운 기억을 떠올리려 했지만 고향은 “병든 학”으로 묘사된다. 또한 고향의 아름다운 기억을 간절히 떠올리게 만드는 현실의 무기력은 ‘나’로 하여금 “힘없는 분노와 절망을 물어버”리게 한다. 그런데 오장환 시에서 병들었다는 인식과 이로 인한 분노와 절망은 자기 반성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다. 식민지인은 차별과 소외라는 외적 상황에 의해 무기력을 느끼게 되며 이러한 외적 상황에 대해 아무 것도 할 수 없기에 분노와 절망 또한 ‘힘없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10연의 “병든 기억”은 지나온 삶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기인한 것이지만 그것이 주체의 선택이 아닌 외적 상황, 즉 선원으로서의 삶이 강제되었다는 점과 선원이 살아가는 장소인 항구라는 공간의 부정적 속성 때문임을 주목해야 한다.

11연에서 오장환이 묘사하는 바다는 앞서 살펴본 최남선, 임화, 정지용, 김기림 등이 바다와는 거리가 멀다. 비록 바다가 “未知의 世界, / 未知로의 憧憬,”을 의미하는 공간이지만 오장환에게는 “限없이 凶측마진 구렁이의 살결과” 같이 불길한 공간이다. 따라서 오장환은 바다라는 공간을 동경과 희망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하며 “바다와 同化치는 못하여왔다”고 말한다.

세 번째 부분 역시 “港口여! / 눈물이어!”의 영탄으로 시작된다. 눈물은 죽은 동료들이 묻힌 매립지와 바다로 떠오른 시신들로 인한 것이다. 항구의 밤은 “妖氣”로 가득하고 밤 바다에서는 “부어올른 屍身”이 떠오른다. 결국 선원은 게집과 술을 빠져 세월을 보내다 바다에 빠져 시신도 수습할 수 없게 되거나 요행히 시신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모국’이 아닌 항구의 매립지에 묻히게 된다. 이러한

45) 「황혼」에서도 “아모 일도 안하면 일할 때보다는 야위어진다.”라고 말한다. 야위었다는 것은 외적 상황에 의해 해야 할 일이 사라졌을 때 느끼는 ‘심리적 무기력’을 의미한다.

삶이 ‘나’ 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것이다.

네 번째 부분은 항구 공간의 부정적 속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항구는 “幻覺의 都市”이다. 마약에 빠져 환각을 느끼는 공간이며 끝없이 유랑하는 삶에서 잠시 정박하게 되는 항구는 구체성과 현실성을 상실한 ‘환각’의 공간이기도 하다. 항구에서의 일시적 정박은 ‘나’의 과거로부터 이어지지도 않고 미래로도 연결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쉽게 타락의 길로 인도한다. 나에게 “얼마간의 푼돈”이 있다면 “매음녀는 / 나의 소매에” 매달린다. 그리고는 “나의 마음까지 할터노아서” 46) 나는 “이유없이 웃는다.” 술에 취해 도박과 싸움으로 세월을 소비하는 ‘나’에게 남아 있는 것은 “自爆한 뽀헤미안의 固執” 뿐이다. 「향수」의 “윤락된 자식”, 「매음부」의 “윤락된 뽀헤미안” 그리고 「해수」의 “자폭한 뽀헤미안”은 모두 오장환 자신을 가리킨다. ‘자폭’했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타락했음을 의미하며 ‘고집’은 다른 사람들과의 마찰과 싸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21-23연에서 항구의 밤은 깊어지며 더욱 불길한 모습으로 묘사된다. 심지어 밤 바다 위를 날아다니는 갈매기조차 “김승과 같이 추악”하고 “위협”적이며 “가마귀처럼 不吉”하게 느껴진다. 파도는 항구의 방파제를 향해 거세게 밀어닥쳐 항구를 더욱 불안정한 공간으로 만든다.

다섯 번째 부분 역시 “港口여! 눈물이어!”의 영탄으로 시작되는데 눈물은 투자한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며 그럼에도 ‘나’는 “뚱뚱한 계집”과 정사를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좌절과 절망의 반복 속에서도 끝없이 환락을 추구하는 자신의 모습을 “병든 거의(계-인용자)”에 비유한다. “濕疹과 最惡의 꽃이 盛華하는 港市의 下水口”는 “웅대하게 밀리쳐 오는” 바다를 보고 계가 숨는 “더러운 구덩이, 어두운 굴 속”과 같다. 즉 계로 비유된 내가 머무는 항구의 퇴폐적인 공간은 오물이 가득한 ‘하수도’이며 더럽고 어두운 ‘굴 속’이다. 바다의 웅대함은 하수도과 굴의 더러움과 대비된다. 바다의 웅대함은 원대한 꿈과 야심을 품게 한다. 그러나 선원으로서의 삶은 이와 달리 타락한 것이므로 바다의 웅대함은 나를 위축시킨다. ‘나’는 계, 즉 ‘나’를 향해 ‘웅대하게’ 밀려오는 바다가 무서웠는지, 그 무서움으로 스스로를 낚아채는지, 아니면 밀려나가는 조수를 부럽게 바라보며 불평하는지 묻는다. 대답하기 위해서 과거를 돌아보는 대신 ‘나’는 항구의 환락에 몸을 맡긴다. 그것은 자신의 삶을 이미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며 과거의 회상이 현재의 삶을 더욱 비참한 것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마지막 연은 타락한 선원의 삶에 대한 자조적인 묘사로 이루어진다. 계, 즉 나는 “陰狹한 씨내기, 사탄의 落倫”이다. 그래서 그 “더러운 껍데기는 / 일즉 / 바다스가에 소꼽노는 어린애들도 주어가지는” 않는다. 어린애들이 주워가지 않는 계의 껍데기는 그 삶을 꿈꾸고 닮아보고자 희망하는 사람들이 없는 선원들의 삶을 의미한다.

「船夫의 노래 2」에서 무국적 공간으로서의 항구를 따라 유랑하는 주체는 자신의 삶을 외부 상황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보기도 하고 스스로 선택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강요는 삶의 비극성에 대한 인식으로 이어지며 선택은 환락의 추구로 이어진다.

安定할 줄 모르는 動物들의 애달품이어!

뛰도라 단이는 四肢의 고달픔이어!

온—밤

燈 한송이를 밝히지 않고 衰殘한 마음이 나무뿌리처럼 어두운 孤寂 속으로 번어나도다

울커니나도 배 안의 人사람

花草盆과 같은 憂愁 속에 너는 뿌리를

46) 「매음부」에서도 “매음녀는 파충류처럼 포복”하는 동물의 이미지로 묘사된다.

뚝귀보느냐!

野心의 巨大한 아궁지에 石炭을 옥여너흐며
사나운 물결과 싸워오기에
너의 피와 너의 땀은 찻질한 너의 털어귀를
거세게 키워왔느니
본시 너는 바다를 찾아왔드냐,
본시 너는 바다로 쫓겨왔드냐!

다음 港口의 殘忍한 快樂을 찾아
疲困한 몸을 起重機로 달아올리고
한밤!
침침한 船倉에서 너는 賭博을 해야왔드냐!

三等船室에서는 病든 鶴과 같이 목이 가는 貴公子가
甲板으로 걸어나오며
비린내나는 달빛 아래에 울고 있었다
너는 울어왔드냐!

암말도 앓고 타구를 내여 밀으면
貴公子는 吐하여 보고
또 그는 바다로 뛰어들었다

港口가 가차히 밤이 무더워지면
沙漠으로 通하는 子午線의 흰 그림자
사공이여! 쫓겨온 사람
印度와 아리비아인의 頭巾이 더위에 느러붓는다

옥여 타오르는 火口와 體溫 속에서
너는 어떠한 情熱을 익혀(習) 왔드뇨?

얼굴이 검은 植民地의 靑年이 있어
여러 나라 水兵이 오르나리는 저녁 埠頭に 피리 부으네
넬룽대는 毒蛇의 가는 섯바닥을 달래보네

잠재울 수 없는 歡樂이여!
病든 官能이여!
가려귀처럼 검은 피를 吐하며
不吉한 입가에 술을 적시고
아하 나는 엇지 歲月의 港口 港口를 그대로 지내왔드뇨?
- 「船夫의 노래 2」(자오선, 37. 11) 전문

1-3연과 7-8연이 바다로 쫓겨 온 삶이 초래한 슬픔을 그린다면 4-6연과 9-10연은 환락에 빠진 삶을 그리고 있다. ‘너’라고 부름으로써 주체를 대상화하지만 마지막 연에서 ‘너’는 ‘나’로 전환되어 동일인임을 드러낸다. 1-3연에서는 “안정할 줄 모르는”, “뛰도라 단이는” 선원의 삶이 애달프고 고달프다고 말한다. 정처를 잃은 삶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곳은 ‘고적’과 ‘우울’이라는 감정뿐이다. 선원으로서의 삶은 바다를 통해 넓은 세계에 닿고자 하는 “거대한 야심”에서 시작된다. 선원들은 폭풍을 이겨내며 거세진 ‘털어귀’처럼 강해진다. 그러나 이 시에 드러난 선원인 ‘너’는 선원의 삶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선원으로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다. 3연의 마지막에서 “바다로 쫓겨왔느냐!”는 구절의 마지막에 느낌표를 삽입함으로써 ‘너’가 바다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쫓겨 온 것임을 분명히 한다.

4-6연은 어쩔 수 없는 삶에서 주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도박과 술 등의 쾌락에 빠지는 것밖에 없음을 말한다. 그러나 쾌락의 추구는 강요된 삶에서 주체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하지만 선택이자 주체의 삶을 파탄시키는 것이므로 “잔인한 쾌락”이 된다. 고된 항해와 험난한 선원으로서의 삶 속에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오락인 도박은 주체의 삶을 더욱 피로하게 만든다. “기증기로 달아올”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피곤한 몸”은 삶의 무게가 개인으로서의 주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다는 것을 의미한다.

‘귀공자’라면 ‘삼등선실’이 아닌 일등선실이나 이등선실을 이용할 것이다. 그러나 귀공자는 명칭만 남았을 뿐 실제적 권위를 상실한 “병든 학과 같이 목이 가는 귀공자”이다. ‘병든 학’은 오장환 시에 자주 나타나는 이미지이며 자기 자신을 가리킨다.⁴⁷⁾ 귀공자의 울음은 전락한 자신의 신분으로 인한 설움 때문일 수 있으며 고된 항해와 멀미에 견디지 못하는 유약한 신체 때문일 수도 있다. 정신적 신체적 피로움은 귀공자를 바다로 뛰어들게 만든다.

7-8연에서 배는 사막 가까운 항구에 도달한다. 사막과 더위는 쫓겨 온 자들이 도달하게 되는 곳에서의 삶이 험난한 것임을 상징한다. 배 안에 “인도와 아리비아인” 등이 여러 나라에서 쫓겨 온 사공들이 있는 것처럼 그들이 도달하게 될 항구 역시 쫓겨 온 자들이 뒤섞여 존재하는 무국적의 공간이다. 뜨거운 화구 앞에서 석탄을 퍼부으며 일하는 ‘너’에게 “어떠한 정열을 익혀” 왔느냐는 질문은 헛된 것이다. ‘너’는 정열이 아닌 ‘잔인한 쾌락’을 익혀왔기 때문이다. 뜨거움은 정열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쫓겨 온 자들의 고통스런 삶을 상징한다.

9-10연은 선원으로서 떠돌며 환락과 관능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식민지 청년”의 삶을 회한의 시선으로 묘사한다. 항구에 도착한 ‘식민지 청년’은 쾌락에 탐닉하는 혀를 달래기 위해 피리를 불어본다. 그러나 피리를 부는 것으로는 환락을 잠재울 수 없다. 환락과 관능은 유사한 속성의 시어로 볼 수 있으므로 ‘잠재울 수 없는’ 것과 ‘병든’ 것 역시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관능과 환락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주체가 정신적으로 병들었음을 나타낸다. 병들었으므로 붉은 피가 아닌 검은 피를 토한다. 그러나 병들었다는 것은 환락과 관능에 중독되었다는 것이기도 하기에 피를 토하면서도 다시 술을 마신다. 이러한 악순환은 항구를 따라 유랑하는 선원의 삶이 초래한 것이다.⁴⁸⁾

마지막 부분에서 화자는 회한의 목소리로 항구를 따라 흘러 다니며 의미 없는 삶을 살았음을 반성한

47) 「불길한 노래」에서도 오장환은 자기 자신을 “병든 시인”이라고 말한다. 「황혼」에서는 “날마다 야위어가는” 고향을 “병든 학”으로 그리는데 1연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기 때문에 야위어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고향과 자기 자신은 병들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48) 김우창(1997)은 김소월 시의 허무주의에 “한국인의 정신적 지평에 瘴氣처럼 서려 있어 그 모든 활동을 힘 없고 병든 것이게 한 일제 점령의 중압감”이 배어 있다고 지적하는데 이는 식민지 시기 한국 문학 전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김우창, 「한국시와 형이상」, 『궁핍한 시대의 시인』, 민음사, p.44). 오장환 시에 드러난 무기력과 병든 역시 시대의 중압감과 이에 대한 시인의 인식과 반응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 항구를 따라 유랑하고 환락에 빠져 지내온 삶에 대한 회한은 그러나 그 유랑과 환락에의 탐닉은 주체의 선택이 아닌 외적인 상황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택하게 된 선원으로서의 삶, 즉 유랑하는 삶이 초래한 것이다. 따라서 유랑과 타락에 대한 자기 반성은 외부 조건에 대한 문제 제기와 상통한다.

「旅程」에서 ‘나’는 항구를 따라 떠돌았던 자신의 삶의 여정을 되돌아본다. 왜 자신만 집을 버리고 떠돌아다녔는지 묻는다.

또 한번 멀—리 떠나자.

거기

港口와 파도가 이는 곳

午後만 되면 會社나 官廳에서 물밀듯 나오는 사람

나도 그틈에 끼어 천천히 담배를 물고

뒷골목에 뺨뺨뺨 내다보는

소매치기, 行旅病者, 어린 거지를 다려다보며

다만 떠나려가는 널판쪽 모양 몸을 마끼자.

거기,

날마다 드나드는 異國船과 海關의 倉庫가 있는 곳

나도 낮설은 거리에 서서

港口와 물결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會社員이나 官廳사람과 같이

우정 그네들을 따러가 보자.

그러면,

恒常 기계와 같이 돌아가는 季節 가운데

雨水가 지나고 驚蟄이 지나

고향에서는 눈 속에 파묻힌 보리 이랑이 물결치듯 소근대며 머리를 들고

江기슭 두터운 어름짱이 터지는 소리,

이때의 나는 무엇이 제일 그리울거나.

찾어온 발길이 아주 맥히는 바닷가에서

그때, 나의 떠나온 道程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자.

新開地 비인 터전에

새로히 포장치는 曲藝團의 쇠망치 소리.

내가 무에라 흐렁흐렁 울어야는지,

우두머니 그저 우두머니

밤과 낮, 들밖에 없는 世上에

으째서 나 홀로 집을 버렸다. 집을 버렸다.

— 「旅程」(문장 41. 04) 전문

1연은 “항구와 파도가 이는 곳”으로 떠나고자 하는 욕구를 표현한다. 지금 ‘나’는 여정을 끝내고 한 곳에 머물러 있다. 그런 내가 다시 항구로 가고자 하는 이유는 항구의 공간이 아름답고 풍요롭기 때문이 아니다. 「해향도」에서처럼 “배에 있으면 육지가 그림고, 물에서 바다가 그림”기 때문에 다시 항구로 가고 싶은 것이다. 정착과 유랑은 ‘나’에게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항구에는 부러움

의 대상인 회사원, 관청의 관리들이 있지만 “소매치기, 행려병자, 어린 거지” 들도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면서도 부정적인 공간이다. 그런데 현재의 ‘나’ 는 한 곳에 머물러 있기에 떠나고 싶으며 항구의 사람들과 “떠나려가는 널판쪽 모양” 뒤섞이고 싶은 것이다.

2연 또한 정착지에서는 떠나고 싶고 유랑의 공간에서는 정착하고 싶은 이중적인 심리를 보여준다. 항구는 낯선 공간이면서도 “이국선과 해관의 창고가 있는” 익숙한 공간이기도 하다. 유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선원인 ‘나’ 는 항구에서 정착된 생활을 하는 “회사원이나 관청사람” 을 부러워한다. “기계와 같이 돌아가는 계절” 은 항해와 정박이 반복되는 선원의 삶을 의미한다. 항해와 정박은 언제나 특정 공간과 지역을 지향하는 것이지만 바다와 항구의 속성은 동일하기 때문에 선원의 삶은 ‘기계적’ 으로 느껴진다. 이처럼 반복적인 유랑의 삶 속에서 ‘나’ 는 안정된 공간인 ‘고향’ 을 그리워한다. “보리 이랑이 물결치” 고 “강기슭의 두터운 여름짚이 터지는 소리” 를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의 정도만큼이나 생생하게 들린다.

1연에서 항구를 그리워했다면 2연에서는 항구에 있는 내가 고향을 그리워한다. 3연에서 ‘나’ 는 바닷가에 와서 “나의 떠난 여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 곡예단은 도처를 유랑한다는 점에서 선원의 삶과 같다. 따라서 “신개지 비인 터전에 / 새로히 포장치는 곡예단의 쇠망치 소리” 는 선원으로 드넓은 바다와 항구를 떠돌았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만든다. “떠난 여정” 을 생각해본 나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오지만 울지도 못하고 “우두머니” 바다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 다만 스스로에게 왜 “집을 버렸나” 라고 묻는다. “밤과 낮, 둘밖에 없는 세상” 은 복잡하지 않은 간단한 논리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다. 물리적인 시간으로서의 밤과 낮은 휴식을 취하고 잠을 자는 시간과 일하는 시간이다. 상징적으로는 식민지인으로서의 고통의 시간인 밤과 미래에의 희망을 품고 실천하는 시간인 낮으로 볼 수 있다. ‘나’ 는 이러한 밤과 낮으로 이루어진 단순한 세상에서 ‘집’ 떠날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나’ 는 집을 떠나 오랫동안 바다와 항구를 따라 유랑했고 유랑하면서는 집과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았다. 고향에서는 떠나고 싶었지만 떠나서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모순적인 삶이 ‘나’ 의 삶의 여정이었기에 ‘나’ 는 “으썸서 나 홀로 집을 버렸나. 집을 버렸나.” 라고 물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 의 유랑은 비록 「여정」에서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지만, 앞서 다른 시에서 알 수 있듯 외적 상황에 의해 강제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따라서 마지막 부분의 탄식은 집으로 상징되는 고향과 모국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던 식민지라는 역사적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과 괴로움을 우회적으로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⁴⁹⁾

식민지인들에게 ‘모국’ 과 ‘타국’ 의 구별이 무의미한 것처럼 선원들의 삶에서 항구는 단지 잠시 머무는 장소일 뿐이다. 오장환 시에 나타난 무국적 공간으로서의 항구는 이러한 식민지적 디아스포라 의식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장치이다. 이러한 무국적 공간에서 유랑하는 선원들의 삶은 식민지로 인해 나라를 빼앗기고 국외로 쫓겨난 자들의 디아스포라를 드러낸다.⁵⁰⁾ 뿐만 아니라 ‘모국’ 에 거주하지만 식민지 지배자들의 억압과 차별로 인해 ‘모국’ 혹은 ‘고향’ 이라는 지향점을 상실한 식민지인들의 디아스포라 의식을 보여주기도 한다. 오장환은 항구와 선원의 삶을 그림으로써 모국을 상실한 주체의 유랑 의식, 즉 ‘식민지적 디아스포라 의식’ 을 드러낸다.

4. 결론

49) 「FINALE」(『조선일보』, 1940. 08. 05)는 “어찌라 어찌라 나 홀로 故郷에 머물러 옷깃을 적시나니까.”로 끝난다. 오장환은 고향에 머물든, 고향을 떠나든 식민지인들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 밖에 없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50) 강연호(2004)는 식민지 시기 “고향을 떠나 떠돌아다니던 유이민의 의식 속에는, 뿌리 뽑힌 자아라는 정신적 트라우마가” 있었다고 보는데 이러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식민지적 디아스포라 의식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강연호, 「이용악 시의 공간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23, 현대문학이론학회, p.91).

이 논문은 오장환 시에 나타난 향구의 무국적성과 유랑 의식을 식민지라는 특수한 상황이 초래한 ‘디아스포라 의식’으로 보고자 했다. 식민지의 특수성은 국외로의 물리적 공간 이동 없이도 모국을 상실했다는 역사적 사실과 식민지 지배자들의 억압과 차별로 인해 식민지인들에게 디아스포라 의식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서구는 물론 한국의 디아스포라 연구는 ‘공간’과 ‘정체성’을 핵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즉, 디아스포라 의식은 모국에서 추방되거나 어쩔 수 없이 모국을 떠난 사람들의 집단이 새로운 거주국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궁극적인 귀국을 꿈꾸는 데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논의가 식민지 국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사실 식민지 지배자들의 경제적 수탈과 차별에 의해 삶의 터전을 상실한다는 것이 반드시 국외로의 추방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비록 식민지화된 ‘모국’에 거주하더라도 나라를 빼앗겼다는 의식,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소외 의식, 그리고 공식적인 도시 명칭의 변경으로 인해 식민지인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곳을 식민지 모국에 속한 장소로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인식은 식민지화 이전을 ‘상징적 모국’으로 상징하게 하며 모국의 영토를 궁극적으로 회복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점에서 디아스포라적이다. 이러한 식민지적 디아스포라의 특징은 공간의 이동 없이도 디아스포라 의식을 갖게 된다는 데에 있다.

김소월과 이상화가 식민지가 된 ‘모국’에서 식민지 지배자들의 차별과 억압으로 인해 지향점을 상실한 주체들의 유랑 의식을 드러냈다면 백석과 이용악은 ‘모국’을 떠나 북방을 유랑할 수밖에 없었던 민족의 디아스포라적 삶을 비극적으로 그려냈다. 오장환은 전쟁을 향해 치달았던 1930년대 중후반 일제의 억압과 차별로 인해 소외되고 떠돌 수밖에 없었던 식민지인들의 삶을 디아스포라 의식을 통해 표출해냈다. 식민지인들에게 ‘모국’과 ‘타국’의 구별이 무의미한 것처럼 선원들의 삶에서 향구는 단지 잠시 머무는 장소일 뿐이다. 오장환 시에 나타난 무국적 공간으로서의 향구는 이러한 식민지적 디아스포라 의식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장치이다. 이러한 무국적 공간에서 유랑하는 선원들의 삶은 식민지로 인해 나라를 빼앗기고 국외로 쫓겨난 자들의 디아스포라를 드러낸다. 뿐만 아니라 ‘모국’에 거주하지만 식민지 지배자들의 억압과 차별로 인해 ‘모국’ 혹은 ‘고향’이라는 지향점을 상실한 식민지인들의 디아스포라 의식을 보여주기도 한다. 오장환은 국적성이 제거된 향구를 유랑하는 선원들의 삶을 묘사함으로써 모국을 상실한 식민지 주체의 유랑 의식, 즉 ‘식민지적 디아스포라 의식’을 드러낸다.

이 논문은 오장환 시에 드러난 향구의 무국적성과 유랑 의식을 식민지적 디아스포라 의식으로 규정함으로써 기존의 디아스포라 연구에서 배제되어 왔던 식민지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디아스포라 개념의 폭을 확장시키고자 했다. 이는 디아스포라의 보편적 특징이 식민지적 디아스포라 의식이라는 특수성과 만나는 접점을 가능케 함으로써 더욱 풍부한 논의를 가능케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윤영천 편(1988), 『이용악 시전집』, 창작과비평사.
이동순 편(1988), 『백석 시전집』, 창작과비평사.
최두석 편(1989), 『오장환 전집 1』, 창작과비평사.
_____ (1989), 『오장환 전집 2』, 창작과비평사.
이상규 편(2001), 『이상화 시 전집』, 정림사.
김학동 편(2003), 『오장환 전집』, 국학자료원.
김용직 주해(2007), 『원본 김소월 시집』, 깊은샘.

2. 국내 논저

- 문정창(1967), 『군국 일본 조선강점 36년사』, 백문당.
김문식 외(1971), 『일제의 경제침탈사』, 민중서관.
윤영천(1987), 『한국의 유민시』, 민음사.
김은자(1988), 『현대시의 공간과 구조』, 문학과비평사.
김인환(1993), 『상상력과 원근법』, 문학과지성사.
김우창(1997), 『궁핍한 시대의 시인』, 민음사.
조규익·최영호 엮음(1994), 『해양문학을 찾아서』, 집문당.
윤인진(2004), 『코리안 디아스포라』, 고려대학교 출판부.
곽효환(2008), 『한국 근대시의 북방의식』, 서정시학.

3. 논문

- 최하림(1982), 「식민지시대 시인의 초상」, 『한국현대시문학대계 6-김소월』, 지식산업사.
최동호(1991), 「북의 시인 이용악론」, 『평정의 시학을 위하여』, 민음사.
맹문재(2001), 「유랑민들의 삶의 노래」, 『한국민중시문학사』, 박이정.
김승희(2003), 「한국현대시에 나타난 이산」, 『비교한국학』 11-1, 국제비교한국학회.
윤영천(2003), 「유이민의 비극적 삶을 직핍한 북방시편들의 울림」, 『대산문화』.
강연호(2004), 「이용악 시의 공간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23, 현대문학이론학회.
곽효환(2005), 「이용악의 북방시편과 북방의식」, 『어문학』 88, 한국어문학회.
박용찬(2005), 「이용악 시의 공간적 특성 연구」, 『어문학』 89, 한국어문학회.
강연호(2006), 「이용악·백석 시의 귀향 모티프 연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31,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김신정(2006), 「미주 지역 한인 문학의 현황과 이산 문학의 가능성」, 『한국문학이론과비평』 32,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손미영(2006), 「현대시에 나타난 ‘바다이미지’ 고찰」, 『우리문학연구』 20, 우리문학회.
신 진(2006), 「한국 ‘바다시’와 그 유형」, 『비평문학』 23, 한국비평문학회.
이혜원(2006), 「김소월과 장소의 시학」, 『상허학보』 17, 상허학회.
김도희(2007), 「식민지 자본과 시의 디아스포라적 양상 연구」, 한국시학회 제20차 전국학술대회.
박경환(2007), 「디아스포라 주체의 비판적 위치성과 민족 서사의 해체」, 『문화역사지리』 19-3,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 박수연(2007), 「식민지적 디아스포라와 그것의 극복」, 『한국언어문학』 61, 한국언어문학회.
- 손미영(2007), 「한민족의 유랑의식 고찰」, 『한민족문화연구』 22, 한민족문화학회.
- 박수연(2008), 「디아스포라와 민족적 정체성」, 『비교한국학』 16-1, 국제비교한국학회.
- 이길연(2008), 「운동주의 시에 나타나는 북간도 체험과 디아스포라 본향의식」, 『한국문예비평연구』 26,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 이길연(2008), 「이용악 시에 나타나는 북방정서와 디아스포라 공간의식」, 2008년 국제어문학회 가을 전국학술대회.
- 김경훈(2009), 「디아스포라의 삶의 공간과 정서-백석 이용악 운동주의 경우」, 『비교한국학』 17-3, 국제비교한국학회.
- 김춘식(2009), 「소수집단 문학의 정체성-기억, 이산, 장소」, 『비평문학』 34, 한국비평문학회.
- Safran, Williams(1991), *Diasporas in Modern Societies: Myths of Homeland and Return*, *Diaspora* 1-1.
- Clifford, James(1994), *Diasporas*, *Cultural Anthropology* 9-3, American Anthropological Association.
- Anthias, Floya(1998), Evaluating 'Diaspora' : Beyond Ethnicity?, *Sociology* 32-3. 08.
- Brubaker, Rogers(2005), The 'diaspora' diaspora, *Ethnic and Racial Studies* 28-1.

4. 해외 논저

- Gilroy, Paul(1993), *The Black Atlantic: Modernity and Double consciousnes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Cohen, Robin(1997), *Global Diasporas: An Introduction*, Seattle, WA: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 Brazier, Jana Evans and Mannur, Anita ed.(2003), *Theorizing diaspora : a reader*, Malden, MA : Blackwell Pub.
- 렐프, 에드워드(2005),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옮김, 『장소와 장소상실』, 논형.

경계인의 정체성 연구

- 재일조선인 김시중의 시 세계

오창은(단국대학교 연구교수)

1. 보이지 않는 ‘시인 김시중’

김시중¹⁾의 문학세계가 처음 한국에 소개된 것은 1998년이였다. 호소미 가즈유키는 「세계문학의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첼란, 김시중, 이사하라 요시로의 언어체험’에 관한 글을 <실천문학>에 발표했다.²⁾ 이 글에서 호소미 가즈유키는 김시중에 대해 “수필집 『재일(在日)의 뜰마구니에서』(立風書房, 1986년)로 마이니치 출판문화상을 받았고, 『집성시집(集成詩集)』이라는 이름 아래 『들판의 시』(상동, 1991년)를 간행한 바 있으며, 지금도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시인”이니만큼 “새삼 소개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³⁾ 일본에서는 그의 이력이나 시적 역량에 대해 상술이 필요 없을 정도로 평가 받는 시인이지만, 한국 문학계에서 그의 작품세계에 대한 논의는 좀처럼 접할 수가 없었다.

호소미 가즈유키에 이어 2001년에는 마츠바라 신이치가 「김시중론」을 발표함으로써, 김시중은 일본 논자들에게 의해 한국에 소개된 시인으로 인식되었다.⁴⁾ 마츠바라 신이치는 그의 평문에서 김시중이라는 존재가 “부난한 자기 김증을 대가로 하지 않는 이상, 언제 빠질지 모르는 ‘차별과 편견’이라는 함정의 어둠”을 성찰하게 한다고 보았다. 김시중은 일본의 ‘배려 받고 사고를 지낸 지식인층의 전진 의식’을 비판하는 ‘진달래 독’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 마츠바라 신이치의 주장이다.⁵⁾ 생소한 이름인데도 일본 지식인과 연구자 집단 사이에서 “일본어로서 일본어에 보복을 자행하는 독특한 형태”⁶⁾를 취하고 있는 시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김시중이라는 개인에 대한 호기심보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궁금증이 앞섰다. ‘언어의 보복’은 더 아스포라 문학의 새로운 형태를 예시하는 것이기에 흥미로운 수밖에 없다. 더구나 남과 북의 경계

1) 김시중은 1929년 원산에서 출생한 후 부모와 함께 제주도로 이주해 성장했다. 1942년에는 광주에 있는 교원양성을 위한 중학교에 입학해 수학하다, 1945년 12월에 중퇴했다. 이후 제주도로 돌아와 제주도 인민위원회에서 일했고, 제주도 학무과 촉탁으로 교원양성소 사무직 업무를 수행했다. 그는 남로당에 입당하여 1948년 5월에 발생한 ‘우편국 사건’에 연루되어 숨어지내다, 1949년 6월 5일 일본으로 밀항했다. 이후 오사가 쓰루하시에서 양초공장 노동자 등으로 생계를 유지했고, 1950년에는 일본 공산당에 입당했다. ‘조선문화연구회’ ‘재일오사카조선문화협회’ 등에서 활동가로 일하며 재일 조선인 문제와 남북 분단 문제에 대한 고민을 심화시켜 나갔다. 그가 문화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은 재일조선인 잡지인 『조선평론』에 참여하면서부터였다. 1952년 2월에는 젊은 시인들을 규합해 시전문 동인지 『진달래』 창간을 주도했다. 조총련의 방침에 따라 『진달래』가 폐간되자 보수주의·도식주의·교조주의를 비판하며 북과 남에도 속하지 않는 ‘재일(在日)’의 정체성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일본어로 시를 쓰는 대표적인 재일 조선인 시인으로 첫시집 『지평선』(1955) 이후 『일본풍토기』(1957), 장편시집 『니가타(新潟)』(1970), 『이카이노시집(猪飼野詩集)』(1978), 『광주시편』(1983), 『들판(原野)의 시』(1991), 『화석의 여름』(1998), 『상실의 계절』(2010) 등이 있다. 한국어 번역된 시선집으로 『경계의 시』(2008)가 간행되었다.

2) 호소미 가즈유키, 오찬욱 옮김, 「세계문학의 가능성 - 첼란, 金時鐘, 이사하라 요시로의 언어체험」, <실천문학> 1998년 가을호, 실천문학사, 1998.

3) 위의 책, 302쪽.

4) 마츠바라 신이치, 「김시중론」, 『재일 한국인문학』(흥기삼 편), 솔, 2001.

5) 위의 책, 305~306쪽.

6) 호소미 가즈유키, 앞의 책, 303쪽.

에 선 채, ‘제일 조선인’으로서 자신을 응시하는 그의 시세계는 한국 문학계에서도 문제적이다.

비평문이 아닌 그의 시가 번역 소개된 것은 2002년이었다. 호소미 가즈유키의 글을 실었던 <실천문학>에서 ‘제일동포 작품선 - 김시중 편’을 기획해 실은 것이다. 여기에는 「자서(自序)」, 「정책발표회」, 「보이지 않는 동네」, 「스리지는 시간 속에서」, 「화신(化身)」, 「화석(化石)의 이름」, 「똑같다면」 이섯 편의 시가 실렸다.⁷⁾ 6편의 시를 통해 김시중의 시세계의 한 부분을 감득할 수 있었다. 그 중 눈길을 끈 시는 「보이지 않는 동네」와 「스리지는 시간 속에서」였다. 오사카의 아카이노라는 공간을 특수성과 제일 조선인의 현재 상황을 겹치낸 「보이지 않는 동네」는 한편의 시가 어떻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적절한 예였다. 그리고 「스리지는 시간 속에서」에서 나오는 “광주는 진달래 타오르는 피의 외침이다”라는 구절이 1980년대 한국사회의 아픈 상처를 찔렀다. 「스리지는 시간 속에서」가 수록된 시집인 「광주시편」이 1983년에 간행되었으니, 한국사회에서 ‘80년 광주’에 대한 언급 자체가 금기이던 시기에 일본에서 김시중은 ‘광주 문제’를 정면으로 형상화한 셈이다. 그런데도 그의 존재는 아직까지 한국문학계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상태다.

2. 김시중 시세계를 둘러싼 ‘곤란들’

남북을 아우르면서 ‘제일(在日)’의 정체성을 고민하는 김시중의 시세계는 탐구의 대상이다. এমন한 감각으로 ‘문단문제’와 ‘80년 광주’를 아파할 수 있던 시인인 김시중이 한국 문학계에 알려지지 않은 원인은 무엇일까? 한국사회의 어떤 지형이 김시중을 둘러싸고 있기에, 경제인으로서의 그의 시가 갖는 특징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하는 것일까? 이런 궁금증에 대한 해명 없이는 김시중의 시세계에 유박해 들어갈 수 없었다. 그래서 김시중의 시세계를 둘러싼 맥락들을 검토한 필요성을 느꼈다. 김시중의 시세계를 둘러싼 ‘곤란들’은 다음 몇가지 중첩된 요인을 통해 해명이 가능하다.

우선, 한국 문학계에서 김시중의 시세계가 논의되지 않는 근본 원인은 ‘언어’ 때문이다. 한국사회에서는 일본에 거주하는 제일조선인을 제일동포, 제일동포, 제일조선인, 제일한국인, 제일한국·조선인 등으로 여러 용어가 동시에 사용되고 있다. 이는 민족적 특성을 강조하는가, 남과 북의 정치적 입장을 강조하는가, 혹은 중립적 개념을 채택되는가에 따라 구분된다. 문학의 영역에서는 이와 더불어 어떤 언어로 창작하는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제일조선인이면서 시인이자 동경 조선대학교수인 김학렬은 “제일조선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는 난호하게 “그것은 제일조선 작가에 의한 모국어문학을 가리킨다”라고 말했다.⁸⁾ 이것은 한국문학계에서도 영향을 미치 “제일동포 한국어 시문학”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 일본어와 같은 현지 언어로 창작된 작품은 “한계를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⁹⁾ 이러한 일반적인 상황 때문에 ‘일본어로 창작한 제일조선인 문학’은 논의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다음으로 번역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일본어로 쓴 제일 조선인 문학은 ‘약소자(minority)의 감성’을 간무리하고 있다. 제일 조선인의 언어적 이질성에 대해 이소가이 지로는 “일본어 문학에 대한 한 마리 늑대의 행패”¹⁰⁾라고 칭한 바 있다. 심지어 평론가 가와무라 미나토는 제주도방언과 오사카 방언이 섞인 ‘이카이노어’라는 명칭을 만들어 호명하기도 했다.¹¹⁾ 이러한 특징을 김시중의 시

7) 김시중, 「「자서(自序)」와 6편」, <실천문학> 2002년 겨울호, 실천문학사, 2002.

8) 김학렬, 「제일조선시문학의 근황」, 『제일동포 한국어문학의 전개양상과 특징연구』, 국학자료원, 2007, 14쪽.

9) 이경수, 「제일동포 한국어 시문학의 전개과정」, 위의 책, 101쪽.

10) 이소가이 지로, 「식민 제국과 제일 조선인 문학의 조망」, 『제일 디아스포라 문학』, 새미, 2007, 114쪽.

에서 강하게 발현되어 있다. 한국에 번역된 김시중 시선집 『경계의 시』 번역자인 유숙자는 “진들이지기를 거부하는 이 낯선 어휘와 표현들”¹²⁾ 이라는 표현을 통해 번역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일본어의 한국적 변형이라 할 수 있는 독특한 언어로 창작된 시를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실제로 번역 시선집 『경계의 시』도 단지 번역의 문제로만 볼 수 없는 제일의 백락을 내포하는 표현들이 등장한다. 예를 들면, “집이 팔려/모모다니(桃谷)/머느리틀 맞아/나카가와(中川).”(‘보이지 않는 동네’)나 “칸코쿠 칸코쿠/못 세개.”(‘노래 또 하나’), 그리고 “맨다리 드리넨 채/배낭”(‘그림자에 그늘지다’) 같은 표현은 한국어로는 의미가 쉽게 전달되지 않는다. 이는 제일 조선인의 언어적 백락에서는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단지 일본어와 한국어의 차이로만 규정할 수 없는 표현의 백락적 차이가 번역을 까다롭게 한다.¹³⁾ 이러한 이유로 한국문학의 입장에서 김시중이 시세계는 ‘까다로운 디아스포라 문학’으로 명명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북 분단이라는 정치적 상황을 간과할 수 없다. 제주 4·3항쟁으로 도일(渡日)을 감행한 김시중은 1955년 ‘조총련’이 결성되기 전까지는 제일조선인연맹(조련)과 제일조선통일민주전선(민전)에서 활동했다. 그러다, ‘민전’이 제일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로 방향전환을 하면서 조직문제로 조총련과 갈등하기 시작했다. 김시중은 조총련 조직이 관료화되는 것을 비판했고, 이를 문학적으로 표현해 자신이 주재하던 잡지 『진달래』에 ‘조선총련 (1956)과 장남과 백의 발싸움’ (1957)을 발표했다. 이로 인해 그는 ‘분과활동’을 선포한 사람으로 간주되었고, 그가 주재하던 『진달래』가 긴급회수 당하는 변화사건을 겪었다.¹⁴⁾ 또한 그는 남과도 정치적으로 갈등관계에 있었는데, 1983년에 발표한 『광주시편』을 통해서도 선두화 군부독제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남과 북을 동시에 비판할 수 있는 그의 문학적 태도로 인해 그는 남과 북 모두에서 한동안 문학적으로 지위지는 위치에 놓이 있었다.

최근에는 한국에서 김시중의 시세계에 대한 논의가 조금씩 활발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김시중 시의 번역자인 유숙자가 제일의 문제와 김시중의 시세계를 다룬 논문¹⁵⁾을 발표했고, 하상일은 김시중의 시세계에 자체 주목했을 뿐만 아니라¹⁶⁾, 제일한인 잡지와 김시중의 관계를 다루기도 했다.¹⁷⁾ 김응교는 허남기·강순·김시중의 시세계를 비교하며 논의를 전개한 바 있다.¹⁸⁾ 고명철도 식민의 내적 논리와 고투하는 ‘제일의 시쓰기’라는 테마로 김시중의 시세계를 집중 조명했다.¹⁹⁾ 디아스포라적 정체성 연구가 다양한 각도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국문학연구의 동향으로 볼 때, 앞으로 김시중의 시세계에 대한 논의는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11) 김응교, 「재일 디아스포라 시인 계보, 1945~1979 - 허남기, 강순, 김시중 시인」, <인문연구> 55호,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8, 350쪽에서 재인용.

12) 김시중, 유숙자 옮김, 『경계의 시』, 소하, 2008, 188쪽.

13) 김시중도 번역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애당초 나의 일본어는 일본 사소설에 흔히 볼 수 있는 섬세하고 유려한 문장이 아니다. 시작부터 독자를 버겁게 만드는 꺼끌꺼끌한 일본어이다. 이 이단의 일본어를 나긋나긋한 모국어 어조로 바꿔 옮기는 것이니, 그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이다.”(김시중, 『지은이 서문』, 위의 책, 8쪽.)

14) 이한창, 「재일 동포조직이 동포문학에 끼친 영향 - 좌익 동포조직과 동포작가와의 갈등을 중심으로」, 일본어문학> 제8집, 한국일본어문학회, 2000, 112~113쪽.

15) 유숙자, 「민족, 在日 그리고 문학 - 在日 시인 김시중의 시세계」, <한림일본학연구> 제7집,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02.

16) 하상일, 「재일 디아스포라 시인 김시중 연구」, <한국언어문학> 제71집, 한국언어문학회, 2009.

17) 하상일, 「재일한인 잡지 소재 시문학과 비평문학의 현황과 의미 - 『조선문예』, 『한양』, 『삼천리』, 『청구』를 중심으로」, 『한국문학과 역사의 그늘』, 소명출판, 2008.

18) 김응교, 위의 논문.

19) 고명철, 「식민의 내적 논리를 내파하는 경계의 언어 - 재일 시인 김시중의 시선집 『경계의 시』를 읽으며」, 『지독한 사랑』, 보고사, 2010.

3. 제국의 언어, 해방되고자 하는 시인 관동하는 정체성

1929년생인 김시중은 식민지 경험과 일본어의 관계를 아프게 성찰한다. 시인에게 ‘언어’는 ‘생의 당국적 세계’를 탐구하는 근본적 수단이다. 그 언어에 ‘제국과 식민’의 관계가 교착되어 있었음을 깨달았을 때, 더구나 자신의 유년기 언어가 ‘제국의 언어’였음을 나중에야 깨달았을 때, 그 괴로움은 ‘분열되는 자아의 발견’과 같은 것이었다. 이에 대해 김시중은 한 산문에서 다음과 같이 토로했다.

내 소년기는 괴로운 역사성으로 채색되었습니다. 그 나름대로 좋은 소년기였습니다. 그것을 불러일으키는 모두가 일본어로 만들어진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유소년기의 지금도 바래지 않은 풍토 덕분에 언제나 조선으로부터 멀었습니다. 조선에서 태어나 조선에서 공부해 여기에 왔습니다만, 내 안의 소년은 일본어의 소년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전쟁에 지고 식민지통치 조선땅에서 사라지자 나의 과거는 그에 따라 사라져버린 환상의 과거입니다. 그 없어진 과거가 내 안의 소년으로서 아프기 때문에 나는 뭇뭇하지 못한 구석이 있고, 나의 과거는 표현할 길 없이 어두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일본어로 시를 쓰고 생각을 정착시키려고 발버둥 쳐 노력하면서 일본에서 40년 남짓을 지내왔습니다. 바로 그 익숙해진 일본어야말로 나의 문제입니다. 잡다한 속성의 한 가운데에서 먼지투성이가 되어 더러워지지 않는 서정을 어떻게 해서든 일본어로 발로할 책무가 내게는 있습니다. 나를 속박하는 일본어로부터의 나 자신의 해방을 위해서요.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이 나는 일찌기 일본에서 50년도 전에 해방되었습니다. 해방되었다고 한다면보다는 이것이 너의 나라라고 하는 “조선”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자신의 나라가 갑자기 8월 15일 오후,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덕분에 나는 당연히 반동이라고 할까. 날이 거듭할수록 글쓰기를 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철들 때 몸에 붙인 언어가 나의 의식의 질서인 것입니다. 일찍이 식민지통치하의 나로부터 행방되기 위해서는 그 소년을 만들어낸 일본어로부터 나를 잘라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²⁰⁾

김시중은 열여섯살에 해방을 맞았다. 그는 일본어로 학교 교육을 받아서 한문을 알고 있었지만, 한글은 가나다라의 ‘가’ 한글자로 쓸 줄 모르는 상태였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다. 빼앗긴 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되찾았다면서 떠안게 된 것이다. 갑작스럽게 도래한 ‘해방’은 다른 삶을 요구했고, 민감한 청소년에게 ‘새로운 나라 만들기’에 뛰어들도록 채찍질 했다. 그래서 김시중은 자신의 뭇뭇하지 못한 과거에 대한 근원을 알 수 없는 죄의식 속에서 한글을 공부해야 했다. 그는 그 때의 심정은 필사적이었으며, “책을 굶는 듯한 심정으로 자기 나라의 글자와 읽기 쓰기를 2개월 정도 공부해서 우선 습득”해야 했다.²¹⁾ 어떤 의미에서 김시중의 유년과 청년기는 ‘제국과 식민’, ‘분단과 이태올로기’ 투쟁하고, 상저업고, 도피해야 했던 수난의 역사였다. 그가 제주도에서 4·3항쟁에 깊이 개입하고, 생존을 위해 일본으로의 탈출을 꾀한 것에도 ‘일본어/한국어’라는 이중의 언어감각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본에서 그가 마지한 세계는 남과 북의 대립 속에서 북한의 전쟁을 경험하고 있는 ‘한반도의 분단 현실’이었다. 그는 도일 후 일본 공산당에서 활동했고, 공산주의 계열의 제일 조선인 운동에도 깊이 개입했다. 문제는 그가 ‘이념적 인간형’이 아니라 ‘시인의 감성 속에서 이념적 행위를 했다’는데 있었다. 그의 문학활동의 핵심에는 <진달래>가 자리하고 있었다. <진달래>는 1953년 2월 16일 창간호가 발행되었고, 편집 김 발생인이 김시중이었다.²²⁾ 그가 진달래를 통해 주장한

20) 金時鐘, 『わが生と詩』, 岩波書店, 2004, p.28

21) 김시중·김석범, 이경원·오정은 옮김, 『왜 계속 써 왔는가 왜 침묵해 왔는가』,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7, 19쪽.

22) <진달래>의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진달래> 第1号, 一九五三年 二月 一日 印刷, 一九五三年 二月 十

것은 ‘제일(在日)’이라는 존재조건 속에서 문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제2세 문학’이며 ‘일본어’로도 문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조총련과 갈등할 수밖에 없었고, 남기야 1957년 <진달래> 18호에 「大阪總連」을 발표하면서 파국을 맞이하게 되었다. 일종의 풍자시인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급한 일이 있으면
뛰어가 주십시오
소련에는
전화가 없습니다.

바쁘시다면
소리쳐 주십시오
소련에는
접수가 없습니다.

싸고 싶으시다면
다른 곳에 가주십시오
소련에는
변소가 없습니다.

소련은
여러분의 단체입니다.
거신 전화료가
정지될 정도로 쌓였습니다.

- 金時鐘, 「大阪總連」부분.²³⁾

1950년대 북한은 소련 공산당의 직접적인 후원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정치적 판단은 소련의 정책에 의해 조정을 받아야 했다. 개인의 행위가 ‘소련’에 의해 규정되는 상황에 대해 신랄한 풍자를 가한 시가 「大阪總連」이다. 김시종은 이 시에서 소련이라는 거대한 추상을 구체적 상황에 비취 비판했다. ‘뛰는 행위’와 ‘전화 없는 상황’, ‘소리치는 행위’와 ‘접수 없는 상황’, ‘싸고 싶은 욕망’과 ‘변소 없는 상황’, ‘귀속감’과 ‘지원없는 요구’ 같은 대비는 이항대립적이다. 이 시의 이러한 대립 구도는 명료한 이분법을 취하고 있어 단순하다. 풍자의 효과를 이러한 단순한 대립 속에서 극대화된다. 이 정도의 강렬한 비판이라면, 화해의 이치를 남기지 않는 분노를 담고 있다. 그래서 김시종은 조총련과 극한 대립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념이 아닌 문학운동의 길로 접어들게 된다. 조총련 조직은 <진달래>를 비판했고, 결국 1959년에 잡지 폐간을 명령했다. 하야시 고지에 따르면 <진달래> 폐간 이후 김시종은 조직을 이탈해 죽음의 나날을 보냈다고 한다. 이 즈음부터 김시종은 조직의 권리에서 벗어나 문학하는 개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구성해 나갔다고 할 수 있다.²⁴⁾

바로 1958년 즈음에 일본에서 일망했던, 그의 정체성의 한 부분이 극심한 균열을 보인 것이라

六日 發行, 頒価二〇円, 編集兼發行人 金時鐘, 發行所 大阪府 中河内郡巽町矢柄六, 朝鮮詩人集團 진달래 編集所.

23) 金時鐘, 「大阪總連」, <ヂンダレ> 十八号, 大阪朝鮮詩人集團, 1957, p.26.(번역 : 김응교)

24) 하야시 고지, 「해방 이후 재일 조선인 문학과 민족분단 비극의 인식」,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 앞의 책, 161쪽.

고 할 수 있다. 그는 두번째 시집 『일본풍토기』를 1957년에 간행하면서 후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나는 나의 현대시 운동과 일본의 현대시 운동의 접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모두毛頭 ‘조선인’이라는 특수성을 내세우려는 마음은 조금도 없는 만큼, 바랄 것이 있다면 이 시집도 일본의 현대시 운동의 선상에서 읽어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가차없는 비판을 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더욱 다행이고. 내가 조국 조선에 돌아가는 날, 나는 그 비판을 내 성과로서 가지고 돌아가고 싶다.²⁵⁾

김시중의 이 발언은 일본 시난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려는 일망의 표현이기 보다는, 일종의 내결 의식에 가깝다. 일본에 있는 이방인으로서 자신을 규정하며, 일본을 낯설게 바라보려는 의지가 이 언술에 자리하고 있다. 그리면서도 조선적 특수성 속에서 규정되는 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문학 자체, 그러니까 ‘현대시 운동의 선상’에서 자신의 작품이 읽히기를 일망했다. 그것은 돌아갈 곳이 있는 자의 당당한이었다. 그는 “내가 조국 조선에 돌아가는 날”이라는 희망의 언어를 무기했다. 일본 시난의 낯선 비판도 결국은 ‘조국에서의 영광’이 될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1958년 <진달래> 20호 발간을 마지막으로 그의 희망은 지향점을 잃고 방황하게 되었다. 이렇게 김시중이라는 제인 조선인 시인의 독특한 정체성을 구성된 것이다. 남을 버리고 일본으로 갔으나, 북으로부터도 버림을 받고, 스스로 ‘제일’의 정체성을 구성해야 했던 것이다. 하지만, 제국 일본은 결코 동화할 수 없는 ‘이방’이며, 제국의 언어는 그의 근본적 도구로서 비판의 칼날이었다. 그가 문학과 서정이라는 세계에 가대면서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음’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불행이자 행운이다. 김시중이라는 개인에게는 ‘희망없이 전지는 고독한 삶’이었겠지만, 시인 김시중으로서는 문학 속의 자유로 자신을 내던짐으로써 ‘경계인으로서의 서정’을 구현해 낼 수 있었다.

4. 바람을 보듬은 야인의 언어 김시중 시세계의 특징

그렇다면, 김시중의 시세계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김시중은 바람의 시인이다. 그는 바람 속에서 언어의 씨앗을 발굴하고, 바람을 보듬어 기억의 거자씨를 싹틔운다. 바람이 싹틔운 거자씨는 기억의 숲을 이뤄 그의 시를 지배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가 그리고 있는 바람은 ‘역사’이고, ‘운명’이다. 그는 제주 4·3항쟁에서 국가폭력·정치폭력의 무자비함을 ‘땀알’로 대면하며 무수한 죽음을 목격했다. 이러한 생의 체험이 그의 시에서 바람의 언어로 부활하고 있다. 그렇기에, 그가 응시하는 현실은 “갯바람 속을/흔들려/피지머”(『니가타(新潟)』) 가슴에 새겨진 것이고, “산다는 것조차/바람에 쓸리는 거지”(『때』)라고 토로하는 것이다. 『지평선』(1955)와 『일본풍토기』(1957)에는 스스로를 미물로 인식하는 시편들이 자주 등장한다. 이러한 자괴적 인식은 ‘순간과 장구한 시간’의 대비를 통해 미약적 인식으로 연결된다. 그 미약을 매우는 인식론적 시어가 바로 ‘바람’이다.

김시중은 『광주시편』(1983)에 수록된 「바람」이라는 시에서 다음과 같이 읊었다.

갯 짙은 쑥 내음
밥상 위에 번질 때
숨 막히는 아지랑이는 강변을 이글거리고
향내 나는 연기로 피어올라 평야를 흐르리.

25) 김시중, 「後記」, 『日本風土記』, 國文社, 1957. ; 마츠바라 신이치, 앞의 책, 284쪽 재인용.

바람은, 끝없는 상(喪)의 제례.
계절을 불러일으키는 바람이 바람 속을 휘감기에
바람에 날리는 것이 어느 계절인지 아무도 모른다.
그저 지나가는 바람의
텅 빈 틈을 느낄 뿐.
아가미 흔들린다.
쥐가 내달린다.
다투는 계절에도
바람은
바람의 틈새에서 소리를 지른다.

- 「바람」 부분²⁶⁾

이 시는 정형성과 무정형성의 대비를 통해 ‘바람’을 이미지화한다. 바람은 견고한 것들 위를 흐르는 유동적이고 무정형적인 것이다. 그러나 바람은 스스로 실체가 되어 사건을 증언하면서, 사건의 흔적들을 위로한다. 이 시에서 바람의 이미지는 마치 변화무쌍하다. 처음에는 순례자처럼 영산강의 건너오고, 주검의 분노를 내뿜하고, 조문하는 이들과 함께 오열한다. 바람은 시인의 서정이 이입된 것이고, 수 많은 죽음에 대한 제의(祭儀)이며, 시인의 빈 틈을 스치는 윤림이기도 하다. 이 시는 ‘광주의 희생자’를 위무하는 손길을 바람에 비유해 표현한 것으로 읽어도 좋을 것이다. 또한, ‘제주도 43의 희생자’를 ‘광주의 희생자’와 겹쳐 미국의 민중사를 증언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좋다. 그렇기에 바람의 이미지는 운명과 기억이 머무러진 혼종성을 띠며, 시인의 삶에 역동성을 부여하는 에너지로 작용한다.

김시종은 자신의 몸에 각인된 ‘죽음을 환기하는 상처’를 망각하러 할 때마다 바람을 호명한다. 그 바람으로 인해 그는 “바람은/바람의 틈새에서 소리를 지른다.”(「바람」)라고 읊조린다. 그 질주를 통해 스스로 ‘제일(在11)’의 정체성을 환기할 수 있게 되었고, “기억의 떠남”(「뒤엎김」)을 현재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기억의 근원적 상처는 어디에 닿아 있을까?

김시종은 좀처럼 자신의 상처를 직설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산문과 대담에서는 비교적 소상히 사건을 이야기하지만²⁷⁾, 문학의 언어에 장에서는 그것은 은유화되고 ‘보호한 보편성’으로 은폐된다. 그마만큼 그가 경험한 정신적 상처가 깊었기 때문이라. 떠난 세대에서 그는 죽음의 공포를 경험했고, 폭력에 대해 분노하면서도 대항할 수 없어 절망했고, 역사에 의해 파괴된 개인에 대한 절실한 연민을 체득했다. 그 경험의 일면은 그의 장시 『니가타(新潟)』(1970)에서 부분적으로 드러난다. ‘소년’을 내세워 김시종 자신의 과거를 투영한 이 장편서사시는 김시종 문학에서 문체적인 지점을 드러낸다. 이 시에서 김시종의 트라우마(truma)를 감지해 낼 수 있다.

소년에게
감회는
없고
있는 건
기억뿐이다.
느르스름한
망막에

26) 김시종, 『경계의 시』, 소하, 2008, 122~123쪽.

27) 김시종, 김석범, 이경원, 오정은 옮김, 『왜 계속 써 왔는가 왜 침묵해 왔는가』, 제주대학교 출판부, 2007.

남은
 음화(陰畵)로
 살아 있는
 아비.
 염주 엮이듯
 줄줄이 묶인
 흰옷 무리가
 아가미를 째 벌린
 상륙용 함정으로
 끊임없이
 삼켜져 간다.
 띠 없는
 바지를
 두손으로 움켜잡고
 움직이는 컨베이어를
 타기라도 한 듯
 아비가
 발돋움으로
 뒤돌아보다
 연거푸
 고꾸라지며
 함정(舟艇)으로
 사라진다.
 - 『니가타(新潟)』 부분²⁸⁾

감정이 마보되어 기억만을 환기하는 소년의 내면은 얼마나 황량한가. 그 황량한 기억의 지평에는 ‘줄줄이 묶어 죽음 구렁텅이로 향해 가는 흰옷의 무리’가 있고, 그 무리 속에는 ‘소년의 아비’가 있다. 그리고 소년은 살아남아 ‘감회 없는 기억’에 절망한다. 남과 북에 환멸을 느낀 인간이 다시 따뜻한 시선으로 남과 북을 응시할 수 있을까? 죽음을 기억하는 자가, 살인자에게 관대해 질 수 있을까? 김시종이 『니가타(新潟)』에서 그려낸 세계는 잔인한 자기 응시이다. ‘살아남은 자의 슬픈 시선’이 투영된 인고의 과정을 겪은 이후에야 드디어 시인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것은 역사가 반는 상처에 대한 자기인식을 향한 도정이며, 자신이 누구인가에 관해 끊임없이 질문하는 고통스러운 환기이다.

그는 이러한 경험을 한반도 최남단 제주도에서 ‘생의 체험’을 절실히 감지해냈으며, 살아 있음을 증명하기 제일 조선인으로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구성해냈다. 그가 구성해낸 정체성은 ‘칠지한 경계인’으로 스스로를 다잡는 것이다. 그에게는 선택할 국가가 없기에 남으로도 북으로도 갈 수 없고, 일본에 있으면서도 완전한 일본인일 수도 없다. 아마도 그의 정신세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시가 『이카이노시집』(1978)에 실린 ‘그림자에 그늘지다’ 일 것이다.

그림자가 떨어진다.
 깊디깊은 여름을 돋우어
 그늘지는 여름을 반짝거리며 떨어진다.

28) 김시종, 『경계의 시』, 앞의 책, 55~57쪽.

위도(緯度)를 찢은 흙먼지가
 머리카락에 엉겨 붙은
 풀잎이
 운모도 찬란히
 공중에서 떨어진다.
 그림자까지 불태운
 섬광이 속임수다.
 피해자뿐인 순난(殉難)이 있고
 나를 눈멀게 한
 나라는 없다.
 있는 건 그림자 속
 나의 그늘이다.
 - 「그림자에 그늘지다」 부분²⁹⁾

그림자 속 그늘은 실제하지만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실제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시인은 분명한 목소리로 “있는 건 그림자 속 나의 그늘이다”라고 선언한다. 그것은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겠다는 선언이다. 운명처럼 떨어진 그림자를 ‘심광에 현혹되지 않고’ 인식함으로써, ‘피해자’의 정체성을 분명히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단초를 ‘나를 눈멀게 한 나라는 없다’에서 찾을 수는 없을까? 현혹되지 않은 자는 정치체제로서 국가를 믿을 수 없다. 특히, 그 정치체제가 수많은 피해자를 만들어낸 폭력의 역사를 감무리하고 있다면, 국적 선택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다.

여기서 김시종 시인은 ‘경제인의 정체성’을 안고, “건물어지지 않는 야인(野人)”(「보이지 않는 동네」)의 길을 간다. 그 상징적 선택을 “있는 건 그림자 속 나의 그늘이다”라는 표현에 응축해 놓은 것이다. 그는 ‘그늘’ 속에서 ‘제일(在日)’의 정체성을 발견한 것이다. 남도, 북도 시인을 현혹시킬 수 없기에, 그 한말이 오히려 스스로를 ‘그림자 속 그늘’로 구성하게 한 것이다.

5. 나향을 자기 세계로 감싼 시인

김시종의 시는 제국의 언어를 건디며 식민성을 인식하고, 남과 북의 이념적 대립 속에서 ‘자유롭고자’ 몸부림쳤으며, 경제인의 정체성으로 문학적 서정을 향한 언어를 구축하려 했다. 그 경제인의 정체성은 초기시에서도 간헐적으로 드러난다. 그는 첫시집 「지평선」에 실린 「자서」에서 “다다를 수 없는 곳에 지평이 있는 게 아니다./내가 서 있는 그 지점이 지평이다.”³⁰⁾라고 노래한 바 있다. 지평을 ‘선망이 가능한 지점’을 지칭한다고 했을 때, 김시종은 바로 자신이 서 있는 지점에서 세계를 바라보라고 권유했다. 이 포호하는 듯한 강렬한 주체성은 그의 시 전반을 관류한다. 마랍처럼 이동하면서도 자신이 서 있는 지점을 바로 지평으로 삼는 태도야말로 시종일관하는 ‘경제에 선 시인의 정체성’이었다.

그는 남과 북, 일본이라는 국가의 경계에 서서 국가가 포박하는 국민이라는 명에를 응시했다. 국가는 시인을 가둘 수 없다. 시인은 국경을 밟고 설 수 있는 정신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는 쓸음이 감지한 생의 바닥에 전율하다, 공산주의자들의 관료화에 한말을 느꼈고, 제일 조선인으로서 이카이노라는 공간을 감각해나가면서, 남과 북을 아울러 비판할 수 있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나갔다. 그의 시는 어떤 의미에서 ‘제일 조선인을 역사를 아로새긴 문제적 텍스트’이기도 하다. 제

29) 위의 책, 116~117쪽.

30) 위의 책, 13쪽.

일 조선인의 한 상징적 표식이 김시종의 시세계에 기입되어 있는 것이다. 비록 역사적 상황 때문 일 지라도, 국민국가를 초월하여 '재일'이라는 삶의 구체성 속에서 민중의 존재 방식을 김시종의 문학세계는 증명한다. 그는 결코 남과 북의 국민국가로 귀환하지 않는, 국민국가를 초월한 새로운 정체성을 문학속에서 구현해냈다. 너무 깊이 절망했던 김시종이었기에 '국민국가에 대한 초월적 상상력'의 한 단초가 그의 시에 내재해 있는 것이다.³¹⁾ 그것이 바로 '재일'의 한 특징이며, 새롭게 존재하게 된 '정체성'의 가능태일 것이다.

모든 사람은 경계 위에 서 있고, 지평을 밟고 있다. 그런데도 자신이 경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중심에 서 있다고 상상한다. 그러한 허구적 상상이 타자에 대한 폭력을 일상화하게 한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를 깨뜨릴 수 있을 때야만, “타향에도 뿌리내린 고향이 있었노라”³²⁾(「똑같다면」)라고 진심으로 느낄 수 있다.

중세 유럽의 사상가 성 빅터 휴고는 “자신의 고향이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사람은 아직 미숙한 어린이와도 같다. 타향이 모두 자기 고향처럼 느껴지는 사람은 이미 성숙한 어른과도 같다. 그러나 세계가 다 타향처럼 느껴지는 사람이야말로 완성된 사람이다”라고 했다. 이 어구에 미취할 때, 김시종은 남과 북, 그리고 일본을 타향처럼 낯설게 본 '귀하고도 강한 시인'이다.

31) 우에노 치즈코는 이와 관련해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재일 한국인의 내셔널리즘에도 국민국가를 초월하는 성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일 동포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내셔널리즘의 도달점은 결코 북한이나 남한의 국민국가로 동일화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조국에 가면 '반(伴) 쪽바리'라고 불러 '2급 국민' 취급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내셔널리즘'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 속에는, 아직 모습을 보이지 않고 형태를 드러내지 않은 국민국가를 초월한 사상이 탄생하고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국주의 국가의 내셔널리즘은 악이지만 민족해방 투쟁의 내셔널리즘은 선이라는 거친 논의가 아닙니다. 내셔널리즘이라고 불리는 운동 속에는 '내이션'으로의 동일화를 초우려한 희구(希求)가 포함되어 있으며, 우리는 그것에 대한 언어를 아직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못 본 그러한 사상의 탄생에 입회하고자 원하는 사람들을 저는 동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우에노 치즈코, 이선이 옮김, 『내셔널리즘과 젠더』, 박종철 출판사, 1999, 12~13쪽.)

32) 김시종, 『경계의 시』, 앞의 책, 155쪽.

이름 없는 자들이 벗어낸 삶의 모습, 다시 쓰기

-구효서, 『랩소디 인 베를린』을 중심으로

진실아(중앙대학교)

1. 디아스포라를 바라보는 시선들

우리나라에서 ‘디아스포라(diaspora)’¹⁾에 관련된 논의는 주로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등장하고 있다. 하나는 그 앞에 특정 민족, 지역, 국가, 역사적 시기를 달고 등장하는 형태이고, 다른 하나는 말 그대로 보통명사로서 초국가주의, 다문화주의, 혼종의 개념을 바탕으로 등장하는 형태이다. 물론 이 두 경로는 모두 ‘디아스포라의 시선으로 ‘근대’를 다시 보는 것, 그리고 ‘근대 이후’ 인간의 가능성을 탐구하’려는²⁾ 시도 아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엄밀히 말해 같은 뿌리를 갖고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두 경로가 같은 뿌리에서 시작해 서로 다른 내상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또한 다른 결과를 빚어내고 있다는 점이다.

2000년대 이후 식민지배를 경험한 국가들은 탈식민주의의 시선으로 자신들의 현실을 다시 진단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고 그러한 과정에서 미코소 디아스포라를 발견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주 한인들의 생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미코소 그들의 삶 전체를 아우르는 “코리안 디아스포라”³⁾라는 용어를 정립하기에 이른다. 이 ‘코리안 디아스포라’에 대한 연구는 주로 중국, 만주, 중앙아시아(코리안), 제일조선인을 중심으로 시도되었다.⁴⁾ 이는 제국주의 시기-20세기 초반에 주로 폭력적인 방식으로 발생한 우리 민족의 이주역사를 볼 때에 매우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연구들의 목적은 식민지 경험으로 인해 잃어버린 동포들의 삶을 재구성하고 ‘코리안’으로서 그들을 되찾고자 함일 것이다.

반면 두 번째 경로로서의 디아스포라 연구는 단순히 대한민국-코리안의 영토에 머무르지 않고 보다 보편적인 의미망을 가질 것을 요구한다. 이는 주로 이성 학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문제로 레이 초우, 가야트리 스피박, 태혜숙 등의 이성 학자들은 남성 학자들의 시선으로 바라본 디아스포라에서 다시 여성과 소수자의 존재가 또 다시 ‘이산(離散)’되고 있음에 주목한다.⁵⁾ 이들은 디아스포라를 바라보는 이들의 시선을 통해 ‘제일’, ‘코리안’, ‘조선족’ 등의 이름 아래 결집하는 일이 그들에게, 혹은 그 외의 소수자들을 다시 ‘타자화’하는 또 다른 폭력이 될 위험에 대해 경고한다.

1) 물론 이 때의 디아스포라는 소문자의 diaspora-보통명사를 의미한다. 대문자 Diaspora-‘이산 유대인’이라는 특수한 사건을 지칭하는 고유명사와의 혼동은 이제 거의 사라진 것으로 판단하여, 이 논문에서 굳이 다루지는 않기로 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보통명사로서의 디아스포라가 현재 우리 문화-문학계에서 사용되는 방식을 고민하는 일일 것이다.

2) 서경식(2006), 『디아스포라 기행-추방당한 자의 시선』, 돌베개, p.15.

3) 윤인진(2003), 「코리안 디아스포라: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한국사회학』 제 37집 제4호, pp.124-150.

4) 위의 윤인진의 논문과 저작(2004), 『코리안 디아스포라: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고려대학교 출판부; 이명재 외(2004), 『역압과 망각, 그리고 디아스포라』, 한국문화사; 김환기(2006), 『재일 디아스포라 문학』, 새미; 강진구(2007), 『한국문학의 쟁점들-탈식민·역사·디아스포라』, 제이앤씨; 전북대학교(2008), 『재일 동포문학의 디아스포라』, 제이앤씨 등이 있다.

5) 레이 초우, 장수현 외 역(2005), 『디아스포라의 지식인-현대 문화연구에 있어서 개입의 기술』, 이산; 가야트리 스피박, 태혜숙 역(2003), 『다른 세상에서』, 여이연; 태혜숙(2004), 『한국의 식민지 근대와 여성공간』, 여이연 등을 통해 이들은 제1세계와 싸우는 과정에서 그들의 제국주의적 시선을 그대로 답습한 제3세계 엘리트들이 가진 폭력성과 문제점에 관해 논의한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은 현재 우리나라 내에 이주해 있는 외국인들을 포함한 디아스포라 보편에 대한 논의와 다문화주의에 대한 연구로 번지고 있다.

디아스포라를 바라보는 이 두 시선은, 어느 것 하나가 옳다고 말할 수 없는 지점에 있다. 우리에게 외부의 폭력으로 인해 잃어버린 동포들의 문화를 통해서나마 그 안에 있는 조국에 대한 ‘디아스포라적 욕망’⁶⁾을 파악하고, ‘자신들이 누구이며, 어디서 무엇을 했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서투르지만 고통스럽게 이야기하는 자기 고백⁷⁾에 귀를 기울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반대의 입장에서, ‘타자’의 입장에서 ‘죄의식을 환기시키고 결국에는 현실을 은폐하는 데 이용되는 억압과 회생에 대한 무차별적인 주장, 성과 인종의 다양성이 임정상의 이름 아래 성직·인종적 차별에 이용되는 상황’⁸⁾에 대한 경고에도 역시 주의를 기울어야 할 것이다.

결국 이 두 경로는 모두 그동안 잊혀진 존재였던 디아스포라에게 이름을 되찾아주기 위한 시도이며, 그 ‘이름 주기’의 방법에 대한 고민과, 이름 ‘주기’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경고이다. 디아스포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멈춰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들은 인간 공동체이기에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모습을 달리 한다. 이는 디아스포라를 분석하는 경로가 위에서 말한 것처럼 변화한 모습을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다. 현재, 21세기 한국 사회에는 디아스포라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 글은 구효서의 『랩소디 인 베를린』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디아스포라의 모습과 이들을 바라보는 새로운 디아스포라의 시선을 찾아내고자 한다.

2. 18세기와 20세기, 반목의 디아스포라

구효서의 『랩소디 인 베를린』⁹⁾은 그 표지에 이미 “코리안 디아스포라 광시곡”이라는 이름을 달고 등장한다. 그 이름에 걸맞게 이 소설은 베를린을 무대로 일본인, 한국인, 독일인, 유대인 등 수많은 인종들의 만남을 보여준다. 일본인 하나코는 낯선 독일땅에 첫사랑이었던 겐타로 죽음의 이유를 찾기 위해 온다. 겐타로-김상호는 일본 땅에서 태어났으나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으며, 하나코를 만나 사랑했고, 말 못한 상처를 안고 독일로 유학을 오게 된다. 그리고 18세기 음악가인 요한 헌터마이어를 만나게 된다. 요한 헌터마이어의 음악을 쫓던 중 그는 헌터마이어의 후손을 찾기 위해 평양으로 향하고 그 경험은 그를 조국인 한국 땅에서 17년의 감옥살이에 이르게 한다. 17년의 청년기를 감옥에서 보낸 후 독일로 돌아온 김상호는, 그리고 나서도 한참이 지난 후 67세의 나이에 갑자기 자살한다. 다음의 문장을 하나코에게 남긴 채로.

‘아, 이것은 보질지 못한 것일까 보진 것일까. 내가 늘 찾던, 내가 평생 가닿고자 했던 곳이 하나코였다는 사실을 못내 고백하는 것.’

이제 하나코는 지 문장의 의미를 알아내고자 겐타로의 생전 행적을 재구성하기 시작한다. 그와 관련있는 인물들을 만나고 그가 짐작했던 헌터마이어의 이야기 <TOCCATA UND FUGA> 일명 TNF를 구하고 그것을 번역하고 자신의 이행을 도와준 번역이자 통역자로 이근호라는 인물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마치 추리소설이 전개되는 것처럼 김상호의 생전 행적에는 계속해서 반전에 가까운 사건들이 등장한다. 하나코가 밝혀내고, 이근호가 쓰고 있는 이 글 안에는 서로 다른 네 개

6) 최강민, 「고려인 디아스포라 문학과 민족정체성의 해체」, 이명재 외(2004), 앞의 책, p.86.

7) 강진구, 「제국을 향한 로열 마이너리티의 자기 고백」, 강진구(2007) 앞의 책, p.210.

8) 레이 초우(2005), 앞의 책, p.35.

9) 구효서(2010), 『랩소디 인 베를린』, 뿔.(이하 『랩소디』, 인용시에는 페이지만 표시)

의 이야기가 교차되어 있다. 우선 하나코가 제구성해 나가는 20세기 토마스 김의 이야기 그리고 그의 삶에 전환점이 된 18세기 요한 힌터마이어의 이야기인 <TNF>의 스토리,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를 쫓던 중 하나코가 밝혀내게 되는, 가장 짧은 단 모는 이야기를 풀어줄 일화의 역할을 하는 「랩소디 인 베를린」이라는 글. 끝으로 이 모는 이야기를 서술해나가는 현재의 하나코와 그의 통역 이근호의 이야기까지. 이 네 개의 이야기들은 매우 복잡하게 서로 얽혀 있다. 그 이전에는 누구도 이들의 삶이 얽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나, 이제 알고 난 후에는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결코 완성되지 못할 이야기들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 중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요한 힌터마이어와 김상호의 이야기이다. 18세기 바로크 시대의 음악가였던 힌터마이어와 20세기의 음악가인 김상호는 이 소설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디아스포라들이다. 우선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디아스포라적 특징들을 살펴보자. 놀랍게도 이들은 모두 조선인의 후예이다. 김상호는 힌터마이어의 음악을 연구하던 중, 인장에 새겨진 ‘鮮’이라는 글자와 TNF의 내용을 통해 그가 조선인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김상호 역시 마찬가지로, 결국 이들은 모두 조선인 디아스포라들이다.

“국식은 한국이지만, 토마스는 한국말 몰라요. 일본에서 살았고 독일에서 살았죠. 세상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살고 싶은 곳에서 살지 못하는 기조, 떠도는 것도 아니면서 떠돌지 않는 것도 아니죠. 영원히 그 먼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유물한 운명을 불치의 동충처럼 안고 사는 사람들. 물론 그들 잘못은 아니죠…….”(pp.206-207)

이 공통점은 김상호가 힌터마이어의 뒤를 쫓아 동독과 평양까지 가게 되는 원인을 제공한다. 말 그대로 제일 조선인 디아스포라였던 김상호에게 자신과 비슷한 음악색깔을 가진 중세의 음악가가 조선인의 후손이라는 사실은 그의 핏줄, 혹은 뿌리에 대한 욕망을 확인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했을 것이다. 결국 이 공통점은 이들이 말 그대로 디아스포라의 상황에 놓인, 동지였음을 보여준다. 김상호가 힌터마이어에게 걸린 것은, 무규칙을 향한 자유로운 음악이라는 것이었을까, 조선인의 후예라는 점이었을까. 사실 그보다 더욱 강하게 느껴지는 걸림은 아마도 그들이 살고 싶은 곳에서 살지 못하고, 떠도는 것도 아니면서 떠돌지 않는 것도 아닌, ‘그런 사람’이었다는 점일 것이다.

과거 하나코와 겐타로의 사이에서 겐타로는 ‘두부 사리 간 때 교복 입는’ ‘그런 애’였고, 하나코는 ‘금팔씨 팔아 오코노미야키 사 먹는’ ‘그런 애’였다. 이는 이 둘이 놓인 위치를 분명하게 보여주는데, 두부를 사리 간 때에도 손계의 증명을 잊지 않으려 하는 디아스포라인 겐타로와 조선 왕실의 유물임이 분명한 금팔씨를 팔아 그 돈을 먹고 노는 데에 써버리는, 과거와 혹은 아버지를 부정하려고 하는 하나코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들이 우스갯소리처럼 내뱉는 ‘그런 애’라는 한 마디가 곧 이들의 미래를 확연히 보여주는 것처럼 보인다.

두 번째 공통점은 바로 ‘이름’이다.

“깃사탕! 이름이 뭐예요?”

“야마가와 겐타로.”

기두질미 죽분죽당.

“한국식 이름은요?”

“긴사노.”

“하나씨 페이지.”

“기프, 상, 호.”

“긴 상 호.”

“이랬거나.”(p.25)

요한 힌터바이어……. 없던 심은 반고, 귀한 유약가들의 이름이었던 요한을 얻었다. 누가 봐도 하층 계급 풀무꾼 이름이 아니었다.(p.81)

이름이 무언가?

힌터바이어는 대답하지 못했다. 키르케는 잊힌 이름이었다. 요한 힌터바이어는 그의 이름이 아니었다. 부랑자군. (p.269)

이름이 없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것은 김상호에게는 국적을 의미하며 힌터바이어에게는 계층을 의미한다. 이름이 없이는 그들은 자신이 어느 나라, 혹은 어느 공간에 소속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다. 결론적으로 자신이 서 있는 공간에 어울리는 이름을 내지 못한 때, 그들은 ‘부랑자’가 되어 순식간에 사회의 밖으로 격리당하게 된다.

집이 ‘역사를 조망하는 전망대’라고 한다면, 이름은, 식이도 디아스포라에게 있어서는 ‘역사가 할퀴놓은 상처’ 같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상처를 응시하고 있으면 어떤 국가나 일정한 언어권 내부에 갇히버린 역사가 아닌, 또 하나의 역사가 조금씩 보이는 듯도 합니다.

이랬거나 ‘서경식’이라는 현재의 이름으로 여권을 갖게 된 지 40년 이상이 흘렀습니다. 국경을 넘는 여행을 하지 않았더라면 여권은 필요없었고 이름 역시 그대로였을지도 모릅니다. 여행은 자신을 불지아두고 있는 일상으로부터의 일시적인 해방이라고 많은 이들이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끊임없이 이름을 말해야 하고, 신분증명을 요구당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이라는 것 역시, 자신을 재정의하는 기회이기도 한 것입니다.¹⁰⁾

제일 조선인인 서경식은 ‘이름’의 문제에 대해 위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그가 말하고 있는 또 하나의 역사는 무엇인가. 특정한 국가나 한 언어권 내에서 아무런 의심 없이 말하고 불리는 이름을 가진 이들이 알지 못하는, 어느 공간에서 어떤 이름을 말해야 할지 알지 못한 이들이 가진 상처의 역사가 바로 그것일 것이다. 또한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자신의 이름이 하나의 국적, 혹은 하나의 계급을 대신하는 것이라 믿는 그 순간에 그들은 그 이름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디아스포라의 자리에 있는 이들은 결코 자신의 이름을 믿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름이란 언어가 갖고 있는 권력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자신들의 언어를 갖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름이란 사치에 불과하다.¹¹⁾ 이름을 갖지 못하는 자는 결국 아무 것도 가질 수가 없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을 욕망하는 것으로부터 그들의 불행은 시작된다.

3. 삶이여 험벗으라 이름 없는 자들이 벗어낸 삶의 모습

폭력에의 경험 역시 힌터바이어와 김상호가 갖는 동일한 경험이다. 이들이 겪는 폭력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우선 TNF부터 보자면, 힌터바이어는 아이블링거의 누이 레아에게 사랑을 느낀다. 하지만 레아는 결코 힌터바이어의 소유가 될 수 없는 존재이다.

10) 서경식·타와다 요오코, 서은혜 역(2010), 『경계에서 춤추다』, 창비, pp.56-57, p.66.

11) "정명은 확립된 정치적 헤게모니를 강화하는 무기가 되었고, 이런 의미에서 데리다가 말하는 로고스중심주의적 지배의 전형적 사례를 보여준다." (레이 초우(2005), 앞의 책, p.154)

레아와 함께 침실에 드는 걸 굳이 감추지 않았다. 방에 들기 전 일부러 힌터마이어를 불러 집안 단속을 명했다. 나이트 하인에게 하던, 해야 할 지시였다.(p.395)

레아는 아이블링거의 누이이면서 아이블링거의 정부(情婦)이다. 그녀는 아이블링거의 것이다. 자신에게 이름을 주고 있을 곳을 만들어준, 그리고 다른 어떤 제자들에게보다 힌터마이어에게 깊은 신뢰와 후한 마음을 보유했던 아이블링거였지만 힌터마이어가 ‘내 것’을 건드리자 그는 더 이상 참지 못한다. 교회음악을 두고 벌였던 토론을 밀미살아 그는 교회법정에 힌터마이어를 고발하게 된다. 오직 교회와 신을 위한 음악만이 허락되던 시기에 자유로운 형식의 음악을 꿈꾸던 힌터마이어는 음악 안에서 아이블링거와 자신이 친구이자 동료라고 믿었기에 그에게 자신의 모든 생각¹²⁾을 말했고, 그리고 배신당했다.

그것이 아이블링거의 역륜(逆倫)과 그에 대한 과도한 집착 탓이든 아니든, 힌터마이어의 이름이 키르케이고, 가족과 조상에 대해 해명할 수 없고, 교회법정에서 거짓 없이 고한 이상, 타의든 자의든 힌터마이어의 거처는 더 이상 빌헬름부르크가 될 수 없었다. 바이마르가 아니었다. 레아의 곁이 아니었다.(p.396)

그는 자신의 생각을 증명한 수 있었지만, 이름이 없는 ‘그’는 결코 자신을 변호할 수 없었다. 이름에 대한 해명을 요구받는 순간, 힌터마이어라 불렸고 과거에 키르케였던 그는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이름을 준 자에 의한 배신. 그에 의한 추방. 그것이 아이블링거가 원한 것이었는 아니든 관계 없이 이제 힌터마이어가 서 있을 곳은 아무 데도 없다. 그리고 이제 그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 지도 모르는 채로 떠나게 된다.

겐타로 역시 마찬가지로의 경험을 한다. 하나코와 긴 사랑을 이어나가고 있던 20대 중반의 겐타로는 어느 날, 하나코의 아버지로부터 제일 조선인인 그와 그녀의 만남을 용인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이에 굴하지 않으려고 했던 겐타로는 그러나 하나코 아버지와의 세 번째 만남에서 이한 바다를 듣고 그녀를 포기하고 독일로 떠난다.

“……내 것이야.”

하나코 아버지와의 만남은 그것으로 마지막이었다. 하나코와도. 일본과도.(p.425, p.427)

제일 조선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한때는 조선인을 고문하고 죽인 군인이었기 때문에 시작한 결별의 이유는 마침내 ‘내 것이야’라는 한 바다를 통해 추방의 이유가 된다. 역시 이름 없는 자였던 겐타로는 아주 빠르게 일본에서의 이름을 버리고 독일에서 토마스 김의 이름으로 살게 된다. 그리고 또 한 번의 폭력. 평양에서 TNF를 구매 들고 독일로 돌아온 김상호에게 이번에는 남한-그의 국적인 한국에서 초청이 온다. 토마스는 북한에 갈 때와 마찬가지로 실린다. 힌터마이어도 없었지만, 남한은 ‘조국’이었기에, 그의 실명은 힌터마이어를 발견할 때보다 결코 적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음악회를 밀미로 한 그 초청에 한국으로 향한 김상호는 간첩 혐의를 받고 끔찍한 고문과 재판의 과정을 거쳐 17년간의 옥살이를 시작하게 된다. ‘간첩’이라는 말로 김상호라는 인물을 토마스나 겐타로가 아닌 한국인으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남한 정부는 한국의 것인 ‘이름’을

12) “형식을 지키려는 의지를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처럼 주어진 형식 안에서 음악적 자율성을 극대화 하려는 것은 예술의지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율마저 압박하려 형식을 강요하는 것은 권력의 지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스스로 신심을 내어 믿는 신과 두려워 복종하는 신이 있듯 말입니다.”(pp.242-243)

적에게 팔았다는 이유로 김상호를 처벌한 것이다. 이저림 자신에게 ‘이름’을 준 존재의 배신은 아주 단순한, ‘내 것’을 건드렸다는 데에서 출발한다. 아이블링거의 고발도, 하나코 어머니의 추방도, 남한의 폭력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더욱 큰 배신과 폭력은 이후에 다시 한 번 이들의 삶을 무너뜨린다.

잠시 세 번째 이야기인 「렘소디 인 베를린」으로 돌아가보자. 이 이야기는 인물이 또 다른 인물로부터 전해 듣고 기록한 이야기이다. 이것은 1944년 5월부터 9월까지 나치에 의해 수용소에 갇혔던 유대인 악사의 이야기이다. 동족의 죽음 앞에 행진곡을 연주해야 하는 수용소의 악대. 그리고 그들의 신체와 정신을 잔인하게 유린하며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음악을 창조해냈던 장교 ‘벤’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다. 이 이야기는 소설 안에서 헨터마이어와 김상호의 삶이 결정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폭력에 부딪혔음을 알려주는 암시로 작동한다.

음악이 인간사에 필요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전제를 의심케 하는 사례를, 다만 발굴하고 적을 뿐이다. 이 사례의 경우 만드는 자, 연주하는 자, 듣는 자에게 음악이란 무엇이였을까. 저 광기의 어둠 속에 웅크린 막사 안에서 한순간 음악은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가.(p.286)

‘벤’은 자신이 원하는 형태의 음악-싱기를 때리거나 등을 발로 짓밟으며 악기를 연주하듯 인간의 몸을 연주했을 때 나는 소리, 새가 날아다니는 무규칙한 움직임을 따라가는 리듬을 수용소의 악대를 통해 만들어낸다. 그것은 말한 것도 없이 잔인하기 그지없는 폭력이다. 하지만 더욱 무서운 것은 이 순간으로 인해 악사들에게 그들의 삶이었고 아름다움이었던 음악이 순식간에 폭력으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배신은 단지 이 수용소 안에서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자네가 세상에 없다는 건 음악에게 큰 손해일 것 같아 그랬네……

누구에게 손해였을지가 분명해졌다. 거짓된 말에 감복하여 바이마르로 되돌아온 자신의 용렬함에 치를 떨 수조차 없었다. 음악이라는 명분으로 지탱되던 자신의 헛된 꿈을 봤기 때문이었다. 음악이 전부였다면, 음악은 또한 음악일 뿐이었다.(p.408)

하나코는 답변을 기다리는 듯했다. (……) 김상호 음악에 대한 키르호프의 열광이 32막사의 연장에 지나지 않았다는 허공의 수근거림을. 음악과 우정이 음악과 우정이 아니었다는, 그리하여 모든 삶이 말의 껍질을 벗고 본연으로 되돌아가야 한다는 허공의 속삭임을. 허공이 쏟아내는 걸 어찌면 김상호도 듣기만 했을, 말 아닌 말들을. 고분 같은 방에 주검처럼 누워 남자 또한 듣고자 했을 그 응답을.(p.461)

자신과 아이블링거 사이에는 음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친구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혹은 자신에게는 음악이 있고 그러한 음악을 가능하게 하는 아이블링거의 집이 그러므로 자신의 집일 수 있을 것이라는 잔인한 착각. 헨터마이어는 이저림 믿음이 착각으로 변하는 순간 결국 스스로 길을 떠나게 된다. 그런가 하면 토마스의 경우는 더욱 극단적이다. 자신의 삶을 돌봐주고 세상의 폭력으로부터 지켜주던 후원자인 키르호프가 죽은 후, 그는 키르호프가 사실은 ‘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토마스는 결국 스스로 죽음을 택한다. 왜 그는 다시 떠날 수 없었을까. 왜 다시 이름을 바꾸고 또 다른 조국을 찾으려 하지 않았던 것일까.

한국에서 고문을 받던 중, 토마스는 방금까지 자신을 죽일 듯이 때리던 남자로부터 자신의 아이의 연주를 좀 들어달라는 요청을 받는다. 그리고 남자가 뜬 녹음기에서는 그가 독일에서 외우고 연습했던 곡들이다. 그것은 토마스에게 ‘정교하고 야미한 살해, 다시 일어나 땅 밑지 못한 치명적 일각이었다(p.375)’.

"그랬군. 토마스는 그걸 보러 평양엘 갔고, 그 때문에 한국에서 죽다 살아났지. 죽다 살아난 거야. 베를린으로 돌아온 뒤 그는 조국도 민족도 결국 말일 뿐이라며 음악에 전념했소. 예술가로서 자신에게 남은 조국은 이제, 음악, 그것뿐이라며. 멋진 말이었지. 정말 많은 곡을 열심히 만들었소. 실은 미친듯이었지.(p.456)

고문실에서 겪은 위의 사건 이후 토마스는 더 이상 자신을 변호할 힘을 잃는다. 그리고 다시 17년 후 돌아온 토마스는 자신의 삶에 있어 유일한 조국을 '음악'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결국 힌터바이어와 마찬가지로 '음악은 음악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어느 순간에는 필요하고 아름다운 것이었다가, 조국이었다가, 사랑이었다가, 다음 순간 폭력으로 잔인함으로 바뀌어버리는 음악의 허무함. 토마스의 죽음은 그가 조국이라고 믿었던 음악이 단지 음악일 뿐인 것처럼, 죽음도 삶도 단지 말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삶을 다했던 발을 슬쩍 죽음 쪽으로 옮긴다. <살이어 힘껏으>다'라는 그의 노래는 결국 '살이라는 발을 벗으면 죽음이라는 발도 벗는 거니까, 거기엔 어떤 이동 따위도 없(p.457)'는 것을 의미한다. 겐타르는 이렇게 자신의 삶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한다. 그리고 힌터바이어 역시 떠돌면서, 자신의 존재를 지워가면서 '삶의 살갓'을 벗어간다. 하지만 이들의 삶은 다른 누군가에 의해 복원되고, 이들은 이름 없이도 자신의 삶을 말할 수 있게 된다.

4. 폭력의 보편성과 보편성의 폭력 쓰기

필자는 이 세상 어떤 땅 위에도 32막사가 다시 세워질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한 사례가 없었다면, 믿음은 커녕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이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분명 사례를 겪었고, 그리하여 이 일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 아무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p327)

위의 말처럼, 폭력은 언제나 재현될 수 있다. 기록하는 자로서 필자는 그러한 폭력의 사례를 겪었기에 그것이 언제나 가능하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토마스와 힌터바이어에게 삶을 벗을 것을 강요한 것은 폭력이 반복될 것이라는 믿음과 누구도 폭력일 수 있을 것이라는 공포 때문은 아니었을까. 이처럼 『랩소디』는 힌터바이어와 김상호의 삶, 그리고 『랩소디 인 베를린』을 통해서 폭력의 보편성과 보편성의 폭력에 대해 말하고 있다. 즉, 이 이야기들을 통해 18세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반복되는 폭력을 말하는 것이 폭력의 보편성이라면, 일반적인 이들에게는 당연한 일처럼 이겨지는 일들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폭력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보편성의 폭력일 것이다.¹³⁾

다시 앞의 이야기로 돌아가보자. 위에서 말한 두 가지 시선-경로는 모두 근대의 폭력성에 대저하는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탐구이다. 폭력에 노출된 디아스포라를 대함에 있어, 하나의 시선은 그들에게 정체성과 있을 곳을 제공해 그들을 폭력으로부터 구원하려고 하는, 말하자면 폭력의 악순환으로부터 그들을 끌어내리는 입장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시선은 보편성의 폭력이라는 측면

13) 폭력의 보편성과 보편성의 폭력은 고봉준의 다음 글에서 빌려왔다.

"마이너리티의 문제를 형상화한 작품에서 초점은 그들의 별거벗은 삶을 동정하거나 국가 폭력의 가혹함을 포착하는 데 있지 않다. 문학이 폭력에 노출된 그들의 불행과 고통을 비켜갈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것은 인권이나 평화와 같은 보편적 가치로 귀결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인권과 시민권 같은 보편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마이너리티들을 사회의 내부에 포함/배제시키는 규제의 방식으로, 훈육의 원리로 작동하는 사례를 수도 없이 목격했다. 마이너리티의 시선은 폭력의 보편성이 아니라 보편의 폭력성에 훨씬 민감하며, 또 그래야 한다."(고봉준(2008), 『다른 목소리들』, 소명, P.45.)

에서 보편으로 끌어온다고 해서 폭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보편이라는 말 자체가 한의하고 있는 폭력을 깨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디아스포라들이 겪는 폭력에 이러한 두 가지의 대책 외에 또 무엇이 있을까. 구효서는 그 대안으로 ‘쓰기’를 제안한다. 물론 그 ‘쓰기’는 일반적인 형태의 ‘쓰기’가 아니다.

“그렇지. 멘. 무엇에 대해 아니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나요. 사람들에게 듣고, 들으면서 묻고, 그걸 쓰는 데, 아니라고 쓰는 거지. 당신들이 알고 있는 건 그게 아니다, 라고 쓰는 거요. 잘못 알고 있거나 제대로 알고 있지 않다, 그런 뜻이지.”p.249

모든 폭력에 대한 폭로는 ‘아니라고 쓰는’ 데에서 출발한다. 당신들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쓰는 것. 그렇다면 ‘아니라고 쓰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실제로 일어났던 일로서의 역사적 과거는 이미 지나가서 소멸해버렸고,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것은 현재 남아 있는 과거의 흔적인 역사적 기록들(사료들)뿐이다. 우리에게 역사란 오직 ‘찍어진 것’으로만, 서술된 담론의 형태로만 존재하는 것이다.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들은 이렇게 역사가 되지만 역사의 기록에서 누락되고 생략된 것들은 캄캄한 망각 속에 묻혀 버린다. 그런데 만약에 정작 중요한 것들은 역사적 기록의 빈틈과 공백들 속에나 존재한다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역사라는 건 대체 뭐란 말인가?¹⁴⁾

말하자면 ‘아니라고 쓰는’ 것은 기록으로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반발이자, 누락되고 생략된 것들의 ‘다시-쓰기’이다. 이러한 ‘다시-쓰기’의 형태는 『랜소디』 안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서술 형태이다. 『랜소디』 속 이야기들은 시간이나 공간의 순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 그 이야기들은 듣는 이들이 모두 ‘그렇구나’라고 이해하고 지나칠 때에 다시 그 이면에 숨어있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끄집어낸다. 힌터마이어라는 음악가가 풀무꾼이라는 계급을 넘어 음악가로 변신하는 이야기에서, 그 안에 숨어있던 아이블링거의 욕망이 등장하자 음악은 추한 욕망으로 변하고, 누이였던 레아는 다시 아이블링거의 정부(情婦)가 되며, 힌터마이어는 결국 음악마지도 삶마지도 벗어나었다고 생각했으나, 결국 레아와 만나 그들만의 삶을 이루었다. 김상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하나는 겐타로의 뒤를 쫓는 과정에서 그가 겐타로를 버리고, 김상호를 버리고, 토마스를 버리고, 결국 삶까지 벗게 되는 과정을 역추적해 나간다. 끊임없는 ‘다시-쓰기’이다. 이 과정에서 시간의 흐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 시간은 계속해서 분절되고 재구성된다. 한 순간의 우연도 결코 쉽게 다뤄지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아니라고 쓰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 허락된 일이 아니다. 그것은 오직 ‘듣고, 묻고, 아니라고 쓰는 사람’인 ‘멘’에게만 가능한 일이다. 이 글에는 모두 네 사람의 멘이 등장한다. 『랜소디 인 베를린』의 지자와 TNE의 지자인 레아, 듣고, 묻는 사람인 하나코,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묻고, 쓰는 이인 이근호이다. 듣는다는 것과 묻는다는 것은 누구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한 때, 문제는 ‘아니라고 쓰는’ 일일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이들이 ‘아니라고 쓰는’ 일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 이 모든 작업을 해낸 인물, 이근호를 통해서 확인해보자.

나는 궁금하다. 내가 할 일이 무엇일지. 목이 아플 만큼 맥주가 시원하다. 그동안의 박람회, 비즈니스, 북페어 통역과는 다르다. 노년의 일본인 여성 의뢰인, 정체 모를 18세기 문서, 요한 힌터마이어와 안드레아스 아이블링거, 첫사랑의 황혼 자살, 한국, 평양, 그리고 일본말이 가능한 독일 체류자인 나.

이리저리 연결해 본다. 아무 그림도 그려지지 않는다. 특별한 그림일 것 같기는 하다. 이제 하루가 지났을

14) 박진(2008), 『달아나는 텍스트들』, 랜덤하우스코리아, p.181.

뿐이다. 맥주가 맛있다.(p.21)

‘독일 떠돌이’이자 ‘일본말이 가능한 독일 체류자인 (한국인) 나’ 이근호는 이 소설 안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나’이다. 소설 속 작은 이야기들은 모두 주인공이 아닌 이들에 의해 서술되고 있으며, 그 이야기 속의 어디에도 ‘나’는 등장하지 않는다. 유일하게 주체적인 입장에서 등장하는 ‘나-이근호’는 그러나 이 소설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뒤로 쏙 물러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그 이유는 이 글을 쓰는 목적에도 분명히 드러나 있는데, 그것은 이 글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과 또 그들과 연관된 어떠한 사건에 대한 보고도 아니고, 순간이나 간직한 목적도 아니며, 단지 ‘순간들을 한 번 더 되짚어 보고 싶’다는 바람이다. 단지 ‘감당할 수 없는 뭔가에 사무쳤던, 그와 같은 순간의 감정들. 그런 걸 한 번 더 느껴보고 싶었’(p.30)을 뿐인 것이다. 이처럼 번역자이자 통역자이며 서술의 주체인 이근호는 위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과 사건들, 도저히 하나로 묶일 수 없는 시공간-정체 모를 18세기 문서, 요한 힌터바이어와 안드레아스 아이블링거, 젓사탕의 황혼 자살, 한국, 평양-들을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의 방향으로 서술하려고 하지 않는다. 단지 그는 ‘듣고, 묵고, 아니라고 쓸’뿐이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것은 그가 21세기에 새롭게 등장한 디아스포라이기 때문이다.

나는 독일 떠돌이였다.

“이근호입니다.”

“그래. 이근호”(p.9)

이근호가 대표하는 21세기의 그들은 “한민족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모국을 떠나 세계 여러 지역으로 이주하여 살아가는 한민족 분산”¹⁵⁾이라는 보다 넓은 의미에서 디아스포라들이다. 하지만 보다 자세한 분류로 들어가보면 그들을 엄밀한 의미에서 디아스포라로 부를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생긴 수밖에 없다.

1)한 기원지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두 개 이상의 외국으로 분산한 것 2)정치적, 경제적, 기타 압박 요인에 의하여 비자발적이고 강제적으로 모국을 떠난 것 3) 고유한 민족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는 것 4)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동족에 대해 애착과 연대감을 갖고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기 위한 초국적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 5) 모국과의 유대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¹⁶⁾

21세기형 디아스포라들의 이주는 비자발적이고 강제적인 외부의 압력에(반) 의한 것도 아니며, 그들이 이주한 공간에서 동족에 대한 애착과 고유한 민족문화,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는지 역시 의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디아스포라로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 한국 소설에서 주인공들은 서울 한복판에서도 동선을 만들고(김미원(2007), 『서울동선가이드』, 문학과 지성사), 멀쩡한 달을 이러 개로 분리시켜 무중력 중후군에 시달릴(윤고은(2008), 『무중력중후군』, 한겨레출판) 수 있고, 끊임없이 새로운 인종을 출현시키며(박민규, 주원규 등의 소설), 이러한

15) 윤인진(2003), 앞의 글, p.126..

16) 디아스포라의 정의-(Choi, Inbom, 2003, "Korean Diaspora in the Making: Its Current Status and Impact on the Korean Economy." The Korean Diaspora in the world Economy, edited by C. Fred Bergsten and Inbom Choi, Washington, DC: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pp.9-27. 윤인진(2003), 앞의 글에서 재인용)

현상은 단순한 공간의 이동과는 관계없이 등장하고 있다. 이는 이주/이동의 문학적 형상화가 국민 국가와 주권의 한계, 그리고 타자와의 관계라는 물음을 제기한다는 측면에서 또 다른 의미의 ‘디아스포라적’ 현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¹⁷⁾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한 두 시선으로 는 결코 이 ‘21세기형 디아스포라’들의 삶을 파악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들은 누군가가-세상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을 원하지 않는 ‘디아스포라’들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이 작가들에게 한국적 상황이나 한국적 문학전통, 혹은 한국어의 고유성, 한국의 독자와 같은 한반도 내에 한정된 국경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나 영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다는 점일 것이다. 이들에게는 이미 국경을 넘는 일에서 겪을 수 있는 고민과 타자와의 만남, 심리적 거리감이나 조건의 차이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 언제 넘었는지도 모르게 이들 소설은 한국의 국경을 훌쩍 뛰어넘어버린 것이다. (……) 그렇게 본다면 어떠한 마음의 주저도 없이, 혹은 그 주저의 과정을 이미 넘어버린 이 작가들의 자유는 사실은 거침없이 국경을 넘는 자본의 자유에 의해 가능한, 수동적이고 타율적인 자유라고 말할 수 있다.¹⁸⁾

결국 21세기에 등장한 디아스포라를 말한다는 것은 2010년 현재의 시점에서 어떠한 시선에도 포획되지 않는 형태의 ‘디아스포라적’에 대해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마이너리티’나 ‘주변인’ ‘경계인’ 중 어느 하나에 속하지 않는다. 그들은 사회의 흐름 속에서 이탈(당)됐고, 그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이름을 부르거나 듣는 것을 쉽게 허락하지 않으려 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준 집단으로 소속되려는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것은 말 그대로 우연과 필연이 뒤섞인 형태, 자발적인 우연에의 뒤따름이라는 형태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그것은 우리가 이근호라는 인물을 쉽사리 제일 조선인 혹은 독일 유학생-이민자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이유는 이근호는 결코 그러한 거대한 이름 아래에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우리가 이근호라는 인물을 대상으로 ‘21세기의 디아스포라’의 대해 쓴다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아주 개인적이고 복잡한, 하지만 이근호 자체를 뚜렷이 파고보는 형태의 역사를 쓸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개인들의 역사, 작은 것들의 역사를 뜻한다.¹⁹⁾

결국 이근호로 대표되는 ‘펜’이란 이러한 작은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를 말한다. 어떤 이야기를 듣는 그것을 ‘나’ 혹은 ‘우리’의 이름으로 끌어당기려 하지 않는 자, 거대한 역사의 흐름에서 뒤흔겨나와 구체적인 개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자 말이다. 21세기에 등장한 디아스포라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써내려가기에 적합한 자들이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조국이나 민족의 문제나 그 안에서 이름을 얻고, 살 곳을 얻는 일이 아니라, 가고 싶은 곳, 하나의 장소를 찾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곳은 누구이기도 하고 한 소설의 음악이기도 하다.

17) 고봉준(2008), 앞의 책, p.71.

18) 서영인(2008), 『타인을 읽는 슬픔』, 실천문학사, pp. 272-273

19) 이에 반해, 미시문화사는 사회적·경제적 행위들을 넓은 의미에서의 문화적 텍스트로 간주하면서, 구체적인 개인이란 창을 통해 역사적 리얼리티의 복잡 미묘한 관계망을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겠다.

미시사 혹은 미시문화사는 무엇보다 역사란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여기서 구체적이라는 말을 단지 사소하고 희귀한 재밌거리라는 뜻쯤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전체사적 흐름이라는 이름 아래 정작 그 주역인 인간 개개인의 모습이 사라져버리는 거대 역사보다는, 경계가 잘 지워진 지역 내에서 어떤 위기나 사건에 대처하는 그곳 사람들의 전략이나 가치관 등을 면밀히 탐색하는 미시적 접근을 통해 역사 속의 복잡 다단한 리얼리티가 더 잘 드러날 수 있다는 것이다. 미시사의 중요한 특징이 익명의 거대 집단과 평균적 개인의 존재 형태보다는 어떤 소규모 집단에 속하는 개개인의 이름과 그들간의 관계를 추적하는 ‘실명적·집단적·역사’, 종래의 지나치게 좁고 엄격한 실증 방식보다는 보다 더 넓은 의미의 입증 방식을 포용하는 ‘가능성의 역사’, 딱딱하고 분석적인 문체가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의 전말을 말로 풀어어나가는 듯한 ‘이야기로서의 역사’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곽차섭 외(2000), 『미시사란 무엇인가』, 푸른역사, p.14.)

내가 있고 싶은 곳은 아버지의 나라 한국도, 어머니의 나라 일본도 아니었다. 6년째 머물고 있는 독일도 아니었다. 국가가 아닌 어떤 곳. 그곳이 어디인지는 나도 알지 못했다. 다만 하나코와의 작별이 못내 아쉽고 안타까울 뿐이었다.p.466.

이제, 『랩소디』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이 모두 한 곳에 모였다. 하나코는 토마스를 알던 모든 이들의 도움을 받아 토마스와 헨티마이어, 그리고 아이블링거와 그들의 후손이 함께 하는 음악회를 연다. 그 자리에는 키르호프의 후손인 에빌리도 함께 하게 되었으며, 이제 이근호 역시 그곳을 향해 가고 있다. 음악회가 열릴 교회당의 문을 열고 들어서기 전 이근호는 '이내 문을 열고 들어설 곳. 그곳은 어디이며 무엇일까.(p.479)'라고 생각한다.

그곳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여기에 모이 있는 이들과 이들을 모이게 한 과거의 인물들 모두가 향해 있는 곳이다. 그곳은 다른 어떤 '베를린'이지만 모두가 기억하는 의미가 다른, 그래서 아픔과 슬픔의 깊이도 다른 형태의 '베를린'이다. 그곳은 이제 '베를린'은 단지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 존재하는 공간으로서가 아니라 개개인이 가닿고 싶은 곳으로서 존재하는 하나의 장소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베를린'이 장소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이들에게는 모두 '베를린' 안에서 그들 각각이 부를 수 있는 '랩소디'가 존재하기 때문이다.²⁰⁾

결국 개인의 역사, 작은 역사를 쓰는 일은 거대 담론으로 존재하는 역사의 시공간 속에서 개인의 장소를 찾아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작은 역사를 서술하는 일은 분석을 거부하는 '이야기'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작은' 것의 테두리에서 벗어나기 어려우며, 항상 '다시-쓰기' 안에서 완전한 텍스트의 모습을 유지할 수 없다. 하지만 『랩소디』가 말하고 있는 개인의 역사와 그것을 쓰는 방법들을 통해 우리는 역사의 폭력 앞에 놓인 디아스포라들 개인이 가 닿고자 했던 곳을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20) 이 논의는 이 투 푸안, 구동희 역(2007), 『공간과 장소』, 대운, 참조.

<고전문학>

墨竹 題畫詩를 통해 본 風·雨의 象徵性 考察

- 風竹·雨竹을 중심으로

곽지영(중앙대학교)

<목 차>

- I. 序論
- II. 風竹·雨竹 題畫詩에 나타난 風·雨의 象徵性
 - 1) 風竹
 - 2) 雨竹
- III. 結論

I. 序論

題畫詩란 ‘그림(畫)을 제제(題)로 하여 창작된 시(詩)’를 일컫는다. 제화시는 詠畫, 記事, 鑑賞, 抒情, 論理, 布局¹⁾, 補畫, 疏通²⁾의 기능을 가지는데, 이 중 구도적인 미를 창출하기 위해 쓰인 布局을 제외하고는 그림이 가지는 제약을 보충해 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즉, 화폭이라는 공간적 제약과 그림에 대한 의식에서 발미암은 기법상의 제약³⁾속에서 충분히 묘사되고 표현되지 못한 정경과 심상을 제화시를 통해 마음껏 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으로써 화가의 의도는 물론 시인의 의도까지 보다 명확히 표현할 수 있게 해주며, 그림에서 표현하지 못했던 동적인 묘사를 통해 그림 속 풍경을 한층 더 생동감 있게 연상시켜 주기도 한다.⁴⁾

北宋시대의 당정화가였던 郭熙(1023~1085)가 “시는 형태가 없는 그림이요, 그림은 형태가 있는 시이다”⁵⁾라 한 이후, 蘇軾이 王維의 시를 “시 속에 그림이 있고 그림 속에 시가 있다(詩中有畫, 畫中有詩)”라 품평함으로써⁶⁾ 시와 회화는 긴밀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발전하였다. 宋代에 이르러

- 1) 徐銀淑, 「題畫詩의 연원과 발전-宋代 題畫詩가 흥성한 이유를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16집, 중국어문학연구회, 2001. pp.142~143, 서경숙은 제화시의 기능을 그림의 실제적인 상황을 전달하는 것을 ‘詠畫’, 그림을 창작하게 된 과정, 사적, 소장제에 대한 전고를 서술하는 것을 ‘記事’, 시인이 화가의 입장에서 그림을 느끼고 품평한 것을 ‘鑑賞’, 개인의 체험이나 생각을 드러내는 것을 ‘抒情’, 회화에 대한 개인의 이론이나 주장을 펴는 것을 ‘論理’, 회화작품의 구도를 위한 것을 ‘布局’라 하였다.
- 2) 박상환 외, 『재화시-인문정신의 문화적 가치』, AOSCO, pp.19~20, 박상환은 제화시의 기능을 失傳된 그림을 시를 통해 상상, 재구성할 수 있는 ‘補畫’, 그림의 창작동기나 과정, 그림과 관련된 사적, 소장에 관한 전고를 서술하는 ‘記事’, 도덕적 정서를 환기시켜주는 ‘教化’, 작가가 그림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알려주는 ‘疏通’, 획의 간소함에 따라 간결하게 표현되는 그림에서 작가의 寫意를 전해주는 ‘抒情’, 회화의 작품 구도를 위한 ‘布局’라 하였다.
- 3) 문인들은 그림을 그리는데 있어 자세하고 정중한 표현 기법을 지양하였다. 대상을 실재의 것과 비슷하게 模寫해 내는 것은 畫工들의 재주라 여겼기 때문이다.
- 4) 위의책, p.72.
- 5) 郭熙, 『林泉高致』, “詩是無形畫, 畫詩有形詩.”
- 6) 김연주, 「詩中有畫, 畫中有詩: 시와 회화의 관계를 중심으로」, 『미학·예술학연구』통권제14호, 한국미학예술학회, 2001, pp.316~317.

그림을 애호하는 분위기의 신행, 山水花鳥畵의 흥기, 회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에 따라 題畵詩가 흥성하게 된다.⁷⁾

또한 이 무렵 歲寒三友와 四君子 중 하나였던 대나무가 그려지기 시작함으로써 그간 천시되었던 그림이 문인들의 餘技로 자리 잡게 되었고, 더불어 대나무 그림을 소재로 한 제화시가 많이 창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金富軾이 대나무 그림을 그려 왕이 그것을 '살아있는 대나무'라 칭찬한 만큼 뛰어났다 하니 11세기에 이미 대나무 그림이 사대부 지식인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⁸⁾

이렇듯 대나무는 매우 이른 시기서부터 그림과 시의 소재가 됨으로써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 발전되었다. 자연 현상에 따라 風竹, 雨竹, 雪竹, 露竹, 煙竹등으로 나뉘고, 대나무의 생장 과정에 따라 竹筍, 新竹, 苦竹, 折竹, 枯竹 등으로 또 나뉘어지는 것이 그것이다. 이는 대나무가 다른 四君子보다 이른 시기에 출현하여 발전하여 왔으며, 대나무가 가지는 생태적인 특성과 그로 인한 상징화가 거듭 발전하여 대나무에 대한 사람들의 관념이 확장된 까닭으로 보여 진다.

또한 대나무의 상징과 연관되어 자연소재 역시 일정한 상징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이미 우리의 의식 속에 固着되어 표현의 한계를 가져온다.

본고에서는 風竹과 雨竹을 대상으로 하여 바람과 비가 시 속에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으며, 그것이 대나무와 합치져 어떠한 상징성을 가지고 또 어떠한 이미지를 창출해내지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대나무, 바람, 비의 상관관계 속 어서 우리가 가진 기존의 상징성, 이미지를 다시 살펴봄으로써 표현과 사고의 영역을 넓혀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II. 風竹·雨竹 題畵詩에 나타난 風·雨의 象徵性

1) 風竹



風竹은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를 말한다. 옆의 그림은 灘隱 李貞(1541~1622)의 「風竹圖」로 붉은 대는 굽어지지 않고 줄기와 잎만이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 바람의 방향을 향해 내달리는 잎과 줄기를 통해 바람을 맞아 흔들리는 대나무의 한 순간을 포착해낸 것이다.⁹⁾

風竹의 특징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바람, 바람을 맞은 대나무의 움직임, 바람이 불 때 들리는 대나무의 울림소리가 그것이다.

바람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는 '風'이라는 일차적인 시어를 사용하는 직접적인 방법¹⁰⁾과 바람을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을 묘사하여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다.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경우는 대의 움직임이나 대의 울림을 통해 표현할 수 있는데 이는 風竹의 경우, '바람 - 대나무의 움직임 - 대나무의 울림소리'가 진행형적으로 그 관계가 긴밀히 유지되기 때문이다.

바람은 움직임과 울림소리의 필요조건이지만 바람과 대나무의 움직임이 충족되었다 하여서 그

7) 徐銀淑, 「題畵詩의 연원과 발전-宋代 題畵詩가 흥성한 이유를 중심으로」, 『중국어문학논집』16집, 중국어문학연구회, 2001.

8) 최열, 『사군자 감상법』, 대원사, 2000 .p.103.

9) 이러한 모습은 風竹의 대표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으며, 작가에 따라 제 각기 개성을 드러낼 수 있겠으나 그 특징은 크게 달라지지 않음으로, 바람에 따라 움직이는 대의 모습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작품 중에 墨竹의 대가인 탄은의 작품을 예시로 삼았다.

10) 바람은 대의 움직임과 대의 울림소리를 내는 원동력이 되므로 제화시속에서 바람의 직접적인 표현방식은 거의 대부분 사용되기에 따로 다루지는 않음을 미리 밝힌다.

것이 대나무의 울림소리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風竹을 소재로 한 제화시의 주제의식이 드러나며, 그 가운데 바람의 상징성 또한 유추해낼 수 있다. 먼저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의 움직임에 묘사한 부분을 살펴보자.

낭간의 모든 잎이 일시에 비긴다 琅玕萬葉一時斜¹¹⁾

작은 대는 바람을 받아 고개 숙이고 小竹受風低
큰 대는 바람을 맞이해 싸운다 大竹迎風戰¹²⁾

맑은 바람은 가는 가지를 흔드니 清飈振脩箨
모두 훨훨 춤을 추는 구나 翩翩萬舞之¹³⁾

시인은 방향을 나타내는 ‘斜,低’등의 시어와 움직임을 나타내는 ‘戰,振,翩翩,舞’의 시어를 사용하여 ‘모든 잎이 일시에 비긴다(萬葉一時斜), 바람을 받아 고개를 숙인다(受風低), 바람을 맞아 싸운다(迎風戰), 가지를 흔드니(振脩箨), 훨훨(翩翩), 춤을 춘다(舞)’라는 감각적인 표현을 통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순간, 즉 자연 상태의 風竹을 당시의 시각과 촉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유념해야 할 점은 바람에 흔들리는 것이 활적을 이루고 있는 큰 대의 줄기가 아니라 가는 다란 줄기와 잎이라는 것이다. 잎과 가는 줄기의 움직임은 바람을 형상화 한 것이며 바람에도 흔들림이 없는 큰 대는 대나무가 가지고 있는 곧은 절개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수초 끝에는 바람 소리 시끄럽고 蘋末蓬蓬聲正譁
낭간의 모든 잎이 일시에 비긴다 琅玕萬葉一時斜
이 몸은 꺾이나 굽히기는 어려우니 此身可折難爲屈
바람귀신을 만난 들 어찌하겠는가 縱遇飛廉奈我何¹⁴⁾

통하고 막힘은 한서가 바뀌기 때문이요 通塞遞寒暑
숙였다 쳐들었다 하는 것은 풍우를 받아서이다 低昂受風雨
평생에 절개를 온전히 지켜서 平生全節存
그리하여 시인의 손에 들어왔도다 故人騷人手

첫 번째 시는 ‘모든 잎이 바람에 비긴다(萬葉一時斜), 바람귀신(飛廉)’움직임과 바람과 관련한 귀신의 이름을 제시하여 바람의 모습과 나타내었다.¹⁵⁾ 세찬 바람 소리와 대 잎의 움직임을 통해 바람을 나타내고 그 속에서 ‘꺾이나 굽히지 않는(可折難爲屈)’대의 성질을 제시하였는데, 일찍이 대나무는 이러한 성질로 말미암아 선비의 곧은 節概, 婦인들의 곧은 貞節을 상징하여왔다. 바람은 절개를 더욱 강조하게 하는 시련 혹은 유혹을 상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1) 成倪,『虛白堂補集』,「題蘇東坡墨竹 十節, 其三」, “蘋末蓬蓬聲正譁。琅玕萬葉一時斜。此身可折難爲屈。縱遇飛廉奈我何。”

12) 權斗經,『蒼雪齋集』,「塔窩南公(亨會) 命賦所藏李處士渠墨竹八幀 右風竹」, “小竹受風低。大竹迎風戰。靜聽却無聲。清陰看欲轉。”

13) 申景濬,『旅菴遺稿』,「畫竹屏吟 風竹」, “清飈振脩箨。翩翩萬舞之。此君既無語。樂意如何誰問知。”

14) 成倪,『虛白堂補集』,「題蘇東坡墨竹 十節, 其三」.

15) 첫 번째 구에서 ‘바람이 세차게 부는 소리(蓬蓬聲)’라는 시어를 사용하여 자칫 이것이 대나무의 울림소리가 여길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대나무 가지 끝에 붙어 대 잎들을 일시에 비끼게 하는 세찬 바람소리임을 유의해야한다.

두 번째 시는 보다 직접적으로 대나무의 질개를 노래하고 있다. 일찍이 대나무의 '바디(節)'가 節概의 '節'과 同字를 쓰는 까닭에 대나무의 바디는 질개를 상징하고 나아가 대나무 역시 질개를 상징하게 되었다. 풍우를 받아서 '숙였다 처들었다(低昂)'하지만 결국 온전한 질개를 지켜내었다 하였으니, 이 시에서의 바람 역시 질개를 더욱 굳건히 하는 시련을 나타내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바람과 어우러져 나는 대나무의 울림소리를 타나낸 부분이다.

가지마다 서늘한 바람이 불고	枝枝生颯爽
잎마다 바람소리 들리네	葉葉戰颯颯 ¹⁶⁾

잎 새 속에 저절로 바람이 이니	葉裡自生風
그 소리가 귓전에 있는 듯하네	有聲如在耳 ¹⁷⁾

사계절 천연의 피리소리 시원히 부네	四時天籟颯然開 ¹⁸⁾
---------------------	------------------------

시인은 바람소리를 나타내는 의성어(颯颯-좌좌), 소리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단어(有聲), 감각기관(耳), 악기의 이름(籟)등 다양한 시어들을 사용하여 마치 대숲에서 대나무의 울림소리를 듣는 듯 한 청각의 반향을 도모하고 있다.

대나무 소리는 黃帝 때의 영륜이 嶠門의 竹을 캐어 律管을 만든 이후로 태평한 시대와 달추한 기상을 상징¹⁹⁾하며 추위를 고쳐주는 醫俗의 효과가 있다고 여겨져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神文王 때 석병을 물리치고 질병이 나으며 가을 때는 비가 온다는 반파식적이 있어 대나무의 소리가 태평성대를 상징하는 그 근거가 되고 있다.

옥이 흔들리고 패옥이 쓰러져도 능름히 꺾이지 않고	玉颯瓊披凜不摧
사계절 천연의 피리소리 시원히 부네	四時天籟颯然開
산 밖 재잘거리는 소리를 싫어하여	應嫌山外啾啾響
영륜이 음율을 취해 오던 때를 떠올리네	長憶伶倫取律來 ²⁰⁾

시인은 대나무의 울림을 '천연의 피리소리(天籟)'라 일컬으며, 어지러운 속세를 벗어나 태평성대의 시절로 돌아가기를 희망하고 있다. 바람에 의해 울리는 대나무의 소리는 醫俗의 기능을 가지고 시인으로 하여금 때 묻지 않은 태고의 시대로 회귀하고자 하는 욕망을 불러 일으키게 한다. 이때에 바람은 대나무를 울려 소리를 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으로, 바람이 불지 않는다면 대나무의 울림 역시 존재 할 수 없는 것이며, 바람이 불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대나무의 울림이 있는 것이 아님을 감안한다면 대나무의 울림은 바람과 혼연일체가 되었을 때 나는 것으로 바람과 내의 울림을 동일시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바람 역시 추위를 깨닫게 하고 그를 씻어내는 영험하고 깨끗한 기운으로 상징화 할 수 있을 것이다.

16) 金麟厚,『河西全集』,「題畫竹」, “筆下傳噫氣。長林不自由。枝枝生颯爽。葉葉戰颯颯。坐我瀟湘岸。融神鼓瑟秋。旁條未摧落。靜聽亦脩脩。”
 17) 金麟厚,『河西全集』,「靈川墨竹 其二」, “葉裡自生風。有聲如在耳。蒼崖萬古姿。永念靈川子。”
 18) 閔仁伯,『苔泉集』,「咏畫竹 右嶠谷清風」, “玉颯瓊披凜不摧。四時天籟颯然開。應嫌山外啾啾響。長憶伶倫取律來。”
 19) 이어령 책임편찬,『대나무』,종이나라, 2006, p.106.
 20) 閔仁伯,『苔泉集』,「咏畫竹 右嶠谷清風」.

2) 雨竹



雨竹은 비를 맞았거나 맞고 있는 상태의 대나무를 말한다. 옆의 그림은 柳德章(1694~1774)²¹⁾의 雨竹圖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雨竹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 중 하나는 비의 표현방법으로 빗방울을 직접적으로 그리지 않고, 비를 머금고 아래로 향해있는 잎을 통해 비의 느낌을 살리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에 나무끼는 동작이 진행형으로 표현되는 風竹과 달리 雨竹은 이미 비를 맞은 과거형으로 표현 될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비를 맞아 더욱 푸르른 대 잎의 빛이다. 먼지나 대나무 가루(筠粉)등이 한마탕 내린 비에 씻겨 가니 대나무의 빛이 한층 푸르고 선명하게 다가오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이를 소재로 한 제화시에서도 이실히 드러나는데, 雨竹을 나타내는 제화시는 비의 표현방법, 비가 내리는 동작의 진행성의 이무에 중점을 두는데, 그에 따라 雨竹이 분리일으키는 감정은 사뭇 달리 나타난다.

먼저 비의 표현방법을 본다면, 직접적인 표현 방법과 간접적인 표현 방법이 있다. 직접적인 표현 방법은 ‘雨’라는 시어를 사용하는 것이다.

한 차례의 빗줄기 너를 옥성(玉成)시키는 듯 一雨應玉汝²²⁾

소나기가 그윽한 대나무를 때리고 急雨打幽篁²³⁾

대나무에 밤비 내릴 때 앉아있네 坐我三湘夜雨時²⁴⁾

각각의 작품에서 시인은 ‘한 차례의 비(一雨), 소나기(急雨), 밤비(夜雨)’등 다양한 종류의 비를 ‘雨’라는 직접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비가 내리거나 비가 내린 후의 정경을 묘사하고 있다.

반면 간접적인 시어를 사용하여 비를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꺾인 비두건을 쓰기 싫어하니 却嫌冒雨巾初墊
머리가 무거워 부축할만한 사람이 없네 頭重無人用力扶²⁵⁾

고운 잎은 세수를 하여 더욱 깨끗하고 娟葉類逾淨
...(중략)···
머리 드리우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소리 듣는다 穆穆垂頭聽天降。²⁶⁾

21) 조선 후기의 화가. 묵화로 대를 잘 그려 李震·申緯와 더불어 조선 3대 墨竹畫家로 일컬어진다.

22) 崔岾,『簡易集』,「題石陽正仲變墨竹八幅 雨竹」“向來筠粉態。猶污乃家清。一雨應玉汝。從教太瘦生。”

23) 權斗經,『蒼雪齋集』,「嗒窩南公(亨會)命賦所藏李處士渠墨竹八幀 右雨竹」,“急雨打幽篁。紛披疎影亂。蕭蕭清夜中。疑是瀟湘岸。”

24) 鄭士龍,『湖陰雜稿』,「題叟畫竹」,“孤棹長侵楚岸移。脩竿奕葉兩猗猗。畫圖省識曾看面。坐我三湘夜雨時。”

25) 成倪,『虛白堂補集』,「題蘇東坡墨竹 十節,其十」,“甲刃樅樅十萬夫。剛姿曾不混凡株。却嫌冒雨巾初墊。頭重無人用力扶。”

26) 申景濬,『旅菴遺稿』,「畫竹屏吟 風竹」,“娟葉類逾淨。香苞嫩漸絳。寧計澤多小。穆穆垂頭聽天降。”

시인은 비가 올 때 쓰는 사물중 하나인 ‘비두건(雨巾)’을 사용하여 비오는 날씨를 연상시키고, 잎을 머리에 끼우고 비를 맞아 아래로 고개를 숙인 무게감을 ‘重, 重’으로 나타내어 ‘머리가 무겁다(頭重), 머리를 드리우고 있다(垂頭)’라는 시어를 통해 비를 맞은 잎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였다. 또한 대나무가 비를 맞는 것을 ‘세수 한다(潑灑)’라 함으로써 비를 맞아 개운하고 깨끗해지는 이미지를 연상하고 있다. 이러한 직접적, 간접적 시어들은 굳이 그림과 시를 함께 놓고 보지 않더라도 이러한 사물이 雨竹을 소재로 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雨竹의 제화사에서 다음으로 중요시 되는 것은 비가 내리는 동작의 진행이부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雨竹圖에서는 빗방울을 직접적으로 그릴 수 없었기 때문에 그 그림은 언제나 과거형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시인들은 그림 속의 雨竹을 보고 비를 맞은 대나무를 볼 수도 있고 나아가 비를 맞고 있는 대나무를 볼 수도 있다.

그동안 하얗게 분을 발라 치장하고	向來筠粉態
너의 집 맑은 기풍 오히려 오염시키더니	猶汚乃家清
한 차례의 빗줄기 너를 옥성(玉成)시키는 듯	一雨應玉汝
이제부터 뺄쩍 마른 홀쭉이가 되겠구나	從教太瘦生 ²⁷⁾

그동안 덕지덕지 분가루 칠한 그 모습을	向來筠粉態
한바탕 빗줄기에 깨끗이 씻어 내 버렸나니	一雨洒然無
창관의 대열 속에 구태여 끼어들어	羞道蒼官伍
대부의 이름 듣는 것이 수치스러워서	策名爲大夫 ²⁸⁾

위의 시들은 이미 비를 맞은 대나무를 묘사한 작품들이다. 비를 맞은 대나무는 비가 내리는 동작이 이미 과거형이 되었음으로 시인에게 있어서 비가 내렸던 모습은 중요하지 않다. 즉, 초점이 비가 아니라 대나무에 있는 것이다. 비가 내린 뒤 시원하고 맑은 경치 가운데 선명하게 푸르른 대나무를 보면서 시인은 瀟灑하고 澹澀한 이미지를 가지게 되며, 이러한 심상은 자연스럽게 대나무가 가진 ‘君子 또는 隱者’라는 상징성과 맞닿는다. 그리하여 까람직한 인격의 성취(玉成)나, 세상의 功名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 하고자 하는 의식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비 내리는 동작을 현재형으로 인식하고 있는 작품들을 살펴보자.

소나기가 그윽한 대나무를 때리고	急雨打幽篁
성긴 그림자 어지러이 흩날린다	紛披疎影亂
쓸쓸하니 맑은 밤중이	蕭蕭清夜中
소상강의 언덕 같네	疑是瀟湘岸 ²⁹⁾

궁비가 순임금을 그리던 울음은 견디었으나	已忍宮妃望舜啼
강가 비에 쓸쓸해지는 밤은 견디기 어렵네	叵堪江雨夜淒淒
한기가 불고 서늘함에 물드는 것은 모두 가을 색이라	寒滋冷染皆愁色
천고의 정을 품은 초수는 서쪽으로 간다	千古含情楚水西 ³⁰⁾

27) 崔岔,『簡易集』,「題石陽正仲變墨竹八幅 雨竹」.

28) 崔岔,『簡易集』,「墨竹八首 雨竹」. 雨竹」.

29) 權斗經,『蒼雪齋集』,「嗒窩南公(亨會) 命賦所藏李處士渠墨竹八幀 右雨竹」.

30) 閔仁伯,『苔泉集』,「咏畫竹 右瀟湘夜雨」.

첫 번째 시에서 시인은 대 잎을 때리는 빗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대 잎의 그림자를 ‘쓸쓸 한 듯 맑은 밤중(蕭蕭清夜中)’에 놓고 보고 있노라 하였고, 두 번째 시에서는 ‘당미가 순임금을 그리던 울음은 이미 진디었으나(已忍宮妃望舜啼)’는 과거경을 사용하여 그와 상반되는 감정을 나타냄으로써 현재 미가 오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하였다.

이 두 시에서 공통적으로 찾을 수 있는 모티프는 ‘滿湘’, ‘楚水’로 이는 순임금을 그리워하다 따라 죽은 二妃의 눈물이 소상강 언덕의 대나무에 흐르자 대나무에 붉은 반점이 생겼다는 고사와 함께 눈원이 모함을 받아 빠져 죽은 곳이다. 그리하여 滿湘 과 楚水는 일찍이 절개를 상징하여왔으나, 위의 시에서는 ‘쓸쓸하다(蕭蕭)’, ‘쓸쓸하고 저랑하다(淒淒)’라는 시어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二妃와 눈원의 절개 보다는 쓸쓸하고 저랑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슬픔에 초점을 두고 감정을 이입시키고 있다. 이는 시인이 미를 추가하거나 겨운의 추운 날에 내리는 비로 인식하여 미의 차가운 속성을 부각시키고, 한밤중 대 잎을 치거나, 강가에 내리는 비 소리가 주는 청각적 이미지를 자신의 蕭蕭하고 淒淒한 감정을 드러내는 데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시인의 초점은 미를 맛고 선 대나무가 아니라 대나무 잎을 때리며 내리는 비 자체에 있다. 그리하여 시인은 雨竹에서 대나무와 연관된 지명과 고사를 연상하고 아울러 대나무 잎을 때리며 떨어지는 빗소리를 결합하여 자신의 심상을 드러내는 것이다.

III. 結論

이상으로 墨竹과 雨竹의 제화시를 통해 바람과 미가 그림과 시속에서 어떻게 형상화 되는지 살펴보고 아울러 바람과 미가 대나무와 함께 어우러져 어떠한 상징성을 가지게 되는지를 고찰하였다.

‘風竹’의 경우는 대나무의 기본적인 상징인 節概를 바탕으로 하고 거기에 바람을 형상화 함으로써 대나무의 절개를 부각시킬 수 있는 시련이나 유혹으로 상징 되었다. 이러한 점은 대나무의 절개와 상관하여 보았을 때 바람이 가지는 보편적인 상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나무의 울림은 태평성대의 시절을 상징함과 동시에 속됨을 고치는 교화의 기능을 상징한다. 대나무의 울림은 바람과 혼연일체가 되었을 때 비로소 가능한 것으로 이를 통해 바람을 대나무의 울림과 동일시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때의 바람은 속됨을 깨닫게 하고 그를 씻어내는 영험하고 깨끗한 기운으로 상징화 할 수 있을 것이다.

‘雨竹’의 경우는 그림과 시속에서 ‘이미 내린 비’를 속세의 塵埃를 씻어내어 清麗하고 漸麗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으로, 또 ‘내리고 있는 비’는 가을·겨울밤에 차갑게 내리며 쓸쓸한 빗소리를 냄으로써 蕭蕭하고 淒淒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으로 이겼다.

‘雨後竹筍’이라는 말이 있듯이 ‘미’는 대나무의 특성 중 하나인 빠르고 무성한 성장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자양분이자 자연현상이다. 그리하여 대나무와 비를 서로 연결하여 생각할 때 아마도 대나무의 이런 특성 가운데 빠른 성장을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을 것인데, 이는 ‘雨後竹筍’이라는 시어가 매우 보편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雨竹의 題畫詩에서는 이러한 비의 상징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 특이한 반하다.

이렇듯 우리의 의식 속에 고착화된 사물의 상징화를 새롭게 찾아가는 작업을 통해 보다 폭넓고 다채로운 사고와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본다.

(*참고 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近代 歴史小説의 스토리텔링 樣相 研究

-구활자본 「南怡將軍實記」를 중심으로-

유권석*

<목 차>

- I. 머리말
- II. 南怡將軍實記의 스토리텔링 樣相
 - 1. 文獻記錄의 수용과 실감나는 사건 전개
 - 2. 탁월한 능력과 운명적인 사랑의 形象化
 - 3. 善惡의 設定과 悲劇的 결말
- III. 새로운 스토리 創作에 활용 可能性
- IV. 맺음말

I. 머리말

본고는 近代 역사소설인 舊活字本 「南怡將軍實記」¹⁾의 스토리텔링²⁾ 양상을 分析해 보고 이를 오늘날의 새로운 스토리 創作에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探索해 보고자 시도되었다.

악히 알려져 있다시피 남이 장군은 27세라는 젊은 나이에 兵曹判書에 발탁되었지만³⁾ 유자광의 謀陷으로 하루아침에 역적으로 몰려 죽었다. 이러한 남이 장군의 짧지만 드라마틱한 삶은 그 동안 文壇과 巫俗 등을 통해 꾸준히 傳承되어 왔다.⁴⁾ 즉 氣概 넘치는 영웅적인 활약과 모략에 의한 안타까운 죽음이 개입되면서 悲劇的인 英雄으로 확대 재생산되어 온 것이다.⁵⁾ 특히 구활자본 「남이 장군실기」는 이러한 남이 장군의 일생을 테마로 하여 근대에 역사소설로 창작되었다는 점에서 오늘날과 같이 스토리 생산 방식이 중요해진 시대에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야기는 읽는 재미와 感動이 전제될 때 많은 독자를 확보할 수 있다.⁶⁾ 이러한 점은 스토리텔링이 많은 독자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내러티브적 특징이 있어야 한다⁷⁾는 주장과도 脈相通하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근대에 출간된 약 250여 종에 이르는 구활자본 소설 가운데, 「남이장군실기」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은 意味深長한 일이 아닐 수 없

*남서울대 교양과정부 전임강사

1) 「南怡將軍實記」(1990), 舊活字本 『古小説全集』 第二卷, 인천대민족문화연구소.

2) 스토리텔링의 범주는 대략 3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소설, 드라마, 캐릭터 등을 포함하는 엔터테인먼트 스토리텔링과 축제, 다큐멘터리 등을 포함하는 인포메이션 스토리텔링, 그리고 광고, 디자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기타 스토리텔링이 그것이다.(정창권(2008),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북코리아, pp.38~39.)

3) 남이 장군이 젊은 나이에 병조판서에 발탁된 것은 분명 탁월한 능력을 인정한 것이겠지만 일가친척을 조정 에 배치하여 나라를 이끌어 가고자 한 세조의 국정철학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이조실록』(1993), 「세조실록」 제46권, 여강출판사, p.177.)

4) 『韓國民俗大事典』 1(1991), 민족문화사, pp.274~275.

5) 졸고(2000), 「남이전 연구」, 『어문연구』108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pp.98~99.

6) 김익숙, 이창식(2008), 『한국신화와 스토리텔링』, 북스힐, p.68.

7) 최예정, 김성룡(2005), 『스토리텔링과 내러티브』, 글누림, pp.60~127.

다. 그리고 수 백 년 전에 활약했던 영웅의 삶이 근대 역사소설의 주인공으로 재등장했다는 점에서 식민통치라는 시대적 상황도 작용했다.⁸⁾ 빼앗긴 나라를 찾고자 하는 念願은 영웅에 대한 希求로 이어졌고 여기에 상업주의적 안목이 加勢되면서 역사 소설 창작의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⁹⁾ 하지만 「남이장군실기」와 같은 근대 역사소설은 시대적인 當爲性도 존재하지만 단순히 紙에서 右를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의 삶을 문헌기록 등을 바탕으로 새롭게 形象化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¹⁰⁾ 이는 오늘날의 드라마나 영화에서 역사인물을 소스로 활용한 스토리텔링 방식들이 추구하는 것과 같은 脈絡이라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 사회는 문화산업이 더욱 각광받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컨버전스 시대가 도래하면서 디지털미디어 기법에 의해 하나의 이야기는 企劃에서 流通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새롭게 탄생될 것이다.¹¹⁾ 이러한 현상에 副應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스토리텔링의 방식과 원천적인 소재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인물을 소재로 한 스토리텔링은 우리의 문화 환경에서 여전히 매력적이며 꾸준히 한류의 한 軸으로 이어져 성공할 가능성도 높다. 이는 既存의 「대장금」이나 「하준」, 「선덕여왕」¹²⁾ 같은 실존 인물들을 대상으로 콘텐츠화에 성공한 先例가 증명해 주고 있다. 이러한 작품들은 참신한 소재, 뛰어난 인물, 치밀한 사건 구성, 내용 전개와 환상성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근대에 창작된 「남이장군실기」를 텍스트로 삼아 새로운 스토리 창작에 활용할 수 있는 특징들을 探索해 보고자 한다.

II. 「南怡將軍實記」의 스토리텔링 樣相

역사적으로 큰 足跡을 남긴 인물들은 時空을 뛰어넘어 리메이크의 대상이 되곤 한다. 그리고 과거 문학 작품 속의 주인공들은 더 이상 상상 속에서만 머물지 않는다.¹³⁾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콘텐츠로 개발될 가능성을 모색하게 되면서 마치 옆에서 살아 숨 쉬는 것처럼 느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어디까지나 이야기하기, 즉 스토리텔링에 대한 욕구에서 출발하고 있다. 스토리텔링을 일러 보는 사건의 종합체이며 모든 문화콘텐츠 산업의 근원을 형성한다고 한 지적은 이를 잘 대변한다.¹⁴⁾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갈구하고 생산하는 삶을 지속해 왔다. 그러므로 과거의 古典소설에 등장하던 萬人을 구한 영웅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전망의 대상이며 다양한 콘텐츠로 부활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소설은 허구를 전제로 하여 인물, 사건, 배경이 주된 요소로 작용한다. 그러나 똑같은 소재를 가지고 작품을 창작하는 경우에도 다양한 시점과 구성의 차이로 인해 서사에 많은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는 역사 인물을 소재로 한 스토리텔링의 경우 모티브와 소재, 테마, 스토리,

8) 김용덕(1993), 「전기소설의 통시적 고찰」, 『고소설사의 제문제』, 집문당, p.292.

9) 이승윤(2009), 『근대 역사담론의 생산과 역사소설』, 소명출판, pp.62~65.

10) 김찬기(2004), 『한국 근대소설의 형성과 전(傳)』, 소명출판, pp.71~72.

11) 박상완 외(2009), 『문화콘텐츠와 인문정신』, 오스코, pp.59~66.

허만옥(2008), 「문화콘텐츠에서의 디지털스토리텔링 양상과 방향 연구」, 『우리문학연구』23집, pp.301~302.

12) 2009년에 MBC에서 방영된 드라마 「선덕여왕」의 경우 상당히 높은 시청률을 보였는데, 그 원인을 고대 영웅이야기의 서사 구조와 뚜렷한 선과 악의 대립 구조에서 찾은 바 있다. 즉 「이야기의 힘」이 성공의 비결이었다는 지적이 있다. (매일 경제, 「선덕여왕」, 역경 달고 있어서는 영웅이야기 통했다」, 2009년 6월 10일자 기사 참조)

13) 강명혜(2007), 「고전시가와 스토리텔링」, 『온지논총』제16집, pp.132~149.

함복희(2007), 「설화의 문화콘텐츠화 방안 연구」, 『어문연구』134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pp.152~156.

14) 안기수(2010), 「한국 영웅소설의 게임 스토리텔링 방안 연구」, 『우리문학연구』 제29집, 우리문학회, p.72.

플롯, 구성 등이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한다¹⁵⁾는 지적에서도 확인 된다. 물론 「남이장군실기」도 이와 같은 觀點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남이 장군과 관련된 문헌기록과 담론들에 존재하는 특징들이 적절히 배합되어 새로운 스토리 탄생의 根幹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이장군실기」에 나타난 서사 구조를 바탕으로 스토리텔링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文獻記錄을 수용한 실감나는 사건 전개

남이 장군에 대한 문헌기록 중에서 공식적인 官의 기록은 『世祖實錄』과 『睿宗實錄』에¹⁶⁾ 나와 있다. 그리고 남이의 獄事와 관련된 내용은 정조 때 이광익이 지은 『연려실기술』에¹⁷⁾ 실려 있으며, 남이의 일생을 인물전으로 기술한 경우도 『國朝人物誌』에 「南怡傳」¹⁸⁾으로 전해오고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남이 장군에 대한 역사적 행적은 주로 이런 文獻들을 토대로 정리한 것이다. 남이 장군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문헌들은 각각의 기술 의도와 깊이에 차이가 있지만 남이라는 한 인물의 삶을 서로 다른 각도에서 기록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그럼 먼저 널리 알려진 남이 장군의 행적을 간략히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南怡(1441~1468)는 조선 전기의 무신으로 시호는 충무(忠武), 본관은 의령이다. 조부는 영의정부사 재(在)이며, 아버지는 휘(暉)로 태종의 4녀인 정성공주와 결혼하여 세종23년에 남이를 낳았다. 세조3년에 무과에 장원급제 후 다시 1466년 拔英試에 급제하였다. 1467년에 이시애가 난을 일으키자 구성군 준, 허종, 강순 등과 함께 대장으로 참여하여 혁혁한 전공을 세워 적개공신 1등에 책록되고 宜山君에 봉해졌다. 그리고 여진을 토벌할 때 우상대장(右廂大將)이 되어 이만주를 참살하는 공을 세웠다. 그 뒤 공조판서와 오위도총부도총관을 겸직하였으며 이어 병조판서에 발탁되었다. 그러나 예종이 즉위한 뒤에 형조판서 강희맹과 중추부지사 한계희 등의 원상세력들에 의해 검사복장으로 강등되었다. 그리고 숙직을 설 때 혜성을 보고 한 말을 가지고 유자광이 모함하여 영의정 강순과 함께 죽었다.¹⁹⁾

이러한 역사적 행적의 기록은 남이 장군의 家系와 함께 약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던 점과 반역죄로 죽게 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왕조실록에 실린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반영시키지는 못하고 있다.²⁰⁾ 그리고 이광익이 기술한 『연려실기술』에는 남이의 옥(獄)과 관련된 사건이 인과 관계를 중심으로 類推해 볼 수 있게 記述되어 있다. 「연려실기술」에는 실록이나 역사적 행적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이 실려 있는데, 이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세조께서 그를 벼슬 등급을 뛰어 병조판서로 임명하였더니, <당시 세자이던> 예종은 그를 몹시 꺼리었다.

◇ 일찍이 권람의 딸이 있어 사위를 고르는데, 남이가 청혼을 하였다. 권람이 점장에게 점을 치게 하였더니 점장이는 “이 분은 반드시 나이 젊어서 죽을 것이니 좋지 못합니다.” 하였다. 자기 딸의 수명을 또 보게 하였더니 “이 분의 수명은 매우 짧고 또 자식도 없으니, 그 복만 누리고 화는 보지 않을 것이므로 <남이>를 사위로 삼아도 무방합니다.” 하였다. 권람은 그 말에 따랐다.

15) 김대웅(2005), 「원 소스 멀티 유즈 문화콘텐츠의 스토리텔링 구조 비교분석」, 경성대석사논문, pp.17~18.

16) 앞의 책, 『李朝實錄』.

17) 『練藜室記述』國譯(1986), 민족문화문고간행회 제6권.

18) 『國朝人物誌』(이상은 편)(1990), 한국역대인물전집성 제1권, 민창문화사.

19)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5(199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p.465~469.

20) 실록은 객관성을 중시하기에 남이 장군의 부정적인 면도 함께 기록해 놓고 있는데, 소설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즉 실제로 있었던 전쟁에서의 활약 등만 실록의 기록을 주로 차용하고 있다.

◇ 남이가 문에 들어가니 본 바른 귀신은 낭자의 가슴을 타고 앉았다가 남이를 보자 즉시 달아나니 낭자는 일어나 앉았다. 남이가 나오니 낭자는 다시 죽었다가 남이가 들어가니 되살아났다. 남이는 “어린 종이 가져온 상자 속에는 무슨 물건이 있었더냐?” 하니 “홍시(紅柿)가 있었는데, 낭자가 이 감을 먼저 먹다가 숨이 막혀서 넘어졌던 것입니다.” 하였다. 남이는 그가 본대로 상세히 말하고 귀신 다스리는 약으로 치료하니 살아났다.²¹⁾

『연려실기술』에는 남이의 豪放한 기상과 죽음과의 연관성, 결혼에 관련된 내용들이 有機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특이한 것은 예종이 세자 때부터 남이를 猜忌하였다는 대목이다. 즉 남이는 귀신이 장대하고 힘이 세며 무예에 출중해 부왕인 세조에게 총애를 받았는데, 자신은 사랑을 받지 못해 질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조실록』과 『예종실록』을 보면 예종은 英敏했고 글을 좋아해 공부를 열심히 했으며 특별히 몸이 허약했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예종은 세조의 죽음을 슬퍼한 나머지 이것이 병이 되어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다.²²⁾ 사료와 개인의 기록의 시점이 다른 것이다. 그리고 결혼에 얽힌 이야기와 귀신을 알아봤던 능력은 후일 그의 능력과 짧은 삶을 민간 신앙과 결부시킨 결과로 이어진다. 이 외에 옥에서 취조를 받은 내용 등은 왕조실록의 기록과 문헌이 비슷하다. 다음으로 『國朝人物誌』에 실린 「南怡傳」의 내용을 살펴보면 실록의 기록과 같이 가문에 대한 내력과 『鍊麤室記述』에 실린 粉面 귀신을 알아본 내용, 권람의 딸과 결혼에 이룬 내용 등이 그대로 수용되어 있다. 褒貶意識을 기지로 하여 사실을 기록해 후대에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人物傳에도 결혼에 관련된 逸話가 삽입된 것은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는데, 남이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 활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실록의 기록이나 『연려실기술』에 비해 남이의 체격이 크고 훌륭한 점이 없었었다는 것과 마지막에 점쟁이가 권람의 딸과 남이의 미래를 예견한 것이 정확히 들어맞았다는 評決 정도가 다를 뿐이다. 이 부분은 소설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그럼 소설 「남이장군실기」의 서사 진행을 제시해 보고 위에 언급한 문헌기록과 중복되는 부분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남이의 아버지인 卮와 태종의 4나인 정선공주가 결혼한-부부 금슬이 좋아 태종이 남희에게 외산군으로 봉하여 줌.(「傳」의 家系를 기술하는 방식과 비슷한)
2. 남이가 유복자로 명문가에서 태어남-크게 잘났음으로 공주가 기뻐하여 이름을 曄라고 지어 줌
3. 남이의 성장 과정(「傳」의 내용이 확장됨)
 - ① 다섯 살에 어른을 공경한 줄 알며 힘이 세어 큰 돌을 굴림
 - ② 일곱 이덟 살에 활을 만들어 활쏘기 공부를 하며 날쌔 말을 타고 다니며 늘 대장이 됨
 - ③ 이덟 살에 글을 배우니 많은 공자들이 따라오지 못한, 세종이 태종의 외손으로 태어난 것을 한탄함.
 - ④ 열 넷에 시서책가를 통달함, 힘이 세고 무예가 출중하여 칼과 활을 쓰는 솜씨가 천하 제일임.
 - ⑤ 열이섯에 소년 무사의 위임이 갖춰짐. 영웅호걸의 기상이 있었음.
4. 남이의 결혼-혼인을 위한 집안은 많았으나 모두 물러짐, 세조가 연회를 베풀 때 어머니 정선공주가 남이를 데리고 들어감.(『연려실기술』에 나온 혼담 이야기 개입)
5. 권람의 딸이 남이를 본 후로 상사병이 생김.(남이가 귀신을 보고 권소지를 살려내는 『연려

21) 앞의 책, 『연려실기술』.

22) 앞의 책, 『이조실록』, 「예종실록」 제8권, pp.415~416.

실기술』의 내용과 「전」의 문면 귀신 이야기가 개입됨)

6. 이시애의 난에서 공을 세움(『실록』의 기록이 개입됨)

7. 오랑캐 왕 이만주를 죽이고 건주위를 공략함(『실록』의 기록이 개입됨)

8. 선출령에 조그만 성을 쌓고 미를 세움(『연려실기술』의 <北征歌> 개입됨)

9. 남이의 죽음

① 유자광은 본래 남이의 위인과 권세가 자기보다 나음을 보고 항상 그를 시기하여 쓰러트리코자 함.

② 유자광이 자신의 첩의 딸을 남이에게 시집보내려다 실패하여 원망함.

③ 예종에게 남이를 모함(『실록』 및 『연려실기술』, 「전」의 내용이 개입됨)

10. 남이의 어머니 정선공주가 왕후 한 씨를 통해 예종에게 남이의 무죄 방면을 청하였지만 실패함.(『연려실기술』의 <北征歌> 개입됨)

11. 남이의 복수와 예종의 죽음-남이가 죽은 날 밤에 예종의 꿈에 나타나 무죄라 주장함. 남이의 죽음은 혼이 와서 침노하여 점점 마음이 놀래 병이 되어 이해 11월에 예종이 죽음.²³⁾

소설은 남이의 부모가 결혼하게 된 배경을 시작으로 탄생과 활약, 죽음, 사후의 무죄 주장으로 인한 예종의 죽음으로 전개되어 있다. 기존 문헌기록에 실린 내용들을 패러디하면서²⁴⁾ 마치 모든 내용이 사실에 기초한 것처럼 실감나게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소설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왕조실록』과 『연려실기술』, 「남이전」에 실려 있는 내용이 개입된 부분이 11개 난각 중에서 무려 8개 항목에 이른다. 이것은 기존에 널리 알려진 문헌기록을 최대한 활용해 스토리가 형성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으로 傳記小說的인²⁵⁾ 성향을 띄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소설의 난각 1은 남이의 부모가 결혼한 것은 고귀한 가문의 결합이며 이는 남이의 출생이 갖는 신분상의 특징임을 부각시킨 것이다. 다만 태종과 원경왕후의 婚談에 대한 화기애애한 대화로 이야기의 밀미를 삼고 있다는 점이 다름 뿐이다. 그리고 2번 항목은 남이의 이름을 짓게 된 동기를 밝힌 것으로 글자의 뜻에 가넨 온전한 허구이며 3번 항목은 인물전에 실려 있는 남이에 대한 신체적인 평가를 細部的인 나이를 제시하면서 구체화를 꾀한 부분이다. 다음으로 4, 5, 6, 7, 8번 항목은 남이의 혼인과 결혼에 얽힌 이야기, 활약에 관한 내용으로 실록과 『연려실기술』의 내용을 그대로 좀 더 박진감 넘치게 확장시킨 것이다. 그리고 9번 항목은 남이의 모함에 관한 것으로 평소 유자광과의 관계가 악화되었던 원인과 모함 사이의 因果 관계를 문헌 기록을 토대로 현실감 있게 꾸며놓았다. 항목 10번은 남이의 어머니가 남이의 방면을 위해 노력한 부분으로 허구이지만 현실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을 자연스럽게 개입시킨 것이다. 마지막으로 난각 11번은 남이가 억울하게 죽은 것과 예종의 죽음을 연결시킨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야기의 시작과 전개는 「전」의 기술 방식을 차용했고 사실적 활약은 「실록」의 기록을, 결혼담과 죽음은 「연려실기술」의 내용을 반영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소설은 다양한 문헌기록에 존재하는 소재를 최대한 활용하여 내용을 치밀하게 제배

23) 소설 「남이장군실기」

24) 정출현(2006), 「고전소설의 ‘천편일률’을 패러디의 관점에서 읽는 법」, 『국제어문』제38집, 국제어문학회, p.79.

25) 조선후기에 한글로 씌여진 군담소설의 경우 그 성향에 따라 창작군담, 역사군담, 번안군담으로 분류한 경우가 있는데, 「남이장군실기」의 경우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했다는 점에서 역사소설이다. 그리고 실존했던 남이라는 인물의 삶에 허구가 가미되어 전기소설의 성향도 지니게 되었다고 하겠다.(서대석(1985), 『군담소설의 구조와 배경』, 이화여대출판부, p.11, 앞의 책, 김용덕(1993), 「전기소설의 통시적 고찰」, p.286.)

치, 실감나게 기술해 놓았다. 그러나 단순히 역사적 사실만을 차용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想像力이 가미되면서 남이라는 인물을 기존의 문헌기록과는 차원이 다른 인물로 형상화시키고 있다. 문헌기록을 수용함으로써 주인공이 역사적으로 간직한 이미지를 크게 훼손시키지 않으면서도 당시 독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이상적인 인물로 탈바꿈시켜 놓은 것이다.²⁶⁾

2. 탁월한 능력과 운명적인 사랑의 形象化

남이는 왕실의 外孫이라는 신분에 걸맞게 어려서부터 무예와 글공부에도 타고난 재능을 보였다. 또한 迂餘曲折 끝에 사랑하는 여인과의 결혼에 성공하게 되면서 완벽한 영웅의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주인공의 능력과 이성과의 로맨스는 스토리텔링의 중요한 요소인데, 소설 『남이장군실기』는 이야기의 대부분을 남이의 능력을 바탕으로 한 활약과 운명적인 사랑에 傾倒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주인공의 활약과 로맨스가 없었다면 작품 자체가 성립되기 힘들었을 정도이다.

남이 장군의 능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검토해 볼 수 있다. 성장기부터 무과에 급제하기 전과 무과에 급제하여 장군이 되어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이다. 태어나서부터 어린 시절을 보내는 동안에 나타난 남이의 능력은 다음과 같다.

◇ 태어나서부터 얼굴이 영특하고 울음소리 크며 눈을 뜰 때 그 눈에 번갯불 같은 빛이 있으며 골격이 매우 장대하더니 나이 점점 자람에 그 속성하기 짝이 없었다.

◇ 열네 살에 이미 시서백가를 배워 다 통달하므로 글공부는 그것으로써 <중략> 말 잘 타고 활 쏘고 병법에 무소불통하여 혼자 능히 천 사람을 당하며, 그 날랜은 천하에 제일이라. 여러 사람들이 다 그 재주를 칭찬하고 그 위풍을 무서워하더라.

◇ 남이 이제는 열여섯이 되었다. 그 빛난 얼굴 무서운 눈 크고 웅장한 체격에 은비늘 달린 전복을 입고 나는 듯한 말에 올라 어깨에 화살을 메이고 허리에 장검을 차고 말을 몰아 나갈 때에는 보는 사람마다 보는 사람마다 다 소년 무사의 위엄에 놀래더라.²⁷⁾

남이는 16세가 되면서 모든 능력이 갖춰진 영웅으로 그려지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갖춰진 능력은 장수로서의 자질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면서도 인간으로서의 됨됨이와 학문에 대한 자질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싸움에 능한 장수이자 윤리도덕과 학문에도 통달한 儒敎에서 중시하는 가장 이상적인 장수형 인물로 형상화 된 것이다.²⁸⁾ 즉 名文家에서 태어나 고귀한 신분을 지녔고 어려서부터 힘과 무예, 학문을 쌓은 완벽한 영웅의²⁹⁾ 모습으로 민초가 이루어진 것이다. 다만 한 가지 단점이라면 편보술하에서 성장한 것인데, 이러한 사정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 남이의 능력은 이시애의 난과 건주위 공략에서 유감없이 발휘되는데, 성장과정에서 드러난 남이의 능력은 첫째 일반 사람들과 큰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며 두 번째는 싸움에만 능한 장수와는 다른 문무가 겸비된 장수형 관료를 표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갖추어진 능력은 이시애의 난과 건주위 정벌에서 유감없이 발휘된다.

◇ 이때 남이는 선봉대장으로 군사 삼만 명을 거느리고 강순, 어유소와 함께 주야배도하여 빨리 달려가 함경도에 들어가니 함흥에 있던 적병이 도망하여 북쪽으로 가거늘 남이 무리 더욱 군사를 몰아 홍원에 다다르니 적병이 많이 모여 막아 싸우거늘 남이의 무리 군사를 지휘하여 적병을 시살할 때 남이 칼을 빼어 적장을

26) 김용범(1991), 「實存人物의 小說化科程 연구」, 『한양어문연구』9집, 한양어문학회, p.215.

27) 소설 『남이장군실기』

28) 주인공의 능력을 통한 이상적인 인물의 형상화는 가전의 주인공과 흡사하다.(안기수(2006), 『영웅소설의 수용과 변화』, pp.319~320., 졸고(2009), 「가전의 서사 구조와 스토리텔링」, 『한민족문화연구』, p.21.)

29) 조동일(1971), 「영웅의 일생 그 문학사적 전개」, 서울대 『동아문화』10, p.169.

치매 적장의 머리 추풍낙엽 같이 떨어지는지라.

남이의 환약은 이시애의 난에 선봉대장으로 참이하면서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 이시애의 난에 큰 공을 세운 남이를 세조가 致賀하면서 직개공신 1등에 봉한다. 그리고 어유소 장군과 함께 북쪽을 자주 침공하는 이진을 지 建州衛를 회복하게 되면서 남이의 대외적인 환약은 정점에 이른다. 물론 남이가 두 번의 전쟁에 참이하여 승리하게 된 배경에는 타고 난 무인으로서의 실력과 적의 허를 찌르는 방법을 익혔던 데 있었다. 즉 자신이 갖고 닦은 것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이름을 떨치게 되었는데, 남이에게 대항할 수 있는 상대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환이면 환, 칼이면 칼, 말 타기면 말 타기 등 모든 조건이 충족된 환상적인 존재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남이는 장수로서의 능력 못지않게 우직하고 면치 않는 아름다운 사랑도 이루어 있다. 남이의 결혼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다소 超人的인 능력이 등장하는데, 이 능력이 결혼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남이에게는 그동안 어디 가문에서 혼담이 들어왔지만 모두 거절한 상태였는데, 세조가 베푼 연회에서 권소지를 처음 보는 순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 권소지 또한 남이를 처음 보는 순간 깊은 연모의 정이 생겼다. 남이와 권소지의 사랑은 천생연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혼담이 오고가면서 뜻밖에도 남이의 사주가 걸림돌이 되었다. 이러한 혼담에 관련된 소재는 『연려실기술』과 「남이전」에도 실려 있는데 소설은 이를 좀 더 장황하게 일화형식으로 기술해 놓았다.

◇ 최진사 가로되 이 사람이 본래 귀한 집안에서 나고 또 이 사람의 위인이 매우 훌륭하겠으나 다만 이 사람이 매우 단명하여 삼십 이내에 죽을 터이니 어찌 그런 사람하고 혼인하시리까? 하거늘 권정승이 한탄을 말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딸을 위하여 사위를 구하던 중에 가장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하였더니 이제 진사의 말이 그러하니 어찌 불행이 아니리오.³⁰⁾

사람의 運命은 알 수 없는 것이지만 단명하리라는 預言은 退婚을 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상황을 불러왔다. 혼담이 잘 진행되는 줄 알고 있던 권소지는 뜻밖의 퇴혼이라는 상황에 봉착하자 그 반 마음에 큰 병이 생겼다. 남이는 권소지가 죽음병에 걸렸다는 전갈을 받고 그 길로 여종을 따라 나선다. 하지만 목숨을 걸반치 복잡한 것 같던 문제는 의외의 사건으로 인해 쉽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된다.

◇ 권정승이 놀라 반기며 남이더러 물어 가로되 네 무슨 재주 있어 능히 이렇게 죽었던 사람을 살려내기 여러 번 하시고, 남이 여쭙어 가로되 그는 다름 아니오라 제가 매번 이 댁에 와본즉 한 무서운 마귀 있어서 소저의 두 팔을 붙잡고 정신을 빼앗는 고로 제가 들어와 소리를 치면 그 마귀 달아나오니 그러하여 소저 다시 살아났나이다 하더라.³¹⁾

선통사회의 價値인 四柱八字의 벽을 두 사람의 운명을 건 간절한 마음과 신이한 능력으로 무너트린 것은 실로 환상적이다.³²⁾ 남이가 권소지를 세 번씩이나 살려낸 후 권정승이 남이의 능력에 놀라 사위를 삼고 싶었으나 短命한다는 것 때문에 못했다는 말을 전한다. 이때 남이는 권정승에게 딸의 사주도 볼 것을 제안하고 사주장이를 만나게 되자 권소지와 혼인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

30) 소설 「남이장군실기」

31) 소설 「남이장군실기」

32) 이러한 신이한 이야기는 한자문화권에 존재하는 환상이라고 할 수 있다.(최기숙, 『환상』, 연세대학교출판부, 2007, 8쪽)

박한다.

◇ 최진사 권정승의 기별을 듣고 곧 떠나와 권정승의 집을 향하는 중로에 남이와 서로 만났다. 남이 최진사더러 권소저의 이야기를 일일이 하고 아무쪼록 권소저가 단명하다고 하여 혼인되게 하여 달라고 부탁하니 최진사 허락하더라.

남이는 전적으로 자신의 의사에 따라 배우자를 결정했으며 결혼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간다. 이는 근대 시기 결혼에 대한 관념이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조선시대 지배층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면서도 一人一妻제의 아름다운 사랑을 은연중에 내세우고 있는데, 이것은 사료를 유추해볼 때 남이가 비록 권소저가 죽은 후로 점을 얻기는 했지만 결코 새로 결혼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이겨진다. 즉 영웅의 결혼을 통해 근대의 결혼관을 투영시키고자 한 것으로 짐작된다. 이로 본다면 남이와 권소저의 사랑을 통해 본인의 의사가 중시된 결혼과 일부일처제를 志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남이가 보여준 박원한 능력과 활약, 권소저와의 운명적인 사랑이야기는 세부적인 사건과 일화 등이 결합되면서 소설을 이끌어 가는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남이라는 인물을 통해 근대에 요청되었던 영웅의 모습과 사랑에 대한 유교적 관념들이³³⁾ 문학적으로 형상화 되어 있다고 하겠다.

3. 善惡의 設定과 悲劇的 結말

善과 惡의 대결은 소설에 존재하는 葛藤의 요인이자 주인공의 능력과 남이 간의 로맨스처럼 스토리텔링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대결의 원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상대방을 견제한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만 문제가 된다면 善人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게 되어 현실에서 敗北한 다거나 惡人이 잘못을 지지르기도 큰 대가를 치루지 않고 富貴榮華를 누린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는 옳은 일을 하고 바르게 산 사람이 잘 될 것이라는 일반적인 기대심리가 존재한다. 그러나 세상일은 그렇지 못한 때가 더 충격적이다. 남이 장군처럼 타고난 능력과 큰 공을 이루고도 어느 날 갑자기 누명으로 죽음을 맞은 것이 그런 예이다. 죽음의 원인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비극적 죽음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죽음으로 몰아간 대상에 대한 민중들의 怨憤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다. 이는 마치 근대 우리나라가 처했던 상황과도 닮은 점이 많다.

소설에서 남이 장군의 죽음과 관련된 내용은 因果關係를 바탕으로 시간순서에 따라 제구성된 형태를 취하고 있다. 즉 “예종이 세자 때부터 남이를 미워함→유자광이 남이가 어머니인 정순공주와 사통했다고 모함함→예종이 유자광의 무고를 받아들이 남이를 잡아들임→해성을 빌미로 억적으로 몰아 죽이코자 함→남이에 대한 고문→희종의 무고 주장→남이가 강순도 함께 모의했다고 주장→예종이 남이의 역모에 대해 유자광에게 제차 확인하자 <북정가>를 들먹이며 오래전부터 계획되었다고 주장함→남이의 죽음”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소설은 이런 소재들을 활용함에 있어 독자들이 納得할 수 있는 前後 事情들을 적극적으로 개입시켜 놓았다. 문헌기록에는 없는 내용들이 添加되면서 남이가 죽게 된 과정이 나름대로 짜임새를 갖게 된 것이다.

33) 근대 역사소설이 서사적 유형화를 통해 재생산한 역사 의미는 유교적 세계, 즉 주자학의 범주에서 구축된다는 지적은 타당해 보인다. 그러므로 『남이장군실기』에 나타난 남이의 영웅적 변모나 권소저의 남이에 대한 지순한 사랑 또한 유교에서 중시한 忠과 烈을 반영한 결과라고 하겠다.(송기섭(2004), 「근대 역사소설의 서사적 조건」, 『어문학』제85호, p.371.)

◇ 중매가 돌아가 자광에게 남이의 말을 고하며 가로되 남이 매우 냉담하여 조금도 감사히 생각하는 빛이 없더이다 하니 자광이 그 말을 듣고 생각하되 아마 남이 자기의 간사함을 미워하여 혼인을 거절한 것이라 하고 깊이 원망하더라.³⁴⁾

유자광은 역사에서 간신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實錄을 보면 세조 때까지만 해도 유자광의 간사함은 보이지 않는다. 이시애의 난이 일어났을 때 유자광은 갑사라는 직책에 머물러 있었는데, 세조에게 이시애의 난을 진압하는 총대장 구성군 준이 서둘러 공격해야 한다는 취지로 올린 글로 인해 寵愛를 받게 되었다.³⁵⁾ 진숙주는 유자광의 문장력이 형편없다고 폄하하기도 했지만 사리분별력과 정황 파악이 뛰어났던 것이다.³⁶⁾ 결국 세조 때 兼司僕將에 올랐고 예종 때는 무령군에 제수되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예종 당시에 유자광의 고변으로 남이가 죽게 되면서 개인적인 미움 때문에 유자광이 모든 일을 주도하여 남이를 죽게 했다고 설정한 것이다. 이런 사정에 의해 소설에서 남이는 혼잡을 데 없는 영웅이면서도 억울하게 죽은 못한 존재로 그려지고, 유자광은 모든 능력이 제거된 채 사육에 힘쓰고 위대한 영웅이자 충신을 역적으로 몰아 죽인 惡人의 表象으로 자리하게 되었다.³⁷⁾ 『왕조실록』에 실려 있는 남이의 무인으로서의 거친 성격과 구성군 준과의 갈등, 예종이 죽은 진짜 이유, 유자광의 제능 등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는 남이를 한껏 드러내고 상대적으로 유자광을 깎아내리기 위한 설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유자광은 악인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그에 대한 직접적인 懲罰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충신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용서할 수 없는 존재라는 원망만이 담겨있을 뿐이다. 단지 벌이라면 그가 후일 역모 죄로 죽게 되는 점이다. 남이의 죽음과 관련된 책임의 화살은 어디까지나 조정의 최고 책임자였던 예종을 향해 있다. 그리고 유자광이 남이를 저음에 대역 죄인으로 고변한 원인이 어머니인 정순공주와 私通했다는 것인데, 이는 유자광과 예종의 인간성이 심히 보잘 것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모자간의 사통은 유교를 숭상했던 조선의 이념과 정면으로 背馳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왕실의 체면 때문에 예종은 죄목을 따질 수밖에 없었다.

◇ 예종이 가로되 물론 남이를 죽일 터인데 그러나 그 사실대로 죄를 발각한다면 왕실의 수치요 나라의 욕이 되니 그것을 어떻게 묘하게 처리할 도리가 없겠느냐? 자광이 가로되 원래 남이는 죽을죄가 여러 가지올시다.³⁸⁾

유자광은 남이의 내역죄를 어머니와의 사통에서 찾았다. 예종 또한 단순히 유자광의 발반 듣고 보는 것을 저절하고 맡았다. 『왕조실록』에는 남이가 탁문이라고 하는 애첩이 있었으며 어머니의 말을 매우 어렵게 어겼다는 대목이 나온다.³⁹⁾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유자광의 고변은 현실적으로 설득력을 잃게 된다. 하지만 소설에서는 이런 허구를 개입시켜 남이와 유자광의 대치가 구혼이 깨진 것에 있음과 함께 유자광을 윤리의식을 무시한 惡人으로 전락시켜 놓았다.

결국 충신인 남이의 억울한 죽음은 간신 유자광 때문이며 無能했던 왕이 그 대가로 벌을 받게 됨으로 인해 조금이나마 解冤이 이루어지게 설정해 놓았다.⁴⁰⁾ 예종에 대한 난죄는 환상상이 개입

34) 소설 「남이장군실기」

35) 앞의 책, 『이조실록』, 『세조실록』 제42권, pp.171~172.

36) 위의 책, 『이조실록』, 『세조실록』 제45권, p.40.

37) 유자광의 惡人의 성향은 출세에 대한 욕망에서 찾을 수 있다.(류수열 외, 『스토리텔링의 이해』, 글누림, 2007, 178~180쪽)

38) 소설 「남이장군실기」

39) 앞의 책, 『이조실록』, 『예종실록』 제2권, pp.197~198.

40) 대부분의 이야기가 행복한 결말을 보이는데 반해 「남이장군실기」는 비극적으로 귀결된다. 이는 민담의 원형

된 꿈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군왕이었기 때문에 남이의 혼령에 시달려 자연사한 것으로 설정한 듯하다. 만약 군왕을 직접적으로 징벌했다면 이는 진짜 逆謀가 되기 때문이다. 예종의 죽음에서 많은 독자들은 일종의 회일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예종이 죽었다고 해서 남이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원망이 모두 해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나라를 구한 충신이자 영웅이었던 남이가 간신의 무고로 낙방하지 못하고 죽게 됨으로 인해 이야기의 결말에 강한 비극성이 존재하게 되었다. 이처럼 명문대가 충신이면서도 결말이 비극적 죽음으로 귀결되는 영웅 이야기는 우리 역사에서 數見되는 비극적 영웅의 한 유형인데,⁴¹⁾ 남이의 죽음에 내제된 비극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개인의 문제로 능력 있고 전도양양한 장수가 모함으로 젊은 나이에 죽은 것이며, 둘째는 국가에 큰 공을 세운 충신이 보잘 것 없는 악인에게 패한 것이며, 셋째는 군왕의 무지와 주변의 많은 관료들이 자신의 안위 때문에 구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남이의 죽음은 결국 개인의 비극이자 국가적으로도 뛰어난 인재를 잃었기 때문에 민중들에게는 막대한 손실이라는 의식이 지면에 깔려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남이의 죽음에 담긴 비극성이 그에 관한 이야기를 시대를 넘어 계속 이어지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볼 수 있다.

III. 새로운 스토리 創作에 활용 可能性

과거의 일정한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둔 영웅이야기는 디지털로 대표되는 21세기에도 여전히 健在를 과시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영상매체의 눈부신 발전에 힘입은 것으로 영웅이야기는 드라마와 영화, 게임 등 다양한 장르로 영역을 확대해 가고 있다. 그러나 과거와 차이점이 있다면 영웅의 독특한 행적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적절하게 변화시켜 공감을 誘導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수백 년의 시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것은 탄탄한 스토리텔링의 특징들이 내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이야기가 독자들로부터 꾸준한 관심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원소스에 특수성과 보편성은 물론 친숙함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때로는 친숙함이 식상하게 비취질 수도 있지만 일정한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익숙한 이야기는 조그만 변화에도 큰 매력을 느끼기 때문이다. 일례로 숙종과 장희빈에 얽힌 이야기는 수없이 되풀이 되고 있지만 매번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친숙한 이야기에 특수성과 보편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체 높은 왕과 지체 낮았던 후궁의 사랑이라는 점에서 매우 특별하지만 인간의 사랑이 어떠한 하는가를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普遍的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볼 때 소설 『남이장군실기』는 독특한 남이 장군의 일생을 원소스로 하여 근대라는 시각에서 리뉴얼한 작품이다. 그러므로 『남이장군실기』는 근대라는 시대적 배경과 작품의 특수성으로 인해 특징적인 스토리텔링의 방식들이 발견된다. 이러한 스토리텔링에 활용된 방식들은 오늘날 새로운 역사소설의 창작은 물론, 문화콘텐츠로 거듭날 수 있는 蓋然性이 존재한다.⁴²⁾

먼저 소설 『남이장군실기』는 다양한 文獻記錄에 실려 있는 소재들을 최대한 受容하면서 이야기를 실감나게 전개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문헌기록의 수용과 확장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패러디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인공의 모습을 시대가 요청하는 이상적인 인물로 형상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즉 주인공에게 刻印된 이미지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일화 등이 가미되면서 더 박진감 넘치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다. 아울러 문헌기록의 수용은 작품에 신빙성을 더해 준다는 장점도

과 닮아 있기는 하지만 결코 혼한 유형이 아닌 것이다.(이인화 외(2003), 『디지털스토리텔링』, 황금가지, pp.122~125.)

41) 졸고(2006), 『한국 「전」문학 연구』, 보고서, pp.28~48.

42) 김종군, 『고전문학과 문화콘텐츠』, 문학과 치료, 2009, PP.322~324.

앞의 책, 안기수, 『한국 영웅소설의 게임 스토리텔링 방안 연구』, P.92.

있다. 이러한 예는 이타의 역사인물을 대상으로 한 구활자본 소설에서도 쉽게 발견되는데, 이는 오늘날의 역사인물을 대상으로 한 스토리텔링에도 충분히 응용 가능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뛰어난 능력을 바탕으로 한 주인공의 활약과 아름다운 이인과의 운명적인 사랑을 형상화한 것이다. 「남이장군실기」는 역사 소설이지만 특정한 사건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남이라는 인물이 지닌 환상적인 능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소설 속의 주인공 남이는 문무를 兼備한 이상적인 무인형 관료라고 할 수 있는데, 그의 능력은 그 누구도 능가할 수 없는 완벽에 가까운 형태로 묘사되어 있다. 이는 많은 영웅소설의 주인공에게서 쉽게 확인되는 요소이다. 그리고 남이는 무인이었기 때문에 다소 거칠고 활달한 인물로 묘사될 수도 있는데, 사랑을 쟁취함에 있어서는 매우 적극적이고 인간적이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주인공의 탁월한 능력과 운명적인 사랑은 時流를 타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의 스토리 창작에도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선인과 악인의 설정 및 결말에 나타난 비극성이다. 남이는 충신이자 혼잡을 데 없는 인물로 그려져 있으며 유자광은 인간성이 의심스러운 속 좁은 간신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선한 인물과 악한 인물의 대결 구도는 이야기 전개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이 둘 사이의 직접적인 대결은 벌어지지 않는다. 이는 악인이 왕의 뒤에서 숨어서 모함하는 형태를 지니기 때문인데, 소설은 현실에 존재했던 남이의 부정적인 면과 유자광의 긍정적인 면은 모두 제거된 채 선악이라는 특징에 충실한 인물형으로 설정해 놓았다. 선악의 설정은 작품의 전개에서부터 결말에 이르기까지 긴장감을 갖게 하는 요소이다. 이는 모습만 다를 뿐 오늘날 많은 작품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비극적인 결말이다. 비극적인 결말은 흔히 많은 소재임이 분명한데, 중요한 것은 선악의 대결에서 오는 비극적 죽음은 수 백 년의 시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는 요소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비극적 결말은⁴³⁾ 개인의 삶에 드리워진 좌절과 비애는 물론 시대적인 부조리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V. 맺음말

이상으로 근대 역사소설인 「남이장군실기」를 분석해 스토리텔링의 양상을 살펴보고 새로운 스토리 창작에 활용될 수 있는 특징들을 검토해 보았다.

주지하다시피 남이 장군의 드라마틱한 삶은 그 동안 비극적 영웅의 일생이라는 관점에서 조명되어져 왔는데, 『왕조실록』과 『연려실기술』, 「남이전」 등에 그에 관한 기록들이 실려 있다. 그런데 1920년대에 이르러 구활자본으로 「남이장군실기」라는 역사소설이 등장하면서 남이 장군의 삶이 다시 조명되게 되었다. 근대에 남이 장군에 관한 이야기가 관심을 끌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그의 행적과 시대적인 상황이 맞아 떨어진 결과로 이어진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박진감 넘치는 사건 전개와 탁월한 능력, 비극적 죽음 등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독자들의 관심을 끌었기 때문이라고 이어진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소설 「남이장군실기」가 근대에 창작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던 이유를 스토리텔링의 양상에서 찾아보고자 했다. 한 편의 이야기가 흥미를 끌기 위해서는 일정한 서사적 특징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데, 근대 역사소설 「남이장군실기」에도 이러한 점이 존재하는 것이다.

본고에서 텍스트로 삼은 소설 「남이장군실기」를 분석한 결과 오늘날의 스토리텔링 환경에 활용할 수 있는 요소는 대략 세 가지 정도이다.

43) 김관웅(1993), 「고소설에서 보여지는 비극적 요소에 대하여」, 『고소설사의 제문제』, 집문당, p.118.

첫째, 사실에 바탕을 둔 역사소설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문헌기록을 수용한 실감나는 사건 전개이다. 소설 「남이장군실기」에는 『왕조실록』과 『연려실기술』, 「남이전」 등에 실린 내용들이 대부분 등장하는데, 11개의 서사 단락 중에서 무려 8개나 연관되어 있다. 물론 이와 같은 문헌기록에 일정한 상상력이 가미되면서 남이 장군의 이미지가 현실과는 차원이 다른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하지만 문헌기록의 활용은 기존의 진숙함을 바탕으로 이미지를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독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좋은 스토리 창작 방법의 하나라고 하겠다.

둘째, 탁월한 능력과 운명적인 사랑의 형상화이다. 영웅이라면 누구나 위상에 어울리는 능력을 지니고 있게 마련인데, 남이는 문무를 겸비한 무인형 관료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남이의 능력은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환상적인 것으로 이는 두 번의 전쟁에서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그리고 권소지와 결혼에 이르는 운명적인 사랑 또한 전통사회의 관습을 극복하면서 아름다운 결과로 이어졌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남이가 주관적으로 배우자를 선택하고 일부일처제에 충실한 인물로 묘사됨으로써 근대시기의 결혼관을 대변하고 있다고 하겠다. 주인공의 능력과 운명적인 사랑은 스토리텔링의 근원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소설에서도 잘 구현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선악의 설정과 비극적 결말이다. 소설에서 남이는 충신이자 선한 인물이며 유자광은 간신이자 악인으로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선악의 대결에서 선한 사람에 해당하는 남이가 억울하게 죽게 됨으로써 패배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죄 값을 무고로 방조한 예종이 갑작스런 죽음으로 받았다. 그리고 충신인 남이가 억울하게 죽음으로 인해 결말에 강한 비극성을 띄게 되었는데, 이는 흔히 많은 경우로 작품에 강한 인상을 남기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뛰어난 영웅의 비극적 죽음은 역사 인물 스토리의 소재로서 많은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독특한 설정이라고 하겠다.

이와 같은 특징들이 근대 역사소설 「남이장군실기」에 개입되면서 한 편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탈바꿈 되었다. 오늘날 스토리텔링을 일리 흔히 문화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문화콘텐츠의 꽃이라고 부른다. 이처럼 원천적인 스토리텔링이 중요해진 시점에서 「남이장군실기」에 나타난 스토리 창작의 특징을 활용한다면 좀 더 다양한 콘텐츠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國朝人物誌』제1권(1990), 민창문화사.
- 『南怡將軍實記』(1990), 舊活字本 『古小說全集』 第二卷, 인천대민족문화연구소.
- 『練鰲室記述』國譯제6권(1986), 민족문화문고간행회.
- 『李朝實錄』(1993), 이강훈판사.
- 『韓國民俗大事典』1(1991), 민족문화사.
- 『韓國民族文化大百科事典』5(1996),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 논문지

- 강명혜(2007), 「고전시가와 스토리텔링」, 『운지논총』 제16집, pp.132-149.
- 김관용(1993), 「고소설에서 보이는 비극적 요소에 대하여」, 『고소설사의 제문제』, 집문당, p.118.
- 김대웅(2005), 「원 소스 멀티 유즈 문화콘텐츠의 스토리텔링 구조 비교분석」, 경성대석사논문, pp.17~18.
- 김용택(1993), 「전기소설의 통시적 고찰」, 『고소설사의 제문제』, 집문당, p.292.
- 김용범(1991), 「實存人物의 小說化科程 연구」, 『한양어문연구』9집, 한양어문학회, p.215.
- 김의숙, 이창식(2008), 『한국신화와 스토리텔링』, 북스힐, p.68.
- 김종근, 『고전문학과 문화콘텐츠』, 문학과 치료, 2009, PP.322~324.
- 김찬기(2004), 『한국 근대소설의 형성과 전(傳)』, 소명출판, pp. .
- 류수일 외(2007), 『스토리텔링의 이해』, 글누림, , pp.178~180.
- 박상완 외, 『문화콘텐츠와 인문정신』, 오스코, 2009, pp.59~66.
- 서대석(1985), 『근대소설의 구조와 배경』, 이화여자출판부, p.11.
- 송기섭(2004), 「근대 역사소설의 서사적 조건」, 『어문학』제85호, p.371.
- 안기수(2006), 『영웅소설의 수용과 민화』, pp.319~320.
- _____,(2010) 「한국 영웅소설의 세입 스토리텔링 방안 연구」, 『우리문학연구』 제29집, 우리문학회, p.72.
- 유권석(2000), 「남이전 연구」, 『어문연구』108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pp.98~99.
- _____,(2006), 『한국 「전」문학 연구』, 보교사, pp.28~48.
- _____,(2009), 「가전의 서사 구조와 스토리텔링」, 『한민족문화연구』, 2009, p.21.
- 이승윤(2009), 『근대 역사담론의 생산과 역사소설』, 소명출판, pp.62~65.
- 이인화 외(2003), 『디지털스토리텔링』, 황금가지, pp.122~125.
- 정창권(2008),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북코리아, pp.38~39.
- 정환현(2006), 「고전소설의 ‘천편일률’을 패러디의 관점에서 읽는 법」, 『국제어문』제38집, 국제어문학 학 회, p.79.
- 조동일(1971), 「영웅의 일생 그 문학사적 전개」, 서울대 『동아문화』10집, p.169.
- 최기숙(2007), 『환상』, 연세대학교출판부, p.8.
- 최예정, 김성룡(2005), 『스토리텔링과 내러티브』, 글누림, pp.60~127.
- 함복희(2007), 「설화의 문화콘텐츠화 방안 연구」, 『어문연구』134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pp.152~156.
- 허반옥(2008), 「문화콘텐츠에서의 디지털스토리텔링 양상과 방향 연구」, 『우리문학연구』 23집, pp.301-302.
- 매일경제, 「<선택이왕>, 역경 딛고 일어서는 영웅이야기 통했다」, 2009년 6월 10일자 기사.

<화양노정곡> 고찰

이효숙(강원대학교 강사)

<목 차>

1. 서론
2. <화양노정곡>의 여정
3. <화양노정곡>의 특징
4. 문학적 공간으로서의 '화양구곡'과 <화양노정곡>의 문학사적 의의
5. 결론

1. 서론

성리학을 사상적 기반으로 삼았던 조선은 주자(朱子, 1130~1200)의 학문에 크게 영향을 받아왔음은 주자의 사실이다. 주자의 영향은 미단 학문적인 경향에 그친 것이 아니라 조선의 정치와 문화 전반에까지 두루 미쳤다. 이른바 '學朱子'라는 말이 있듯이, 주자는 조선의 사대부들의 삶의 한 지향으로 자리잡았다. 조선 중기에 이르러서 조선은 국내외로 급박한 변화 속에 놓여 있었다. 이황과 이이, 두 학자를 필두로 하여 성리학이 난숙기에 접어들었는가 하면 대외적으로는 임진왜란과 명·청의 교체기를 맞았다. 급변하는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국내 정국 또한 학문적·사상적·정치적 요인으로 여러 차례의 환국을 거듭하였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주자의 학문과 삶의 방식은 조선의 사대부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 그 일례가 주자의 무이구곡 경영¹⁾을 본뜬 일련의 구곡 문화의 향유였다.²⁾

화양구곡에 대한 조선시대 기록물로는 『화양지』, 『화양동지』가 있다. 『화양지』는 1747년 송시열의 후손인 潭谷 송주상이 기록한 것이며, <화양동지>는 상해웅이 기록한 것으로, 『研經齋全集』

1) 주자는 福建省 武夷山에 武夷精舍를 건립하고 九曲을 경영하며 강학에 몰두하였다. 무이정사 건립이 완성된 1183년에는 序와 함께 <무이정사잡영> 12수를 지어 무이정사 주위의 풍경과 생활을 기록하였고, 이듬해(1184년)에는 <순희 갑진년 2월에 정사에서 한가히 거하다가 무이도가 10수를 장난으로 지어 함께 노니는 벗들에게 보여 주며 서로들 한번 웃었다.(淳熙甲辰中春精舍閑居戲作武夷權歌十首呈諸同遊相與一笑)> 『주자대전』 권9(이른바 ‘<무이도가>’) 10수를 지었다.

2) 구곡과 관련된 연구는 문학뿐만 아니라, 미술, 철학,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계속되고 있으며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고연희, 『조선시대 산수화, 아름다운 필묵의 정신사』, 돌베개, 2007. ; 金文基, “九曲歌系 詩歌의 系譜와 展開樣相”, 『국어교육연구』 23, 1991, 35-86쪽. ; 노재현, “구곡원림의 원류, 중국 武夷九曲의 텍스트성”, 『韓國造景學會誌』 36, 2009, 66-80쪽. ; 沈慶昊, “朱子『齋居感興詩』와『武夷權歌』의 조선판본”, 『서지학보』 14, 1994, 3-36쪽. ; 윤진영, “조선시대 구곡도의 수용과 전개”, 『미술사학연구』 217-218, 1998, 61-91쪽. ; 이민홍, 개정판 『조선조 시가의 이념과 미의식』,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0. ; 이상원, “조선후기 고산구곡가 수용양상과 그 의미”, 『고전문학연구』, 2003, 42-43쪽. ; 이은창, “한국유가 전통원림의 연구”, 『한국전통문화연구』 4집, 1998, 298-304쪽. ; 조규희, “조선 유학의 ‘道統’의식과 九曲圖”, 『역사와 경계』 61, 2006, 1-24쪽 ; 졸고, 「조선시대 ‘무이도가’ 수용에 대한 연구 현황과 전망」, 『어문론집』 43, 중앙어문학회, 2010, 245-266쪽.

外集「尊攘類」편에 실려 있다. 이 중 책들은 최근 우암 탄신 400주년을 맞이하여 충북대학교 우암연구소를 중심으로 ‘우암학술총서’로 번역·출간되었다.³⁾ 이 외에도 화양구곡과 관련된 서적들이 출간되고 있어 구곡과 구곡 문화 전반에 대한 연구의 기틀을 제공하고 있다.⁴⁾ 근래에 화양구곡에 대한 연구는 송시열 관련 연구와 함께 폭넓게 진행되고 있다.⁵⁾

본고에서 살펴볼 <화양노정괴>는 1910년대 화양구곡을 유람하고 기록한 기행문이다. 이 작품은 한글로 기록된 작품이라는 점과, 일제 초기에 기록된 기행문이라는 점, 특히 구곡을 유람하고 쓴 기행문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하는 작품이나 현재까지 학계에서는 이 자료에 대하여 주목한 바가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선 <화양노정괴>의 전반적인 구성을 살펴 볼 것이다. 아울러 <화양노정괴>의 문학적 특성을 살펴 작품 속에서 형상화된 ‘화양동’이라는 공간의 상징적 의미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하이 <화양노정괴>가 지닌 문학사적 의미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 작업은 조선 중기부터 온 문화적 흐름을 형성하였던 구곡과 구곡에 대한 의미가 근대에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며, 한편으로 조선 후기에서 일제 강점기로 넘어가는 시기, 이른바 ‘준식민지’⁶⁾ 상태의 조선에 살았던 지방 유럽들의 세계관을 살펴보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화양노정괴>의 구성

<화양노정괴>는 작자 미상의 기행문으로, 1책 30장의 한글 필사본이다.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⁷⁾ 表題紙에 “임자니원일초”라 되어있으며, 작품 맨 앞에 “신해 오월 초구일”이라 밝혔는데, 본문 중에 “갑오년 동학군”(25b)에 대한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보아 신해년은 1911년을, 임자년은 1912년을 의미한다고 파악할 수 있다. 본문 중에 필체가 바뀌는 부분이 부분적으로 존재하며(11b, 15a-15b), 가필한 흔적이나 문배 상 누락된 부분이 있으며, 내용이 그대로 1-2행 반복되어 필사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현전하는 이 텍스트는 표지에 있는 바와 같이, 1911년 창작된 것을 1912년에 필사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작자는 1911년(신해) 5월과, 8년 전인 1904년(갑진) 10월 두 차례 화양동을 기행한 후 이 작품을 기록하였다. 작자는 화양구곡의 명소를 차례로 방문하면서 각 곡의 명칭을 관련 고사를 통해 풀이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반동묘와 채운암, 환장암의 사적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작품 전체의 이정은 다음과 같다.

1911년 5월 9일

화양동문 → [객을 두 명 만나 동행함] → 경천벽(1곡) → 운영담(2곡)

→ [어부 등장하여 동행함] → 만동묘(양추문-유인재-만동묘-풍천재-영정각-상희문-모원루)

3) 한석수 외, 『역주 화양지』, 도서출판 한솔, 2007, 1-330쪽.

충북대학교 우암연구소, 『역주 화양동지』, 충북대학교출판부, 2009, 1-292쪽.

4) 김양식·우경섭, 『우암 송시열과 화양동』, 도서출판 한솔, 2007, 1-127쪽.

국립청주박물관 편, 『우암 송시열』, 통천문화사, 2007, 1-353쪽.

5) 李相周, “九曲詩의 傳統과 華陽九曲詩”, 교육과학연구, 13, 1999, 75-98쪽.

이완우, “華陽洞과 尤庵 事蹟 華陽洞과 尤庵 事蹟”, 장서각 18, 2007, 89-162쪽.

정경훈, “尤庵 宋時烈 散文의 一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6) 안외순, “식민지적 근대문명에 대한 한국 유교의 분기와 이념적 지형”, 동방학 17, 2009, 279-310쪽.

7) 가람古 915.17-H99. 책크기 34×20.7cm 匡郭 筆寫面:31.7×17.5cm, 12行 25-27字.

→ 읍궁암(3곡) → 금사담(4곡) → 주점에 투숙

1911년 5월 10일

[객 한 명과 헤어짐] → 암서재 → [여정을 두고 갈등함(채운암 환장암) / 어부가 떠남]

1904년 10월 15일

[가동 1인과 동행. 서리 한 사람이 인도함] → 채운암 투숙

1904년 10월 16일

→ 채운암 → 환장암(“전각”⁸⁾-팔음석-어필각) → [서리와 헤어짐]

→ [채운암과 환장암 보기를 포기] → 능운대(5곡) → 침성대(6곡) → [농부를 만남]

→ 석벽에 있는 우암 글씨를 봄 → 와룡암(7곡) → 학소대(8곡) → 파환(9곡) → 주점으로 향함

작품 전체에서 두 차례의 유람 기억은 대체로 혼재되어 있지 않다. 1곡부터 9곡까지 구곡에 대한 기행은 전적으로 1911년의 유람을 따르고 있으며, 채운암과 환장암에 대한 기행만 1904년의 유람에 기초하여 기록하였다.

1911년 유람에서 1904년 유람으로 거슬러 올라갔다가 돌아오는 부분은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ㄱ) 어부 문저 다알 치운암이란 절은 저근 암즈라 유벽하고 심슈한 게논 구경홀 분이니 만동묘를 아올나가 낙양산 중봉의 잇논디 다른 귀경거리논 읍스나 여귀 환장사는 볼 것도 만코 크기도 무던허더니 의병난의 일인의 병화의 다 타서 볼 게 업스니 의향디로 호소서 호고 어부는 길게 놀이하고 오던 길로 도로 가며 작별을 고히더라.

각설 팔연전의 왓든 일을 싱각하니 비록 춘몽갓흐나 곳 씨 왓든 일을 기록호도다 그 씨는 갑진 십월 망간이라. … (후략) …⁹⁾

(ㄴ) … (전략) … 서리가 그 말을 듯고 묵묵부녕하고 가기를 청허거늘 갖치 나와 작별히이라

차설 잇찌 어부를 보넌 후의 양인이 교변의 섰더니 직다려 일너 왓 치운암은 귀경거리 적고 환장암은 볼 게 만터니 지를 찢어 엄서렛사니 무엇보려 올너 같이요!¹⁰⁾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부분에 “각설”, “차설”이라는 표현이 각각 사용되었다. (ㄱ)은 회상에 들어가기 전의 정황을, (ㄴ)은 채운암과 환장암에 대한 회상이 끝난 후의 정황을 보여준다. (ㄱ)에서 어부는, 채운암은 구경거리가 별로 없어 추천할 만하지 못하며 환장암은 볼 만한 것이 많았으나 지난 의병란 때 일본인의 兵火로 불타 볼 것이 없다고 말하였다. (ㄴ)에서 ‘나’ 역시 채운암은 볼 것이 없고 환장암은 타고 없어져 볼 것이 없음을 말하면서 유람을 포기하자고 하였다. 이 말에 객과 지자인 ‘나’는 5곡 능운대를 향해 발길을 옮긴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1911년의 기행에서는 채운암과 환장암에 대한 직접적인 기행이 누락되어 있는 셈이다.

실제로 사적을 살펴보면, 환장암은 1907년에 의병의 본거지로 사용되었으며 이 때문에 일본군에

8) 본문에는 “전각”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관련 기록을 살펴보았을 때 ‘운한각’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9) <화>, 14a-14b쪽.

10) 위의 책, 24b쪽.

의해 불타 없어졌고, 채운암은 1948년에 홍수로 무너졌다고 한다. 현재는 옛 환장암 터에 채운암을 옮겨와 복원하였다.¹¹⁾ 그러므로 위 인용문에서 공통으로 지적하고 있는 兵火는 1907년의 의병란을 의미한다. 당시 환장암에는 한백원이 이르고 있는 의병대 120여 명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일본 수비대가 이 사실을 알고 환장암을 소각했다고 한다. 이 때 『송자대전』 목판본을 비롯한 여러 사적이 소실되었다고 한다.¹²⁾ 노론계 학파 중 일부 유림들이 의병활동에 적극적이었던 사실을 감안한다면, 노론의 거두인 송시열의 정신이 있는 화양동, 환장암을 근거지로 삼았던 것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

화양구곡에서 채운암과 환장암은 단지 사찰의 의미를 넘어 화양동의 사적을 간직하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찰이다. 특히 환장암은 송시열이 “非禮不動”이라는 명나라 의종황제의 글씨를 얻어와 새긴 곳이므로 화양동 기행에서 누락시키기 힘든 공간이다.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공간이 전란으로 불타 없어져 볼 것이 없게 되었으므로 그 공백을 채우기 위해 1904년의 기행이 회상의 형식으로 불가피하게 자리잡게 된 것으로 보인다.

채운암과 환장암의 사적을 기록한 회상 부분은 총 30장 중 10장을 차지하고 있어 분량면에서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로써 ‘현재(1911년) - 과거(1904년) - 현재(1911)’의 뚜렷한 3분 구조를 갖추고 있다. 실제 어정은 채운암과 환장암을 생략한 채 1곡부터 9곡까지의 유람이 순차적으로 행해지고 있으나, 심리적으로는 ‘1곡부터 4곡 → 채운암과 환장암 → 5곡부터 9곡’의 어정을 취하고 있다. 채운암과 환장암에 대한 기행은 과거 회상의 형식으로 중간에 삽입되어 있다.

3. <화양노정귀>의 특징

1) 문답의 형식을 중심으로 한 지식의 전달

<화>에서는 새롭게 알게 된 지식·정보보다, 작자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질문이 제시되고 있다. 작자는 동행한 인물들(‘어부’, ‘서리’ 등)에게 자신이 아는 바를 문답의 형식으로 알려주고 있다.

다음에 인용한 부분은 반동묘에 이르러 객과 문답을 나누는 대목이다.

객이 완 너 생각건대 신종 의종 낭 황제의 위패는 화상이나 있는 줄 알았더니 와 보니 다 유교 벽상의 일월만 그리 붙쳐서니 옛지은 일인고 담 완 너 들으니 친종의 위패와 화상을 같이 피치미 불공경기로 허위를 실행고 일월은 이방은 형상화야 그런 게라 하더라. 객 완 반동묘라 호문 엿조면고 담완 이 단조가 일반 반조 풍역 풍조 사당 묘조가 아니냐 여기 반송친조를 뒤편이니 친종 친인이 위호지 아니리 유논지라 너 되경 쫓을 말하리라 객에게 또한 불을 아느냐 친일성슈후은 후에 사리가 되었스니 사리지중의 풍화가 집흔 지라. 불이 집흔 데 모이는 기치니 서남북슈가 다 풍으로 가련지라. 즈근 세움불과 가는 너분도 다 풍으로 가고 강과 회슈와 하슈의 한슈가 다 풍으로 가는 고로 서편의 향엿쓰되 일빅 너가 마다에 조회한다 하니 조회한다 뜻은 전하 제후가 친종의 조회하는 뜻시라. 제후가 반국이라도 친조씩 오는 기치오 불이 일반면 썩이지도 풍으로 오는 기치니 그러므로 반절원당이 전하는 뜻슬 취하야 써 친조 피신 사당을 이르미니다. 객 완 무슨 일로 명나라 신종 황제와 의종 황제를 여기 미짓느뇨 담 완 명나라 신종 황제는 반력 황제라도 칭호고 의종 황제는 숭정 황제라도 칭호느니 ... (중략) ...¹³⁾

인용한 마와 같이 객은 신종과 의종의 위패나 화상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해와 달의 그림

11) 김양식·우경섭, 앞의 책, 91쪽.

12) 위의 책, 58-9쪽.

13) <화>, 5a-5b쪽.

반 있음음을 이상히 여겨 그 이유를 내세 물었다. 이에 작자는 천자의 위패나 화상을 한부로 모시는 것이 예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해와 달의 그림으로 이를 대신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어서 색이 반동묘의 ‘반동’의 의미를 제차 물어왔다. 그러자 모는 물은 모두 동으로 모이 흐른다는 비유적 의미를 지닌 ‘萬折必東’의 고사를 들어 ‘반동’의 의미를 풀며 설명하고 덧붙여 제후국을 거느린 천자를 모신 사당임을 밝혔다. 색은 또 다시 왜 조선 땅에 신종과 의종 황제의 사당을 세웠는지에 대해 질문을 한다. 종략한 부분에서, 작자는 신종 황제가 임진왜란 당시 자국의 병사들을 파병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조선은 큰 은혜를 입었으므로 신종 황제를 모시는 것은 당연하다 이야기 하고 있다.

색과 작자와의 질문과 답변은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1단계에서는, 위패나 화상이 없는 외형적인 모습에 대한 문답이, 2단계에서는 ‘반동’이라는 명칭에 대한 문답이, 3단계에서는 그 반동묘의 당위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답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질문과 답변을 하는 색과 작자와의 관계이다. “너 더강 뜻을 말하리라”, “물을 아느냐” 등의 답변 태도를 볼 때, 작자는 색보다 높은 위치에서 교시적인 태도로 자신의 지식을 전달해주고 있다.

어부 또한 작자와 유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다음 인용하는 부분은 어부를 만나는 대목이다.

인하야 혹 읍주고 혹 노려호며 혹 근년며 혹 안졌더니 엇더한 어부가 가는 낙수터를 들고 퇴식갓을 쓰고 양류간으로 쫓쳐 나오다가 갈음는 쇼리를 뜻고 갓가이 나오와 공춘이 붙이 완 전성들이 산천을 유람코즈 하느냐 담 완 연호다 어부 완 여과 유람호는 형인이 만호나 귀성호는 흥취만 깃스로 잇고 실상을 안으로 아는 지 죽은지라 산속의 낙이 산수의만 잇는 게 아니라 그 켜의 유색과 왕스를 알아야 방가위흥취요 낙가위낙이니 청킨의 전성을 위호여 압회 인도호리느니 엇더호로 담 완 심이 조호는 엇지 마라리요.14)

2곡 운영담 유람이 끝날 즈음 작자는 색들과 더불어 시를 읊조리고 있었는데 마침 낙시대를 들고 지나가던 어부가 작자의 일행을 보고 안내를 자청하며 일행에 합류하게 된다. 어부는 산수의 즐거움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산수의 외형적인 모습을 유람하는 데에 그치서는 안 되며 그 산수에 얹힌 땅의 유색과 역사적 배경(‘왕스’)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래야 비로소 ‘흥취’와 ‘낙’이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어부 자신은 작자 일행이 진정한 의미의 산수의 낙을 찾을 수 있게 돕고자 이들의 유람에 합류하겠다는 것이다. 어부는 이들 일행에 합류하면서 곧 화양동의 뜻과 화양동의 산수 연원을 설명한다.15)

어부와 작자는 비교적 내통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다음 인용 부분은 4곡 금사담 앞에 늘어서 있는 마위의 모양을 보며 품평하는 대목이다. 인용문에 앞서 작자는 마위의 모양을 자세히 묘사하였다. 그러나 작자가 마위에 대한 외형묘사에 치중하자 어부는 다음과 같이 대응하였다.

어부가 이 말을 뜻년이 완가 달이 들며 완 전성이 지 마회를 다 말호되 밋쳐 곱보는 게 잇도다. 여과 칭장한 사람 다리 붙러면 다 안는 미니 너 뜻고 본 터로 말호리라 이 사각으로 여과 봉의 잇는 마회를 여과셔 오호디장이라 호는

14) <화>, 3a-3b쪽.

15) <화>, 3b-4a쪽. “어부 알 화양동이라는 뜻슬 아느냐? 이 산이 남으로 쫓쳐오는 용은 속이산 여맥이라. 고 봉층만이 하늘을 접하고 돌을 고여 오던 모양이 층층하고 울울하고 존엄하고 진중호야 우호로 일월성신을 붓들고 알로 동학계간을 안었시니 봉이 창공을 향하여 일천 길쇼서 인간의 잊지 아니할 뜻지 잇는 듯 호고 학이 빅운을 헤치고 머리를 슈이며 나리를 펴고 평지로 향호는 듯 호고 산이 형상을 감초고 잣회를 숨게 디히의 췌다 잠겼다 호는 형용이 잇스며 민호가 심림의 업디랴다 안졌다호는 거세가 잇스니 낙양산이라 일흠 호느니 곳 만동묘 주산이요 북어로 향호야 오는 산은 속얼 찌러져서 혹 닳는 말이 치를 밧넌 것도 갖고 혹 신선이 열좌호는 듯 호여 석곽이 둘러 잇고 운병이 에웠시니 궁녀와 빅관이 어좌를 호위호는 모양이요 디병군 줄이 장디를 호위함도 갖호니 이 산은 화산이라 일흠호였시니 낙양지 양주와 화산지 화자를 합호여 화양동이라 일흠한 것시니라.”

더 민 앞에 세운 맑은 머리를 민석 들고 꼬리를 드리운 건 석토마라 하고 그 뒤에 두구 철갑 한 장수는 제일의 관왕이라 삼각수와 중조면이며 청룡원월도 빼고 손 모양 권면하지 아니하며 세이 장군은 포면의 머리로 꼬리눈이며 지비티의 범의 슈염은 장익력이 아니며 세삼 장군은 눈썹이 더부룩하고 면상이 넓이고 우편이 범과 같고 너는 조자룡이 아니며 세사 장군은 빅포를 위었으며 얼굴이 빅옥 갖고 신체가 날스런 이는 바빙커가 아니며 세오장군은 슈염이 희고 길고 몸이 장대한 이는 당시에 만부부당지용이라 호던 황한승이가 아니냐 이런 기술 알고 보아야 레격이 다 분명하기 높 천성이 짠 마회만 보고 나령을 하니 엿지 무식지 아니하리요¹⁶⁾

어부는 자신이 이곳에서 생장한 사람으로서 이들 마위는 이 지역에서 ‘오호대장’ 마위라 일컬어진다는 사실을 전하였다. 五虎大將은 촉한의 다섯 명장인 관우, 장비, 조운, 마초, 황충을 말한다. 어부는 마위의 모습을 이들 하나하나의 면면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다. 제일 장수로 거론한 이가 관왕[관우]이다. 적토마와 더불어 투구에 철갑을 쓰고 있으며 三角 수염과 내추처럼 말그레 한 낮 빛으로 靑龍偃月刀를 빼고 선 모습으로 형용하고 있다. 어부는 나머지 네 장수도 『삼국지연의』에서 보았음직한 전형적인 모습으로 묘사하여 마위를 형용하였다. 곧이어 어부는 작자가 지역에서 전해오는 유래를 모르고 제멋대로 마위를 형용했음을 ‘무식’하다 맞하였다.

그러자 작자는 어부의 설명에 반박을 가한다.

뒤원 그대의 말도 다 레격의 들이는 말이라 더명권준 기신 압회 한나라 오호대장이 당호냐 그대가 나보다도 더 무식함도다 만일 신종황제 앞에 있는 장수를 말호준 하면 이이송과 마귀와 유정과 동일원과 진련이 갖호 니를 말호미 오를 기시오 한 나라 장수는 말호지 아니호미 올을 기시니 가령 제 마회가 분명헌 부구철갑헌 장수 모양이라도 다른 장수요 오호장은 아니이라 이부도 완 더 익과 산 제 오리보되 오호장이란 말만 들호 명나라 장수라 호는 말은 들지 못호엿기늘 알지 못하는 말로 나를 칙호니 천성이 공중의 임터코미스문을 엿지 붙호는고¹⁷⁾

작자는 ‘더명 권준 기신 압회’에서 한낱 오호장군을 거론하는 것이야 말로 예격에 맞지 않다고 하며 오호장군보다는 차라리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도우러 왔던 명장들(이이송, 마귀, 유정, 동일원, 진련)을 거론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어부도 자신의 주장을 꺾지 않고 화를 내며 자신이 여기에 산 지 오래되었어도 이 마위들을 일컬어 ‘오호대장’이라 한 마는 들어왔지만 명나라 장수라는 비유는 듣지 못하였다 반박하였다. 아울러 공자의 검소한 덕을 반례로 들어, 작자가 현지의 유래를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책망하려 함을 힐난하였다. 이들의 말다툼은 책의 반류로 일단락된다.

작자와 어부는 비슷한 위치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의견 충돌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현지에서 유동적으로 전승되는 지식과 문헌을 통해 규범화되어 전승되는 지식과의 충돌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마와 같이, 작자는 주로 자신이 알고 있던 지식을 토대로 전문을 확인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문은 주로 구곡과 관련한 사적의 命名에 대한 어휘 풀이나 혹은 그 유래를 고사를 토대로 설명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화>에 제시된 이들 전문은 주로 동행하는 인물들 간 문답의 형태로 지식화하여 전달되고 있다. 이때 동행한 인물들에 따라 작자와의 상대적 위치가 정해진다. 대체로 어부는 작자와 비슷한 위치에서 그 지역 풍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때로 화석화된 지식으로 무장된 작자와 의견 충돌을 보이기도 하였다. 어부를 제외한 다른 동행인(두 명의 객, 서리)은 대체로 작자나 어부보다 낮은 위치에서 이들이 제공하는 지식을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6) <화>, 11b-12a쪽.

17) <화>, 12a-12a쪽.

2) 춘추대의와 존주론의 계승

<화>에서 주로 접하는 경물은 화양구곡과 반동묘이기 때문에, 유적을 대하는 작자의 기본적인 태도는 전 시기까지 지속되어오던 노론계 문인의 보편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화양구곡은 ‘학주자’에 대한 의지뿐만 아니라, 송시열의 춘추대의에 입각한 존왕양이를 표방한 공간이다. 명나라의 신종과 의종에게 항사를 지냈던 반동묘는 이러한 명분론에 대한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 인용문은 신종 황제의 사당을 모셔야 하는 까닭을 설화하는 부분이다.

잇 씨의 덕명서 만리정변하실 씨의 천하 군사를 통치하고 천하 지물은 다같이 왜군을 축출하고 아국 봉교스덕과 성영을 부호하게 하셨으니 황제의 덕택을 표현인민된 존 뒤 아니 감고하리요. 덕명이 아국 구완할기에 성인이 곤폐하고 지용이 제위하야 청국의 나은 당하야 신종 황제 손주 의종 황제의 이르러 망하엿쓰니 엿지 의단고 원통치 아니 하리요.¹⁸⁾

조선에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명나라 신종[반력제]은 군사와 ‘지물’을 동원하여 조선의 종묘사직과 이 땅에 살아있는 것들을 도와 보호하였다[扶護]. 그러니 조선의 인민이라면 누구나 천자인 신종의 덕택으로 존제할 수 있었던 것이니 이 은혜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영원한 것 같았던 천자의 나라 명나라는 조선을 돕기 위해 나섰다가 오히려 그 여파로 인해 정작 자국이 청나라로부터 침공을 당해 망하고 말았다.

이러한 국제 정세의 변화에 대하여 작자는 ‘엿지 의단고 원통치’ 않겠냐 반문하는 데에 그쳤지만 당시 조선인의 심정은 이보다 더욱 복잡하였을 것이다. 병자호란·정유제란을 겪은 티라 청나라에 대한 분통함과 두려움이 공존한 가운데, 망해버린 명나라에 대해서는 고마움, 미안함, 안타까움과 희망 등 여러 심정이 얹혀 자리하고 있었다. 반동묘를 세워 명나라 신종과 의종 황제의 항사를 지냈던 일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지속될 수 있었다.

명나라 두 황제의 항사를 지내는 일은 은혜를 갚고자 하는 의도만은 아니었다. 이 일은 곧 중화의 전통을 우리나라에서 잇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였다. <화>에서도 중화로서의 자부심이 다음과 같이 드러나고 있다.

소리를 듣히 하여 창광이 음폐 왕 일월쌍명문괴회호 이황궁궐이 만공지라 남아한불성중국더니 중국산천시탑니라 또 식어 음폐 왕 날과 달이 쌍으로 말기시니 분노니 음라는 뚝이 왔노로 두 황제의 궁궐이 만공의 열렸더라 남아가 중국의 나지 북쪽은 한하엿더니 중국의 산천을 비로쇼 받쳐왔더라 음쪽은 다하미 또 뚝습 일니 왕 ... (중략) ... 이황의 궁궐이라 혹은 신종과 의종의 스당을 두고 존 말이요 중국이라 칭함은 천주 기신 티라 하야 이르미니라¹⁹⁾

인용문은 읍성암(3곡)에서 감회가 일어 작자가 칠언절구를 한 수 짓고 이 시를 붙이한 부분이다. 명나라 두 황제를 모신 곳이기엔 반동묘를 일컬어 ‘이황궁궐’이라 표현하였다. 中華의 황제를 모신 곳이므로 이곳, 화양동이야 말로 中華와 다름없다는 말이다.

다음 인용하는 부분 역시 우리나라가 중화의 맥을 잇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18) <화>, 6b쪽.

19) <화>, 9b쪽.

덕명이 망한 후에 황제의 모정은 이 짜의 피섯시니 옛지 덕명친지가 아니며 황제가 봉헌 후에 덕명의 년호를 아국서 쓰니 옛지 숭정 일월이 아니리요. 선성(송시열은 가리킨 필자주)의 당당한 말씀이 친고의 기를 용충하야 닛고 보논 지 닛 아니 양양하리요.²⁰⁾

철성대(6쪽)를 본 후, 대천 건너 석벽에 있던 글씨를 보고 감격한 부분이다. 철성대 석벽에는 신종의 글씨(“우조병호”), 의종의 글씨(“비례부동”), 선조의 글씨(“반질원동”)와 송시열의 글씨가 새겨져 있다. 인용문은 그 중에 송시열의 “대명친지 숭정일월”이라는 문구를 해석한 부분이다. 명나라가 망했어도 황제의 모정을 모셨으니 아직도 명나라가 지속되고 있으며, 그 명나라의 마지막 연호 ‘숭정’을 현재도 쓰고 있으니 숭정 시대가 마땅하다고 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마와 같이, 명나라가 멸망한 지 250여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나라에 대한 의리관을 표방하고 있으며, 반동묘를 통해 우리나라가 그 ‘中華’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 반동묘와 화양서원은 대원군 시절 한때 철폐되기도 하였으나 다시 복원되었으며, 반동묘와 화양구곡, 송시열에 대한 존숭은 1900년대 초반 화서학파의 유럽들에게서도 찾을 수 있다.²¹⁾

그런데 화양동 관련 다른 시문과는 달리 효종과 선조에 대한 언급이 제한적이라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주지하다시피, 음강암은 효종이 숭하한 뒤에 송시열이 효종의 기일이 되면 이 너럭마위에 서 통곡을 하였다는 유래를 지닌 곳이다. 음강암을 찾는 이들은 이 고사를 떠올려 존왕양이의 의지를 드러낸 글을 남겼다.²²⁾ 그러나 앞서 인용한 글에서 보이는 마와 같이 작자가 음강암 너럭마위에서 지은 이 시에는 효종과 송시열의 인연이나, 북벌에 대한 언급은 일체 하지 않고 있다. 마찬가지로, 철성대 각자에 대한 전문 부분에서 신종·의종과 송시열의 글씨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하고 있으나 선조의 어필인 “반질원동”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반동묘가 ‘반동’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유래에 대해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선조의 어필에 대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3) 邪道에 대한 비판

<화>에서는 유학을 제외한 다른 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불도에 대해 배타적인 태도를 보인다.

당송 이리로 불도가 성형하야 문장명유와 왕후성이 다 숭불하논 폐가 잇서 그 폐가 명나라의 밋졌더니 이 그림을 보건디 과연화도다 진조의 모가 되었스니 늑기 지극하코 권하보짜 봉양하니 봉양도 지극하기닐 무엇이 부족하야 불가의 일홈은 들렸고 필연 그 마음의 구중 궁원이 일간 송당만 곁코 황덕후의 존호가 보슬 이류만 못하기에 산불의 탁션하코 생각 잇이셔 이 지경의 이르엿시니 웃지 천추만세의 붓그리움을 면하리리요. 세상의 무궁한 존주는 인욕이라 권하를 부족히 덕이 죽은 후에 극락세계 갈 욕심이 흙중의 웅만하야 후인의 이 쇼홈은 찌뎃지 못하엿스니 진왕 한무의 신천 구홀 욕심이 이셔 달으리리요. 오호 오호라 규중의 부녀가 불도 욕함을 엿지 칙하리리요. …(중략)… 이게 사밖을

20) <화>, 27a쪽.

21) 그 한 예로 화서학과 출신 의병장인 유인석을 들 수 있다. 유인석, 『의암집』 권3, <崇明三義>, “大報萬東大統領 / 貫三百歲一精誠 / 誰聞振古吾邦似 / 這義爭多日月明(대보, 만동, 대통에서 신에게 제 올리니 / 삼백년 내려오던 하나의 정성일세. / 옛날 위상 떨치는데 조선밖에 뉘 있느뇨 / 이 의절 밝고 밝아 일월과 다투네.)” 이 시에는 앞에는 “항명옥사 뒤에 우리 성조에서는 御苑에 大報壇을 설치하였고, 선비들은 화양동에 만동묘를 세웠으며 황조의 아홉 의사 자손들은 조종전에 大統壇을 세웠는데 명나라를 존중하며 여기에서 제사를 올린다.”라는 서가 붙어 있다.(유인석, 『국역 의암집』 1, 의암학회 역, 도서출판 산책, 2006, 217쪽.)

22) 『화양동지』 권2에 실린 시 중에서도 이와 같은 맥락의 시를 찾아볼 수 있었다. 윤봉구, <좌읍궁암>, 채지흥, <읍궁암비>, <화양행>, 강석하, <만동사시>, 유명희, <만동사시> 등.

쇼걸 딸이라 양명이 불개의 흑흑기가 이것기를 양명은 도로 천전하는 유주가 만으니 엇지 익식지 아니할리요. 그런 천
 황 문장 호걸이 다 침혹했쓰니 이다 치치우빙이야 말할 게 무엇이 있스리요²³⁾

인용문은 8년 전인 1904년에 환장암을 방문해 신종 황제의 내부인인 瑞蓮 보살의 화상을 보고
 탄식하는 부분이다. 작자의 일행이 밤에 환장암에 도착하여 승려에게 볼 거리를 청하였다. 그리자
 승려는 좁은 계 하나를 들고 나왔다. 계를 걸어 보니 너비가 두 칸이 되는 큰 족자가 있었는데,
 이 족자에는 신종 황제의 내부인인 서연보살의 화상이 그려져 있었다. 환장암에서는 반동묘가 실
 치된 이후에 이 화본을 따로 구해다가 승당에 모셔두고 있었다고 한다. 이 화본에는 “서연보살”이
 라 화제가 적혀 있고, 화상의 좌우에 명나라 선비가 지은 화상찬과 글이 여러편 적혀 있었다고 한
 다.

이 그림을 보고, 작자는 당나라 이래로 불도가 성행하여 문장 명유들이 숭불하는 때가 있었는데
 그런 풍조가 명나라까지 미쳤던 것을 실감하였다. 특히 천하의 봉양을 받으며, 부족할 것이 없는
 천자의 보후임에도 불구하고 불문에 託迹한 것은 매우 부끄러운 저사라 평가하였다. 즉, 살아 생
 전에 천하를 가지고도 이를 부족하게 여겨 사후에 극락에 갈 욕심을 추구하였으니 후인들의 미웃
 음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라 하였다. 황태후도 이처럼 구중강월이 한 칸 승당반 못하다 이기고, 황
 태후의 존호가 보살이라는 이름만 못하다 여겼거늘, 한낱 규중의 부녀가 불도에 혹하는 것은 더
 말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어 천하의 문장 호걸 중에서 불가에 침혹한 이들의 이야기를 나열하였다. 당나라의 왕유와 백
 낙천, 송나라 소식, 명나라 왕수인을 그 예로 거명했다. 그 중에서도 왕수인이 불법에 깊이 빠졌던
 고사를 길게 설명하였다. 왕수인이 어느 날 길에 갔다가 50년째 수도하는 생불을 보게 되었는데,
 이것이 자신의 전생임을 깨닫고 창연한 마음에 탐을 세우고 생불을 땅에 묻고 갔다는 것이다. 왕
 수인이 불법에 빠졌던 것을 비판하며, 요즘 왕수인의 양명학을 도로 따르는 유자가 많음을 애석하
 게 생각하였다. 문장 호걸도 이와 같거늘 이따의 어리석은 이들이 불법에 미혹되는 것은 더 말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충 쇼워 천나스즈라 혹은 기질러라 그세 다 중들이 천당지옥이라는 말을 지어내어 인간스람을 쇼걸 형스와 유식한
 군주가 엇지 속을이요 스람의 다는 것도 리치요. 죽는 것도 리치라 날 씨의는 음양오행기운을 가지고 낫다가 그 기운
 이 진화면 죽는 기치니 마른 나무와 죽은 지 갓다여 혼비백산할 썩이라 이더 줄이가는 스즈가 잇스며 이더 잡히가는
 혼신이 잇사리요. 부디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귀가회도 두지 말미 맛당하리라 24)

‘천당’과 ‘지옥’은 모두 몽매한 사람들을 불가에 빠지게 하려고 중들이 지어낸 말일 뿐이라고 하
 였다. 사람이 나고 죽는 것은 모두 음양오행의 기운의 생장·소멸에 따른 것일 뿐이지, 불가에서
 말하는 ‘염라사자’는 존재하지 않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러니 유식한 군주는 이런 미혹된 말에 속
 아서는 안 되며,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런 말을 귀담아 듣지 말 것을 권하였다.
 불교뿐만 아니라 근거없는 異蹟에 대해서도 난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연숙 저 건디 석벽 뽀분 갖치 혼 게 무이시요 농부 더 왓 녀석의 우안 더감이 저괴다 비기를 호이 니혔는디 갑오년
 의 동학군이 비기를 불야호고 뽀분을 열야호니 뇌경소리가 급호여 권밀을 당홀가 두리호야 열지 못호고 갖쳐는이다
 호기날 직을 향호야 일니 왓 서런 말이 췌이호 말이니 가이 우숏도다 그 농부가 우안이 참 누군지 알지 못호고 그런
 무지호 말은 호니 부족칙이라 더 일숙 허미슈의 퇴조비분과 니토정의 비기라 호는 길 보고 군주의 일이 아닌 길 의심

23) <화>, 23b쪽.

24) <화>, 24b쪽.

학교 또한 탄식하였더니 금일의 우양 선생 비기 있던 말을 처음 들었더니 선생의 정덕후진 학문으로 엿지 그러한 관
 셔를 하여 후세의 요명코자 하였지리요, 네 이런 말을 듯고 그지 가면 이 후의 또 지는 사람이 또 그릇 알기도 쉬고
 그릇 진학기도 쉬으니 네가 굳네 가 보고 오리라²⁵⁾

인용문은 점심대를 유람한 때의 상황이다. 점심대 아래를 보니 석벽에 벽장문과 난창이 되어 있
 어 이상하다 이거 가서 확인하고자 하나 대천이 가로막고 있어 건너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바
 침 이 동네 사는 농부가 지나가기에 그 농부를 불러 석벽 들문에 대하여 물어보았다. 농부는 송시
 일의 들문 안에 秘記를 넣어둔 것이라 하며, 갑오년(1894년) 동학군이 이 비기를 보려고 들문을
 열코자 했을 때 천둥 번개가 치서 열지 못하고 그쳤다고 말하였다. 곧 송시일의 비기가 있는 곳이
 라 누구도 함부로 열려고 하지 못하셔서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는 말이다. 그러자 작자는 농
 부가 무지해서 이와 같은 궤이한 말을 하였다며 비웃고는 본인이 직접 확인하였다.

작자는 송시일의 학문은 정대하기 때문에 識書를 통해 세상에 명예를 구하려[要名] 하지 않았을
 것이라 하였다. 허목의 <퇴조비문>이나 이지함의 『퇴정비결』을 참서라 여기고, 이와 같은 글은
 짓는 것은 참된 글자의 행위가 아니라 생각한 점에서 작자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앞장에서 밝힌
 바, 주자 중심의 춘추대의관이 정대한 유학자의 도리요, 그 이외의 일체의 학문은 邪道라 판단한
 것이다.

이 부분에서 작자의 적극적인 면모 또한 확인할 수 있다. 송시일의 본 모습이 세간에 왜곡되어
 전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해 작자는 직접 옷을 걷고 대를 건너 석벽 들문에 감춰진 사적을 확인하
 였다. 사적은 다른 아니라 선술한 진중·의종의 글씨와 이를 가져온 민정중과 송시일의 글씨를 새
 긴 것이었다. 이 사적을 확인하고 작자는 다음과 같이 감격하였다.

양 황제의 편적 너털 조를 반세의 유전코조 학이 들에 삭이 이 바회 속의 깊이 갖추시고 사람이 열가 두리워학이
 켜 반이 늘게 들을 올라가 쫓우고 들을 학이 감추었시며 또 훗 사람이 일유시 열가 건너학야 그 맛게 이편 글조 너털
 조를 써서 두시고 분명이 삭이든 말습써지 하섯기늘 무식한 사람들이 비기가 있다 학교 열고 볼야 하였쓰니 두 황제
 와 두 선생은 능욕함과 갖춘지라 명천이 벌을 주시지 아니하리요 여기다 이대지 깊이 감추시고 또 환장안 이편각의
 퍼섯시니 선생의 관친한 충의와 홍원한 규모를 가히 알지르다²⁶⁾

두 황제의 편적을 반세에 유전코자 하여 각자하였으며, 이를 삼가는 마음으로 바위 속에 깊이
 감추고 들문을 뚫어 넣고 감렸고, 이기에다 또 경계의 말을 분명히 새겨두었다. 그런데도 갑오년
 에 동학군이 비기를 확인하겠다고 한 ‘무식한’ 행위는 곧 두 황제(명나라 신종과 의종)와 두 선생
 (민정중과 송시일)를 능욕한 행위였으므로 하늘이 벌을 주신 것이라 하였다. “명천이 벌을 주시지
 아니하리요”라 말한 것이 앞서 예로 든 참서들의 경우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
 치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를 통해 볼 때, “비기”를 운운한 이들과 송시일의 “관친한
 충의와 홍원한 규모”를 대치시켜 부각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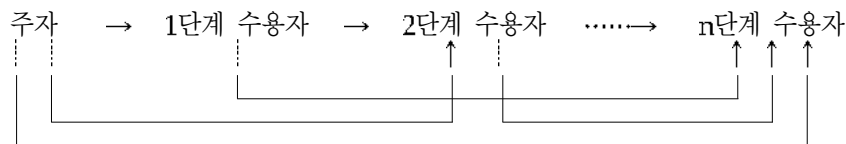
4. ‘화양동’과 <화양도정괴>의 문학사적 의의

주지하다시피, 주자의 무이구곡에 대한 숭앙은 다양한 형태로 발현되었다. ‘무이도가’ 차운시 창
 작은 물론, 직접 구곡을 경영하며 구곡도 제작, 命名, 刻字 등의 행위로도 실현되었다. 후대 인물

25) <화>, 25b쪽.

26) <화>, 26b-27a쪽.

은 앞선 시대에 구곡을 경영한 우리 선조의 행적을 보며 그를 주자 이후의 또 다른 선형으로 인식하여 관련 시문을 짓기도 하였다. 후대에 주자의 무이구곡과 '무이도가'를 수용하는 사람들은 주자를 직접 접하기도 하나 때로는 앞선 수용자들로부터 간접적인 영향을 받기도 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九曲은 積層性을 지닌 하나의 通時的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다.



특히 화양동은 송시열이 주자의 행적을 흠모하여 반년에 강학을 했던 공간일 뿐 아니라, 송시열 사후에 그의 제자 권상하의 노력으로 막강한 상징성을 지닌 하나의 공간으로 제탄생하게 되었다. 권상하는 스승의 유언에 따라 반동묘를 설치하고 구곡을 완성하였으며, 아울러 스승인 송시열을 도동으로 삼아 이를 기리고자 하는 노력을 세울리하지 않았다. 송시열을 ‘송자’라 칭하며 그의 명분분을 중시하던 태도는 조선 후기 정권을 장악한 노론계 사대부들에게 사상적·정치적 토대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맥락 속에서 화양동과 반동묘는 중화사상의 근원지로서의 상징성을 지니게 되었다.

<화>의 작자의 의식 또한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앞서 예를 든 마와 같이 신종·의종과 더불어 반동묘에 대한 숭모의 태도가 확고하게 드러난다. 아울러 이를 지키고자 한 송시열의 충의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금사담의 절벽의 형상을 명나라 때 장수 오호 내장에 빗대어 표현한 점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또, ‘미례부동’을 설명하면서 공자와 안희의 생애사를 길게 적고 있는 점이나 불교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성리학 이외의 다른 유학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에서, 주자학을 신봉하고자 하는 작자의 학문적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선시대 사대부 문인들의 세계관과 일정한 맥락을 지니고 있음과 동시에, 작품이 창작된 1910년대의 시대적 상황과 더불어 따로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

첫번째는 이 작품이 한문이 아닌 한글로 표기되었다는 점이다. 주자하다시피, 송시열은 이이가 주자의 학통을 계승한 인물이라 여겨 존송하는 뜻을 드러내곤 하였다. 그 한 표현으로 이이의 <고산구곡가>를 漢譯하기도 하였다. 이 때 제자인 권상하와 나눈 편지 속에서 각 곡을 누구에게 맡겨 한역하게 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고산구곡가>의 한역 작업은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서인 노론계 문인들의 도통의식을 확인하는 중요한 작업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²⁷⁾ 따라서 표기 방식이 한글이나 한문이라는 화양동과 송시열을 존송한 이들에게 있어 중요한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사실 화양동의 사적을 알리는 데에 표기 수단을 한글로 채택하는 것은 상당한 번거로움을 초래한다.

덕권을 굳이 석벽 아래로 이 뚝이 뚝고 큰디 갓 반 켜 올니가 과연 뚝문을 호이 봉하고 회로 만넛기를 좌우로 살펴보니 우편의는 만려 이뵈 옥도빙호라 호고 또 승정 이뵈 비례불동이라 호고 또 그 엄혜는 미신 민정중은 봉지학야 이 송시열 등으로 근비슈계슈학야 모루호니 시는 사심칠년 갑인 사월 일야라 식엿고 또 아러는 덕명 원시 승정 일월 판자를 우안 글시로 식엿쓰니 그 건 대류 아니라 만려 황제 쓰신 옥 옥자 마를 도준 이류 빙준 명 호준요 승정 황제 쓰

27) 이상원, “조선후기 고산구곡가 수용양상과 그 의미”, 고전문학연구, 42·43, 2003.

신 안일 비즈 레도 레즈 안일 불즈 움죽길 동즈이니 이게 곳 환중양 이편각 판유식 녀던 쪽의 한 조식 삭이 되신 게 라 피실 씨의 보봉 민선싱과 우안 송선싱이 삭이다 되신 고로 그 위에 쓰신 말씀이 되실 비즈 신홍 신즈 싱 민즈 솟 정즈 무기웁 증즈 맛들 봉즈 이르 지즈 더불 이즈 송나라 송즈 씨 시즈 미운 열즈 무리 동즈 솟갈 근즈 절 비즈 손 수즈 조은 게즈 머리 수즈 모쥔 보즈 식길 녹즈 씨 시즈 녹 사즈 열 십즈 일갑 칠즈 혁 녀즈 겹질 갑즈 동방 인즈 녹 사즈 달 원즈 날 일즈 잇기 야즈이니 그 말씀은 다런 게 아니라 되시고 오는 신홍의 민모와 맛들고 이르러 송모 등으로 삼가 손으로 절하고 머리를 조와리 모 쟈 식였시니 이 씨는 승정 사십 칠년 갑인 사월일이라 호신 말씀이라.²⁸⁾

앞서 인용한 점성대 유람한 때 발견한 각자(‘玉藻冰壺’, ‘非禮不動’, ‘陪臣閱鼎重奉至 與宋時烈等 謹拜手稽首模勒 時四十七年 甲寅 四月日也’, ‘大明天地 崇禎日月’)를 풀이한 부분이다. 우선 글귀를 쪽 내러 읽은 뒤, 한 글자씩 한자의 훈과 음을 짝여 나가며 설명하고 있다. 그 후에 그 글귀가 의미하는 바를 정리하여 풀이하였다. 한문이 아니라, 한글이라는 표기 수단을 택하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취한 형식으로 파악할 수 있다.²⁹⁾

이 표현 방식의 기지에는 동행하고 있는 책, 나아가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전문의 내용을 가르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다. 작자는 화양동이라는 상징적인 공간을 답사하고 그 사적을 <화>라는 작품을 통해 기록하고자 하였다. 작자의 창작 의도가 화양동에 갖는 유적을 소상히 밝히는 데에 있다고 볼 때, 한글이라는 표기 수단을 택한 것은 의도적인 포석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주목할 만한 특징은 이 작품이 경술국치 이듬해인 1911년에 창작된 작품이라는 점이다. 시기적으로 국권이 상실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망국의 실음이나 비통함은 일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명나라 의종 황제의 최후를 매우 미감있게 묘사한 부분은 주목할 만하다. 의종은 李自成的 난으로 결국 양에서 쫓겨 나와 반세산 수항정에서 최후를 맞이한다. 황후는 왕자들을 살려두어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하여 왕자들을 데리고 자결하였다. 의종도 먼저 죽으려다 공주를 살려두면 적에게 욕을 보게 될까 두려워 자신의 손으로 공주를 해하고 자신도 자결하였다. <화>에서는 이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³⁰⁾ 이 이야기를 들면 어부와 객들은 자결로 최후를 맞은 의종의 이야기에 몰입하여 비슷한 정서적 반응을 표출하였다. 작자는 『시경』 왕풍의 <서리> 편을 읊조리는 것으로 이 부분을 정리하였다.

명나라의 멸망에 이렇게 깊이 비통한 심사를 드러낸 반면에 조선의 멸망에 대한 비감은 작품 전체를 살펴도 어떤 미묘적인 표현조차 보이지 않는다. 도록계 학백을 이은 최익현, 이항로, 유인

28) <화>, 26a-26b쪽.

29) 물론 필사의 과정에서 국한 혼용이 순한글 표기로 바뀌었을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순한글 표기가 아니라 국한 혼용이라고 해도 기술 방식에서 큰 차이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그 차이란 예컨대, 국한 혼용으로 표기된 “안일 非즈 레도 禮즈 안일 不즈 움죽길 動즈이니”이 순한글 표기로 바뀌었을 경우, “안일 비즈 레도 레즈 안일 불즈 움죽길 동즈이니”라는 형태로 바뀔 뿐이지 구문 자체의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30) <화>, 6b-7b “직 왈 신종 황제는 아국 군왕 훈 은덕으로 향사하기 맛당하느 의종은 엇지하여 갖치 향사하느뇨 답왈 명나라 이 지금것 기시면 향사할 일이 없시느 안 하여 망국이 된지라. 뉘 향사를 올리리요. 이러므로 의종을 신종게 비향하여 천고의 불망지은을 표함이요 또 의종게옵서 부덕하여 실국함이 아니라 그 천운의 막가니하라 곳 씨의 도덕의 니즈성이 괴병하여 조호 칭왕하고 밧그로 청국을 불너 들이고 나즈 명이 경성을 함물홀시 밤의 창외문으로 조차 들어오며 함성이 디전하고 화광이 촉천한지라. 승정 황제 게옵서 곤 급함을 이기지 못하여 폐하여 만세산의 오를 시 빅관이 하나도 짜투느니 읍고 다만 황후와 티즈와 이왕과 공주 뿐이라. 황후 다려 왈 대사가 거의라 호신디 황후가 울며 황티즈와 이왕을 다 니로니고 죽즈 경이 사하니 황제 창황혼 증의 심각하되 공주를 두고 죽으면 도적의게 수욕을 흘지라. 잇 씨 공주의 나히 열다섯신 즉 밧서 장성하엿고 니여보닐 길도 업스니 황제게옵서 탄식하여 왈 네가 엇지하여 우리집의 티여놋던고 말을 마치미 좌슈로 낫설 같이우고 우슈로 칼을 들어 치니 공주의 우편 팔이 썩러진지라. 또 칼을 든이 손이 썰여 굿치고 슈항정의 울느 머리를 풀고 옷가슴의 유서를 써 왈 묘상을 지후의 뵈을 낫치 업다 하고 죽즈 경이 사하엿시니 종묘를 위하여 자결한 이는 천고제왕의 처음으로 필사가 아니나”

석 등의 인물들이 무장투쟁으로 국권을 수호하려고 했던 점을 떠올렸을 때, 이는 매우 특징적인 면모라고 볼 수 있다. 준왕양이의 명분을 고수하고 있으면서도 당대에 처한 가장 절박적인 상황인 일제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1900년대 초기에 이와 같은 경향을 보인 사대부들이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안외순은 이들을 “‘유교수호’를 위한 ‘탈국가’의 수구 은둔 노선”으로 분류하였다. 이들은 국가를 지키는 것보다는 유교를 지키는 것에 더 가치를 부여했으며, 무장 투쟁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나 조선의 성리학적 전통을 전승하는 길을 택하였다.³¹⁾ 심경호도 이들을 “방관적 지식인”으로 분류하였다. 포착 지식인들의 경우, 자신의 지역 사회를 소재로 한 한시 창작을 즐겨하였으며 문집을 남기는 한편 인근 지식인들과 사사를 결성하며 정서적 공감을 이루었다고 하였다.³²⁾

<화>는 작자는 “탈국가적 은둔 유림” 혹은 “방관적” 태도를 견지한 포착 지식인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서인 노론계 학파의 인물들이 일방적으로 무장 투쟁의 노선에 나선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 후기에서 일제 강점기로 전환하는 시기에 지방 유림들이 다양한 의식 세계를 드러내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식 세계를 보이고 있다고 하여 <화>의 문학적인 가치를 폄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작품 내적으로 볼 때, <화>는 문학적 장치를 동원해 화양동이 지닌 상징성을 전달하고자 하였다. 전 시기 화양동에 대한 고사를 적고 있는 작품(기록)들이 사적 전달에 주로 초점을 맞춘 것에 비해 <화>는 작자 이외의 다양한 인물들(어부, 객, 농부, 서리 등)을 문면으로 끌어들이 이들과 문답을 나누는 형식을 사용해 보다 문학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또 한글이라는 표기 수단을 사용해 화양동에 관한 사적을 보다 쉽게 설명하려고 하였다. 작품 외적으로 볼 때, 시대 인식면에 있어서 지체되는 양상을 보이고는 있으나 이 자체로 그 당시 지방 유림의 시대 인식의 한 면을 엿볼 수 있었다. 아울러 주자의 무이구곡에 대한 전통이 1900년대 초기에 그대로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 결론 요약

31) 안외순, 앞의 논문, 280쪽.

32) 심경호, “근세 한시의 지향의식 분화”, 한국시가연구 26, 2009, 142-146쪽.

춘향전 재고: '신분'과 '자아실현'의 문제를 중심으로

전이정(서울시립대학교)

소파 오효원의 시에 나타난 주체적 여성의식

-소파여사시집 상편을 중심으로-

임보연(경희대학교 박사과정)

<목 차>

1. 머리말
2. 학문을 통한 주체의식
 - 1) 배움에 대한 열망
 - 2) 능력 발휘를 위한 사회활동
3. 자연을 통한 주체의식
 - 1) 감정표현을 위한 자연
 - 2) 학문의 보조수단으로서의 자연
4. 맺음말

1. 머리말

조선시대는 유교적 이념을 사상의 기반으로 한 부권중심의 신분제 사회로서 사대부의 제도와 문화가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여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필종부(女必從夫), 삼종지도(三從之道) 등과 같은 윤리체계였으며 조선 중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여성을 억압하는 정도가 더욱 심화되었다. 남성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교육을 받거나 사회 참여를 하는 일 등은 남성들의 분야였으며, 여성은 주로 규방의 일에 전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문학의 작가층이나 향유층 또한 조선전기에 있어서는 사대부들이 중심을 이루었으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평민의 자각이 문학에 반영되기 시작하여 문학담당층이 확대되었다. 조선 전기의 문학이 귀족적인 문학을 추구하였던 것과는 달리, 조선 후기에서는 평민문학까지 확대되었던 것이다. 신분제 사회였던 조선은 1800년대를 넘어서면서부터 신분적으로 일세에 있던 서녀와 기녀 시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그들 사이에 형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 성격의 모임을 갖고 시작 활동을 하기 시작하였다.¹⁾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오효원 또한 여성 한시 작가로서 창작활동이 가능했던 것이다.

한시작가들은 대부분 유학자 출신으로 봉건주의 사상을 지니고 있으며, 한시 작품에서 담고 있는 내용들도 그들의 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오효원 또한 한문교육을 받은 세대로서 봉건사상을 지니고 있었지만, 한시에서 보이는 의식은 근대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 조선 전통사회의 신사임당이나 김산의당, 강정일당 등의 여성들과는 다른 시각을 보여준다.

소파 오효원은 조선에서 근대로 이어지는 전환기 시대를 살았던 인물로, 개화기 시대의 신이

1) 김지용·김미란, 『한국 여류한시의 흐름』, 『한국 여류한시의 세계』, 여강출판사, 2002, p.636.

성²⁾으로 일컬어진다. 이성의 근대 운동이 시작되면서부터 봉건사회 제도에서 억압되었던 이성의 삶은 많은 변화가 일어났으며, 더 이상 수동적인 이성의 모습이 아니라 교육을 받고 사회 활동에도 참여할 수가 있었다. 오효원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문학적 역량을 발휘했던 여류 한시의 마지막 세대이다.

오효원의 작품은 『소파이사시집 상,중,하』에 실려 전해지고 있으며 총 473수이다. 시를 통하여 오효원의 삶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전기적인 성격을 지닌다. 당대 여성 한시 작가들과 비교했을 때 500년에 가까운 많은 작품을 창작했으며, 한시 문집이 책으로 발간되어 전해진다는 점, 여성 한시의 마지막 세대라는 점을 미루어 보아 전통적인 여성과 근대적 여성의 과도기적인 양상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동안의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³⁾ 오효원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원인으로는 생몰연대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과 조선시대는 한문학의 융성기였지만 갑오경장으로 이어지는 근대전환기를 겪으면서 어문일치의 가치관을 내세우는 흐름으로 변화하여 국문이 공식적인 글이 되었던 시기에 한문으로 창작했기 때문에 관심 밖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성이라는 신분적 제약 속에서도 많은 시들을 창작했으며 개화기 시대의 진여성으로서 전통적인 여성의 모습과 변화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오효원의 전기적 배경에 중점을 두고 그의 작품 또한 생애를 고찰하는 부분에서 주목되어 왔지만, 그의 작품을 통해 그가 신분제 사회 속에서의 존재가 아닌 개인적 주체를 형성해 가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소파이사시집』의 상편에는 134편의 시가 실려 있으며 9세부터 일본에 가기 직전인 20세까지의 작품이 포함되어 있고, 중편에는 신해영과 약혼을 했던 시절을 포함하여 일본과 중국에 갔던 시기인 30세까지의 작품, 하편에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몸이 좋지 않아 요양을 했던 36세까지의 작품이 수록되어 있다. 오효원 삶의 시기에 따라 작품이 수록되어 있는 것은 성장기적이며 전기적인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면모를 통해서 작품과 그녀의 삶과 작품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기 때문에 오효원의 한시 작품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그의 생애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오효원의 한시작품과 『소파이사시집』 서(序)를 통해서 그녀의 생애를 알 수 있으며, 그동안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오효원의 생애를 시기별로 나누어서 설명하였다.⁴⁾ 소파 오효원은 본관

2) 허미자(1996)는 그의 논문에서 한국에서는 개화기에 신교육을 받고 전통사상에 항거하는데 앞장 선 여성들을 신여성이라고 하였으나, 오효원에게서 나타나는 신여성의 모습은 전통사상에 항거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전통사상을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 엿보이기 때문에 신여성의 개념을 좀 더 넓은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3) 그동안 오효원에 대한 연구는 학위논문 2편, 학술지논문 5편으로 총 7편밖에 되지 않는다. 학위논문 2편 또한 교육대학원에서 연구된 논문으로서 오효원은 학계에서는 크게 주목되지 못한 듯하다. 오효원 관련 논문은 아래와 같다.

김지용, 「소파 오효원의 사회활동과 시작-개화기의 여류문예활동」, 『아시아여성연구』제 17집, 숙명여자대학교아세아여성문제연구소, 1978.

조순애, 『소파, 오효원여사의 한시연구-소파여사 시집 제일집 중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정의영, 『소파 오효원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허미자, 「근대화 과정의 문학에 나타난 성의 갈등구조 연구-특히 최송설당과 오효원의 한시를 중심으로-」, 『연구논문집』제 34집, 성신여자대학교, 1996.

이성호, 「오효원 한시의 현실의식 및 여성정감의 특징」, 『한국한문학연구』제 27집, 한국한문학회, 2001.

김현주, 「소파 오효원 한시의 변모양상-의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여성문화의 새로운 시각4』, 월인, 2005.

김 선, 「한국근대여성 오효원의 중국 체험과 시작」, 『중국문화연구』제 12집, 중국문화연구학회, 2008.

4) 그 동안의 오효원의 생애를 시기별로 나누어 연구한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다.

김지용(1978)은 수학과 서울 교육, 일본교육과 여학교 설립, 상해에서의 시서화 활동으로 나누어서 논의를 전개하였으며, 조순애(1981)는 성장과정(출생), 효녀 소파, 약혼자와의 사별, 여성 교육에 투신, 시집 출간(부의 序), 정의영(1993)은 출생과 수학시기, 서울 상경과, 사대부와와의 교육, 명신여학교 설립과 기독교 신봉, 약혼자 신해영과의 사별, 중국에서의 활동과 시집 출간, 허미자(1996)는 남자 옷을 입고 글 배우러 다니다, 아버지를 구하고 이름을 효원으로 바꾸다, 여학교를 설립하다, 신해영과 약혼하다, 중국여행과 문학활동, 시

은 해주(海州), 원명은 덕원(德媛)이고 호는 소파(小坡), 수구(隨鵠)이며 1889년 3월 3일에 경상북도 의성에서 관직생활을 하던 수양산인(首陽山人) 경금옹(慶今翁) 오시선(吳時善)의 딸로 태어났다.

본 논문에서는 오효원이 남긴 문집인 『소파여사시집(小坡女上詩集)』⁵⁾을 텍스트로 삼으며 그 중 상편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자 한다. 그의 시문들은 전기적 상각을 지니고 있는 작품으로 상, 중, 하편으로 이어짐에 따라 의식의 흐름을 엿볼 수 있다. 그 중에서 상편에서는 오효원의 초기 의식을 볼 수 있으며, 이것은 개인의 주체성을 형성해 가는 자의식의 준비 단계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오효원의 생애와 관련하여 주체적 인식을 형성해가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학문을 통한 주체의식

상편에 실린 시들은 20세 이전에 창작된 작품으로써 오효원이 자아 정체성을 준비해 가는 시기로 볼 수 있다. 전체적인 시의 내용들은 학문이나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이 차지하고 있지만, 작품의 제제는 다르게 나타난다. 상편에 실린 134편의 시를 분류하였는데, 내용은 주로 학문을 제제로 삼은 것과 자연을 제제로 삼은 것으로 나눌 수 있다.⁶⁾

1) 배움에 대한 열망

오효원이 태어나기 한 해 전에 그녀의 모친이 꿈을 꾸게 되었는데, 어떤 선녀가 바다에 와서 그녀에게 벽도화 한 송이를 주면서 잘 보관하라고 한 뒤에 홀연히 사라지는 꿈이었다. 오효원은 태어날 때부터 눈이 맑고 눈썹이 빼어났으며 이목구비가 남자와 같은 기상이 있었으며, 어렸을 때부터 총명해서 늘 벽에 붓으로 글을 썼다고 한다.

태어날 때부터 남달랐던 효원은 9세에 입학하여 글을 짓기 시작하는데, 『소파여사시집』 상편

집 출판의 시기로 나누어 전개하였고, 김현주(2005)는 출생 및 성장 시기, 서울 상경 및 사교계 진출, 명신 학교 설립 및 약혼, 중국활동, 귀국 및 시집 발간으로 나누어서 생애를 고찰하였다.

5) 오효원, 『소파여사시집』, 소파여사시집간행소, 1929. (본고에서는 상편만을 논의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하 한시 인용에서 시집명과 권차는 생략하고 쪽수만 표기하도록 하겠다.)

번역본은 김지용·김미란, 『한국 여류한시의 세계』, 여강출판사, 2002.를 참고하였으며, 번역되지 않은 작품은 필자가 번역하였다.

6) 『소파여사시집』상편에 실린 134편의 시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이는 필자의 시각으로 분류한 것이다.

학문 (36)	학문수양	12
	사회활동	21
	기타	3
자연 (62)	정회	35
	학문수양을 위한 수단	14
	기타	13
교유 (29)	아버지(思親)	5
	그 외 인물들	24
기타 (7)	기타	7

학문을 제재로 삼은 작품이 26.9%, 자연을 제재로 삼은 작품이 46.3%, 교유를 제재로 삼은 작품이 21.6%, 기타 작품이 5.2%이다. 그 중 자연을 제재로 삼은 작품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연을 제재로 삼고 있는 작품들 중에서 자연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학문을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쓰인 것이 약 23%가 되는 것으로 보아, 오효원이 배움에 대한 열망이 매우 컸음을 엿볼 수 있다. 교유와 관련된 시들도 학문을 제재로 삼은 것과 비슷한 비중을 보이지만 시적대상이 타인이기 때문에, 오효원의 주체의식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는 관련성이 적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 중에서 오효원의 성장기 중 의식의 형성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지는 학문과 자연을 제재로 삼은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여 논의를 전개하도록 하겠다.

의 첫 시가 바로 이에 관한 것이다.

國俗自何時	우리나라 풍속 이느 때부터
重男不重女	남자는 중하고 여자는 천하다 했나
一篇千字文	한편의 천자문을
九歲學於序	아홉 살 되어서야 처음으로 배웠네

『九歲入學後作』, 3首 中 1首, p.1.

오호원이 부친에게 학교에 보내달라고 하였으나, 그 당시에는 여자를 교육하는 기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부친이 남장을 하여 두 오빠와 함께 학교에 보냈다. 오호원의 학문 수양에 대한 열정과 의지가 보이는 시로, 조선의 신문예에 따른 여성 억압이라는 사회적 분위기와는 달리 오호원은 배우고자하는 열망이 남달랐다. 학교에 입학하면서부터 시를 지음으로써 자신의 감정들을 표현하고 있으며, 앞의 시에 이어서 같은 시의 2수에서도 학문에 대한 열망을 지속적으로 표출하고 있다.

一體君師父	문·사·부 일체라는 것을
書中乃得知	책을 보고 비로소 배웠네
兩麓巖岩師	스승님 뒤편 엄격함이 장수 같아
唯余敦無違	가르치심 이기지 않도록 해야지

『九歲入學後作』 3首 中 2首, p.1.

책을 접하고 깨달음을 얻어 학문에 빠져있는 모습이 작품에 드러난다. 책을 통해 지식을 얻은 뿌듯함을 시에서 볼 수 있는데, 스스로 책을 통해 배움을 얻은 후에 엄격한 스승님을 만난 호원은 배움에 어긋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 9세에 학교에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 천자문을 배우고 책을 통한 가르침을 얻고 이름도 쓰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작시까지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당시에 평배했던 유교적 이념은 이성이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도록 억압하였고 순종의 미덕이 강요되었지만 오호원은 전통적인 이성들이 가사의 일을 익히고 관심을 가졌던 것과는 다르게, 책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고 배운 그대로 실천하고자 하였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오호원은 자신의 목소리를 냈고 자신의 열망을 실천시키는 적극적인 이성이었다.

自吾操筆後	내가 글 짓는 것 배우고 보니
學海泛虛舟	학문바다에 뭍 배로 떠가는 것 같아
秋深去掩戶	가을은 깊이가고 대낮에 문 닫고 앉아
閒聽鳥聲幽	한적하게 그윽한 새소리 듣고 있네

『秋江雜詠』 三首 中 一首, p.2.

自愧學無涯	학문에 진진 없음을 스스로 부끄러워하면서
書樓幾度秋	서재에서 많은 가을이 몇 번이던고
黃花生酒氣	노란 국화는 술 생각나게 하고
紅蕖動詩愁	붉은 단풍은 시심을 일깨운다

위의 두 시는 그녀가 이전에 학문에 몰두하고 정진하고자 하지만 학문에 정진하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님을 엿볼 수가 있다. 신이성을 구분 짓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근대적 교육의 수혜 여부였다.⁷⁾ 오호원은 공부를 하겠다는 자신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말하지만 당시 사회의 분위기는 여성에게는 교육의 기회가 열려 있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는 오호원을 남장시켜서 오빠와 함께 서당으로 보냄으로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어줬다. 호원의 아버지의 모습에서도 남성으로서의 권위를 내세우거나 가부장적인 모습은 찾기가 어려우며 호원의 의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면모를 보인다.

오호원은 글 짓는 것을 배우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배움을 통하여 뿌듯함을 느낄 때도 있었지만 시름이나 부끄러움의 감정을 느끼며 혼자 고뇌를 하기도 한다. 위의 「秋日雜詠」에서는 글 짓는 것을 배움으로써 오히려 '빈배(虛舟)'라는 공허함에 빠지게 되며, 「聯居即事」에서는 '자괴(自愧)'를 느끼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처음에 학문에 대한 열의에서 출발하였지만 배우는 과정 속에서 “寬日把樽酒/詩懷更欲踈(종일토록 술잔 들고 마시지만/시상은 오히려 줄어들 가는구나).”라며 학문 정진의 길이 어려움을 토로하며 고뇌를 느끼면서도 “莫言盤錯少/藥草又無魚(문리(文理)가 뒤섞여 적어졌다 고 말하지 마라/약초도 있고 생선도 있지 않은가).”라며 시름에 빠져 있지 않고 긍정적 사고로 전환한다. 자신의 시름을 호방하게 던지내면서 학문에 계속하여 정진하는 모습이 드러난다. 학문 수양을 게을리하지 않고 나아가는 오호원은 학문적인 성취를 이루고 뿌듯함을 느끼는 것이 다음의 시에 나타난다.

少娥十歲始尋章	열살 소녀가 처음으로 문장을 배워서
唐突能臨白土塲	당돌하게도 백일장에 나갔네
幸值徐公賢太守	다행히도 이진 서태수가 보시고
貫珠呼我壯元郎	내 이름 부르며 장원이라 하네

『登白土塲戊戌夏』, p.16.

위의 시에서 오호원은 배우고자 하는 열의만 표출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을 성취했다. 학교를 나간 지 며칠 만에 천자문을 외우는 능력을 보여주었고, 10세 때에는 백일장에 나가서 장원을 했다는 사실이 그녀의 생애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에 대한 것이 작품에도 표현되어 있다. 자신이 백일장에 나가 장원이 된 기쁨을 표출한 것으로, 학문에 대한 열정과 성취, 그리고 호방함을 표현하고 있다. 학문에 대한 성취감은 사회에 참여하여 작시활동을 함으로써 더욱 활발해진다고 할 수 있겠다.

2) 능력 발휘를 위한 사회활동

오호원은 14세 때 아버지의 공금 횡령 사건으로 처음 서울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사건은 그녀의 삶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갖고 있다. 아무도 모르는 낯선 땅에 오직 아버지의 죄를 면하게 해달

7) 서재원, 「나혜석 문학 연구-근대적 여성주체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제 25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05, p.212.

라는 이유로 서울에 올라왔던 오호원은 이 사건을 통해서 시회에 참석할 수 있었고 권력자들의 집에도 드나들게 되었다.⁸⁾ 이로써 시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자신의 작시 능력을 발휘하며 인정받을 수 있었으며, 권력자들과 교유를 맺으면서 그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관계를 유지하였다.

南州遠近士	남쪽 지방 원근에 사는 선비들이
晚藉九成東	늦지막이 구성산 동쪽에 모였네
黃菊休言苦	노란 국화야 네 괴로움을 말하지 말아라
龍川詩古同	용산의 시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으니

又是山烟碧	또한 이 산의 안개는 푸르네
奈何楓葉紅	이찌하의 단풍은 붉단 말인가
今日把酒見	오늘 술잔 들고 바라보노라니
持懷老少同	시 짓는 마음은 노소가 한가지구나

『丁巳東山詩會』 中 1首, 2首, p.3.

위의 두 시에서는 시인들이 모여서 학문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있다. 국화라는 자연물을 대상으로 시인들의 마음을 대유하여 대조하고 있다. 1구에서 “용산의 시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다”고 표현한 것을 통하여 작시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있는 시인들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2수에서도 자연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떠올리고 작시에 대한 고민을 하는 시인들의 모습을 형상화하였다. 오호원은 규방에 앉아 스스로 책을 보고 배우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 공간으로 나아가 다른 시인들과 함께 작시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하며 창작활동을 하였다. 오호원은 배움을 통하여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모습을 실천하였다. 이러한 모습에서 개화기의 여성의 역할과 위상이 실현되며 여성이 가정이 아닌 사회로 나아감으로써 신문식 제약에 상관없이 개인으로서 주체를 실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懸燈旗鼓動	매듭씩 깃발 날리며 북소리 들리니
春色逐人來	봄빛은 사람들은 불고 다니는구나
共堂詩話席	용청기리면서 시 짓는 자리에서
離酌無巡盞	술잔을 주고받으면서 실컷 들이마신다

持酒清狂客	시와 술 즐기는 청량한 손님들
相逢翰墨家	시 즐기는 선비들끼리 서로 만나서
互答陽春白	서로 양춘곡으로 화답하니
崑山養百花	칭산에는 온갖 꽃이 피어난다

梅柳爭春色	매화와 버드나무는 봄 빛깔을 다투고
崑山畫掩扉	마위에 지은 집은 낮에도 사립문 닫았네
西城風景好	서쪽 성의 경치는 참으로 좋아서
持伴頓忘歸	시 짓다 보니 돌아가는 것 잊었네

8) 이 사건을 계기로 덕원이라는 이름을 호원이라고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龍岩社雅集(용암시사에 모이서)』라는 제목의 12수의 시를 통하여 사회에 참여하여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류하는 모습과 정화를 길게 서술하고 있는 것을 통하여 오호원은 사회 참여를 자신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시를 짓는 동시에, 남성들과 술잔을 주고받으며 풍류적인 분위기까지 자아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시를 지어 주고받으며 시간 가는 줄 모르므로 그들의 화답은 이어진다. 이를 통해 호방하면서도 풍류적인 정취가 나타나며, 자연 속에서의 학문에의 정진은 계속 이어진다.

九老仙同一座開	구로사회 신선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三清水巖紫霞臺	삼청수로 술을 담가 자하잔으로 마시면서
平生只有詩人態	평생에 원하는 건 시인의 모습이 되는 것
不道戲眉顰倒來	나는 눈썹도 못 그리고 서둘러 참가했네

『餞春日赴三清水九老詩會』, p.19.

위의 작품은 「분날 삼청동 ‘구로사회’에 참석하고」라는 제목으로, 오호원이 남성들과도 동등한 위치로 사회에 참여했다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시이다. 이 시에는 무제로 ‘餞春日赴三清水九老詩會-時海上金判書鼎根遊靈金判書宗漢相庭蘭輔國泳煥庚農金判書嘉鎮琴來蘭輔國泳部石雲朴判書箕陽 李判書乾夏詩南蘭判書丙寅荷亭呂承旨圭亨足爲九老效香山會而敢以女士參末焉(이때 해사 김성근 판서, 유하 김종한 판서, 제정 민영국 보국, 동농 김가진 판서, 금래 민영소 보국, 석운 박기양 판서, 이견하 판서, 지남 민병석 판서, 하정 이규형 승지가 구로로서 향산회를 분파 모였다. 네가 감히 이사로써 발석에 참여하였다)’라고 붙어 있다.⁹⁾ 이성으로서 평사들이나 사대부, 남성 정치가와 함께 어울리고 작시활동을 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다. 그러나 오호원은 그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함께 사회에 참여하는 등 사회 참여를 실현하여 시를 창작하였다. 자립적인 행동은 사대부들과의 교류에서 자칫 종속적인 위치로 정착하기 쉬운 자신의 위상을 수평적인 관계로 실현시키기도 하였으며,¹⁰⁾ 이것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갔던 것이며, 신분적 계약을 극복하고 개인으로서의 주체를 실현하는 것이다.

吾逕爲誰屈	이긴 건 무슨 누군 위해 쓸었는지
詩仙會有期	시인들은 약속한 날 서로 모였구나
濁酒生清韻	탁주는 맑은 운치 돋우고
可愛夕陽遊	귀엽네夕遊 지는 석양 보기 좋구나

『龍岩社雅集』 12首 中 8首, p.11.

위의 작품은 앞에서 살펴봤던 『龍岩社雅集』의 8번째 시로 사회에 모인 시인들을 중심으로 그 주변풍경을 표현하고 있다. 시인들은 꾸준히 사회모임을 통하여 창작활동을 세운다 하지 않고 있으며 사회 모임을 더욱 흥겹게 해 주는 것이 ‘술’이다. 오호원 작품에는 술을 마추하고서는 시를 짓거나 시상에 대한 고민을 하는 모습들을 형상화한 것이 많다. 조선의 사대부들 중 호방하

9) 상편에 위의 사대부들과 교류한 시가 7편이 실려 있다.

10) 정의영, 앞의 논문, p.30.

고 풍류적인 기상을 지닌 인물에게서 드러나는 ‘술’의 소재가 이성인 오호원에게 나타나고 있다. 술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 교유관계를 맺고 수동적인 이성이 아닌 개인으로서의 자아를 자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인간의 활동 영역은 사회를 뜻하는 공적인 영역과 가정을 뜻하는 사적인 영역으로 구분되는 데 가부장제 사회에서는 공적 영역을 남성의 전유로 하는 한편 여성들은 사적 영역 안에 머물러 있도록 제한하였지만¹¹⁾, 개화기의 여성은 억압된 모습에서 탈출하여 사회 참여도 실현하며 공적인 영역으로도 평등하게 나아갔다.

개화기 여성은 억압 분담에서 반쪽하지 않고, 수직적 구조에서 평행적 구조로 이성역한이 적극적으로 발전했으며,¹²⁾ 오호원 또한 여성들의 관심사였던 일상 생활에서 벗어나 사회에 참여함으로써 작시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개인적 자아로서 타인들과 어울렸다. 명사들과의 교류를 통하여 내적 공간이 아닌 공적인 영역으로 나아가 사회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신분제 사회에서 억압받는 수동적인 여성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 사회에서 개인으로서의 주체를 형성할 수 있었다.

3. 자연을 통한 주체의식

오호원의 시집 상권에는 주로 학문이나 자연을 제제로 삼은 작품들이 많으며 자연을 소재로 삼은 작품들도 그 내용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자연에서 느끼는 쓸쓸함이나 시름을 드러내기도 하고 자연을 예찬하는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며 자연물로서의 자연이 아닌, 학문 수양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모습으로 형상화되는 경우도 있다. 오호원이 자연을 바라봤던 관점을 바탕으로 하여 자연 속에 드러난 오호원의 주체적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감정표현을 위한 자연

자연에서 오호원은 다양한 감정을 느낀다. 다른 시인들처럼 시름, 미애, 예찬, 향수 등의 감정들을 시를 통해 형상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에 대한 묘사가 뛰어난 것을 알 수 있다.

小塘秋水深	작은 연못의 가을 물은 깊은데
照此鑑吾心	이 물에 내 마음 비춰 본다
碧梧庭畔在	뜰가에 서 있는 푸른 오동나무
風動自然琴	바람이 살랑 부는 자연의 가야금이네
大地秋光晚	대지에는 가을빛이 무르익고
幽人起捲簾	방안의 외로운 사람 일어나 발을 걷는다
村容鴈脚冷	마을의 은행잎은 스산하게 떨어지고
山色佛頭尖	산봉우리는 부처 머리처럼 뾰족하게 솟아 있다.

「幽居閑事」 四首 中 一, 三首, p.4.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자연 속에서 유유히 거처하면서 즉흥적으로 지어낸 시이다. 1수의 물을 바라보며 내 마음을 비춰보는 것은 내 마음을 자연물에 빗대어 감각적으로 표현하면서 자아성찰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살랑살랑 부는 바람을 ‘자연금(自然琴)’으로 표현하여 청각적으로

11) 박명희, 『고소설의 여성중심적 시각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p.34.

12) 허미자, 앞의 논문, p.34.

형상화하였다. 3수에서는 산봉우리의 모습을 ‘불두점(佛頭尖)’이라고 하여 시각적으로 형상화하였다.

漠漠雲橫	눈이 아득하게 쌓여 얼었고
霏霏更落	눈이 뽀뽀 내리는데 다시 술은 빗느라 춥구나
縱然頃刻盡	따라서 잠깐 동안 내릴지라도
花信也應嫌	꽃을 뒤흔기가 웅당 이렇구나

『春雪』, p.12.

오호원의 시에서는 주로 봄이나 가을을 계절적 대상으로 삼은 작품을 많이 보이는데, 위의 작품은 봄에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느끼는 정회를 읊은 시이다. 꽃이 피어야 할 봄에 오히려 눈이 내리는 모습을 보며 꽃이 피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마음을 시로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자연에 대한 작품들에서도 자연을 보고 느끼지는 감정을 예찬하는 내용, 시름, 그리움 등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한시 작가들에게 자연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한 수단인 것처럼 오호원 그니에게도 자연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게 위해 필요한 대상이다. 자연을 통하여 항상 긍정적인 것만을 떠올리며 느꼈던 것은 아니며 그리움이나 시름과 같은 감정도 읊어내고 있는데, 다음의 시에서 알 수 있다.

一天如鏡片高高	하늘은 기울처럼 맑고 달은 높이 뽀뽀
臥上科蓬轉豪華	선비들은 서로 모여 흥겨워 호탕해지네
夜靜書檠深似海	고요한 밤 되니 글 짓던 누각은 바다처럼 깊은데
誰能知我送春醪	그 누가 알리오, 봄 보내며 술 마시는 나의 마음을

『夜會』, p.20.

자연의 모습은 아름답고 긍정적인 모습으로 형상화된다. 위의 시에서도 하늘은 맑고 달은 높이 떠 있는 긍정적인 이미지이다. 그리한 자연을 배경삼아 선비들이 밤에 모두 모여 글을 짓고 오호원 또한 함께 참여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호원 자신의 모습은 선비들의 모습과 같이 흥겹거나 즐겁지 못하다. 학문에의 열의가 가득했던 그니였지만 봄날 밤에 그니의 감정은 시름을 느끼고 있다. 자연은 그니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과 대조적으로 형상화되는 경우가 많았다. 자연의 모습은 경이롭고 긍정적인 공간이지만, 그러한 공간을 통해서 자신과 견주어서 느끼는 감정을 표현하였다. 오호원에게 자연은 자연 그대로의 공간이 아닌, 삶의 공간으로서의 자연인 것이다.

2) 학문의 보조수단으로서의 자연

오호원 20세 이전의 시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학문에 대한 열망이나 의지를 표현한 시들이다. 전통 사회의 여성들과는 다르게 오호원은 교육을 받은 신여성이며, 교육을 받게 된 것 또한 그니의 열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자신의 열의로 시작한 공부이기 때문에 학문에 대한 감정은 더욱 컸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많은 시들이 배움과 관련 있다. 앞에서 살펴본것듯이, 자연을 자연 자체가 아닌 삶의 공간으로서, 수단으로서 형상화되어 왔던 것처럼 자연을 통해서도 학문에 정진하고자 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生景非片斷	아름다운 시절은 변장치 않으니
千紅總是花	수많은 붉은 빛을 거느리는 것이 꽃이구나
對案沉吟久	책상을 대하고 오랫동안 시를 읊는데 빠지 있으니
半簾春日斜	반정도 내려 발에 봄날도 서품이지 가는구나

『春F別事』, p.13.

夕陽平野外	석양은 니른 들 밖으로 기울어 있고
峽柳鎖青烟	실버들은 푸른 안개 속에 감추었네
讀書處巖隈	독서를 마치고 싱긴 발을 걷고 보니
雲晴朗色天	구름은 걷히었고 하늘은 개관빛

『春春述懷』, p.9.

오호원의 시에서 특히 자연과 함께 배움에 대한 열망을 표출한 작품들이 많이 존재한다. 그녀는 자연 속에 거처하고 있지만 관심사는 자연이 아니며, 오호원의 관심은 책을 보고 글 공부를 하는 것이다. 자연 속에서 시간가는 줄 모르고 학문에 몰두하는 그녀의 모습은 수동적인 여성이 아닌, 능동적인 여성의 모습이며 학문 수양에 정진하는 것은 자기 생활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자아를 인식하고 실현하려면 자신에 대한 생활을 전제로 해야 한다. 자기 실현이란 한 개인이 자신이 되게끔 하는 인간의 무의식에 존재하는 근원적 가능성을 자아의식이 받아들이 실 천에 옮기는 능동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또한 자기실현은 통속적인 의미의 성인, 군자나 도사를 만드는 과정이 아니라 자기 실현은 농부로 하이든 농부로, 한국인으로 하이든 한국인으로 만드 는 과정이다.¹³⁾ 오호원을 오호원답게 만드는 과정은 배움을 통한 것이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 다. 오호원이 “自處平生事/優遊翰墨隣(내 평생 좋아하는 일은/붓과 먹 벗하며 자식하는 것)”이라고 표현한 것에서도 배움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강했는지 나타나며 세상이나 일상의 생활 속에서의 일보다 글공부 하는 것을 더 좋아하였다.

霽後高城麗景新	비 개인 후의 고성의 아름다운 경치가 새로고
疎籬密竹自成隣	울타리는 드어있고 대나무가 뽁뽁하게 두르고 있네
試墨詞林邀大雅	사람들이 모여 시회를 보며 대아를 구하고
閒檠茶榻屬佳賓	평상에서 술잔을 드니 만가운 손님이 모여든다
老檜經霜千樹界	늙은 진나무들이 서리를 맞아 세상을 겹대지만
寒梅透雪一陽辰	찬 메화는 눈에 사무쳐 좋은 시절을 맞이했구나
仲冬佳節閑懷發	한 겨울의 좋은 시절을 그윽하게 품었으니
興欲裁詩獨我神	내 마음에 시를 짓고자 하는 시류가 강하게 일어나는구나

『雜詠』 10首 中 3首, p.26.

자연을 바라보거나 세상사를 바라볼 때에도 오호원의 마음에는 오직 시를 짓는 것에 대한 생각 만이 자리잡고 있다. 배움에 대한 열망을 표출하는 수단이 바로 시를 짓는 것이며, 시를 짓는 환 동을 통하여 고뇌도 하고 싱취감도 느끼고 있다. 위의 시는 ‘이리 가지 사물을 읊는다’는 제목이

13) 이부영, 『분석심리학』, 일조각, 1978, p.42.

있지만 사물을 통해서 오호원이 느끼는 것은 결국 시에 대한 열망인 것이다. 1,2구에서 비 개인의 자연 경치를 감상하고 3,4구에서 사람들이 모여 시험을 치르고 술을 따르는 사대부들의 호방한 모습, 5,6구에서는 다시 자연 경치의 모습을 읊으면서 오호원은 7,8구에서 이러한 자연의 모습을 모두 내가 품고서는 시를 짓고자 하는 시름이 더욱 커졌다는 더욱 강한 열망으로 표현하고 있다. 여성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도 마련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오호원은 배움에 대한 열망을 드러냈고 그러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지로 배움의 기회도 얻어냈다. 이러한 오호원의 의식이 이후에 학교 설립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

오호원은 시를 통해서 자아 실현을 확립해 나갔다고 할 수 있는데, 「九歲入學後作」으로 시작되는 그녀의 시 작품 전체에서 드러나는 화자는 모두 오호원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존재와 더불어 자신의 의식을 시를 통해 표출하였다. 이것은 자신의 능력과 행위에 대한 만족감을 형성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자존적인 면과 독립적인 면모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¹⁴⁾ 자연 속에서 항상 학문에 대한 열망은 지속되었으며 그러한 시간들이 자기 생활의 시간이 되어 오호원 스스로 자신의 존재를 확립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며, 계몽된 신이성의 주된 관심은 이성현실에 국한되었고 작시활동 또한 활발하지 않았다는 점에 비춰볼 때 오호원의 시는 신이성의 시세계와도 구분되는 독보적 성취를 이루었다.¹⁵⁾

4. 맺음말

이류 한시의 마지막 세대로 알려져 있는 오호원은 조선 후기와 개화기를 살다간 신이성이다. 오호원은 자신의 시 작품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드러내고 가치관이나 의식을 표출하였다. 그러한 면모에서 그녀의 시는 성장기적이며 선기적인 성격을 지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성이라는 신문적 제약 속에서도 많은 수의 작품을 창작하고 조선시대와 개화기 시대를 모두 경험한 전환기 속에서의 여성으로 두 시대의 모습을 모두 보여줌으로써 변모의 과정까지 보여주었다.

안네트 콜로드니는 이성작가의 주요목적을 따로 없었거나 무시된 이성작가의 텍스트를 재발견하고 잘 알려진 또는 아직 알려지지 못한 선행적 작가를 발굴하고 문학사 활동에 적극 참여시키는 것이라고 하였다.¹⁶⁾ 오호원은 현재 문집이 전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작품 수로 보더라도 473편의 적지 않은 수임에도 불구하고 문학사에서 주목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남성들의 소유물이었던 한문을 사용하여 전 시대의 여성과는 다른 사회 참여 의식이나 주체적이고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여성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근대 여성의식을 표출하였다.

『소화이사시집』 중 중편이나 하편보다는 상편에서 사회 참여 의식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에 주목하여 오호원의 주체성을 확립해 가는 초기 의식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학문에 열의를 가지고 학문 수양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하여 글을 배우고 익혔으며, 시작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였다. 이것이 스스로를 성찰하고 자신의 존재를 확립해 나가는 과정이 되었다. 또한 서울로 올라가 많은 명사들, 권력가들과의 교유 관계를 맺음으로써 어깨를 나란히 하여 사회에 참여하여 자신의 학문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이처럼 오호원의 시는 과거사의 반추를 통해 당대사를 성찰하는 구도를 취하고 있으며,¹⁷⁾ 자신

14) 정의영, 앞의 논문, p.46.

15) 이성호, 앞의 논문, p.359.

16) 안네트 콜로드니, 김열규의 공역, 『페미니스트 문학비평의 몇가지 방향들』, 『페미니즘과 문학』, 문예출판사, 1990, pp.56~79.

17) 이성호, 앞의 논문, p.339.

의 삶을 시로써 표현하여 남겼다는 것은 자신을 주체적으로 인식하였고 삶에서 주인공으로 살아갔던 문학사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자신의 그러한 의식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남성들에게서 많이 나타났던 酒이나 情, 情 또는 我, 情 등의 시어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며 앞으로 더 연구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중편이나 하편에서 나타나는 오호원의 의식 또한 연구하여 오호원의 시 속에서 드러나는 전반적인 의식과 그녀의 시가 우리 한시 문학사에서 어떤 의의를 갖는지 연구하는 것은 이성 한시 문학사에서 필요한 작업이다.

<참고문헌>

- 김지용·역지, 『한국현대 이류한시문선』, 명문당, 2005.
- 김지용·김미란, 『한국 이류한시의 세계』, 이강출판사, 2002.
- 허미자 편지, 『조선조이류시문선집』, 태학사, 1988.
- 김미란, 『충명이 무뎠 못끝만 못하니』, 평민사, 1992.
- 김상홍, 「조선후기의 문학사상」, 『한국문학사상사』, 계명문화사, 1991.
- 김 선, 「한국근대여성 오호원의 중국 제함과 시작」, 『중국문화연구』 제12집, 중국문화연구학회, 2008.
- 김지용, 「소파 오호원의 사회활동과 시작-개화기의 이류문예활동」, 『아시아여성연구』 제17집, 숙명여자대학교 아세아여성문예연구소, 1978.
- 김현주, 「소파 오호원 한시의 민보양상-의식의 민화를 중심으로-」, 『여성문화의 새로운 시작』, 원인, 2005.
- 박명희, 『고소설의 여성중심적 시각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0.
- 서제원, 「나혜석 문학연구-근대적 여성주체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제25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05.
- 안네트 콜로드니, 김일규와 공역, 「페미니스트 문학비평의 몇가지 방향들」, 『페미니즘과 문학』, 문예출판사, 1990.
- 이능화, 『조선해어화사』, 동문선, 1992.
- 이부영, 『분석심리학』, 일조각, 1978.
- 이성호, 「오호원 한시의 현실의식 및 여성정감의 특징」, 『한국한문학연구』 제27집, 한국한문학학회, 2001.
- 조순애, 「소파, 오호원여사의 한시연구-소파여사 시집 제일집 중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 정의영, 『소파 오호원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 허미자, 「근대화 과정의 문학에 나타난 성의 간능구조 연구-특히 최송설당과 오호원의 한시를 중심으로-」, 『연구논문집』 제34집, 성신여자대학교, 1996.

梅窓의 한시에 나타난 청각적 이미지 연구

김선현(숙명여자대학교)

<목 차>

- I. 서론
- II. 梅窓 한시의 청각적 이미지
 - 1. 彈琴을 통한 恨의 정화
 - 2. 새 울음을 통한 고독의 심화
- III. 결론

I. 서론

梅窓은 조선 중엽 선조 때의 부안 출신 기생으로, 허균과 유희경 등 당대의 문장가들과 사귀며 많은 시를 남겼다. 그는 1610년 서른여덟의 나이로 일기를 마쳤는데, 이후에 고을의 현리들은 회자되던 그의 시를 모아 『梅窓集』을 펴냈다고 한다. 매창의 생애 및 한시에 대한 기록은 『梅窓集』의 발문에 전하는데¹⁾ 이 외에도 『村隱集』과 『惺所後說』, 『芝峰類說』 등에 매창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 있으며, 이를 통해 그와 문사들의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매창과 그의 한시에 대한 연구는 다각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특히 초기 연구는 매창의 생애에 대한 고찰과 더불어 그와 교유했던 인물들과 작품의 관계를 살펴려는데 초점이 맞추어졌다.²⁾ 이후 선행 연구를 통해 많은 자료와 『매창집』의 이본이 발간되면서 이러한 접근 외에도 황진이, 허난설헌 등의 조선의 여류시인 뿐 아니라 중국의 여류 시인과의 비교 연구³⁾, 민도수가 높은 시어를 중심으로 하여 미학적인 관점에서의 분석을 시도한 연구⁴⁾ 등이

1) “계생의 자(字)는 천향이며 스스로 매창이라고 불렀다. 현리 이탕종의 딸로, 만력 계유년에 태어나 경술년(1610)에 죽었으니 나이가 서른여덟이었다. 평생 노래 부르고 시 읊기를 잘하여 수백여 편의 시가 한 때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으나 지금은 거의 흩어져 잃어버렸다. 승정후 무신년(1668) 10월에 아들들에게 입으로 전하여 읊어졌던 여러 형태의 시 58수를 얻어 개암사(開巖寺)에서 목판에 새긴다.[桂生字天香 自號梅窓 縣吏李湯從女也 萬曆癸酉生 庚戌死 得年三十八 平生善吟詠 有詩累百餘首膾炙一時 而今幾散失 崇禎後戊申十月日 得於吏輩之傳誦各體詩五十八首 鋟梓于開巖寺]”『梅窓集』(허미자, 『이매창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1988, 부록 하버드대학 소장본 영인자료.) 175쪽. ; 가람본『梅窓集』14쪽 참고.

2) 김지용, 「매창문학연구」, 『수도여사대논집』6, 수도여사대, 1974.

허미자, 『이매창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1988.

김민성, 「이매창의 생애와 문학」, 『매창전집』2, 고글, 1998.

허경진, 「매창집에 관련된 인물과 창작 시기에 대하여」, 『韓國漢文學研究』40, 韓國漢文學會, 2007.

3) 최세정, 「난설헌(蘭雪軒)매창(梅窓)옥봉(玉峰)한시 비교 연구」, 『東方漢文學』, 2, 동방한학회, 1983.

이여주, 「한중 기녀시인 설도와 이매창의 비교연구」, 서울대석사논문, 2003.

4) 허미자, 앞의 책, 1988.

김보근, 「매창의 한시일고」, 『조선시대 여성문학과 사상』, 이회, 2003.

이루어져 왔다.

이처럼 매창과 그의 한시에 대한 선행 연구는 작가의 생애를 중심으로 한 작가론과 한시의 주제에 주목한 작품론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매창과 그의 작품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특징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다는 점에서 성과를 이루었지만 매창 한시의 미적 특질을 미시적인 관점에서 검토하는 데는 다소 소홀한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매창 한시를 좀더 심세한 시선으로 살펴볼 때, 그의 한시에 흐르고 있는 청각적 이미지에 주목해 볼 수 있다.

현재 전하고 있는 그의 시 58수 중 반 이상의 작품에서 청각적인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다. 시인은 소리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보인다. 그 과정에서 상상적 세계를 구축하고 그 안에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소리를 담아 넣음으로써 상상적 세계 속에 현실의 이상을 투영한다. 그렇다면, 매창은 그의 작품 속에 어떤 소리를 통해 자신의 내면에 담긴 세계를 시 속에 담아내고 이를 통해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였던 것인가. 이 논문에서 필자는 그의 시에 나타난 청각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그의 시를 분석하면서 이러한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한다.⁵⁾

II. 梅窓의 한시에 나타난 청각적 이미지

매창의 한시는 현재 『매창집』에 58수가 실려 전하는데, 전체의 작품 중 36수에 청각적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다. 허균이 『청수시화』에서 이원형의 작품이라고 밝힌 <尹公碑>를 제외하곤 57수의 작품이 남아 있음을 감안해 본다면, 청각적 이미지가 나타나는 시가 절반이 넘는 비율(약 63%)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매창이 이처럼 많은 작품에 청각적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청각 즉 소리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시적 세계 속으로 들어와 서정적 자아의 심정을 고조시키기도 하고, 시의 분위기를 심화시키기도 한다. 즉, 소리는 마음의 막을 이는 수단으로서, 서정적 자아의 심정을 시 전체의 분위기로 이끌어가는 에너지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관심을 두어야 할 점은 특히 매창이 거문고나 젓대 등의 관현악기를 통해 넘어 부계한 현실 속에서의 외로움을 넘어서 드러내 보이는 동시에 기러기나 까마귀와 같은 새의 울음소리를 통해 고독하고 쓸쓸한 시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매창의 한시에 나타난 청각적 이미지는 크게 거문고, 생황 등의 관현악기의 소리와 새 울음소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물론, 노리개 소리, 물시계 소리, 원숭이 울음소리, 귀뚜라미 울음소리, 경쇠나 종소리 등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관현악기의 소리나 새 소리에 비해 그 비율이 매우 적다.⁶⁾ 현악기로는 거문고와 쟁(箏)이, 관악기에는 피리와 통소, 생황이 나타나며, 새 소리에는 학, 두견새, 기러기, 닭 등이 나타나는데, 관현악기 가운데 현악기가 나타나는 시는 10수이며⁷⁾, 피리와 같

이화형, 「기생 매창 시의 존재적 갈등」, 『우리문학연구』 19, 우리문학회, 2006.

윤향기, 이경영, 「매창집(梅窓集)에 나타난 ‘새’ 이미지 연구」, 『한국현대문예비평』 128,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9.

5) 이 논문은 『梅窓集』하버드대본, 김동욱 소장본¹⁾과 가람문고본을 저본으로 삼고, 번역은 『매창전집』(김민성, 고글, 1998.) 과 『매창 시선』(허경진, 평민사, 1997.)을 참고하였다. 다만 이 논문에서 인용한 시는 두 번역본을 참고하되 원문에 맞추어 필자가 재번역하였다.

6) <鞦韆>에서는 노리개 소리가, <憶故人>에서는 물시계 소리가 나타나며, <仙遊>에서는 원숭이의 울음소리가, <秋思>에서는 귀뚜라미의 울음소리가 청각적 이미지로 나타난다.

7) 거문고와 쟁 등 현악기가 나타나는 시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贈別>, <彈琴>, <春思>, <自恨>, <彈琴>, <閨中怨>, <春怨>, <自恨薄命>, <夜坐>, <憶昔>

은 관악기는 4수8)이다. 또한 새 울음소리는 11수의 작품에 나타나고 있다.9)

이러한 비율을 감안해 볼 때, 매창 한시에 나타난 청각적 이미지는 크게 관현악기 소리와 새 울음소리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매창 한시의 청각적 이미지의 범주를 크게 거문고를 비롯한 관현악기 소리와 새 울음소리로 나누고 이러한 이미지를 통해 드러내고자 했던 시인의 상상적 세계에 주목하면서 그의 작품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1. 彈琴을 통한恨의 정화

이 장에서 거문고는 관현악기의 통칭으로 사용하였다. 그의 시에 거문고, 피리, 생황 등의 악기가 두루 사용되고 있지만 거문고가 시어로 많이 등장하고 있고, 매창과 거문고는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매창은 평소 거문고와 시에 뛰어났으며, 특히 거문고를 좋아했다고 한다. 『지봉유설』에는 매창이 거문고를 좋아하여 죽을 때에도 거문고를 함께 묻었다는 의 기록이 있으며, 『성수시화』에는 매창이 시를 잘 짓고 거문고에 뛰어났다는 기록이 전한다.

부안(扶安)의 창기(倡妓) 개생(桂生)은 시를 잘 짓고 노래와 거문고에도 뛰어났다. 어떤 태수가 그녀와 가깝게 지냈는데 그 태수가 떠난 뒤에 유인들은 그를 사모하여 비록 새우니 개생이 달밤에 그 비석 위에서 거문고를 타고 하소연하며 길게 노래했다.10)

임자(壬子), 부안(扶安)에 도착하니 비가 심하게 내리 머물렀는데 고홍달(高弘達)이 인사를 왔다. 창기(倡妓) 개생(桂生)은李玉汝(李玉汝)의 정인(情人)으로, 거문고를 맡으며 시를 읊는데 외모는 비록 빼어나지 않았으나 재주와 정감이 있어 함께 이야기할 만하여 종일토록 술잔을 놓고 시를 읊으며 서로 화답하였다. 밖에는 개생의 조카를 김소에 들였으니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이다11)

개랑이 평소 거문고와 시를 좋아하여 죽을 때에 거문고를 함께 묻어 주었다고 한다.12)

기생들은 지마다 자신의 장기를 갖게 마련이므로, 기생으로서 거문고를 좋아하고 연주를 잘 하는 것이 큰 장점이랄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기생에게 제일 중요한 덕목이라 한 수 있는 외모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하지 않으면서도 거문고에 뛰어난 것을 장기로 삼는 것은 매창이 거문고로 대표할 만한 인물이었음을 짐작케 한다.13) 또한 죽을 때에 거문고를 함께 매장했다는 것은 통해 거문고에 대한 매창의 애착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매창이 거문고를 즐기고 아꼈다는 사실은 그의 한시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매창의 한

8) 피리, 통소, 생황 등의 관악기가 나타나는 경우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自恨>, <早秋>, <記懷>, <仙遊>

9) 새 울음소리가 나타나는 시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病中>, <春愁>, <秋夜>, <閨中怨>, <早秋>, <春怨>, <秋思>, <伏次韓巡相壽宴詩韻>, <仙遊>, <遊扶餘白馬江>, <龍鶴>

10) 扶安倡桂生工詩善謳彈 有一太守狎之 去後邑人立碑思之 一夕佳月生 彈琴於碑石上 逝而長歌. 『성수시화(惺叟詩話)』, <설부(說部)> 4, 『성소부부고』 권 25.

11) 壬子 到扶安 雨甚留 高生弘達來見 倡桂生 李玉汝情人也 挾瑟吟詩 貌雖不揚 有才情可與語 終日觴詠相倡和 夕 納其姪於寢. 爲遠嫌也. <조관기행(漕官紀行)>, <기행(紀行)> 상(上), <문부(文部)> 15, 『성소부부고』 권 18.

12) 桂娘者扶安賤娼 自號梅窓 嘗有過客聞其名 以詩挑之 娘即次韻曰 平生不學食東家 只愛梅窓月影斜 詞人未識幽閑意 指點行雲枉自多 其人悵然而去 娘平日喜琴與詩 死以琴殉葬云. <기첩시(妓妾詩)>, 문장부(文章部) 7, 『지봉유설』 권 14.

13) 『광한루기』에서 월매, 부용, 모란, 도화 등 각 기생을 소개하는 대목을 살펴보면, 대부분 그들의 외모를 먼저 내세운다. 예컨대 ‘그 다음은 도화(桃花)니, 무릉도원 입구에서 공연히 고기잡이배 미혹케하고[空誤漁舟]’처럼 외모에 대한 평을 통해 기생 각각의 이미지가 구축되고 평가되는 것이다.

시에선 이러 악기 가운데 특히 거문고가 시어로 많이 쓰이는데, 그것은 매창의 분신이자 사랑하는 임이며, 임의 부재를 확인시켜 주는 존재로 등장한다.¹⁴⁾ 여기서 거문고는 명사형인 ‘琴’이나 ‘箏’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거문고를 탄다(彈琴)’는 행위로 표현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거문고를 타는 행위는 서정적 자아가 자신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행위이고, 시적 화자는 이를 통해 님을 향한 그리움과 외로움의 심사를 거문고의 소리 속에 풀어낸다.

(1) 幾歲鳴風雨	비바람 속에서 얼마나 울었던가
今來一短琴	이제껏 지녀 온 작은 거문고 하나
莫彈孤鸞曲	<고난곡(孤鸞曲)> 뜯지 말자했건만
終作白頭吟	끝내 <백두음(白頭吟)>을 짓고 마네.

<거문고를 타며(彈琴)>

(2) 誰憐綠綺訴丹衷	거문고로 일편단심 하소연한들 그 누가 가엾게 여기리.
萬限千愁一曲中	온갖 원한 근심, 이 한 곡조에 담았다네.
重奏江南春欲暮	거듭 <강남곡(江南曲)> 타는 동안 봄 저물어 가니
不堪回首泣東風	참지 못하고 고개 돌려 동풍에 눈물 짓네.

<거문고를 타며(彈琴)>

같은 시제의 두 시에서 시적 화자는 님을 향한 그리움과 마음에 쌓인 근심을 거문고를 타는 행위 속에 풀어낸다. 시적 화자가 부르는 <고난곡(孤鸞曲)>, <강남곡(江南曲)>은 님을 그리워하는 노래이고, <백두음(白頭吟)>은 사마상이가 무릉의 이인을 접으로 데려오려 하자 그의 아내 박문군이 반류하며 불렀다는 노래이다. 즉, 두 작품에서 시적 화자가 거문고로 연주하는 곡은 모두 외로운 심사를 담고 있는 곡조로, ‘온갖 원한 근심, 이 한 곡조에 담았다네[萬限千愁一曲中].’의 구절에서 살피볼 수 있듯이 彈琴의 행위는 이별의恨을 거문고의 곡조 속에 담는 행위며, 거문고의 곡조는 님을 향한 그리움을 담은 심적 응결체이다.

‘비바람 속에서 얼마나 울었던가[幾歲鳴風雨]’라는 자조적 탄식 속에서 슬픔의 원인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지금껏 몸에 지니온 거문고로 그가 연주한 노래가 <고난곡>과 <백두음>이라는 사실을 통해 슬픔의 원인이 바로 님의 부재, 사랑의 좌절에서 비롯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적 화자는 외로움을 노래하지 않고자 했지만, 님을 향한 그리움에 지쳐 슬픈 곡조를 연주하며 스스로의 근심을 노래 속에 담는다. 이를 통해 심중의 회포를 풀고자 하며, 자신의 박명과 세상살이의 어려움을 거문고, 피리로 달랜다.¹⁵⁾

(3) 竹院春深鳥語多	뜨락엔 봄 깊어 새소리 가득하니
殘粧含淚捲窓紗	화장기 없는 얼굴에 눈물 머금고 창가의 발을 걷네.
瑤琴彈罷相思曲	거문고로 <상사곡(相思曲)> 타니
花落東風燕子斜	동풍에 꽃 지고 제비 비껴나네.

<봄날의 시름(春怨)>

14) 허미자는 이러한 거문고의 의미를 확장시켜 거문고가 매창의 ‘집념의 대상물로서 매창의 수호부와 같은 상징물’¹⁾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허미자, 앞의 책, 100쪽.

15) 성낙희, 「조선조 여류한시의 세계」, 『아세아여성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아세아여성연구소, 211쪽. 성낙희 교수는 이 논문에서 매창 시에서 거문고를 다룬 작품을 열거하며 매창이 그리움이나 세상살이의 어려움을 거문고, 비파, 피리 소리로 달랜다고 하였다.

(4) 竹院春深曙色遲	뜨락엔 봄 깊어 새벽빛 더디고
小庭人寂落花飛	아담한 뜰 적막한데 낙화만 흩날리네
瑤箏彈罷江南曲	쟁으로 <강남곡(江南曲)> 타니
萬斛愁懷一片詩	온갖 수심이 한 편의 시라네.

<규중에서의 원망(閨中怨 又)>

늦은 봄, 대나무로 둘러싸인 뜨락에서 새들이 지저귀고, 시적 화자는 화장기 없는 얼굴로 이런 정경을 바라본다. 화장이 다 지워진[殘粧] 채 눈물을 머금은 얼굴은 님의 무제한 현실을 시각적으로 드러낸다. 시적 화자는 그 순간, 거문고로 님과 간의 사랑을 노래하는 <상사곡(相思曲)>을 연주하며 외롭고 쓸쓸한 자신의 마음을 위로한다. 여기서 거문고 타는 행위는 임을 향한 그리움으로 눈물 흘리는 시적 화자의 마음을 위로하는 동시에 원망을 맘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그러기에 기구(起句)에서 분빛 가득한 정경은 시적 화자의 외로운 심사를 거쳐면서 결구(結句)의 꽃잎이 떨어지고, 제비가 떠나가 머리는 상황으로 귀결되는데, 이는 파란의 세계가 자아의 정서로 발미암아 쓸쓸한 분위기로 전환되는 것이다.

<규중에서의 원망(閨中怨 又)>에서 역시 화자는 깊은 봄, 대나무로 둘러싸이고, 낙화가 흩날리는 적막한 정원을 시각적으로 포착한다. 시인은 승구(承句)까지는 외부의 공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전구(轉句)에 이르게 되면서 쟁(箏)의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시상이 전환되고, 결구(結句)에서는 내면의 수심으로 관심을 옮긴다. 여기서 거문고와 쟁의 청각적 이미지는 외부에서 내부로의 공간 이동 매개로서, 서정적 자아의 눈에 포착된 외부 세계를 가슴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다.

한편, 거문고는 님의 무제를 상기시키는 매개가 되어 시적 화자의 수심을 증폭시키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다음의 시에서 거문고를 타는 행위는 임을 잊기 위한 행위이지만, 거문고를 연주하면 할수록 그리움은 짙어만 간다.

(5) 謫下當時壬癸辰	임진, 계사에 왜적 쳐들어 오니
此生愁恨與誰伸	이 몸의 근심 뉘와 더불어 풀어보리
瑤琴彈罷孤鸞曲	거문고로 <고난곡(孤鸞曲)> 타 보아도
悵望三清憶玉人	멍하니 삼청 바라보며 옥 같은 그대 그리네.

<옛일을 더듬으며(憶昔)>

(6) 舉世好竿我操瑟	세상 사람들 남시 좋아한다지만 나는 거문고를 타네
此日方知行路難	오늘에서야 알았네. 세상살이의 어려움
別足三慙猶未遇	발 잘리고 세 번이나 부끄러움 당해도 끝내 우리님 만나지 못하니
還將璞玉泣荊山	또다시 옥덩이 안고 형산에서 우노라.

<기박한 나의 운명(自恨薄命)>

<옛일을 더듬으며(憶昔)>에서 시적 화자는 임진, 계사년 간 전란의 소용돌이 속에 홀로 남겨져 있다. 근심을 함께 풀어갈 임이 무제한 현실 가운데 시적 화자는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거문고와 비파를 꺼내들고 연주하며 멍하니 사랑하는 님을 생각한다. 여기서 거문고를 타는 행위는 앞의 시들과 마찬가지로 현실의 고독과 근심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먼 기억으로부터 님을 눈앞으로 불러들이는 행위이다. 여기서 거문고는 기억의 지평과 현실 공간을 이어주고 무제하는 임을 상기시켜주는 도구로 기능한다.

<기박한 나의 운명(自恨薄命)>에서 시적 화자는 자신을 옥덩이를 주워 왕에게 바친 민화(卞和)에 비유하였다. 민화(卞和)는 어왕에게 옥을 바쳤지만 잘못 이해를 받아 왼쪽 발이 잘렸고, 뒤이어 무왕에게 옥을 바쳤으나 또 잘못 이해를 받아 오른쪽 발이 잘렸다. 그 후, 문왕이 즉위하자, 민화(卞和)는 옥을 끌어안고 초산 아래에서 사흘 밤낮을 통곡하며 피눈물을 흘렸는데, 이 소식을 들은 문왕은 옥을 다듬게 하여 보물을 얻었다. 님을 찾지 못한 자신의 처지를 온 몸을 마쳐 지조를 지켰지만 세상에 인정받지 못했던 민화(卞和)에 빗대었다. 그러나 고사 속에서 민화(卞和)는 문왕을 만나 인정을 받았으나, 시적 화자는 민화와 같은 모진 고난 속에서도 끝내 님을 만나지 못하여 아직 옥덩이를 안고 형산에서 운어야만 하는 처지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시적 화자는 거문고를 탐으로써 자신의 심정을 노래하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민화(卞和)가 거문고를 타는 자신이라면, 풀이라고 감정했던 옥인들은 남시질 좋아하는 세상 사람들인 것이다. 이러한 대조적 시상의 배치를 통해 매창은 시적 화자의 절개를 나타내고, 거문고를 자신과 동일시한다. 여기서 거문고는 기박한 자신의 운명에 대한 근심을 달래주는 매개물인 동시에 절개와 지조를 지키며 간절히 임을 기다리는, 세상과 구별된 존재를 표상하는 것이다.

이상의 시에서 거문고는 시적 화자의 시선을 밖에서 안으로 이동시키고, 임이 부재한 현실 속에서 기억 지평의 임을 내가 존재하는 이곳으로 불러들이는 역할을 한다. 화자는 거문고 타는 행위를 통해 임을 생각하고, 내면의 외로움에 침잠하게 되는데 이것이 거문고를 타는 행위로 표현되고 있다. 거문고는 외로운 심사를 담는 심리적 매개물로서, 그것을 타는 행위는 스스로의 마음을 위로하고 정화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이다.

2. 새 울음을 통한 고독의 심화

이류 한시에는 새의 이미지가 많이 등장하는데, 두견새는 이별의 아픔, 나그네의 고독, 상사나 죽음, 미운 등의 감정을 표현하는 정서적 등가물로 그려지고, 학의 이미지는 대개 비극적 자의식의 심상으로 쓰인다.¹⁶⁾ 이와 마찬가지로 매창의 한시에도 두견새, 학, 기러기, 까마귀, 제비 등의 새가 등장하는데, 새 울음이 소재로 차용된 시 11수 가운데 기러기는 4수에, 두견새, 학, 까마귀는 각각 2수에 등장하며, 닭과 제비는 각각 1수에 나타난다.¹⁷⁾ 앞서 거문고가 단지 ‘거문고’라는 시어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거문고를 타는 행위(彈琴)’으로 존재하듯이, 새 역시 ‘기러기(雁)’, ‘두견(杜鵑)’ 등의 시어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지저귀는[啼] 새’로 등장한다. 그리고 새는 ‘울다[啼, 鳴]’라는 동사와 함께 등장하여 애상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예를 들어 <규중에서의 원망(閨中怨)>에서 시인은 꽃이 흐드러지게 핀 정경과 더불어 슬피 우는 두견새의 울음소리를 배치함으로써 시적 분위기를 애상적으로 표현한다.

16) 신은경, 「생성시학과 두견의 의미론」, 『한국언어문학』43, 한국언어문학회, 1999, 66쪽

이혜순 외, 『한국고전여성작가연구』, 태학사, 1998, 226쪽.

17) 기러기를 소재로 한 시는 <秋夜>, <早秋>, <春愁>, <遊扶餘白馬江>이고, 두견새를 소재로 한 시는 <春愁>, <閨中怨>이며, 학을 소재로 한 시는 <病中>, <仙遊>이고, 까마귀를 소재로 한 시는 <遊扶餘白馬江>, <籠鶴>이다. 닭은 <閨中怨>에, 제비는 <伏次韓巡相壽宴詩韻>에서 소재로 쓰였다.

- (7) 瓊花梨花杜宇啼 옥꽃 배꽃 사이에 두견새 처마 밑에서 우니
滿庭蟾影更悽悽 뜰에 가득한 달빛 더욱 서글퍼라.
相思欲夢還無寐 우리님 생각에 꿈에 뵈고자 하나 잠은 오지 않고
起倚梅窓聽五鷄 일어나 매화 핀 창가에 기대니 닭이 우네.

<규중에서의 원망(閨中怨)>

- (8) 露濕青空星散天 이슬 맺힌 밤 푸른 하늘엔 별 흩어지고
一聲吽雁塞雲邊 기러기 길게 울며 구름 끝 가르네
梅梢淡月移欄欄 어스프레한 달빛에 비친 매화 가지 난간까지 오도록
彈罷瑤箏眠未眠 거문고로 달랬건만 잠은 오지 않네

<가을 밤(秋夜)>

위의 시에서 시적 화자는 하얗게 옥꽃과 배꽃이 피고, 뜰에 한 가득 비춘 달빛 속에서 서글픔을 느낀다. 꽃이 흐드러지게 핀 아름다운 정경 가운데 구슬피 우는 두견새의 울음소리는 시적 화자의 외로움과 비애를 자아낸다. 『本草綱目』에 따르면, 두견새는 늦은 봄에 우는데 밤에 울면 새벽까지 울고, 어름이 되면 밤낮으로 울며 그 소리가 애절하다고 한다.¹⁸⁾ 이러한 두견새의 울음소리가 흐드러지게 핀 흰 배꽃과 어우러지면서 애상적인 분위기를 주조하고, 시적 화자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사랑하는 님을 떠올리며 잠 못 이루고 있는 것이다.

우리 시가에서 두견새는 속 망세의 전설과 결부되어 ‘不如歸’, 소쩍새, 접동새 등으로 불리었으며 이별, 고독, 무상감, 죽음 등 비애를 환기하는 대상으로 다루어진다.¹⁹⁾ 이러한 시가적 맥락과 관련하여 살펴볼 때, 매창의 한시에 나타난 두견새의 울음소리는 이러한 시가적 전통의 맥을 이어가며 비애감을 심화시키는 매개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시인은 두견새의 울음소리에 그치지 않고, 닭의 울음소리로 시상을 마무리 지으면서 비애감을 더욱 증폭 시킨다. 절구(結句)의 닭의 울음소리는 앞치락뒤치락 잠 못 이루다가 이미 날이 밝았다는 사실 즉 시간적 흐름을 의미하는 동시에 두견새의 울음과 서로 이어지며 화자의 애달픈 심정을 심화시키는 것이다.

<가을 밤(秋夜)>에서 역시 새의 울음소리는 화자의 쓸쓸한 감정을 고조시킨다. 속속하세 이슬이 맺힌 가을 밤 시적 화자는 별이 흩어진 하늘을 따라다니며 길게 이어지는 기러기 울음소리를 듣는다. 기러기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칠을 따라 떠돌아야만 하는 운명을 가진 새이지만, 평생 한 마리와 짝을 지어 살기 때문에 선동훈례에서는 혼배 상에 목안(木雁)을 올려 부부간의 깊은 정을 상징하는 새이기도 하다. 그러한 기러기가 길게 울며 가는 모습은 시적 화자에게 임의 무제를 상기시켜 주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분위기 가운데 화자는 고독과 그리움을 거문고로 달래려 하지만 잠 못 이루는 뿐이다. <규중에서의 원망(閨中怨)>에서 두견새의 울음과 옥꽃, 배꽃의 아름다움 그리고 닭의 울음과 매화 핀 창가의 모습 등 청각적 이미지와 시각적 이미지가 조화를 이루면서 시상을 증폭해 나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시에서 역시 이슬 맺힌 가을 밤에 별이 흩어진 하늘의 모습과 기러기의 울음이라는 두 이미지가 조화를 이루며 시의 분위기를 형성해 나간다. 이처럼 매창의 시에서 새 울음소리라는 청각적 이미지는 시각적 이미지와 조화를 이루며 시의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이러한 양상은 다음의 시에도 잘 나타난다.

18) ‘杜鵑出蜀中…春暮即鳴 夜啼達日 鳴必向北 至夏尤甚 晝夜不止 其聲哀絕…’ 정민, 『한시 속의 두견이와 소쩍새』, 『한국한시연구』 9, 한국한시학회, 2001, 52쪽 재인용.

19) 신은경, 「두견의 시적 내포」, 『한국시가연구』6, 한국시가학회, 2000. 참조.

(9) 水村來訪小柴門
 荷落寒塘菊老盆
 鴈帶夕陽啼古木
 雁含秋氣渡江雲
 休言洛下時多變
 我願人間事不聞
 莫向樽前辭一醉
 信陵豪貴草中墳

수촌에 방문하여 사립문 두드리니
 연꽃 떨어진진 차가운 연못에 국화 시들었네.
 갈가마귀 석양에 늘어서 고목에서 울고
 기러기는 가을 기운 머금고서 구름 비친 강 너머가네
 서울 시속 변했다고 말하지 마오
 내 인간사 듣고 싶지 않으니
 술동이 앞에 두고 취하기를 거절치 마오
 호탕한 신릉군도 풀 속 무덤에 있으니.

<부여를 여행하며(遊扶餘白馬江)>

(10) 一鎖樊籠歸路隔
 崑崙何處聞風高
 靑田日暮碧空斷
 緱嶺月明魂夢勞
 瘦影無憐愁獨立
 昏鴉自得滿林噪
 長毛病翼摧零盡
 哀唳年年憶九臯

새장 속에 갇혀 돌아갈 길 막혔는데
 곤륜산 어느 곳에 낭풍(閼風巔) 솟았던가
 푸른 들판에 해 저물고 푸른 하늘 끊어진 곳
 구령의 달은 밝아 꿈속에서도 괴로워라
 야윈 몸으로 짝 없이 근심스레 홀로 서 있으니
 저물녘 갈가마귀 숲 가득 지저귀네.
 긴 털 병든 나래 죽음 재촉하니
 슬피 울며 해마다 깊은 못 그리워하네.

<조롱 속에 갇힌 학(籠鶴)>

두 시에서 서정적 자아의 눈앞에 놓인 현실은 연꽃이 떨어지고 국화가 시들었으며, 새장 속에 갇혀 돌아갈 길이 막힌 부정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부정적 현실 가운데 지저귀는 갈가마귀와 떠나가는 기러기는 이러한 시적 분위기를 더욱 심화시킨다. 낯가에 들리는 갈가마귀의 울음소리와 저 너머로 떠나가는 기러기 떼의 모습에서 청각적 이미지와 시각적 이미지가 한데 어우러지며 애상적인 분위기를 주조한다.

<부여를 여행하며(遊扶餘白馬江)>는 선경후정(先景後情) 방식으로 시상이 전개 되는데, 수련(首聯)에서 시각적 이미지가 그려지고 한련(頷聯)에서 청각적 이미지가 더해져 시 전체에 쓸쓸하고 어두운 분위기가 흐른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는 경련(頸聯)과 미련(尾聯)으로 이어지면서 인간사에 대한 시인의 비판적인 심정을 드러내 보인다. <조롱 속에 갇힌 학(籠鶴)> 역시 짝 없는 외로움, 병든 날개 등의 이미지를 통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시각화하고, 이와 더불어 갈가마귀의 울음소리를 서늘함(淒淒)이라는 화자의 감정과 연결되며 시적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대창은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를 조화시켜 시 세계를 더욱 깊이 있게 드러낸다.

(11) 長堤春草色淒淒
 舊客還來思欲迷
 故國繁華同樂處
 滿山明月杜鵑啼

긴 독에 봄풀 빛이 너무 쓸쓸하여
 옛 님이 돌아오시다가 '길 잃었나' 하시겠네
 변화한 시절 함께 즐기던 곳엔
 산 가득 밝은 달과 두견새 울음소리

<봄날의 시름(春愁)>

(12) 千山萬樹葉初飛

산마다 나무마다 잎이 흩날리고

雁叫南天帶落暉
長笛一聲何處是
楚鄉歸客淚添衣

남쪽 하늘 노을 속에 기러기 울며 가네.
긴 피리 소리 어디서 들려오는가?
고향길 돌아가는 나그네 눈물로 옷을 적시네

<이른 가을(早秋)>

두 시에서 역시 새의 울음소리는 쓸쓸한 분위기를 더욱 심화시킨다. 이 두 작품은 봄과 가을이라는 다른 계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푸릇푸릇한 봄 풀이 된 독과 나뭇잎 흩날리는 산은 모두 시적 화자에게 고독하고 적막한 공간으로 인식된다. 긴 독에 한가득 덮여 있는 봄풀의 빛깔은 얼마나 파릇파릇하고 싱그럽겠는가. 그러나 <봄날의 시름(春愁)>에서 시적 화자에게 풀빛은 싱그러운 것이 아니라 쓸쓸하게 인식된다. 풀은 옛 님과의 추억이 깃든 장소를 뒤덮어 감추어버리고, 혹시나 돌아올 옛 님이 ‘길을 잃었나?’ 착각을 일으킬 만큼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하지만 ‘혹시 임이 올까’ 하는 시적 화자의 마음은 전구(轉句)와 결구(結句)로 시선이 옮겨지면서 좌절되고 만다. 옛날 님과 함께 반발한 꽃 속에서 꽃놀이하며 즐기던 곳은 밤은 달과 두견새 울음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릴 뿐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두견새 울음소리는 적막한 분위기를 한층 더 쓸쓸하게 하고, 밝은 달 역시 시적 화자의 외로움을 더 깊이 드러낸다. 이 시는 봄풀(春草), 반발한 꽃(繁華), 밝은 달(明月), 산에 가득한(滿山) 등 밝고 긍정적인 시어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긍정적인 시어를 통해 시적 화자의 쓸쓸하고 외로운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결구(結句)에서는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가 조화를 이루며 이러한 시적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킨다.

<이른 가을(早秋)> 역시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가 조화를 이루며 시상을 전개해 나간다. ‘산마다 나무마다 잎이 흩날리는(千門兩樹葉初飛)’ 이른 가을에, 남쪽 노을 속을 가로지르는 기러기 떼들의 울음소리가 시적 화자의 귓가에 들려온다. 두 이미지는 시적 분위기를 평화롭고 아늑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쓸쓸한 방향으로 이끌어간다. 나뭇잎이 흩날리는 가운데 들리는 기러기의 울음소리는 길게 울려 퍼지는 피리 소리와 조화를 이루면서 고향 길로 돌아가는 쓸쓸한 나그네의 뉘그러움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가구(起句)와 결구(結句)에는 흩날리는 나뭇잎, 나그네의 눈물 등 시각적 이미지가, 중구(承句)와 전구(轉句)에는 기러기 울음소리, 피리 소리 등 청각적 이미지가 나타난다. 이렇게 시인은 시각적 이미지와 청각적 이미지를 연이어 배치함으로써 시의 쓸쓸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키고 특히 결구(結句)의 ‘나그네 눈물로 옷을 적시네[楚鄉歸客淚添衣]’로써 시상을 마무리 짓는다. 이처럼 매창은 두견새와 기러기 등 새의 울음소리를 통해 고독하고 쓸쓸한 분위기를 심화시키고, 현재의 시간감을 효과적으로 환기한다.

매창의 한시에서 새와 거문고는 시적 화자의 외로움의 정서를 환기하는 객관적 상관물로서, 새 울음소리는 화자에게 님의 부재를 상기시켜 외로움을 심화시키고, 거문고는 그리한 마음을 위로하고 달래는 매개물로 나타난다. 시인은 거문고와 새라는 두 대상을 단순히 스케치하였던 것이 아니라 타는 행위[搖, 彈], 우는 행위[啼, 啼] 즉 동적 이미지로 표현함으로써 현장감을 높이고, 현재의 시간감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었다.

III. 결론

지금까지 매창 한시에 나타난 청각적 이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매창집」에 실린 58편의 시 가운데 반 이상의 시에서 청각적 이미지가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전체적 청각적 이미지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때 관현악기 소리와 새 울음소리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특히 관현악기에서는 거문고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필자는 이러한 특징에 주목하여 그 의미를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악기와 새는 단순히 시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거문고(관현악기)를 연주하는 행위와 지저귀는 새, 즉 동작태로서 등장하며 그 과정에서 청각적 이미지를 형성한다는 특징이 있다. 매창은 이를 통해 시에 현장감을 부여하고, 현재의 시간감을 효과적으로 드러냈다. 또한 거문고와 새라는 두 소재는 지마다 시적 화자의 심정을 고조시키거나 시적 분위기를 심화시키는 한편 위로하고 정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특히 거문고는 자기 자신의 분신으로서 이별의 한을 달래고 정화하는 기능을 하며, 새 울음소리는 시각적 이미지와 조화를 이루며 시적 공간을 확장시키고 시의 분위기를 한층 더 쓸쓸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매창은 이러한 두 이미지를 통해 밤의 세계를 내면의 세계로, 혹은 내면의 세계를 밤의 세계로 이전시키며 시의 전체적 분위기를 주도해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梅窓集》 가람문고 필사본
 허미자, 「매창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1988. 《梅窓集》하버드대본, 김동욱소장본 영인 자료.
 김민성, 「매창전집」 1·2, 고글, 1998.
 허경진, 「매창 시선」, 평민사, 1997.
- 金德洙, 「李梅窓의 漢詩에 나타난 意識世界」, 『국어문학』 29, 국어문학회, 1994.
 김명희, 「허균과 매창의 시조」, 『時調學論叢』 22, 한국시조학회, 2005.
 김미란, 「한국 이류한시의 세계」, 이강출판사, 2002.
 김민성, 「매창전집」 1·2, 고글, 1998.
 金智勇, 「매창(梅窓)문학연구」, 『수도여자사범대학 논문집』 6, 세종대학교, 1974.
 김학동, 「현대시론」, 태학사, 1997.
 다이앤 애커먼 지, 백영미 역, 「감각의 박물학」, 작가정신, 2004, 259~260쪽.
 성낙희, 「朝鮮朝 女流 漢詩의 世界」, 『아시아어성연구』 30,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어성연구소, 1991.
 신은경, 「생성시학과 두견의 의미론」, 『한국언어문학』 43, 한국언어문학회, 1999.
 신은경, 「두견의 시적 내포」, 『한국시가연구』 6, 한국시가학회, 2000.
 윤항기·이경영, 「매창집(梅窓集)에 나타난 ‘새’ 이미지 연구」, 『한국현대문예비평』 128, 한국현대문예비평학회, 2009.

- 이강욱, 「다산 정약용 시의 시각적 상상력과 청각적 상상력」, 『漢文學報』 18, 우리한문학회, 2008.
- 이승훈, 『시론』, 태학사, 2005.
- 이이추, 「한중 기네시인 설도와 이매창의 비교연구」, 서울대석사논문, 2003.
- 이혜순 외, 『한국고전여성작가연구』, 태학사, 1998.
- 이화형, 「기생 梅窓 시의 존재적 갈등 - 자존의 좌절에서 자유지향의 미애까지」, 『우리문학연구』 19, 우리문학회, 2006.
- 정 민, 「한시 속의 두견이와 소씩새」, 『한국한시연구』 9, 한국한시학회, 2001.
- 최세정, 「난설헌(蘭雪軒)매창(梅窓)우봉(玉峰)한시 비교 연구」, 『東方漢文學』, 2, 동방한문학회, 1983.
- 허경진, 「매창집에 관련된 인물과 창작 시기에 대하여」, 『韓國漢文學研究』 40, 韓國漢文學會, 2007.
- 허미자, 『이매창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출판부, 1988.

달한 공간에서 弄 遊仙의 세계

- 金正禧의 「小遊仙詞」 고찰

정숙인
(中央大學校 講師)

I. 서론

조선후기를 대표하는 학자를 꼽으라고 하면 단연 으뜸으로 꼽히는 인물이 바로 추사 김정희이다. 고증학자, 금석문의 대가, 추사체의 창시자 등 학문, 사상, 예술 분야에서 뚜렷한 족적을 남긴 사람이다. 예술분야에 비해 적게 알려진 문학 부문에서도 상당한 양의 한시를 남기고 있는데 그런 그의 작품 가운데 「小遊仙詞」란 작품이 있다. 소유선사는 유선시에 해당하는 작품이다. 遊仙詩는 신선에의 동경 또는 현실 도피 등으로 이어지는 작품 세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조선전기부터 중기까지 활발하게 창작된 분야이다. 그러나 조선후기로 접어들면서 유선시는 정형화된 틀과 고착화된 소재로 인해 더 이상 창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몇몇 작품으로에만 제한 유지되었다.¹⁾ 이러한 작품세계를 지닌 유선시를 추사 김정희는 왜 썼을까? 본 논문은 바로 이런 의문에서 시작되었다.

사실을 밝히는 것은 책에 있고	威實在書
이치를 따지는 것은 마음에 있네	窮理在心
옛것을 고찰하여 현재를 증명하니	攷古證今
산은 높고 마다는 깊네	山海嵩深

위의 내용은 1816년 1월 25일 84세의 옹방강이 31세의 완당에게 보낸 편지로, 1800자에 달하는 장문으로 이루어진 서찰이다. 완당은 노은사의 이 편지를 감격스레 읽고 나서 곧게 표기한 다음 옹방강이 실사구시의 정신을 46의 16자로 題贊한 글귀를 써붙였다.²⁾ 이러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그의 학문하는 자세는 사실을 하나하나 고구하며 찾아가는 방식이니 허황된 것에 대한 그의 생각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런 그가 「소유선사」 13수를 남겼다.

일견 그의 예술정신과는 상충되는 듯한 유선시를 고찰함으로써, 그의 詩文學의 일면을 엿볼 수 있을 듯하다. 또한 관방도교의 쇠퇴 후 조선후기에 기복신앙적 성격을 강하게 띠는 도가의 변모 속에, 전통적 유선시 양식을 취하여 창작된 김정희의 「소유선사」를 통해 동경이나 현실 도피와는 다른 새로운 유선시 양상이 드러나지 않을까 한다.

II. 유선시의 개념과 사적 개관

1. 유선시 개관

1) 강민경(2004), 「朝鮮中期 遊仙文學 研究」,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정동진(1998), 「朝鮮前期 仙道詩 研究」, 대구대 박사학위논문 참조.
2) 유홍준(2002), 「완당평전」 3, 학고재, p.93.

유선시는 신선 전설을 세계로 仙界의 노닐이나 鍊丹服藥을 통해 불로장생의 염원을 노래한다. 또는 세속을 떠난 선계 체험을 통해 현실의 갈등과 질곡을 抒情 극복하려한다. 황홀한 신선 세계를 묘사함으로써 강렬한 求仙의 동취를 노래하거나, 현실 삶의 굴레를 벗어나 인생의 번뇌를 털어 내리는 자유와 초월을 칭송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³⁾ 이러한 내용적 특징을 지닌 유선시의 유래는 시대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유선시가 漢詩史에서 중요한 위치로 부각되는 것은 魏晉南北朝 시기에 와서이다.

漢나라 말기 혼란한 전란에서 삼국 정립을 거치 魏晉을 포괄하는 백이 년 간의 시기는 내적으로는 황건적의 난과 관왕의 공벌, 외적으로는 五胡 16國의 침입이 있어서 혼란한 암흑시대였다. 이 시기 문인들은 현실도피의 노장사상을 추구하여 문학의 새로운 줄로를 개척하였다. 문인들은 유가의 人世의 功用主義가 아니라 도가의 出世의 낭만주의에 편향되어 시난을 주도하였다. 이것은 「문심조룡」 明詩篇에서 “시가 신선적인 마음과 어울림(詩維仙心)”이라고 언급한 평어와 합당하며 이러한 의식을 표현한 시가 사실적 의미의 유선시이다. 즉 非人界의인 경지를 묘사한 것으로 파악에 이르러 질정을 이루게 된다.⁴⁾

唐나라 때 이르러 국교로까지 인식된 도교의 영향으로 유선시의 성격은 이전시기와는 크게 변모하였다. 唐代の 시인들 중 몇 수 씀 유선시를 남기지 않은 시인은 없다. 그 가운데 유명한 것으로 曹唐의 「소유선시」가 있다. 그의 「小遊仙詩」 98首는 七言絶句 형식이며, 小라고 붙여진 것은 조당의 또 다른 유선시인 「大遊仙詩」가 있기 때문이다. 이성으로는 처음으로 遊仙詞를 남긴 허난설헌의 작품에는 조당의 유선시를 點化한 부분이 많은 만큼 조당의 유선시는 조선의 문인들에게 친숙한 작품이다. 김정희의 「소유선사」란 제목도 그의 또다른 유선사 작품이 없는 것으로 보아 조당의 작품에서 유래한 듯하다. 유선시의 형식은 위진남북조와 隋나라 시기에는 五言이었다. 그러던 것이 唐代에 와서 백거이와 사공도가 칠언절구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조당에 이르러서는 칠언절구가 유선시의 가장 기본적인 체제 형식이 되었다. 이후 쓰여진 유선시는 대부분 칠언절구를 사용하는 것이 정형화 되었다. 이처럼 전반적으로 七言이 많은 것은 유선시가 많은 고사와 전설에서 준거리를 가져오고 있어 아무래도 짧은 五言보다는 칠언이 효과적인 시형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七言絶句의 경우, 한 수로 끝나지 않고 연작이 많이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유선시가 대부분 七言絶句 형식으로 굳어진 것은 學唐風의 결과로 보아야 한다.⁵⁾

2. 조선후기 민간도교

유선시 창작의 가장 기본 사상은 신선사상과 도교이다.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신선사상이 있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종교차원의 도교가 아니라 신선사상과 신선에 대한 이야기는 설화를 통해 고대부터 지금까지 민간에 널리 유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우리와 꽤 친숙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조선이 건국되면서 왕조 창건자들은 유교적 이념에 입각한 신국가 건설을 목표로 그 이전 고려시대와는 다른 정책을 시행하였다. 첫째, 유교는 구체적으로는 性理學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道・佛에 대한 이론적 비판을 강화하는 것이며, 둘째, 유교이념에 입각하여 각종 제도와 법령 및 생활약식의 전반을 개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의 압력으로 인해 도교적 종교현상은 적어도 표면적으로 상당히 위축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고려시대부터 국태민안을 기원하기 위해 거행되었던 도교식 齋醮는 큰 타격을 받았다. 태조 때에는 昭格殿만 남고 福源宮을 비롯한 여러 道觀이 혁파되었다. 또한 세조 때에는 소격전이 昭格署로 개칭되고 그 규모가 축소되었다가 임진왜

3) 정 민(2002), 『초월의 상상』, 휴머니스트, p.29.

4) 류성준(2003), 『중국시가론의 전개』,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pp.40-42 참조.

5) 정 민(2002), 위의 책, p.133.

란 이후 완전히 혁파되었다. 조선조 중엽부터 성리학의 이념적 한계가 드러나면서 그 상황은 조금씩 변화되었다. 사화와 당쟁을 비롯하여 두 차례의 전란으로 인해 지식층 가운데 도가사상이나 신선사상에 관심을 들인 사람이 많이 내두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소략하나마 신선사상을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성리학의 비판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또한 한국에도 신선이 실재하며 한국도가에도 성리학이나 선불교에 못지않은 도통의 맥이 있음을 밝히려는 시도도 활발하였다. 한편 도가사상에 대한 관심도 교양적 수준의 이해에서 진일보한 면모를 보이주었다. 李珥의 『醇言』을 비롯하여 朴世堂의 『新註道德經』, 徐命鼎의 『道德指歸論』, 洪奭周의 「訂老」 등이 그러한 관심이 두드러진 업적이다. 이들에게는 모두 유가사상의 입장에서 도가사상을 이해하려는 시각이 바탕이 되고 있으나 이전과 달리 도가사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 있다. 지식층의 신선사상과 도가사상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주도된 반면 민간에서는 양대 전란 이후 鄭鑑錄류의 사상과 勸善書가 광범위하게 유포되었다. 이중 정감록류는 성리학의 권위에 대한 도전의 의미를 지니지만 권선서의 경우는 宋代의 성리학자인 진덕수가 그 가치를 인정했듯이 반유교적 사상이 주가 아니라 유교윤리를 많은 부분 수용하였기 때문에 권선서의 유포는 도가사상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일맥 상통한다고 보인다.⁶⁾

조선 초기에 환방 도교가 몰락하고 존속되던 소각서까지 임진왜란 이후 폐지됨에 따라 조선후기 공식적인 환방도교 조직은 존속하지 않게 되었다. 몰락한 환방도교의 지위를 대신하여 단학파의 활동도 조선중기를 고비로 쇠퇴하여 조선 후기는 명실공히 민간 도교의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조선후기 민간도교의 형세는 민속상의 도교 신앙과 유교 윤리규범의 도교적 제현이라 할 수 있는 권선서 신앙의 두 갈래 파악된다.⁷⁾

조선후기 문인들이 생각하는 도가나 신선은 조선중기에 비해 덜 우호적이며 비판적이다. 조선후기 실학자인 연암 박지원은 신선사상에 대해 당시 민간 도교의 주된 관심인 長生을 두고 ‘不死藥莫如飯’이라고 현실을 외면한 비현실적 면모를 비판하고 있다. 「민옹전」에서 “집이 가난한 사람들이 신선이다. 부자들은 늘 세상을 연연해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세상을 싫어한다. 세상을 싫어하는 자가 신선이 아니겠는가.”⁸⁾라고 하였다. 「김신선전」을 보면 김신선이 입산하여 곡식을 먹지 않고 면벽해서 수양한 결과 몸이 가늘어져 국내 명산을 두루 찾아보았다는 내용으로 보아 조선후기 신선이 되기 위해 수련이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신선술에 대해 연암은 믿지 않고 “운을히 뜻을 피지 못한 자”가 바로 신선이라고 하여 세상과 화합하지 못하는 방외인으로 여겼다. 연암 박지원과 동시대 인물인 이덕무 역시 “신선은 별다른 사람이 아니다. 마음속에 한 점의 누도 없어 도가 이미 원숙한 지경에 이르고 금단술(金丹術)이 거의 이루어졌을 때를 말한 것이다. 때미저림 겹질을 벗고 날아서 하늘에 오른다는 것은 익지 말이다. 만약 내 마음에 잠깐이라도 누가 없으면 이는 잠깐 동안 신선이 된 것이고 반나절 동안 누가 없으면 반나절 동안 신선이 된 것이다. 나는 비록 오랫동안 신선이 되지는 못하지만 하루에 두세 번씩은 신선이 된다. 세상을 발밑에 두고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신선이 되려 하는 사람은 일생 동안 한 번도 될 수 없을 것이다.”⁹⁾라고 하여 유가적 윤리관에 입각하여 신선관을 피력하고 있다.

6) 金洛必, 「조선후기 民間道敎의 윤리사상」, (한국도교사상연구회 편, 『韓國道敎의 現代의 照明』, 아세아문화사, 1992.) pp.357-358. 참조.

7) 정재서, 『한국 도교의 기원과 역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6. pp.131-143 참조.

8) 박지원, 『燕巖集』 卷8, 「閑翁傳」

9) 神仙非別人. 澹然無累時. 道果已圓. 金丹垂成. 彼飛昇蛻化. 勉強語耳. 如我一刻無累. 是一刻神仙. 半日如許. 爲神仙半日矣. 我則雖不能耐久爲神仙. 一日之中. 幾三四番爲之. 夫腳下軟紅塵勃勃起者. 一生不得爲一番神仙.. (李德懋 著, 『靑莊館全書』 卷之六十三, 「蟬橘堂濃笑」 一)

III. 「소유선사」의 시세계

1. 「소유선사」의 창작시기

김정희는 50대에서 60대 초반까지 제주도에서 유배생활을 하였다. 1846년 김정희의 회갑 때 대정 유배지로 姜瑬(1820-1884)가 찾아온다. 강위는 구한말의 개화사상가로 박규수와 개항론을 썼으며, 강화도조약 때는 신현의 막후에서 도왔던 인물이다. 그는 다음과 같은 시를 지었다.

친리 밖 남쪽 뽕가 촌가집 한 채
임금님은 노인싱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내리셨네
밤마다 외로운 마음 향 사르고 앉아
흐느끼 음식마다 흰 머리털 같이¹⁰⁾

위의 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김정희가 제주도에서 유배생활 했던 집을 壽星草堂이라 했음을 알 수 있다. 南極老人 또는 老人草이라 불리는 壽星은 남쪽의 수평선 근처에서 매우 드물게 볼 수 있는 별로서 예로부터 인간의 수명을 관장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왕이 그 별을 향해 제사를 올리는 풍습이 있었다. 또한 수성이 보이는 해에는 나라가 평안해진다고 믿었다. 노인싱이 보이는 곳이란 바로 제주도를 가리킨다. 또한 김정희의 「소유선사」 12수에서도 노인싱이란 언급이 보이는 점에서도 「소유선사」는 제주도 유배시절에 창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소유선사」의 내용적 특징

「소유선사」는 7언 절구체의 연작으로 이루어진 작품으로 遊仙詩의 전형적인 형식적 특징을 취하고 있다. 또한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난조, 대라친, 弱水, 영주, 삼신산, 반도, 난경, 도원, 요지, 자부 등 유선사에서 사용되는 제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 유선사와 유사한 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유선사의 작품적 독창성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제제를 작가가 어떤 시각에서 표현하는가에 따라 다르게 드러난다.

난조에다 힘 바친 지 모릅레라 몇 해런고 丹雘辛勤不計年
공 이루자 대라친에 상제를 알현하네 功成謁帝人羅天
당에 올라 옥을 주고 정실을 진열하네 升堂授玉陳庭實
모두가 인간의 근례편을 배웠구려 總學人出覲禮篇 (제1수)

난조는 선가의 丹藥을 만들어 내는 부역을 말한다. 仙藥을 만들 때 사용하는 화택이란 뜻으로, 신선이 되기 위해 연단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신선이 되어 대라친에 올라가 상제를 알현할 때에도 인간 세상에서 임금님을 뵈는 예절을 차린다고 함으로써 유교적 예학이 근본이 됨을 말하고 있다.

조각배 못이기는 약수라 삼친된데 三千弱水不勝舟
처녀랑 총각들은 왕칭스레 약을 찾네 少女童男柱臼求
양진이 이상한 일 아니라고 누가 믿이 誰信揚塵非異事

10) 吳文福, 『瀛州風雅』, 題秋史先生壽星草堂, “千里南溟一草堂 聖恩許見壽星光 孤衷夜夜焚香坐 感泣頭邊白髮生”(양진건, 「秋史의 濟州入島와 初期 定着科程에 對한 考察」, 『秋史研究』 제3호, 추사연구회, 2006, pp.24-25에서 재인용)

마로 곧 말을 타고 영주에 오고말고

村教騎馬到靈洲(제2수)

약수는 『山海經』에 “西海의 남과 流沙의 가에 큰 산이 있어 이름은 곤륜산이고 그 아래는 약수가 감돌았다.” 하였었다. 새의 깃털조차도 감당치 못해 가다앉는 물이라서 새의 능에 올라타지 않고는 결코 건널 수 없다는 곳이다. 이런 곳으로 불사약을 찾아 떠났다는 진시황의 전설을 두고 허황됨을 비판하고 있다.

하늘이 수토를 싸 중간에 있다면은
대지는 땅 같아라 사해가 둘러부리
이췌밤에 지구를 한 마퀴 둘러보니
마다 위 삼신산이 어디에 있었련고

天包水土在中間
大地如丸四海環
纔地昨宵行一匝
何曾海上有三山(제4수)

김정희는 지구가 둥글다는 것과 알고 있음을 알았다. 김정희가 제주에서 유배생활을 하던 1845년 제주도에 이양선이 출현했다. 이에 대해 조정에서는 의견이 분분하였는데 그의 벗인 권농인은 유배중인 김정희에게 이 문제를 의논해 올 만큼 김정희의 서구에 대한 전문과 학식은 당대 최고였다. 이런 그의 입장에서 당시 신선사상에 심취한 이들이 신선계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가를 위의 시에서 말하고 있다.

도원이라 풍구는 맑고도 그윽하여
그 가운데 만고의 문장이 남아있네
그렇잖나 한 나라 생긴 것도 모르는데
하물며 위진이나 한유 구양수는 일러 무삼

桃源洞口景清幽
中有文章萬古留
聞道不知曾有漢
況他魏晉與韓歐(제8수)

제4수에서 신선계의 허황됨을 말하고나서 제8수에서는 세상에서 이상향을 부르짖으며 무릉도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속세를 벗어난 삶이 과연 그들이 생각하고 그리는 모습인지 돌아보게 한다. 세상은 자꾸 변하는데 무릉도원에 갇혀 그곳의 세상만 알고 세상의 변화와는 무관하게 사는 삶에 대해 질타하고 있다.

경부 가관 본래 상고하기 이리운데
직녀는 오색실을 새로 더해 가지런히
삼천 년 전 밖의 해 그림자 같지 않아
오늘 해는 벌써 두우 변 서쪽을 지녔다오

璇樓殿管本難稽
織女新添繡線齊
不似三千年外景
羲輪已過斗牛西(제3수)

옥경루는 신선 세계에 있는 누각이다. 霞帟은 갈대 피리로 동짓날이 되면 갈대 피리 구멍에 얹은 번지가 갑자기 폭 올라온다. 그리하여 이것을 보고 동짓날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갈대피리에 번지가 일어나지 않아 시간을 알 수 없음을 말한다. 동짓날부터 양녀들이 날짜 가는 것을 헤아려 날이 지나는 대로 수를 놓는다. 그러므로 직녀가 오색실을 새로 더했다는 말은 날짜가 지났음을 말한다. 시간이 무상하게 흘러감을 말하고 과거의 시간과 현재의 시간이 같지 않음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가 또한 같지 않음을 드러내는 말이다.

만도 복숭 심느라고 종일토록 애를 쓰니
신선을 배우자면 신선 재주 요하는 법

辛苦蟠桃鑽日栽

學仙本自要仙才

장생결은 영대에서 깨달아 내는 기지 靈臺悟出長生訣
 난성 파는 불판이로 되는 건 아니라네 不是月經磑販來(제6수)

반도는 삼천 년에 한 번 꽃이 피고 삼천 년에 한 번 열매를 맺는 것으로 장수를 상징하는 유선사의 제제이다. 김정희는 불로장생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그것은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伯才를 타고 나야 된다고 하였다. 또한 불로장생의 비결은 난약이나 반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김정희의 「소유선사」는 신선세계에 대한 동경이나 도피처로 유선의 세계를 읊조렸던 조선중기의 유선시와는 다른 내용적 특징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김정희가 제주 유배시절 누군가에게 써준 오언고시이다. 시의 내용을 보면 유배객의 저연한 심사와 自得自樂하는 경지를 잘 보여준다.

출사한 뒤 고향에 돌아와	出身後歸鄉
이내 남쪽 바닷가에 살고 있네	乃居南海上
바닷물이 하늘가에 닿으며 흐르니	海水接天流
마음 눈 모두가 호탕하구나	心目俱蕩漾
즐길 날이 얼마나 될까	爲歡常幾時
만고에 엇그제 같은데	萬古如壽域
저 서울을 바라보니	捲彼京城內
꿈인들 이제 괴류지 않으리	豈不勞夢愁
...중략...	
기분고 흥기며 홀로 노래부르네	彈琴還獨歌
내 마음 알고 감상할 이 없이 한스런데	恨無知音賞
강호에 돌아가는 배가 있다면	江湖有歸舟
나 또한 長生을 도모하리라	余亦事長生 ¹¹⁾

김정희의 예술세계는 제주도 유배시절에 피어났다. 유배지에서 사랑하는 아내의 부음을 들어야 했고, 쓸쓸히 혼자서 환감을 맞이해야 했던 그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외딴섬 작은 섬 안에서 구도자의 길로 들어섰고, 자신의 깨달음을 「소유선사」 안에 담아내고 있다.

IV. 결론

조선 후기 명문가에 태어나 뛰어난 자질로 일찍부터 두각을 나타낸 그는 청나라 문인들과의 교류에 진인차 역한을 하였으며 예술계에 우뚝 선 거봉이었다. 그러나 조선후기 극심한 당쟁에 휘말려 55세에 제주도로 유배를 가 그곳에서 9년을 지내게 된다. 특히 차 자못 오만하기까지 했던 그에게 9년의 유배생활은 가혹한 것이었다. 이 제주도 유배시절에 쓰인 작품이 바로 <소유선사>이다.

유선시는 신선에의 동경 또는 현실 도피 등으로 여겨지는 작품 세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조선전기부터 중기까지 활발하게 창작된 분야이다. 그러나 조선후기로 접어들면서 유선시는 정형화된 틀과 고착화된 소재로 인해 더 이상 창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조선후기 노가사상은 연암 박지원이 <귀선선전>에서 지적하다시피 세상에 뜻을 펴지 못한 자가 신선이라고 한 만큼 허

11) 유홍준, 『완당평전』2, 학고재, 2002. pp.459-461.

황되거나 기복신앙적 차원에서 명배반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러한 시대 상황 하에서 실사구시의 학문자세를 평생토록 유지했던 김정희가 남긴 <소유선사>를 통해 단편적이지만 그의 고증학적 학문자세를 엿볼 수 있었다. 조선중기 전통적 유선시는 시대와 불화했던 지식인들의 좌절과 갈등을 신선세계에 대한 동경이나 신미한 伯遊로 그려냈으나 김정희의 유선시는 사뭇 다르다. 세상에 부합되지 못하고 좌절한 자의 도피처로 그려진 세상도 아니며 신선세계에 대한 동경은 더더욱 아니다. 그의 유선시는 철저히 인간적이고 현세적이다. 그가 지금 머무는 유배지, 닫힌 공간이 바로 선재이며 이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피력하고 있다. 그의 유선시는 전통적 유선시 형식을 계승하여 독자적인 자신의 정신세계를 구축한 새로운 경지를 보이고 있다.

<참고문헌>

김정희, 『국악완당전집』 3책(1책 색인), 순천환사, 1995.

국악 완당전집

정후수, 『추사 김정희 시 선집』, 풀빛, 1999.

이철희, 『추사 김정희 시론 연구-중국시론의 수용과 조정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이철희, 『추사 김정희의 유희적 시세계』, 『한국한문학연구』 35, 한국한문학회, 2005, pp.137-166.

후지츠카 치카시, 윤철규·이종구·김슈선 옮김, 『추사 김정희 연구』, 과천문화원, 2009.

<倡善感義錄>의 出生譚과 超越界의 敘事的 機能

김용기*(중앙대학교)

<목차>

1. 序論
2. 出生譚에 의한 儒敎理念의 敘事化
 - 2.1. 花珍 出生譚의 象徵性和 儒敎理念의 敘事化
 - 2.2. 南彩鳳의 出生譚과 儒敎理念의 內面化
3. 儒敎理念에 의한 人物의 善惡 區分과 超越界에 의한 強化
 - 3.1. 花珍의 人物 性格과 超越界에 의한 儒敎理念의 強化
 - 3.2. 超越界에 의한 南彩鳳의 德性 擁護와 儒敎理念의 內面化
4. 結論

1. 序論

본고는 趙聖期(1638-1689)의 <倡善感義錄>에 나타난 出生譚과 超越界의 기능을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창선감의록>은 영웅신화와 영웅설화 이후에 출생담이 서사의 전면에 나타나면서 남나 주인공에게로 확대되기 시작하는 작품이다.¹⁾ 동시에 출생담과 초월계가 인물의 성격과 서사전개에 본격적으로 관여하면서 당대의 이념을 담아내기 시작하는 작품이기도 하다. <창선감의록>²⁾ 이전에는 出生譚과 超越界와 儒敎理念이 결합되어 인물의 善惡에 관여하거나 勸善懲惡을 드러내는 작품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창선감의록>에서는 인물의 출생담이 이후 서사전개 과정에서 당대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超越界는 지배이데올로기에 의해 인물의 성격이 善惡으로 양

* 중앙대 강사

- 1) 현재 전하고 있는 <홍길동전>을 허균(1569-1618)이 지었다는 전제에서 보면, 작품의 생산 연도를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작품 중에서 출생담이 인물의 성격과 관련을 맺는 첫 작품은 <홍길동전>일 수 있다. 왜냐하면 홍길동의 龍夢이 상징하는 바는 그의 비범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기 때문이다. <창선감의록>도 주인공 화진의 출생담에 나타나는 옥기린의 상징성이 인물의 좋은 성격과 유교적 충을 실천하는 인물의 성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그러나 <홍길동전>에는 남주인공의 출생담만 나타나고 있음에 비해 <창선감의록>에는 남주인공과 여주인공은 물론 이들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는 윤화옥과 윤여옥의 출생담도 나타난다는 점에서 출생담이 서사의 전면에 확대되어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
- 2) <창선감의록>의 작자와 창작 연대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하게 종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학계에서는 조성기 작으로 보는 것으로 어느 정도 굳어진 듯하며, 창작 연대 또한 <謝氏南征記>보다 선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秦京煥은 민비폐출과 장희빈의 왕비책복이 각각 1689년 5월과 1690년 10월에 있었고, 서포의 졸년이 1692년 4월이므로 <謝氏南征記>가 1690-1691년 사이에 창작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조성기가 1689년 11월에 사망하였다는 정황을 들어 <창선감의록>이 <사씨남정기>보다 선행하는 것으로 보았다(진경환, 『倡善感義錄의 작품구조와 소설사적 위상』,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210면). 그러나 이와 달리 정길수는 <창선감의록>과 <구운몽>의 관계에 착안하여 <창선감의록>의 창작 시기를 1687-1688년으로 보고 <창선감의록>이 <사씨남정기>보다 후대의 작품으로 보고 있다(정길수, 『창선감의록의 작자 문제』, 『고전문학연구』 제23집, 한국고전문학회, 2003, 179~203면; 정길수, 『한국 고전장편소설의 형성과정』, 돌베개, 2005, 166~173면).

분되는 것을 강화하면서 勸善懲惡의 서사 결구에 기여한다. 그리고 超越界에 의해 남주인공은 위기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또 남주인공의 경우에는 비범한 인물로 변화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선대의 영웅담과 <금오신화>나 <홍길동전>은 물론 비슷한 시기의 <구운몽>이나 <사씨남정기>, <소현성록> 등과 같은 고소설에서는 볼 수 없었던 현상이다.³⁾

그런데 지금까지 학계에서는 <창선감의록>의 이러한 특징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창선감의록>은 다각적인 방향에서 연구되었고 또 훌륭한 결실도 많이 맺었다고 생각되지만, 출생담과 초원계의 기능을 통한 인물의 성격 규명은 없었던 것이다. 既刊의 논의는 큰 틀을 중심으로 볼 때 <창선감의록>의 구조적인 접근⁴⁾과 17세기 소설사와 관련된 연구⁵⁾가 있고, 장편소설의 형식 배경과 장편화의 탐색 대상으로 접근한 경우⁶⁾가 눈에 띈다. 또 종합적인 관점⁷⁾에서 논의하거나 이 작품이 가지는 성격의 한 특징으로 사실성이나 낭만성 같이 작품 내용⁸⁾에 주목한 연구들도 있다. 이와는 달리 작가 및 작가의식⁹⁾에 초점을 둔 논의나, <창선감의록>의 민중 및 연작과 관련된 연구¹⁰⁾, 이본관계¹¹⁾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소설에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등장인물의 성격¹²⁾을 직접적으로 다룬 경우는 그리 많지 않고, 특히 이러한 연구가 인물의 출생담이나 초원계와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을 밝히 논문은 많지 않다.¹³⁾

3) <창선감의록>과 비슷한 시기에 창작되었거나 이보다 조금 이른 시기에 생산되었을 수도 있는 <구운몽>이나 <소현성록>의 경우에는 인물의 출생담이 나타나지만 출생담이 서사의 전면을 통하여 인물의 성격에 기여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초월계가 인물의 선악적 판단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도 않거나 매우 미약하다.

4) 秦京煥, 「倡善感義錄의 작품구조와 소설사적 위상」,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1~272면.

박일용, 「倡善感義錄의 구성원리와 미학적 특징」, 『고전문학연구』18집, 한국고전문학회, 2000 323~356면.

5) 林榮澤, 「17世紀 閨房小說의 成立과 <倡善感義錄>」, 『동방학지』57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8, 103~165면.

李成權, 「家庭小說의 歷史的 變貌와 그 意味」,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1~53면.

최기숙, 「17세기 장편소설 연구」, 월인, 1999, pp.146~177면 및 219~477면.

송성욱, 「17세기 소설사의 한 局面-〈사씨남정기〉, 〈구운몽〉, 〈창선감의록〉, 〈소현성록〉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8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2, 241~270면.

탁원정, 「17세기 가정소설의 공간 연구-〈사씨남정기〉, 〈창선감의록〉을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pp.1~172면.

6) 鄭吉秀, 「17세기 長篇小說의 형성 경로와 장편화 방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1~254면

7) 趙春鎬, 「彰善感義錄 研究」, 『문학과 언어』4집, 문학과 언어연구회, 1983, pp.51~79면.

嚴基珠, 「倡善感義錄 研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4, pp.1~98면.

8) 秦京煥, 「창선감의록의 사실주의적 성격과 낭만적 구성」, 『고전문학연구』6집,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91, pp.9~54면.

9) 金秉權, 「17世紀後半 創作小說의 作家社會學的 研究-金萬重과 趙聖期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1~121면.

金秉權, 「彰善感義錄과 趙聖期의 創作意識」, 『韓國文學論叢』11집, 한국문학회, 1990, 141~153면.

정길수, 「창선감의록의 작가 문제」, 『고전문학연구』22집, 한국고전문학회, 2003, 179~205면.

10) 丁奎福, 「<彰善感義錄>과 <冤感錄> 및 <花珍傳>의 相關性」, 『順天鄉論文集』2집, 順天鄉語文學研究所, 1993, 7~21면.

김병권, 「창선감의록 변용의 문헌학적 접근」, 『한국문학논총』21집, 1997, 117~142면.

김수연, 「花氏忠孝錄의 문학적 성격과 연작 양상」,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1~166면.

11) 이내종, 「彰善感義錄 異本 考」, 『崇實語文』10집, 崇實語文學會, 1993, 237~267면.

李智瑛, 「창선감의록의 이본 변이 양상과 독자층의 상관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1~224면.

12) 이승수, 「창선감의록의 인물과 은폐된 현실」, 『한국학논집』26집,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5, 529~561면.

김병권, 「창선감의록의 작명과 그 서술의 서사적 의미」, 『한국민족문화』18집,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1, 17~21면.

김나영, 「창선감의록의 주요 등장인물 분석-理氣性情論에 입각하여-」, 『돈암어문학』15집, 돈암어문학회, 2002, 249~293면.

13) 이명현은 <창선감의록>을 天觀念과 연결시킨 바가 있다. 그는 <창선감의록>에서 선악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이와 같은 선행 연구 중 상당수는 <창선감의록>이 17세기 전후를 연결하는 위치, 즉 소설사의 흐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주목하고 있다. 가령 형식적인 면에서의 장편화와 내용적인 면에서의 중세적 질서와 관련되는 부분은 이러한 연구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선행 연구에서 <창선감의록>의 이러한 면들은 잘 부각되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작품의 출생담과 초원계가 고소설사에서 차지하는 의미나 특징에 대해서는 대개의 연구자들이 간과하였다. 특히 이 작품의 인물 출생담이나 초원계가 인물의 성격 형성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밝힌 연구는 없었다. <창선감의록>의 출생담은 이 작품의 내적 질서를 파악하는 데에도 중요하게 활용되는 요소이지만, 소설사의 변모 과정상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하에서는 <창선감의록>에 나타난 주요 인물들의 출생담과 초원계가 유교이념을 어떻게 담아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2. 出生譚에 의한 儒敎理念의 敍事化

서사문학에 나타난 인물의 성격은 그 민화의 유무에 따라 평면적 인물과 입체적 인물로 나눌 수 있다. 우리 서사문학 속의 인물은 성격이 민하지 않는 평면적 인물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창선감의록>의 경우에는 惡人으로 등장하는 주요 인물 중 일부는 改過遷善하여 善人으로 변모하는 입체적 성격의 인물형으로 나타난다. 이에 비해 善人들의 경우에는 시종일관 그 성격이 민하지 않는 평면적 인물로 나타난다. 그것은 善人의 모범적인 행위 전모를 통해 惡人들을 개과천선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이다. 작가는 이러한 善人들의 인물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내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出生譚과 유교 이념을 결합하는 방식과 초원계와 유교 이념이 결합되는 방식이다.

2.1. 花珍 出生譚의 象徵性과 儒敎理念의 敍事化

인물의 성격은 서사 전개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건이나 인물 내 인물, 인물과 대사회적인 관계나 갈등 등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창선감의록>에 등장하는 惡人들의 경우는 바로 그러한 관계망에 의해 변모되는 인물들이다. 그러나 화진을 비롯한 善人型의 주요 인물들은 이러한 민화과정을 거치지 않고 시종일관 같은 성격으로 나타난다. 이 작품의 의도가 儒敎理念의 서사와 외에도 惡人의 개과천선에도 목적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특징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특히 화진이나 그와 부부의 연을 맺는 남소지, 윤소지의 경우에는 선인으로서의 성격이 자신들의 행위 그 자체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그 영향에 의해 惡人의 행동과 생각의 변화를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그리고 남녀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이들에게는 신이한 출생담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 그 출생담은 형식적인 듯하면서도 儒敎理念의 供現이라는 주제의식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먼저 이 작품의 전체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화진의 출생담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忠孝의 윤리적 규범을 내세운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 규범에 의해 대비되는 선악에 대해 福善禍淫의 논리가 적용되어 현실의 삶에서 실제로 관철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늘이라고 하였다. 즉 天理에 부합되는 이들에게는 복을 내리고 그렇지 않은 이들에게는 벌을 내린다고 하여 이를 道德的 天觀念이라고 한 바 있다.(李明賢, 「古典小說에 나타난 天觀念 研究」,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85~101면). 이외에 趙春鎬의 글 정도가 필자의 논지와 일부 부합되는 면이 있다(조춘호, 「창선감의록 연구」, 『문학과 언어』4집, 문학과 언어연구회, 1983, 51~78면).

[A]. 花珍의 前生

- ① 화진은 전생에 천상 神仙이다.¹⁴⁾

[A-1]. 花珍의 出生譚

- ② 화공은 麒麟이 품안으로 안겨드는 꿈을 꾸었다.(20면)
 ③ 그 날 바로 정부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마의 骨相이 빼어나고 울음소리가 크고 맑았다.(20면)
 ④ 화진은 하늘로부터 仁孝를 타고 났다(276면)

[B]. 花珍의 受難과 厄運 및 回運

- ① 麒麟이 때를 만나지 못해 鉤藤의 厄을 만났다(208면)
 ② 어느 날 화상서와 정부인이 찾아와 화진에게 큰 화가 다가왔으니 몸을 잘 보살피라고 하다.(201쪽)
 ③ 화춘과 심씨가 집안의 살인 사건에 대해 고소장을 써서 화진을 고소하다.(202면)¹⁵⁾
 ④ 화진이 화춘과 심씨의 무고로 인해 옥에 갇히다.(205면)
 ⑤ 화진이 상도로 유배가다(218면)
 ⑥ 남어사가 곡선공에게 화진(화진)의 관상을 보니 그가 받아야 할 제앙이 얼마나 더 남아 있느냐고 물으니, 곡선공은 은진인이 제신데 자기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고 하다.(287면)
 ⑦ 화진은 예허(睿虛)한 본성을 지녔으나, 청정한 仙界를 떠나 누추한 진토로 떨어져 갇은 풍상을 겪은 나머지 정신이 혼탁하여졌다.(288면)
 ⑧ 화진의 수난과 고난은 액운에 의한 것이다.(289면)
 ⑨ 화진의 슬픈 날은 이미 다 지나갔으니 즐거움을 누릴 날이 곧 다가올 것이라 하다.(289면)

[C]. 花珍의 受學과 立功

- ① 화진은 은진인으로부터 병법을 익히고 神器를 받다.(291면)
 ② 은진인은 화진에게 나라 일이 한창 급하니 어서 속히 돌아가라고 하다.(291면)
 ③ 병부상서 하공이 “화진은 國祿을 먹을 귀인의 상을 타고 태어났다”고 하다.(296면)
 ④ 화진이 서산해와 채백관의 침입을 막아 내고 공을 세움(324-383면)
 ⑤ 천자는 문화전에서 화진을 공신에 책봉함(387-407면)
 ⑥ 천자는 화진의 위대한 공적을 太常¹⁶⁾에 기록함(407면)

위의 예문 [A]-[C]는 화진의 출생담과 그의 주요 인물 서사를 정리해 본 것이다. 이것만으로 볼 때는 화진 서사에 유교적 가치 규범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그리고 서두의 麒麟 출생담도 형식적인 요소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麒麟은 그 자체로 유교사회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매우 큰 동물이다. 麒麟은 태평성대를

14) 이래종 역주, <倡善感義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03, 288면. 본고의 텍스트는 이것으로 하며, 이하에서는 원문과 작품명, 그리고 자료집의 페이지만을 밝히기로 하되, 필요에 따라 괄호 속에 페이지를 넣는 것으로 대신하기도 한다.

15) 화진이 화춘으로부터 당하는 육체적인 고통은 그 이전에도 목도되나, 화진의 본격적인 수난은 집안의 살인 사건에 주모자로 고소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16) 해와 달을 그려 넣은 천자의 旗로써, 功臣의 錄券을 뜻함.

상징하는데 이러한 기린의 의미는 戰國時代에서부터 시작하여 漢代에 祥瑞로움의 대상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난다.¹⁷⁾ 또 기린은 어진 동물의 상징으로서 유교의 태두인 공자에 자주 빗대어 표현되었으며, 仁獸¹⁸⁾로서 유교를 대표하는 상징물로 인식되었다.¹⁹⁾ 즉 기린은 聖人을 상징하는 동물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花珍의 옥기린 출생담은 화진의 어진 성품과 태평성대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花珍의 옥기린 출생담이 의미하는 바는 그의 어진 성품과 국가적 충의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A-1]의 화진 출생담에 나타난 어진 성품은 [B]의 '화진의 수난과 액운' 서사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며, 그것은 화진의 孝誠으로 구체화되어 있다. 특히 花珍은 자신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학대하던 심씨와 화춘의 무고에 대해서도 자신이 무고를 자복하지 않으면 어머니와 형의 처지가 곤란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그러한 일을 저질렀다고 자복하는 인물이다.²⁰⁾ 이것은 花珍의 厄運이면서 동시에 작가가 儒敎의 綱常의 윤리로 강조하고 있는 孝를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화진의 옥기린 출생담이 상징하는 것 중의 하나인 어진 성품은 화진의 孝行으로 나타나며, 그것은 화진이 반드시 치루어야 할 厄運으로 나타난다. 동시에 그 厄運은 그의 孝行으로 인해 厄運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이는 화진의 죄를 심문하는 지부 최형이 그 고소장이 무고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²¹⁾이나, 지부 최형이 하춘해에게 화진의 고소장을 상의하자 그는, '화진은 옥 같은 자질을 지니고 있으며, 麟鳳 같은 녀성을 지녔다'고 하고 '만일 화진이 조그만 도리를 지키려다가 미명에 죽고 만다면 후세 사람들이 그 정신을 알 길이 없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화진이 누명을 쓰고 죽으려 하는 것을 반류하는 대목²²⁾에서 잘 드러난다. 특히 하춘해는 화진에게 쓴 편지에서 "좋은 옥은 불 속에 들어가야 그 본성이 더욱 빛을 발한다"²³⁾고 하며 위로하고 있는데, 이는 화진이 실천하고 있는 孝行의 진정성을 잘 드러내는 말이다 할 수 있다.

화진의 효성스러움은 이후에도 계속 나타난다. 윤이옥의 계략으로 엄세만 등에 의해 유배형으로 감형된 화진은, 밤상을 내하면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勝景을 만나면 형을 생각하며 하루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날이 없다.²⁴⁾ 또 화진이 전장에서 심씨에게 보낸 편지에도 그의 효심이 매우 잘 나타나 있는데,²⁵⁾ 이러한 화진의 효성에 대해심씨는 진심으로 참회의 눈물을 흘린다. 이런 점에서 花珍의 출생담은 그의 어진 성품과 孝行을 상징하되, 이것은 그의 厄運을 통해 구체화되어 나타나며, 그것은 최종적으로 화진이 儒敎理想을 體現하는 것이면서 그 행위가 惡人에게로 확장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화진의 출생담이 유교이념을 체현하고 그 행위가 악인에게로 확장되는 방식은 심씨 외에 화춘에게도 거의 같은 방식으로 드러난다.

이와 같이 화진의 출생담이 상징하는 바는 그의 어진 성품과 관련이 있고, 그것은 [B]의 화진의 수난과 액운 및 회운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화진의 출생담이 상징하는 바는 또 한편으로 그의 국가적 충의 실천과 관련을 맺기도 한다. <창선감의록>은 내용상 가정적 갈등을 그린 전반

17) 李成九, 「戰國時代의 養生術과 德聖人觀」, 『古代中國의 理解Ⅱ』, 지식산업사, 1995, 109~185면

18) “麒麟 仁獸也”. 許慎 撰, 『說文解字注』, 上海古籍出版社出版, 1988, 470下.

19) 李在重, 「麒麟圖像研究」,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135~136면 참조.

20) “명의로구나! 명의로구나! 내가 이 무고를 自服하지 않는다면, 어머니와 형은 장차 어떤 처지가 되시겠는가?” 한림은 마침내 지부를 우러러보며 대답했다. “진실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죄가 이미 드러났으니 죽음을 기다릴 뿐입니다.” <창선감의록>, 204~205면.

21) <창선감의록>, 204면.

22) <창선감의록>, 209~210면.

23) <창선감의록>, 209면.

24) <창선감의록>, 276면.

25) <창선감의록>, 379~381면.

부와 정치적 갈등을 그린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데, 전반부가 환생담을 통해 화진의 孝行과 原運을 중심으로 한 儒敎理念의 서사화라면, 후반부는 화진의 국가적 忠의 실천을 통한 유교이념의 서사화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가련이 인간의 어진 심품을 상징하는 것 외에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인데, 그것이 바로 정치적 의미이다. 조선시대에는 많은 공신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麒麟閣을 설치하여 공신들의 업적을 기록하였다.²⁶⁾ 이것을 본다면 麒麟은 신하의 국가적 忠의 실천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욕기린 환생담은 화진이 忠臣이 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그렇다면 <창선감의록>에서 花珍이 충신이 됨으로써 실현되는 儒敎理念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국가의 위기를 타개하여 임금으로 하여금 太平聖代를 구현하게 하는데 기여하는 것이다. 화진의 이러한 역할은 전반부의 가정적 존재에서 후반부의 대사회적 존재로 변화하면서 본격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전생의 스승이었던 은진인으로부터 병법과 지리를 익히고 그로부터 태상노군이 요괴를 물리치던 붉은 색 무직 한 장을 받는 것²⁷⁾은 그의 존재적 위치가 변화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후 그의 주요한 행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은진인은 화진에게 “나라 일이 한창 급하니 어서 속히 돌아가라”고 하고, 화진은 ‘육도’와 무직을 거두어 노인을 하직하다.(291면)
- ② 해적 서산해가 경애 지방으로 침범하여 스스로를 만화천왕이라고 하다.(294면)
- ③ 가로 서공이 별도로 대장을 보내고자 하나 그 임무를 감당한 대장이 없다고 하자, 유성희, 하공, 윤어옥 등이 간청하여 화진이 그 임무를 담당하다.(294-297면)
- ④ 요술을 부리는 서산해를, 화진이 은진인으로부터 받은 무직으로 물리치니, 서산해가 도망가다.(324-325쪽)
- ⑤ 화진인 안남을 향해 출병하고, 안남왕과 협력하여 서산해를 제거하다.(332-335면)
- ⑥ 속중의 도적 채백관이 도반을 일으키다.(336면)
- ⑦ 조정에서 보낼 사람이 없어 의견이 분분하다가 화진으로 하여금 평정하게 하다.(366-367면)
- ⑧ 채백관은 7개 성을 취한 후 자칭 大州國이라 일컫고 있다가 화원수가 왔다는 말을 듣고 놀란 나머지 싸워보지도 못하고 달아나다가 잡혀서 죽다.(383면)
- ⑨ 천자가 화진을 진국공에 봉하고 그의 위대한 공적을 太常에 기록하다.(407면)

위의 예문은 화진이 두 번의 외침을 막아 나라의 위기를 해결한 후 공신이 되는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전반부에서 소극적인 백면서생이었던 화진이 이렇게 급작스러운 민화를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바로 그의 환생담 때문이다. 그는 전생에 天上 神仙이었기에 전생에 스승이었던 은진인으로부터 병법을 전수받고 神器를 받는다. 그리고 이러한 비범성을 획득한 화진은 그의 욕

26) 조선왕조실록에는 麒麟閣에 관한 기사가 대략 15회에 걸쳐 기록되어 있다. 그 외 태평성대와 관련이 있는 麒麟이나 鳳凰에 관한 기록까지 합치면 그 수는 훨씬 더 많다. 麒麟閣에 관한 기사가 정리된 시대를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태종18년(1418년) 병술 4월 6일(국사편찬위원회 외, 국역조선왕조실록 CD-ROM 1집), 예종 1년(1469년) 계묘 5월 20일(1집), 중종1년(1506년)년 갑진 9월 28일(1집), 중종13년(1519년) 임술 9월 25일(1집), 선조31년(1598년) 병오 11월 25일(2집), 선조37년(1604년) 을해 10월 29일(2집), 선조37년(1604) 신해 3월 1일(2집), 인조6년(1628년) 경오 9월 13일(2집), 영조9년(1733) 병자 10월 28일(3집), 영조12년(1736년) 병신 11월7일(3집), 영조12년(1736년) 정유 11월 8일(3집), 영조20년(1744년) 임자 10월 9일(3집), 영조21년(1745년) 무신 10월 10일(3집), 영조31년(1755년) 병진 4월 13일, 정조1년(1777년) 계유 12월 21일(3집), 정조2년(1778년) 신유 5월 2일(3집), 정조12년(1788년) 계유 5월 12일(3집).

27) <창선감의록>, 290~291면.

기권 출생담이 상징하는 태평성대를 실현하게 된다. 이로 인해 그는 해와 달을 그려 넣은 天子의 旗인 ‘太常’에 기록되는 功臣이 된다. 화진은 국가의 위기를 해결하는 충신이 됨으로써 그의 유년(28) 출생담이 상징하는 태평성대를 가능하게 하였고, 이것은 작가가 애초에 염두에 두었던 유교 이념이었던 것이다. 화진이 忠의 실천을 통해 이룩한 태평성대의 실현은, 그의 개인적인 영달을 의미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天子의 善政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의 출생담은 디디옥 유교이념과 밀접한 관련을 맺는다고 하겠다.

2.2. 南彩鳳의 出生譚과 儒敎理念의 內面化

출생담을 통한 유교이념의 구현 양상은 이주공이라 할 수 있는 남채봉에게서도 유사하게 목도된다. <창선감의록>에서 이주인공에 해당되는 남채봉의 출생담도 그냥 형식적인 요소로 제시된 것이 아니다. 그녀의 출생담도 철저하게 儒敎理念의 구현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먼저 남채봉의 출생담과 그녀와 관련된 주요 서사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A]. 南彩鳳의 出生譚

- ① 南御使가 자니를 두지 못해 후사를 근심하다.
- ② 부인 嬖氏가 꿈에 달을 낀 뒤에 딸을 낳다.
- ③ 아이를 낳던 날 밝은 빛이 방안을 가득 미추니 진주를 저음 꺼내 놓은 듯했으며, 그 운류소리도 낭랑하여 丹穴에서 봉황의 새끼가 우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이름을 彩鳳이라 했다.²⁸⁾

[B]. 南彩鳳의 厄運

- ① 선생의 입보 때문에 10년 厄運이 있다는 말을 선니로부터 듣다.(79면)
- ② 淸遠 스님의 꿈에 관음보살이 나타나 丹藥 세 알을 주면서 남부인 彩鳳이 비명에 죽는 것을 구하라고 하다.(187면)
- ③ 남소지는 수년동안의 제앙이 더 남아 있으며, 불가와도 인연이 있다.(192면)
- ④ 청원스님이 남부인에게 아직 수년의 액운이 있다고 하고, 관음보살이 다시 남부인의 꿈에 나타나 청원이 한 말과 같은 말을 하다.(193면)

[C]. 南彩鳳의 天定과 德行

- ① 남소지(남채봉)은 천지의 정기와 오행의 수기를 타고 태어났다.(190면)
- ② 남소지는 장차 이인 가운데 聖人이 되시어 위로 아홉, 이영의 덕을 이어 閨巾의 교화를 크게 闡明할 인물이다.(190면)
- ③ 昊天은 남소지로 하여금 분발하여 큰 덕을 이루게 함으로서 장차 그 이름을 천하후세에 전하게 하려고 하다.(191면)

위 에문은 이주인공 남채봉의 출생담과 그와 관련을 맺고 있는 주요 인물 서사를 정리해 본 것이다. 이를 보면 남채봉의 출생담도 상징적인 의미가 강한 것으로 드러난다. 먼저 그녀의 출생담에 나타나는 ‘달’은 光明의 상징으로서 그녀가 덕성을 마땅으로 세상을 교화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28) 임금이 어진 정치를 하면 나타나는 瑞獸로서 麒麟이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이재중의 전제 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李在重, 前揭論文, 135~143면).

29) <倡善感義錄>, 66면.

그리고 유교에서 태평성대를 상징하는 鳳凰은 기린과 함께 태평성대를 상징하는 동물인데, 남채봉은 婦德을 바탕으로 가정의 평화를 이루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남주인공 화진이 육기린의 상징적 출생담을 통해 유교이념을 구현하는 것으로 서사화 되고 있다면, 이주인공 남채봉을 통해서도 봉황의 상징적 출생담을 통해 유교이념을 내면화 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남성 주인공을 대사회적으로 드러내어 유교이념을 서사화하고자 하였다면, 이주인공은 내면의 덕성을 통해 가정적 차원에서 儒教世念을 내면화 한 것으로 보인다.

위 예문 [B]와 [C]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남채봉이 유교이념을 내면화 하는 과정은 먼저 [B] ①과 같이 10년의 厄運을 인내한 후 '[C] ②'의 아환, 여영의 덕성을 체득하여 이를 세상에 드러내는 것으로 드러난다. 이와 같은 남채봉의 액운과 덕행의 구현은 하늘에 의해 정해진 것으로 드러난다. 남주인공 화진이 그의 액운을 효행의 실천을 통해 유교이념을 구현하고 있듯이, 남채봉 또한 그녀의 액운을 10년 동안 忍耐하여 여영의 무덕을 체득하고 이를 통해 규종의 교화를 하는 방식을 통해 유교이념을 구현하고 있다. 그래서 화진의 孝와 忠은 표면적으로 무각되어 나타나고 있음에 비해, 남채봉의 婦德은 화진의 배후에서 가정적으로 유교이념을 내면화 하는 것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면은 다음의 두 예문을 통해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 ① 조경에서 화진의 작첩을 삭탈하고 남부인을 강등시켜 소실로 만들다.(178면)
- ② 화진이 신물로 준 청옥패를 조니가 빼앗으려 하고 끊임없이 그녀를 학대하다.(178, 183면)
- ③ 남채봉은 윤부인에게 “우리가 이 가문에 들어온 것은 佛者들이 말하는 冤業을 갚는 데에 불과한 뿐입니다. 명에 따라 살다가 명이 다하면 알아간 따름이니, 구구한 영육 때문에 마음을 쓸 까닭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 형제가 군자를 심긴 이래 군자께서 빈난 窮途와 의경은 하루에도 몇 번이 님을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군자께서는 일찍이 하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탓하는 빛을 드러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假性 이자라고는 하나 탄복하며 본받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다.(183면)
- ④ 관음보살과 청원이 남채봉에게 아직 수 년의 제앙이 남아 있으니 부처님에게 의지한 채 서너 해 정도 한가하게 있으면 복록이 찾아올 것이라고 하니, 남채봉은 제앙과 함께 남쪽으로 갈아입고 청원을 따라 속 땅으로 들어간다.(192면)
- ⑤ 청원이 남채봉에게 이제 액운이 다 지나갔으니 난 하루도 산문에 더 머물 필요가 없다고 하다.(374면)
- ⑥ 천자가 남채봉에게 추국부인에 봉하다.(387면)
- ⑦ 윤사방은 남부인이 아류답게 심장하이 국부인의 체모를 의젓하게 갖춘 모습을 보고 기뻐하며 좋은 말로 위로하다.(405면)
- ⑧ 심씨는 화진이 찾아온 홍옥천과 청옥패를 두 부인에게 나누어 주다.(416면)

위 예문 보면 남채봉은 철저히 자기 인내와 화진과의 관계 속에서 그녀의 덕성을 드러내고 있다. 예문 ①에서 볼 수 있는 마와 같이 그녀는 자신의 의지나 과실과는 전혀 상관없이 화진에게 미친 결과로 인해 소실로 강등이 된다. 그리고 예문 ②에 나타난 마와 같이 화진이 준 신물 때문에 조니로부터 학대를 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남채봉은 예문 ③에서 보여주는 마와 같이 지금 현재의 상황을 忍耐하면서 남편 花珍의 덕성을 본받는 婦德을 통해 유교이념을 실천하고 있다. 그리고 예문 ④, ⑤와 같이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厄運의 기간 동안 산문에 은거하면서 인고의 세월을 거친 후 다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게 된다. 마로 이 기간에 남주인공 花珍이 국가에 공을 세

음으로써 그녀는 예문 ⑥, ⑦과 같이 속국 부인에 봉하여 국부인의 제모를 갖추게 된다. 또 화진이 찾아온 청옥패를 심씨를 통해 돌려받음으로써 그녀의 모든 지위는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남채봉의 전제 서사는 그녀에게 주어진 10년의 액운 기간을 인내하면서 한편으로는 배우자인 화진의 덕성을 본받는 것을 통해 이성의 婦德을 체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화진이 적극적으로 孝行의 실천과 忠의 실현을 통해 유교이념을 드러내는 것과 다르다. 남채봉은 자기 주도적으로 유교이념을 표면화시키지는 않으면서 그녀에게 天定으로 부여된 이성의 婦德을 내면화 하는 방식을 통해 유교이념을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남채봉은 전반부에서 타의에 의해 죽을 위기³⁰⁾에 처하고 타의 반 자의 반으로 자결을 하기도 하³¹⁾ 두 번에 걸쳐 극한의 상황을 맞이하기도 한다. 이러한 극한 시련마지라도 그녀의 유교적 덕성의 내면화와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은 남채봉의 서사가 가진 특징이다. 이는 앞서 제시된 예문 [B]의 厄運이 예문 [C]의 天定에 의한 德性의 실천과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 된다. 즉 남채봉에게 주어진 예문 [B]의 厄運은 天定에 의한 것인데, 이것은 예문 [C]의 天定에 의해 그녀의 德性을 드러내고 내면화 하는 과정과 관계됨으로써 그녀는 온 몸으로 유교이념을 내면화하고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마와 같이 <창선감의록>은 남주인공 화진의 孝行과 忠, 이주인공 남채봉의 인내를 통한 婦德의 실천을 통해 유교이념을 구현하고 있는 작품인데, 이것은 그들의 운생담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리고 이들에 의한 유교이념 구현은 주변 인물들이 옹호 하는 것을 통해 전체적인 주제의식이 강화되어 있기도 하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윤어옥과 윤화옥이다. 이들 또한 기이한 운생담³²⁾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인데, 윤어옥은 남주인공인 화진의 배후와 주변에서 그의 효행과 충성을 드러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윤화옥은 남채봉과 함께 화진의 아내가 되어 남채봉 주변에서 그녀가 婦德의 실천을 통해 유교이념을 구현하는 것을 옹호하는 인물이다. 또 직·간접적으로 남주인공을 후원하면서 이들이 유교이념을 구현하는데 기여하는 인물로는 화춘의 처 임씨와 화진의 휘하 장수 유성희도 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남주인공을 중심으로 유교이념을 구현하되, 그 주변에 있는 인물들이 적극적으로 이를 옹호하는 형식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儒敎理念의한 人物의 善惡 區分과 超越界에 의한 強化

앞서 <창선감의록>에 나타난 出生譚을 통해 유교이념의 구현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이 이 작품은 忠孝의 실천이라는 儒敎理念을 서사의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忠孝를 실천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선한 인물과 악한 인물로 그려진다. 유교이념의 실천 여부가 인물의 善惡을 판가름하는 1차적 기준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주제의식을 전체적으로 이끌고 또 강화하는 것은 바로 超越界라는 점에서 <창선감의록>의 서사적 특징이기도 하다. 인물의 善惡을 구별하는 형식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은 유교이념이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판별하여 주제의식을 드러내는 것

30) <창선감의록>, 73면.

31) <창선감의록>, 186면.

32) <尹汝玉과 尹花玉의 出生譚>

① 윤시랑이 자녀를 두지 못해 후사를 근심하다.

② 조씨 부인이 별 두 개가 품안으로 떨어지는 꿈을 꾸다.

③ 그로부터 태기가 있더니 딸과 아들 쌍둥이를 낳다.

④ 두 자녀는 용모가 아름다워 마치 두 개의 붉은 옥 같았다.

⑤ 윤공 부부는 자녀를 몹시 사랑스러워하여 딸의 이름을 花玉이라 하고, 아들의 이름은 汝玉이라 하다 (<창선감의록>, 65~66면).

은 超越界인 것이다. 이하에서는 남녀 주인공과 관련된 서사를 중심으로 이러한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1. 花珍의 人物 性格과 超越界에 의한 儒敎理念의 強化

<창선감의록>의 인물들은 크게 善人과 惡人으로 이대별하여 나눌 수 있다. 이 인물들은 유교이념의 실천 이하에 따라 勸善懲惡의 대상이 된다고 한 바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격은 유교이념 그 자체에 의해서 표면적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이러한 주제의식을 관념적으로 관별하고 옹호하는 기능을 하는 것은 超越界이다. 이 때문에 <창선감의록>에 나타난 超越界는 儒敎的 性格을 농후하게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超越界는 화진을 비롯한 善人型의 인물들의 삶을 긍정하면서 동시에 惡人型의 삶을 부정하여 자연스럽게 勸善懲惡이라는 결론으로 귀결시킨다. 이와 같이 초원계가 직접적으로 인물의 성격을 善惡의 二分法으로 판가름하는데 관여하기 시작하는 것은 <창선감의록>과 <사씨남정기> 등에 의해서인데, 이를 주요 인물을 통해 서사의 전면으로 나타내기 시작하는 것은 <창선감의록>이다.

특히 <창선감의록>의 남녀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花珍과 남재봉의 경우에는 이러한 성격이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먼저 화진의 서사와 관련되는 유교이념적 성격과 초원계의 개입 양상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A]. 화진의 유교이념적 성격

- ① 화진은 모친 심씨와 형 화춘으로부터 심학 학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어진 성품을 바탕으로 孝를 실천하는 인물이며, 그들을 개과천선하게 한다.
- ② 화진은 비범한 능력으로 국가의 위기를 해결하고 태평성대를 실현하는 忠臣이다.
- ③ 화진은 忠孝를 실천하여 남성인물의 본보기가 된다.³³⁾

위 예문은 花珍의 유교이념적 성격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화진의 유교이념적 성격은 그의 어진 성품과 관련이 있는데 그것은 忠孝로 구체화된다. 특히 유교에서 강조하는 綱常의 윤리 규범이라 할 수 있는 孝誠은 <창선감의록>의 인물들을 善과 惡으로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그래서 유교의 윤리규범을 실천하는 화진에게는 그의 행동을 본받고자 하는 주변 인물들이 존재하게 되고 그들로부터 적극적인 도움과 옹호를 받게 된다. 이러한 화진의 유교이념적 성격에 대한 옹호와 지지는 현실계의 인물들 뿐만 아니라 초원계를 통해서도 나타난다.

[B]. 화진과 관련된 초원계의 반응

- ① 어느 날 화상서와 정부인이 화진에게 찾아와 큰 화가 다가왔으니 몸을 잘 보살피라고 한다.(201면)
- ② 화춘의 집안에서는 제반사가 큰 혼란에 빠지면서 災變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 백화현 앞에 서 있던 천 년 묵은 고목 나무가 까닭 없이 쓰러지고, 만류정 아래에서는 늑은 九尾狐가 슬피 울며 돌아다녔으며, 상서 사당에서는 한낮에 곡소리가 들려왔다.(217면)
- ③ 은진인이 화진에게, “그대의 슬픈 날은 이미 다 지나갔으니 즐거움을 누릴 날이 곧 다가올 것이요, 집안에 들어서면 모친과 형제가 함께 사는 즐거움이 있고, 조정으로 나가면 신군과 현신이 서로 만나는 기쁨이 있을 것이요, 忠孝에 따르는 복은 장구한 것이지요.”라고

33) 花珍은 윤여옥, 유성희, 유이숙, 왕검, 성생 등과 같은 남성 인물의 귀감이 되며 그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는다. 이러한 현실계에서의 지지는 그의 덕성에 의한 것인데, 이것은 孝行과 忠의 실천으로 나타난다.

하다.(289면)

④ 화진은 은진인으로부터 병법을 익히고 神器를 받다.(291면)

위 예문 [B]는 충효를 실천하여 선한 인물로 형상화되고 있는 화진이 위기에 처했을 때 나타나는 초월계의 반응들이다. 예문 ①은 화춘에 의해 유괴 당하여 울고 있을 때에 죽은 부친과 모친이 나타나 그에게 닥칠 위기를 예시하는 부분이다. 아무리 죽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부모가 자식을 걱정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러나 부모의 이러한 현몽을 통한 암시가 악인의 전행으로 등장하는 장남 화춘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단순히 부모의 자식에 대한 걱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서두에서 부모가 모두 유교이념의 체현자³⁴⁾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들이 추구하는 이상을 화진이 실천하고 있기에 그들은 죽어서도 현몽하여 아들의 위기를 알려 주고 있는 것이다.

예문 ②는 심씨와 화춘의 부모에 의해 화진이 옥에 갇히고 난 후에 나타난 災變이다. 얼핏 보아서는 화춘의 악행에 대한 경고로 보이지만, 이것은 그러한 성격과 동시에 어질고 선한 인물인 화진의 부모함에 대한 초월계의 반응이라는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다. 이는 이후 제시되는 집안 살인 사건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집안에 자객으로 들어간 누남에 의해 같이 범행을 모의했던 난향이 혀가 잘려 죽은 사건을 두고, 서술자는 “화상서가 누남의 눈에는 나타났으나, 아들 화춘의 꿈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조물주가 난향의 혀는 잘랐으나 범한의 손은 자르지 않았다”³⁵⁾라고 하여 분명 초월계가 개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죽은 화상서가 나타나 아들이자 선한 인물인 화진을 누남이 해치려고 하자 그를 쫓아버렸고, 또 같이 범행을 모의했던 난향은 비명에 죽게 함으로써 초월계가 선인과 악인의 행위에 대해 각각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본 것이다.

예문 ③과 ④는 화진의 忠孝가 초월계의 인물인 은진인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부분이다. 특히 그는 지금까지 가정적 차원에서 효행을 실천하는데 머물렀는데, 은진으로부터 병법을 전수받고 神器를 받으면서 국가적 忠을 실천하는 인물로 거듭나게 된다. 화진이 가정과 국가 양면에 걸치서 유교적 이념을 구현할 수 있도록 초월계가 돕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도 잠시 언급한 바와 같이 화진의 忠孝의 실천을 통한 유교이념의 구현은 그의 개인적 차원에 머무르지 않는다. 일차적으로는 그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심씨와 화춘을 개과천선하게 하며, 이차적으로는 초월계의 심리에 의해 악인들이 징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이 작품이 권선징악적 구조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즉 초월계는 화진이 忠孝를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거나 옹호하는 역할을 하면서,³⁶⁾ 동시에 악인의 경우에는 초월계가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그들을 압사시키거나 비극적 종말을 맞이하는 것으로 이끌고 있다. 이러한 면은 심씨와 관련된 다음의

34) 작품 서두에 보면, 화옥은 사람됨이 방정하고 준엄하며 항상 선비로서의 바른 길을 걷고자 하는 인물로 나타난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아들 화진이 花門의 福星이라고 하며 자랑스러워 한다. 그리고 정씨는 정숙하고 덕망이 있으며, 매양 『孝經』 읽으면서 몸가짐을 바르게 하는 인물로 등장한다. 이러한 면은 화춘의 임씨가 긍정하는 말을 통해서도 드러난다.(<창선감의록>, 20~31면).

35) <창선감의록>, 203면.

36) 초월계가 유교이념을 실천하는 인물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남재봉의 부친 남표를 칭송하는 것에도 잘 나타난다. 이를 잠시 예로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 선아가 “충신은 일신을 돌보지 않고 충절을 지켜 용인을 건드리고, 호구를 범하여 마침내 사나운 물결 속으로 몸을 던졌다 하더라도 천지신명이 보호하여 반드시 그 목숨을 보전하게 마련입니다.”라고 하다.(80면)

* 선아는 남소저에게, “신명이 충신을 보호하는 까닭은 단지 그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그 나라의 임금을 위하는 길이기도 하지요.”하다.(80면)

* 선아는 상군낭당이 ‘상제께서 남표의 청렴과 충절을 이미 아시고 또한 대명 황제의 지덕에 대해서도 들으셨지. 그러므로 하늘이 장차 큰 복으로 보답하려 하시는 것이라네’라고 하였다 하다(81면).

발과 작품의 발미에 드러나는 서술자의 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씨> : 심씨는 선공(화옥)이 돌아가신 뒤 한 번도 꿈에 나타나신 적이 없었는데, 근자에는 자주 꿈에 나타나 환하게 웃는 얼굴로 은근하게 말씀하신다 하고, '사람이 처음에 나쁜 짓을 하다가 나중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처음에 착한 일을 하다가 나중에 나쁜 짓을 하는 것보다 나은 편이라고. 이제 그대에게 훌륭한 아들과 며느리를 부탁하니 반박을 길이 누리며 자중자에 하시오.'라고 했다고 하다.³⁷⁾

<서술자> : 아아! 응호는 본성이요, 생사 화복은 운명이다. 운명은 내가 알 바 아니니 다만 나의 본성을 다한 따름이다. 병환과 조니가 비록 제주를 다하여 악행을 저질렀으나, 난지 다른 사람을 부귀하도록 제속하고 스스로 제 목숨을 끊어지게 했을 뿐이요, 하늘도 역시 벌을 내렸다.³⁸⁾

위의 예문 중 <심씨>의 경우는 화진의 어진 성품과 효의 실천에 의해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던 심씨에게 화진의 부친 화옥이 나타나 착한 일을 하며 자중자에 하라고 하는 말이다. 이것은 화진이 효행을 실천하여 악덕했던 심씨를 개과천선하게 하였고, 이를 다시 초원적인 현몽의 방식을 빌어 화진이 실천하는 유교윤리규범을 옹호하는 것이다. 그리고 <서술자>의 이야기는 經常의 규범인 효가 인간의 본성이라고 긍정한 후, 생사화복이 운명이라고 하여 이 작품의 인물들의 삶에 초원적인 눈리가 개입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래서 병환과 조니의 악행은 벌을 받았는데, 이것은 하늘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다.

실제로 이 작품에서 대표적인 악인이라 할 수 있는 인물들은 그 발로가 비극적이다. 병환의 경우에는 갖은 악행을 저지르다가 동류인 누굽에 의해 살해당하며, 난향 또한 같이 병행을 모의했던 누굽에 의해 죽는다. 그리고 장평이나 조니, 난수, 계향 등도 모두 사로잡혀 압송당하여 벌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악인들의 이러한 비극적 발로에 대해 초원계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난서는 찾기 어렵다. 다만 서술자의 발을 통해 그러한 응보가 하늘의 뜻이라고 하였고, 또 초원계가 직접 개입하여 벌을 내리지 않더라도 초원계가 선한 인물들을 옹호하는 방식을 통해 악인들은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았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하도록 결구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심씨와 화춘의 경우에는 철저한 회과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진정한 반성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한 차별도 두고 있다.

3.2. 超越界에 의한 南彩鳳의 德性 擁護와 儒敎罪念의 内面化

앞서 화진의 경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창선감의록>에는 처첩간의 쟁충과 같은 갈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 서사의 전면에서 정치적 갈등을 그리고 있지도 않다.³⁹⁾ 이 작품의 궁극적인 갈등은 유교이념을 실천하는 선인 집단과 이를 실천하지 않는 악인 집단 간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남성 인물군과 여성 인물군으로 양분되어 남성 영역에서는 화진을 중심으로 효를 강조

37) <창선감의록>, 318면.

38) <창선감의록>, 454면.

39) 이 작품에는 작품 서두에 잠시 충신이라 할 수 있는 화옥, 윤시랑, 남자평 등과 간신인 엄승 등의 갈등관계가 형상화 되어 있고, 중반 이후에 또 잠시 정치적 갈등의 양상을 드러내기는 하지만, 이는 이 작품의 궁극적인 갈등과는 거리가 있다. 이에 대해 조춘호도 <창선감의록>에는 '상호간의 구체적인 관념이나 정치 이념의 차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천자의 총애를 받는 소속된 집단의 이익을 위한 당파적인 대결의 양상을 보여 준다'고 한 바 있다(조춘호, 전제논문, 64면 참조).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성 인물군에서는 남채봉을 중진으로 여자의 德性을 강조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여기에 초원계가 개입한다. 즉 이 작품에서 인물들이 善惡으로 판가름 나는 현실적 기준은 유교이념의 체화에 있고, 이를 관념적으로 옹호하거나 강화하는 것이 초원계인 것이다.

이와 같이 유교이념에 의해 인물의 선악이 평가되고 초원계의 개입에 의해 당대의 지배이데올로기가 옹호되는 것은 어주인공 남채봉의 경우에도 잘 나타난다. 다만 화진이 전체 서사에서 孝와 忠를 표면화시키고 있음에 비해, 남채봉의 경우에는 그러한 유교이념이 표면화되어 있지 않고 내면화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이 다르다. 그녀가 내면화하고 있는 유교이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 남채봉의 유교이념적 성격

- ① 남채봉은 試鍊을 忍耐하고 婦德을 체현하는 인물이다.
- ② 남채봉은 아환, 이영의 녀성을 이어 규종을 교화하고 큰 녀성을 이루어 이름을 후세에 전한 사람이다.
- ③ 남채봉은 이성인물의 본보기가 되는 인물이다.⁴⁰⁾

위 예문은 남채봉과 관련되는 유교이념을 정리해 본 것이다. 이를 통해서 볼 때 그녀가 실현하는 유교이념은 아환, 이영의 녀성을 이어 규종을 교화하는 婦德이다. 이 부덕의 실현을 위해 그녀는 인고의 세월이 필요하며, 그것은 앞서 살펴본 바 있는 10년 액운으로 나타난다. 그녀가 10년 액운 기간에 죽을 코비도 맞이하지만 이는 초원계에 의해 구원을 받는다. 초원계가 그녀를 구원하는 이유는 다음에서 확인 할 수 있다.

[B]. 남채봉과 관련된 초원계의 반응

- ① 청원의 꿈에 관세음보살이 나타나 난약 세 알을 주면서, “어느 달 어느 날 남 부인 채봉이 비명에 죽을 것이니라. 내가 그날 밤 사경에 소흥 보림산 남쪽 기슭으로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남 부인을 구하도록 하거라.”고 하다.(187면)
- ② 청원이 난약 한 알씩 물에 풀어 부인의 입 속으로 흘려 넣으니 남 부인이 독즙을 토해 내고 시퍼런 피를 땅바닥에 토하다.(188-189면)
- ③ 살아난 남부인이 청원에게 인사하니, 7년 전 관음화상을 청하던 스님임을 알아보고, 청원은 그 때 벌써 남소저가 금년이 되면 천 길 높은 파도에 빠져 생사조차 알 수 없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고 하다.(189-190면)
- ④ 청원은 남부인이 어인 가운데 성인이 되시어 위로 아환, 이영의 녀성을 이어 규종의 교화를 크게 천명하실 것이라고 하고, 백신이 호위하여 요일이 해칠 수 없었다고 하다.(190면)
- ⑤ 청원이 남부인에게, “황천은 부인으로 하여금 분발하여 큰 녀성을 이루게 함으로써 장차 그 이름을 천하 후세에 전하게 하려는 것이다”고 하다.(191면)

위 예문 ①-③은 남채봉이 厄運의 기간 동안에 조니가 준 독죽을 먹고 자살했을 때 초원계가 개입하여 구원하는 장면이다. 이전에도 초원계는 남채봉을 구원해 준 바 있는데, 그 때는 남채봉의 부친 남표의 충절을 애로 들었었다.⁴¹⁾ 그런데 이번에는 부친 남표의 충절과 상관없이 오로지

40) 남채봉은 윤소저(윤화옥), 진소저(진채경), 계향 등의 여성인물의 본보기이며 이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는 인물이다. 특히 남채봉의 액운으로 나타나는 인고의 체험은 윤소저와 진소저도 함께 겪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채봉의 덕성 때문에 초원계가 구원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선인집단이 겪는 시련의 정도가 극에 달해 죽음에 이르거나 현실적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사건에 처했을 때 비현실적인 논리로서 시련이 극복된다⁴²⁾는 관념의 소산이다.

그런데 이러한 극복의 관념에 유교이념의 실천이라는 지배이데올로기가 가미됨으로써 작가가 추구하는 주제 의식이 좀 더 분명해진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한 흥미요소나 위안의 성향이 아니라고 본다. 이는 예문 ④-⑤번에서 청원이 남채봉을 구한 후 초원계가 그녀를 구한 이유를 제시하는 있는 장면을 통해 알 수 있다. 이 예문에서 청원이 하는 말을 보면 남채봉은 이성 가운데서 심인이 되어 위로 아환, 여영의 덕을 이어 규종을 교화하는 임무를 초원계로부터 부여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유교이념을 구현하는 이러한 남채봉을 백신이 호위하기 때문에 요열도 해칠 수 없다고 한다. 또 황천은 남채봉이 분발하여 큰 덕을 이루게 함으로써 장차 그 이름을 후세에 전하게 하려 하기도 한다. 이것은 남채봉의 유교이념 실천을 통해 다른 인물들이 그를 효직하세 하고자 함이다. 스스로 유교이념을 체현하여 다른 인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남성 쪽에서는 화진이 담당하고 있고, 이성 쪽에서는 남채봉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남주인공 화진의 영향을 받아 그를 본받고 옹호하는 인물들이 있듯이, 여주인공 남채봉의 영향을 받아 그녀를 본받고 옹호하는 인물도 있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윤소지와 진소지이다.

이들과 달리 끝까지 악한 행동으로 일관한 조니나 난향, 계향 등은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한다. 이들은 작가가 추구하는 유교이념에 대치되는 인물들이기에 칠지하세 비난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남채봉을 비롯한 선인 집단이 유교이념을 구현함으로써 초원계로부터 적극적인 옹호를 받는 것과 상반된다. 또 앞서 언급한 바 있는 심씨의 경우에는 화진의 영향도 받았지만 남채봉과 윤소지의 덕성으로부터 감화를 받아 회개하는 인물이다.⁴³⁾ 그래서 이들은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받는다. 따라서 화진이 구현하고 있는 충효의 윤리규범이 그 자신에게 그치지 않고 확산되었듯이, 남채봉의 덕행도 그 자신에게 한정되지 않고 다른 인물들에게로 확장되는 과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확장은 성부인이 '심씨와 화춘 모자가 개과천선하여 인류가 다시 크게 밝아졌다'⁴⁴⁾고 하며 남부인 등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이 된다.

따라서 <창선감의록>은 화진과 남채봉의 유교이념 구현과 확산을 서사화하고 있으면서, 이러한 확산의 과정에 초원계의 적극적인 옹호를 받음으로써 당대의 유교이념이 강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초원계의 지지와는 달리 임씨의 경우에는 신료들이 그녀의 효의를 알고 천자에게 아뢰고, 천자는 이를 인정하여 정문을 세움으로써 현실적으로도 유교이념이 강화되는 것을 빼놓지 않았다.

이상에서 <창선감의록>에 나타난 인물의 성격이 유교이념 및 초원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을 살펴본왔다. 이와 같이 당대의 특정 이데올로기에 의해 인물의 선악이 평가되고 초원계가 개입하는 것은 <창선감의록> 이전에는 쉽게 목도되지 않는다.⁴⁵⁾ 따라서 초원계가 인물성격의 선악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기 시작하는 것은 유교적 예교주의가 공고화되기 시작하는 17세기 사회사와 관련이 있고, 그 중심에 <창선감의록>이나 <사씨남정기>와 같은 작품이 있다고 볼 수 있다.

41) <창선감의록>, 80~81면.

42) 조춘호, 전개논문, 72면.

43) 개과천선한 심씨는 사람을 보내 남소지와 윤소지를 불러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고, 화진이 찾아온 청옥패와 홍옥천을 두 부인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이들의 관계는 온전하게 회복된다(<창선감의록>, 415면).

44) <창선감의록>, 433면.

45) 이런 점에서 이승수가 '조선조 소설에 나타난 선악이 성리이념이라는 특정한 기준에서만 성립된다'고 한 것은 주목할 만한 견해다(이승수, 전개논문, 529~530면 참조).

4. 결론

본자는 <창선감의록>에 나타난 윤생담과 초월계의 서사적 기능을 유교이념의 구현과 관련지어 살펴보았다. 이 작품은 윤생담을 통해 유교이념을 구현하고 있고, 초월계가 유교이념과 결합되어 인물의 善惡을 판별하기도 하고 유교이념을 강화하기도 한다. 이러한 양상은 <창선감의록>과 비슷한 시기에 형성된 <구운몽>이나 <사씨남정>, 그리고 <소현성록> 등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즉 초월계와 유교이념에 의해 인물의 善惡을 구별하고 권선징악에 이르는 결과는 <창선감의록>에서 처음 나타났던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건국영웅이나 영웅설화에 나타났던 인물의 윤생담은 <홍길동전>에서 먼저 서사화 되지만, 그 윤생담이 남니 주인공에게로 확대되고 또 유교이념과 관련을 맺는 것은 <창선감의록>이 처음이다. 이하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먼저 화진의 옥기린 윤생담이 의미하는 바는 그의 어진 성품과 국가적 患의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중에서 화진의 어진 성품은 화진의 수난과 액운으로 형상화되며, 그것은 화진의 효행으로 구체화된다. 이것은 화진의 액운이면서 동시에 작가가 유교의 강상의 윤리로 강조하고 있는 효를 실천하는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화진 윤생담이 상징하는 또 다른 하나는 국가적 患의 실현과 관련을 맺고 있다. 그것은 옥기린이 태평성대와 관련이 있고 화진은 국가의 위기를 타개하여 임금으로 하이금 태평성대를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유교이념을 구현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어서 남채봉의 달과 봉황 윤생담이 상징하는 바는 달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듯이 남채봉이 이성의 부덕을 체현함으로써 세상을 교화한다는 의미와 봉황이 태평성대를 상징하기에 그니 또한 화진의 배후에서 덕성을 바탕으로 가정의 평화를 구현하는 인물로 보았다.

그 다음에는 유교이념과 인물의 선악 문제, 그리고 초월계에 의한 유교이념의 강화와 옹호를 살펴보았다. <창선감의록>에서는 남자의 경우 충효를 실천하는 인물인가에 따라 선인과 악인으로 양분되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에는 婦德이 있는가의 여하에 따라 선인과 악인으로 구분된다. 특히 남니 주인공이 체현하는 유교이념은 그 자신에게 한정되지 않고 주변 인물들에게 파급되고 있는데, 이 경우에 감화를 받아 개과천선하는 경우도 있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 파멸을 맞는 인물도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초월계가 개입하여 유교이념을 구현하는 남니 주인공을 옹호하는 방식을 통해 초월계에 의한 유교이념의 강화가 서사화 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참고문헌>

1. <자료>

국사편찬위원회 외, 국역 조선왕조실록 CD-ROM 1집-3집.

李來宗 역주(2003), <信善感義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許愼 撰, 『說文解字注』, 上海古籍出版社出版, 1988.

2. <논지>

김나영, 「창선감의록의 주요 등장인물 분석-坤氣性情論에 입각하여-」, 『논암어문학』 15집, 논암어문학회, 2002, 249~293면.

- 金秉權, 「17世紀後半 創作小説의 作家社會學的 研究-金萬重과 趙聖期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1~121면.
- 金秉權, 「彰善感義錄과 趙聖期の 創作意識」, 『韓國文學論叢』 11집, 한국문학회, 1990, 141~153면.
- 김병권, 「창선감의록 편용의 문헌학적 접근」, 『한국문학논총』 21집, 1997, 117~142면.
- 김수연, 「花氏忠孝錄의 문학적 성격과 연작 양상」,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1~166면.
- 박일용, 「倡善感義錄의 구성원리와 미학적 특징」, 『고전문학연구』 18집, 한국고전문학회, 2000, 323~356면.
- 송성욱, 「17세기 소설사의 한局面-<사씨남정기>, <구운몽>, <창선감의록>, <소현성록>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8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02, 241~270면.
- 嚴基珠, 「倡善感義錄 研究」,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4, 1~98면.
- 이내중, 「彰善感義錄 文本 考」, 『崇實語文』 10집, 崇實語文學會, 1993, 237~267면.
- 李明賢, 「古典小説에 나타난 天觀念 研究」,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85~101면.
- 李成九, 「戰國時代의 養生術과 德·聖人觀」, 『古代中國의 理解II』, 지식산업사, 1995, 109~185면.
- 李成權, 「家庭小説의 歷史的 變貌와 그 意味」,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1~53면.
- 이승수, 「창선감의록의 인물과 은폐된 현실」, 『한국학논집』 26집, 한양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5, 529~561면.
- 李在重, 「麒麟圖像研究」,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135~136면.
- 李智琬, 「창선감의록의 이본 편이 양상과 독자층의 상관관계」,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1~224면.
- 林榮澤, 「17世紀 閨房小説의 成立과 <倡善感義錄>」, 『동방학지』 57집,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88, 103~165면.
- 丁奎福, 「<彰善感義錄>과 <冤感錄> 및 <花珍傳>의 相關性」, 『順天鄉論文集』 2집, 順天鄉語文學研究所, 1993, 7~21면.
- 정건수, 「창선감의록의 작가 문제」, 『고전문학연구』 제23집, 한국고전문학회, 2003, 179~205
- 정건수(2004), 「17세기 長篇小説의 형성 경로와 장편화 방법」,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1~254면.
- 정건수, 「한국 고전장편소설의 형성과정」, 돌베개, 2005, 166~173면.
- 趙春鎬, 「彰善感義錄 研究」, 『문학과 언어』 4집, 문학과 언어연구회, 1983, 51~79면.
- 秦京煥, 「창선감의록의 사실주의적 성격과 낭만적 구성」, 『고전문학연구』 6집,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91, 9~54면.
- 진경환, 「倡善感義錄의 작품구조와 소설사적 위상」,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210면.
- 최기숙, 「17세기 장편소설 연구」, 원인, 1999, 146~177면 및 219~477면.
- 탁원정, 「17세기 가정소설의 공간 연구-<사씨남정기>, <창선감의록>을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5, 1~172면.

<국어학>

후행모음의 피치를 고려한 한국어 평음/경음/격음의 인지실험

정윤자(단국대학교 교양학부)

1. 연구 목적

- (1) 한국인이 A집단이¹⁾ 발음한 한국어 평음, 경음, 격음을 녹음하고 이를 음향음성학적으로 분석한다.
- (2) 평음, 경음, 격음에 각각 후행하는 모음의 피치 값 전체의 평균값을 구한다.
- (3) 녹음된 평음, 경음, 격음을 실험 방식에 맞게 편집하되 음을 변형시키지 않고 한국인 A집단을 대상으로 인지실험을 실시한다.
- (4) 녹음된 평음, 경음, 격음에 후행하는 모음의 피치 값을 변형시켜 실험 방식에 맞게 편집하여 한국인 A집단을 대상으로 인지실험을 실시한다.
- (5)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어 평음, 경음, 격음을 구분하는 지각 단서를 제시한다.

2. 연구 배경

- (1) 한국어 폐쇄음과 파찰음은 평음, 경음, 격음으로 3원 대립을 이루고 있어서 이들에 대한 음성학적 구분이 필요하다.
- (2) 기존의 연구에서는 대부분 폐쇄음의 평음, 경음, 격음을 구별하는 지각 단서로 상대진동시작시간(VOT)를 제시했다.²⁾ 그러나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한국어 폐쇄음의 평음과 격음이 VOT로 구분되지 않는 것으로 보았기³⁾ 때문에 이에 대한 검증작업이 필요하다.
- (3) 검증된 결과를 통해 외국인에게 한국어의 평음, 경음, 격음을 교육한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발표의 이점은 두 가지가 있다. 1) 발화실험을 하기 위해 녹음한 평음, 경음, 격음 자료를 가지고 피치 값을 변형하여 동일한 대상에게 인지실험을 실시함으로써 실험을 정밀도를 높이하고자 하였다. 2) 한국어의 특징인 평음, 경음, 격음을 구분할 때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폐쇄음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파찰음의 경우 VOT 값을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어에서 폐쇄음과 함께 파찰음도 3원 대립을 보이므로 본 발표에서는 이들을 모두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3. 발화실험

- (1) 실험 대상자: 단국대학교 한국어문학과 1~2학년 한국인 학생 10명(여자 7명, 남자 3명)⁴⁾
- (2) 실험 자료: 폐쇄음과 파찰음 평음, 경음, 격음의 어두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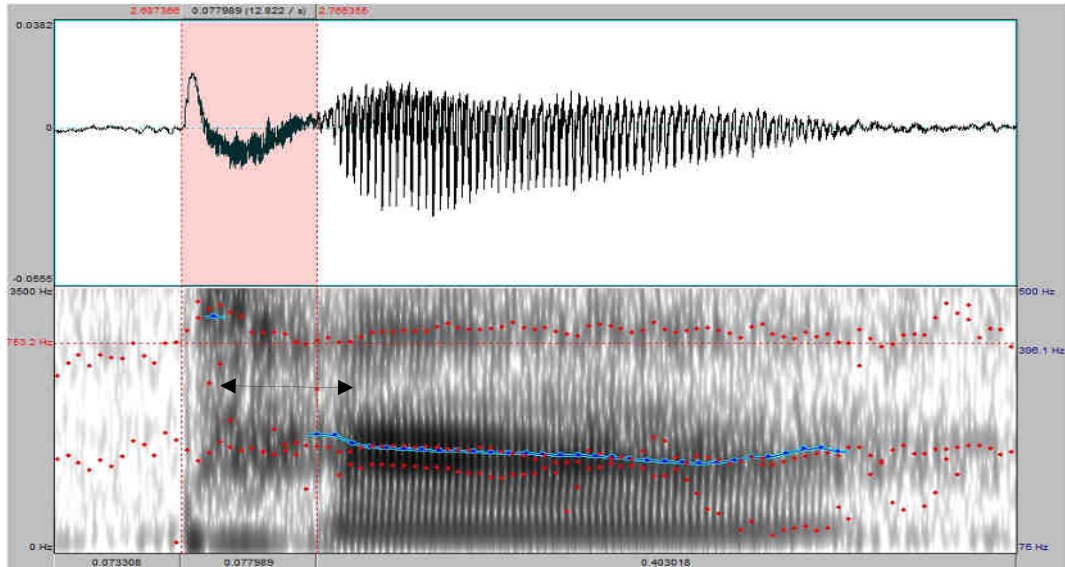
-
- 1) 본 발표의 발화실험 및 인지실험 대상자를 가리킨다.
 - 2) 이경희,정명숙(2000), 박진원(2001),
 - 3) 장우혁,김길동(2009)
 - 4) 피치는 성대의 크기와 길이, 질량 등에 영향을 받는다. 성대의 크기가 클수록 진동하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큰 성대를 가진 남성의 피치 값은 약 120Hz이고, 여성은 평균 약 230Hz, 어린아이는 300Hz 전후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양병곤 2003:65) 따라서 본 발표의 남성 실험 자료는 참고만 할 것이다. 그러나 남성의 피치 값도 평음, 경음, 격음에 따라 상대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여성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바, 다, 가, 자 / 빠, 따, 까, 짜 / 파, 타, 카, 자)

(3) 실험 방법: 피험자들에게 각 단어 하나씩 차례로 보여 주고 2회 반복하여 읽도록 하고 이를 녹음하였다.⁵⁾ 녹음된 내용은 Praat(4601_win98)를 사용하여 VOT (Voice Onset Time)와 Pitch 값을 구하였다.

(4) 실험 결과:

<그림1> '바'의 VOT 값을 측정할 예



이렇게 측정된 VOT 값은 <표 1>에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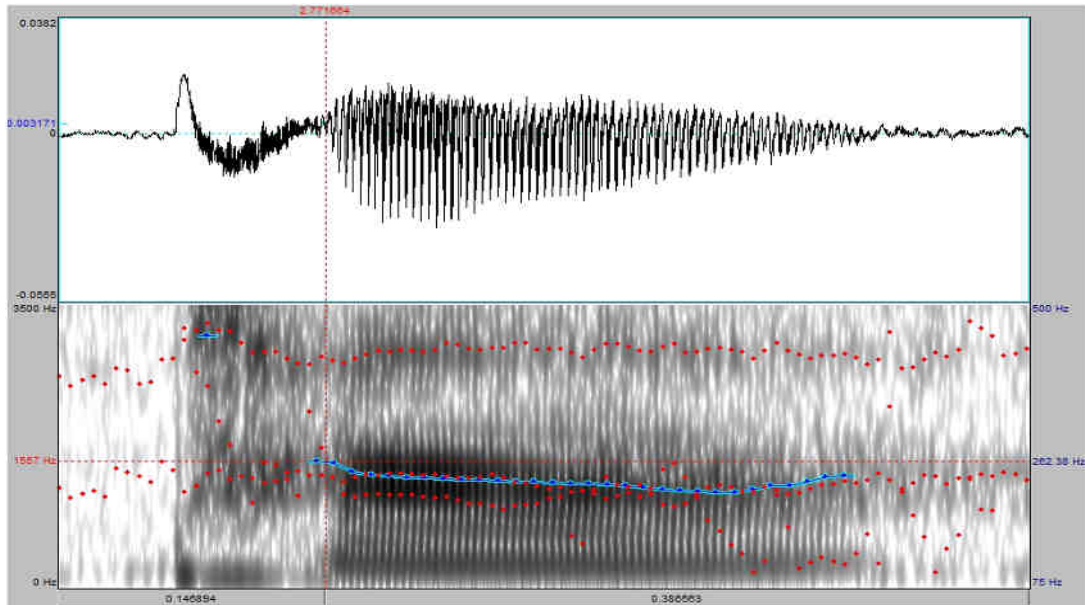
<표1> VOT 평균값(ms)과 표준편차(SD)

		평균	총 평균	표준편차	개수
평음	바	63.18	70.82	16.18	7
	다	69.14			
	가	80.16			
경음	빠	11.56	16.69	5.17	7
	따	15.49			
	까	23.02			
격음	파	80.18	80.08	21.65	7
	타	72.17			
	카	87.89			

<표1>의 VOT 값에 의하면, 경음은 평음, 격음과 확연히 구분되고 있지만 평음과 격음은 차이가 크지 않다. 이들 차이의 유의 수준은 독립표본 T검정(Independent Sample T-Test)에 따르면, 평음과 격음의 VOT 값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t=-0.906, p=0.383(>0.05)].

5) 자음 목록을 하나씩 보여주고 이를 '자연스럽게 읽는다'는 생각으로 읽도록 주문하였다.

<그림2> "바"의 피치 값을 측정한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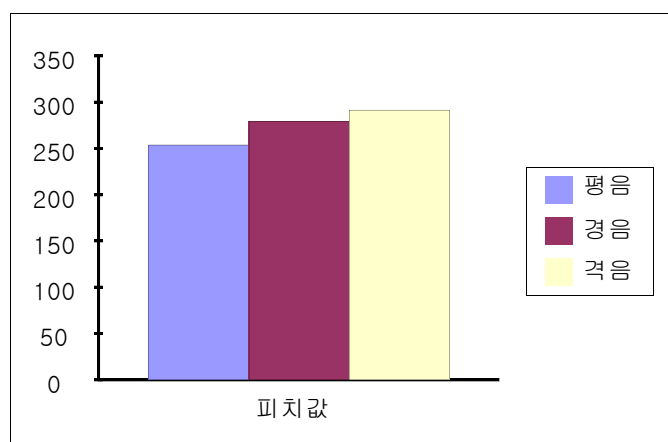
위와 같은 방식으로 측정된 피치 값은 <표2>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2> 피치 평균값(Hz)과 표준편차(SD)

		평균	총 평균	표준편차	개수
평음	바	254.44	253.81	21.58	7
	다	253.49			
	가	253.78			
	자	253.54			
경음	빠	278.57	279.19	20.75	7
	따	274.13			
	까	280.34			
	짜	283.76			
격음	파	293.01	291.49	16.14	7
	타	290.90			
	카	293.95			
	차	288.53			

<표2>에서 확인하듯, 폐쇄음과 파찰음 모두 평음, 경음, 격음에 따라 후행모음의 피치 값이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피치 값으로 보면 폐쇄음과 파찰음의 구분은 없고 평음, 경음, 격음에 따라 후행모음에 미치는 영향 정도가 각각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들이 평음, 경음, 격음의 단계별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을 <그림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3> 평음, 경음, 격음의 피치 평균값(Hz)



평음, 경음, 격음 피치 값의 차이가 유의미한지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평음과 경음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t=-2.243, p=0.045(<0.05)], 평음과 격음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t=-3.699, p=0.003(<0.05)]. 그런데 경음과 격음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t=-1.237, p=0.240(>0.05)].

지금까지의 발화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VOT 값에 의해 한국어 폐쇄음 평음, 경음, 격음에서 경음을 구분할 수 있는 점이다. 그리고 피치 값은 폐쇄음과 파찰음을 통틀어 경음과 격음으로부터 평음을 구별해 주는 지각 단서로 작용하였다. 그런데 발화와 인지의 미세정상을 고려할 때, 과연 인지실험에서도 피치 값의 차이가 평음과 격음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4. 인지실험

(1) 실험 대상: 발화실험에 참여했던 난국대학교 한국어문학과 한국인 학생 10명을 포함하여 총 12명 (여자 9명, 남자 3명)

(2) 실험 자료:

- 1) 양순 폐쇄음 (ㅍ[p], ㅍᵃ[pʰ], ㅍᵃᵃ[pʰᵃ]): 파, 빠, 파
- 2) 치조 폐쇄음 (ㄷ[t], ㄷᵃ[tʰ], ㄷᵃᵃ[tʰᵃ]): 다, 따, 타
- 3) 연구개 폐쇄음 (ㄱ[k], ㄱᵃ[kʰ], ㄱᵃᵃ[kʰᵃ]): 가, 까, 카
- 4) 치조 파찰음 (ㅈ[tʃ], ㅈᵃ[tʃʰ], ㅈᵃᵃ[tʃʰᵃ]): 자, 짜, 자

음성실험을 위해 녹음한 발화음(음)을 음성분석프로그램 Praat를 이용하여 인지실험에 사용할 실험자료로 만들기 위해 편집을 한다.

가) 음성구별실험(Discrimination task: AX-test) - 두 음을 들려주고 같은 소리인지 다른 소리 인지 알아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표3>과 같이 6개의 쌍으로 된 항목을 만든다. 이는 폐쇄음

6) 음성실험 시 녹음했던 발화음 중 평균값에 가까운 여학생의 발음을 사용한다.

과 파찰음이 평음:경음:격음의 3원 대립을 보이기 때문이다.

<표3> 파일음·파찰음의 음성구별실험(Discrimination task) 항목

항목	A	X
1	평음	평음
2	격음	격음
3	경음	경음
4	평음	격음
5	평음	경음
6	격음	경음

음성구별실험(Discrimination)은 총 48항목에 걸쳐 실시된다. 한국어의 폐쇄음이 발음 위치에 따라 3종류, 파찰음이 1종류이므로 6항목 x 4종류 = 24항목인데 이것을 2회 반복하여 총 48항목이 된다.

음성구별실험(Discrimination)에서 각 항목에 들어있는 두 음은 1,500milliseconds(ms)의 간격을 두고 항목 간에는 3,000ms의 간격을 두고 들을 수 있도록 한다.

나) 음성판별실험(Identification task: ABX)은 세 개의 음을 들려준 뒤 세 번째 들은 음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중에서 어느 것과 같은지를 맞추는 것이다. 폐쇄음과 파찰음이 평음:경음:격음의 3원 대립을 보이므로 <표4>과 같이 18개의 항목을 이룬다.

<표4> 파일음·파찰음의 음성판별실험(Identification task)의 항목

항목	A	B	X
1	평음	격음	평음
2	평음	격음	격음
3	평음	격음	경음
4	격음	평음	평음
5	격음	평음	격음
6	격음	평음	경음
7	평음	경음	평음
8	평음	경음	격음
9	평음	경음	경음
10	경음	평음	평음
11	경음	평음	격음
12	경음	평음	경음
13	격음	경음	평음
14	격음	경음	격음
15	격음	경음	경음
16	경음	격음	평음
17	경음	격음	격음
18	경음	격음	경음

음성판별실험(Identification task: ABX)은 총 144개 항목에 걸쳐 실시된다. 이는 <표4>의 18항목이 폐쇄음 3종류와 파찰음 1종류의 음성자료에 동일하게 나타나므로 총 72항목(18항목 x 4종류=72)이 이루어지고, 이것을 2번 반복해서 총 144개 항목이 된 것이다.

음성판별실험(Identification)의 항목에 나타나는 세 음은 각각 500ms의 간격을 두고 들을 수 있도록 하고 항목 간에는 3,000ms의 간격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한다.

(3) 실험 방법:

- 1) 음성구별실험(Discrimination task: AX-test)을 먼저 하고 다음으로 음성판별실험(Identification task ABX)을 실시한다.
- 2) Pre-test를 먼저 하고 다음으로 Post-test를 실시한다. Pre-test는 음성실험 시 발음했던 음을 실험 방식에 따라 편집하여 들려주고 이를 구별·판별하도록 하는 것이다. 평음-모음(피치 값 253.817), 경음+모음(279.19), 격음-모음(291.49)
Post-test는 Praat 프로그램을 이용해 음성변형을 실시한⁸⁾ 뒤 편집하여 이를 들려주고 구별·판별하도록 하였다. 평음, 경음, 격음 후행모음의 피치를 모두 동일하게 조작하였다. "평음+모음(피치 값 272), 경음+(272), 격음+(272)"⁹⁾
- 3) 30명 강의실에서, 컴퓨터의 미디어 플레이어로 활성화하여 스피커를 통해 들려주고 이에 대한 답을 적도록 하였다.

(4) 실험 결과:

- 1) Pre-test(음성변형 전) 결과
음성구별실험(AX-test)에 대한 결과는 모두 다 96% 이상 잘 구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답률: 100%-5명, 97.9%-2명, 96%-1명)
음성판별실험(ABX-test)의 결과는 모두 다 95% 이상 잘 구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답률: 100%-6명, 98.6%-2명, 97.2%-3명, 95.84%-1명)
- 2) Post-test(음성변형 후) 결과
음성구별실험(AX-test) 결과, 정답률 88%-1명, 86%-2명, 84%-3명, 82%-3명, 80%-3명으로, 평균 83.17%의 정답률을 나타냈다.

<표5> 음성구별실험(AX Discrimination task)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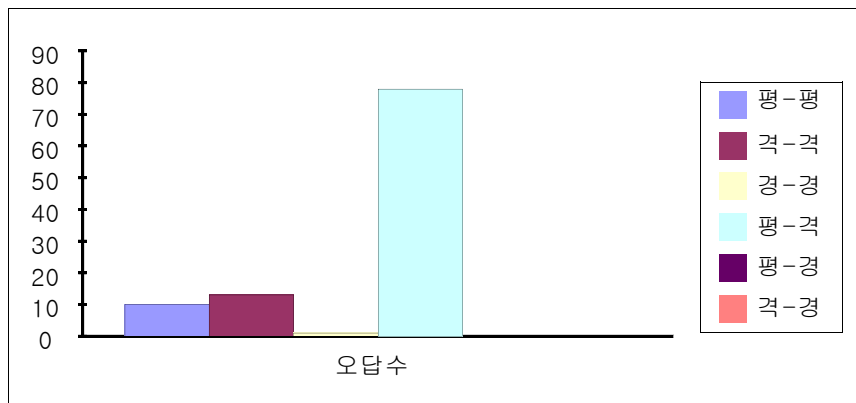
AX	평-평	격-격	경-경	평-격	평-경	격-경
오답수	10	13	1	78	0	0

7) 평음 후행모음 피치 값의 평균값을 나타냈을 뿐이고, 실제로 들려 준 것은 발화음 그대로이다.

8) 발화음에서 피치 값을 바꾸어 음성을 변형하는 방법은 양병곤 선생님의 홈페이지(<http://fonetiks.info/praat/>)를 통해 학습하였다.

9) 후행모음의 피치 값 272는 평음, 경음, 격음에 후행하는 모음의 평균으로 정한 것이다. 음성을 변형하는 과정에서 모두 정확히 272로 하기 어려워 270~272 정도로 정하였다.

<그림3> 음성구별실험(AX Discrimination task) 내용 그래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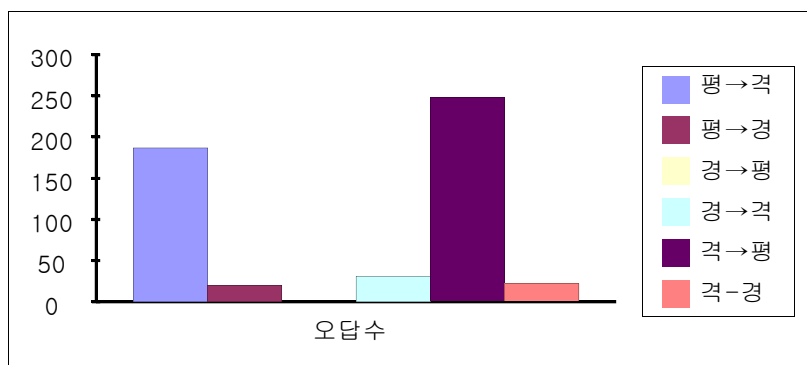
<표5>에서 보듯이, 오류 내용 '평-격'은 쌍으로 '평음-격음'을 듣고 D(difference)로 답해야 하나 S(similarity)로 답한 경우이다. 본 실험에서 가장 높은 오답률을 나타냈다. 그밖에도 '격음-격음'을 듣고 D로 답한 경우와 '평음-평음'을 듣고 D로 답한 경우가 나타났다. '평음-경음', '격음-경음', '경음-경음'을 들었을 때는 오답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판별실험(ABX Identification task) 결과, 정답률 76.4%-1명, 73.6%-1명, 72.2%-1명, 70.8%-4명, 69.5%-3명, 68.1%-1명, 65.3%-1명으로 정답률 80%를 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6> 음성판별실험(ABX Identification task) 내용

ABX	평→격	평→경	경→평	경→격	격→평	격→경
오답수	187	20	0	31	248	22

<그림4> 음성판별실험(ABX Identification task) 내용 그래프



<표6>에서 '평→격'은 세 번째 들은 음이 평음이라 앞의 평음 답해야 하는데 격음에 표시한 경우이다. <그림4>를 통해서도 확연히 나타나지만 격음을 평음으로 잘못 인지한 경우가 대단히 많고 평음을 격음으로 잘못 인지한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

음성판별실험의 18항목 중 평음 1개를 기준으로 묻는 항목이 6개 X 평음 4개(폐쇄음 3, 파찰음 1) X 2회(질문 반복) X 12명(피실험자 수) = 576항목이다. <표6>의 오답수를 가지고 항목별 오답

비율을 나타내면 <표7>과 같다.

<표7> ABX-test에서 평음, 경음, 각음에 따른 각 항목별 오답 비율

ABX	평→격	평→경	경→평	경→격	격→평	격→경
항목 중 오답 비율	32.46%	3.47%	0%	5.38	43.05%	3.82%

평음에 후행하는 모음의 피치 값을 반영한 뒤 판별하도록 한 경우, 평음은 32.46%가 각음으로, 각음은 약 43%로 절반에 근접한 경우가 평음으로 잘못 인지하였다. 음성변형 시 평음 후행모음의 피치 값을 253.81Hz→약 272Hz, 경음 후행모음을 279.19Hz→약 272Hz, 각음 후행모음을 291.49Hz→약 272Hz로 바꾸었다. 그 결과 평음과 각음을 크게 혼동하되, 각음을 평음으로 잘못 인지하는 확률이 더 크게 나타났다. 평음을 경음으로, 각음을 경음으로, 경음을 각음으로 잘못 인지하는 경우는 적게 나타났고, 경음을 평음으로 잘못 인지하는 경우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¹⁰⁾

5. 실험 결과에 대한 논의

본 발표에서는 음향음성실험을 통하여 한국어 폐쇄음과 파찰음을 평음, 경음, 각음으로 구분하고자 하였다.

본 발표의 발화실험에서 VOT 값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평음과 각음에 대한 경음이고 평음과 각음은 구분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외국인에게 한국어 발음교육을 하다 보면 한국어의 평음과 각음의 구분이 인지나 발화에서 다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본 발표에서 분석한 피치 값으로는 경음과 각음에 대한 평음이 구분된다.

그런데 음향음성학적인 면에서 피치는 자음의 특성이 아니라 모음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지만 폐쇄음과 파찰음에서 모두 후행모음의 피치에 일정한 차이를 보인다면 이는 평음, 경음, 각음이 후행모음에 각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구분하는 중요한 지각 단서로 피치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본 발표에서 발화음의 피치를 평음, 경음, 각음 모두 동일하게 반영하여 인지실험을 하고자 한 은, 첫째, 평음, 경음, 각음을 구분하는 지각 단서로 피치를 들 수 있는지 검증하기 위함이고, 둘째, 인지와 발화의 비대칭성이 있기 때문이다. 인지실험 결과, 피치를 동일하게 반영시키자 AX-test와 ABX-test에서 각음을 평음으로 잘못 인지하는 여가 가장 많았고, 평음을 각음으로 잘못 인지하는 예도 많이 나타났다.

결국 후행모음의 피치는 평음과 각음을 구분시켜 주는 중요한 지각 단서가 된다. 따라서 외국인에게 한국어 평음과 각음을 구분하여 교육할 때 피치를 이용하면 효율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10) 이 경우, 평균에 해당하는 후행모음의 피치 값 272Hz은 경음+후행모음의 피치 값 291.Hz과 가장 유사하다. 따라서 경음을 구별하거나 판별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이었을 것이다.

<참고문헌>

- 장석환(2006), 발화-인지실험 음성학 논문집 I, 한국학술정보(주).
- 박진원(2001), 한·중 이성화자의 한국어 발음의 실현음성학적 대조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병곤(2003), 프라트(Praat)를 이용한 음성분석의 이론과 실제, 만수출판사.
- 이경희·정명숙(2000), 한국어 파열음의 음향적 특성과 지각 단서, 음성과학, 7-2, pp.139-155.
- 장우혁(2008), The Influence of L1 Phonological Representations on the L2 Acquisition of Korean Stops, 인문학지년5, 단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8 한-몽 국제학술회의 발표 요지) 101~115쪽.
- 장우혁·김진봉(2009), 중국어 화자가 발음한 한국어 파열음의 음향적 특성, 언어연구 26-3, 경희대학교 언어연구소.
- Kim, C.-W. (1965). On the autonomy of the tensivity feature in stop classification (with special reference to Korean stops), *Word* 21, 339-359.
- Ray D. Kent · Charles Read (2002), *Acoustic Analysis of Speech*, 2/E, Thomson Learning. (장석환 옮김 (2007), 박학사.)
- Ray D. Kent · Charles Read(2002), *Acoustics Analysis of Speech*, 2/E, Thomson(장석환(2007) 옮김, 음성음향분석론, 박학사).
- Silva(2006), Acoustic evidence for the emergence of tonal contrast in contemporary korean, *Phonology* 23, 287-308.
- Silva, D. J. Choi, Y.-J., and J. E. Kim (2004), "Diachronic shift in VOT values for Korean stop consonants" in *Havard studies in Korean linguistics X.S*, edited by Kuno et al., (Harvard University, Department of Linguistics, Cambridge, MA) pp. 173-185.

근대계몽기 교육학과 어문 교육

히재영(단국대학교 교양학부)

1. 머리말

우리나라에서 근대계몽기는 대체로 1880년대부터 1910년대를 일컫는 용어로 사용된다. 개항 이후 갑오개혁, 통감시대를 거치며 급변해 온 이 시기에 형성된 주요 사상 가운데 하나는 '교육입국론'이다. 이른바 근대계몽기 초기에는 '문명개화'를 위한 교육입국이 필요하며, 통감시대에는 '자주독립'을 위한 교육입국이 절실히 주창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의 신문인 《한성순보》, 《한성주보》를 비롯하여 《독립신문》, 《협성회보》, 《비밀신문》, 《제국신문》, 《반세보》,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등의 언론 매체에서는 '교육'과 관련된 글을 실지 않은 적이 없으며, 1900년대 결성된 각종 학회나 연구회에서도 교육 관련 논문이나 논설은 빠진 적이 없다.

그러나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것과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적어도 교육을 학문적인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고, 그에 따라 교과목의 하나로 운영하는 일은 체계적인 교육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학문이란 경합이 체계화되어 이론과 법칙을 정립하는 과정이며, 그와 같은 이론과 법칙이 현실에 적용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근대계몽기 교육학과 교과목의 상관성을 연구하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근대계몽기 교육학이 어문 교육에 미친 영향을 탐구하는 데 있다. 이 시기 어문 교육은 1895년 근대식 학제 도입으로부터 본격화된다. 1895년 '소학교령'에 따른 '소학교 교칙대강'에서는 교과목으로 '수선, 독서, 작문, 습자, 산술, 체조'를 설정하였는데(심상과) 이때 설정된 '독서, 작문, 습자'는 상각상 국어 교과목으로 분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과목이 설정되었다고 국어과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교과목의 목표나 교육 내용의 선정과 조직, 교수·학습 방법, 평가의 원리 등이 체계화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체계를 반영하는 것이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기 저음 개발된 교과서는 학부에서 편찬한 『국민소학독본』이었으므로, 개별 교과에 해당하는 교과서 개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교육 내용의 선정과 조직, 교수·학습 방법, 평가의 원리가 구현될 수도 없었다.

그러나 1900년대에 이르러서는 교과명이나 교과서 개발이 이전 시대보다 좀 더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으며, 교수·학습과 평가의 원리도 점차 개선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개선은 통감시대 일본인들의 학정 감식이나 교육학 지식의 일본 의존도를 고려할 때 내재적인 한계를 보이기도 한다. 그렇지만 근대식 학제 도입 이후 사범 교육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사범학교에 설정된 '교육' 교과목(1895년 한성사범학교 교칙)은 다른 교과목의 발전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근대계몽기 교과학의 등장 이후(대략 1905년 이후로 추정할 수 있음)에 쓰인 각종 학회보에 실린 교육학 관련 논설 및 유육검(1908)의 『간명교육학』(우문판), 학부 편찬(1910)의 『보통교육학』(학부)을 대상으로 이 시기 교과학과 어문 교육의 관련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2. 근대계몽기 교육학의 위상

2.1. 근대계몽기의 교과학과 교육학

교과(敎科)란 “학교에서 교육의 목적에 맞게 가르쳐야 할 내용을 체계적으로 짜 놓은 일정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학과(學科)’가 있는데, 이 용어는 학문 연구 분야를 고려한 용어라고 할 수 있지만 내부분 교과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근대계몽기 교육학의 위상은 교과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왜냐하면 교육학이 교육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과 법칙을 규명하는 학문이라고 할 때 교육 현상의 기본은 학교 제도와 교과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근대계몽기의 각종 교육 관련 논문은 학교 교육을 전제로 교육의 목적, 학제, 교수 및 교과 관련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허제영(2006)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이 시기 학회보에 실린 교육 관련 논문은 약 130편이며, 그 가운데 논문 형태로 쓰인 것이 40편이다. 이 40편의 논문을 분석하면 ‘교육 목적 및 일반론’과 관련된 것이 20편, 교육 정책이나 학제와 관련된 것이 12편, 교육학의 본질과 관련된 것이 6편, 교수 및 교과와 관련된 것이 4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각각의 논문은 분량이나 내용 면에서 다소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양적으로서는 교육의 목적을 확인하고 학제를 정립하며, 그 과정에서 교과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유근·익술(1906)¹⁾, 장용진(1907), 서북학회원보(1909) 등은 교과 개념 정립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논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단순히 교과의 개념이나 필요성만을 역설한 것이 아니라 교과의 성격과 간재를 체계화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근대계몽기 교과 관련 논문의 주요 내용]

필자	내용
유근	五. 敎科의 種類 敎科라는 者는 敎授原理와 其形式을 表하야며 人心을 開發의 具라. 今에 其種類를 析하야 縷述호노라. 昔希臘의 敎科는 體操와 音樂을 專重호고 柏拉圖의 定(共和國)호 敎科는 始로 數學 幾何學 天文學 物理學(即格致學)으로써 加호고 阿里士士德은 一大學校를 立하야 更히 哲學 美術로써 加호고 中世에 凡七科를 分호니 曰拉文法이오 曰倫理學(即名學)이오 曰修辭學이오 曰數學이오 曰幾何學이오 曰天文學이오 曰音樂이라 호고 近世에 至하야 倍根이 出함이 自然科學이 發然히 繁興호니 倫理 語學 作文 地理 歷史 數學 物理學 化學 動物學 植物學 習字 圖畫 體操 手工 音樂 諸科가 有호니 此는 歐州 敎科變遷의 大概라.(중략) 故로 今日에 맛당히 敎科라 承認호 者는 倫理 語學 作文 地理 歷史 數學 物理學 化學 動物學 植物學 習字 圖畫 體操 手工 音樂 諸科니라. 但 此等 敎科로써 普通教育을 삼는 者는 必 高等專門의 知識이 有함이 아니라 惟 團體 自治의 品性を 養호야 호여금 一 公民이 되야며 個人的 義務를 盡호 뿐이니(하략)
장용진	(전략)敎授上에 最必要호거슨 其時代精神에 最適合호 敎科材料를 精選호며 在호지라 萬一 智識의 多量을 注入호므로써 爲主호야 心的陶冶를 不顧호고 다못 雜多호 材料를 機械的으로 蓄積호면 其人的 人格을 高尚케 못호뿐만 아니라 習得호 知識도 活用기 無路호야 敎授의 本意가 無效에 歸호리니 然則 心的 修鍊을 또호 輕視치 못호거시라.(중략)然則 普通教育을 施호는데 敎科는 如何호 標準을 因호고호면 第一 敎科는 國民開化의 全範圍를 包含호 總要素를 撰擇호거시오 敎授의 材料는 國民開化의 生活의 全範圍에서 撰擇치아니호면 現在를 正當히 理解기 不能호고 敎授의 目的을 達기 不能호리니 此等要素는 大概 今日所謂科學과 技術에 包括호를 得호깃스니 此等科學技術도 學校에서 直接으로 敎授호는 敎科와 直接으로 敎授기 不能호야 各自自由로 習得호는 科目이 不無호니 概言호면 敎科는 各國이 當時의 狀況을 顧

1) 유근(1906)의 ‘교육학 원리’는 이 시기 교육학 관련 논문을 참조하여 편술한 논문이다. 이 논문은『대한자강회월보』제6호로부터 제12호까지 연재되었는데 분량 면을 고려할 때 이 시기 다른 교육학 저서에 버금가는 많은 양으로 이루어져 있다.

	察하야 取舍撰擇하는 거시오 또 教科는 開化의 全般을 包括치 아니치 못할거신則 科學도 또한 心的科學과 物的科學이 適宜히 調和하야 統一한 世界觀을 得게 하는거시 必要하도다 然이느 各國의 狀況이 各異하야 教科撰擇의 方法이 亦不一하되 大概主要한 科目을 次第로 學論하면 左와 如하니라.(하락)
서북학회	現今 我國 教育情況이 稍稍 興期한다 云하나 地方 各校의 內容을 觀察하건디 不完全 不規則의 欠點이 居多하리라. 此를 改良 進步케 함이 實是急務인 故로 茲에 先進國에서 制定한 中學校 課程表를 參攷 譯載하야 一般 教育家의 模範될 材料를 供憲하노라.(하락)

이 표에 나타난 것처럼 이 시기 교육학은 교과에 대한 제인식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전통적인 교육과는 달리 교과의 개념이 명료해짐으로써 교육의 목적과 본질을 구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이러한 경향은 이 시기의 교육학 지서²⁾에서도 확인된다. 이 시기 교육학 지서로는 유옥검(1908), 장지연(1908)³⁾, 김상인(1909)⁴⁾, 학부 편찬(1910)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유옥검(1908)과 학부 편찬(1910)의 교과 개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학 지서에 나타난 교과의 개념]

저자	내용																
유옥검	教授를 行코져 學진디 必其 材料 卽 教材가 有하야 可하니 然則 如何한 教材를 選擇함이 可할가 云하건디 先次 教科의 分類를 就看하리라. 然而 此方法을 人을 隨하야 相異하고 又 歷史的 變遷이 多大한 故로 頗히 複雜하리라 今에 最히 簡明 適宜하다 思惟하는 者를 取舉하노니 卽 崙山 氏의 法이라 此를 圖示한 後에 說明코져 하노라. <table><tr><td></td><td>人的</td><td>人的 兼 物的</td><td>物的</td></tr><tr><td>一 基本的 教科(實質的 形式的)</td><td>宗教</td><td>哲學</td><td>數學</td></tr><tr><td>教授의 材料 二 副貳의 教科(實質的)</td><td>歷史</td><td>地理 雜識</td><td>理科</td></tr><tr><td>三 技能(形式的)</td><td>音樂</td><td>圖畫</td><td>手工 體操</td></tr></table> 基本的 教科라 함은 諸科學習의 基本되는 教科를 云함이오 副貳의 教科라 함은 人的 或 物的의 材料에 因하야 吾人의 思想界를 豐富케 하는 學科를 云함이니라. 然則 又 其 人的 物的 及 人的兼物的이라 稱함은 何를 標準함인가. 云하건디 凡 吾人의 教材는 人類界와 自然界로부터 供給하느니 其 人類 相互의 關係로부터 生하는 事項, 人類가 社會를 構成함에 對하야 可爲할 事項 及 人類가 理性이 有하야 生物됨으로 因하야 作爲한 事項은 卽 人類界로부터 來하는 材料니 此를 人的 教科라 稱하고 其 自然의 現象 及 其 基因하는 理法은 卽 自然界에서 供給하는 知識인 故로 物的이라 稱하며 人的及物的은 卽 人類界 及 自然界의 知識을 并具한 者를 語함이라.		人的	人的 兼 物的	物的	一 基本的 教科(實質的 形式的)	宗教	哲學	數學	教授의 材料 二 副貳의 教科(實質的)	歷史	地理 雜識	理科	三 技能(形式的)	音樂	圖畫	手工 體操
	人的	人的 兼 物的	物的														
一 基本的 教科(實質的 形式的)	宗教	哲學	數學														
教授의 材料 二 副貳의 教科(實質的)	歷史	地理 雜識	理科														
三 技能(形式的)	音樂	圖畫	手工 體操														
학부	普通學校에서 教授할 事項을 教授의 材料 又는 略하야 教材라 하며 此를 各其 性質에 從하야 各科에 彙類한 것을 教科目이라 하나니 普通學校令 第六條에 依하건디 普通學校에서 學徒에게 學習게 할 教科目은 修身, 國語及漢文, 日語, 算術, 地理, 歷史, 理科, 圖畫, 體操(女兒에게는 手藝를 加함) 等으로 하야 此를 必修科目으로 하얏고 又 時宜를 因하야 唱歌, 手工, 農業, 商業의 一科目 又는 數科目을 加함도 得한다 하얏시니 此는 隨意科目이라 云하느니라. (하락)																

- 2) 근대계몽기 처음 등장하는 교육학 서적은 일본인인 기무라(木村知治, 1896)의 『신찬교육학(新撰教育學)』으로 보인다. 이 책은 당시의 서적 광고에 자주 등장하는데,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이정찬 씨가 일본 중앙도서관 소장본의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필자인 기무라는 일본 효고현(兵庫縣) 거주자로 당시 조선에 체류 중이었다. 윤치호의 제자(題字)가 들어 있으며 한문에 한글 토를 부가한 책이다.
- 3) 이 책은 이 시기 광고에는 등장하나 실물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 소장처나 소장자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 4) 이 책은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데, 학자들에 의해 구체적인 분석이 이루어진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교육학 지서에 나타난 교과 개념은 ‘가르치야 한 사항, 곧 교수 재료를 조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오늘날의 교과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 또한 교과학이 정립됨에 따라 필요에 맞게 교육 내용의 선정과 조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특히 교과 설정에서 ‘기본적 교과: 무이적 교과: 기능적 교과’ 또는 ‘필수 교과: 주의 교과’의 구분이 이루어짐으로써 학교 교육의 체계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2.2. 교육학의 성격과 학문적인 위상 논의

근대제통기 교육 관련 논의는 학문적인 차원보다는 ‘교육 입국’이라는 관념적인 차원이나 시급한 교육 보급의 필요성에 부합하는 면이 많았다. 그러나 유근(1906)이나 유옥검(1908)의 논의는 이 시기 교육학 연구가 학문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을 보여준다.

먼저 유근(1906)의 ‘교육학 원리’는 교육의 목적과 방법에 관한 논의를 하기 전에 학문으로서의 교육학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서술하고 있다.

[총론]

敎育學이란 者는 何科學인고. 蓋今東西에 敎育의 事實 研究호야 其系統은 繹호야 組織호 者니 其性質이 雜駁호 故로 曰 自然科學(自然의 狀態를 研究호는 者를 自然科學이라 謂호니 倫理學, 心理學 等이 是라.)을 可히 原理의 下에 括호만 不如호지라. (중략)

敎育의 目的과 方法은 明호지 惑진디 必四種의 科學호써 補助호지니 卽 倫理學 社會學(二者는 其 目的을 示호이라) 心理學 生理學(二者는 其 方法을 示호이라)이 是라. 古來로 敎育學을 組織호는 者 卽 黑梯榜을 從호야 倫理學호로 目的을 삼호며 心理學호호써 方法을 삼고 社會學과 生理學을 借호지 아니호는 故로 尙 殘缺不全호야 美善의 域에 不造호니라.

敎育學이 此四種의 科學을 從호야 其目的과 方法을 明호 호 後에 健全호 敎育의 原理을 可定호지니 此는 卽 洛尖荷來의 訓호 마 醫學에 類호야 一種 規範科學을 成호다 호이니 特히 事實을 說明호 뿐 不是호 其 標準을 探求호야써 其餘를 例호이라. 故로 敎育學의 原理가 有二호니

(一) 敎育의 目的 及 其 所以 成立호는 原理호

(二) 其 目的 實行의 方法 及 其 形式의 原理라 約言호 則

敎育學이란 者는 敎育의 目的과 其 方法을 研究호는 科學이니 必 倫理學과 心理學과 社會學과 生理學을 次호는니 補助上호로 言호 則 可히 混合科學이라 謂호지오 性質上호로 言호 則 規範科學이라 謂호지니라 柳瑾(1906), 敎育學原理, 『大韓日報會報』第6號.

유근(1906)은 교육학이 ‘교육과 관련된 현상을 연구하는 것으로 그 체통을 연역하여 조직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윤리학, 사회학, 심리학, 생리학의 혼합과학이라고 규정하였다. 비록 자연과학이라는 명칭이 적절히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 논문에서는 교육학의 원리로 ‘교육 목적과 성립 원리’와 ‘목적 실행의 방법과 형식의 원리’ 두 가지가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유옥검(1908)에서는 ‘학’과 ‘술’에 대한 좀 더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이 지서에서는 교육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5) 교육학을 혼합과학이라고 한 것은 오늘날 ‘종합과학’이라고 보는 관점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혼합은 단순히 합친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데, 종합과학은 여러 학문이 내적 질서를 유지하며 통합된다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교육의 학과 술]

(진약) 大科學이란 者는 凡 吾人 知識의 對象되는 者 卽 現象에 關한 吾人의 知識을 明瞭 統一하여 體系가 有케 하는 者나 略言하면 普遍 貫徹한 吾人의 知識이라. 然함으로 吾人의 知識은 二에 分하여 一은 經驗的 知識이라 하고 一은 科學的 知識이라云는나 前者는 吾人의 或種의 事를 遭遇하여 生하는 斷片的 知識이오 廣大히 事物을 觀察하고 精密히 研究하여 得하는 知識이 아니니 要言하면 不精密 不正確한 非 十分 信憑치 못할 知識이오 後者는 科學을 組織하는 學理라. 故로 科學的 知識을 成立하는 條件은 略舉한 則 第一 概括한 知識원을 要하고 第二 體系가 有한 知識원을 要하고 第三 確實한 知識원을 要함이니 斯 三個의 性質이 具備한 然後에야 眞實한 科學的 知識이라 謂할지니라.

然則 教育學은 果然 科學을 成立할 諸 條件은 具備한가. 從來 諸 學者의 科學이 아니라 認함은 大概 教育은 實際 教育을 施하는 術에 不啻하는 者라云함이니 此는 後에 詳陳할 마이며 又 教育學의 成立원이 其 中의 倫理學을 資하고 方法은 心理學에 基하기는 此 兩 科學이 皆 幼稚를 不免하다 함에 由함이라. (중략) 然한 中 教育의 原理 原則은 論究함은 何國 何時代를 勿論하고 同一하여 一般의이라 可謂할지로부터 其 內容上 中의 又 方法은 取하여 一國의 教育學은 作成코지 하는 點는 今F에는 到底히 不可能의 事에 屬한 者라 謂할지니라. 如右히 教育學이 非獨 一般의 價値를 有케 하기는 不能하다 既已 一種 科學을 成立한 者인 中 科學 分類 中 何에 屬할가 할건대 大凡 科學은 種種의 觀察點을 因하여 分類함이 不一한 지라. 第一 研究의 對象으로고더 精神科學 自然科學에 分하고 第二 研究의 方法에 因하여 說明的 科學 規範的 科學에 分하고 第三 他 關係로고더 純正科學 應用科學에 分하는나 此 分類 方法에 依한 則 教育學은 精神科學 規範的 科學, 又 應用科學에 屬하리라.

右에 敎育의 學은 概陳한 故로 更히 敎育에 當한 術에 論及코지 할노니 凡 術은 實行에 關한 事를 謂함이니 詳言하면 實行 中 複雜 困難함은 不拘하고 此를 達하는 特別의 知識과 鍊熟이라. 是以로 如何한 科學을 勿論하고 恆常 術을 要하는나 凡 學理는 一般을 規定한 者오 一히 特別의 境遇에 適合케 하는 者가 아니니 實際에는 恆常 變化가 出하여 然히 理論으로는 到底히 良好한 結果를 可收치 못하고 其必 實際家의 臨機應變하는 善 手段을 要하며 又 其 手段은 眞正한 科學的 知識을 必用하여 完全함은 可得함이라. 是以로 學과 術의 關係는 極히 親密하여 學은 術을 因하여 始行하고 術은 學을 因하여 成功함을 可知할지니라. (하략) 유옥검(1908), 제5장 '敎育의 學 及 術', 「簡明敎育學」(石文館)

이 지서에서는 '과학'의 정격을 규정하고, 교육학을 '정신과학, 규범적 과학, 응용과학'이라고 규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반적 지식을 '학'과 '술'로 나누어 학리적인 지식과 기술적인 지식을 구분하고, 교육학의 가치가 학리를 규명하여 기술적으로 응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유옥검(1908)에서는 교육학이 인접 학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상세히 설명한 바 있는데 그 가운데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교육학과 다른 과학의 관계]

敎育學이 科學으로 成立함을 得하나 恆常 他 科學에서 既決한 知識은 參據 利用함이 多한 故로 茲에 其 關係가 有한 諸 科學에 就하여 論述하노니 蓋 人類는 孤立하여 生活하는 者가 아니오 恆常 社會를 團結하는 者라. 然한 中 人類를 養成하는 敎育에 至하여 만다시 個人과 社會의 兩 方面으로고더 觀察하여 敎育과 社會의 間에 如何한 關係가 存在함을 定한 後에 敎育의 立脚地가 堅固할지라. 故로 敎育學은 研究함에 當하여 社會를 對象이라 하는 科學이 重要한 則 社會學을 研究함이 可하며 又 敎育學은 非獨 倫理學

- 6) 학문적 차원에서 교육을 연구하고자 하는 태도는 기무라(1896)에서도 나타난다. 이 책의 총론에서는 “今夫當敎育之任者 先可以辨學與術之二端也니 二者는 猶車之有兩輪乎인저 有學而無術하고 有術而無學이면 則不可行이니 是故로 欲施敎育之術者 不可不修其學이라 學能修之면 術亦得達焉이니 所謂學者는 敎育之理요 術者는 敎育之法也니라.”라고 하여 학은 교육의 이치를 말하며 술은 교육의 방법을 말한다고 하였다.

及 心理學의 集合 科學은 아니나 敎育의 目的은 論議에는 人生의 目的은 論議는 倫理學을 涉한 則 其 要點은 難得할지오, 敎育의 方法은 論議에는 人의 心意生活의 規則은 論議는 科學 即 心理學의 指助를 不得할면 研究의 眞確함은 難得할지라. 是以로 敎育學은 社會學, 倫理學, 心理學으로써 最 必要한 補助科學은 作함은 明白한 者라. 然후나 敎育의 完全함은 得함은 勿히 將次 發育정리 하는 幼年의 精神뿐 아니오 亦 其 身體에 及하여 心身은 其 皆 發育에 함에 在한 且 生理 發達의 次第를 研究하는 生理學도 研究하여 其 知識은 藉함이 可하며 又 心身이 相離함이 不可한 關係로되니 心理學의 研究를 爲하든지 抑 且 生理學의 研究를 爲하든지 其 必 身體狀態의 惡值向은 豫防하는 衛生學의 知識이 必要하며 此外에 又 歷史學 論理學 審美學도 敎育學에 大한 關係가 有하여 敎育의 事業은 補助함이 不少하며 且 行政學은 敎育管理의 上에 關係함이 非常한지라. 今에 其 關係의 最 重要한 點을 略히 舉示하노라.(하락) 유옥검(1908), 제6정 敎育學과 他科學의 關係, 『簡明敎育學』(右文館)

이 글에 나타난 것처럼 유옥검은 교육학 연구를 위해 사회학, 윤리학, 심리학, 생리학, 위생학, 역사학, 논리학, 심미학 등의 제반 과학이 모두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이는 유근의 혼합과학이라는 개념보다 좀 더 진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각 학문이 교육학의 어떤 면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명시하여 단순 혼합이 아닌 종합과학으로서의 교육학이 갖는 가치를 높이하고자 한 점은 근대 교육학이 현대 교육학의 토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근대계몽기에 이르러 교육 현상을 학리적인 면과 기술적인 면으로 나누어 체계화하고자 한 시도는 교육의 목적과 원리, 교육 내용의 선정과 조직, 교수법 등이 체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특히 교육학을 ‘혼합과학’ 또는 ‘규범과학’, ‘응용과학’으로 규정하고 윤리학, 사회학, 심리학, 생리학 등의 제반 과학과 긴밀한 관계에 있음을 밝히고자 한 노력은 교육학뿐만 아니라 제반 교과교육의 목적과 교수법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3. 교육학과 어문 교육

3.1. 어문 교과의 성격

근대계몽기 교육학의 체계화는 어문 교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는 1895년 ‘독서, 작문, 습자’ 시대와는 달리 교과학이 발달한 이후 어문 교과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유근, 장웅진, 서북학회, 유옥검 등에서 논의한 어문 교과의 개념을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근대계몽기 언어 교과의 개념과 성격]⁷⁾

	교과목	내용
유근 (1906)	어학	語學이란 者는 本國語와 外國語를 不論하고 其要가 知識을 交換한 媒介로 品性을 陶冶한 資料라 其敎科中에 在하여 殆히 倫理로 더부러 均히 各科의 基礎가 되느니 注意함이 最宜하니라
	작문	作文은 卽 己의 思想을 表하고 或 人의 意志를 解하여 操守를 培養하여 他日에 出世餘地를 삼나니 蓋語學의 受動한 者 發하여 能動한 者 됨으로써 此科를 敎授함이 맛당히 語學으로 더부러 表面相應할지니라
	도화 습자	習字와 圖畫는 手眼의 知覺을 練習하여 筋肉으로 하여금 自由로써 實用을 供하여 審美의 興味를 得게 할 바 者니 其學校 敎科中에 在하여는 비록 附屬科가 되나 其敎育에 價值는 固히 甚卑치 아니하니 感化篇(卽 情育篇) 美育一節에 見하니라
장웅진 (1907)	언어과(국어)	言語修養과 心的陶冶는 密接한 關係를 有한 거시니 普通敎育上에 言語의 修養은 最必要한 거시라 吾人은 言語로써 意思表示와 思想發展의 重要한 手段으로만 用할 뿐이 아니라 此로 由하여 人類發

7) 이 표는 허재영(2010: 역락출판사. 8월 말 출간 예정)에 수록된 것과 동일함.

	급 외국어)	展의 經路와 國民開化에 多大의 影響을 及한 許多의 記錄을 理解키 能하나니 故로 上古로부터 教育 設備上에 最初에는 言語를 教授하야 書冊을 讀케하고 또 此義意를 理解함으로써 重要한 科目을 삼았스니 此는 必竟 此等學習으로써 時代國民의 心的生活을 保有케하고 또 普通教育의 基礎를 作함에 由함이라 今日普通教育을 施하는 學校에서 程度의 如何를 不問하고 一般 自國語로 중심을 삼는 거슨 세계 각국이 일반이라 古昔人道主義가 復興할 時代에는 古語를 研究하야 古人의 遺書를 利害함으로써 惟務하고 外國語를 自國語보다 多리히 尊重히 한 弊端이 有하엿스나(我國의 從來教育이 我國國文은 卑賤하다 하야 排斥不用하고 漢文만 典尙하엿스며 漢文에도 또 古篆字와 窮僻한 文字들을 多數探究하야 古書를 多解함으로써 學識의 尊卑를 比較함과 如함) 此等謬見은 過去時代에 已屬하고 各國이다] 그 自國語로써 教育의 中心을 삼나니 此는 卽國民으로 하여금 各自의 義務를 盡케코저하면 일즉히 國家名義에 同情을 表하야 愛國의 情을 喚起케할 거시오 또 國語는 其國民의 思想感情을 表出하는 거시며 同胞를 結合함에 最有力한 方便이라 如此히 國民學校程度에서는 다른 自國語로써 國民現時의 狀況을 了解함으로써 滿足할거시나 萬一層을 更進하야 此研究理解의 力을 深遠케코저하면 其由來의 沿革을 明察하고 他國의 開化를 比較하며 他國民의 思想感情을 探究할 必要가 有하도다 然則 國民學校以上程度되는 學校에서 國語를 課하며 外國語를 課하는 거슨 不得已한 理勢라 特히 他國의 文化를 受入하야며 自國의 發展을 供給하는 國에서는 一層 그 必要를 見하나니 故로 現時에는 何國을 勿論하고 中學程度以上되는 學校에서는 自國과 最密接한 關係가 有한 一二個外國語를 課케오고 此와 同時에 自國文學을 一層 더 研究하야 自國文學의 眞髓를 翫味하며 特質과 妙味를 感得케하야 演說과 文章上에 精巧를 極하게 務圖하는 거시라
서북학회 (1909)	국한문부 작문습자	最初에는 國語와 漢文에 區別이 無하다가 漸進히 後에 各異한 教科書로 教하며 授業時間은 第一二三年級에는 每週 講讀 五時間 文法 作文 一時間 習字 一時間 都合 七時間인데 其材料는 現代 著述家の 平易한 記事 敘事文 演說 談話書 讀及 新體詩 等(中略)이오 第四學年級에는 古文 史記 蒙求 論語의 一端 國文學史 等を 教授호디 時間은 五年級 第二學期까지는 每週 講讀이 五時間이며 全第三學期는 每週 三時間式 教授하야 卒業케 하느니라
유옥검 (1908)	기본적 교과	此科는 他科의 學習하는 基本되는 者인 故로 古로부터 今에 至하기 凡 如何한 處든지 學校에서 教授치 아니함이 無하며 又實質的 形式的 兩方面의 價値를 具有한 者라. 我國 現時의 敎則規에 定한 科目으로 言한 則 修身, 國語, 外國語, 數學 等이 是에 屬하니 蓋 何時 何處를 勿論하고 讀書算 三者는 恆常 他 教材의 增減을 不拘하고 採用치 아니한 者가 曾有치 아니하니 是는 何를 學하든지 반드시 國語의 媒介와 數의 觀念을 藉할 뿐더러 言語 文章의 現하는 思想과 數題의 示한 事物에 因하야 實質的으로 知識을 擴大하는 同時에 又 正確히 思想을 發表하며 整頓하는 形式的 效果가 巨大하며 且 日常의 生活上에도 亦 極必要하니라. 就中 讀書는 吾人 人類는 歷史의 人間인 則 過去의 文物을 承繼하야 現在에 發達하고 未來에 傳授하는 功效가 有한지라. 是以로 國語 數學은 初等의 學校로부터 高等學校에 至하기 皆 緊要한 者오 外國語는 外國 又 世界上的 諸種 事物을 學하는 基本이오 又 外國人의 交際 及 世界의 生活을 營爲하는 方便이 되는 者이나 初等 教授에는 直觀法을 務行하며 又 現時代는 國民生活의 時代인 則 國語는 國家獨立을 保維하는 精神이 存在한 者어늘 幼稚에게 外國語를 教授할진디 自國語도 未解하는 者에게 向하야 外國語를 理解하게 함은 實로 不可能의 事오 又 或 愛國精神을 減損할 虞慮가 有한 則 初等教育에는 用하기 不可하며 …(하략)

이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 시기 교과명은 통일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이전의 ‘독서’, ‘작문’, ‘습자’라는 명칭이 학습 활동을 고려한 명칭이었던 데 비해, ‘어학’, ‘언어과’, ‘국한문과’와 같은 명칭은 학습 활동을 떠나 교육 목표와 자료 등을 반영한 교과목명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유근(1906)에서는 어학 교과가 ‘지식 교화의 매개’, 또는 ‘품성 도야’를 하는 학과로 인식되었다는 점에서 ‘도구 교과’의 성격과 ‘정서 수양의 성격’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유근(1906)에서는 ‘습자’를 ‘도화’와 함께 심미적 교과로 다루었으므로 글씨쓰기가 작문의 범주보다는 미술과의 한 영역으로 다루어질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⁸⁾. 또한 장웅진(1907)에서는 어학 교과의 특징

8) 근대계몽기 이후 일제강점기, 미군정기를 거치면서 습자는 심미적 교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습자의 주요 내용이 한자, 일본어, 한글의 글꼴과 글씨쓰기인 점을 고려하면 이 교과도 국어과와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을 ‘심적도야’와 ‘의사표시’, ‘사상발전’이라는 말로 표현되었다. 서북학회(1909)의 논의는 외국의 학계를 소개한 것이므로, 그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찾는 것은 무의미하나, 국어와 한문 교과에 ‘강독’, ‘문법’, ‘작문’, ‘습자’가 함께 들어 있다는 점에서 국어교과의 활동 내역을 짐작하게 한다. 또한 유옥검(1908)에서는 ‘국어’와 ‘외국어’ 교과가 기본적인 교과임을 천명함으로써 기초 교과 또는 도구 교과로서의 기능을 명시하고 있다.

어문 교과를 기초 교과로 인식한 것은 교과의 개념 정립 과정에서 교육학의 체계적인 지식이 정립되어 갔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교육의 목적과 내용, 방법을 체계화한 교육학 이론은 보통 교육과 전문 교육에 설정되어야 할 교과를 구분하게 하고, 보통교육에서도 기초 교과(도구 교과)와 전문 교과를 나누어 위계화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3.2. 어문 교수법

근대계몽기 교육학의 도입 과정에서 교수 이론의 도입은 전근대적 교육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었다. 교수법에 관한 대표적인 논의는 유근(1906), 유옥검(1908) 등의 교육학 이론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나타난다.

먼저 유근(1906)의 교수법은 ‘교수의 형식’에서 자세히 소개되었다. 이 부분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교수의 형식]

古來로 教授의 法이 千差萬別호야 悉數를 終키 難호나 權호야 分킨디 一則 曰 注入主義니 其 各種 事物 노때 兒童의 腦中에 灌輸호야 永矢호야 入게 호는 者호 一則 曰 開發主義니 其 各種 事物 노때 其 自然 發達의 心意를 開發호야 觸類旁通케 호는 者라. 注入主義는 固히 學호야 鍛鍊을 專重히 하고 開發主義는 興味가 淋漓(임디)호는 專重함이니 表面으로부터 觀호면 二者가 相輔호야 行함과 如히 偏廢키 不可하나 然 하나 心理學上에 徹호 則 開發主義는 有益호 無損호지오 注入主義는 有益호 亦 有損호지니 開發主義는 實로 近代教育의 中에 上의 教育으로 더부러 特異한 點이나라.

開發의 法이 有二호니 一則 既有에 觀念界를 分解함이니 教育의 目的을 依호야 其 察을 得호고 其 節에 就호는 名學 中 訓詁 마 分解 教授法과 獨호이오 一則 新觀念을 舊觀念界에 擴加함이니 其 類를 充호고 其 盡을 至호야 尋通(순통)케 호는 名學 中에 訓詁 마 總合의 教授法과 獨호이라. 此 二法은 科學으로 研究호는 者의 必需호 必 되니 教育에 施호면 固히 此 人의 心性을 開發케 호미 純粹(자자)호지니라.

若 大 教授法의 階級이 適當에 二段은 分호니 曰 豫備니 其 教授者의 散漫한 知識으로 호익을 教授의 中心點에 集注케 호는 者호 曰 授與니 其 新材料로써 授호야 其 集注의 觀念界를 擴張호는 者호 曰 應用이니 其 新舊 觀念을 聯合호야 自由應用을 得케 호는 者라. (중략)

教授의 主義와 其 階級은 前에 既略述호았기니와 然호나 其 主義를 實行호는 所以와 其 階級의 方法은 尙 未及호지라. 今에 其 要를 敎學호야 論호노니

(第一) 則 問答法의 是니 此中에 未복 疑問은 發호야써 難호고 互히 問答호는 則이 有호나 必킨디 受敎育者의 觀念界를 察호야 其 不明한 者면 則 問케 호고 則로 未達한 者면 則 追케 호야써 新材料를 灌入호지라. 昔 希臘 大賢 梭格拉底가 此法을 創始한 故로 又名을 梭格拉底法이라 호니 彼嘗曰 余는 知識을 授호는 者아 아니오 乃 知識을 生케 호는 產婆라 호니 此를 觀킨디 其 眞意를 可知호지라. 此法은 教授할 時에 開發主義 中의 分解法 教授 階級 中 豫備와 應用으로써 最宜를 삼호이오

(第二) 則 談話法의 是니 此中에 未복 細目의 分析함이 有호나 必킨디 其 事實을 講明호야 受敎育者로 호익을 豁然(완연)히 開朗케 호는 一이라. 但 此法이 修辭 論辯의 學에 精한 者 아니면 往往히 平庸一派에 流入호야써 人을 動케 호기 難호 故로 教授할 時에 開發主義 中의 總合法과 教授 階級 中의 聯合과 結

습으로써 敎育을 삼는니라. 유근(1906), 「四. 敎授의 形式」, 『대한자강회보』 제7호.

이 논문에서는 교수의 방법을 ‘주입주의’와 ‘개발주의’로 나누고, 개발주의를 다시 분해 교수법과 종합 교수법으로 나누었다. 교수의 단계는 ‘예비, 수업, 응용’의 삼분법을 중심으로 오분법까지 소개하였는데, 이러한 이론은 서구의 교육학 이론을 번역 소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교수의 단계를 실행하는 방법으로 ‘문답법’(소크라테스[사각남지(梭格拉底)])의 문답법과 산화술)과 ‘담화법’을 소개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유옥검(1908)의 교수법은 『간명교육학』 제3편 방법론(1)과 제4편 방법론(2)로 구성되어 있다. 제3편의 방법론은 ‘교수론(敎授論)’이며 제4편의 방법론은 ‘훈육론(訓育論)’이다. 이 가운데 ‘교수론’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교수론]

第一章 敎授의 意義 及 目的

第二章 興味

第三章 敎案의 意義

第四章 敎材의 選擇

第五章 敎材의 排列

第六章 敎材의 聯關

第七章 敎授細目 及 目課案

第八章 敎授의 段階

第九章 敎授의 方式

第十章 敎授를 確實케 하는 方法 유옥검(1908), 『簡明敎育學』(古文館)

이 가운데 ‘교수의 의의와 목적’과 ‘흥미’에서는 ‘교수’, ‘훈육’, ‘양호’를 구분하여 세 가지 개념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명확히 하고, 교수 과정에서는 흥미를 부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한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교수법 이론은 전근대적 교육 방식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 시대 교육학의 진전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안을 작성하는 원리와 방법이나 교재 선택의 원리, 배열 방식에 관한 논의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교육학의 도입과 발전이 비교적 체계적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교수의 재료’를 기준으로 교과(敎科) 개념을 도입하였는데 기본적 교과, 부이적 교과, 기능적 교과의 단계를 설정한 점도 눈여겨 볼 만하다.

유옥검(1908)에 나타난 ‘교수의 계단’은 심리학에 토대를 둔 교수 순서를 의미한다. 이 장에서는 험버트, 철너, 라인, 밀만 등의 단계설을 소개하고 이를 종합하여 ‘직관의 단계’, ‘개념의 단계’, ‘응용의 단계’를 설정한 뒤, 각 단계별 활동 사항을 세밀하게 정리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교수의 단계]

단계	세부항목	특징
直觀의 階段	豫備	新事項을 兒童에게 授함에는 必 其 既知한 事項의 關係를 求하여야 既得의 舊觀念을 喚起하여 新觀念을 把住하는 基礎를 作成함이 可하니(중략) 敎師가 學徒에게 問答的 敎式을 行하여야 舊時에 敎授한 바를 覺게 하거나 又 經驗하여 知한 바를 答게 한 後에 或 訂正하며 補綴하여 其 觀念을 一層 整理 明確케 하여 將次 提示를 新事實을 容易히 受領케 할지니라.

	提示	豫備가 終은 後에는 兒童에게 新事實을 與호니 此 乃 提示라. (하락)
概念의 階段	連結	提示에 因得은 新觀念은 此와 關係가 有은 舊觀念과 比較 對照호야 分解 抽象호야 同異를 考호고 且 其間의 聯絡을 講究호야 各部 又 全體에 就호야 互相 連結게 호야 써 意識上의 融和를 成게 홀지니(하락)
	總括	類似은 新舊 觀念을 比較 抽象은 上은 一步를 進호야 此等의 要領을 統合호야 茲에 新概念 又 法則을 作出호야써 簡單한 表明을 成함이 可호니 此段은 教授上 極히 必要한 者라 (하락)
應用的 階段		前段에 得은 概念 又 法則을 他의 類似한 事項에 活用함을 應用이라 云호니 蓋 吾人이 如何히 瞻富한 知識을 貯藏홀지라도 此를 自手로 運用호야 實際에 適應호야 生活에 補益함이 無홀진디 是는 死知를 有함에 不過호는 故로 知識은 多를 貴치 아니호고 唯 其 活動을 重히 호는지라(하락)

이와 같이 교수의 순서는 모두 다섯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이뿐만 아니라 유육검(1908)에서는 각 단계를 적절히 운용하여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함을 강조한다.

‘교수의 방식’에서는 유근과 마찬가지로 ‘주입주의’와 ‘개발주의’를 나누고, ‘직관’, ‘사고’, ‘응용’의 단계에 적용해야 할 교수 방식을 체계화하였다. 직관의 단계에서는 직접 직관의 ‘지시법(指示敎式)’과 간접 직관의 ‘서술법(敍述敎式)’, 사고의 단계에서는 명목이회(明會)의 ‘강연법(講演敎式)’과 실질이회(卽會)의 ‘발전 교식(發展敎式)’, 응용의 단계에서는 지식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발문 교식(發問敎式)’과 지식의 단련을 위한 ‘과제 교식(課題敎式)’을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교수의 순서와 적용 방안을 토대로 이리 가지 방식을 소개하였는데 대표적인 것이 ‘암송(暗誦), 제창(齊唱), 복습(復習)’이다. 암송은 기억법과 깊은 관련이 있으며, 제창은 정밀한 연습을 위한 방법이라고 하였다. 또한 복습은 학도가 망각하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근대계몽기 교육학 이론에서 소개한 교수법은 어문 교과외의 교수 방안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학부 편찬(1910)의 『보통교육학』⁹⁾이다. 이 책은 보통교육 전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제2편 ‘교육의 방법’에 ‘각과 교수법(各科 敎授法)’을 묶으로써 마치 오늘날의 교육과정 해설서와 비슷한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이 책의 각과 교수법 가운데 ‘국어급한문과 교수법(國語及漢文科 敎授法)’의 주요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국어급한문과 교수법]

영역	내용	비고
讀法	茲에 所謂 讀法敎授는 國語讀本을 爲호야 日常必須의 文字 文章을 知게 호고 又 其 文章의 記호 事項을 理解게 호야 智德을 啓發기 爲함이라 漢文讀本을 敎授호는 方法에 至호야는 後에 說明호노라 讀本은 徒히 文字 文章을 誦讀게 홀 뿐 아니라 其 內容의 意義도 十分 理解게 홀지며 其 意義가 分明지 못호면 文字 文章도 또한 決코 理解지 못호 者이라 我國의 學徒는 讀本을 誦讀함에 文字의 形象과 其 發音에만 注意호고 頭를 搖호면서 一種의 調節을 附호야 高聲으로 朗讀호고 其 意義의 如何에는 注意지 아니호는 弊風이 有 호니 此는 從來의 敎授法이 適當치 못호 結果라 特히 諸 學校에 盛行호는 齊讀은 其 弊風을 馴致홀 뿐만 아니라 他 學級의 의 폐단)	1. 국문독본과 한문독본의 구분. 2. 송독과 이해를 목적으로 함. 3. 제독(함께 읽기)의 폐단)

9) 허재영 편(2005)에서는 이 책을 포함하여 7종의 자료를 영인한 바 있으며, 국어급한문과 교수법 관련 표는 허재영(2006, 2010)에 소개한 것과 같은 자료이다.

	教授를 防害하는 事이 甚하니 一日이라도 早速히 矯正하여 學徒로 하여금 正當한 讀書法과 理解를 得게 할지라 但 齊讀은 一語句의 發音을 短時間에 全學級の 學徒에게 練習케 할 時나 又는 學徒가 倦怠하여 注意가 散亂할 時에 用하여 效力이 有한 者이니 如此한 境遇에는 可成的 一學級の 學徒를 二三部에 分하여 順次로 齊讀케 할지니라 如此히 할 時는 他 學級の 修業을 妨害하는 事는 小하고 其效를 可得할지니라 讀本은 又 此를 理解하며 誦讀케 할 뿐 아니라 其 理解한 事項을 口語로 明瞭히 說明케 할지라 其法은 所敎한 事項을 遺漏가 無히 詳細 談話케 하는 事도 有하고 或은 其 大要를 一括하여 簡單히 談話케 하는 事도 有하고 又는 間或 讀本을 見으면서든지 又는 讀本을 閉하고든지 其 便宜를 從하여 談話케 하며 又 問答體로 記述한 敎材와 如한 것은 學徒를 其 主客으로 假定하여 互相問答케 하는 等은 興味가 다하고 有效한 一 方法이니라 讀法敎授에는 書取를 廢지 못할지니 書取는 文字와 語句의 記憶을 明確히 하고 又 此를 任意로 應用하는 能力을 養하는 者이라 然則 敎科書 中에 在한 文字 語句를 書取케도 하려니와 此等の 文字 語句를 應用하여 各種語句를 作케하며 或은 漢字로 書한 者를 諺文으로 書하며 諺文으로 書한 者를 漢字로 書케 하며 或은 漆板上에 缺字가 有한 文章을 示하고 學徒로 하여금 此를 補填케 하는 等の 各種 方法에 依하여 可成的 多히 하며 可成的 屢次로 書取케 함이 可하니라	4. 송독, 이해, 설명(개요말하기, 문답하기, 내용 쓰기)
	讀法敎授의 敎順은 如左하니라 (一) 豫備 1. 目的을 指示한 후에 新敎材를 理解케 함에 必要한 既得의 文字語句及事項을 問答하여 此를 練習함. 2. 萬若 敎材가 前者의 繼續한 者이거나 前에 敎授한 바를 復習하여 豫備로 함. (二) 敎示 1. 敎授할 事項이 學徒가 既知하는 者이거나 直時 讀法을 行할지며 不然하거나 實物繪畫 等を 用하여 難字 難句를 漆板上에 摘書하면서 其 事項의 大要를 豫說하고 然後에 文章의 讀法을 敎授할지니라. 2. 初步의 學徒에게는 敎師가 먼저 範讀을 敎授하고 後에 學徒로 하여금 讀케 할지나 漸次로 進하여야는 學徒로 하여금 默讀豫習케 하고 其後에 二三 學徒를 指名하여 讀케 함이 可하니라 此 境遇에는 敎師의 範讀은 過半의 學徒가 大略 讀음을 得을 時에 行함을 適當다 하나니라. 2. 二三學徒에게 讀케 한 後에 書中の 難語難句를 指摘하여 其意義를 敎하고 更히 一二次로 讀케 한 後에 全文의 意義를 詳細히 說話케 하고 更히 此를 再讀케 하는 等과 如히 讀法과 意義의 說話를 互相交錯하여 行케 할지니라 4. 此時에 既知한 事項及 字句, 文則과 新히 敎한 者로 比較케 함이 可하니라. 5. 讀本을 不見하고 今에 學한 바 大意를 略說케 할지니라 6. 重要한 文字語句의 書取를 行케 할지니라 (三) 應用 1. 新히 敎授한 字句를 應用하여 短句短文을 作케 하며 又는 敎師가 作하여 此를 讀케 하거나 或은 書取케 할지니라 2. 文章의 文脈을 明白히 하고 其中的 語句를 變換하며 又는 轉置하여 各種의 章句로 作換케 하는 事이 有할지니라. 3. 內容의 事項에 關한 應用은 修身, 地理, 歷史, 理科 等の 敎授에 依準할지니라.	1. 예비학습(목적 제시, 기득문자어 구사항 문답) 2. 교시(실제수업) 3. 응용
綴法	綴法은 國語科中 思想發表의 方法을 敎하는 一分科이니 讀法 書法 及 其他의 敎科目과 恒常 密接한 關係가 有한 者이라 綴케 할 文字는 可成的 讀法 其他에서 學得한 者로 應用케 함이 可하고 綴케 할 事項(作文題目)은 (一) 國語漢文 又는 他敎科目에서 敎授한 事項 (二) 兒童의 日常見聞한 事項 (三) 處世上 必要하고도 學徒가 興味를 感할 事項 等に 對하여 選擇할지며 從來의 作文敎授를 見하건디 學徒의 既知事項 與否를 不察하며 又 學徒의 學力 程度에 適合 與否도 不省하여 敎師가 任意로 文題를 選擇하여 漫然히 揭出하고 學徒의 自働 委棄하여 不顧하며 甚한 者는 長成한 者도 困難한 高尚한 論說을 幼少한 學徒에게 試함은 古來로 漢學者間에 行하든 弊風이오 綴法敎授의 目的을 誤한 者이라 普通學校에 行할 綴法은 他敎科目의 應用이니 他敎科目으로 學하여 既爲學徒의 知識으로 된 事項을 字句의 形으로 表出하는 方法을 敎하는 者이라 決코 未知하는 事項을 千思萬考하여 構成할 者이 아니니 敎育者는 深히 注意할지니라[普通學校施行規則 第八條 第二號 第六項 參照]	1. 철법교과의 특성 :사상발표의 방법을 가르침 2. 철법교과 재료 3. 철법교과의 요지 :행문으로 누구든지 자신의 생각을 명료히 이해하도록 함 4. 수준에 맞게 지도

	文體에는 漢文國文(國漢文)의 二種이 有하나 普通學校에서는 漢文을 作게 할 필요가 無하고 又 國文을 課함에도 決코 世上 文人墨客의 體(빈)을 模倣하야 優美莊重威嚴 又는 冒頭抑揚 頓挫와 如히 文章의 結構와 修辭의 巧拙 等은 關重히 할 바 아니오 其要는 達意에 全在 寫字인이라 然則 俗語를 混入하야 書하야도 可하고 又는 諺文만으로 綴하야도 可하니 其要는 行文으로 平易히 其旨趣를 何人이든지 明瞭히 了解하도록 自己가 言코자 하는 바를 遺憾없이 言하면 足할지라 …	
	綴法敎授의 方法이 甚多하나 此를 大別하야 甲) 共作法 乙) 助作法 丙) 自作法の 三으로 分하니라 (甲) 共作法 敎師學徒가 互相協力하야 共히 文을 作成하는 法이니 其順序方法이 如左하니라 (一) 豫備 … (二) 記述 … (三) 成績의 處理 … (乙) 助作法 幼少한 學徒는 記述事項을 整理하며 其順序 結構를 組成하기 不能한지라 故로 敎師 此를 扶助하야 豫先히 考案을 定하게 하고 然後에 筆을 執게 하는 法이니 普通學校에서는 應用的 範圍가 最廣하니라 … (丙) 自作法 學徒로 하야금 他人의 扶助를 不借하고 各自 任意로 作文케 하는 法이라…	교수학습법 1. 공작법 2. 부조법 3. 자작법
書法	書게 할 教材는 既往에 讀本 又는 其他에서 學한 中으로 選擇할지며 讀法과 意義를 知지 못하는 新文字를 書게 함은 其本旨가 아니라 然而 其書體는 楷書 行書 一種 又는 二種으로 하야 … 文字의 結構 運筆의 方法을 分明히 하고 手腕을 練習함에는 大字로 始함이 最便宜하나 實際生活上에는 大字보다 細字가 繁한지라 … 書法에 三要點이 有하니 正確, 明瞭, 迅速이 是라 …	정확, 명료, 신속하게 글씨를 쓸 수 있도록 함
	書法敎授의 敎順은 如左하니라 (一) 豫備… (二) 敎示… (三) 練習…	

이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각과 교수법에 소개한 ‘독법’, ‘서법’, ‘필법’의 교제와 교수법, 그리고 교수 순서는 근대제봉기의 교수법보다 훨씬 구체적이다. 이와 같은 교수 이론이 실제 교수·학습 상황에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으나 적어도 교육학 이론이 교과와 개념 정립이나 어문 교과의 교수 이론과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음을 들림없다.

4. 근대제봉기 국어 교육의 한계 결론을 대신하여

교육학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근대제봉기는 이미 일제에 의해 학정이 잠식된 통감시대 이후의 일이다. 이 점에서 과학으로서의 교육학 도입이 지니는 의미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교육학의 발전은 교육 목표, 교육 내용의 선정과 조직, 교수·학습 방법, 평가의 전반에 걸친 발전을 의미해야 하는데, 이 시기 교육 목표와 내용은 이미 식민 지배정책의 연장선에서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일본인이 학정을 주도하고 일본인 교사를 고용하며, 일본인 주도 아래 교과서를 개발하는 등 우리의 자주적인 교육 발전을 도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교과학 또는 교육학의 발전이 교과서 개발을 비롯하여 실제 교수 상황에 어느 정도 반영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교과서의 역사적 민천 과정에서 1908년 8월 공포된 ‘교과용 도서 김정 규정’ 및 ‘교과서 조사 사업’의 결과 자주 독립국으로서의 어문 교육 발전은 거의 박혀버린 상태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를 고려하면 교육학의 본질인 교육 목적과 내용 선정 면에서 교육학의 도입이 어문 교과의 발전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교제의 편제 방식이나 교수법 면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 면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관성의 문제는 이 시기 어문 교과와 교과서나 교육 자료

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가며 증명해야 할 과제이다. 이는 이 연구의 후속 과제로 남겨둔다.

[참고문헌]

- 강진호·히제영 편(2010), 『일제강점기 조선어과 교과서』, 제이앤씨.
관훈클럽(1983), 『한성주보 영인본』, 관훈클럽.
김순전 외(2005), 『일본 초등학교 수신서(1904)』, 제이앤씨.
박봉배(1987), 『국어교육전사』 (상),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서북학회(1909), 「학과의 요설」, 『서북학회원보』 제9-10호. 서북학회.
유근(1906), 「교육학 원리」, 『대한자강회보』 제6-12호. 대한자강회.
유옥검(1908), 『간명교육학』, 우문관.(이화여자대학교 소장본)
이종국(1991), 『한국의 교과서-근대교과용도서의 성립과 발전』, 대한교과서주식회사.
이종국(2002), 『한국의 교과서 출판 변천 연구』, 일진사.
장웅진(1907), 「교수와 교과에 대하여」, 『태극학보』 13-15집. 태극학회.
조선총독부(1915), 『교과용도서일람』, 조선총독부.
한국교과서연구재단(1998), 『교과서의 수집 정리 방안』, 한국교과서연구재단.
한국교과서연구재단(2001), 『한말 및 일제강점기의 교과서 목록 수집 조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한국교과서연구재단(2002), 『한국의 김인정 교과서 편찬에 관한 연구』, 한국교과서연구재단.
히제영(2005), 『최제학의 문장지남 외』, 울진책상.
히제영(2006), 『국어과 교육의 이해와 탐색』, 박이정.
히제영(2008), 『우리말 연구와 문법 교육의 역사』, 코코사.
히제영(2009), 『일제강점기 교과서 정책과 조선어과 교과서』, 경진.
히제영(2010), 『국어과 교육론』, 역락.
히제영(2010), 『근대계몽기 어문 정책과 국어 교육』, 코코사.
히제영(2010), 『통감시대 어문 정책과 교과서 개발의 역사』, 경진.

단어의 다중의미 관계 유형에 대한 연구¹⁾

이민우(경희대학교)

1. 서론

이 연구는 단어가 갖고 있는 다양한 의미들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의를 이루는 의미들은 서로 일정한 의미적 유연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 오래 전부터 지적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다의 연구의 많은 부분이 이러한 유연성을 밝혀내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 대부분이 개별 어휘를 대상으로 ‘은유’나 ‘환유’에 의해 확장되어 나가는 설명에 집중하고 있어 다의 의미의 관계 자체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 단어에 관련된 다양한 의미들의 관계에 대해 디븐과 베스푸어(Dirven, R. & Verspoor, M. 1998: 49)에서는 형태가 같은 의의들이 유추에 의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한 어휘장 안의 단어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개념적 관계가 어의론에 관한 한 단어의 의의들 사이의 관계와 흡사하다는 점을 지적한다.²⁾ 여기서 더 나아가 머피(Murphy 2008: 244)는 어휘 차원에서 논의되는 관계를 개념적 의미 차원으로 가져온다.³⁾

다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의미들이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어휘간의 관계가 어휘와 맺는 개념들 간의 관계로 지시된다고 한다면, 다의 관계 속에 있는 의미들 또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어휘 사이의 관계와 유사하게 관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는 어휘 관계에서 논의되었던 의미 관계를 이용하여 다중의미들의 관계를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의미 관계는 두 의미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 어휘는 각각의 의미에 따라 질서 정연하게 구조화되어 있으며 이를 의미 관계가 보여준다. 이러한 관계는 다중적이고 동시적이어서 많은 관계가 동시에 유지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의미 관계는 의미들 사이의 관계이며 다양한 불연속적 층위를 가진 의미들이 존재한다. 이처럼 우리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의미의 양상을 관계를 통해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표현하는지 좀 더 잘 알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2. 다중의미 관계 유형

단어의 가능한 의미들 간의 관계는 그들 의미들이 영역과 ‘대조’적 기준에 의해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형태와 결합하는 다중의미들이 이루는 관계를 설정하면 두 의미 영역의 범위에 따라 연결(連接), 이접(離接), 중첩(重疊)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은 각각 상보(相補), 연속(連續), 배타(排他), 대립(對立), 포함(包含), 일치(一致)의 관계로 하위 유형화 할 수 있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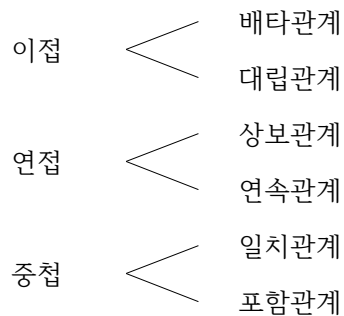
1) 이 발표는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 중 일부분을 정리한 것임을 밝힙니다.

2) 그의 논의에서 다루는 관계들은 현저성, 연결관계, 불명확성들이지만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은 같다.

3) 머피(Murphy 2003: 55)는 의미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의미 관계는 언어 능력과 관련이 없다. 둘째, 의미 관계는 그들이 존재해 있는 문맥들에 의존한다. 셋째, 의미 관계들은 단일의 관계 원리에 의해 예측할 수 있다. 즉, 관계는 어휘적 낱말 지식이 아니라 낱말들에 관한 개념적 지식으로 이루어진다.

4)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관계 용어는 전통적으로 이용되어온 어휘 관계 용어를 차용한 것이다. 나이다(Nida 1973: 1990: 16)는 상이한 단어들의 의미의 밀접한 관계의미 유형을 포함, 중첩, 상보, 연결으로 구분한다.

(1) 다중의미 관계 유형



이접 관계는 두 의미가 동일한 형태에 연합되어 사용되는 의미 영역 안에 있으나 서로 분리되어 있는 의미를 말한다. 이중 배타 관계는 의미상 서로 독립적이며 분리성이 강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 동음이의어로 분류되던 단어들을 포함한다. 대립 관계는 의미 차원에서 양 끝에 위치하는 경우를 말하며 반의적 의미들을 드러낸다.⁵⁾ 연접 관계는 두 의미 영역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의미를 말하며 상보 관계와 연속 관계로 구분할 수 있다. 상보 관계는 전체가 하나의 의미를 이루는 부분의 의미들로 구분할 수 있다.⁶⁾ 연속 관계는 인접한 두 의미 사이의 관계로서 많은 경우의 환유가 포함된다. 중첩 관계는 두 의미가 부분적 혹은 전체적으로 일치하는 관계를 말한다. 이들 중 일치 관계는 대부분 유사성을 기반으로 하는 은유를 통해 구성된다. 포함 관계는 부분과 전체 관계로 구성될 수 있는 환유와 제유의 예들이 속한다. 다중의미는 이들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접, 연접, 중첩이 의미 영역들의 범위와 관계된 것이라면 두 의미 사이의 거리와도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들을 앞서 제시한 대조 원리에 의해 세분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일치관계는 개념적으로 같은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성립된다.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것으로 대조되는 것 속에서 일치하는 부분을 찾는 것으로 이루어지므로 다른 대조 방식과는 대조의 방향이 반대이다. 대립적 관계는 다른 어떤 관계보다 가장 두드러진 대조를 보이는 의미들이라고 할 수 있다. 대립은 사물과 관련된 개념 속의 특정한 두 끝을 지시한 것이다. 배타관계는 어떤 점에서 개념상 너무 달라 대조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배타 관계는 유사성 획득에 실패한 경우이지만, 이들의 형태적 동일성은 언제나 유관성을 불러 올 수 있으며, 이들은 잠재적 대조 관계로 남아있게 된다. 상하의관계와 부분전체 관계는 모두 포함관계로 구분할 수 있다. 따라서 더 큰 것과 작은 것 사이의 대조를 통해 두 관계가 성립된다. 상보관계는 일반적인 부분전체 관계를 이루는 부분들 간의 관계를 말한다. 이들 부분들의 집합은 언제나 전체를 구성하게 된다. 따라서 어휘적으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개념상 전체에 대한 대조를 통해 상보관계를 형성

이와 유사하게 라이온스(Lyons 1977)와 크루즈(Cruse 1986)도 관계의미를 구분한다. 나이다(Nida 1973: 1990: 16)는 자질을 이용하여, 크루즈(Cruse 1986: 1998: 106~107)은 지시와 집합, 내포하는 문장들 간의 진리조건을 이용한 부류 관계를 이용하여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이들의 관계는 어휘간의 의미 관계이지만, 우리가 다루는 관계는 한 단어의 가능한 의미들 간의 관계라는 점에서 구분되며 원소적 자질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5) 다의 의미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동의 관계와 반의 관계를 관찰할 수 있다. 이는 개념적 유사성과 개념들 사이의 대조를 통해 구별된다.

6) 김진해(1998: 276)는 다의화 유형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의미상 비분리적인 관계에 있는 ‘국면facet’(Cruse 1986, 2000)과 같은 예들을 ‘상보적 다의어’로 설정하여 설명한다. ‘국면’은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계슈탈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러한 구분은 타당해 보인다.

하게 된다. 일반적인 부분전체 관계가 비대칭성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보관계는 겹치는 부분 없이 맞닿아 있으므로 이들보다 좀 더 대칭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대부분 일반적 총위의 의미를 구성하며 구체적인 부분 관계로 지시되는 예들은 포함관계로 구분된다. 상보적 관계는 부분의미들 간의 관계를 말한다는 점에서 포함관계와 관점과 성격이 다르다. 이는 연속관계도 마찬가지이다. 더 큰 의미와 그 아래 부분적인 의미들과의 관계는 포함관계에 속하게 되지만, 부분 의미들 사이의 관계는 연속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이들이 상보관계와 다른 것은 상보관계는 상호 독립적 부분을 구성하지만, 연속관계를 구성하는 의미들은 논리적, 실제적인 연속성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연속관계는 한 의미의 범위를 벗어나 더 큰 영역 속에서 이해해야 하는 경우도 있게 된다.

2.1.1. 배타관계

배타적(Antagonistic) 다중의미 관계는 의미적 분리성이 강하며 상호 유연성이 거의 없는 의미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 이들은 하나의 의미가 해석되면 대부분 다른 의미를 배제하는 경쟁적 관계에 있어 의미 사이의 배타성이 강하다. 의미상 가장 큰 차이를 가지는 배타관계는 형태만 같고 다른 모든 특징들에 차이가 있는 관계로 예를 들 수 있다. 따라서 대조적 관계로 볼 때 가장 큰 차이를 갖는 것으로 동음이의어를 생각할 것이다. 이들은 형태적 유사성 이외에 다른 유사성을 찾기 힘들기 때문이다. 유사성과 차이에 있어서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문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대조적 관계 방식으로 이들의 관계를 말할 수 있다.

- (2) 가. 배가 부르다.
 나. 배를 뒀다.
 다. 배를 먹었다.
 라. 배가 크다

(2가~다)의 예들은 모두 적절한 술어에 의해 자동적으로 각기 다른 대상을 지칭한다. 하지만 (2라)와 같은 경우는 상황 맥락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지시 대상이 어떤 것인지 결정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이들은 의미를 적절히 해석할 수 있는 문맥이 없을 경우 중의성을 발생시키며 대부분 동음이의어로 사전에서 독립된 어휘 목록으로 기술된다.

하지만 배타적 의미들이 모두 완전히 유관하지 않다고 하기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형태적 동일성이 유도하는 관련성 때문에 사람들은 두 의미에 대한 가능한 관련성을 찾으려고 시도한다. 동일한 형태에 결합하는 다양한 의미들은 서로 관련을 맺는데 관련성의 정도가 화자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리’는 ‘腳’과 ‘橋’의 의미를 갖는 동음이의어로 분류되지만 화자에 따라 두 의미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둘 모두 무언가를 지탱하고 있으며 양 끝점을 갖는다는 점과 같은 공통성을 일컫는지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추상적인 관련성을 찾아내는 인간의 창조적 능력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완전히 달라 보이는 것에서도 관련성을 일컫는지 찾아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민간어원이라는 관련성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따라서 형태적 동일성은 잠재적 유관성을 갖는 관계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2.1.2. 대립관계

크루즈(1986)는 대립적(Oppositive) 어휘들의 의미가 매우 유사한 존재 가능성을 가진다고 지적한다. 동시적 차이와 유사성은 매우 이질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가장 대립적인 의미는 의미의

한 차원만이 다른 경우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머피(2003: 291)는 대립의 가장 좋은 보기는 의미 차이가 절대적으로 최소이고, 단어의 형태가 동일한 것으로 결론 내린다.

차이를 이러한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어휘의 다의적 의미들은 모두 대립적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최소한의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차이를 구분하는 것은 대립이 아니라 대조이다. 구분되는 의미들의 차이는 대조를 통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대립적이라는 것은 대조를 통해 상반된 차이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하며 두 의미는 유관한 의미의 연속선상의 양 끝에 속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이는 반의 설정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이다.

우선 어떠한 차이를 대립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의미 자체의 차이를 갖는다는 점에서 대립관계는 순전히 의미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반의관계 설정과 개념상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난 하나의 차이로 구분되는 의미의 관계라는 반의관계의 정의를 이용하여 대립관계를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반의관계는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이라는 개념과 일치한다. 따라서 대립관계는 하나를 제외하고 문맥적으로 동일한 관계를 포함한다. 이는 유일한 차이라는 점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대조 개념과 일치한다. 또한 이들은 모두 이분법적으로 대조된다. 이분법적 대조라는 점에서 다른 대조 개념들과 가장 큰 차별성을 갖는다. 대립관계는 이분성에 의해 정의되며 다른 대조 관계들이 다수의 집합을 갖는 반면 이들은 언제나 일 대 일 대립을 갖는다. 만약 포함관계나 상보관계와 같은 의미관계에서 일 대 일 대립만을 갖는다면 그들 또한 대립관계로 분류될 것이다. 그래서 일차원 척도상에 놓인 경우 대립된 방향을 지시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감정과 판단에 대한 경우에 있어서도 대부분 두 쌍을 이루게 된다. 이들은 사람마다, 문맥마다 다양한 것이다.

대립관계는 한 개념을 통해 유도된다는 점에서 비대칭적일 수 있으며, 그런 점에서 다른 한 의미는 유표적이다.

동일 지시에 대한 반대적 개념화는 방향과 평가 대립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다. 이들은 모두 동일 지시물이나 그를 해석하는 개념상 대립적이다.

- (3) ㄱ. 반이나 있다.
 나. 반밖에 없다.
- (4) ㄱ. 공장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파업을 했다.
 나. 공장 사람들이 파업을 해서 손해가 막대하다.
- (5) ㄱ. 너무 예뻐서 기분이 좋다.
 나.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

(3)‘반’, (4)‘파업’, (5)‘너무’는 모두 맥락에 따라 긍정과 부정이라는 대립적 의미를 보이준다. 동일한 형태의 개념적 의미가 반의적일 수 있다는 사실은 조금 의외일 수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들은 이러한 관계가 매우 자연스러우며 다른 관계들 못지않게 가깝다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 (6) ㄱ. 앞에서 본 내용
 나. 앞에서 볼 내용

(6-1, 1-)은 동일한 단어가 상반되는 두 방향을 지시하는 데에 사용되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6-1)은 시간상 ‘과거’를 지시하며 (6-1-)은 ‘미래’를 지시한다. 이처럼 ‘앞’이 갖는 다의의 관계는 ‘과거’와 ‘미래’를 지시한다는 점에서 대립적이다.

- (7) 1. 집에 간다
1-. 집에서 간다

또한 이동에 있어서도 (7-1)과 (7-1-)처럼 상반되는 이동의 방향을 지시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뿐만 아니라 관점에 따른 개념 지시에 있어서 반의적 관계는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이는 개념상 대립적인 상황 연결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 (8) 1. 그니를 놓아 주었다.
1-. 그니를 잡아 놓았다.
2. 돈을 잡은 손을 놓았다.
2-. 돈을 손에 놓았다.

예들은 행위의 결과에 따라 대립적 의미를 보여준다. (8-1, 2)은 대상이 행위주의 영향권 밖으로 멀어지지만, (8-1-, 2-)은 대상이 행위주의 영향권 안에 놓이게 된다.

분유적인 방향성이나 지향성이 없는 대상을 공간을 기준으로 해석할 때 대상은 화자나 담화 참여자와 관련된 다른 기준에 의하여 해석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방향 대립이 성립된다. 실제의 이동과 상반되는 가상 이동(fictive motion)의 예들은 방향 대립의 개념화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 (9) 1. 나무가 차창 밖으로 스치 지나갔다.
1-. 서울이 다가온다.

(9)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화자 혹은 화자를 포함하는 이동 수단이며 이동으로 서술된 대상은 고정된 것이다. 이러한 개념화 양상은 대립적 방향 인식에 대한 일반성을 보여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관련된 두 의미가 대립적 관계를 가지고 어휘적으로 묶여진 예들 또한 존재한다.

- (10) 1. 쌀을 팔았다.
1-. 물을 식혔다.
2. 얼룩이 졌다.

(10-1) ‘팔다’는 ‘사다’와 ‘팔다’라는 두 대립적 의미를 나타낼 수 있다.⁷⁾ 이들은 방향대립의 일종에서 어휘화된 것으로 보인다. (10-1-)은 ‘뜨거운 물의 온도를 낮추었다’는 의미와 ‘차가운 물의 온도를 높였다’는 상반되는 두 가지 의미가 가능하며⁸⁾ (10-2)은 얼룩이 ‘생긴’ 의미와 얼룩이 ‘사라

7) ‘사다’와 ‘팔다’가 인지의미론의 관점에서 같은 개념들 속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관련성은 충분히 가능하다.

8) ‘차가운 물의 온도를 높이는’ 의미가 화자들에 의해 잘못 사용되는 것으로 지적된다고 해도 실제로 화자들에 의해 사용된다는 점에서 가능한 의미로 존재한다.

진' 의미 두 가지 모두가 가능하다. '생성'과 '소멸'의 대립은 일종의 거울영상과 같다. 이들은 어휘의 다중의미 속에 반의 관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⁹⁾

반어적 표현 또한 백락상 대립적 의미를 구성한다. 반어는 규칙에 대한 일탈이나 위반이 아니라 규칙을 통해 이해될 수 있는 유형의 종류이다.

(11) ㄱ. 참 잘했다.

나. 너 잘났다.

(11 ㄱ, 나)의 '잘하다'나 '잘나다'의 일반적인 의미는 '긍정적'이며 백락을 통해 '부정적'이라는 대립적 의미로 이해된다.

이처럼 대립 관계는 의미상 반의를 구성하며 대상에 대한 인식의 반전을 통해 이루어지는 개념화 원리를 따른다.

2.1.3. 상보관계

이들은 지시대상물의 부분 총위들 간의 관계를 이룬다. 즉, 개념이 지시대상물의 부분-전체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의 관계를 이루면 이들은 상보적(Complementary) 관계를 갖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상보적 다중의미 관계는 하나의 의미 속에 집합적으로 존재하여 전체를 이루는 의미의 작은 부분들을 구성한다. 이들은 포함관계와 같이 특정한 방향으로 포섭하는 관계가 아닌 동일한 총위에서 관계를 이루지만, 상위 개념과의 관련성을 통해서만이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이들이 포함관계와 구분되는 것은 지각적으로 구분되지만 개념적 동일체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개념적 포섭관계와는 다르다는 점이다. 또한 특정한 추상으로 인식되며 환유에 의해 이해된다.¹⁰⁾ 예를 들어 '자동차'라는 전체는 그것을 구성하는 각 부분들의 구체적인 의미를 담당할 수 있다.

상보적 다중의미 관계를 갖는 어휘들은 다면어(임지룡 1997), 국면(Cruse 1986), 환성영역(Langacker 1987), 복합타입(Pustejovsky 1995) 등의 이름으로 파악하여 논의되던 예들을 포함한다. 이들은 대표적으로 구체적 형태와 내용을 가진 모든 명사류를 포함하지만, 이들의 물리적 관계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몸'이 그 구성 부분을 의미할 수 있는 것처럼 원수적인 성격일 수도 있고 '문'이 '잠금장치'나 '손잡이'를 의미할 수 있는 것처럼 수의적일 수도 있다. '잠금장치'나 '손잡이'는 반드시 '문'의 일부가 아닐 수도 있다.¹¹⁾

이들은 개념적으로 둘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대상에 대한 다양한 관찰에서 비롯된 것으로 설명된다. 이들은 상호 분연속적이며 자율적으로 기능한다는 특징이 있다.

9) 그 자체로 대립어들이 단어들 두 얼굴의 단어(Janus word)이라 부르기도 한다. 영어에서는 temper, cleave, sanction, string 등을 들 수 있다(Murphy 2003: 2008: 291).

10) 김진해(1998: 283)는 크루즈(Cruse 1986)의 의미 속성 개념을 이용하여 속성 구조에 대해 설명한다. 여기서 말하는 속성은 구조주의 의미론에서 말하는 의미자질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의미자질이 언어구조 내부에서 다른 어휘들과의 관계로 역할을 하는 반면, 속성은 언어 외부, 즉 세계에 대한 백과사전적인 지식이 통합된다. 이러한 백과사전적 지식은 일정한 체계와 구조를 이루는데, 예를 들어 '머리(head)'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내적 관점에서 '사고, 듣기, 보기, 말하기' 등과 같은 기능에 따라 구역이 나누어진다. 반면 외적 관점에서 보면 현저한 인식적 특징, 즉 '얼굴, 머리카락, 귀, 이마, 코, 눈, 입, 턱' 등과 같이 특징적인 '생김새'에 따라 구역이 나누어진다. 이렇게 인간은 대상을 하나의 전체적인 개념적 무리(conceptual mass)로 묶어 이해하며 이러한 방식은 의미자질과 같이 나열적이거나 비계층적이지 않다.

11) '연설'처럼 형식과 내용, '은행' 같은 기관과 장소, '영국' 같은 장소와 국가로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Cruse 2000: 202).

- (12) 가. 이 책은 예뻐다.
 나. 책을 읽었다.
 다. 책을 잘 만들었다.

(12가)은 외형적 모양을 의미하며 (12나)은 내용을 의미한다. 물론 (12나)이 내용이 기록된 방식인 문자를 지시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 세분화된 의미를 생각할 수도 있다. (12다)은 이들 모두를 포함하는 총체적인 의미로 이해된다.

- (13) 가. 자동차를 수리했다.
 나. 자동차에 새로 칠을 했다.
 다. 자동차를 새로 샀다.

마찬가지로 (13가)과 (13나)은 모두 자동차의 부속과 차체라는 구성 요소를 의미하며 (13다)은 이들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의 의미로 이해된다.

- (14) 가. 사장님은 오늘 시택에 가신다.
 나. 사장님은 오늘 처가에 가신다.
 다. 사장님은 오늘 집에 가신다.

이 예들은 맥락에 따라 성별의 차이가 드러나거나 성별을 포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 상보적 관계와 유사하지만, (14가, 나)의 두 의미가 ‘사장님’이라는 전체 의미를 구성하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사람들은 ‘사장님’을 여자와 남자로 구성된 통합적 의미로 이해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사장님은 인간이며 인간의 부류가 남자와 여자로 구분된다는 정보로 이해된다.

상보적 관계인 ‘책’과 ‘자동차’의 의미들이 한 문장 속에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지만, ‘사장님’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도 이들이 구분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 (15) 가. 예쁜 책을 읽었다.
 나. 수리한 자동차에 칠을 했다.
 다. ?시택에 가신 사장님이 수염을 깎았다.

(15가, 나)이 ‘예쁜 책’과 ‘읽는 책’, ‘수리한 자동차’와 ‘칠한 자동차’ 모두 자연스러운 반면, (15다)의 ‘시택에 가신 사장님’과 ‘수염을 깎는 사장님’은 ‘여자’와 ‘남자’라는 두 의미가 충돌하여 이상해진다.

개체 명사와 달리 사건 명사의 경우는 그 명사가 구성하는 전체 사건 개념 속에서 특이점들이 부가된다.

- (16) 가. 서윤이가 요리를 한다.
 나. 서윤이가 요리를 만들었다.

(16가)은 ‘요리’ 행위를 (16나)은 ‘요리’ 행위의 결과물로서 ‘요리’를 의미하며 이들은 모두 한 사

건의 진행과 완성이라는 개념으로 통합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이처럼 행위와 그 행위의 완성과 같은 예들은 많은 성취 동사 유형에서 찾을 수 있다.

(17) 가. 서울이가 오징어를 굶웠다.

1. 서울이가 빵을 굶웠다.

(17-1)의 ‘굶다’는 행위만을 의미하지만 (17-2)의 ‘굶다’는 행위의 결과를 의미한다. 두 행위 모두 먹기 위한 음식을 만든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오징어는 ‘굶는’ 행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 ‘빵’은 밀가루를 주성분으로 한 다양한 재료가 굶는 행위를 통해 변화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두 행위가 구별된다. 이처럼 동작의 과정 가운데 특정한 부분을 초점화하여 표현하는 것은 매우 일상적인 것이다.

명사에 있어서도 특정 부분의 초점화나 관점에 따른 다양한 표현을 찾을 수 있다.

(18) 가. 집이 화려하다.

1. 집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온다.

(18-1)은 건물, (18-2)은 재산으로서의 ‘집’의 의미를 보여준다.

책을 시작했다.

(19)와 같은 사용에서도 ‘책’은 ‘읽기’와 ‘쓰기’의 두 과정으로 구분되며 이들은 특정한 텍스트 국면에 관이된다는 점에서 ‘국면’과는 다르지만(Grusec 2000: 209), 상보적 관계 형성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상보적 관계는 하나의 세슈탈트적 통합체로 파악하는 인간의 인지구조를 보여주는 적당한 예로서 이전 연구들에서 설명하지 못했던 의미의 유연성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2.1.4. 연속관계

시간적, 공간적으로 인접한 연속적(Contiguous)인 관계는 매우 일반적이고 자동적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관계들은 ‘환유’로 구분되던 인지 원리에 의한 것으로 인접성의 원리에 의한 다양한 관계를 보여준다. 이들은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의 관계가 아니라는 점에서 상보관계와 구별되며, 마찬가지로 두 의미 가운데 한 의미가 다른 의미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포함관계와 구분된다.

(20) 가. 그는 총을 잡았다.

1. 그는 총으로 그를 쏘아죽였다.

(20-1)은 ‘총’이 대상의 의미이지만 (20-2)은 ‘총’이 대상을 이용하는 사건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도구들은 그 도구를 사용하는 사건을 의미할 수 있다. 이는 사건과 관련된 많은 명사들이 사건을 의미할 수 있다는 것과 유사하다.

- (21) ㄱ. 오늘 아침은 참 좋았다.
 ㄴ. 5·18 기념행사가 진행되었다.

(21-ㄱ, ㄴ)은 특정한 '시간'과 그 '시간'과 관계있는 '행위' 또는 '사건'의 관계를 갖는다.

- (22) 서윤이가 요리를 시작했다.

'요리'와 '요리 공부'라는 두 가지 해석 또한 실제 행위와 행위를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연속된 관계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의미이다.

- (23) ㄱ. 친구가 슬픈 소식을 가져왔다.
 ㄴ. 나는 슬프다.

- (24) ㄱ. 유리잔이 바닥에 떨어졌다.
 ㄴ. 유리잔이 깨졌다.

이들은 원인이 결과를 의미하는 예들이다. (23-ㄱ)의 '소식'은 '슬프다'는 감정 상태를 유발하며 따라서 (23-ㄴ)이라는 결과 상태의 의미를 가져온다. 마찬가지로 (24-ㄱ, ㄴ)처럼 특정한 동작은 예상되는 결과들을 의미할 수 있다.

자동과 타동의 의미 전환 또한 원인과 결과의 의미와 유사하게 관찰 할 수 있는 예들이다.

- (25) ㄱ. 종을 울렸다.
 ㄴ. 종이 울렸다.

(25-ㄱ)의 '종을 울린' 행동은 (25-ㄴ)의 '종이 울린' 행동을 가져온다. 자타 양용동사 대부분이 이러한 관계에 속할 것이다.

2.1.5. 일치관계

다중의미는 동일한 형태를 전제로 하므로 일치적(consentaneous) 관계는 지시대상은 다르지만 동일한 개념적 의미를 갖는 관계에서 파악된다. 이처럼 동일한 어휘 형태와 관련된 다른 두 지시에 대한 사용에 있어서, 두 지시된 쌍이 동일한 개념적 차원에서 이해되는 경우를 일치관계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은 의미상 동일한 개념을 갖는다. 다만, 구분되는 두 지시들의 개념 전체가 동일하게 개념화 되지 않더라도 추상 중의 일부분의 일치에 의해서 동일성을 획득할 수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중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머피(2003: 226)은 동의어들의 관계에 대해 어휘대항들 간의 관계라기보다는 단어들에 대한 우리의 개념화들 간의 관계라고 지적한다. 즉 동의관계란 얼마나 유사한가를 인식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이 유사한가에 대한 정보는 주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유사성에 대한 정보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경험과 지식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 지시 대상이 서로 얼마나 일치하는가에 대해 일반적인 답을 내 놓을 수 없다. 이는 판단의 기준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중의미에서 일치관계는 어휘를 통해 지시된 대상이 일반적으로 지시되는 대상과 다를 경우

그 둘 사이의 개념적 유사성을 인식하는 것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동일시되는 경우는 사상의 의미의 표현 양상과 동일한 사용을 보일 수 있다. 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두 지시물과 관련된 다른 개념들 속에서 유사한 정보들을 찾아내는 것을 통해 지시 대상에 사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며 마찬가지로 방식으로 이렇게 지시된 대상에 대해 이해한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 잘 알고 있는 단어를 이용하여 그 단어가 일반적으로 지시하지 않는 다른 대상을 지시하는 것으로 사용한다면 사람들은 두 지시대상이 어떠한 공통성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그것이 무엇인지 찾는다. 상대방과 나를 동일시하려는 심리적 욕망은 이러한 관계를 형성하는 경험적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두 개념적 차원의 일치성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치관계는 대부분 '은유'라는 기제에 의해 동일시되는 의미 속성 관계로 구분되던 것들을 포함한다.

(26) ㄱ. 다리가 아프다.

1. 책상의 다리가 망가졌다.

(27) ㄱ. 눈이 아프다.

1. 인형에 눈을 붙였다.

2. 쌀의 눈을 떼어냈다.

이들은 모두 개념적 동일성을 가진 것으로 동일성은 두 지시대상이 갖는 공통 속성에 기반한다. 따라서 사람이나 동물의 '다리'와 사물의 '다리', 사람의 '눈'과 사물의 '눈', 그리고 식물의 부분인 '눈'은 모두 은유에 기반하여 이해되며 개념적 동일성에 의한 일치 관계를 가지고 있다.

(28) ㄱ. 사람이 간다.

1. 시간이 간다.

존제론적 은유는 추상적 대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이러한 표현들은 모두 일치 관계를 구성하게 된다.

(29) ㄱ. 자 안에 돼지가 있다.

1.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다.

2. 떡구름이 물러온다.

(29-ㄱ~ㄴ)의 예들은 모두 중의성을 갖는 문장이다. 이들의 중의성은 '돼지', '호랑이', '떡구름'이라는 단어의 다중의미성으로 인한 것이다. 이들 단어도 실제 개념적 의미는 같지만 지시하는 대상이 다르다. '사람'과 '돼지', '사람'과 '호랑이', '좋은 일'과 '떡구름'처럼 다른 두 지시대상에 대한 개념적 동일시라는 점에서 은유적 표현은 동의관계와 유사하다.

'A는 B이다'라는 일반적인 은유의 형식은 두 어휘를 동의어로 만든다. 이때 두 지시 대상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좋은 은유라고 생각하게 된다. 많은 경우 완전히 달라 보이는 지시대상들에서도 우리는 의미를 찾아 일치시키기 때문이며, 이러한 경향성은 잠진한 은유를 만들어내는 노력에 반영된다.

(30) ㄱ.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유치환, 깃발)

1. 낙엽은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지폐(김광균, 추월서정)

하지만 일치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지시된 두 대상의 차이는 결국 일치관계를 영속시키기 위한 힘을 끊임없이 소진시키게 된다. 그래서 상황 맥락이 바뀌게 되면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게 된다.

(31) ㄱ. ?국경일에 사람들이 아우성을 달아 놓았다.

1. ?가을이 되자 길가에 지폐가 날리다닌다.

의미 사이의 관계에서 일치관계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의미의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의미를 개념으로 보는 입장에서 일치관계는 두 의미 사이의 관계라기보다는 동일한 의미나 개념에 사상되는 두 지시 대상 사이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도 일치관계라는 용어는 두 지시대상의 의미적 일치에 관한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들은 얼마나 일치하는가와 얼마나 문맥 의존적인가에 따라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비교를 통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들은 비교의 방향에 영향을 받으며 비대칭적으로 사용된다.¹²⁾

(32) ㄱ. 지기 돼지가 간다.(사람을 보며)

1. ?지가 사람이 간다.(돼지를 보며)

완전 일치는 개념 전체를 다른 지시의 개념에 의해 이해하는 것으로서 실제하는 지시대상을 통해서만 인식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33) 마음을 고치야 한다.

특정 속성이나 개념을 일치시키는 경우는 일반적인 사유에서 많이 볼 수 있다.

(34) 호랑이 선생님

문맥 의존적인 부류들은 대부분 문화적인 사유들에서 나타나며 일상생활에서도 상황에 따라 가변적으로 이용된다.

일치관계를 통해 다른 지시를 갖는 경우 구분되는 통사적 형식과 어휘 선택 규칙을 포함하게 된다.

(35) ㄱ. 밥을 먹다: 밥을 먹는다/어제 먹은 밥/내일 먹을 밥

1. 마음을 먹다: *마음을 먹는다/*어제 먹은 마음/*내일 먹을 마음

반일 지시 대상에 대한 다른 어휘가 존재한다면, 이와 같은 표현 방식은 양이적인 것처럼 보이며, 오히려 의미 해석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처럼 생각된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은유를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의도한다. 즉, 쉬운 이해와 주의 집중이라는 의사소통의 방

12) 비대칭성은 다의 전반에 걸쳐 드러나는 현상으로 지적된다(임지룡 1998).

식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상대방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설명해 주려 할 때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것을 통해 이해하려고 한 것이며 이러한 방법은 많은 수의 일치 관계를 만들어 낼 것이다.

일치관계의 빈번한 사용은 새로운 의미 확립을 만들어 낼 수 있으며 반복적 사용에 의해 일반화된다.

그러나 일치관계는 다른 관계들과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특히 동의관계와 반의관계의 경계가 불분명하듯이 일치관계와 내립관계 또한 둘 사이의 관계가 불분명하며 문맥에 민감하다.

2.1.6. 포함관계

포함(Included) 관계는 장소나 전체의 부분들로서 대부분 환유로 구성되는 예들과 함께 상하의 개념의 위계적 분류들이 포함된다. 위계적 분류는 개념적인 것으로 대부분 존재론적 은유를 통해 포함관계로 이해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의 종류(kind of)’라는 관계로 정의된다. ‘소나무’는 ‘나무’의 한 종류이므로 ‘나무’의 하위어이다. 이들은 논리적 관계로 설명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하위어는 상위어를 내포하며 집합에 있어서 포함관계가 된다. 동일한 형태의 자기 하위어들은 대부분 일반적 의미와 구체적 의미를 지닌 다중의미 관계를 형성한다(Murphy 2005: 377, Cruse 1986, Fellbaum 1998, Becker 2000). 총칭어의 경우 세분화된 하위의 의미들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상하의 위계적 분류는 상하의 개념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은유를 통해 포함관계로 이해된다.

- (36) ㄱ. 풀이 많다
 1. 풀만 먹었다.

- (37) ㄱ. 닭을 길렀다.
 1. 닭을 먹었다.

‘풀’은 일반적 의미의 ‘식물’을 의미하지만 다른 문맥에서 ‘식용 식물’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닭’은 ‘동물’과 ‘음식’으로 구분된다. 이처럼 위계 관계는 문맥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민간 분류 위계는 문화적으로 매우 다양하며, 한 문화권 안에서도 개인의 경험에 따라 다르게 분류될 수 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류와 달리 인간은 실제 생활에서 인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에 따라 분류하기 때문이다.

- (38) 개
 ㄱ. 식용, 애완용
 1. 진돗개, 풍산개, 셰퍼드, 하운드

민간분류의 예에서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은 예들은 분류적 관계라고 말하기는 것 자체가 어려워진다.

- (39) ㄱ. ?어왕은 어성의 한 종류이다.
 1. ?경찰은 사람의 한 종류이다.

‘어왕’은 ‘어싱’에, ‘경찰’은 ‘사람’이라는 범주에 속하지만 분류적 관계라고 하면 매우 이상하다. 이러한 차이에 대해 크루즈(2000)는 하위어의 아종(subspecies)이라고 제안한다. 이러한 종류의 다중의미들은 기능이나 속성과 관련된 일종의 환유적인 포함 관계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40) ㄱ. 이것은 책이 아니라 잡지입니다.

ㄴ. 밥은 못 먹고 빵을 먹었지요.

이들은 일반적 의미의 특정 하위 총위를 지시하는 것으로 문맥적으로 제한된 의미로 사용된다. (40-ㄱ, ㄴ)의 ‘책’과 ‘밥’은 일반적 총위의 의미가 아닌 특정 종류로서 이해된다. 사람을 지시하는 경우도 직업이나 지위, 계급, 성격과 같이 그 사람과 관련된 다양한 속성들이 사용될 수 있다.

(41) ㄱ. 경찰이 지나간다.

ㄴ. 사장은 나쁜 사람이다.

(41-ㄱ)은 직업 명칭이, (41-ㄴ)은 지위 명칭이 사람을 지시하는 의미로 사용된 예들이다.

(42) ㄱ. 학교를 지었다.

ㄴ. 학교에서 공부한다.

(42-ㄱ)은 구체적 건물이며 (42-ㄴ)은 그 건물과 관련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인접한 의미로 해석된다. 이처럼 건물, 혹은 장소가 관련된 사건이나 그 장소에 포함된 다른 장소, 혹은 구성원을 의미하는 경우를 쉽게 찾을 수 있다.

(43) ㄱ. 서울은 한국의 수도이다.

ㄴ. 나는 서울에 산다.

ㄷ. 서울의 투표율이 매우 낮다.

(43-ㄱ)은 지역적 장소로서 ‘서울’을 의미하지만, (43-ㄴ)의 비락적 의미는 서울 전체가 아닌 서울의 일부분인 장소를 의미한다. 이와는 달리 (43-ㄷ)은 장소가 아닌 장소에 포함된 사람들을 의미한다. 사물이나 장소가 그 안에 포함된 내용물을 의미하는 경우는 특히 용기와 내용물의 관계에 일반적이다. 이러한 관계는 용기-내용물-단위의 다의 관계로 해석될 수 있다.

(44) ㄱ. 그릇을 썼었다.

ㄴ. 한 그릇을 다 먹었다.

ㄷ. 한 그릇에 얼마예요?

(44-ㄱ)은 용기로서 ‘그릇’을 의미하지만, (44-ㄴ)은 ‘내용물’을 (44-ㄷ)은 ‘단위’를 의미한다. 부분과 전체 또한 전체가 부분을 포함하는 관계로 해석될 수 있다.

- (45) 가. 머리를 만졌다.
 나. 머리를 잘랐다.
 다. 머리를 다쳤다.

(45가)의 머리는 특정한 부분을 의미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의미로 이해할 것이다. 이와는 달리 (45나)은 ‘목 윗부분’이라는 의미와 ‘머리카락’이라는 세부적인 의미가 가능하다. (45다)은 특정한 부분만을 의미한다.

동작의 세분된 하위 유형들 또한 동작이 구성하는 사건 속에 들어 있는 포함관계로 구분될 수 있다.

- (46) 가다
 뛰어가다, 걸어가다, 기어가다, 날아가다

- (47) 가. 새가 간다.
 나. 개가 간다.
 다. 사람이 간다.

- (48) 가. 새가 날아간다.
 나. 개가 뛰어간다.
 다. 사람이 걸어간다.

이들은 모두 ‘가다’가 의미하는 이동의 방식에 따른 하위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는 예들이다. 이들 하위 유형은 구분되는 다른 어휘로 표현할 수 있거나 다양한 문법 형식을 이용하여 동작 유형을 세분할 수도 있다.

경로, 수단, 등의 동사가 구현하는 사건의 세밀한 부분을 구별하여 보여주는 예들은 다음과 같다.

- (49) 가. 서윤이가 공을 찼다.
 나. 서윤이가 왼발로 공을 찼다.
 다. 서윤이가 골대로 공을 찼다.

‘차다’ 자체는 이동의 의미를 보여주지 않는다. 경로를 드러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차다’라는 행위의 결과를 자동적으로 예측하여 미리 파악한다. 경로와 목적지가 어휘 자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이동의 개념을 어휘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이동동사와의 비교를 통해서 알 수 있다.

- (50) 가. 서윤이가 공을 찾지만 공은 이동하지 않았다.
 나. ?서윤이가 집에 갔지만, 서윤이는 이동하지 않았다.

(50가)이 이동을 의미하지 않아도 되는 것과 달리 (50나)의 ‘가다’는 반드시 이동의 의미를 드러낸다.

- (51) 가. 땡이가 돈다.
 1. 반환점을 돌았다.
 2. 오른쪽으로 돌았다.

‘돌다’는 90°~360°사이의 모든 방향 전환을 포함하며 이들 각각의 동작은 구분된다. 이처럼 동사의 경우 세분화된 동작들의 가능한 구분은 포함관계에 속할 수 있다.

3. 결론

어휘의 의미가 관련된 의미들이 이루는 망 속의 특정 범위에 의해 규정되는 집합적 개념으로 정의되는 것처럼, 다중의미는 한 단어의 개념들이 이루는 관계의 망 속에 의미를 부여 놓는다.¹³⁾ 이 속에서 의미는 복잡한 그물망처럼 얽혀있다. 따라서 다의에 대한 연구는 의미들 간의 관계에 대한 관찰이며 의미의 구조를 드러내는 작업이 된다. 단어의 의미를 개념적 차원으로 옮겨 놓는 것은 온 세계를 한 단어 속에 옮겨 놓는 것과 동일하다.¹⁴⁾ 이는 단어 의미를 한정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며 우리는 단어의 의미를 알기 위해 한 단어와 연결되는 개념들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 준다.

단어가 갖는 의미들의 관계는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단어의 의미를 추론하는지 보여주는 예가 될 수 있다. 단어는 의미 관계를 내포하며 이는 의미가 관계를 통해 추론된다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단어의 의미가 관계를 통해 이해된다고 하여 그것이 의미가 구조화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구조화 되어 있다면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우리는 단지 관계를 짓는 방식을 알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관계된 결과만을 볼 수 있다. 관계의 가능성은 무한히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우리는 의미들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을 통해 어떻게 단어 내부에 의미가 존재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관계는 의미의 존재 방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관계를 아는 것이 곧 의미를 아는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다중의미들이 어떤 관계로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다.

다중의미를 구성하는 의미들 사이의 관계를 면밀히 관찰해 보면 다양한 관계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관계를 통해 단어가 어떻게 개념화 되어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 또한 관계는 해석 가능한 의미들을 추론할 수 있게 하여 자연스럽게 단어의 의미를 한정해 주는 기능을 하게 된다. 단어 내부의 의미들 사이의 관계는 단어 사이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복잡하며 이에 대한 더욱 세밀한 구분이 필요한 것이다.

13) 다의는 단순히 한 어휘소가 둘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것만이 아니라 한 단어의 내포적 기준들이 문맥에 걸쳐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14) ‘다의’가 어휘의 내적 문제라고 가정한다면 곧바로 그 많은 어휘들이 어떻게 그 속에 있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게 된다. 이는 ‘의미’의 본질이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관련된다. ‘다의’는 어휘 속에 존재하지 않으며 ‘문맥’속에 존재한다. 이는 곧 개념적 층위에서 의미가 파악된다는 것을 말한다. 다의적 의미들은 어휘의 의미 자체로 파악할 수 없으며 ‘화용’적인 검토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의미를 연구하는 것은 다분히 화용론적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강기진(1983), 「국어 다의어의 의미구조」, 『한국문학연구』 8,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pp. 25-41.
- 김광해(1990), 「어휘소간의 의미 관계에 대한 제검토」, 『국어학』 20, pp. 28-46.
- 김진해(1998), 「다의 유형에 따른 합성어 의미 연구」, 『경희어문학』 19,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pp. 269-296.
- 남경완(2005), 「의미 관계로서의 다의 파생 관계에 대한 고찰」, 『한국어어미학』 17, 한국어어미학회, pp. 151-175.
- 이동혁(2004), 「의미 관계의 지장과 기능에 대하여」, 『한글』 263, pp. 95-124.
- 이민우(2008), 「국어 동사 ‘지다’의 다의 분석」, 『한국어어미학』, 한국어어미학회, pp.127-150.
- 이민우(2009), 「다의성과 다의화」, 『언어학연구』, 한국중원언어학회, pp.107-122.
- 이승명(1981), 「의미 관계와 범주」, 『한글』 173·174, pp. 545-557.
- 이종일(2005), 「‘떡다’의 다의적 의미와 구문적 확장」, 『한국어학』 27, 한국어학회, pp. 249-277.
- 이현근(1992), 「개념구조에 의한 단어의 다의성 연구」, 『언어연구』 8, 한국현대언어학회, pp. 101-123.
- 임지룡(1996), 「다의어의 인지적 의미 특성」, 『언어학』 18호, 언어학회, pp. 229-261.
- 차준경(2004), 『국어 명사 다의 현상의 체계성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경봉(1999), 「단어 의미의 구성과 의미 확장 원리 - 다의어 문제를 중심으로 -」, 『한국어학』 9, 한국어학회, pp. 307-331.
- 최상진(1999), 「문장의미 구성요소의 의미관계에 대하여」, 『어문연구』 103, pp. 7-23.
- Andreas Blank(2002), Polysemy in the lexicon and in discourse, B. Nerlich et al.(eds), Polysemy: Flexible Patterns of Meaning in Mind and Language, Berlin·New York: Mouton de Gruyter.
- Cruse, D. A.(1986), Lexical Seman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임지룡·윤희수 역(1989), 『어휘의미론』, 경북대학교 출판부.)
- Cruse, D. A.(1995), Polysemy and related phenomena from a cognitive linguistic viewpoint, Patrick Saint-Dizier et al.(eds), Computational lexical semantics, Cambridge [England] ;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ruse, D. A.(2000), Meaning in Langu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임지룡 역(2002), 『언어의 의미:의미·화용론 개론』, 태학사.)
- Cuyckens, Hubert. & Britta Zawada(2001), Polysemy in Cognitive Linguistics, Amsterdam: John Benjamins.
- Lakoff, G. & Johnson, M.(1980),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and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노양진·나익주 옮김(1995), 『삶의로서의 은유』, 서광사.)
- Langacker, Ronald W.(1999), Grammar and conceptualization. Berlin & NewYork: Mouton de Gruyter.
- Lyons, J.(1977), Semantics Voi. 1 & 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urphy, M. L.(2003), Semantic Relations and the Lexicon:Antonymy, Synonymy, and Other Paradigms, Cambridge University Press.(임지룡·윤희수 역(2008) 의미관계와 어휘사전, 한국문화사.)
- René Dirven & Marjolijn Verspoor(eds)(1998), Cognitive exploration of language and

linguistics, Benjamins Pub. Amsterdam:Philadelphis.(이기동 외 역(1999), 언어와 언어학: 인지적 탐색, 한국문화사.)

V, Evans. & M, Green.(2006), Cognitive Linguistics: An Introduction, Edinburgh University Press.(임지룡·김동환 역(2008), 인지언어학 기초, 한국문화사.)

Atkin, B.T. & Zampoli, A.(1994). Computational Approaches to the Lexicon. Oxford Univ. Press. Oxford.

Ugenc A. Nida(1973), Componential Analysis of Meaning, The Hague: Mouton(조항범 역(1990) 의미분석론, 탑출판사.)

B. Nerlich & D. D. Clarke(2001), Ambiguities We live by: Towards a pragmatics of polysemy. Journal of Pragmatics 33, Elsevier Science, pp. 1-20.

外國人 학습자를 위한 韓國語 학습용 基礎漢字의 選定
－ 初 ・ 中級 漢字語를 中心으로 －

홍자영(강원대학교)

嬰幼兒 音聲의 發聲制約

- 1~18개월을 중심으로 -

裴宰延 · 高道興

(翰林大學校 講師 · 教授)

1. 序 論

만 2세 이전 시기의 嬰幼兒의 音聲發達은 이후에 成人 音聲言語 體系에 진입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Vihman et al., 1986; Stool-Gammon, 1985, Stark, 1980). 身體的 · 生理的 · 言語的으로 未熟한 이 시기의 嬰幼兒 音聲에는 몇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대표적으로 子音調和(consonant harmony) 制約과 선행자음의 調音位置에 따른 후행모음의 制約 등을 發聲制約의 特徵으로 꼽을 수 있다.

우선 첫 번째 發聲制約인 子音調和는 동일 音節 내(C_1VC_2 ; C_1 은 初聲, C_2 는 終聲)에서 혹은 동일 音節은 아니지만 자음이 서로 이웃하는 경우(C_2C_1)에 선행하는 자음의 調音位置에 따라서 후행하는 자음의 調音位置가 制約을 받는 것이다(Menn & Stool-Gammon, 1995). 다시 말해서 嬰幼兒는 身體的 · 生理的 · 言語的 未熟한 때문에 서로 다른 調音位置의 자음을 연이어 發聲하는 것이 어렵다. 이는 다시 말해서 嬰幼兒가 서로 다른 調音位置의 자음을 發聲하는 데에는 앞서 언급한 發達이 모두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두 번째 發聲制約은 선행하는 자음의 調音位置에 따라서 후행하는 모음이 制約을 받는 것인데, Davis & MacNeilage(1990)에 따르면 14~20개월인 幼兒의 發聲에서 齒莖音 [d, n]는 전설모음과 함께, 兩脣音 [b, m]는 중설모음과 함께 產出되는 傾向이 높다. 이에 대하여 Davis & MacNeilage (1995)는 턱의 움직임이 만드는 구조(frame) 때문에 이러한 制約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다. 즉 齒莖音이나 兩脣音을 調音하기 위한 調音動作에서 그대로 턱만 내리면 두따르는 모음이 調音되는데 바로 이러한 영향 때문에 후행하는 모음이 결정된다는 見解이다. 그러나 de Boysson-Bardies(1993)는 Davis & MacNeilage(1990, 1995)의 見解와는 반대로 兩脣音은 전설모음과 함께 結合하여 調音되는 傾向이 높으며, Oller & Steffans(1993)는 齒莖音은 전설모음과 함께, 硬口蓋音 · 軟口蓋音은 후설모음과 결합하는 傾向이 강하며 또한 齒莖音은 코모음과, 兩脣音은 지모음과 함께 產出되는 특징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앞서 살펴본 既存 研究의 論議를 토대로 前言語 段階에 있는 우리나라의 嬰幼兒를 대상으로 앞서 제시한 두 가지 發聲制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첫 번째 發聲制約인 子音調和는 1~18개월인 嬰幼兒의 音聲에서 동일 音節 내에 終聲이 產出되는 경우(C_1VC_2)와 동일 音節은 아니지만 자음이 서로 이웃하는 경우(C_2C_1)를 살펴보고, 두 번째 發聲制約인 선행하는 자음에 의한 후행모음의 制約은 선행하는 자음이 兩脣閉鎖音 [b], [p], 兩脣鼻音 [m]인 경우와 齒莖閉鎖音 [d], [t] 齒莖鼻音 [n]인 경우를 살펴볼 것이다.

II. 研究 方法

1. 被驗者

標準語를 사용하는 서울·경기 지역과 강원 영서 지역의 생후 1개월부터 18개월까지 88명의 嬰幼兒¹⁾를 대상으로 하였다.

<표 - 1> 月齡別 被驗者 數

月齡	1	2	3	4	5	6	7	8	9	小計	總計
平均	1;22.7	2;12	3;22	4;16.3	5;21	6;14.7	7;14	8;15.8	9;14.8		
(偏差)	(9.2)	(10.3)	(9.2)	(7.2)	(9.9)	(3.7)	(7.6)	(5.1)	(9.5)		
被驗者數	7	5	5	4	4	6	5	5	5	46	
月齡	10	11	12	13	14	15	16	17	18	小計	88
平均	10;7.8	11;12.5	12;17.9	13;15.3	14;14.5	15;13.6	16;10	17;3.7	18;16.7		
(偏差)	(7.4)	(10.7)	(9.7)	(8.1)	(11.0)	(8.1)	(8.8)	(3.2)	(7.2)		
被驗者數	4	6	7	4	4	7	4	3	3	42	

* 월(month);일(day)

研究範圍를 18개월까지로 정한 것은 아이가 태어나 대략 18개월이 되면 웅얼이가 급격하게 감소하며 초기 단어나 짧은 문장 표현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Stoel-Gammon, 1998). 각 月齡別 嬰幼兒의 被驗者 數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대략 13세를 前後로 겹게 되는 變聲期 이전 시기까지는 男女의 基本周波數(fundamental frequency, F₀) 등과 같은 音響·音聲的인 特徵에 큰 차이가 없다는 Kent(1976)의 연구를 바탕으로 嬰幼兒의 性別을 區分하지 않았다. 그리고 被驗者에게서 또래에 비해 言語的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그 기준은 우선 被驗者의 전반적인 發達, 즉 感覺·情緒·認知에 대한 保護者의 보고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二次的으로 9개월 이상의 對象者는 언어검사(M-B-CDI-K)를 통해 또래 수준의 言語能力을 檢證하였다.

2. 錄音 및 分析

被驗者의 音聲은 디지털 녹음기(EDIROL R-09)로 44,100Hz의 표본추출률과 16bit의 양자화 옵션을 선택하여 샘플링을 하였다. 또한 수집된 嬰幼兒의 音聲을 分析하는 과정에서 오디오 資料에 반 의존하이 判斷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캡코디(Xaxti HD-800)를 사용해 피험자의 發聲²⁾ 장면을 錄出하였다. 音聲資料 수집을 위해서 被驗者에게 가장 편안한 장소인 當事者의 집에서 保護者와 함께 즐겁게 놀이를 하는 과정에서 發聲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일부 아이는 낯선 研究者를 낯가림하느라 發聲을 거의 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 친숙함을 주기 위해서 미숫방울과 풍선, 고무찰흙 등을 준비하여 관심을 유도하였다. 일단 아이와 친해진 뒤에는 평소에 익숙하게 갖고 놀던 장난감이나 책 등도 音聲 誘導를 위해 사용하였다.

被驗者마다 샘플링에 소요된 시간에는 차이는 있지만 最小 30분에서 最大 1시간 사이에 最少 50發聲 이상을 基準으로 정하였다. 被驗者 대부분은 목표로 삼았던 發聲수(vocalization)를 계획된

1) 우리나라 嬰幼兒保育法에서 嬰幼兒란 6세 미만의 就學 전 아동을 말하는데, 특히 嬰兒는 만 1세까지이며 幼兒는 만 1세부터 6세까지를 포함하게 된다. 이를 근거로 본 논문에서는 만 1개월부터 11개월까지를 嬰兒로, 만 12개월부터 18개월까지는 幼兒로 구분하였다.

2) 音聲은 phonation과 vocalization의 두 가지 用語가 사용되는데, 이 논문에서는 自發的인 音聲이 産出이 어려운 0~2개월 무렵의 嬰兒의 音聲을 phonation으로, 自發的인 音聲 産出이 가능한 2~3개월 이상의 嬰幼兒의 音聲은 vocalization으로 구분하였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phonation 단계에서는 音聲이 出現(appear)하는 것으로 vocalization 단계에서는 音聲을 産出(produce)할 수 있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간 동안에 샘플링이 가능하였으나 낮가림이 심하거나 혹은 발수가 적어 분석 資料가 부족했던 對象者는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두고 다시 訪問하여 錄音을 進行하였다.

音聲資料는 음성편집 프로그램(Cool Edit Pro, ver.2.0)을 이용하여 불필요한 音聲들을 일차적으로 잘라내었으며 分析에 適合하도록 정리하는 作業을 施行하였다. 分析 對象에서 제외된 音聲은 웃음소리, 울음소리, 칭얼대는 소리, 기침 소리, 제재기, 숨소리, 팔각질, 트림, 한숨 쉬는 소리 등 非言語的인 音聲인 반면에 分析 對象이 되는 音聲은 言語的인 音聲 즉, 模倣 音聲과 自發聲을 포함하며 앞서 나열한 소리를 제외한 모든 音聲을 포함하게 된다(Vihman & Greenlee, 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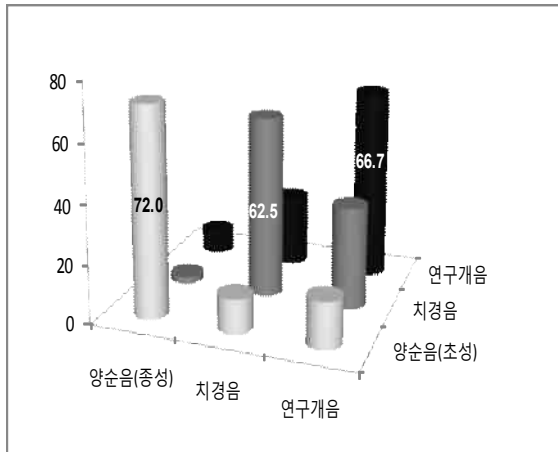
III. 研究 結果

통계 분석으로 SPSS 17.0의 다중응답(multiple response) 변수와 月齡에 따른 교차 분석(contingency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被驗者의 音聲資料는 非言語的인 音聲을 제외하고 言語的인 音聲만을 포함하여 月齡別·被驗者別로 順次的으로 정리하였다. 다중응답 분석에서는 이렇게 順次的으로 정리된 音聲을 기준으로 빈도 분석과 교차 분석이 이루어지게 된다. 1~18개월인 嬰幼兒 音聲의 子音調和 制約과 선행하는 자음에 의한 후행모음의 制約에 대한 다중응답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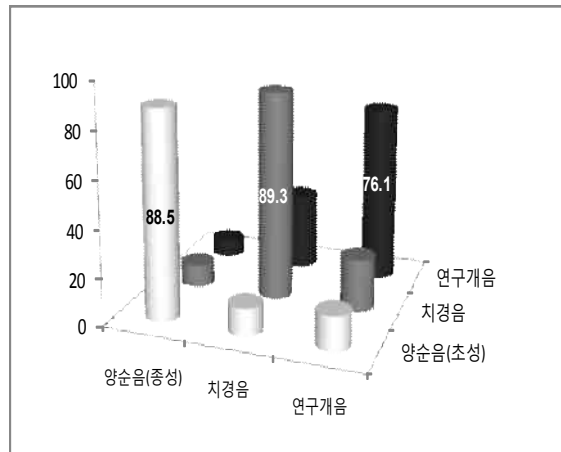
3.1. 子音調和 制約

우선 1~18개월인 嬰幼兒의 發聲制約 중에서 子音調和의 制約, 즉 동일 音節인 경우와 자음이 이웃하는 경우에서 후행하는 자음의 調音位置가 선행하는 자음의 調音位置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분석을 위해 音聲資料에서 동일 音節의 環境은 C₁VC₂(C₁은 初聲, C₂는 終聲) 연쇄를 선택하였으며, 자음이 이웃하는 환경은 C₂C₁(C₂는 앞음절의 終聲, C₁는 뒤음절의 初聲) 연쇄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상의 音聲資料에 대한 다중응답의 結果를 아래에 표와 그림으로 정리하였다(<표-2>, <표-3>, <그림-1>, <그림-2>).

<표 - 2> C ₁ VC ₂ 의 다중응답 비율(%)					<표 - 3> C ₂ C ₁ 의 다중응답 비율(%)				
초성	종성	양순	지경	연구개	초성	종성	양순	지경	연구개
양순		72.0	12.0	16.0	양순		88.5	11.9	14.6
지경		2.5	62.5	35.0	지경		9.8	89.3	22.4
연구개		8.3	25.0	66.7	연구개		7.6	33.1	76.1



<그림 - 1> C₁VC₂에서 初聲과 終聲의 調音位置가 동일한 경우의 다중응답 비율(%)



<그림 - 2> C₂C₁에서 終聲과 初聲의 調音位置가 동일한 경우의 다중응답 비율(%)

우선 동일 음절에서 産出되는 C₁VC₂ 연쇄에 대한 結果는 <표 2>와 <그림 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初聲에서 兩唇音이 調音될 때에 終聲에서도 兩唇音이 産出되는 경우의 다중응답 비율이 72%이었으며 初聲에 齒莖音이 産出될 때에 終聲에도 齒莖音이 調音되는 경우의 다중응답 비율은 62.5%이었다. 결론으로 初聲에 軟口蓋音이 調音되고 終聲에도 軟口蓋音이 함께 調音되는 경우의 다중응답 비율은 66.7%인 것으로 나타났다(<표-2>, <그림-1>).

한편 동일 음절 내에서 調音되는 경우는 아니지만 자음이 서로 이웃하는 경우, 즉 앞음절의 終聲(C₂) + 뒤음절의 初聲(C₁)의 연쇄에 대한 다중응답 結果는 다음과 같다(<표-3>, <그림-2>). 표 3과 그림 2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C₂C₁ 연쇄에서는 앞서 살펴보았던 동일 음절 내(C₁VC₂)의 조건보다 發聲制約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선행하는 終聲의 調音位置가 兩唇音일 경우에 뒤따르는 初聲 자음의 調音位置 역시 兩唇音인 경우의 다중응답 비율이 88.5%로 나타났으며, 선행하는 終聲의 調音位置가 齒莖音이며 이웃하는 初聲이 이와 동일한 調音位置인 齒莖音으로 産出되는 경우의 다중응답 비율은 89.3%이었다. 결론으로 선행하는 終聲의 調音位置가 軟口蓋音인 경우에 뒤따르는 初聲 자음의 調音位置가 軟口蓋音인 경우의 다중응답 비율이 76.1%로 나타나 C₂C₁ 연쇄에서도 이러한 調音位置 制約이 매우 강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3.2. 先行子音에 따른 母音 制約

1~18개월인 嬰幼兒 音聲의 두 번째 發聲制約은 선행하는 자음이 후행하는 모음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이다. 기존 연구(Davis & MacNeilage, 1990; MacNeilage & Davis, 1990; de Boysson-Bardies, 1993; Oller & Steffans, 1993)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嬰幼兒는 兩唇閉鎖音 [b], [p]와 兩唇鼻音 [m], 그리고 齒莖閉鎖音 [d], [t]와 齒莖鼻音 [n]을 어떤 모음과 함께 調音하는지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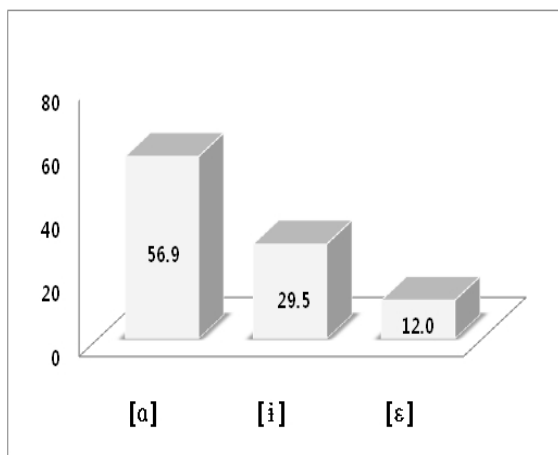
우선 兩唇音의 경우를 살펴보면, 兩唇閉鎖音 [b], [p]와 가장 많이 결합하여 産出되는 모음은 後舌低母音 [a], 中舌高母音 [i], 前舌中母音 [e]였는데, 그 다중응답 비율은 [a](56.9)>[i](29.5)>[e](12.0)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중에서도 後舌低母音 [a]의 다중응답 비율이 56.9%로 매우 우세하였다. 또한 兩唇鼻音 [m] 뒤에 産出되는 모음의 순위는 後舌低母音 [a], 中舌中母音 [ə], 前舌中母音 [e]의 순이었으며, 그 다중응답 비율은 [a](76.8)>[ə](32.2)>[e](25.8)의 순으로 나타나 兩唇閉鎖音 [b], [p]와 마찬가지로 後舌低母音 [a]의 다중응답 비율이 76.8%로 매우 압도적이었다. 따라

서 兩脣音은 後舌低母音 [a]와 結合하여 調音되는 比率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으며 前舌高母音 [i]와 中舌中母音 [ə]가 각각 兩脣閉鎖音 [b, p]와 兩脣鼻音 [m]에서 2순위로 나타났다. 이러한 研究結果는 兩脣音은 中舌母音과 結合하는 傾向이 강하다고 한 Davis & MacNeilage(1990, 1995)의 結果와 一致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結果를 표와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표-4>, <그림-3,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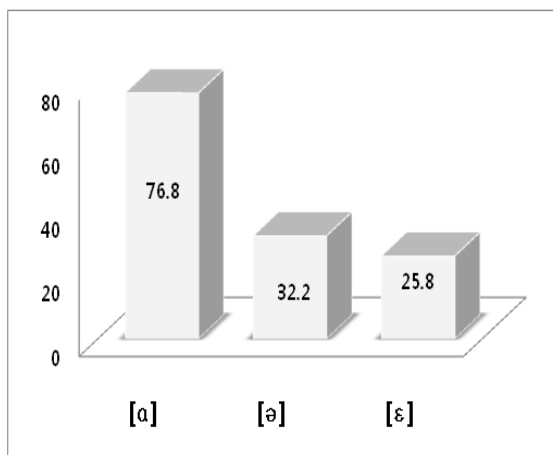
<표 - 4> [b, p], [m], [n], [d, t]와 結合하는 모음의 다중응답 비율(%)

[b, p]		[m]		[d, t]		[n]	
[a]	56.9	[a]	76.8	[a]	48.9	[a]	61.0
[i]	29.5	[ə]	32.2	[e]	32.1	[e]	34.7
[ɛ]	12.0	[ɛ]	25.8	[ə]	12.7	[ə]	17.4

다음으로 齒莖音을 살펴보면 齒莖閉鎖音 [d], [t]와 함께 産出되는 모음은 後舌低母音 [a], 前舌中母音 [e], 中舌中母音 [ə]의 순이었으며 각각의 다중응답 비율은 [a](48.9)>[e](32.1)>[ə] (12.7)이다. 이 중에서도 後舌低母音 [a]의 다중응답 비율이 48.9%로 매우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齒莖鼻音 [n] 뒤에 産出되는 모음도 齒莖閉鎖音 [d], [t]인 경우와 동일하며 다중응답 비율은 [a](61.0)>[e](34.7)>[ə](17.4)의 순이었으며 이 경우에도 後舌低母音 [a]의 다중응답 비율이 61.0%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齒莖音은 兩脣音과 마찬가지로 後舌低母音 [a]와 結合되는 比率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兩脣音과는 달리 前舌中母音 [e]가 2순위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 齒莖音은 주로 前舌母音과 연결되는 傾向이 강하다고 하였지만 우리말의 경우는 後舌低母音 [a]와의 結合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Davis & MacNeilage, 1990, 1995; Oller & Steffens, 1993). 이상의 結果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표-4>, <그림-5>, <그림-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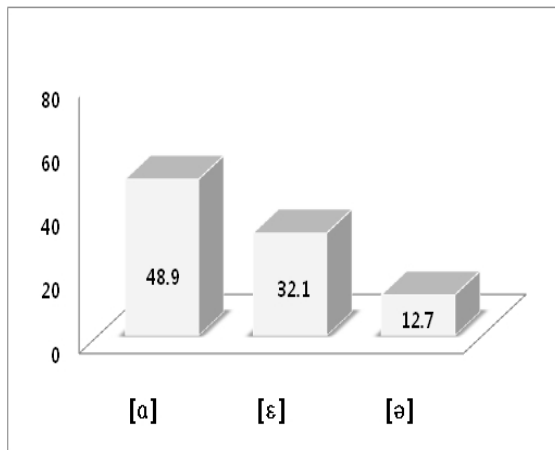
<그림 - 3> [b, p]와 結合이 강한 모음의 다중응답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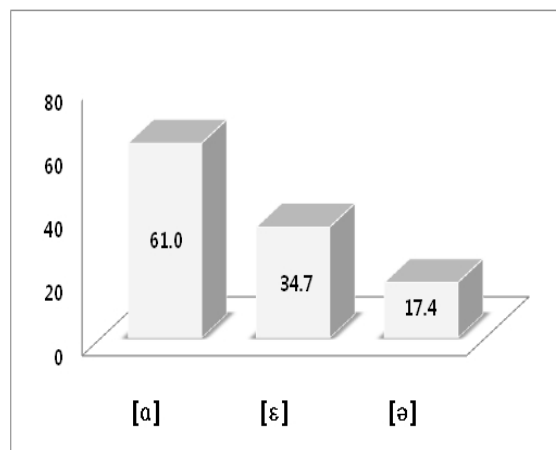
<그림 - 4> [m]와 結合이 강한 모음의 다중응답 비율(%)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1~18개월인 嬰幼兒의 音聲에서 兩脣音 [b], [p], [m]는 後舌低母音 [a]와 結合되는 傾向이 아주 강하게 나타났으며, 齒莖音 [d], [t], [n]도 後舌低母音 [a]와의 結合이 가장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기존 研究結果(Davis & MacNeilage, 1990; MacNeilage & Davis, 1990; de Boysson-Bardies, 1993; Oller & Steffans, 1993)와 차이를 보였다. 결국 우리말의 경우는

선행하는 자음의 調音位置・調音方法에 관계없이 後舌低母音 [a]와 結合하는 傾向이 가장 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後舌低母音 [a]를 제외하면 兩脣音은 中舌母音>前舌母音의 순으로 다중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齒莖音은 이와 반대로 前舌母音>中舌母音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서 후행하는 모음은 선행하는 자음의 調音位置에는 영향을 받지만 調音方法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 5> [d], [t]와 결합이 강한 모음의 다중응답 비율(%)



<그림 - 6> [n]와 결합이 강한 모음의 다중응답 비율(%)

IV. 論議 및 結論

지금까지 1~18개월인 嬰幼兒의 音聲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發聲制約, 즉 調音位置 制約과 선행하는 자음에 따라서 달라지는 후행모음의 制約을 살펴보았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幼兒의 音聲에는 C₁VC₂ 연쇄에서 C₁(初聲)과 C₂(終聲)의 調音位置를 동일하게 産出하는 傾向이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Menn and Stoel-Gammon, 1995). 이를 토대로 분석해 본 우리나라의 1~18개월 嬰幼兒의 音聲에서도 이러한 子音調和 制約이 나타났다. 즉 두 가지 音聲 環境인 동일한 音節(C₁VC₂)인 연쇄와 동일 音節은 아니지만 자음이 서로 이웃하는 연쇄(C₂C₁) 모두에서 선행하는 初聲(C₁)의 調音位置가 후행하는 終聲(C₂)의 調音位置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다중응답 結果를 얻을 수 있었다.

이는 嬰幼兒의 發聲에서 서로 다른 자음의 調音位置를 調音하는 것을 습득하는 데에는 身體的・生理的・言語的인 成熟이 필요하다는 점을 示唆 한다. 따라서 嬰幼兒는 前言語 段階를 넘어서 母國語의 音聲言語 體系를 완전하게 習得하는 段階, 즉 言語 段階에 進入한 때까지 이러한 子音調和의 制約을 넘어설 수 없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調音位置의 制約이 어느 시기부터 사라지게 되며, 또한 정확히 어느 시기부터 成人처럼 서로 다른 調音位置 간의 調音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가는 앞으로 연구해야 할 과제가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살펴본 發聲制約은 후행하는 모음이 선행하는 자음의 調音位置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모음제약이었다. 기존 연구에서 齒莖閉鎖音 [d]와 齒莖鼻音 [n]는 前舌母音과, 兩脣閉鎖音 [b]와 兩脣鼻音 [m]는 中舌母音과 함께 産出되는 傾向이 강한데 이러한 傾向性을 턱의 움직임에 따른 구조(frame)로 설명하고자 하였다(Davis & MacNeilage, 1990; MacNeilage & Davis, 1990). 이와

는 반대로 de Boysson-Bardies(1993)는 兩唇音은 前舌母音과 함께 產出되는 傾向이 매우 높으며, Oller & Steffans(1993)는 齒羣音은 前舌母音과 硬口蓋音・軟口蓋音은 後舌母音과 함께 產出되는 傾向이 강하며, 또한 齒羣音은 高母音과 兩唇音은 低母音과 함께 產出되는 特徵이 있다고 하였다.

1~18개월인 우리나라 嬰幼兒의 音聲에 대한 다중응답 결과는 앞서 살펴본 既存 研究와는 다른 結果를 보였다. 우리말의 경우는 선행하는 자음, 즉 兩唇閉鎖音 [b, p]와 兩唇鼻音 [m], 齒羣閉鎖音 [d, t]와 齒羣鼻音 [n]과 함께 產出되는 후행모음은 선행 자음의 調音位置・調音方法에 관계없이 後舌低母音 [a]와의 結合력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우리말의 경우 後舌低母音 [a]는 어떤 자음이 선행하느냐에 관계없이 매우 우세한 產出을 보인다는 점이다. 다만 後舌低母音 [a]를 제외하면 兩唇音은 中舌母音 [i, e]와 齒羣音은 前舌母音 [e]와 함께 調音되는 경우의 다중응답 비율이 두 번째 순위로 높게 나타났다(Oller & Stecfans, 1993; Davis & MacNeilage, 1990). 끝으로 선행하는 자음의 調音位置는 후행하는 모음에 영향을 미치지만 調音方法은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1~18까지의 嬰幼兒는 身體的・生理的・言語的인 發達이 未熟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펴본 두 가지의 發聲制約이 나타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新生兒는 태어난 뒤 1년이 동안 급격한 身體的・生理的・言語的인 變化, 즉 1) 聲道の 成長, 2) 音聲에 관계하는 腦와 神經系의 發達, 3) 言語 經驗 등을 겪으며 成長하게 되지만 生後 18개월 무렵까지도 이러한 發達이 未熟하며 따라서 成人의 音聲言語 體系에 완전하게 進入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대략 어느 시기가 되면 이러한 發聲制約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音聲言語를 驅使할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한 研究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Davis, B. L., & MacNeilage, P. F. (1990). Acquisition of correct vowel production: a quantitative case study.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33(1): 16-27.
- (1995). The articulatory basis of babbling.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38(6): 1199-1211.
- de Boysson-Bardies, B. (1993). Ontogeny of language specific syllabic productions. In B. de Boysson-Bardies, S. Schonen, P. Jusczyk, P. MacNeilage, and J. Morton (Eds.) *Developmental Neurocognition: Speech and Face Processing in the first year of life* (pp.353-364). NATO ASI Series: Behaviour and Social Sciences Vol. 69. Kluwer Academic Publishers.
- Kent, R. D. (1976). Tutorial: Anatomical and neuromuscular maturation of the speech mechanism: evidence from acoustic studies.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19(3): 421-447.
- MacNeilage, P.F., & Davis, B.L. (1990). Acquisition of speech production: Frames then contents. In M. Jeannerod (Eds.) *Attention and Performance* (Vol. 8: Motor representation and control, pp.452-468). Hillsdale, NJ: LEA.
- Menn, L., & Stoel-Gammon, C. (1995). Phonological development. In P. Fletcher, and B. MacWhinney (Eds.) *The Handbook of Child Language* (pp.335-359). Blackwell Publishing.
- Oller, D. K., & Steffens, M. L. (1993). Syllables and segments in infant vocalizations and young child speech. In M. Yavas (Ed.), *First and second language phonology* (pp. 45-61). San Diego: Singular Publishing Group.
- Stark, R.E. (1980). Stages of speech development in the first year of life. In G. Yeni-Komshian, J.

- Kavanagh, and C. Ferguson (Eds.) *Child Phonology* (Vol.1. pp.73-92). New York: Academic Press.
- Stoel Gammon, C. (1985). Phonetic inventories, 15-24 months: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28(4): 505-512.
- (1998). Role of babbling and phonology in early linguistic development. In A.M. Wetherby, S.F. Warren, and J. Reichle (Eds.) *Transitions in prelinguistic communication* (pp.87-110). Baltimore, Md: Paul H. Brookes Publishing.
- Vihman, M.M., Ferguson, C.A., & Elbert, M. (1986). Phonological development from babbling to speech: common tendencies and individual differences. *Applied Psycholinguistics*, 7(1): 3-40.
- Vihman, M., & Greenlee, M. (1987). Individual differences in phonological development: ages one and three years.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Research*, 30: 503-521.

제현성과 영주어 언어

엄홍준(중앙대학교)

1. 서론

이 글의 목적은 A'-이동 혹은 A'-결측과 관련된 제현 대명사의 양상을 알아보고 A-이동과 관련된 복사 인상도 제현 대명사의 양상에 포함될 수 있을지를 검토해 본다. 아울러 이들 양상을 유형적으로 분류해 보고자 한다.

제현성과 복사 인상이 나타나는 언어가 영주어 언어라는 것을 주장.

2. 제현 대명사

- (1) a. There are guests who I am curious about what **they** are going to say.
b. *There are guests who I am curious about what **t** are going to say.
- (2) a. ecco la ragazza [che mi domano chi crede [che **pro** possa VP]
this is the girl who I wonder who thinks that she may VP
b. *ecco la ragazza [che mi domano chi crede [che **t** possa VP]
이탈리아어 (Chomsky, 1981, Bouchard 1983)
- (3) a. 이 사람은 **pro** 어제 영화를 보았는지를 모두들 궁금해 하는 사람이다.
b. 이 사람은 **t** 어제 영화를 보았는지를 모두들 궁금해 하는 사람이다.

제현 대명사는 일반적으로 섬(island) 조건을 위배하는 문장에서 이 위반을 구제하는책략의 일환으로 사용된다고 알려져 있다. 즉 Chomsky(1981)에서, 제현 대명사는 이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지 생성된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 (4) Vilket ord visste ingen hur det stravas ____ ?
which word knew no one how it spelled
'Which word did nobody know how it is spelled?' (Swedish)

Engdahl(1985)에서는 (4)와 같은 예를 들어 제현 대명사도 이동과 관련이 있음을 주장한다. 그래서 그는 다음 같이 제현 대명사의 특징을 설명한다.

- (5) a. 기생 공범주를 인히한다.
b. 약교차현상이 나타난다.
c. ATB 조건을 만족시킨다.
d. 하위 인접 조건을 약화시킨다.
e. 시제질의 주어 위치에서만 일어난다.

- (5) ?* Viken bil åt du lunch med någon som körde den?

which car ate you lunch with someone that drove it
 'Which car did you have lunch with someone that drove?'

이러한 우리의 논의가 옳다면 제현 대명사는 하나로 통합된 이론 하에서 다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제현 대명사의 실현은 우리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6) a. 기지 생성된 외현 제현 대명사
- b. 기지 생성된 내현 제현 대명사
- c. 이동에 의해 생성된 외현 제현 대명사
- d. 이동에 의해 생성된 내현 제현 대명사

(6a) 기지 생성된 외현 제현 대명사
 There are guests who I am curious about what *they* are going to say.

(6b) 기지 생성된 내현 제현 대명사
 a. ecco la ragazza [che mi domando chi crede [che **pro** possa VP]
 b. 이 사람은 **pro** 어제 영화를 보았었는지를 모두들 궁금해 하는 사람이다.

(6c)와 (6d)³⁾ 이 둘은 외형상의 모양만 다를 뿐 wh-흔적처럼 행동한다.
 a. Vilket ord visste ingen hur det stravas ____ ?
 b. ?* Viken bil åt du lunch med någon som körde den? (Swedish)

3. 복사 인상(Copy Raising)

인상은 이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요소가 기지 생성된다는 것을 배제한다. 그래서 이러한 종류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유형으로 대별된다.

- (7) a. 외현적인 인상 구문
- b. 내현적인 인상 구문

(7a) 외현적인 인상 구문
 주어 인상 구문
 a. Jan sanble li pati
 'John seems he leaves'
 b. pro sanble Jan pati
 'It seems that John left'
 c. *Jan sanble pati

3) 이동을 하고 난 후에 그 흔적을 wh-흔적 그리고 pro로 구별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즉 둘 다 같은 성질의 공범주인데 즉 음성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것이고 둘 다 결국 변항적인 성질을 띤다고 가정되고 있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 둘의 구별이 가능한지는 의문이다.

'John seems leave' 아이티 크레올 (Vivian Deprez, 1992)

목적어 인상 구문

Afisa **ton yani** na kerdisi **aftos** o idios to pegnidi.
 let/1Sg John/ACC SUBJ win he himself the game
 'I let John himself win the game.'
 (Literally: 'I let John that he himself win the game.'

(7b) 내현적인 인상 구문

주어 인상 구문

- a. San-a **çocuk-lar** sùt-ù **iç-ti-ler** gibi gel-di-Ø
 You-DAT child-PL-NOM milk-ACC drink-PST-3PL like-seem-PST-3SG
 'It seemed to you that the children drank the milk.'
- b. **Biz** san-a sùt **iç-ti-k** gibi **görün-dü-k**
 we-NOM you-DAT milk drink-PST-1PL like appear-PST-IPL
 'We appeared to you to have drunk milk' (Mulder 1976)
- c. **Biz_i** san-a [_{CP} **pro_i** sùt iç-ti-k] gibi görün-dü-k

목적어 인상 구문

- (8) a. **Sen-i** öl-dü-n san-ıyor-du-m.
 you-ACC die-PST-2SG believe-PROG-PST-1SG
 (Brendemoen and Csató 1986)

- b. **Sen-i_i** [[**pro_i** öl-dü-n] san-ıyor-du-m]

목적어 인상의 근거

- (9) a. **Biz_i** **birbirmiz-i_i** [[**pro_i** viski iç-ti-k] san-ıyor-uz]
 we-NOM_i each other-ACC_i whiskey drink-PST-1PL believe-PROG-1P
 b.***Biz_i** [[**birbirmiz_i** viski iç-ti-k] san-ıyor-uz]
 we-NOM_i each other-NOM_i whiskey drink-PST-1PL believe-PROG-1PL

지금까지의 우리의 논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0)

	외현적 표시	내현적 표시
재현 대명사(A'-이동, 결속)	일반 대명사	pro
복사 인상(A-이동)	일반 대명사	pro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A'-이동이나 결속의 결과인 재현 대명사와 A-이동의 결과인 복사된 대명사가 그 모습이 같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A-이동의 결과물인 복사 대명사도 재현 대명사와 같이 취급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11) 재현 대명사와 복사 인상의 공통점

1. 재현 대명사는 that - 혼적 효과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복사 인상은 정형질 효과(시제질 조건)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2. 재현 대명사는 (언어에 따라) 심 효과를 제거한다.
복사 인상은 (언어에 따라) 초인상 구문을 가능하게 한다.

이 논문에서는 재현성 현상과 복사 인상을 보이는 언어가 진정한 영주어 언어(pro-탈락 언어)라는 것을 밝히려고 한다. 예를 들어 한국어는 재현 대명사가 내현적으로 표시되면 복사 인상도 또한 내현적으로 표시된다. 반대로 영어와 같은 언어에서는 재현 대명사가 외현적으로 표시되지만 복사 인상 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12) Pro- drop 언어에서 발견되는 특징.⁴⁾

- a. 생략주어
- b. 단순문에서의 자유로운 도치
- c. 주어의 원거리 WH-이동
- d. 네포질에서 공 재현 대명사
- e. *[that-t]이좌에 대한 의견상 위반 (Chomsky 1981, Bouchard 1984)

위의 사항에 대한 실례는 다음과 같다.

(13) a. ho trovato il libro

4) 지금부터의 논의는 엄홍준(2010)을 참조했음을 밝힌다.

- I found the book
- b. *che mangiato (Giovanni*
(Giovanni ate
- c. *l'uomo [che mi domando chi abbia visto]]*
the man x such that I wonder who x saw
- d. *ecco la ragazza [che mi domando chi crede [che possa VP]*
'this is the girl who I wonder who thinks that she may VP'
- e. *chi credi [che partirà]*
who do you think [(that) will leave]

그렇다면 한국어는 어떻게 대응되는지를 먼저 (13a)를 살펴보면서 알아보기로 하자. 한국어와 같은 언어가 *pro*-탈락 언어가 아니라는 것에 가장 큰 이유가 되는 구문이다. 즉 다음과 같은 문장은 미문이 된다.

- (14) a. **pro* 책을 읽었다.
- b. **pro* read the book.

한국어와 같은 언어는 문절소가 풍부하게 발달하지 못하여 위의 이탈리아어와 같은 언어와는 달리 ‘영주어’를 복구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음의 예를 보기로 하자(Yoon 1998)

- (15) a. *칠수가 [pro 가겠다고] 말했다.*
- b. **John said that pro will go.*

근문(root sentence) 또는 단순문에서는 *pro*의 출현이 미문이 되지만 대포절에서는 (38a)에서 보는 것처럼 정문이다. 이 위치는 주어 위치이고 격을 받는 위치이어서 *pro*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된다.

또 다른 예가 있는데(예문 (14b)가 여기에 해당된다.) 임흥민(1985), 서정목(2000)에서 소위 상황 공범주라고 불리는 요소가 들어 있는 구문이 그것이다.

- (16) a. *pro* 할아버지께서 노인정에 가신 것 같다.
- b. **pro* seems that John went home.
- c. It seems that John went home.

(16)은 5문에서도 *pro*가 주어로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조적으로 영어에서는 이 구문과 대응되는 구문은 미문이 된다. 이렇듯 한국어는 *pro*가 주어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구문이 상당히 많은 듯하다. 한편 이 자리는 *PRO*가 올 수 없는 자리인데 *PRO*는 의미의 위치에만 나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16a)의 *pro*는 *PRO*로 대체될 수 없는 것이다.

Pro-탈락 언어의 또 다른 특징은 단순문에서의 도치인데 한국어에서는 이러한 도치가 아주 자유롭게 이루어진다.

- (17) c. 밥을 먹었다 *칠수가*.⁵⁾

5) 이 공범주가 무엇인지는 더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것이 통상적인 명사구 흔적이라면 이 위치는 격

(13c)-(13c)의 특징을 지닌 구문은 한국어에서도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18) a. 내가 [t 누구를 만났는지] 궁금해 하는 남자.
b. 이 사람은 내가 [pro 어제 영화를 보았었는지를] 궁금해 하는 사람이다.
c. 누가 너는 [t 떠났다고] 생각하니?

Jacgli와 Saffir(1989)에서는 한국어 등과 같은 언어도 영주어 언어라고 제한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설명 이외에 복사 인상이 허용되는 언어가 영주어 언어의 특징이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

정리)

1. 제현 대명사 현상에 따른 언어 분류
2. 복사 인상 현상에 따른 언어 분류
3. 1, 2 현상을 보이는 언어가 진정한 영주어 언어.

<참고문헌>

- 서정목. 2000. 민형과 제약. 서울: 태학사.
- 임홍준. 2010. 명사구 이동과 pro. 현대문법연구,
- 임홍민. 1985. '국어의 통사적인 공범주에 대하여,'어학연구 21, 331-384.
- Brendemoen, Bernt and Eva A. Castó. 1986. 'The Head of S in Turkish: A Comparative Approach to Turkish Syntax', In Ayan Aksu-Koç and Eser Erguvanli-Taylan eds., *Proceedings of the Turkish Linguistics Conference.* 85-100, Boğaziçi University Publication, Istanbul.
- Chomsky, Noam.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 Foris.
- Deprez, Viviane. 1992. 'Raisig Construction in Haitian Creole,'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10, 191-232.
- George, Leland M. and Jacklin Kornfilt. 1981. 'Finiteness and Boundedness in Turkish', in *Binding and Filtering*, ed., Frank Heny, 105-127. Cambridge Mass.: MIT Press.
- Kim, Dong Suk and Yong Ha Kim. 2003. 'Korean ECM Consruction and the Theory of Phase,' *Studies in Modern Grammar* 33, 47-77.
- Lasnik, Howard. 1995. 'Case and Expletives Revisited: On Greed and Other human Failings,' *Linguistic Inquiry* 26, 615-633.
- Moore, John. 1998. 'Turkish Copy-raising and A-Chain Locality', *Natural Language*

을 인허받는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고 있는 것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이 위치를 pro 라고 보아야하는데 이렇게 되면 '철수가'의 위치가 어디인가에 대한 의문이 발생한다. 즉 논항 위치라면 pro는 결속 이론 B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을 위반하게 되어 pro가 될 수 없다. 만약 이 위치가 비논항 위치라면 이 흔적은 변항 이 되어야 한다.

- and *Linguistic Theory* , 16, 149-189.
- Mulder, Jean. 1976. 'Raising in Turkish', in *Proceedings of the Second Annual Meeting of the Berkeley Linguistic Society*, eds., Cathy Cogen et al. 298-307. The Berkeley Linguistic Society,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y.
- Postal, Paul. 1974. *On Raising: One Rule of English Grammar and its Theoretical Implications*. Cambridge, Mass.: MIT Press.
- Radford, Andrew. 1981. *Transformational Syntax*.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anaka, Hidekazu. 2002. 'Raising to Object out of CP,' *Linguistic Inquiry* 33, 637-652.
- Yoon, Hang-Jin. 2004. 'ECM in Korean', *Studies in Modern Grammar* 37, 27-57.
- Yoon James Hye-Suk. 1996. 'Ambiguity of Government and the Chain Condition',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 14, 105-162.

한국어 보조용언 구문의 통합관계

이정훈(서강대학교)

I. 서론

(1) 목적

가. 한국어 ‘V-어 V’ 보조용언 구문의 통합관계를 밝힘 (= 구조 규명)

나.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보조용언 구문의 특성에 대한 해명

(2) 몇 가지 견해들

가. Choe(1988) : 복문구조, 재구조화.

김영희(1993:184-186) - 보조용언 [+DPN], 보조용언 구성과 의존명사 구성의 평행성

유승섭(1996:1080)

엄정호(1999) - ‘-어’는 C가 아니라 I. 본용언에 시제 선어말어미 통합 불가. 보문 = IP

양정석(2005) 등

cf. Ross(1969) - Auxiliaries as Main Verbs, Radford(1988)[서정목 외 옮김
(1990:209-210)]

나. Kang(1988)[강명윤(1992)] : VP-Shell 구조, 형태론적 폐쇄

김미경(1990) : [S [NP 순이가] [VP [VP 책을 읽어] 보았다]]. cf. 김미경(1990)의 (8), (30).

다. 김기혁(1991) : “... 보조동사 구성 ‘V V_{AUX}’는 형태적 구성과 통어적 구성의 양면성을 지닌 형태

.통어적 구성[cf. (50)] ... ‘단어’와 ‘구’의 특징을 동시에 지닌 ‘단어’와 ‘구’ 사이의 중간 범주의

존재를 상정”(김기혁 1991:251).

(63) ㄷ. [VP [Adv 빨리] [V' [V' [V' [V 꺼내] [V_{AUX}보아] [V_{AUX}주어] [V_{AUX}버려라]]]]]

황병순(1987) - 복합동사

최기용(1991) - X⁰-Subcategorization

라. 최웅환(1994) : “... 보조용언 구성에서의 배합표지 ‘아/어’는 ... VP구의 지정어로 보고자 한다. ... 보조용언은 ... 굴절형태(IP)의 한 핵 성분으로 볼 것이다”(최웅환 1994:78-80)

손세모돌(1996) - “이상에서는 보조용언의 구문에서의 위치를 X(AUX)의 위치라고 보았다.

... 이 위치를 더 세분화하면 보조용언은 시상 표현의 선문말형태와 함께 M이라는 범주 속에 포함될 수 있고 ... 최근의 핵계층 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단순문의 구문구조에서도 이러한 보조용언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자리를 볼 수 있다. 그 자리는 I'다”(손세모돌 1996:113)

(3) 주장

가. ‘V-어 V’ 보조용언 구문은 ‘접속’과 ‘내포’의 두 가지 구조적 가능성을 지님

나. 두 가지 구조의 가능성으로 보조용언 구문의 특성을 해명할 수 있음

2. 보조용언 구문의 두 가지 구조

(3) 기본적인 입장

- 가. 공식적으로 용언은 일반적인 용언으로 쓰이거나 합성동사 형성
- 나. 보조용언은 문법화를 겪는/겪은 형식. VP 층위에서 INFL 층위로의 변화
따라서 VP 층위와 INFL 층위의 중간 층위적 요소
cf. 조동사(옥태권 1988 등), 형식명사와 보조사의 겹침(최형용 1997 등)
보조용언의 접미사화(이현희 2009 등)
- 다. 일반 용언 > 합성동사 형성 용언 > 보조용언
상황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보조용언은 합성동사적 보조용언(김윤신 2008)
- 라. 또는 일반 내포절 구성의 모문 동사 > 보조용언
엄정호(1990)의 SEA 구문
철수는 학교에 갔나 싶다. 철수는 숙제를 다 했나 보다.
철수가 그 일을 하지 않았나 한다. (이상 엄정호 1990/2005:16 (1)의 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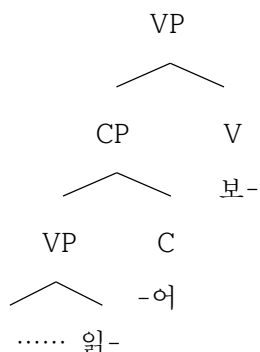
(4) 두 가지 구조의 가능성

- 가. 어미는 하위범주화 자질은 지니지만 의미역은 지니지 않음
- 나. 따라서 어미는 VP와도 병합할 수 있고, V⁰와도 병합(어간접속 구성)할 수 있음
사건(event) 혹은 상황(situation) 의미역을 가정하면 VP와만 통합?
그렇지 않음. 사건, 상황이 VP가 아니라 V에 대응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또한 합성동사와 연속동사를 고려하면 '-어'는 V⁰와 병합할 수 있다고 해야 함
- 다. 어간접속 구성의 동기
참기름과 고추장을 짜고 담그다.
사람들이 철수를 마루에 꿰어앉히었다. (이상 이정훈 2007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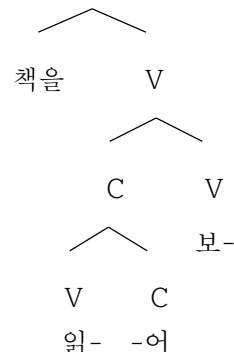
(5) 두 가지 구조 : 철수가 책을 읽어 보았다.

가. 내포

V'



나. 접속



(6) 접속의 구조

- 가. 여러 견해에 대한 소개 : Progovac(2003), 이정훈(2008가) 등 참고
- 나. 입장 : 부가구조 (이정훈 2008가 참고)

(7) 접속구조의 장점 1

- 가. 격교체
철수가 {만화를, 만화가} 읽고 싶다. cf. 엄정호(2003)
- 나. 분석 : 접속구성 즉 어간접속 분석
① 어간접속 : [v₀ 읽-고 싶-]

② 논항합성 : 읽-(Ag, Pa) + 싶-(Ex, Pa) = 읽고 싶-(Ag/Ex, Pa). cf. 허철구(1997) 등

③ 격자질 합성 : 읽-(가, 를) + 싶-(가, 가) = 읽고 싶-(가, 를 or 가)

⇒ 형용사

⇒ {만화들, 만화가}

cf. 내포구성 분석 : 이정훈(2004) 참고

(8) 접속구성의 장점 2

가. 논항실현 ⇒ 필수 논항 추가

철수가 (*영이에게) 책을 읽었다.

철수가 영이에게 책을 읽어주었다.

나. 내포구성에서는 논항합성 불가능

모든 동사의 논항이 내포문에 실현될 수 없음

다. 논항합성은 접속구성 즉 어간접속 분석에서 가능. cf. 연속동사 구성

<참고문헌>

강명윤(1992), 한국어 통사론의 제문제, 한신문화사.

김기혁(1991), 형태·통어적 구성과 중간 범주, 동방학지 71·72, 233-258.

김미경(1990), 국어 보조동사 구문의 구조, 언어 15, 31-48.

김영희(1993), 의존 동사 구문의 통사 표상, 국어학 23, 159-190.

김윤신(2008), 상 보조 용언 구성 '-어 가다'/'-어 오다'의 의미, 언어학 52, 57-78.

김지홍(1993), 국어 부사형어미 구문과 논항구조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손세모돌(1996), 국어 보조용언 연구, 한국문화사.

양정석(2005), 한국어 통사 구조론, 한국문화사.

양정석(2007), 보조동사 구문의 구조 기술 문제, 한국어학 35, 65-120.

엄정호(1990), 종결어미와 보조동사의 통합구문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엄정호(2005)에 재수록]

엄정호(1999), 동사구 보문의 범위와 범주, 국어학 33. [엄정호(2005)에 재수록]

엄정호(2003), '-고 싶다' 구문의 격 교체, 국어학 41, 169-195. [엄정호(2005)에 재수록]

엄정호(2005), 국어의 보문과 보문자, 태학사.

옥태권(1988), 국어 상조동사의 의미 연구,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유승섭(1996), 국어 보조동사 구문의 통사구조 재론, 언어 21-4, 1061-1083.

이정훈(2004), 국어의 문법형식과 통사구조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강대학교. [이정훈(2008나)에 재수록]

이정훈(2007), 국어 어미의 통합단위, 한국어학 37, 149-179. [이정훈(2008나)에 재수록]

이정훈(2008가), 한국어 접속문의 구조, 생성문법연구 18, 115-135. [이정훈(2008나)에 재수록]

이정훈(2008나), 조사와 어미 그리고 통사구조, 태학사.

이정훈(2009), 한국어 보조용언 구문의 구조, 발표문, 2009년도 무자년 한국생성문법학회 학술대회, 건국대학교.

이현희(2009), 보조용언의 범주 분화와 접미사로의 이동, 국어학 54.

최용환(1994), 보조용언 구성의 형성적 원리, 문학과 언어 15, 65-82.

최형용(1997), 형식명사·보조사·접미사의 상관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황병순(1987), 국어의 상 표시 복합동사 연구, 형설출판사.

Choe, Ilyon-Sook(1988), 'Restructuring' in Korean, *Language Research* 24-4, 504-538.

Choi, Ki-Yong(1991), A Theory of X^0 -Subcategorizatio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Kang, Myung-Yoon(1988), Topics in Korean Syntax - Phrase Structure, Variable Binding and Movement, Doctoral Dissertation, MIT.

Radford, A.(1988), *Transformational Grammar - A First Course*, Cambridge University Press. [서정목 · 이광호 · 임홍빈 옮김(1990), 변형문법 - 그 만남의 첫 강좌, 을유문화사]

Ross, J.(1969), Auxiliaries as Main Verbs, *Studies in Philosophical Linguistics* 1, 77-102.

이동 통제 이론과 한국어

김용하(안동대학교)

1. 들머리

- ◆ 이동 통제 이론에 대한 고찰
- ◆ 이동 통제 이론의 적용 사례
- ◆ 한국어 통제 구문의 체문제
- ◆ 한국어가 이동 통제 구문에 대해 던지는 문제들

2. 통제 이론의 변천

- ◆ Chomsky(1981)의 PRO 정리(PRO theorem)

(1) PRO는 지배되지 않는다.

- ◆ PRO 정리는 왜 필요한가?
- PRO는 대명사적 조응사(pronominal anaphor)이다.
- PRO는 결속 조건 A와 B를 동시에 만족시켜야 한다.

(2) 결속 조건

- A: 조응사는 그 지배범주 안에서 결속되어야 한다.
- B: 대명사는 그 지배범주 안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 C: 지시적 표현(R-expression)은 자유로워야 한다.

- PRO 정리로써 PRO를 결속 조건으로부터 해방시킨다.

- ◆ 최소주의 프로그램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지배라는 개념이 폐기되자 더 이상 PRO 정리로써 PRO의 분포를 설명할 수 없게 됨.

- ◆ Chomsky · Lasnik(1993): PRO는 영격(null Case)을 부여받는다.

(3) ㄱ. We never expected [PRO to be found *t*].
 ㄴ. *We never expected [PRO to appear to *t* that Sally left].

- 지배되지 않는 것이 PRO의 핵심 속성이라면 (3ㄴ)에서의 이동은 허용되어야 한다.
- 만일 PRO도 격을 부여받는다고 한다면 (3ㄱ)은 전형적인 수동문의 예이고 (3ㄴ)은 아래 (4)와 똑같은 방식으로 격 점검 기제에 의해 배제된다.

(4) * We never expect that Sally will appear to *t* that

- 이 영격 분석은 가시성 조건의 이접성을 없앨 수 있다.

(5) 사슬은 격 위치를 담고 있거나 **PRO**에 이끌린다면, θ -표시에 가시적이다.

◆ Martin(2001)의 비판: 어떤 부정사 T든 다 영격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Chomsky · Lasnik(1993)의 제안은 **PRO**의 분포를 온전히 설명할 수가 없다.

(6) ㄱ. Naomi tried to solve the problem
 ㄴ. *Naomi believes to have solved the problem.

● Stowell (1982): 통제 부정사 절의 시간적 속성은 인상 부정사 절의 시간적 속성과 다르다.

(7) ㄱ. Ginny remembered to bring the beer.
 ㄴ. Zagallo believed Ronaldo to be the best.

● Martin (2001): Stowell (1982)에 따르면, 부정사 절은 두 유형으로 분류된다(cf. Chomsky 2001).

(8) ㄱ. 시제 부정사 절: [+tense, -finite], 영격을 부여할 수 있음.
 ㄴ. 비시제 부정사 절: [-tense, -finite], 영격을 부여할 수 없음.

3. 이동 통제 이론

◆ Hornstein(1999)의 영격 비판: 영격은 크게 두 가지 문제를 갖는다.

(9) ㄱ. 영격은 오로지 **PRO**라는 단 하나의 언어 형식에만 들어맞는다. **PRO**가 어휘적 NP가 아닌 공범주이어서 영격을 받아야 한다면 마찬가지로 논리가 **wh**-흔적 같은 다른 공범주에 대해서도 적용되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ㄴ. 부정사 절의 T(혹은 **INFL**)만이 영격을 점검할 수 있다. 이는 **PRO**가 부정사절의 지정어 위치에 나타난다는 것을 재진술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 Hornstein(1999): 사슬이 2개 이상의 의미역을 가질 수 있다면, 그리고 의미역의 수가 도출의 과정에서 증가될 수 있다면, 의무적 통제(OC; obligatory control) 구문의 **PRO**를 NP-흔적과 구별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 Hornstein(1999): **PRO**는 이론-내적인 구성물에 지나지 않는다. **PRO**는 명사구-흔적이나 **wh**-흔적과 유사하며 내용적으로 이 세 가지 공범주는 $[NP\ e]$ 라는 동일한 꼴을 갖고 있다고 파악되어 왔다. 흔적들의 지표는 이동으로부터 도출되며 **PRO**의 지표는 통제 모듈을 통해서 부여된다. 하지만 최소주의 프로그램의 지침에 따르면 흔적이 존재할 이유조차 별로 존재하지 않는다. 흔적들은 문법적 형성소(grammatical formative)가 아니라 어휘적 요소의 복사물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곧 흔적들이 $[NP\ e]$ 와 같은 독립적인 꼴을 갖춘 것이 아님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할진대 **PRO**가 $[NP\ e]$ 의 꼴을 갖고 있다는 것도 성립될 수 없다. 결국 OC **PRO**는 명사구-흔적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영가설에 부합한다.

● 의무적 통제 구문에 대한 이동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가정들이 필요하다.

(10) ㄱ. 의미역은 동사의 자질이다.

ㄴ. 탐욕(Greed)이란 개화된 이기성(Enlightened Self-Interest)이다.

ㄷ. D/NP는 자신과 병합되는 동사/서술어 구의 의미역-자질을 점검함으로써 의미역을 “받는다.”

ㄹ. 한 사슬이 가질 수 있는 의미역의 수에는 상한선이 없다.

ㅁ. 측면 이동(sideward movement)이 허용된다.

● (10)의 가정들이 가진 미덕은 통제에 대한 문법을 근본적으로 단순화시키고 OC 구조의 기본 속성들을 도출해 낸다는 것이다. 즉 (10)에 의해 통제 구문은 이동 구문으로 환원될 수 있다.

● 의무적 통제 구문의 특성들이 이동분석에 의해 모두 포착된다.

(11) 선행사의 필수성

*It was expected PRO to shave himself.

(12) Rosenbaum(1967)의 최단거리 원리(Minimal Distance Principle) = 최소연결 조건(Minimal Link Condition)

ㄱ. NP₁ [V [PRO₁ ...]]

ㄴ. *NP₁ [V NP₂ [PRO₁ ...]] = *NP₁ [V NP₂ [_{t1} ...]]

(13) 성분-통어 요건

*John's campaign expects PRO to shave himself.

(14) 분리 선행사 금지

*John₁ told Mary₂ PRO₁₊₂ to wash themselves/each other.

(15) 불완전 동일성(sloppy identity) 해석

ㄱ. Mary seems to be happy and Sally does too.

ㄴ. John expects to win and Bill does too.

(16) 자아 해석(*de se* reading)

The unfortunate expects PRO to get a medal.

(17) 공변 해석(covariant interpretation)

Only Churchill remembers PRO giving the BST speech.

● 비의무적 통제(NOC): Hornstein(1999)은 NOC PRO가 pro와 동일한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가정한다.

(18) 선행사 불필요

It was believed that PRO shaving was important.

(19) 최단거리 원리 준수 불필요

John₁ thinks that it is believed that PRO₁ shaving himself is important.

(20) 성분-통어 요건 불필요

Clinton's campaign believes that PRO keeping his sex life under control is necessary for electoral success.

(21) 분리 선행사 가능

John told Mary that [PRO washing themselves/each other] would be fun.

(22) 엄밀 동일성(strict identity) 해석

John thinks that [PRO getting his resume in order] is crucial and Bill does too.

(23) 비자아(non-de se) 해석

The unfortunate believes that PRO getting a medal would be boring.

(24) 불변 해석

Only Churchill remembers that [PRO giving the BST speech] was momentous.

● 통제 구문에 대한 이동 분석의 예

(25) ㄱ. John hopes to leave.

ㄴ. [IP John [vP John [vP hopes [IP John to [vP John leave]]]]]

(26) ㄱ. John persuaded Harry to leave.

ㄴ. [IP John [vP past [vP John v+persuaded [vP Harry persuaded [IP Harry [to [vP Harry leave]]]]]]]

4. 이론의 적용과 확장

◆ Polinsky · Potsdam(2002): 체즈 어(Tsez)의 역행 통제(backward control)

(27) ㄱ. kid-bā ziya b-išr-a y-iči-s

girl.II-ERG cow.III.ABS III-feed-INF II-continue-PAST.EVID

ㄴ. Spell-out: [IP [vP [IP girl [vP girl cow feed]] continued]]

ㄷ. LF: [IP girl [vP girl [IP girl [vP girl cow feed]] continued]]

◆ Boeckx · Hornstein(2006), Boeckx · Hornstein · Nunes(2010): 아이슬란드어의 격 표시 통제 구문

● Sigurðsson(1991): 아이슬란드어의 PRO는 격 표시된다.

(28) ㄱ. Strákarnir vonast til [að PRO komast allir í skóla]

the.boys.MASC.PL.NOM hope for to get all.NOM to school

“The boys hopes to manage to get to school.”

ㄴ. Strákarnir vonast til [að PRO vanta ekki alla í skóla]

the.boys.MASC.PL.NOM hope for to lack not all.ACC in school

“The boys hopes to be all absent from school.”

ㄷ. Strákarnir vonast til [að PRO leiðast ekki öllum í skóla]

the.boys.MASC.PL.NOM hope for to be.bored not all.DAT in school

“The boys hopes to be all bored in school.”

(29) Jón vonast til að leiðast ekki einum

Jón.NOM hopes for to be.bored not alone.DAT

ㄱ. 주어 NP와 이차 술어의 병합

[J-[Case?]] alone[Case?, ϕ ?]

ㄴ. 일치(concord)

[J-[Case?]] alone[Case?, ϕ MASC.SG]]

ㄷ. 내포절 동사 병합 + 기격(quirky Case) 부여

[vP be.bored [J-[Case:DAT]] alone[Case:DAT, ϕ MASC.SG]]]

ㄹ. 병합과 이동의 적용

[vP v [vP hope [CP C [IP J-[Case:DAT]] not to be.bored [J-[Case:DAT]] alone[Case:DAT, ϕ MASC.SG]]]]]

[_{VP} J-_[Case:??] v [_{VP} hope [_{CP} C [_{IP} J-_[Case:DAT] not to be.bored [_{J-_[Case:DAT] alone_[Case:DAT, φ:MASC.SG]]]]]]}

$$[\Pi^? \text{I}_{[\phi?]}] \text{ v } [\text{v}^? \text{J}_{[\text{Case}^?]}] \text{ v } [\text{v}^? \text{hope}] \text{ k } [\text{v}^? \text{C}] \text{ } [\Pi^? \text{J}_{[\text{Case}^? \text{AT}]}] \text{ not to be bored } [\text{J}_{[\text{Case}^? \text{AT}]} \text{ alone}_{[\text{Case}^? \text{AT}, \phi^? \text{MASC} \text{S}]}]]]$$

[_{NP} J-_[Case:NOM] I_[φ?] [_{VP} J-_[Case:?] V [_{VP} hope [_{CP} ... alone_[Case:DAT, φ:MASC.SG]]]]]

- (30) *Soko-no sotugyoosei-ga [mittu-izyoo-no diagaku-ni syutugansi-yoo to] sita.
it-Gen graduate-Nom three-or.more-Gen university-Dat apply-will that did
"Their graduates tried to apply to three or more universities."

- (32) Y-Dat/Acc X-Nom [<Y> <X> <Y> ...]
- (III) 뒤섞기 (I) 뒤섞기
- (II) 통제자의 이동

- ## 5. 이동 통제 이론의 문제점들

- (33) $\neg$. John promised Mary to leave.
 $\sqsubset$. We vowed to our leader to be loyal.
 $\sqsubset$. The prisoner asked the guard to smoke one more cigarette.
 $\sqsupset$. John proposed to Mary to help her with the arrangements.

- Hornstein(1999), Boeckx · Hornstein(2003): “promise”-류 통제는 통제의 핵심적인 예가 아니다.
- C. Chomsky(1969)에 따르면 “promise”-류 통제는 언어습득 과정에서 상당히 늦게 배워진다고 한다. Courtenay(1998)에 따르면 심지어 성인이 되어서조차 “promise”-류 동사의 주어 통제를 습득하지 못하는 사례가 더 많다고 한다(84명의 피험자 중 52명). “promise”의 목적어에는 사실 영전치사가 결합되어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34) ㄱ. John promised [P_{null} Mary] [to leave early].
 ㄴ. John vowed/committed [to Mary] [to leave].

(35) ㄱ. John seemed to Mary to be tired.
 ㄴ. John struck [P_{null} Mary] as tired.

- 하나의 사슬에 2개 이상의 격과 2개 이상의 의미역이 부여될 수 있는가?

(36) [_{IP} John₁ [_{VP} John₂ [_{VP} hopes [_{IP} John₃ to [_{VP} John₄ come]]]]]

- (36)에서 “John₁”이 이끄는 사슬에는 두 개의 의미역이 주어져 있다(행위주, 대상). 하나의 사슬에 두 개의 의미역이 있다는 것이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 어떻게 “John₁과 John₂”는 행위주로, “John₃과 John₄”는 대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한 가지 가능한 대답은 사슬이라는 개념을 없애 버리는 것이다.

(37) ㄱ. Strákarnir vonast til [að PRO vanta ekki alla í skóla]
 the.boys.MASC.PL.NOM hope for to lack not all.ACC to school
 “The boys hopes to manage to get to school.” (아이슬란드 어; Sigurðsson 1991)
 ㄴ. Rina himlica le-Gil [še- PRO ya'avod yoter kaše]
 recommended to- that will-work more hard
 “I recommended to Gil to register to the linguistics department.” (히브리어; Landau 2004)
 ㄷ. I Maria prospathise [PRO na divasi]
 the tried PRT read
 “Maria tried to read.” (그리스 어; Landau 2004)
 ㄹ. L-am îndenmat [ca de mâne PRO să meargă la scoală cu bicicleta]
 him-I have urged that from tomorrow PRT go to school with the.bike
 “I urged him to ride his bike to school from tomorrow on.” (루마니아 어; Landau 2004)
 ㅁ. Hiroshi-wa [PRO nattoo-o taberu koto]-o kessinsita
 -TOP nattoo eat C -ACC decided
 “Hiroshi decided to eat natto.” (일본어; Fujii 2006)
 ㅂ. O João disse [que PRO estava cansado]
 the said that was tired
 “João said that he was tired.” (브라질 포르투갈 어; Rodrigues 2004)
 ㅅ. 철수는 [PRO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고] 결심했다.

- PIC와 부당 이동(improper movement): 통제절이 CP라면 이 CP로부터의 이동은 PIC를 어기거나 부당 이동을 유발하게 된다.
- Boeckx · Hornstein(2006): 자질값이 정해지는 자리(C-T 복합체)가 시제나 ϕ -자질 면에서 불완전(defective)하다면 정형절(=CP)로부터의 주어 추출도 가능하다.

- (38) ㄱ. 아이슬란드어의 통제절은 ϕ -자질만 표시되는 부정사 절이다.
 ㄴ. 히브리어의 통제절은 주어와 3인칭이고 가정법 시제를 가진 절이다.
 ㄷ. 발칸 제어의 통제절은 가정법 시제를 가진 절이다.
 ㄹ. 일본어의 통제절은 과거 시제가 표시될 수 없는 절이다.
 ㅁ. 브라질 포르투갈어의 통제절은 3인칭 단수 주어만 가능한 절이다.
 ㅂ. 한국어는 ... ?

◆ 이동 통제 이론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의미역을 자질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 Hornstein(1999): 의미역을 자질로 간주하는 것이 이상할지 모른다. 명사를 의미역에 의거해서 범주화할 수 없다는 점에서 DP/NP의 자질로 간주하는 것은 잘못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동사(혹은 여타 서술소들)는 자릿수에 따라 분류되는 것이 사실인바, 의미역을 서술소들의 자질로 취급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
- Landau(2003): 자릿수와 의미역-범주화는 같은 말이 아니다. 자릿수가 같은 동사들이 각기 다른 의미역을 부여하기도 하고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동사를 분류하는 데는 의미역의 유사정보보다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의미 접점(semantic interface)에서만 접근 가능한 것으로 여겨져 왔던 모든 의미역 정보가 도출 전체에 걸쳐 접근될 수 있는, 형식 자질 체계에 반영되는 것이 정당한가? 다른 형태론적 자질과 달리 이른바 의미역-자질이란 명백히 관계적(relational)이다.
- Boeckx · Hornstein(2004): 협의 통사부(narrow syntax)에서 작동하는 많은 자질들이 관계적이다(명사구의 격 자질, v/T의 ϕ -자질 등).
- 의미역이 형식 자질 혹은 형태론적 자질이라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이 자질의 점검을 위한 이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39) 최소주의 프로그램에서의 점검

- ㄱ. Chomsky(1993): 형태론적 자질들은 (가능한 한 늦게) 점검되어야 한다. (지연원리, 자질의 강도)
- ㄴ. Chomsky(1995): (강한) 형식자질들은 (도입 즉시) 점검(=삭제)되어야 한다.
- ㄷ. Chomsky(2000): 비해석성 자질들은 점검(=삭제)되어야 한다. (활성화 개념의 도입)
 e.g.) 동사의 ϕ -자질은 비해석성이지만 명사의 ϕ -자질은 해석성 자질이다.
- ㄹ. Chomsky(2001): 비해석성 자질들은 값이 정해지지 않은 자질이다. (자질 값매김 개념의 도입)
- ㅁ. Chomsky(2008): 통사 작용을 유발하는 자질은 일치(agreement)-자질과 가장자리(edge)-자질뿐이다.

● 의미역을 형식 자질로 받아들인다면 어떤 유추에 의해 그 점검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격 자질?

(40) ㄱ. 구조격은 의미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비해석성 자질로 인정될 수 있다.

ㄴ. INFL의 ϕ -자질은 의미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비해석성 자질로 인정될 수 있다.

(41) ㄱ. 비해석성 자질로서 값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동사의 의미역 자질인가, 명사의 의미역 자질인가?

ㄴ. 어떤 동사가 어떤 의미역 틀을 가지는가 하는 것은 어휘 의미론의 핵심으로서 동사의 의미역 자질이 비해석성 자질일 수는 없다.

ㄷ. 논항 명사구는 그 의미역에 의거해서 의미 해석을 받는다. 즉 명사의 의미역 자질도 비해석성 자질일 수는 없다. 의미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고유격은 비해석성 자질로 취급되지 않는다.

(43) 위에 근거할 때 의미역 자질이 점검에 관여한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가정이다.

6. 한국어 통제 구문의 문제

◎ 의무적 통제 구문의 기본 속성

- (42) 선행사의 필수성
내가/²⁷철수가 [PRO 영어를 공부하고] 싶다.
- (43) 최단거리 원리
*철수₁는 순희₂에게 [PRO₁ 영어를 공부하라고] 설득했다.
- (44) 성분-통어 요건
*철수₁의 동생은 [PRO₁ 자기₁를 드러내기]로 결심했다.
- (45) 분리 선행사 금지
*철수₁는 순희₂에게 [PRO₁₊₂ 영어를 공부하라고] 설득했다.
- (46) 불완전 동일성(sloppy identity) 해석
연아₁는 [PRO₁ 올림픽에서 우승을 하고] 싶었고, 마오₂는 [PRO₂ 그랑프리에서 우승을 하고] 싶었다.
- (47) 자아 해석(*de se* reading)
철수는 [PRO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기를] 바라고 있다.
- (48) 공변 해석(covariant interpretation)
철수만이 [PRO 그 문제를 풀려고] 노력했다.

◎ Boeckx · Hornstein(2006): 자질값이 정해지는 자리(C-T 복합체)가 시제나 ϕ -자질 면에서 불완전(defective)하다면 정형절(=CP)로부터의 주어 추출도 가능하다.

◎ Fujii(2006)의 시제 교체 일반화: 종속 시제절의 T가 어떤 환경 E에서 [+past]를 지닐 수 없거나 [-past]를 지닐 수 없으면 이 T는 환경 E에서 [-finite] 자질을 지녀야만 한다.

- (49) ㄱ. Hiroshi-wa [₁ natto-o tabe-ru-koto]-o kessinsita.
-TOP natto-ACC eat-PRS-C-ACC decided
“Hiroshi decided to eat natto.”
ㄴ. *Hiroshi-wa [₁ natto-o tabe-ta-koto]-o kessinsita.
-TOP natto-ACC eat-PAST-C-ACC decided
“Hiroshi decided to eat natto.”

- (50) ㄱ. 철수는 [PRO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결심했다.
ㄴ. *철수는 [PRO 공부를 열심히 했기로] 결심했다.

◎ Fujii(2006): T는 [+finite]일 경우, 그리고 오직 그럴 경우에만 구조격을 부여한다.

☞ 의무적 통제 구문의 이동을 격 점검(+의미역 점검)을 위한 이동으로 환원시킴.

◎ 그러나 한국어는 Fujii(2006)의 시제 교체 일반화에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는다.

- (51) ㄱ. 철수는 [자기가 그 일을 처리하기로] 결심했다.
ㄴ. *철수는 [자기가 그 일을 처리했기로] 결심했다.
- (52) ㄱ. ²⁷/*할아버지께서 [₁ 공원에 가셨던 것] 같으시다.
ㄴ. ²⁷/*할아버지께서 [₁ 공원에 가셨을 수] 있으시다.
ㄷ. *할아버지께서 [₁ 노인교실에 다니시기/*다니셨기] 시작하셨다.

● 그러나 의무적 통제 구문과 올리기 구문들에서 시제 요소의 출현에 제약이 있는 것도 또한 사실이다.

(53) ㄱ. 나는 [PRO 영어를 공부하고/*공부했고] 싶다.

ㄴ. 철수는 순희에게 [PRO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앉았거라고] 설득했다.

ㄷ. 철수는 [PRO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기/*땀기] 바라고 있다.

ㄹ. 철수는 [PRO 그 문제를 풀려고/*풀었으려고] 노력했다.

(54) ㄱ. 할아버지는 [t 노인학교에 다니기/*다니셨기] 시작하셨다.

ㄴ. 철수는 영어가 [PRO t 공부하기/*공부했기] 어렵다.

ㄷ. 철수는 순희를 [t 학교에 다닌다고/*다녔다고] 생각했다.

(55) 자질값이 정해지는 자리(C-T 복합체)가 시제나 ϕ -자질 면에서 불완전(defective)하다면 정형절(=CP)로부터의 추출/의무적 통제가 가능하다.

● (특히 (43)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 이동 통제 이론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 통제 구문 분석의 유력한 대안은 영격 접근법이다. 이동 통제 이론보다 영격 접근법을 택하는 것이 좋다는 독립적인 증거가 있는가?

(56) ㄱ. *선생님들이 [PRO 학교에 세 분이 남기를] 원하셨다.

ㄴ. 철수는 선생님들을 [t 학교에 세 분이 남는다고] 생각했다.

(57) ㄱ. *이장은 종지기에게 [PRO 딸이 종을 치라고] 요청했다.

ㄴ. 이장은 종지기를 [t 딸이 종을 친다고] 믿었다.

(58) ㄱ. *[PRO 세 명이 행진하면서] 학생들이 풍악을 연주했다.

ㄴ. [PRO 행진하면서] 학생들이 풍악을 연주했다.

(59) ㄱ. 순희는 철수에게 손이/손을 잡혔다.

ㄴ. *순희는 [PRO 철수에게 손이 잡히고] 싶었다.

ㄷ. 순희는 [PRO 철수에게 손을 잡히고] 싶었다.

● (56)-(59)에서 주격 DP/NP와 NQ들은 영격이 부여되는 절 안에 있으므로 배제된다.

(60) ㄱ. 철수가 책상을 창고에서 다리를 고쳤다.

ㄴ. *철수가 책상을 창고에서 다리 고쳤다.

ㄷ. *철수가 책상 창고에서 다리를 고쳤다.

● 어떤 명사구가 관련 명사구/양화사구를 가졌을 때 전자가 외현적으로 격-표시되지 않으면 후자도 외현적으로 격-표시될 수 없다.

(61) ㄱ. 선생님들이 [PRO 학교에 세 분 남기를] 원하셨다.

ㄴ. *이장은 종지기에게 [PRO 딸 종을 치라고] 요청했다.

ㄷ. *종지기(가) 딸 종을 친다.

● (61_ㄴ)이 좋지 않은 이유는 (62_ㄴ)이 좋지 않은 이유와 같으리라고 볼 수 있다.

(62) ㄱ. 형제는 부모를 서로가 돕기로 결심했다.

ㄴ. 형제는 부모를 서로 돕기로 결심했다.

- (63) ㄱ. 철수는 그 일을 스스로가 하기로 결심했다.
 ㄴ. 철수는 그 일을 스스로 하기로 결심했다.

● (62 ㄱ)과 (63 ㄱ)의 문법성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 (64) ㄱ. 형제는 부모를 서로가 돕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형제 각각은 상대방의 결심을 몰랐다.
 ㄴ. 형제는 부모를 서로 돕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형제 각각은 상대방의 결심을 몰랐다.
 (65) ㄱ. *순희의 설득 때문에 철수는 그 일을 스스로가 하기로 결심했다.
 ㄴ. 순희의 설득 때문에 철수는 그 일을 스스로 하기로 결심했다.
 (66) ㄱ. 형제는 부모를_i 서로가 [PRO t_i 돕기로] 결심했다.
 ㄴ. 철수는 그 일을_i 스스로가 [PRO t_i 하기로] 결심했다.

◆ Takano(2010)의 일본어 데이터와 유사한 한국어 예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 (67) ㄱ. 대학교 한 곳에 그 곳의 졸업생들이 지원하려고 노력한다.
 ㄴ. 철수에게 자기 아들이 효도를 하려고 노력한다.

● (변항 결속을 비롯하여) 결속은 통제와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

<참고문헌>

- Bobaljik, J. D. and Idan Landau. 2009. Icelandic control is not A-movement: The case from Case. *Linguistic Inquiry* 40:113-132.
- Boeckx, C. and N. Hornstein. 2003. Reply to "Control is not movement." *Linguistic Inquiry* 34:269-280.
- Boeckx, C. and N. Hornstein. 2004. Movement under control. *Linguistic Inquiry* 35:431-452.
- Boeckx, C. and N. Hornstein. 2006. Control in Icelandic and theories of control. *Linguistic Inquiry* 37:591-606.
- Boeckx, C., N. Hornstein and J. Nunes. 2010. Icelandic control really is A-movement: Reply to Bobaljik and Landau. *Linguistic Inquiry* 41:111-130.
- Brody, M. 1999. Relating syntactic elements: Remarks on Norbert Hornstein's "Movement and chains." *Syntax* 2:210-226.
- Chomsky, C. 1969. *The acquisition of syntax in children from 5 to 10*. Cambridge, Mass.: MIT Press.
- Chomsky, N.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 Foris.
- Chomsky, N. 1993. A minimalist program for linguistic theory. In *The view from Building 20: Essays in linguistics in honor of Sylvain Bromberger*, ed. K. Hale and S. J. Keyser, 1-52. Cambridge, Mass.: MIT Press.
- Chomsky, N. 1995. *The minimalist program*, 219-394. Cambridge, Mass.: MIT Press.
- Chomsky, N. 2000. Minimalist inquiries: The framework. In *Step by step: Essays on minimalist syntax in honor of Howard Lasnik*, ed. R. Martin et al., 89-155. Cambridge, Mass.: MIT Press.
- Chomsky, N. 2001. Derivation by phase. In *Ken Hale: A life in language*, ed. M. Kenstowicz, 1-52. Cambridge, Mass.: MIT Press.
- Chomsky, N. 2008. On phases. In *Foundational Issues in Linguistic Theory: Essays in Honor of Jean-Roger Vergnaud*, ed. R. Freidin et al., 133-166.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 Chomsky, N. and H. Lasnik. 1993. The theory of principles and parameters. In *Syntax: An international handbook of contemporary research*, ed. J. Jacobs et al., 506-569.
- Courtenay, K. 1998. Summary: Subject control verb PROMISE in English. <http://linguist.org/issues/9/9-651.html>.
- Culicover, P. W. and R. Jackendoff. 2001. Control is not movement. *Linguistic Inquiry* 32:493-512.
- Fujii, T. 2006. Some theoretical issues in Japanese control.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 Hornstein, N. 1999. Movement and control. *Linguistic Inquiry* 30:69-96.
- Landau, I. 2003. Movement out of control. *Linguistic Inquiry* 34:471-498.
- Landau, I. 2004. The scale of finiteness and the calculus of control.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22:811-877.
- Martin, R. 2001. Null case and the distribution of PRO. *Linguistic Inquiry* 32:141-166.
- Polinsky, M. and E. Potsdam. 2002. Backward control. *Linguistic Inquiry* 33:245-282.
- Rodrigues, C. 2004. Impoverished morphology and movement out of case-domains.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ryland, College Park.
- Rosenbaum, P. 1967. *The grammar of English predicate complement constructions*. Cambridge, Mass.: MIT Press.
- Sigurðsson, H. Á. 1991. Icelandic Case-marked PRO and the licensing of lexical arguments.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9:327-363.
- Stowell, T. 1982. The tense of infinitives. *Linguistic Inquiry* 13:561-570.
- Takano, Y. 2010. Scrambling and control. *Linguistic Inquiry* 41:83-110.

中央語文學會 第24次 全國學術發表會

인 쇄 2010년 8월 18일

발 행 2010년 8월 20일

편 저 자 중앙어문학회

E-mail : nightty211@hanmail.net

홈페이지 : <http://cakoll.or.kr>

펴 낸 곳 이진문화사

주 소 : 서울 동작구 흑석동 190-42

전 화 : (02)814-0159

<비 매 품>

